전 세계 로동자들은 단결하라!

1 호 1월 5일

평양 근로자사 1966

1966·1-6

제 1 호(287)

1966년 1월(상)

전 세계 로동자들은 단결하라!

조선 로동당 중앙 위원회

기 관 지

(반 월 간)

차 례

사회주의 건설과 나라 살림살이

우리 나라 인민 경제 발전은 계속 높은 속도를 유지하고 있다. 나라의 생산력이 더욱 장성하고 있으며 사회주의적 생산 관계가 더한층 공고화되고 있다. 이제 우리는 새로운 결의 밑에 7 개년 계획 수행에서 결정적 의의를 가진 새해에 들어 섰다. 우리는 사회주의 건설에서 모든 일을 더 잘 하고 더 다그쳐야 한다. 해가 바뀔수록, 남조선의 해방과 조국 통일을 촉진할 과업은 더욱 절박하게 나서고 있다.

이러한 환경에서 우리 당은 최근 시기 나라의 살림살이를 알뜰하게 꾸릴데 대한 문제를 특별히 중요하게 제기하고 있다.

그러면 나라 살림살이를 꾸린다는 것은 무슨 문제이며 어떤 의의를 가지는가? 그것이 오늘 특별히 중요하게 제기되는 것은 무엇 때문이며 그것을 잘 하자면 무엇이 요구되는가?

나라의 살림살이를 꾸린다는 것은 사회주의 건설에서 필연적으로 제기되는 과업이며 사회주의 하에서는 지도 일'군들과 모든 근로자들이 나라 살림살이의 주인이다. 우리들은 모두가 이 문제에 대한 리해를 명확히 하고 옳바른 태도를 가짐으로써 각자가 자기의 임무를 다하여야 할 것이다.

1. 나라 살림살이를 꾸리는 것은 사회주의 건설에서 필연적으로 제기되는 문제이다

살림살이, 세간살이라고 하면 이것은 원래 개인 즉 한 가정의 살림살이를 두고 하는 말이다. 여기로부터 우리는 나라의 살림살이, 국가 세간살이에 대하여 말하게 되였다.

우리 당 창건 20 주년 경축 대회에서 한 보고에서 김 일성 동지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였다: 《국가와 사회의 재부를 계속 증대시키는 것과 함께 이미 창조하여 놓은 재부를 애호하며 모든 살림살이를 알뜰하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우리는 공장, 기업소, 철도, 차량, 항만, 선박, 관개 시설들과 학교, 병원, 구락부, 공공 건물, 주택 그리고 또한 농경지, 산림, 하천, 도로 등 모든 것을 애호하고 잘 관리하며 그것들이 우리 인민의 복리를 위하여 효과 있게 리용되도록 하여야 한다》. 또 다른 기회에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였다: 《우리 사회에서는 전체 근로자들이 나라 살림살이의 진정한 주인이다. 근로자들이 나라의 살림살이를 주인답게, 알뜰하게 하면 나라를 부강하게 만들고 자기들의 생활을 높일 수 있으며 나라의 살림살이를 남의 일처럼 되는 대로 하면 나라를 부강하게 만들 수도 없고 자신들이 잘 살 수도 없다》.

이 교시들에서 보는 바와 같이 국가의 재부를 증대시키는 것과 함께 나라의 살림살이를 알뜰하게 꾸리는 것은 나라의 부강 발전, 인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중요한 문제로 된다.

나라의 부강 발전과 인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일차적이며 결정적인 의의를 가지는 것은 생산을 장성시키는 것 즉 국가의 재부를 증대시키는 것이다. 생산의 부단한 장성에 기초하여 인민의 수요를 최대한으로 충족시키는 것은 사

회주의 경제 발전의 기본 법칙이다. 사회주의 하에서 생산의 목적은 인민의 생활 향상, 그들의 복리 증진에 있다. 그러나 생산만 하면 반드시 인민이 그만큼 잘 살게 되는 것은 아니다. 아무리 많이 건설하고 생산한다 하여도 나라 살림살이를 잘못한다면 생활이 그만큼 높아질 수 없다. 이미 생산된 재부와 나라의 모든 부원을 가지고 인민 생활을 얼마나 향상시키며 확대 재생산을 얼마나 순조롭게 하는가 하는 것은 전'적으로 나라 살림살이를 잘 하는가 못 하는가에 달려 있다.

이리 하여 나라의 살림살이를 알뜰하게 꾸린다는 것은 인민의 복리 증진과 생산의 발전을 위하여 국토와, 부원과, 창조된 모든 재부를 애호 절약하며 잘 관리하며 최대한 합리적으로 리용하는 것을 의미하며 나라 살림살이를 경제적으로, 문화적으로 해 나간다는 것을 의미한다.

나라의 살림살이를 꾸리는 것은 그 내용으로 보아 생산, 분배, 류통, 소비 등 경제 활동의 전 과정에 관계되는 문제이다.

생산 과정에서 설비, 자재, 원료, 로력, 토지, 농기계, 역축 기타 생산 시설들을 애호 관리하며 합리적으로 리용하여 기업의 수익성을 높이기 위해 투쟁하는 것으로부터 생산된 재부를 축적과 소비, 공업과 농업 및 그 매개 부문들의 발전을 위하여 어떻게 분배하며 어떻게 교환하고 류통시키는가 그리고 재부와 로력을 어떻게 랑비 없이 효과적으로 소비하며 리용하는가 하는 것은 나라 살림살이를 꾸리는 데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내용을 이룬다. 나라 살림살이가 건전하게 되자면 우선 축적의 장성에 선차적인 관심을 돌려야 한다. 생산된 재부 중에서 무엇을 얼마나 수출하며 어떤 것을 얼마나 수입하는가 혹은 외화를 어떻게 획득하고 어떻게 리용하는가, 국내 상업에서 상품 배정을 어떻게 하고 수송을 어떻게 조직하며 보관 관리를 잘 하는가 못 하는가, 이미 있는 물자를 가지고 주민들의 수요를 제때에 골고루 충족시키는가 못 하는가, 일상 생활에서 국가 및 공동 소유를 애호하고 물자를 절약하는가 안 하는가, 이 모든 것이 나라 살림살이에서 중요한 문제로 된다. 뿐만 아니라 생산 및 인민 생활의 기초의 기초로 되는 국토를 잘 보호 관리하며 더욱 아름답고 쓸모 있게 문화적으로 건설하는 사업들이 또한 나라 살림살이의 중요한 내용으로 된다.

이상의 모든 경제 활동은 국가의 계획화 사업을 통하여 실현된다. 나라 살림살이는 전 국가적 범위에서와 매개 사업 단위에서 계획적으로 꾸려져야 하는 일이다. 계획화 사업에서 당 정책과 사회주의 경제 법칙들의 요구가 잘 준수되는가 못 되는가, 나라의 실정이 정확히 타산되고 반영되는가 못 되는가 하는 것은 생산의 발전과 인민 생활의 향상을 위하여 제일차적 의의를 가진다. 그러므로 계획화 사업은 나라의 살림살이를 알뜰하게 꾸리는 데서 출발점으로 되는 극히 중요한 자리를 차지한다.

이와 같이 나라의 살림살이를 알뜰하게 꾸리는 것은 생산을 발전시키고 국가의 재부를 증대시키는 것과 함께 사회주의 기본 경제 법칙의 요구를 실현하기 위한 투쟁의 필수적인 임무로 된다.

다음으로 나라의 살림살이를 꾸리는 것은 누가 담당하는 일인가 하는 견지에서 볼 때 그것은 우선 국가의 전문적 지도 관리 일'군들이 책임지는 사업이며 동시에 전체 근로자들이 다 자각적으로 참가해야 하는 일이다.

우리 제도 하에서는 전체 근로자들이 다 나라와 생산 수단의 주인이며 따라서 생산을 관리하며 나라 살림살이를 꾸리는 것도 응당 모든 근로자들 자신의 일로 되어야 한다. 그러나 국가와 경제를 지도 관리하는 것은 높은 책임성과 전문적 지식과 기능을 요하는 사업으로서 사회주의 단계에서는 불가피

하게 전문적 지도 관리 일'군들에게 위임된다. 이리 하여 인민 경제에 대한 《지도 관리》—이것은 생산 또는 생산력을 발전시키기 위한 사업이자 동시에 나라의 살림살이를 꾸리기 위한 사업으로 된다. 례컨대 생산 조직, 자재 보장, 기술 관리, 로동 조직 등은 주로 전자의 기능에 속한다고 볼 수 있지마는 《지도 관리》 기능에서 생산을 장성시키기 위한 사업과 살림살이를 잘 꾸리기 위한 사업은 불가분적으로 련결되여 있으며 융합되여 있다. 가령 계획화 사업이나 로동행정 사업에는 생산을 발전시키기 위한 기능과 나라 살림살이를 꾸리기 위한 기능이 불가분적으로 융합되여 있다. 또한 생산자 대중의 활동에 있어서도 나라 살림살이를 꾸리기 위한 관심과 행동은 생산을 위한 투쟁과 완전히 구별하기는 어렵다.

나라의 부강과 전체 인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나라의 살림살이를 꾸리는 것은 오직 사회주의의 조건 하에서만 제기될 수 있고 또 필연적으로 제기되는 문제이다.

나라와 생산 수단의 주인으로 된 로동 계급과 전체 인민이 사회주의의 물질·생산적 토대를 축성하고 이를 부단히 확대 강화하는 동시에 창조된 재부와 나라의 일체 부원을 아끼고 잘 관리하며 절약하고 효과적으로 리용하는 것은 사회주의 제도의 본성, 사회주의 건설의 목적으로부터 흘러 나오는 합법칙적 요구이다. 전체 사회 성원의 부유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창조하기 위해서는 결국 자연에 대한 지배를 고도로 강화하는 동시에 모든 면에서 사회적 로동을 최대한으로 절약하여야 한다. 이것은 결국 생산을 발전시키며 사회적 로동 생산 능률을 제고하는 데 귀착되며 중요하게는 나라의 살림살이를 알뜰히 꾸리기 위한 투쟁을 통해서 해결된다.

나라 살림살이를 꾸리는 것은 사회주의 하에서 개인의 살림살이와 밀접히 련결되여 있다. 국가의 살림살이가 잘 되여야만 개인의 살림살이가 유족하고 문화적으로 될 수 있으며 매 개인이 자기 살림살이를 알뜰하게 하는 것은 전 국가의 살림살이에 좋은 영향을 준다.

2. 나라 살림살이를 알뜰하게 꾸리는 것은 자력 갱생하는 우리 인민의 긴절한 과업이다

생산력을 장성시키며 나라의 살림살이를 잘 꾸리여 인민의 부유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창조하는 것—이것은 어디까지나 혁명하는 인민 자체의 사업이다. 그러므로 나라 살림살이를 알뜰하게 꾸리는 것은 생산을 발전시키는 것과 함께 자력 갱생의 립장에서 사회주의를 건설하는 인민에게 있어서 필수적이고도 긴절한 과업이다.

사회 경제적으로, 기치적으로 매우 어려운 조건에서 사회주의의 길에 들어선 우리 당과 인민에게 있어서 자력 갱생의 원칙을 관철하는 문제는 사활적인 의의를 가지고 있으며 따라서 나라 살림살이를 알뜰하게 꾸리는 문제도 처음부터 중요하게 나서지 않을 수 없었다.

우리는 원래 생산력 발전의 낮은 수준을 넘겨 받았으며 인구에 비하여 땅은 좁고 게다가 남북이 분리되여 막대한 전쟁 피해를 입었다. 우리는 적들의 새 도발을 반대하여 부단히 국방력을 강화하여야 하며 나라를 통일하고 장차 남조선의 파괴된 경제를 복구 건설하기 위해서도 많은 밑천을 마련하여야 한다.

그러니 만큼 우리에게는 많이 건설하고 생산하는 동시에 나라 살림살이를 알뜰하게 하는 문제가 특별히 중요하다.

우리 당은 주체의 립장, 자력 갱생의 립장에서 일찍부터 나라 살림살이를 알뜰하게 꾸리는 방향에서 우리 인민의 경제 건설, 경제 생활을 지도하여 왔다. 국토를 애호하고 치산 치수를 잘 하여 산림과 토지를 보호 확장하며, 산을 낀 데서는 산을, 바다를 낀 데서는 바다를 극력 리용하도록 하였으며 한 줄기의 강물도 거저 흘러 가게 한 것이 아니라 모두 막아서 관개도 하고 전력도 생산하며 양어도 하고 풍치도 좋게 하며 조국 산천을 진정 금수 강산으로, 지상 락원으로 꾸리는 방향에서 국토를 건설하고 있다. 또한 우리 나라에 있는 것을 가지고 공업과 농업을 발전시키며 우리에게 없는 원료는 있는 것을 리용하여 공업적 방법으로 생산하도록 하며 모든 가능성을 동원 리용하여 지방 공업을 발전시키며 수출 원천을 백방으로 탐구하고 증대시키며 외화를 극력 절약하도록 하는 등등으로 나라의 살림살이를 알뜰하게 꾸리는 데 커다란 관심을 돌려 왔다.

그러나 지난 시기에는 무엇보다도 생산 관계의 사회주의적 개조, 인민 경제의 복구, 민족 경제의 자립적 토대 축성의 과업들이 전면에 나서 있았고 인민 경제의 규모도 그리 크지 않았으며 따라서 나라의 살림살이도 그리 복잡하지 않고 그리 어렵지 않았다.

오늘에 와서는 문제가 다르다. 사회주의 제도가 전면적으로 승리한 기초 우에서 민족 경제의 자립적 토대, 나라의 공업화의 토대를 축성하는 력사적 과업이 해결되였다. 우리는 이미 많은 것을 건설하여 놓았으며 인민 경제의 규모는 방대하여졌다. 매개 부문, 매개 단위의 규모가 커지고 그 내부의 사업이 훨씬 더 복잡해졌으며 부문들 호상간의 련계가 고도의 긴밀성을 요하게 되였다. 이리 하여 레닌이 말한 바와 같은 전체 인민의 《생존에 필요한 생산 및 분배를 포함하는 조직적 제 관계의 그물》이 썩 《복잡하고 미묘하게》 되였다. 인민 경제의 관리 운영은 높은 조직 지도 수준을 요하게 되였으며 전진 속도는 중요하게 관리 운영 수준 여하에 의존하게 되였다.

오늘 우리에게는 지도 관리 일'군들이 나라 살림살이에 좀더 머리를 쓰고 궁리를 잘 하여 조직 사업, 계획 사업을 개선하며 전체 근로자들이 더한층 애국주의를 발휘한다면 건설 사업을 더 빨리 추진시켜 자금을 숙히 뽑아 낼 수 있고 이미 건설해 놓은 것, 이미 있는 물질 기술적 토대를 가지고도 생산을 정상화하여 공업과 농업에서 훨씬 더 많은 것을 생산할 수 있으며 생산되는 것만 가지고도 더 잘 살 수 있는 여지가 얼마든지 있다. 노는 설비, 사장된 설비들을 다 가동하게 한다면 더욱 그러할 것이다. 생산에서, 류통에서, 소비에서 절약 투쟁을 강화하고 로동 행정 사업을 개선하는 것만으로도 생산을 더욱 급속하게 발전시키고 인민들의 생활 수준을 더 높일 수 있는 가능성은 실로 크다.

우리가 조직 사업을 잘 하고 랑비 현상을 근절하여 외화 소비를 절약한다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더 많이 사 올 수 있고 식료품과 경공업 제품들에 대한 우리 인민의 수요를 더 원만히 충족시킬 수 있다.

오늘 나라 살림살이를 잘 하는가 못하는가 하는 것은 생산의 가일층 급속한 장성을 위해서나, 인민 생활의 향상을 위해서나 결정적 의의를 가지는 문제로 되여 있다. 우리는 이 문제도 잘 해결하여야만 혁명의 주인으로서 자력 갱생의 임무를 더욱 훌륭히 수행하게 되는 것이다. 자력 갱생의 임무를 잘 수행하여 민족적 자립, 자위의 능력을 제고하는 것은 주체를 확립함에 있어서의 주요한 일면이다. 그러므로 나라의 살림살이를 알뜰하게 꾸리는 것은 현 시기 우리 혁명 수행에서 주체를 확립하고 주인의 역할을 원만히 수행하기 위한 투쟁에서 중심 문제의 하나로 된다.

이것은 오늘 일시적으로 강조되는 문

제가 아니다. 앞으로 사회주의 건설이 진척될수록 나라의 살림살이를 꾸리는 것은 경제적, 정치적으로 계속 중요한 의의를 가지며 꾸준하고 장기적인 투쟁을 요하는 문제로 나서게 된다.

나라의 살림살이를 알뜰히 하는 문제—이것은 또한 정치 도덕적 의의도 가지고 있다. 우리의 국토와 부원과 오늘의 모든 재부에는 선조들과 혁명 선배들의 고귀한 피와 땀이 스며 있다. 이것을 아끼고 잘 관리하며 잘 리용하며 나라를 더 부강하게 하고 인민을 더 잘 살게 하는 것은 선배들의 혁명 업적을 계승 발전시키고 그이들의 기대와 희생과 피어린 투쟁에 보답하는 길이며 수천 년간 압박 받고 가난하게 살아 왔으며 제 나라 제 땅에서 주인 노릇을 해 보지 못한 선조들의 숙망을 해결하는 길이며 후대들에게 보다 아름답고 살기 좋은 조국을 물려 주기 위한 사업으로도 된다.

3. 나라 살림살이와 일'군들의 사상 문제

나라의 살림살이를 알뜰하게 하자면 우선 일'군들과 전체 근로자들의 사상 문제가 해결되어야 한다. 특히 지도 일'군들이 로동 계급의 혁명적 사상으로, 나라와 혁명의 주인이라는 자각으로 철저히 무장하는 것이 선결 문제로 된다.

나라의 살림살이는 누구보다도 지도 일'군들이 책임져야 하는 사업이다. 모든 분야에 걸쳐 당의 로선과 정책은 간부들의 조직 지도 사업을 통하여 관철된다. 크고 작은 매개 사업 단위, 매개 사업 부문에서 나라 살림살이가 알뜰하게 꾸려질 때 비로소 전 국가적 범위에서 일이 잘 되여 나간다. 매개 단위, 매개 부문에서 일이 잘 되고 못 되는 것은 무엇보다도 지도 일'군들의 사업 여하에 달려 있다.

국가 경제 사업, 나라 살림살이에 있어서 일'군들의 사업 성과는 첫째로, 그들의 사상 의식 수준, 그들의 당성, 계급성, 인민성의 높이에 따라 결정된다.

혁명의 주인이라는 자각 밑에 나라 살림살이에서 책임성과 자력 갱생의 정신을 높이 발양하는 것은 지도 일'군들의 당성, 계급성, 인민성의 중요한 표현이다. 로동 계급을 비롯한 전체 근로 인민을 공산주의 실현에로 이끄는 것—이것이 로동 계급의 사명이며 목적인데 나라의 살림살이를 알뜰하게 꾸리는 것은 바로 이 사명, 이 목적을 위하여 복무하려는 사상의 표현이며 당과 계급과 인민의 리익에 대한 충실성의 뚜렷한 표현이다.

나라 살림살이에서 당성, 계급성, 인민성을 발휘하는 것은 쉽고도 어려운 일이며 꾸준한 사상 수양과 사상 투쟁을 필요로 한다. 나라의 살림살이를 꾸리는 일이란 한 알의 쌀, 한 그람의 철을 아끼는 단순하고도 중요한 일이며 매개 사업 단위와 전 국가적 범위에서 모든 조건들을 조사 장악하고 타산하며 궁리하며 조직하는 복잡하고도 중대한 사업이다. 그것은 대적 투쟁이나 생산 투쟁에서와 같이 용감성과 영웅성으로 해결되는 것이 아니며 매일 매일의 성과가 직접 평가되고 보수가 동반되는 일도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만약 진정으로 나라의 주인이라는 자각, 조국과 인민을 위해 복무하며 헌신하려는 혁명적 의식이 없이 자기 자리나 지키고 하루 하루를 지내려는 정신으로 일하거나 《공명》과 《승진》을 위해 일한다면 나라 살림살이를 꾸리는 데서 무책임성과 무관심성, 형식주의와 기관 본위주의 등 질병이 만성으로 될 수 있다.

이러한 질병은 지도 일'군들이 특히 생산 기관의 높은 책임적 지위에 있을수록 조국과 인민에 엄중한 손실을 끼칠 수 있다. 과거에 나라의 살림살이가 고도로 째여지지 않았을 때에는 이러한 질병이 묵과될 수도 있었고 지어는

건연 드러나지 않을 수도 있었다. 그러나 오늘날 혁명 발전의 요구, 사회 발전의 요구는 이러한 병'집을 더는 묵과하지 않는다. 우리의 모든 사업은 나라를 통일하고 전 조선 땅 우에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훌륭히 건설하자는 데 목표를 두고 있다. 우리 공산주의자들의 이 기본 목표는 지도 일'군들과 근로자들의 매일 매시의 사업과 투쟁에 의하여 일보 일보 해결되여 나간다. 만약 일'군들의 머리 속에 이 목표에 대한 생각이 확고하게 자리 잡고 있지 않을 때 그 일이 옳바로 될 수 없다는 것은 명백하다.

지도 일'군에게 있어서나 생산자 대중에게 있어서를 막론하고 나라 살림살이에 대한 진정으로 주인다운 태도는 일신의 안온한 생활이나 《공명》에 대한 생각이 없는, 공산주의적 세계관에 기초한 높은 계급적 각성을 전제로 하며 당과 혁명의 리익, 국가와 인민의 리익에 대한 무한한 충실성을 전제로 한다. 이것이 곧 높은 당성이며, 계급성이며, 인민성이다. 이것을 위한 부단한 수양과 사상 투쟁이 있고, 지속적으로 발현되는 당성, 계급성, 인민성이 있는 때 나라 살림살이에서 형식주의와 고용살이 근성, 되는 대로 하는 습성은 극복될 수 있다.

일'군들이 나라 살림살이에 대한 관심을 당과 인민 앞에 지닌 책임으로, 혁명 선렬들과 후손들에 대한 숭고한 의무로 간주하며 공산주의자의 긍지로 느끼게 될 때 일을 되는 대로, 형식적으로 처리할 수는 없을 것이니, 단위 책임자라면 자기의 지시 하나가 어떻게 되는가, 계획 일'군이라면 자기들이 놀리는 붓끝 하나가 어떻게 되는가에 따라 국가와 인민이 막대한 리익을 볼 수도 있고 그 만큼 손실을 볼 수도 있다는 것을 항상 생각하게 될 것이다.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그 제도 자체의 본성으로 말미암아 막대한 사회적 랑비가 불가피하지만 자본가들 개인은 자기 경리에서 푼전을 아끼고 따지며 절삭밥 한 오리를 아까와할 뿐 아니라 절삭밥이 많이 나게 하는 것에 대해서부터 몹시 신경을 쓴다.

이것은 물론 자기 자신의 최고 리윤을 위한 일이며 로동자들을 희생으로 하는 일이다. 우리는 어떤 개인의 리익이 아니라 바로 국가와 인민의 복리라는 숭고한 목적을 위하여 일한다. 그러니 만큼 우리 일'군들은 응당 십 배, 백 배로 더 따지고 절약하며 수익성을 높이는 데 관심할 줄 알아야 할 것이다. 이러한 높은 당성, 계급성, 인민성이 발휘되는 데서만 사회주의의 거대한 우월성이 유감 없이 발양될 수 있다.

이리 하여 나라 살림살이에 대한 책임성과 충실성은 무엇보다도 인민들의 생활 향상에서 표현되여야 한다.

매개 사업 단위에서 나라 살림살이를 알뜰하게 꾸리는 것은 기관 본위, 자기 본위적 경향과는 하등의 공통성도 없다. 이러한 경향은 리기주의의 표현이며 국가 사업 전반에 해독을 끼치는 것이지만 자기가 맡은 나라 살림살이에 대한 관심은 당과 국가의 리익에 대한 충실성, 애국주의와 집단주의 정신을 전제로 한다.

나라 살림살이를 꾸리는 데 있어서 첫째로 중요한 것은 지도 일'군들의 역할이지만 그것은 지도 일'군들만으로써 되는 일이 결코 아니다. 나라의 주인인 전체 근로자들이 자기 초소, 자기 사업, 자기 생활에서 다같이 관심하고 실천해야만 하는 일이다. 우리 근로 인민이 참말로 자기 운명의 주인답게 살게 되자면 착취자들이 없는 사회 제도를 수립하여 놓은 것만으로는 부족하며 나라를 보위하고 물질적, 문화적 부를 창조하는 데서 애국주의와 헌신성을 발휘하는 것만으로도 부족하다. 나라와 생산 수단의 주인답게 살자면 주인의 역할을 다할 줄 알아야 하는바 그러자면 나라의 살림살이를 꾸리는 데도 적극

적으로 관심하고 참가하여야 한다.

김 일성 동지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였다: 《매 사람이 국가 경리와 공동 경리의 발전에 깊은 관심을 돌려야 하며 나라의 크고 작은 모든 재부를 잘 거두고 아껴 쓰며 그것들이 인민의 복리 향상을 위하여 가장 효과적으로 리용되도록 하기에 힘써야 한다》(《사회주의 로동 청년 동맹의 과업에 대하여》).

사회주의 건설이 진척되면 될수록 보다 광범한 근로자 대중, 나아가서 전체 근로자들이 경제 관리, 나라 살림살이에 적극적으로, 자각적으로 참가하는 것이 요구되는바 이것은 사회주의 사회 발전의 합법칙적 추세이다.

레닌은 《공산주의는 만난을 무릅쓰고 헌신적으로 로동 생산 능률을 제고하며 한 뿌드의 곡물, 석탄, 철 및 기타의 생산물—로동하는 사람 및 개인이나 그에게 〈가까운 사람들〉의 것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먼 사람들〉 즉 사회 전체의…것으로 되는 생산물—을 애호하려는 보통 로동자들의 배려가 나타나는 곳에서 시작된다》(레닌 전집 제 29 권, 512～513 페지)고 말하였는데 나라의 살림살이는 지도 일'군들 뿐만 아니라 보통 로동자, 농민, 사무원들의 이와 같은 배려가 나타나는 데서만 알뜰하게 꾸려질 수 있다.

그러면 로동자, 농민, 사무원들의 사상 의식 수준, 계급적 각성을 제고할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가? 그것도 전'적으로 지도 일'군들에게 있다. 지도 일'군들은 군중을 교양하고 그들의 의식성을 제고하는 데 항상 적극적인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야 하며 생산의 목적은 《계획을 달성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인민의 소비에 있다는 것을 철저히 인식시켜야 한다. 이렇게 하지 않고 생산자 대중의 계급적 각성이 미약한 때에는 간부들이 아무리 궁리를 잘하고 조직 사업을 잘 한다 할지라도 생산 행정에서의 랑비와 무책임성을 퇴치 못할 것이다. 간부들이 혁명적 사상으로 무장하는 것은 근로 대중을 교양하기 위해서도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4. 나라 살림살이와 사업 수준 문제

나라의 살림살이를 알뜰히 꾸리는 데서 결정적 의의를 가지며 출발점으로 되는 것은 물론 사람들의 사상 의식이며 당성, 계급성, 인민성이다. 그러나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다. 실천 활동에서의 사람들의 당성, 계급성, 인민성의 발현은 그들의 사업 수준에 의하여 적지 않게 좌우된다.

나라의 살림살이를 잘 꾸리는 데는 사람들이 마음만 먹으면 별로 힘을 들이지 않고도 할 수 있는 간단한 일들도 많지마는 높은 사업 수준이 요구되는 복잡하고 힘든 사업도 허다하다. 례컨대 공장, 기업소와 농장들에서 근로자들이 기계와 도구를 소중히 다루고 원료와 기타 물자를 아껴 쓰는 데는 다만 성의만 있으면 된다. 그러나 기업소, 농장 등 한 개 단위의 사업 전반을 장악하고 살림살이를 잘 꾸리자고 하면 여기서는 벌써 사업 수준이 문제로 된다. 나아가서 인민 경제의 모든 활동을 지도 관리하는 지방과 중앙의 국가 경제 기관 일'군들로서 그 사업 범위가 넓고 책임이 무거우면 무거울수록 일은 더욱 복잡해지며 따라서 살림살이를 꾸리는 데 보다 높은 사업 능력, 보다 능숙한 사업 방법이 요구된다.

일반적으로 말해서 나라의 살림살이

를 잘 하자면 높은 정책적 안목이 있어야 하며 과학적 타산의 능력이 필요하며 능숙한 조직적 수완과 사업 방법이 요구된다.

인민의 복리 증진에 대한 배려는 우리 당 활동의 최고 원칙이다. 이 원칙을 관철하려면 무엇보다도 당의 계급 로선과 군중 로선을 통일적으로 구현하는 립장에 확고히 서서 사고하고 판단할 줄 아는 정책적 식견 또는 안목이 요구된다.

당의 로선과 정책은 언제나 인민의 리익을 옹호하며 도모하는 데로 돌려지고 있다. 그러나 이것은 로동 계급의 계급적 립장, 령도적 지위를 공고히 하면서 대중을 당의 주위에 묶어 세우는 조건하에서만 가능하다. 당의 정책은 이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에 대한 식견이 확고할 때라야 나라의 살림살이를 당의 의도와 국가의 요구에 맞고 인민의 리익에 맞게 처리할 수 있다. 그리고 일'군들은 당 정책의 요구, 당의 의도를 본질적으로 리해할 줄 알며 모든 문제에 대하여 주견을 가지고 자립적으로 판단할 줄 알아야만 당이 이것을 강조하면 저것을 잊어 버리고 저것을 강조하면 이것을 잊어 버리는 일이 없어질 것이다.

나라의 살림살이를 잘 꾸리는 데는 또한 경제적으로 타산할 줄 아는 것이 필요하다. 주어진 재부와 민천을 가지고 효과 있게, 은이 나게 리용하여 나라에 더 많은 리익을 주고 인민들의 생활을 더욱 빨리 높이자고 하면 객관적 정세와 조건을 과학적으로 료해하고 그에 기초해서 경제적 리해를 계산하고 타산하는 사업 태도, 사업 능력이 있어야 한다. 이것이 없이 주관적인 충실성 하나만으로는 주관주의와 형식주의를 완전히 퇴치할 수 없다.

공장과 농장, 도시와 농촌의 크고 작은 모든 사업 단위들에서 나라 살림살이를 잘 하자면 능숙하고 민활한 조직적 수완과 사업 방법이 필요하다. 매개 단위에서 살림살이를 꾸리는 문제는 경제 활동의 모든 환절에 관련되는 것이며 특히는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인 생산 사업과 밀접하게 엉키여 있는 것으로 하여 치밀한 타산과 함께 여러 가지 요인들을 옳게 결합하며 중심 고리에 력량을 집중하며 모든 가능성을 제때에 포착하고 동원 리용하는 능란한 방법과 수완이 있어야만 원만히 해결할 수 있다.

그런데 우리 일'군들과 근로자들에게는 과거에 국가 관리, 경제 관리에 참가해 본 경험이 없었다. 근로자들이 나라와 경제를 관리 운영하는 지식과 기능과 그에 대한 관심을 가질 수 없게 한 것은 일제 식민지 통치의 가장 큰 후과의 하나였다. 해방 후 우리 인민은 나라와 생산 수단의 주인으로 된 조건에서 실천을 통하여 나라 살림살이를 꾸리는 지식과 능력을 급속히 배양하였다. 그러나 우리의 경제 발전, 사회 발전의 속도는 비상히 높았으며 따라서 우리 일'군들의 사업 수준은 아직도 현실의 요구에 비하여 적지 않게 뒤떨어져 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당과 인민 앞에 긴절하게 나서고 있는 나라 살림살이 문제를 원만히 해결하기 위해서는 일'군들의 사업 수준을 높이는 것이 또한 절실한 문제로 된다.

그러면 나라 살림살이의 주인으로서의 일'군들의 사업 수준을 어떻게 높일

것인가?

우선 정책적 안목을 넓히자고 하면 무엇보다도 당의 의도와 당 정책의 본질적 요구를 옳게 파악할 줄 알도록 힘써야 할 것이다. 이것은 정치적 식견, 정책적 안목을 높이는 데 있어서 근본 문제이다. 당 정책, 당의 의도를 본질적으로 파악하는 문제는 맑스-레닌주의 원리와 사회주의 경제 법칙들의 요구에 대한 인식, 우리 나라의 현실 전반에 대한 료해와 떼여서 생각할 수 없다. 우리 당의 정책은 맑스-레닌주의의 일반 원칙, 일반 법칙의 요구와 함께 우리 나라 현실의 요구를 구현하고 있다. 그러므로 이 원칙, 이 법칙들과 우리가 리용하는 경제 범주들에 대한 정확한 지식 그리고 우리 나라 현실에 대한 폭넓은 료해가 없이는 당 정책의 요구를 정확하게 본질적으로 리해하고 주견을 가지고 능동적, 창발적으로 사업할 수 없다.

일'군들이 살림'군으로서 치밀하게 계산하고 타산할 수 있게 되려면 경제 실무적 지식이 있어야 할 뿐 아니라 부단히 현실적 요구를 연구하고 실태를 장악 료해하는 과학적인 사업 태도가 있어야 한다. 일'군들이 치밀하게 따지고 타산하지 않는 것은 그렇게 할 줄 몰라서 그런 경우도 많지만 형식주의적 사업 방법에 물젖어 따져 보려고 하지 않는 경우도 많다.

그러므로 나라의 경제 형편, 기업소의 실태, 인민들의 요구, 대외 경제 관계 등 전반에 대한 지식을 축적하는 동시에 따지고 계산하는 기풍을 수립하여야 한다.

일'군들은 이렇게 정책적 안목이 있고 경제적 타산을 할 줄 아는 지식과 기풍이 있어야만 살림살이를 꾸리는 데서 창발성을 발휘하면서 당과 인민의 요구를 훌륭히 실현할 수 있다.

일'군들이 잘 타산하고 궁리하여 당의 의도에 맞게 나라 살림살이를 꾸려나간다는 것은 요컨대 이 사업에서 형식주의적, 주관주의적 사업 태도와 무책임성을 퇴치하는 것을 의미한다. 모두가 이러한 낡은 사업 태도와 방법을 극복하고 과학적이며 혁명적인 사업 방법과 사업 작풍을 체득하여야 할 것이다.

지도 일'군들과 전체 근로자들이 나라 살림살이를 꾸리는 데서 제기되는 제 요구와 방도를 깊이 파악하고 사상 단련과 학습을 강화하여 당성, 계급성, 인민성을 높이 발양하고 사업 수준을 부단히 높인다면 이미 마련된 경제 토대와 풍부한 자원을 더 잘 리용하여 생산을 더욱 급속히 장성시키고 인민 생활을 더욱 향상시키게 될 것이다.

농업 생산력의 발전에 상응하게 관리 운영 수준을 제고하자

오 성 묵

지금 우리 나라 농촌에서는 알곡 정당 500 키로 그람 증수를 위한 대중적 운동이 힘차게 전개되고 있다.

당 중앙 위원회 제 4 기 제 12 차 전원 회의 결정에 무한히 고무된 전체 농업 근로자들은 새해 영농 준비 사업을 성과적으로 진행하고 있으며 로동 계급을 비롯한 전체 인민이 농촌을 로력적으로 지원하며 농기계, 농기구, 양수기, 전동기, 화학 비료 등 각종 영농 기자재를 만들어 보내며 퇴비를 생산하여 포전에까지 날라다 주는 사업에 떨쳐 나서고 있다.

이것은 우리 나라에서 농업 생산력의 발전을 가일층 추진하며 사회주의 농촌 문제에 관한 김 일성 동지의 테제를 더 빨리 실현하기 위한 전 당'적, 전 국가적, 전 인민적 투쟁이다.

오늘 농촌 경리 부문의 관리 지도 일'군들 앞에는 이러한 대중의 앙양된 혁명적 열의를 옳게 조직 동원하며 농업 생산력 발전의 구체적 요구에 맞게 관리 운영 수준을 결정적으로 높여야 할 임무가 나서고 있다.

농업 생산력의 급속한 발전에 상응하게 관리 운영 수준을 부단히 높이는 것은 사회주의 농촌 경리 발전의 합법칙적 요구이며 농촌 문제의 해결에서 제기되는 모든 과업을 성과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튼튼한 담보로 된다.

1

농업에 대한 관리 운영 문제는 협동화 이후 사회주의 농촌 건설에서 제기되는 가장 기본적인 문제의 하나이다.

그것은 농업 생산력을 고도로 발전시키고 농민들의 생활을 부유하게 하며 도시와 농촌 간의 차이를 점차적으로 없애는 데서 확고한 기초로 되는 사회주의 농촌 경리 제도의 우월성을 전면적으로 발양시키기 위한 중요한 사업으로 된다.

다 아는 바와 같이 협동화에 의하여 창설된 사회주의 농촌 경리 제도는 개인 농민 경리에 비해서나 자본주의 농촌 경리 제도에 비하여 결정적인 우월성을 가지고 있다. 그것은 농업 생산력의 발전에 광활한 길을 열어 주며 농민들의 물질 문화 생활을 급속히 향상시킬 수 있는 무한한 가능성을 지어 준다. 뿐 아니라 그것은 농민 대중의 자각적인 열성과 창조적 적극성을 고도로 불러 일으키며 착취 사회가 남겨 놓은 농촌의 락후성을 성과적으로 청산하기 위한 튼튼한 기초로 된다.

그러나 이것은 사회주의 농촌 경리 제도의 우월성이 저절로 발현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사회주의적 농업 생산력이 자동적으로 발전한다는 것을 말하는 것은 아니다.

농촌에 창설된 사회주의 제도의 우월성을 발휘시키자면 그에 적응한 관리 지도 체계와 방법을 확립하고 그 수준을 부단히 높이기 위한 사람들의 능동적인 활동이 절실히 요구된다. 특히 농업 생산력의 발전에서 새 사회 제도의

우월성과 잠재력을 충분히 발휘시키는 문제는 농업 생산력의 제반 요소들을 가장 합리적으로 결합하며 대중의 앙양된 열의를 생산에 능숙하게 조직 동원할 수 있는 관리 지도 체계와 방법을 확립하는가 못 하는가에 결정적으로 의존한다.

농업에 대한 관리 지도 체계와 방법을 확립하고 그 수준을 부단히 높이는 것은 농업 생산력의 발전에 맞게 생산 관계의 개별적 측면들을 더욱 완성하며 경제 토대의 발전에 상부 구조의 개별적 환절들을 적응시키는 과정을 포괄하는 매우 어렵고 복잡한 사업이다. 여기에는 협동 경리의 규모와 형태, 경리 내부에서의 로력 조직 형태와 그 단위, 로동에 대한 평가와 분배 방법 등 농업 생산 관계의 개별적 측면들을 개선 완성하는 사업과 함께 공업과 농업, 전인민적 소유와 협동적 소유의 련계를 옳게 규정하며 국가의 경제 조직자적 기능의 실현 방도와 체계를 협동 경리의 조건에 적응하게 선정하는 등의 광범한 사업이 포괄된다. 또한 이것은 일군들의 관리 능력과 수준, 사업 작풍과 방법을 개선하는 사업과도 밀접히 련관되여 있다. 특히 그것은 이 분야에서 축적된 경험이 극히 적으며 모든 것을 창조적으로 해결하여야 한다는 사정과 관련하여 더욱더 어려운 과업으로 된다.

우리 당은 농업 생산력의 발전에서 질곡으로 되였던 낡은 생산 관계를 사회주의적으로 개조하는 사업을 극히 짧은 기간 내에 성과적으로 실현하였을 뿐 아니라 사회주의 농촌 경리에 대한 관리 운영에서 제기되는 본질적인 문제들을 정확하게 해결함으로써 이 어려운 과업을 훌륭히 실현하고 농업 생산력의 발전과 사회주의 농촌 문제의 해결을 위하여 제기된 모든 문제를 순조롭게 풀어 왔다.

협동화가 완성된 이후 우선 당은 협동 농장들을 리 단위로 통합하는 사업을 성과적으로 실현함으로써 협동 경리들의 규모를 농업 생산력 발전의 새로운 요구에 맞게 선정하는 문제를 훌륭히 해결하였다.

리 단위로 협동 농장들을 통합한 우리 당의 조치는 선진 농기계와 영농 기술을 광범히 도입하여 농업 생산력을 급속히 발전시키며 경리를 다각적으로 조직하고 로력과 자재를 가장 합리적으로 리용하여 농촌 건설을 계획적으로 추진시켜 나갈 수 있는 광활한 길을 열어 놓았다. 이 조치의 정당성은 그 후 우리 나라 농촌 경리에서 수리화, 기계화, 전기화, 화학화를 기본 내용으로 하는 기술 혁명이 성과적으로 추진된 데서 뚜렷이 확증되였다.

협동 농장의 규모의 확대와 농업 생산력의 급속한 발전은 협동 경리에 대한 관리 운영 사업을 새 환경에 상응하게 근본적으로 개선할 것을 요구하였다. 우리는 김 일성 동지의 청산리 교시를 관철하는 행정을 통하여 사회주의 농촌 경리의 관리 운영 사업을 근본적으로 개선하는 데서 결정적인 전변을 이룩하였다.

김 일성 동지의 청산리 교시에서는 사회주의 농촌 경리의 관리 운영에서 원칙적 의의를 가지는 계획화 문제, 로력 조직 문제, 로동에 대한 정치 도덕적 자극과 물질적 자극을 결합하는 문제 등에 대한 전면적인 해답이 주어졌으며 관리 운영 사업에서 우리 당의 전통적인 군중 로선을 훌륭히 구현하는 모범이 제시되였다. 이것은 당시의 농촌 경리의 관리 운영 사업에서 제기된 가장 절실한 문제를 훌륭히 해결하였을 뿐 아니라 사회주의 농촌 경리 발전의 전 행정에서 항상 견지하고 관철시켜야 할 본질적 문제들을 전면적으로 밝힌 강령적 지침이였다.

청산리 교시를 관철하는 투쟁을 통하여 우리 나라 농촌 경리의 관리 지도에

서는 우가 아래를 도와 주며 지도 일'군들이 군중 속에 들어 가서 이신작칙하며 모든 사업을 군중과 토의하여 해결하는 기풍이 높이 발양되였으며 계획화 수준이 높아지고 농사에 력량을 집중하는 원칙에서 로력 조직이 개선되고 사회주의 분배 원칙이 철저히 관철되게 되였다. 이것은 농민들의 열성을 더욱 높이고 농촌 경리의 물질 기술적 토대를 강화하는 데서 커다란 전변을 가져 왔다.

우리 나라 농촌 경리에서 물질 기술적 토대가 급속히 장성되고 농업 생산 공정이 더욱더 기술 공정으로 전환됨에 따라 농촌 경리의 관리 운영 사업에서는 보다 새로운 요구가 제기되였다.

《협동 농장들의 규모가 확대되고 그 기술적 장비가 급격히 강화되였으며 농촌 기술 혁명이 긴급한 당면 과업으로 제기된 조건하에서 농촌 경리에 대한 종래의 행정식 관리 체계를 버리고 기업적 방법에 의한 새로운 관리 체계를 창설》(김 일성)하는 것이 절실히 필요하게 되였다. 당은 이러한 요구로부터 출발하여 기업적 방법으로 농촌 경리를 지도하는 전문적인 국가 농업 지도 체계를 창설하였으며 군으로부터 중앙에 이르는 질서 정연한 농업 관리 체계를 확립하였다.

이것은 청산리 정신, 청산리 방법을 농업 관리 지도에서 더욱 철저히 구현할 수 있도록 하며 경제 토대의 발전에 상부 구조를 적응시키는 창조적 대책이였으며 농촌 경리의 관리 운영에서 획기적인 전환을 가져 왔다.

이와 같이 우리 나라에서는 당의 정확한 조치에 의하여 사회주의 농촌 경리에 대한 관리 운영에서 근본적인 의의를 가지는 문제들이 전면적으로 해결되였으며 부단히 발전하는 농업 생산력의 구체적 요구에 맞게 관리 운영 사업을 더욱더 높은 수준에 끌어 올릴 수 있는 모든 조건이 마련되였다.

우리는 이미 확립된 사회주의 농촌 경리의 관리 지도 체계와 방법을 더욱더 완성하는 한편 당이 제기한 원칙적 문제들을 계속 철저히 관철함으로써만 농업에 대한 관리 운영 사업을 부단히 높은 수준에로 발전시킬 수 있다.

2

농촌 경리의 관리 운영 수준을 부단히 높이는 것은 농업 생산력 발전의 합법칙적 요구이며 오늘 농업 생산 앞에 제기된 과업을 더 잘 실현하기 위한 결정적 조건이다.

농업에 대한 공업의 적극적인 지원, 농촌 기술 혁명의 강력한 추진, 농촌 로력 진지의 강화 등 당이 취한 모든 조치들에 의하여 우리 나라 농촌 경리의 물질 기술적 토대는 현저히 강화되였으며 농업 생산력을 더욱 빨리 발전시킬 수 있는 막대한 잠재력이 조성되였다.

1961～1965년 간에만도 농업 생산에 참가하는 물질 기술적, 인적 요소들은 다음과 같이 장성하였다:

	1960년에 비한 1965년의 장성 비률(%)
관개 관리소 수	240
논 관개 면적	130
농기계 작업소 수	195
뜨락또르 대수	245
화물 자동차 대수	505
주요 련결 농기계 대수	217
농촌에서 리용한 전력	119
화학 비료 공급량	211
농촌 로력자 수	114
기사, 기수, 전문가 수	393
농촌에 대한 투자액	232(※)

※는 1964년의 자료임

농업 생산에 참가하는 물질 기술적, 인적 요소들의 이러한 장성에 기초하여 농촌 경리의 집약화 수준은 급속히 높아졌으며 협동 경리들은 더욱더 다각화되고 있다.

이것은 우리 나라 농촌 경리의 매개 단위의 사업 규모가 전례 없이 방대해졌으며 그 내부 조직이 비할 바 없이 복잡해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농업 관리에 참가하는 모든 일'군들

이 계획 작성, 로력 조직, 결산 분배 등을 포괄하는 관리 운영 사업의 모든 고리에서 사업 수준을 더욱 높이지 않고서는 오늘과 같은 농촌 경리를 성과적으로 관리 운영할 수 없다. 또한 생산에 참가하는 모든 요인들을 호상 잘 결합시키고 그것들을 최대한 효과적으로 리용한다면 알곡 생산을 비롯한 농촌 경리의 모든 부문을 더 빨리 발전시켜 인민들의 장성하는 수요와 공업 원료를 더 잘 보장할 수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이 농업에 대한 관리 운영 수준을 급속히 높이는 것은 오늘 농업 생산력 발전의 객관적 요구를 실현하는 것으로 되며 농업 부문 앞에 제기된 과업을 성과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중심적 문제로 된다.

농촌 경리의 관리 운영 사업에서 가장 중심적인 자리를 차지하는 것은 생산 과정에 참가하는 모든 생산 수단들과 로동력을 호상 잘 결합시키고 생산 공정의 구체적 요구에 맞게 그것들을 최대한 효과적으로 리용하는 문제이다. 이것은 최소한의 지출로 최대한의 생산 성과를 낼데 대한 사회주의 경제 관리의 일반적 요구로부터 흘러 나오는 것이다.

물론 사회주의 하에서도 소유 형태의 차이와 경제 부문들의 특성에 따라 그리고 매 시기의 조건에 따라 경제 관리 운영의 구체적 형태와 방법에서는 일정한 차이가 있게 된다. 그러나 그 어느 부문에 대한 관리 운영에서도 항상 제일 중요한 관심사로 되는 것은 생산에 참가하는 모든 요인들을 최대한 효과적으로 리용할 데 대한 문제이다.

농업 관리 운영에서도 언제나 문제로 되는 것은 어떻게 하면 토지와 날로 증대되는 물질 기술적 수단들 그리고 로력을 가장 합리적으로 리용하겠는가, 어떻게 하면 있는 설비와 자재, 있는 로력을 가지고 생산을 더 많이 내겠는가 하는 것이다. 계획화 사업을 잘 하며 농사에 력량을 집중하는 원칙에서 로력 조직을 합리적으로 하며 농민 대중의 생산적 열성을 높이는 문제도 결국은 이것을 위한 것이며 기술 관리, 토지 관리, 재정 관리를 잘 하는 것도 역시 이것을 위한 것이다.

오늘 농촌 경리에 대한 관리 운영에서 바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려면 무엇보다도 농업 생산에 대한 기술적 지도를 강화하며 계획화와 조직화 수준을 부단히 높이는 것이 필요하다.

오늘 우리의 농업 협동 경리가 대규모적 경리로 발전하고 그 기술 장비가 점차 공업의 수준에 접근하여 가는 조건에서 응당 농촌 경리의 관리 운영도 공업의 기업 관리 방법에 더욱더 접근시켜야 한다.

사실 오늘 우리의 농촌 경리에서는 관개 체계가 확립되고 뜨락또르를 비롯한 발전된 기계 수단들과 전기 동력이 광범히 리용되고 있으며 화학화가 급속히 추진되고 있다. 육종, 경종, 시비 등 농업 생산의 모든 공정에 선진적인 과학 기술이 광범히 적용되고 있다. 뿐아니라 농업 생산 과정에는 협동 농장들과 국가 농업 기업소의 물질 기술적 수단과 로력이 동시에 참가하며 또한 토지 정리, 관개 공사, 하천 정리 등을 통하여 협동 농장 호상간의 련계도 더욱더 밀접하여지고 있다. 매개 협동 농장 내부의 경리 운영 사업도 복잡하여지고 있다. 농업 생산 공정이 점차 기술 공정으로 전환되고 있는 만큼 농업 관리 운영에서는 무엇보다도 생산 과정에 대한 구체적인 기술적 지도를 더욱 강화하여야 하며 협동 경리의 관리 운영 조직이 복잡해짐에 따라 과학적인 타산에 기초하여 계획화 수준과 조직화 수준을 급속히 높여야 하는 것이다.

협동 경리를 기업적 방법으로 관리, 지도할 데 대한 당의 방침은 바로 사회

주의 농촌 경리 발전의 이러한 합법칙적 요구로부터 출발한 것이다.

<기업적 방법에 의한 농업 협동 경리의 지도와 관리는 농촌 기술 혁명을 촉진시키며 농업 관리에서의 산만성과 비조직성을 퇴치하고 토지, 농기계 기타 생산 수단들과 로동력을 합리적으로 리용할 수 있게 하며 농촌 경리에서의 생산 문화를 높일 수 있게 한다>(김 일성, <우리 나라 사회주의 농촌 문제에 관한 테제>).

우리는 농촌 경리에 대한 관리 운영의 모든 고리에서 기업적 방법의 본질적 요구를 철저히 실현하기 위한 투쟁을 강화함으로써 농업 생산의 제반 요인들을 가장 합리적으로, 효과적으로 리용하고 농업 생산력의 발전을 힘차게 추동하여야 할 것이다.

농촌 경리의 관리 운영 사업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에서는 또한 농업 생산 자체가 가지고 있는 일련의 특성들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한다. 농업 생산은 자연의 재생산 과정과 밀접히 결합되여 진행되는 생산 부문이며 생산 기간과 로동 기간이 일치하지 않고 한 개 기업소 내에서도 생산 공정이 서로 다른 여러 부문들이 있게 되는 특성을 가진다.

농업 생산에 참가하는 로동 대상, 로동 수단, 로동력 등 생산 요소들도 일련의 특성을 가지고 있다. 례컨대 농업의 로동 대상은 생명을 가진 유기체들로서 그것들은 자연 기후 풍토 조건의 영향을 많이 받으며 자체의 생리적 특성으로 하여 가장 적절한 시기에 기술 경제적 대책들은 기동적으로, 집중적으로 면밀하게 취할 것을 요구한다. 농업의 물질 기술적 수단들에는 관개 수단과 같이 광범한 지역에 고착되여 있는 것도 있고 뜨락또르, 농기계와 같이 넓은 지역을 부단히 류동하며 리용되는 것도 있으며 그것들은 대부분 리용 기간이 일정한 시기에 국한되여 있다. 또한 농업 생산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노는 사람들은 광활한 지역에 분산되여 일하며 개별적 생산자들이 수행하는 작업의 질은 즉시로 나타나지 않으며 그들의 로력에 대한 정확한 평가도 일련의 제한성을 받는다. 이 외에도 도시와 농촌 간의 차이로부터 오는 허다한 특성들이 있다.

요컨대 이 모든 것은 농업에 대한 관리 운영을 농업 생산 자체의 특성에 완전히 부합되게 주도 세밀히 진행할 것을 요구하며 특히는 생산자 대중의 창의 창발성과 자각적 열성을 높이 불러일으키며 생산 관리의 모든 측면에서 군중 로선의 원칙을 더욱 철저히 관철시킬 것을 요구한다.

이러한 요구들을 충족시켜야만 토지, 물질 기술 수단, 로동력 등 농업 생산의 모든 요인들을 가장 효과적으로 리용할 수 있으며 농업 생산 과정에 대한 지도, 관리를 정확히 실현할 수 있는 것이다.

우리는 계획 작성, 작물 배치와 경종 체계의 도입, 생산 기술 지도, 로력 조직, 재정 결산 등 전반적 관리 활동에서 농업 생산의 구체적 요구들을 정확히 실현함으로써 생산의 모든 요소들을 가장 합리적으로, 효과적으로 리용하고 농업 생산을 급속히 발전시켜야 할 것이다.

3

우에서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농촌 경리의 관리 운영 수준은 무엇보다도 토지, 농기계, 역축, 관개 시설 등 농업 생산 수단들과 로동력을 어떻게 관리하고 리용하는가 하는 데서 구체적으로 표현된다.

따라서 오늘 농촌 경리의 관리 운영 수준을 높일 데 대한 당적 과업을 실천하는 데서 일군들이 가장 중요한 관심을 돌려야 할 문제는 자기 단위의 구

체석 실정에서 현존 생산 수단들의 능력을 최대한으로 발휘시키며 현존 로력을 가장 합리적으로 리용하기 위한 조직 사업을 구체적으로 짜고 드는 것이다.

우선 우리는 토지와 농기계, 관개 수단 등을 잘 관리하고 그것을 효과적으로 리용할 데 대한 당의 방침을 철저히 관철시켜야 한다.

토지는 농업의 기본 생산 수단이다. 토지 관리를 잘 하는 것은 농업 관리 운영에서 항상 첫자리에 나선다. 김 일성 동지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였다: 《농업에서 가장 중요한 밑천은 토지이다. 기계도 중요하고 로력도 중요하지만 땅이 없으면 다 소용 없다. 그러므로 토지 정리 사업, 토지 개량 사업을 잘 하여 토지 리용률을 높이는 문제가 매우 중요하다》.

토지 관리에서는 우선 강하천 건설, 해안 방조제 수축, 제방, 쌓기, 다락밭 만들기 등을 잘 하여 토지의 류실, 매몰을 방지하고 토지를 잘 보호하는 것이 중요하며 또한 토지 정리, 토지 개량 사업을 강화하여 비옥도를 부단히 높이는 것이 중요하게 나선다. 토지 관리에 대한 엄격한 질서를 세우고 한 평의 땅도 묵이는 일이 없어야 하며 모든 땅에 곡식을 심고 알뜰히 가꾸도록 하여야 한다.

오늘 농업 생산 과정에는 토지와 함께 관개 수단, 기계 수단, 화학 수단 등 많은 물질 기술적 수단들이 참가하고 있으며 선진 영농 기술이 광범히 적용되고 있다. 이러한 조건에서 물질 기술적 수단들과 선진 기술의 리용을 개선하여 그 효과를 최대한으로 높이는 것이 농업 관리에서 더욱더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게 된다.

특히 뜨락또르와 각종 농기계를 잘 관리하여 그 리용률을 높이는 것이 매우 긴절한 과업으로 나서고 있다. 《…뜨락또르만 가지면 기경 뿐만 아니라 제초와 추수도 할 수 있고 또 어디나 갖다 놓고 양수도 할 수 있고 탈곡기나 사료 분쇄기를 돌릴 수도 있다. 뜨락또르에다 기중기나 불도젤의 날을 달면 별별 일을 다할 수 있다》(김 일성).

우리 당은 농업의 기계화에서 이와 같이 거대한 역할을 노는 뜨락또르를 더 효과적으로 리용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뜨락또르의 리용을 협동 농장 자체들이 직접 계획하고 지도하게 하는 획기적 조치를 취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협동 농장들에서는 기계화 작업반 또는 기계화 분조를 잘 운영하여 매개 기대들이 일정한 작업반 또는 구역을 고정 담당하고 기계화 작업 범위를 부단히 확대하며 수행한 작업에 대한 책임성을 더욱 높이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농기계 작업소 앞에는 수리 기지를 튼튼히 꾸리고 뜨락또르의 각종 수리를 책임적으로 진행하며 연유 및 윤활유를 제때에 공급하며 기계 수단의 리용에 대한 지도와 통제 사업을 강화하고 뜨락또르 운전수들에 대한 기술 교양 사업을 잘 조직 진행함으로써 모든 협동 농장들이 년중을 통하여 뜨락또르를 더 효과적으로 쓰도록 온갖 조건을 보장하여야 할 과업이 제기되고 있다.

뜨락또르를 비롯한 현대적인 농기계들을 합리적으로 관리 리용하는 것과 함께 중소 농기계를 이에 잘 배합하여 리용하는 문제는 농촌 경리의 종합적 기계화를 실현함에 있어서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특히 경사지가 많고 벼 농사가 위주로 되어 있으며 2모작과 같은 작을 광범히 도입하고 있는 우리 나라 농촌 경리에서는 대중소 농기계의 배합 리용이 아주 절실한 문제이다.

뜨락또르나 현대적 농기계로 작업하는 것만을 기계화로 생각하는 일부 일'군들의 그릇된 인식을 근절하고 모든 협동 농장들에서 중소 농기계의 수리 보수 사업을 잘 하며 십대기, 다래끼, 소구레미에 이르기까지 모든 영농 기자재를 미리 마련하며 부림소의 사양 관

리를 책임적으로 진행하는 등으로 온갖 가능성을 다하여 힘든 작업을 헐하게 만들고 작업 능률을 높여야 할 것이다.

생산 수단에 대한 관리에서 또한 중요한 것은 관개 시설의 기술 관리 사업을 잘 하고 그 리용률을 높이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기존 관개 시설과 각종 구조물에 대한 보수 보강 사업을 강화하며 모막이, 논판 저수와 각종 물주머니를 만들어 물을 확보하는 등의 사업을 잘 함으로써 우리 인민의 고귀한 로력에 의하여 건설된 관개 체계가 은을 최대한으로 내게 하며 한 방울의 물이라도 헛되게 흐르지 않게 하여야 한다. 또한 생산 공정의 요구에 맞게 물과 각종 기계들이 합리적으로 맞물리도록 관리 사업을 잘 조직하여야 한다.

이와 같이 생산 수단에 대한 관리를 잘 하는 동시에 그와 밀접히 결합하여 로력 관리를 또한 세밀하게 짜고 들어 진행하여야 한다.

로동력은 생산력의 결정적인 요소이다. 특히 모든 공정이 다 기계화되지는 못한 관계로 아직 많은 손로동이 남아 있는 우리의 농촌 경리에서 로력 관리를 잘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문제로 된다.

농촌 로력 관리에서 가장 중요한 요구로 제기되는 것은 현존 로력을 고착시키고 건장한 장정 로력의 역할을 높이며 모든 로력이 농사'일에 집중되도록 하는 것이다. 농사'일은 아직 힘들고 어려운 일이다. 또 그것은 시기적으로 집중적인 로력 투하를 요구한다. 이러한 요구에 맞게 작업반과 분조를 합리적으로 조직하며 년중을 통하여 한 공수의 로력이라도 랑비하는 일이 없도록 로력 관리를 구체적으로 진행하여야만 알곡을 위주로 하는 농업 생산의 모든 부문이 급속히 발전할 수 있다.

이와 함께 농민들의 자각적 열성을 고도로 발휘시키고 그들이 매개 작업을 수행하는 데서 책임성을 더욱 높이도록 로력 관리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 농업 생산이 생물체를 다루는 분야이며 각이한 시기에 각이한 방법의 세밀한 조작을 전제로 한다는 사정은 특히 생산자들의 높은 자각성과 책임성을 요구한다.

농민들의 자각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하여서는 모든 관리 지도 일'군들이 정치 사업을 선행하여 농민들로 하여금 농사를 잘 짓는 것이 바로 당과 조국을 위한 사업이며 자기 집단, 자기 자신을 위한 사업이라는 것을 똑똑히 인식하고 나라 살림살이와 농장 사업을 잘 꾸리는 데 적극 나서도록 하는 한편 사회주의 분배 원칙을 철저히 관철하여 그들의 물질적 관심성을 더욱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

오늘 농촌에서 사회주의 분배 원칙을 관철함에 있어서 중요한 고리로 되는 것은 분조 도급제를 합리적으로 실시하는 문제이다.

분조 도급제의 실시는 농촌 로력 조직 전반에서 새로운 전환을 일으키며 특히 농민들의 생산 의욕을 높이고 그들을 영농 작업과 관리 사업에 주인답게 참가하도록 함으로써 농업 생산의 증대와 농민들의 집단주의 정신을 배양하는 데서 커다란 의의를 가진다.

우리는 전체 농장원들에게 분조 도급제의 내용과 의의를 해설 침투시키는 동시에 한 단위에서 시범을 창조하고 그 경험을 일반화하는 등으로 매개 협동 농장의 구체적 실정에 맞게 분조 도급제를 정확히 실시함으로써 그 우월성을 남김 없이 발양시켜야 할 것이다.

생산자들의 자각적 열성과 로력적 열의를 높임에 있어서 또한 후방 관리 사업을 개선하는 문제가 중요하다.

우리 당은 공장, 기업소들에서 관리 일'군들이 로동자들의 생활을 책임적으로 돌보는 것처럼 협동 경리에서도 모

든 관리 지도 일'군들이 농민 대중의 생활을 책임적으로 꾸려 주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후방 사업은 로동력의 확대 재생산을 보장하는 중요한 활동이며 인민들의 물질 문화 생활을 부단히 향상시킬 데 대한 우리 당 활동의 최고 원칙을 구현하기 위한 사업이다.

우리는 농민들의 주택, 신탄 문제와 간장, 된장, 기름, 채소 등 부식물 문제까지도 책임적으로 해결해 주며 각종 편의 후생 시설들과 문화 시설들을 알뜰하게 관리하고 운영함으로써 그들의 생활 상 편의를 최대한으로 보장하며 농민들의 문화 휴식 조건도 충분히 마련하여 주어야 할 것이다. 이와 함께 농장원들 자신이 자기의 생활을 알뜰히 꾸려 나가도록 온갖 조건을 지어 주며 그들이 터밭을 옳게 리용하여 채소와 공예, 유지 작물 등 자기에게 필요한 것을 심고 돼지, 토끼, 닭 등을 길러 부업 경리를 잘 운영하도록 적극적인 방조를 주어야 한다.

이리 하여 모든 농장원들이 생산과 관리에 주인답게 참가하며 농장 살림살이에서 적극성을 발휘할 때 우리의 농촌 경리는 더 빨리 발전할 것이다.

⁂ ⁂

농업에 대한 관리 지도 사업을 부단히 개선하는 것은 농업 생산을 발전시킴에 있어서 뿐 아니라 테제에서 제시된 다른 모든 과업들을 성과적으로 실현함에 있어서 커다란 의의를 가진다.

김 일성 동지가 테제에서 교시한 바와 같이 관리 지도 사업을 개선하는 것은 농촌에서의 기술, 문화, 사상 혁명을 촉진하며 농촌에 대한 도시의 지원을 효과적으로 실현하며 사회주의 농촌 건설의 전반적 문제를 성과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중요한 조건으로 된다.

따라서 농촌 경리의 관리 운영 수준을 높이기 위한 투쟁은 사회주의 농촌 건설의 원대한 과업을 매일 매일의 일상적 사업에서 성과적으로 추진하여 나가는 구체적 활동으로 된다.

농촌 경리의 모든 관리 일'군들은 자기가 담당한 임무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고 모두다 자기 사업의 능수로 되여야 한다.

일'군들이 자기의 임무를 정확히 수행하자면 우리 당의 정책과 맑스-레닌주의 원리 그리고 기업 관리의 구체적 지식으로 튼튼히 무장하여야 한다. 당 정책과 경제 관리 지식으로 무장하지 않는다면 주관적으로는 당 정책을 받들고 기업 관리를 잘 하려고 애쓰나 실지로는 당의 의도를 실현할 수 없으며 복잡한 경리 운영을 사회주의 경제 발전의 객관적 요구에 부합되게 끌고 나갈 수 없다.

일'군들은 우선 우리 당의 정책과 김 일성 동지의 로작을 심오히 연구하며 맑스-레닌주의 정치 경제학과 농업 경영 지식 및 기술 지식을 습득하기 위한 투쟁을 강화함으로써 어떠한 복잡한 현실에 부딪쳐도 그것을 과학적으로 분석하고 제기된 문제를 능동적으로 처리해 나갈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여야 한다.

이와 함께 당 생활을 강화하고 자기의 당성, 계급성, 인민성을 부단히 높이며 사업 작풍과 방법을 계속 세련시킴으로써 모든 일'군들이 사상적으로 단련되고 리론 실무적으로 준비된 유능한 지휘관으로, 나라와 인민의 참된 살림'군으로 되여야 한다.

이리 하여 우리는 농촌 경리의 관리 운영 수준을 당이 요구하는 높이에로 급속히 끌어 올림으로써 당 중앙 위원회 제 4 기 제 12 차 전원 회의 결정을 모든 고리에서 철저히 관철하며 특히는 새해 영농 사업에서 알곡 정당 500 키로그람증수 운동의 승리를 확고히 보장하여야 할 것이다.

혁명 력량의 확대 강화는 우리 혁명 승리의 결정적 담보

박 한 정

1

혁명 력량을 꾸리는 것은 혁명의 승패를 좌우하는 관건적 문제이다.

혁명의 승리는 결국 혁명 력량을 어떻게 꾸리는가에 의하여 결정된다.

혁명의 승리를 보장하기 위하여서는 혁명의 참모부인 당을 부단히 확대 강화하고 그 주위에 혁명 군중을 묶어 세워야 하며 그들을 정치 사상적으로 튼튼히 무장시켜야 한다.

그래야만 간고한 혁명에서 어려운 과업들을 원만히 수행하고 혁명의 발전을 보장할 수 있으며 그 종국적 승리에로 나아갈 수 있다.

김 일성 동지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혁명 투쟁에서나 건설 사업에서나 승리의 결정적 담보는 혁명 력량을 꾸리는 것, 즉 혁명의 참모부인 당을 강화하고 광범한 대중을 당 주위에 묶어 세우는 것이다**> (<조선 로동당 창건 20 주년에 제하여>).

우리 나라에서 혁명 력량을 꾸리는 문제는 미제의 남조선 강점으로 인한 우리 혁명의 간고성과 장기성, 일제의 오랜 식민지 통치와 해방 후 미제와 국내 반동 세력의 책동으로 하여 특별히 어렵고 심각한 문제로 제기되였다.

이로부터 우리 당은 혁명의 승리를 위하여 혁명 력량을 꾸리는 문제에 항상 첫째 가는 의의를 부여하고 그 성과적 해결을 위하여 완강히 투쟁하였다.

혁명 력량을 꾸릴 데 대한 우리 당 방침의 근저에는 조선 혁명의 성스러운 임무를 우리 당과 인민 자신이 책임적으로 수행하려는 주체 사상의 혁명적 원칙이 놓여 있다.

조선 혁명의 주인은 우리 당과 우리 인민이며 혁명 승리의 결정적 요인은 우리 인민 자체의 힘이다. 우리 인민의 힘을 믿고 그 힘을 백방으로 조직 동원하는 데에 우리 혁명 승리의 결정적 담보가 있다.

우리 혁명의 영광스러운 승리의 로정은 바로 혁명 력량을 꾸림에 있어서 이러한 주체적 립장을 확고히 견지한 조선 공산주의자들의 전통적인 원칙의 정당성을 실증하여 준다.

조선 공산주의자들은 1930 년대 항일 무장 투쟁의 첫 시기부터 철저히 주체적 립장에서 혁명 력량을 꾸리는 방침을 세우고 관철시킴으로써 처음에는 비록 적은 혁명 력량으로 출발하였지만 그것은 날을 따라 인민 대중의 심장을 틀어 쥐면서 장성해 갔으며 그리 하여 일제와 같은 강력한 적을 상대로 하는 어려운 싸움에서도 항상 승리에 승리를 거듭하였다.

해방 후 우리 당은 혁명 력량을 꾸리는 이러한 빛나는 전통을 계승 발전시킴으로써 미제와 그에 결탁된 국내 반혁명 도당의 갖은 책동에도 불구하고 인민 대중을 확고히 전취하고 조선에서 혁명과 반혁명 간의 력량 대비에서 혁

명 력량의 결정적 우세를 보장할 수 있었다.

우리 당은 혁명 력량을 꾸리는 데 있어서 이러한 주체 사상의 원칙에 서 있었을 뿐 아니라 그것을 실천하는 구체적 방침까지도 정확하게 제시하였다. 이에 대하여 김 일성 동지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혁명 력량을 꾸리는 데서 우리 당의 일관된 방침은 혁명과 건설을 위한 실천적 투쟁을 통하여 당을 조직 사상적으로 공고히 하고 대중을 각성시켜 혁명의 편에 전취하도록 하는 것이며, 또한 오랜 혁명 투쟁에서 단련된 공산주의자들을 핵심으로 하여 전체 당원들을 혁명가로 육성하며 당원들을 핵심으로 하여 전체 인민을 혁명 정신으로 무장시켜 나아가는 것이다**》(우와 같은 문헌).

2

혁명 력량을 꾸리는 데서 우리 당이 견지한 일관된 방침의 하나는 혁명과 건설을 위한 실천적 투쟁을 통하여 당을 조직 사상적으로 공고히 하고 대중을 각성시켜 혁명의 편에 묶어 세우는 것이다.

우리 나라에서 혁명 력량이 꾸려지고 장성 강화되여 온 전 과정은 온갖 계급적 원쑤들을 반대하는 치렬한 투쟁 과정이였으며 혁명과 건설에서 제기된 모든 난관과 시련을 이겨 내는 간고한 투쟁 과정이였다.

우리 당은 혁명의 불'길 속에서 태여나 내외의 원쑤들과의 비타협적 투쟁과 어려운 혁명 과업을 수행하는 행정에서 더욱 단련되고 세련되였으며 우리의 전체 인민은 투쟁 속에서 더욱더 각성되고 당 주위에 튼튼히 결속되였다.

해방 후 인민 정권을 수립하고 토지 개혁을 비롯한 민주주의 혁명 과업을 수행하기 위한 투쟁, 미제의 무력 침공을 타승하기 위한 위대한 조국 해방 전쟁, 전후 시기 헤아릴 수 없는 난관과 적들의 끊임 없는 파괴 책동을 이겨 내고 인민 경제를 복구 발전시키며 사회주의적 개조를 실현하고 사회주의 건설의 대고조를 불러 일으키기 위한 투쟁은 모두 우리 혁명의 승리적 전진을 보장하기 위한 투쟁 과정이였을 뿐 아니라 우리 혁명 력량을 불패의 력량으로 장성 발전시키는 투쟁 행로이기도 하였다. 이 과정에서 우리 당은 조직 사상적으로 튼튼히 결속되고 풍부한 경험을 가진 강대한 맑스-레닌주의 당으로 되였으며 우리의 혁명 대오에는 오랜 혁명 투쟁에서 세련된 로 혁명 간부들과 함께 수 많은 새 혁명가들이 자라나고 전체 인민의 정치 사상적 각오 정도는 비상히 제고되였다.

이것은 우리가 이미 조선 혁명의 종국적 승리를 보장하기 위한 불패의 혁명 력량을 꾸려 놓았다는 것을 말하여 주는 동시에 혁명과 건설을 위한 실천적 투쟁을 통하여 혁명 력량을 튼튼히 꾸려 나가는 우리 당의 일관된 방침의 위대한 생활력을 보여 준다.

혁명과 건설을 위한 실천적 투쟁을 통하여 당을 강화하고 대중을 각성시켜 혁명의 편에 묶어 세우는 것은 무엇보다도 우리 당 건설과 우리 혁명 발전의 력사적 특성으로부터 제기된 절실한 요구였다.

일반적으로 맑스-레닌주의 당이 대중의 확고한 지도적 력량으로 되기까지에는 자기 대렬을 조직 사상적으로 꾸리기 위한 일정한 기간이 요구된다.

그러나 우리 당은 해방 후 창건되자마자 국내의 복잡한 계급 투쟁과 새 사회 건설을 령도하는 사명을 수행하지 않으면 안 되게 되였다. 우리 당 앞에는 해방 후 조국이 남북으로 분렬되고 국내외의 온갖 반동 세력과 직접 대치한 조건에서 새 사회 건설을 위한 어려

운 혁명 과업을 수행하면서 동시에 자기 대렬을 조직하고 확대 공고화하며 군중을 자기 주위에 전취하는 과업을 수행하여야 할 무거운 임무가 제기되였다.

이것은 혁명과 건설을 위한 실천적 투쟁과 당을 강화하고 대중을 각성시켜 혁명의 편에 묶어 세우는 투쟁을 더욱 밀접히 결합시킬 것을 요구하였으며 매개 혁명 과업을 해결하는 실천 행정이 동시에 혁명 력량을 견실하고 장성 발전시키는 과정으로 되게 할 것을 요구하였다. 이로부터 당은 우리 혁명이 제기한 구체적 과업을 수행하는 데로 광범한 대중을 적극 조직 동원하는 한편 매개 혁명 과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대중을 급속히 각성시키고 선진적 분자들을 당 대렬에 받아 들이며 당을 조직 사상적으로 강화하고 대중 속에서 당의 권위와 위신을 제고하며 당 주위에 대중을 튼튼히 결속하는 사업을 정력적으로 진행하는 방침을 확고히 견지하였다.

혁명과 건설을 위한 실천적 투쟁을 통하여 당을 강화하고 대중을 각성시켜 혁명의 편에 전취하는 것은 혁명 력량을 짧은 기간 내에 튼튼히 꾸림에 있어서 가장 위력한 방법으로 된다.

맑스-레닌주의 당은 부르죠아지와 온갖 반동 세력을 반대하는 로동 계급의 력사적 투쟁 과정에서 발생되며 혁명 투쟁의 온갖 시련과 우여곡절을 겪는 과정에서 발전한다. 혁명적 실천은, 당이 자기의 대렬을 조직 사상적으로 더욱 공고히 하며 전략 전술적으로 부단히 세련시킬 데 대한 객관적 요구를 제기하는 동시에 그것을 실현할 수 있는 가능성과 조건을 지어 준다. 당 대렬의 조직 사상적 공고성과 전략 전술적 방침의 정당성도 실천 과정에서 검증되며 당은 실천 행정에서만 갖은 풍파를 동요 없이 이겨 낼 수 있는 위력한 힘을 가지게 되며 풍부한 경험을 쌓게 된다.

특히 혁명적 실천은 당을 구성하고 있는 매개 성원들을 단련시키고 그들을 진정한 혁명가로 육성케 함으로써 당 대렬의 순결성과 사상 의지의 통일을 확고히 보장할 수 있게 한다.

당원들은 혁명적 실천 과정에서만 어떠한 환경에서도 동요함이 없이 당과 혁명의 리익을 고수할 수 있는 혁명 투사로 단련될 수 있으며 자기의 의식 속에 남아 있는 낡은 사상 잔재를 철저히 극복할 수 있다. 사람들의 사상과 립장, 태도는 무엇보다도 혁명과 건설을 위한 실천 투쟁에서 뚜렷이 나타난다. 오랜 실천 투쟁은 진정으로 혁명을 하려는 사람과 일시적인 동반자, 이색 분자들을 정확히 식별할 수 있게 함으로써 당을 더욱 건전하게 발전시켜 나갈 수 있다.

맑스-레닌주의 당의 혁명적 실천 투쟁 과정은 대중을 혁명 과업 수행에로 적극 조직 동원하며 그들을 부단히 교양하고 훈련하는 과정이다. 당은 오직 실천 투쟁 과정에서만 대중과의 혈연적 련계를 튼튼히 할 수 있으며 대중 속에서 높은 신망과 위신을 획득할 수 있다.

군중은 당의 령도 하에 혁명 과업을 실천하는 투쟁 과정에서 당의 로선과 정책의 정당성을 깊이 인식하고 그에 자기의 모든 운명을 의탁하게 되며 당 주위에 더욱더 튼튼히 단결된다. 혁명의 부단한 발전에 따라 더욱더 심화된 과업을 해결하는 실천적 투쟁 속에서 군중의 계급적 각성은 더욱 높아지고 적들의 침해로부터 당의 리익과 혁명의 전취물을 확고히 수호할 데 대한 그들의 각오 정도도 높아진다.

그러므로 우리 당은 본인을 위주로 그의 혁명적 실천의 현재를 보는 원칙에 기초하여 혁명 력량을 꾸리는 방침을 철저히 견지하였다.

특히 실천을 통하여 군중을 단련시키

는 것은 단시일 내에 수 많은 군중을 혁명의 편에 전취할 수 있게 하는 훌륭한 길이다. 당의 로선과 정책을 관철하는 실천적 투쟁은 혁명과 건설의 모든 단위, 모든 초소에서 진행되는 것 만큼 그것은 일시에 광범한 군중을 대상하여 그들을 교양 훈련하는 거대한 혁명의 학교라고 말할 수 있다.

혁명적 실천은 그야말로 수백 개의 대학보다도 훨씬 더 빨리, 더 훌륭히, 더 많은 혁명가들을 교양 육성하는 가장 적극적인 방법이며 전체 대중을 혁명화하는 유일하게 옳은 방법이다.

혁명적 실천을 통하여 당을 강화하고 당 주위에 대중을 묶어 세움으로써 혁명 력량을 튼튼히 꾸리는 우리 당의 방침이 위대한 생활력을 발휘하고 있는 근거가 바로 여기에 있다.

바로 이와 같은 근거로부터 출발하여 우리는 앞으로도 혁명과 건설에서 제기되는 모든 과업을 수행하는 실천 투쟁과 혁명 력량을 더욱 확대 강화하는 투쟁을 밀접히 결합시키며 혁명적 실천 행정에서 당을 더욱더 강화하고 군중을 부단히 혁명화하는 사업을 계속 힘 있게 추진시켜 나가야 하는 것이다.

3

우리 당이 혁명 력량을 꾸리는 데서 시종일관 견지한 방침의 다른 하나는 오랜 혁명 투쟁에서 단련된 공산주의자들을 핵심으로 하여 전체 당원들을 혁명가로 육성하며 당원들을 핵심으로 하여 전체 인민을 혁명 정신으로 무장시켜 나아가는 것이다.

혁명 력량을 꾸리는 과정은 모든 당원들과 군중을 당과 혁명의 리익에 충실히 복무할 수 있도록 준비시키는 인간 개조의 과정이며 그것은 또한 전체 인민을 단일한 정치적 력량에로 부단히 묶어 세워 나아가는 력량 조직의 과정이다. 따라서 이 사업은 혁명적 실천을 통하여 사람들을 단련시키는 것과 함께 이미 혁명 투쟁에서 준비되고 세련된 핵심 력량의 목적 의식적인 지도와 영향을 통하여 부단히 새로운 력량을 혁명의 편에 인입하고 조직화하는 데서만 성과적으로 보장될 수 있다.

혁명 투쟁에서 준비되고 단련된 핵심 력량에 의거하여 당을 튼튼히 꾸리고 광범한 혁명 군중을 당 주위에 묶어 세우는 것은 혁명 력량을 질적으로 실속 있게 꾸릴 수 있게 하는 매우 효과적인 길이다.

실천 투쟁에서 육성되고 단련된 선진 분자들의 대오는 그의 훌륭한 본보기와 선도적 역할에 의하여 주위의 사람들을 각성시켜 혁명의 편에 묶어 세우기 위한 활동을 능숙하게 진행할 수 있다.

따라서 당 대렬을 튼튼히 꾸림에 있어서나 광범한 군중을 혁명의 편에 전취함에 있어서나 핵심 력량을 우선 튼튼히 꾸리고 그들의 역할을 높이는 것이 매우 절실한 요구로 제기된다.

핵심을 통하여 부단히 혁명 력량을 확대하여 나가는 우리 당의 방침은 해방 전 항일 무장 투쟁의 간고하고 장기적인 투쟁 속에서 단련되고 육성된 공산주의적 핵심 력량의 원천에 기초하여 취해진 현명한 조치이다.

김 일성 동지를 비롯한 조선의 공산주의자들은 장구한 기간 일제를 반대하는 힘에 겨운 무장 투쟁을 승리적으로 전개하면서 이 준엄한 투쟁의 대렬에서 수 많은 혁명 투사들을 육성하였으며 일제를 반대하는 로동자, 농민들의 대중 투쟁 속에서도 우수한 혁명가들이 수 많이 배출되였다.

항일 무장 투쟁의 불'길 속에서 육성되고 단련된 공산주의자들과 그리고 그들의 지도와 영향 하에 각지에서 활동

한 수 많은 혁명 투사들은 해방 후 당을 창건하고 당 대렬을 조직 사상적으로 공고화하며 혁명 력량을 확대 강화하기 위한 튼튼한 골간으로 되였다.

우리 당은 바로 오랜 혁명 투쟁에서 단련된 이러한 력량을 골간으로 하여 핵심을 부단히 확대해 나가면서 혁명 력량을 최대한으로 전취하는 창조적인 방침을 취하였다.

핵심의 부단한 육성을 통하여 혁명 력량을 꾸릴 데 대한 우리 당 방침의 선차적인 요구는 오랜 혁명 투쟁에서 단련된 공산주의자들을 핵심으로 하여 당을 꾸리고 당내 핵심 대렬을 확대하여 전체 당원들의 정치 사상적 자질을 높이며 그들을 한결같이 당과 혁명에 무한히 충실한 공산주의자로 단련 육성하는 데 있다.

당내에는 준비 정도가 각이한 당원들이 있게 되는 것 만큼 전체 당원들을 철저한 혁명가로 키워 내기 위해서는 사상적으로나 능력 상으로나 앞선 당원들의 선도적 역할에 의하여 전체 당원들을 그들의 수준에로 끌어 올리도록 하여야 한다.

더우기 우리 당이 대중적 당으로 급속히 발전하면서 당원들의 정치 의식 수준 상 차이가 많아진 조건에서 그들을 단번에 똑같이 공산주의 의식으로 무장시키기 어려웠던 사정은 반드시 먼저 핵심을 길러 내고 점차 전체 당원의 의식 수준을 끌어 올릴 것을 절실히 요구하였다.

이로부터 우리 당은 일제를 반대하는 장기간의 어려운 혁명 투쟁에서 단련된 공산주의자들을 골간으로 하여 당을 꾸리며 당내 핵심을 길러 내고 그들의 작용에 의하여 전체 당원들을 혁명가로 육성하는 방침을 시종일관 견지하였다.

핵심의 부단한 확대를 통하여 혁명 력량을 꾸릴 데 대한 우리 당 방침의 혁명성은 당을 실속 있게 꾸리고 군중 속에서 전체 당원들의 역할을 높여 모든 혁명 군중을 당 주위에 튼튼히 묶어 세울 수 있게 한다는 데 있다.

당원들이 군중 속에서 혁명과 건설을 위한 실천 투쟁을 통하여 선봉적 역할을 놀게 될 때 그들은 자신의 실천적 모범과 교양으로 수 많은 군중을 각성시켜 당 주위에 묶어 세울 수 있다.

물론 군중을 전취하는 일은 단번에 용이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 군중을 당 주위에 묶어 세움에 있어서도 사회 정치 생활이 견실한 기본 군중으로 혁명의 골간 부대를 튼튼히 꾸리고 그들에 철저히 의거해야 각계 각층 군중을 모두 혁명의 편에 전취할 수 있다.

견실한 기본 군중은 자기의 계급적 처지로부터 출반하여 혁명의 매 단계에서 당과 혁명에 무한히 충실하였을 뿐 아니라 앞으로도 혁명의 종국적 승리를 위하여 모든 것을 다 바쳐 투쟁할 사람들이다. 때문에 이들로써 우선 혁명의 골간 부대를 튼튼히 꾸려야 그에 기초하여 일체의 혁명 력량을 통일 단결시키며 제기된 혁명 과업의 수행을 성과적으로 보장할 수 있다.

이로부터 우리 당은 견실한 기본 군중들 속에서 당'적 영향을 부단히 강화함으로써 당의 계급적 지반을 튼튼히 구축하는 동시에 그들에 의거하여 각계 각층 군중을 전취하는 방침을 일관하게 견지하였다.

특히 각계 각층 군중을 전취하는 문제는 우리 나라 력사 발전의 특성으로부터 주민의 사회 정치적 구성이 복잡한 사정과 관련하여 매우 심각한 문제로 제기된다. 이 문제를 옳게 해결하는가 못 하는가 하는 것은 결국 우리 혁명 력량의 확대 강화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이러한 조건에서 우리 당은 견실한 기본 군중에 의거하여 당을 따라 오는 각계 각층의 모든 군중을 혁명의 편에 묶어 세우는 방침을 견지하였다.

이것은 극소수 반 혁명 분자들을 철저히 고립시키고 당을 따르는 군중은 물론 동요하는 군중까지도 최대한으로 쟁취하여 당의 주위에 결속시킬 수 있게 하는 가장 현명한 방침이였다.

이 방침의 기저에는 혁명 력량을 꾸림에 있어서 확고부동한 계급 로선에 의거하면서 이에 군중 로선을 밀접히 결합시키며 로동 계급의 지도 하에 로농 동맹을 핵심으로 하여 전체 인민을 혁명의 편에 결속하는 우리 당의 시종 일관한 원칙적 립장이 놓여 있다.

우리 당은 바로 이와 같이 오랜 혁명 투쟁에서 단련된 공산주의자들을 핵심으로 하여 당내 핵심을 길러 내고 전체 당원들을 혁명가로 키우며 당원들을 핵심으로 하여 견실한 기본 군중으로 혁명의 주력군을 튼튼히 꾸리고 전체 인민을 혁명 정신으로 무장시켜 나아감으로써 전 사회의 혁명화를 촉진시키고 인민의 정치-도덕적 통일을 반석같이 다질 수 있었다.

4

우리 나라에서 혁명 력량을 꾸리기 위한 사업은 공화국 북반부에서 사회주의 혁명과 사회주의 건설을 추진할 뿐 아니라 조국 통일의 위업을 달성하고 조선 혁명을 전국적으로 승리하기 위한 전략적인 요구에서 출발한 것이다.

조선 혁명의 전국적 승리를 달성하기 위하여서는 공화국 북반부의 혁명 력량을 꾸리는 것과 함께 남조선의 혁명 력량을 강화하며 국제 혁명 력량과의 단결을 강화하여야 한다.

공화국 북반부는 전국에서의 혁명을 완수하기 위한 혁명의 기지이며 따라서 북조선 혁명 력량은 조선 혁명의 성과를 좌우하는 주도적 력량이다.

공화국 북반부를 단일한 정치적 력량으로, 경제적, 군사적으로도 조선 혁명의 강력한 기지로 만들어야만 혁명의 종국적 승리를 촉진할 수 있다.

공화국 북반부의 혁명 력량을 정치적으로 뿐 아니라 물질적으로도 강화하는 것은 북반부에서 혁명을 부단히 심화시키고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을 촉진하기 위한 필수적 요구로 된다. 또한 그것은 미제의 무력 침공으로부터 혁명의 전취물을 수호하고 남반부 인민들의 구국 투쟁을 적극 지원하며 앞으로 도래할 혁명적 대사변을 준비 있게 맞이하기 위한 결정적 담보로 된다.

우리 당은 이러한 견지로부터 출발하여 새 사회 건설에 들어선 첫 시기부터 혁명의 정치적 력량을 꾸준히 확대하는 한편 북반부에서 경제 건설을 촉진시켜 자립적 민족 경제의 토대를 튼튼히 축성함으로써 조국의 통일 독립과 전국적 범위에서 혁명의 완수를 위한 물질적 력량을 강화하는 데 온갖 힘을 다하였다. 이리 하여 오늘 우리의 혁명 기지는 정치적으로 뿐 아니라 경제, 군사적으로 칠옹성 같이 다져졌다.

조선 혁명을 성과적으로 실현하기 위해서는 남조선의 혁명 력량을 키우는 것이 필연적인 과업으로 제기된다.

남조선 혁명은 외래 제국주의의 예속하에 있는 우리 조국의 절반 땅과 인민을 해방하기 위한 혁명으로서 전체 조선 혁명의 중요한 구성 부분을 이루고 있다. 조국의 통일 독립을 달성하며 전국에서 혁명을 완수하기 위한 력사적 과업은 북반부의 사회주의 력량을 강화하는 동시에 남조선의 혁명 력량을 강화하며 북반부에서 사회주의 건설을 촉

진하는 동시에 남조선에서 혁명을 수행함으로써만 비로소 실현될 수 있다.

우리 당과 인민은 해방 직후부터 남조선 혁명 력량의 장성을 적극 지지 성원하여 왔으며 그들과 함께 조국의 통일과 민족 해방 혁명의 승리를 위하여 견결히 싸워 왔다.

우리 당의 진지하고 정당한 조국 통일 방안과 공화국 북반부에서 부단히 장성하는 정치적, 물질적 력량은 남반부 인민들 속에서 새 생활, 새 제도에 대한 뜨거운 동경과 지향을 불러 일으키고 있으며 오늘 남반부에서는 로동자, 농민, 청년 학생을 비롯한 광범한 인민들이 반미 구국 투쟁의 혁명 대렬에 더욱더 힘차게 결속되여 가고 있다.

우리의 혁명 력량을 확대 강화하는 데 있어서 국제 혁명 력량과의 단결을 강화하는 것이 또한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조선 혁명의 전국적 승리는 평화와 민주주의, 민족적 독립과 사회주의를 위한 전 세계 인민들의 공동 투쟁과의 밀접한 련관 속에서만 성과적으로 추진될 수 있다.

미제를 우리 조국 땅 우에서 몰아 내기 위해서는 바로 국제 혁명 력량과의 련대성을 강화함으로써 국제 무대에서 미제를 고립 약화시키고 도처에서 미제의 침략 책동에 타격을 가하여야 한다. 조선 인민이 국제 혁명 력량과의 단결을 강화하여 전 세계적 범위에서 미제를 괴수로 하는 제국주의 세력을 반대하는 투쟁을 강화하면 할수록 우리 혁명의 승리는 그 만큼 추진될 것이다.

또한 국제 혁명 력량과의 련대성을 강화하여 조선에서 미제 침략자들을 완전히 몰아 내고 세계 혁명의 일환인 조선 혁명의 승리를 앞당기는 것은 세계 혁명을 직접 추진하는 것으로도 된다.

그러므로 우리 당은 사회주의 국가 인민들과 굳게 단결하며 제국주의자들의 침략을 반대하는 신생 독립 국가들과 제국주의의 예속에서 벗어 나기 위하여 투쟁하고 있는 아세아, 아프리카, 라틴 아메리카의 모든 나라 인민들을 적극 지지하며 그들과의 단결을 강화하는 것을 우리 혁명 력량의 확대 강화를 위한 사업의 중요한 일환으로 간주하여 왔으며 국제 혁명 력량과의 련대성을 부단히 강화하고 있다.

* *

혁명 력량을 꾸릴 데 대한 우리 당의 방침은 그 실현을 위한 투쟁을 통하여 위대한 생활력을 발휘하고 있다.

당의 방침이 관철됨으로써 공화국 북반부는 강력한 정치적 력량과 물질적 력량을 가진 난공불락의 요새로 꾸려지고 있으며 남반부의 혁명 력량도 더욱더 자라나고 있고 국제적 혁명 력량과의 단결도 일층 강화되고 있다. 이리하여 조선에서 혁명과 반혁명 간의 력량 관계는 혁명의 편에 결정적으로 유리하게 전변되고 있다. 이것은 조선 혁명의 종국적 승리를 위한 튼튼한 밑천으로 된다.

우리는 앞으로 도래할 조국 통일의 대사변을 주동적으로 맞이하며 우리 혁명의 종국적 승리를 달성하기 위하여 이미 축성하여 놓은 밑천을 토대로 우리의 혁명 력량을 더욱 강화하여야 할 것이다.

계급 교양과 전쟁 문학

리 상 태

우리의 문학 예술은 근로자들에 대한 계급 교양의 유력한 수단으로 되고 있다. 그 중에서도 조국 해방 전쟁의 위대한 력사적 과정을 반영한 문학 예술 작품은 그 주제적 특성으로 하여 특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전쟁은 민족적 및 계급적 모순이 폭발된 가장 치렬한 계급 투쟁이다. 그러므로 전쟁에서는 거기에 참가하는 계급들의 모든 물질적 및 정신적 잠재력이 동원되며 계급적 본성이 가장 뚜렷이 표현된다. 3 년 간의 조선 전쟁은 원쑤들의 침해로부터 혁명의 전취물을 수호하는 정의의 투쟁에 일떠선 우리 인민의 정신적 위력과 우리 제도의 우월성을 뚜렷이 보여 주었으며 동시에 미제와 그 주구들의 침략적 본성과 야수성, 취약성과 부패성을 폭로하였다.

전쟁 현실을 생동하고 진실하게 반영하는 전쟁 문학은 가장 준엄한 시련의 시기에 우리 인민이 발휘한 불패의 영웅주의와 불굴의 투쟁 정신을 예술적으로 재현하며 또한 우리 혁명의 첫째 가는 대상이며 우리 인민의 철천지 원쑤인 미제와 그와 야합한 계급적 원쑤들의 잔악한 본성과 천인공노할 죄행을 낱낱이 폭로함으로써 근로자들을 원쑤들에 대한 고도의 적개심, 조국과 혁명에 대한 무한한 충실성으로 교양하며 불굴의 투쟁 정신으로 무장시키는 훌륭한 교과서로 된다.

이미 우리의 작가들은 준엄한 전쟁의 나날을 진실하게 묘사한 일련의 성과작들을 창조하였다. 전쟁 시기에 발표된 단편 소설 《상급 전화수》, 《불타는 섬》, 중편 소설 《싸우는 마을 사람들》 등과 전후 시기에 창작된 중편 소설 《전사들》과 《포화 속에서》, 장편 소설 《조국》과 《시대의 탄생》(제 1 부) 및 기타를 통하여 작가들은 혁명 력사의 이 한 시기를 형상적으로 기록하였다.

이 작품들은 전쟁 현실을 묘사하면서 준엄한 시련을 극복해 나가는 힘의 원천이 어디에 있으며 그 시련이 과연 어떠한 사람들에 의하여 극복되였는가를 확인하는 데 중심을 두었다. 미제를 괴수로 하는 침략자들을 격파하는 투쟁은 간고하였으나 자기 위업의 정당성을 확신하고 불사신마냥 원쑤 격멸에로 일떠선 인민의 위대한 영웅주의는 그 무엇으로써도 막을 수 없었다. 실로 조국 해방 전쟁의 나날은 어떠한 희생의 대가를 치르고라도 원쑤의 침해로부터 조국을 수호하려는 혁명적 열정과 불타는 적개심이 전선과 후방을 지배하였다.

우리 작가들은 이러한 혁명적 현실에로 대하여 온 나라와 온 겨레가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투쟁에 일떠선 혁명적 폭발의 나날로, 잔악한 원쑤들을 격멸하는 영웅적 현실로 전쟁을 묘사하였다.

이렇게 함으로써만 전쟁 문학은 인민을 혁명 정신으로 교양할 수 있으며 바로 전쟁에 참가한 사람들에게 혁명가로서의 긍지와 후대들에게 혁명의 계승자로서의 영예를 안겨 줄 수 있는 것이다.

이는 우리 작가 예술인들이 사회주의적 사실주의 기치를 확고히 고수하면서

정의의 전쟁의 참된 혁명적 본질을 진실하게 반영하였다는 것을 말하여 주며 바로 여기에 전쟁을 《회생과 비극》이 강요되며 《혼잡과 무질서》가 지배하는 참담한 현실로 묘사하는 다른 경향의 문학과 구별되는 우리의 문학 예술의 우월성이 있다.

이 땅에 제국주의가 남아 있고 전쟁의 근원이 남아 있는 한 전쟁에 관한 주제는 문학 예술의 항구적인 주제로서 자기의 생활력을 가진다. 더우기 우리 나라의 현 정세는 인민들 속에서 전쟁에 대처할 정치 사상 사업을 강화하며 그들에게 전쟁의 경험을 습득시킬 것을 절실하게 요구하고 있다. 이것은 우리의 문학 예술 앞에 전쟁을 주제로 한 작품 창작을 더욱 긴절한 과업으로 제기한다.

작가 예술인들은 위대한 조국 해방 전쟁의 참가자이며 체험자로서 이 위대한 혁명 력사를 더욱더 훌륭하게 예술화하여 후손만대에 전할 시대적 책임을 다하기 위하여 계속 노력해야 한다.

1.

계급 교양의 위력한 무기로서의 전쟁 문학의 사명은 무엇보다도 전쟁에서 발휘된 우리 인민의 영웅적 성격의 특질을 심오하고 생동하게 보여 주며 그 위대한 힘의 원천을 예술적으로 천명하는 것이다. 그렇게 함으로써 전쟁 문학은 근로자들과 자라나는 후대들로 하여금 어떠한 어려운 시기에도 우리가 미제와 싸워 승리한 것처럼 그렇게 굳세게 싸워 나가도록 교양하여야 한다.

문학 예술에서 우리 인민의 영웅적 성격은 응당 그의 사회 계급적 지반 우에서 창조되여야 하며 보통 인민이 그로록 위대한 영웅주의를 발휘한 생활적 바탕이 확인되여야 한다.

전쟁에서 발휘한 우리 인민의 불패의 영웅주의는 무엇보다도 인민이 나라의 주인으로 된 새로운 사회 제도의 우월성에 기초하고 있으며 조국의 운명과 자신의 운명을 굳게 결합시키고 있는 인민 대중의 높은 계급적 자각에 기초하고 있다. 미제 침략자들을 반대하는 투쟁이 자기의 행복한 생활, 자기의 조국과 혁명의 전취물을 수호하는 투쟁이라는 것을 해방 후 새 생활을 통하여 체험한 우리 인민은 전쟁의 전 기간 전선과 후방 그 어디에서나 자기의 모든 것을 원쑤 격멸의 투쟁에 바쳤다.

이러한 영웅주의는 《상급 전화수》의 리 남길, 《불타는 섬》의 리 대훈과 김 명희, 《싸우는 마을 사람들》의 최 치부와 계 덕근, 《조국》의 리 태하, 《수리개》의 박 태호, 《전사들》의 박 대우와 강 표, 《포화 속에서》의 신 철구, 《시대의 탄생》의 박 세철과 전 학민 등의 형상에 생동하게 반영되고 있다.

그들은 신비로운 존재도, 그 어떤 전설적 영웅도 아니였다. 김 일성 동지께서 교시한 바와 같이 《우리의 영웅들은 어제'날의 로동자, 농민, 사무원, 학생들이며 그들의 자제들이다》(김 일성, 《우리 혁명에서의 문학 예술의 임무》, 4 페지).

우리의 보통 전사들과 보통 인민들을 영웅적 위훈에로 이끈 것은 조국의 운명에 대한 깊은 관심과 자기의 력사적 사명에 대한 충분한 자각이였으며 그로부터 산생되는 원쑤들에 대한 불타는 증오심이였다. 과거에는 평범한 농민들이였던 최 치부나 계 덕근이가 원쑤들의 야수적 고문에도 굴함 없이 혁명적 절개를 고수하는 것도 바로 그 때문이며 인민 군대의 소박한 지휘관인 박 대우가 단 한 개 중대의 력량으로 적 두 개 련대의 공격을 물리치는 완강한 투쟁 정신을 발휘할 수 있은 것도 바로 그 때문이다.

영웅주의의 계급적 토대, 생활적 전제를 명확히 묘사하며 영웅적 행위가 일시적인 충격에 의한 것이 아니라 높은 계급적 자각에 기초한 적개심의 폭발임을 보여 주는 것은 형상의 진실성에 관한 문제인 동시에 우리의 근로자들을 계급적 립장에 튼튼히 서도록 교양하는 데 있어서도 필요한 것이다.

이와 함께 영웅적 성격의 특질은 또한 전쟁의 력사적 사변, 전투 행동과의 유기적 통일 속에서 보여 주어야 한다. 이럴 때만이 전사들을 전투 행동에 파묻힌 인간으로가 아니라 그 전투의 능동적 조직자이며 참가자로서 형상화할 수 있으며 전투 위훈에 대한 묘사와 함께 그들의 정신 세계를 깊이 있게 묘사할 수 있다. 이것은 하나의 미학 상 문제인 동시에 전사-영웅들에 대한 작가의 열렬한 사랑과 굳게 결부되여 있다.

대중적 영웅주의는 영웅적 형상 창조에서 특별한 자리를 차지한다. 조국 해방 전쟁에서 발휘한 우리 《인민 군대의 영웅성은 몇몇 병사들의 영웅성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의 대중적 영웅주의에 있다》 (김 일성, 《우리 혁명에서의 문학 예술의 임무》, 4 페지).

대중적 영웅주의는 공동의 원쑤를 반대하는 투쟁에서의 사상 의지의 통일의 표현이며 조국과 인민 앞에 지닌 임무의 공통성에 의하여 단합된 전사들의 뜨거운 전우애이다. 바로 이 위대한 힘 앞에서는 군사적 력량의 강대성을 자랑하던 미제 침략자들도 침패를 면할 수 없었다.

대중적 영웅주의는 《불타는 섬》, 《전사들》, 《1,211 고지 방위자들》을 비롯한 수다한 작품들에 생동하게 구현되였다. 문학 예술 작품에서 대중적 영웅주의는 등장 인물의 다수에 의하여 규정되는 산수적 개념과는 인연이 없다. 대중적 영웅주의의 예술적 구현은 등장 인물이 적거나 많거나에 관계 없이 주인공을 대중의 일원으로 묘사하며 개별적인 영웅으로가 아니라 하나의 목적과 지향을 실현하기 위하여 단합된 집단으로 묘사하는 것을 의미한다.

중편 소설 《전사들》은 인민 군대의 대중적 영웅주의를 훌륭하게 구현하였다. 특히 이 작품은 수 많은 각이한 성격들의 생동한 창조를 통하여 오직 침략자들을 격파하는 투쟁에서 하나로 결합된 영웅적 군상을 훌륭하게 창조하였다.

원쑤에 대한 불타는 증오와 혁명 동지에 대한 열렬한 사랑을 지닌 열정의 소유자 박 대우, 어떠한 어려운 환경에서도 침착하게 련대를 지휘하며 전사들을 친어버이와 같이 사랑하는 로련한 지휘관 강 표, 소박하고 꾸밈 없는 말로써 전사들을 결전에로 불러 일으키는 정치 부중대장 김 의식, 자기의 의무 수행에 충실한 상급 준의 구 혜경, 랭칠하나 교범과 규정의 요구에 의해서만 사고하기에 습관된 참모장 구 본수—이 모두는 얼마나 개성적인 성격들인가. 이 다양한 성격들이 결국 하나의 의지로 결합되면서 원쑤를 격멸하는 투쟁에서 수십 수백 배의 위력을 낳는다.

혁명적 락관주의는 영웅적 형상의 중요한 정신적 아름다움으로 빛나고 있다. 혁명적 락관주의는 전사들을 영웅적 위훈에로 고무하는 정신적 힘의 원천이기도 하다. 때문에 이러한 사상적 바탕을 해명함이 없이는 우리의 보통 전사들이 무엇 때문에 희생을 두려워하지 않고 결사전에로 나아갔는가를 리해할 수 없다.

《불타는 섬》에서 묘사되고 있는 바와 같이 막대한 수량의 적을 한 개 중대 병력으로 3일 간이나 인천 앞바다에 못박아 놓고 겨원 장렬한 최후 돌격에로

나아간 해안포 중대의 투쟁은 실로 영웅적인 동시에 혁명적 락관주의 구현의 모범으로 된다. 리 대훈 중대 장병들이 그토록 자기 희생적인 혁명 정신을 발휘할 수 있은 것은 월미도를 방어하는 한 초 한 초가 아군 부대와 인민들의 전략적 후퇴의 귀중한 시간을 마련해 준다고 생각하는, 즉 혁명 앞에 지닌 자기 의무에 대한 고도의 자각성에서 유래한 것이다.

혁명적 락관주의는 승리에 대한 확고한 신념과 미래에 대한 열렬한 지향에서도 표현되였다.

가렬한 전쟁의 나날에도 우리의 전사들은 우리의 투쟁의 정당성으로 하여 어떠한 강적이라도 소멸할 수 있다는 신심으로 충만되여 있었으며 전쟁이 끝나면 공장과 농촌, 학교에서 더 보람 있게 일하며 배우려는 희망으로 불탔다. 이 확신과 이 꿈은 달려드는 원쑤를 섬멸로써 타승하려는 불굴의 혁명 정신을 배양하였으며 전사들을 위훈에로 용감히 나서게 하였다.

이와 같이 전쟁 문학은 대담성과 자기 희생성, 영웅주의와 락관주의가 전면적으로 구현된 영웅적 형상을 창조해야 하며 또한 그러한 성격적 특질이 뚜렷한 개인적 형상으로 부각되도록 해야 한다. 이것은 전쟁 현실을 《상복을 입은 비극》의 나날이 아니라 원쑤를 격멸하는 치렬한 계급 투쟁으로 묘사하는 것을 의미하며 전사들을 지휘관의 명령에 따라 《지향 없이 움직이는 군상》이 아니라 자기의 공민적 및 계급적 의무를 높이 자각하고 결전에로 나아간 투사로 형상화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래야만 전쟁 문학은 원쑤와의 투쟁에서 인민들을 영웅주의에로 고무하며 승리에 대한 확고한 신념으로 교양하는 강력한 사상적 무기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것이다.

2

전쟁 문학은 우리 인민의 력사에 영원히 새겨질 위대한 사변인 전쟁 현실을 그에 상응하게 폭 넓고 전면적으로 반영하여야 한다.

이것은 문학 예술이 인민들을 전쟁에 대한 풍부한 경험으로 무장시킬 데 대한 시대적 요구에 대답하는 것으로 된다. 그 규모에 있어서나 가렬성에 있어서나 전례가 드문 3 년 간의 전쟁을 통하여 우리는 전략 전술에서, 공방전과 적후 자전, 빨찌산 투쟁과 지하 투쟁, 후방 인민의 투쟁 등 각이한 형태의 투쟁에서 풍부한 경험을 얻었다.

《우리가 전쟁에서 달성한 승리는 우리 나라의 민주 기지를 고수한 데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민, 우리의 군대, 우리의 간부, 우리의 당과 정권 기관들이 고귀한 경험을 쌓았다는 거기에도 있다… 이 경험은 포연 탄우 속에서 피와 땀으로 얻은 고귀한 경험이다. 우리는 이것으로 력사의 한 페지를 장식하는 데만 그칠 것이 아니라 그 경험을 보배와 같이 귀중히 여기며 체계적으로 연구하여 금후의 우리 사업에 잘 살려야 하겠다》(김 일성 선집 제 4 권, 154~155 페지).

전쟁 문학은 다양한 형식의 작품을 통하여 이 경험을 보여 주어야 하며 특히 전선과 후방에서의 인민들의 투쟁을 다각적으로 묘사함으로써 전쟁의 전 력사적 기간을 통하여 자용한 전략 전술과 투쟁 경험을 폭 넓게 보여 주어야 한다.

전쟁 현실을 폭 넓게 묘사하는 것은 우리 문학 예술 발전의 자체 요구이기도 하다. 우리 문학 예술 앞에는 우리 인민의 력사와 생활에서 거대한 의의를 가지는 전쟁을 예술적 화폭으로 재현하여 길이 전할 의무가 있을 뿐 아니라 전쟁 자체가 문학 예술 앞에 영웅 서사

시적인 소재들을 무수히 제공하고 있다. 장편 소설 《시대의 탄생》을 비롯한 일련의 소설들과 서사시들이 이 요구에 대답하고 있다. 그러나 그러한 작품들은 아직 많지 못 하다.

이 모든 사실은 대작으로서의 전쟁 주제의 작품들을 광범히 창작할 것을 절실히 요구하고 있다.

대작으로서의 전쟁 주제의 작품들을 창작하기 위해서는 물론 여러 가지 리론 실천적 문제들이 제기된다.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첫째로, 전쟁의 시련을 겪으면서 자라나는 새 시대의 혁명가의 운명을 형상화하는 문제이며 둘째로, 전쟁에서 발휘한 우리 인민의 영웅주의와 혁명적 위훈을 폭 넓게 서사시적으로 반영하는 문제이다.

혁명은 계속되고 있으며 그 과정에서 부단히 새로운 투사, 혁명가들이 준비된다. 특히 조국 해방 전쟁의 준엄한 시련은 우리의 수 많은 보통 사람들을 영웅으로, 투사로, 혁명가로 자라게 하였다. 그들은 바로 혁명의 계승자들이였는바 대작은 응당 그들의 운명을 형상화하여야 한다.

혁명의 계승자로서의 운명을 형상화하기 위해서는 그들을 개별적인 전투 정황 속에서만 묘사할 것이 아니라 전쟁의 전 력사적 기간을 전후로 한 시대를 배경으로 하면서 성격 발전의 력사를 해명하여야 한다. 이것은 그들의 생애를 전기적으로 보여 주어야 한다거나 혹은 그들이 살아 온 전 력사적 기간을 배경으로 하여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성격 형성의 배경으로서의 전쟁 환경을 중심으로 하면서 투사로 되기까지의 성격 발전 과정을 추구하는 것을 의미한다.

장편 소설 《시대의 탄생》(제 1 부)에서 작가는 주인공 박 세철의 형상을 이렇게 창조하려고 시도하였다. 세철의 성격은 조국 해방 전쟁의 거대한 력사적 사변들과의 유기적 련계 속에서 발전되고 있다. 즉 시대의 거세찬 흐름과 투사의 성격 발전이 결합되고 있으며 따라서 한 투사의 운명 형상을 통하여 조국 해방 전쟁의 시대적 흐름을 리해할 수 있게 한다.

작가는 주인공 세철의 형상을 항일 빨찌산 참가자인 그의 형 세진과 그리고 전 학민의 형상과 련계시키면서 혁명의 후계자로서의 그의 형상적 특징을 개성적으로 천명하였다.

조국 해방 전쟁을 소재로 한 혁명적 대작 창작을 위해서는 전쟁 현실을 폭 넓게 서사시적으로 반영하여야 한다. 이것은 전쟁의 력사적 로정과 관련된 거대한 전략적 및 전술적 의의를 갖는 사건을 취급할 것을 요구한다. 그래야만 전쟁의 우여곡절 속에서 단련되고 성장하는 전사-영웅의 운명을 형상화할 수 있으며 그의 성격 발전의 력사를 시대의 흐름과의 통일 속에서 천명할 수 있다.

특히 조국 해방 전쟁은 우리 땅 우에서 벌어진 단순한 군사적 충돌이 아니라 미제의 세계 제패를 위한 침략 책동을 극동에서 좌절시킴으로써 전 세계 인민들에게 새로운 신심을 주며 모든 피압박 인민들의 해방 투쟁의 불'길을 더욱 세차게 타오르게 한 국제적 의의를 가진 위대한 해방 전쟁이다.

때문에 조국 해방 전쟁을 폭 넓게 서사시적으로 묘사한 대작에서는 전쟁의 거대한 전략 전술적 의의를 가지는 영웅 서사시적 사건을 취급해야 함은 물론, 전선과 함께 후방도 묘사해야 하며 아군 뿐만 아니라 적의 형상도 창조해야 한다. 동시에 이 모든 것은 세계적

규모에서 평가되고 일반화되여야 한다.

장편 소설 《시대의 탄생》(제 1 부)은 조국 해방 전쟁의 전 력사적 기간을 포괄하면서 전쟁의 전략적 사변들을 기본 사건으로 하고 있으며 전선과 후방을 포괄하면서 전사들과 지휘관들, 후방의 각이한 층의 인민들, 지어는 적 진영의 움직임도 묘사하고 있으며 이 모든 것을 높은 정신적 자세를 가지고 실로 거대한 규모에서 일반화하고 있다. 거대한 전략적 문제가 이야기되는가 하면 그것의 구체적 표현으로서의 전술적 문제, 지어는 한 고지의 영웅적 투쟁이 묘사되고 있으며 한 전사, 한 분대의 위훈이 묘사되고 있는가 하면 모든 전사, 모든 분대들과 소대, 중대, 대대들을 지휘하는 련대, 사단, 군단들의 움직임도 생동하게 묘사되고 있다.

또한 이 작품은 전쟁의 불'길 속에서 각이한 계층의 운명이 어떻게 결정되는가를 추구함으로써 대작으로서의 품격을 훌륭하게 갖추게 되였다. 전사-투사로서의 세철의 성장, 혁명가-지휘관인 전 학민의 형상, 민족주의적 인테리 윤 하응과 그의 딸 설란의 갱생, 광산 기사 안 휘래의 혁명적 개변, 소박하고 강인한 처녀 보패의 성장— 이 각이한 인간들의 운명이 전쟁의 폭풍우 속에서 어떻게 변화되고 발전되며 더 명확해지는가를 볼 수 있다.

전쟁에 대한 서사시적 묘사는 반드시 전쟁의 전 기간을 배경으로 하여야 한다거나 전선과 후방의 모든 투쟁 경험을 다 보여 주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그것은 작품의 주제에 따라 전쟁의 중요한 한 시기를 배경으로 할 수도 있으며 장편 소설 《조국》에서와 같이 빨찌산 투쟁 경험을 일반화할 수도 있다. 중요한 것은 큰 전략 전술적 의의를 가지는 사건을 취급하면서 투쟁 경험을 폭 넓게 일반화하는 데 있다. 따라서 얼마나 폭 넓게 묘사하는가 하는 것은 상대적인 요구이며 그것은 어디까지나 소여 작품의 주제와 소재의 성격에 의하여 규정된다. 문제가 이렇게 설정될 때만이 생활을 폭 넓게 반영한 서사시적 작품에서도 주제 해명에 복종되는 구성의 완벽성이 담보될 수 있다.

이와 함께 전쟁 문학, 특히 대작 창작에서는 원쑤를 형상하는 문제가 중요하게 제기된다.

전쟁은 적아 간의 무력이 직접 충돌하는 전투 행동이며 적아 간의 치렬한 공방전인바 전쟁에서 발휘한 인민 군대의 영웅주의는 미제 침략자들을 소멸하는 전투 정황을 떠나서는 천명될 수 없다. 그러므로 전쟁 문학은 아군의 형상을 기본으로 하면서도 적의 형상을 창조하지 않으면 안 된다. 특히 대작에서는 민족적 및 계급적 원쑤의 형상을 창조하는 것이 필수적 요구이기도 하다.

원쑤들의 형상을 창조하는 것은 인민들을 원쑤에 대한 증오심과 반제 사상으로 교양하는 데서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조선 인민의 철천지 원쑤인 미제와 그 주구들에 대한 증오심은 무엇보다도 원쑤들의 사회 계급적 본질을 폭로하는 것을 통해서만 배양될 수 있다. 사회주의적 사실주의 작가들은 혁명 위업을 실현하기 위하여 투쟁하는 긍정적 주인공들의 형상을 전면적으로 창조하면서도 부정 인물로서의 민족적 및 계급적 원쑤들의 형상을 창조하여 반제 교양과 계급 교양에 크게 기여하였다. 《땅》의 고 병상, 《해바라기》의 야마다, 《대하는 흐른다》의 배 덕수, 《시대의 탄생》의 맥아더와 골드빈 등 원쑤들의 형상은 그 사회 계급적 본질을 심오하게 구현한 것으로 하여 두고두고 저주할 증오의 대상으로 되고 있다.

특히 전쟁 문학은 조선에서의 미제의

만행을 인류에 대한 가장 흉악한 죄악으로 전 세계 인민들 앞에 칠저히 폭로 규탄하여야 한다. 원쑤의 형상을 통하여 그들의 만행을 폭로하며 그들에 대한 증오심을 배양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미제의 약탈성, 교활성과 아울러 그들의 치명적 약점을 옳게 보여 주는 것이 중요하다.

고리끼는 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말한 바 있다: 《계급적인 증오는 멸등형의 인간으로서의 적을 미워하는 데서만 배양되는 것이며… 적의 파렴치하고 잔인한 힘 앞에 공포를 일으키는 데서 배양되는 것이 아니다. 적은 실로 멸등형의 인간이며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타락하고 퇴화한 자라는 것을 나는 두말 없이 화신하는 바이다》.

말하자면 원쑤는 공포의 대상으로가 아니라 타승의 대상으로, 멸등형의 인간으로 묘사하여야 한다. 이것은 그들의 사회 계급적 본질로부터 흘러 나오는 특성이다. 왜냐하면 적은 외형 상 강해 보이는 존재라 할지라도 낡은 계급이며 따라서 그 강대성은 일시적이며 그 멸망은 불가피한 것이기 때문이다. 《시대의 탄생》에서는 해방 전에 조선 땅 검산 마을에서 우리 사람들을 야수적으로 학대하던 골드빈의 아들이 전쟁 마당에서 세칠의 억척 같은 손아귀에 걸려 즉살하는 장면을 통하여 미제의 말로가 어떻게 되고 있는가를 개성적으로 보여 주고 있다.

적을 타승의 대상으로, 멸등형의 인간으로 묘사해야 한다는 요구는 적의 사회 계급적 본질을 그 계급의 운명과의 련계 속에서 폭 넓게 일반화하여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때문에 그것은 결코 적을 무맥한 존재로 묘사할 것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비록 현재에는 만만치 않은 투쟁 대상이라 하더라도 력사 발전 과정에서 그 패배의 불가피성을 확인할 것을 요구한다.

적의 형상을 창조하는 것과 함께 전쟁 문학은 또한 전쟁의 근원과 그 사회 력사적 배경을 보여 주는 것이 필요하다. 일정한 계급이 추구하는 정책의 연장인 전쟁은 뿌리 깊은 계급적 근원과 사회 력사적 조건들을 가지고 있다. 이것을 밝힘으로써 전쟁 문학은 전쟁의 계급적 성격을 명백히 보여 주어야 하며 전쟁에 대한 옳은 인식을 주어야 한다.

《시대의 탄생》의 경험이 보여 주는 바와 같이 조국 해방 전쟁을 주제로 한 대작은 이 전쟁이 그 어떤 우연한 동기에서 기인한 군사적 충돌이 아니라 미제가 자기의 야망을 실현하기 위하여 장기간 면밀히 준비해 온 침략 행위이라는 것을 똑똑히 보여 줄 수 있다. 그러면서 그것은 미제야말로 우리 인민의 력사적으로 오랜 피맺힌 원쑤일 뿐만 아니라 세계 혁명적 인민들의 공동의 원쑤이며 계급적 원쑤들의 착취자적 본성은 십요하고 잔인하다는 것을 예술적으로 확증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우리 문학 예술 앞에는 전쟁을 주제로 한 작품을 전면적으로 창조함으로써 적들의 책동에 대처하여 인민을 전쟁에 대한 풍부한 경험으로 무장시키며 계급적 원쑤들에 대한 증오심과 최후의 승리에 대한 신념으로 교양할 시대적 과업이 나서고 있다.

이 시대적 요구에 대답하기 위하여 우리 작가 예술인들은 응당 전쟁 참가자로서의 긍지를 가지고 이에 혁명적 열정을 기울여야 한다. 그리 하여 전쟁에 대한 옳은 인식과 확고한 립장을 가지며 조국 해방 전쟁의 준엄한 현실과 그 사회 계급적 및 력사적 배경을 넓고 깊게 연구하며 풍부한 자료를 축적한 데 기초하여 혁명 전쟁의 영광스러운 력사를 생동한 예술적 화폭으로 구현하여야 한다.

웰남 인민의 반미 구국 투쟁을 적극 지원하자

김 용 희

오늘 전 세계 인민들의 관심은 웰남에 집중되고 있다.

세계 인민의 공동의 원쑤인 미 제국주의자들은 웰남 인민을 반대하는 침략 전쟁에 필사적으로 달라붙고 있으며 자기의 많은 력량을 여기에 집결하고 있다. 날로 확대되는 웰남에 대한 미제의 발광적인 침략 책동으로 말미암아 아세아와 세계 평화는 위협을 받고 있다.

그러나 웰남 인민은 미제의 침략으로부터 남부 웰남을 해방하고 북부 웰남을 수호하기 위하여 영웅적으로 투쟁하고 있으며 도처에서 침략자들에게 심대한 타격을 가하고 있다.

미제의 침략을 반대하여 전체 웰남 인민이 전개하고 있는 영웅적 항전은 침략자를 물리치고 자기 조국의 완전한 해방과 독립, 국토의 완정을 위한 자위적인 애국 투쟁이며 정의의 해방 전쟁이다. 이 전쟁은 웰남 인민의 자유와 독립을 위한 전쟁일 뿐 아니라 미제를 괴수로 하는 제국주의와 식민주의를 반대하고 평화와 민주주의, 민족적 독립과 사회주의를 위하여 투쟁하는 아세아, 아프리카, 라틴 아메리카 나라들과 모든 사회주의 나라 인민들, 전 세계 모든 진보적 인민들의 공동 위업의 일환이다.

《현시기 반제 민족 해방 투쟁에서 초미의 문제는 웰남에 대한 미 제국주의자들의 무력 침공을 저지 파탄시키며 침략을 반대하는 웰남 인민의 투쟁을 지원하는 것이다》(김 일성, 《조선 로동당 창건 20 주년에 제하여》).

* *

오늘 반제 민족 해방 투쟁의 불'길은 아세아, 아프리카, 라틴 아메리카의 전 지역을 휩쓸고 있다. 이 투쟁에서 제국주의 세력은 무너지고 있으며 혁명 력량은 그들을 압도하면서 승리하고 있다.

특히 반미 반제 민족 해방 투쟁이 다른 어느 지역보다 가장 치열히 전개되고 있는 곳은 웰남이다.

웰남은 현시기 반제 민족 해방 투쟁의 최전선이다.

웰남에서는 미 제국주의자들과 웰남 인민들 간에 누가 누구를 하는 판가리 싸움이 진행되고 있으며 이 투쟁은 민족 해방 력량과 제국주의 세력 간, 사회주의와 제국주의 간, 혁명과 반혁명 간의 가장 치렬한 투쟁이다. 웰남 전쟁은 그 규모에서나 격렬성에 있어서 제 2 차 대전 후 조선 전쟁을 방불케 하고 있다.

미 제국주의자들은 남부 웰남에서 《특수 전쟁》의 실패를 《계단식 확대 전략》으로써 만회하려고 망상하면서 전쟁의 불'길을 광범한 지역에 확대하려 하고 있으며 더 많은 병력을 남부 웰남에 투입하고 있다. 그들은 이미 웰남 전쟁에 투입한 근 20만 명의 미군 병력수를 앞으로 40만~50만 명으로 증가하

려 하고 있다.

미 제국주의자들은 치욕스러운 자기의 식민지 전쟁에 추종 국가들의 괴뢰군들을 더 많이 인입함으로써 웰남 전쟁을 《국제화》하려 하고 있는바 이미 2만여 명에 달하는 남조선 괴뢰군과 오스트랄리아, 뉴질랜드의 고용병들을 끌어 들였고 영국, 서부 독일, 타이, 필리핀, 장 개석 도당의 《게릴라 전문가》와 《군사 고문》들을 투입하여 웰남 인민들을 반대하는 침략 전쟁을 감행하고 있으며 지어 제 2 차 세계 대전 시기 아세아에서 천추에 용납 못할 범죄 행위를 감행한 일본 전범자들까지 리용하고 있다.

한편 미국 국내에서도 웰남 전쟁으로 하여 사실 상 동원 상태에 들어 갔다.

미 제국주의자들은 자기의 병력을 금년 중으로 수십만 명이나 더 증가시킬 것을 계획하면서 청장년들을 대대적으로 징집하고 있다. 백악관의 두목인 존슨은 웰남 전쟁의 비상 자금으로 이미 17억 딸라의 지불을 승인하였고 금년에는 웰남 전쟁을 위한 보충 지출로 약 130억 딸라를 계획하며 명년에는 그것을 더욱 증가하려 하고 있다. 미국 독점 재벌들은 지금 군수 산업을 확장하고 있으며 웰남 전쟁을 위하여 폭탄 생산을 수개월 내에 현재의 10 배로 증가시키려 하고 있다.

이처럼 미 제국주의자들은 전시 체제 개편 준비와 전쟁 확대 정책에 몰두하면서 날로 확대 강화되는 웰남 인민의 투쟁을 저지시켜 보려고 망상하고 있다.

미제는 웰남 전쟁에 자기의 모든 최신형 무기를 동원하고 있으며 지어 유독성 화학 물질까지 사용하면서 웰남 인민을 반대하는 가장 야만적인 전쟁을 감행하고 있다. 그들은 지상 부대와 공군을 동원하여 남부 웰남 해방 지역에 대한 야만적인 초토화 작전을 감행하며 민주 웰남에 대한 무차별 폭격을 강화하고 있다. 최근에는 지상 부대를 동원하여 민주 웰남을 공격하겠다고 공공연히 떠벌리고 있다.

이것은 오늘 미 제국주의자들이 웰남 인민을 반대하는 침략 전쟁에 얼마나 집요하게 달라붙고 있으며 전쟁 확대에 얼마나 광분하고 있는가를 명백히 보여 주고 있다.

그러나 미 제국주의자들의 어떠한 침략 책동도 영웅적 웰남 인민의 투쟁을 저지시킬 수 없다.

웰남 인민은 간고한 투쟁 속에서 프랑스 침략자들을 물리친 빛나는 혁명 전통을 가지고 있는 인민이며 자기 당과 수령의 주위에 굳게 단결된 필승 불패의 인민이다. 웰남 인민은 미 제국주의자들이 발악하면 할수록 더욱더 그들에게 섬멸적인 타격을 가할 굳은 결의에 충만되여 있다. 남부 웰남 해방군은 이미 남부 웰남 령토의 5 분의 4와 인구의 3 분의 2를 해방하고 소부대 활동으로부터 대부대 활동으로 이행하였으며 모든 전선에서 주도권을 완전히 장악하고 적을 피동에 빠뜨렸으며 적군을 해변'가와 일부 큰 도시에 몰아 넣고 있다.

미제는 그 어떠한 무력을 가지고도 남부 웰남에서 자유로 움직이지 못 하게 되였으며 그들의 《공중 우세》와 《기술적 우세》의 신화는 산산이 깨여지고 있다. 미 제국주의자들은 웰남 전쟁에서 완전히 수세에 빠지고 있으며 정치, 군사적으로 계속 수치스러운 참패를 당하고 있다. 웰남에서 미제의 전략적 기도는 파탄되고 있으며 국제적 지위와 《위신》은 여지 없이 저락되고 있다.

그러나 미 제국주의자들은 자기들이 당하고 있는 참패를 계속 전쟁 정책으로 만회해 보려고 망상하면서 전쟁 확대에 더욱 파렴치하게, 더욱 발악적으

로 나오고 있다.

오늘 미 제국주의자들이 웰남 전쟁에 그처럼 목숨을 걸고 달라붙고 있는 것은 우선 웰남이 그들의 아세아 침략을 위한 군사 전략 체계에서 중요한 요충지로 되여 있기 때문이다.

미 제국주의자들은 웰남을 아세아에서 사회주의 나라들을 반대하며 이 지역에서의 민족 해방 운동을 진압하기 위한 중요 병참 기지로 설정하였다. 그들의 론거에 의하면 《웰남에 대한 미국의 지배가 확립되는 조건 하에서만 동남 아세아 전역을 지배할 수 있다》는 것이다. 미 국무 장관 러스크는 만약 미국이 남부 웰남을 상실하게 되면 전체 동남 아세아를 상실하게 될 것이며 동남 아세아를 상실하면 전체 아세아를 상실할 것이라고 떠벌렸으며 미 합동 참모 본부 의장 휠러는 《우리가 이제 웰남에서 판가리 싸움을 해야 한다…미국이 웰남에서 패배하면 동남 아세아의 다른 어느 곳에서 진을 치고 그것을 수호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라고 하였다.

미 제국주의자들이 웰남 전쟁에 필사적으로 달라붙고 있는 것은 또한 현시기 미국에서의 정치, 경제적 위기의 심각화, 경제의 군사화와 군비 경쟁의 강화, 세계 도처에서의 식민지 체계의 전면적 붕괴 과정의 촉진 등과 관련된다.

지금 미국에서는 국제 수지의 적자가 의연히 지속되고 금의 대량적인 류출로 《딸라 위기》가 만성적 현상으로 되였으며 생산 능력의 과잉으로 조업 부족이 상시적 현상으로 되고 실업자는 계속 증대되고 있으며 근로자들의 빈궁화는 가일층 촉진되고 있다. 독점 재벌들의 경제의 군사화의 추진과 군비 경쟁의 강화는 미국의 경제를 더욱 파국에로 몰아 넣고 있다.

한편 국내 도처에서는 로동 계급의 대중적 진출의 강화, 흑인 투쟁의 앙양, 반 쏘손 기세의 대두 등 정치적 위기를 심각화시키고 있는 현상들이 세차게 일어 나고 있으며 대외적으로는 미제의 식민지 체계가 수습할 수 없을 정도로 전면적인 붕괴에 직면하고 있다.

미제는 날로 격화되고 있는 이러한 정치, 경제적 위기로부터의 출로를 전쟁 확대 정책에서 찾으려 하며 웰남 인민의 정의의 투쟁을 《진압》함으로써 자기의 식민지 체계의 파렬구를 메워 보려 하고 있다.

미제가 웰남 전쟁에 그처럼 발악적으로 달라붙고 있는 다른 하나의 요인은 남부 웰남 괴뢰들의 무능력과 관련된다.

미제는 저들의 침략적 정체를 은폐하기 위하여 남부 웰남 괴뢰군을 정면에 내세워 웰남에 대한 침략적 목적을 실현해 보려고 망상하였다. 그러나 추세 발전은 미제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았으며 남부 웰남 괴뢰군은 해방군의 맹렬한 공격을 받아 괴멸의 위기에 직면하게 되였다. 오늘에 와서 미제는 괴뢰군을 통하여 어부지리를 얻으려던 종전의 침략 정책에만 의거할 수 없게 되였다.

이상의 요인으로 하여 미 제국주의자들은 패배에 패배를 거듭하면서도 남부 웰남에서 물러 나려 하지 않으며 계속 발악적인 책동을 감행하고 있는 것이다.

오늘 미 제국주의자들이 웰남에서 감행하고 있는 침략 전쟁은 곧 아세아와 세계 평화에 대한 엄중한 위협으로 된다.

왜냐 하면 웰남 인민을 반대하는 미제의 침략 전쟁이 피압박 인민들의 해방 투쟁을 《진압》하며 아세아, 아프리카, 라틴 아메리카의 신생 독립 국가들을 예속시키려는 그들의 전반적 침략 책동의 일환으로서 이것은 이 지역 전체

인민들과 세계 모든 진보적 인민들에 대한 로골적인 도전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미 제국주의자들을 반대하는 웰남 인민의 항전은 바로 아세아, 아프리카, 라틴 아메리카 및 세계 평화 애호 인민들의 투쟁으로 된다.

미 제국주의자들이 오늘은 이 나라를 침략하고 래일은 또 다른 나라를 침략하려 하고 있다.

미 제국주의자들은 극동에서 새 침략의 발원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반동적인 일본 정부와 《일미 안보 조약》을 체결하고 일본 강점을 영구화하려 하며 국제 공약을 란폭하게 유린하고 일본 군국주의를 재생시키면서 그들을 아세아 침략의 돌격대로 내몰려 하고 있다.

최근에 그들이 일본 군국주의자들과 남조선 괴뢰들을 사촉하여 《한일 조약》을 시급히 체결하게 한 것은 남조선에서 무너져 가는 식민지 괴뢰 통치를 유지하며 《동북 아세아 군사 동맹》을 결성하여 아세아 침략을 더욱 강화하는 동시에 웰남에서의 위기를 수습하기 위한 것이다. 미 제국주의자들은 웰남 침략 전쟁에서 참패를 거듭하고 아세아 도처에서 그 식민지 통치 지반이 뒤흔들림에 따라 일본 군국주의자들을 적극 재생 재무장시켜 그들을 리용하려 하고 있다.

미 제국주의자들은 일본, 오끼나와, 대만, 타이, 필리핀을 웰남 침략의 군사 기지와 보급 기지로 리용하고 있으며 캄보쟈 왕국의 주권과 령토 완정을 위협하고 라오스에 대한 침략을 확대하면서 여기에 제 2 전선을 형성하려 발광하고 있다.

그들이 지금 감행하고 있는 《계단식 전쟁 확대》 정책은 다만 웰남 인민들만을 반대하는 데 국한되고 있는 것이 아니다. 미제는 웰남 전쟁에서 《계단식 확대 전략》의 《시험》이 《성공》되면 그것을 밑천으로 《세계 제패》의 야망을 실현하려 하고 있다.

특히 그들은 남부 웰남에서 감행하고 있는 《특수 전쟁》을 처음부터 《세계 전략》의 중요 일환으로 간주하면서 그것을 통하여 이 지역에서의 민족 해방 운동을 《말살》하고 아세아, 아프리카, 라틴 아메리카에서 세차게 타오르는 민족 해방 투쟁의 불'길을 꺼 버리려고 망상하였다.

이 모든 것은 웰남의 자유와 주권이 제국주의자들에 의하여 침해당할 때 아세아와 세계 인민들의 안전과 평화는 보장될 수 없다는 것을 명백히 보여 준다.

웰남에 대한 미제의 침략은 또한 사회주의 진영에 대한 로골적인 도전으로 되며 그 안전에 대한 엄중한 위협으로 되고 있다.

미 제국주의자들이 웰남 인민들을 반대하여 감행하고 있는 침략 전쟁은 사회주의 진영을 반대하는 그들의 세계 《반공》 군사 전략 체제 실현을 위한 책동의 한 구성 부분이며 동남 아세아 침략 정책의 일환이다.

미 제국주의자들은 남부 웰남을 강점하고 이곳을 웰남 민주 공화국을 비롯한 사회주의 국가를 반대하는 《전초 기지》로 전변시키려고 오래 전부터 책동하여 왔다. 전 미 국무 장관 덜레스는 미국은 아세아에서 《세 개 전선 즉 대만, 남조선, 인도지나에서 공산 국가들을 반대하는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고 떠벌렸다.

미 제국주의자들은 바로 그 첫 걸음으로 제네바 협정의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이 협정을 란폭하게 유린하면서 일련의 나라들을 규합하여 침략적 군사 쁠럭인 세아토를 조작하고 남부 웰남, 캄보쟈, 라오스 등을 이 쁠럭의 《보호 지역》으로 선포하였다. 그 후 그들은 웰남에서의 총선거를 파탄시키고 마침

내 웰남에 대한 대규모적인 무력 간섭을 개시하였다. 그들은 1961년 이래 소위 《특수 전쟁》을 벌려 놓고 《스테일리-테일러 계획》, 《존슨-맥나마라-느구옌칸 계획》 등 잡다한 침략 계획을 꾸며 가지고 웰남 인민을 반대하는 침략 전쟁에 집요하게 달라붙었다.

특히 오늘 미 제국주의자들은 신성한 민주 웰남에 야만적인 폭격을 감행하고 있으며 날로 그를 확대하고 있다.

웰남 민주 공화국은 사회주의 진영의 동남 초소이다. 사회주의 국가들은 형제적 사회주의 국가가 제국주의자들에 의하여 침략 당하고 있을 때 절대로 그를 보고만 있을 수 없다. 사회주의 국가들은 웰남 인민이 달성한 빛나는 성과들을 같이 기뻐하며 웰남 인민의 아픔을 자기의 아픔으로 간주한다.

웰남 전쟁은 결코 지역적 성격을 띤 일국에만 관계되는 문제가 아니라 사회주의 진영의 안전에 관한 문제이며 아세아, 아프리카, 라틴 아메리카 나라들의 독립과 해방에 관한 문제이며 세계 평화에 관한 문제이다.

그러므로 현시기 웰남에서 미제의 침략 책동을 저지 파탄시키고 웰남 인민의 투쟁을 적극 지원하는 것은 사회주의 국가들과 전 세계 인민들의 긴절한 과업으로 제기되고 있다.

* *

혁명에서 승패의 결정적 요인은 어디까지나 주체적 력량이다. 혁명을 더 잘 수행하기 위해서는 우선 주체적 력량이 튼튼히 준비되여야 하며 이에 적응한 객관적 지원이 배합되여야 한다.

오늘 웰남에는 미제와의 대결에서 종국적 승리를 보장할 수 있는 주체적 력량이 튼튼히 꾸려져 있으며 이 력량은 미제 침략자들을 반대하는 투쟁에서 승승장구하고 있다.

웰남에 대한 미제의 침략을 저지 파탄시키고 웰남 인민의 승리를 촉진하기 위하여 사회주의 국가들과 전 세계 진보적 인민들은 싸우는 웰남 인민을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미 제국주의자들이 국제 규범들을 란폭하게 위반하면서 웰남 인민을 반대하여 발광적으로 침략 행위를 감행하고 있는 조건 하에서 사회주의 나라들 앞에는 침략자를 저지시키기 위한 단호한 조치를 취하며 싸우는 웰남 인민에게 필요한 모든 지원을 줄 응당한 의무가 제기되고 있다.

웰남 인민을 반대하는 미제의 전쟁 책동은 아세아와 세계 평화에 대한 직접적인 도전인 것 만큼 사회주의 나라들 뿐 아니라 아세아, 아프리카, 라틴 아메리카의 나라들과 전 세계 진보적 인민들도 웰남 인민의 투쟁에 모든 지원을 줄 권리와 의무를 가지고 있다.

지금 웰남 인민은 사회주의 진영을 보위하며 아세아와 세계의 평화를 수호하기 위하여 피를 흘리며 싸우고 있다. 싸우는 웰남 인민을 지원하는 것은 사회주의 국가들과 아세아, 아프리카, 라틴 아메리카의 인민들, 세계 평화 애호 인민들의 리익에 전적으로 부합된다.

현시기 웰남에 대한 미제의 침략을 반대하고 웰남 인민의 투쟁을 지원함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사회주의 국가들을 비롯한 전 세계 평화 애호 국가들과 인민들이 단결하여 더욱 견결히 투쟁하는 것이다.

이것은 웰남 인민에 대한 세계 반제 력량의 지원을 효과적인 것으로 되게 할 것이며 싸우는 웰남 인민에게 더욱 큰 힘을 주게 되고 국제적 반제 전선을 더 강화하게 될 것이다.

사회주의 나라들, 아세아, 아프리카, 라틴 아메리카 신생 독립 국가들과 전세계 인민들이 웰남에 대한 미 제국주의자들의 침략 전쟁을 저지 파탄시키기 위해서는 우선 싸우는 웰남 인민에게 무기를 포함한 모든 형태의 원조를 적극 제공하며 남부 웰남 민족 해방 전선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 언제나 지원군을 파견할 수 있는 만단의 준비를 갖추고 있어야 할 것이다. 이 지원은 무조건적인 것이여야 하며 웰남에서 미제 침략자들이 종국적으로 물러 갈 때까지 각 방면으로 더욱 강화되여야 한다.

지금 사회주의 국가들과 많은 아세아, 아프리카, 라틴 아메리카 나라들, 세계의 광범한 인민들이 싸우는 웰남 인민에게 많은 지원을 주고 있다. 이 지원과 원조는 침략자를 물리치고 나라의 해방과 통일을 달성하기 위하여 항쟁에 궐기한 웰남 인민에게 고무를 주고 있으며 미제와 그의 주구들을 공포와 불안에 떨게 하고 있다.

조선 인민은 이미 공화국 정부의 성명들에서 수차 천명한 바와 같이 웰남에서의 미제의 침략 행위를 결코 수수방관하지 않을 것이며 형제적 웰남 인민에게 지원군 파견과 무기를 포함한 모든 형태의 물질적 및 정신적 지원을 다할 데 대한 자기의 프로레타리아 국제주의적 의무에 충실할 결의에 충만되여 있다.

조선 인민과 웰남 인민은 미제를 반대하는 공동 전선에 서 있는 가장 친근한 전우이다. 웰남 인민의 주권과 자유에 대한 원쑤들의 침해는 곧 조선 인민에 대한 침해이며 미제를 반대하는 웰남 인민의 투쟁은 곧 조선 인민의 투쟁이다.

지금 전체 조선 인민은 미 제국주의자들이 전쟁을 계속 확대하는 정세 하에서 남부 웰남 민족 해방 전선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어느 때나 지원군으로 동원될 수 있는 만단의 준비를 하고 있다. 이와 함께 조선 인민은 사회주의 건설을 더욱 촉진하고 전국을 요새화하며 전 인민이 무장하여 국방을 강화하고 극동의 초소를 굳건히 지키는 것으로써 싸우는 웰남 인민을 지원하고 있다.

이것은 프로레타리아 국제주의적 충실성으로부터 나오는 조선 인민의 응당한 의무의 리행이며 어떠한 환경에서나 영원히 형제적 웰남 인민과 생사 운명을 같이 할 굳은 결의의 표현이다.

조선 인민은 웰남에 대한 미제의 침략이 계속되는 한 웰남 인민에게 전면적 지원을 각 방면으로 더욱 강화할 것이다.

웰남에 대한 미제의 침략을 저지 파탄시키기 위해서는 또한 미제를 반대하며 웰남 인민을 지원하는 광범한 국제적 운동을 전개하는 것이 주요하다. 이것은 미제 침략자들을 도처에서 고립시키는 것이며 그들로 하여금 더욱 깊은 궁지에 빠지게 하는 것이다.

평화와 민주주의, 민족적 독립과 사회주의를 위하여 투쟁하는 모든 진보적 력량들은 미제의 웰남, 침략과 그를 합리화하며 여론을 기만하기 위한 그들의 온갖 술책을 폭로 배격하고 더 많은 인민들을 각성시켜 반미 투쟁 대렬에 인입하며 미제의 웰남 침략 전쟁을 반대하는 조직적인 광범한 대중 운동을 전개하여 웰남에 대한 미제의 피 묻은 침략의 마수를 꺾어 버려야 한다.

미 제국주의자들은 웰남에 대한 무력 침공을 더욱 강화하는 한편 《평화적 해결》과 《무조건 협상》을 운운하면서 최근에는 《14 개 조항》, 《공식 각서》 등에 대하여 떠들고 있다. 이것은 웰남에서의 저들의 침략적 정체를 은폐하며 전

쟁을 확대하기 위한 방패이며 세계 여론을 기만하려는 교활한 술책에 불과하다.

전 세계 인민들은 이러한 미제의 기만 책동을 계속 폭로하며 미제로 하여금 웰남 문제 해결의 가장 정당한 길인 웰남 민주 공화국 정부가 제기한 4개 항목의 립장과 남부 웰남 민족 해방 전선이 제기한 5개 항목의 립장을 무조건 접수하고 북부 웰남에 대한 폭격과 남부 웰남에 대한 침략을 즉시 중지하며 웰남에서 지체 없이 철거하도록 투쟁을 강화하여야 한다.

오늘 미 제국주의자들은 남부 웰남 전선에 많은 추종 국가들의 괴뢰군들을 끌어 들이려 하고 있다.

이러한 환경에서 전 세계 모든 인민들은 남부 웰남 파병 책동을 반대하여 투쟁하며 웰남 침략 전쟁에 주고 있는 반동 지배층의 《원조》를 반대 배격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미제에 순종하여 웰남 침략 전쟁에 파병하는 것은 타국의 령토와 주권에 대한 침해이며 자기 민족과 인민을 반역하는 위험한 길이며 미제에 더욱더 예속되는 길이다. 웰남에 대한 미제의 침략 전쟁에 공모 추종하는 자들은 지난 조선 침략 전쟁에 끌려 왔던 16개국 고용병들의 말로를 잊지 말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제와 일본 군국주의자들의 충실한 주구인 박 정희 도당은 전체 조선 인민의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상전의 요구에 순종하여 남부 웰남에 괴뢰군을 파견하는 매국 배족적인 범죄 행위를 감행하고 있다.

남조선 인민들과 《국군》 장병들은 박 정희 도당의 남부 웰남 파병을 적극 반대하여 투쟁하여야 하며 이미 남부 웰남에 끌려 간 《국군》 장병들은 미제의 침략 정책에 굴종함으로써 치욕스러운 죄악을 범할 것이 아니라 영웅적 웰남 인민의 편에 넘어 가 총'부리를 침략자들에게 돌려야 한다. 이 길만이 오직 자기의 삶의 길이며 그들이 걸어야 할 참다운 길이다.

지금 미 제국주의자들은 웰남 침략 전쟁에서의 패배를 만회하며 전쟁의 규모를 확대하기 위하여 막대한 병력, 무기, 탄약 및 기타 군수 물자들을 대대적으로 남부 웰남에 투입하며 타국의 령토를 자기의 침략 기지로 리용하고 있다.

미제의 이러한 침략 책동에 대처하여 모든 정부들과 인민들은 미 제국주의자들에게 침략적 군사 기지와 보급 기지를 제공하지 말며 이미 제공된 군사 기지들을 철폐하기 위하여 적극 투쟁하여야 한다.

또한 웰남 침략 전쟁을 위한 미제의 군수 물자들과 병력 수송에 동원되지 말며 그들에게 도로, 철도, 항만, 운하, 비행장 등을 제공하지 말아야 한다.

웰남에 대한 미제의 침략을 저지 파탄시키기 위해서는 전 세계 도처에서 미제를 반대하는 모든 형태의 투쟁을 전개함으로써 그들이 어디에서나 발 붙일 곳이 없게 하여야 한다.

미제는 전 세계 인민의 공동의 원쑤이며 국제 헌병이며 세계 반동의 괴수이며 가장 큰 국제적 착취자이다.

그러므로 전 세계 평화 애호 인민들은 미제의 침략을 직접 당하고 있든 그렇지 않든 관계 없이 미제 침략자들을 반대하여 견결히 투쟁하며 국제 혁명 력량을 백방으로 강화하여야 한다. 이렇게 할 때 미제의 침략 세력은 극도로 약화될 것이며 웰남 인민의 투쟁은 더 성과적으로 진행될 것이다.

특히 미제를 괴수로 하는 제국주의를 반대하여 투쟁하는 것은 현시기 공산주의자들에게 있어서 맑스-레닌주의에 대한 충실성의 첫째가는 표징으로 된다. 제국주의 침략 세력을 반대하여 투쟁하지 않고서는 세계 평화를 수호할 수 없으며 민족적 해방과 독립을 위한 투쟁도, 민주주의와 사회주의를 위한 투쟁도 승리할 수 없다.

우리 당은 혁명의 리익의 견지로부터 출발하여 앞으로도 미제를 괴수로 한 제국주의를 반대하여 견결히 투쟁할 것이며 또한 현대 수정주의와 교조주의를 반대하고 맑스-레닌주의의 순결성을 수호하기 위하여 계속 견결히 투쟁할 것이다.

사회주의 나라 인민들을 비롯한 전세계 진보적 인민들이 단결하여 도처에서 미제를 반대하여 견결히 투쟁하고 웰남 인민들의 반미 투쟁을 적극 지원하며 온갖 반동적 요소와 적극 투쟁할 때 미제의 침략 세력은 약화되고 피압박 인민들의 해방은 가일층 추진될 것이며 매개 독립 국가들의 안전은 잘 보장될 것이며 웰남 인민은 정의로운 반미 투쟁에서 승리를 더욱 추진하게 될 것이다.

*　　　*

오늘 전반적 국제 정세는 싸우는 웰남 인민에게 유리하게 발전하고 있다.

사회주의 진영과 세계 진보적 세력은 날로 강화되고 있으며 제국주의 반동 세력은 극도로 약화되고 있다.

미제는 웰남 인민을 반대하는 전쟁을 벌려 놓고 진퇴량난의 곤경에 처하여 있으며 정치, 경제, 군사적으로 궁지에 빠지고 있다.

미제는 웰남에 원자 곡사포를 포함한 각종 최신식 무기들을 끌어 들였으며 펜타곤의 《첫째 가는 군사 전략가》들은 웰남에 파견하여 작전을 지휘케 하였으나 계속 녹아 나고 있다.

웰남 전쟁에서 미제의 패배는 불가피하다. 왜냐 하면 그들이 감행하고 있는 전쟁은 부정의의 전쟁이며 침략 전쟁이기 때문이다. 미제의 전략 상 측면에서 보더라도 전선은 매우 넓고 병력은 분산, 부족되고 후방은 먼 데로부터 많은 난관에 직면하고 있으며 미군의 사기는 계속 저락되고 있다.

국제적으로도 미제는 완전히 고립되였다. 그들이 웰남 침략 전쟁에서의 패배를 만회하기 위하여 《동맹국》들에 구원을 호소했으나 《동맹국》들은 그에 순종하여 워싱톤의 희생물로 되려 하지 않고 있다.

오늘 미제의 웰남 침략 정책을 반대하는 세계 인민들의 목소리는 더욱 높아 가고 있다.

지어 미국 내에서도 광범한 반전 운동이 일어 나고 있다. 지금 미국에서는 웰남 전쟁을 반대하는 인민들의 대중적 시위가 광범히 전개되고 있다.

이러한 정세 하에서 사회주의 나라들과 전 세계 평화 애호 국가 인민들은 혁명의 기치, 반제 민족 해방 투쟁의 기치, 웰남 인민 지원의 기치, 민주주의와 사회주의를 위한 투쟁의 기치를 높이 들고 미제의 침략 책동을 저지 파탄시키기 위하여 싸우는 웰남 인민을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손에 무기를 튼튼히 틀어 쥐고 영용하게 싸우는 웰남 인민은 미제 침략자들을 웰남 땅에서 몰아 내고 최후의 승리를 달성하고야 말 것이다.

남조선 정세 발전의 특징

(1965년도 남조선 정세를 개관하면서)

김 송 림

지난 한 해는 남조선에서 미제의 침략 정책과 그 주구 박 정희 도당의 매국 배족 책동을 반대하여 일떠선 혁명 세력과 반 혁명 세력 간의 모순이 그 어느 때보다도 첨예화된 해로 특징지어지고 있다.

이것은 범죄적인 《한일 조약》을 분쇄하기 위한 남조선 인민들의 완강한 투쟁과 그것을 기어이 성사시키려는 미제와 그 괴뢰들의 전례 없는 발악적 책동에서 집중적으로 표현되였는바 이것이 지난 한 해 동안의 남조선 정세 발전의 기본적인 추세를 이루었다.

다 아는 바와 같이 《한일 조약》은 미제가 일본 군국주의 세력과 남조선 괴뢰 도당을 결탁시켜 남조선에서 무너져 가는 저들의 식민지 통치 체계를 유지하며 침략적인 《동북 아세아 군사 동맹》의 조작을 시급히 실현하기 위한 것이다. 일본 군국주의자들을 재생, 재무장시켜 그들을 아세아 침략과 반공의 《돌격대》로 리용하려는 것은 미제의 《세계 전략》의 중요한 일환이다. 《한일 조약》은 바로 미제의 이러한 침략 정책의 직접적인 산물이다.

일본 군국주의자들은 미제의 침략적 야망에 편승하여 또다시 남조선을 재침략하고 이것을 발판으로 《대동아 공영권》의 옛꿈을 실현해 보려고 획책하고 있다.

박 정희 도당은 미 일 제국주의자들의 이러한 침략 정책에 적극 추종하여 일본 군국주의 세력을 남조선에 끌어 들임으로써 위기에 처한 자기들의 정치적 지반을 유지 공고화하려고 발악하였다.

미 일 제국주의자들과 그 주구 박 정희 도당이 지난해에 《한일 조약》을 걷속시키려고 그처럼 발광적으로 책동한 리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미제의 식민지 예속화 정책과 민족적 억압이 더욱 강화되고 일제의 재침 책동이 로골화됨으로써 남조선은 미 일 제국주의자들의 2중적 식민지로 전락될 위험에 직면하게 되였다.

남조선에서 심각한 사회 경제적 파국과 민생고를 빚어 낸 박 정희 도당이 안으로는 인민들에 대한 파쑈적 폭압을 강화하고 밖으로는 일본 군국주의자들과의 결탁을 서두르며 남부 웰남에 괴뢰군을 파견하는 등 매국 배족 책동을 감행함에 따라 인민들 속에서는 반미, 반일 감정과 반《정부》 기운이 급격히 증대되였으며 그들의 혁명적 진출이 보다 강화되었다.

미제와 그 주구들을 반대하고 조국의 자주적 통일을 실현하기 위한 남조선 인민들의 대중적인 투쟁에 질겁한 미제와 박 정희 도당은 여기서 응당한 교훈을 찾을 대신 그들을 더욱 발악적으로 탄압하는 데로 나갔다.

남조선 인민들의 대중적인 혁명적 진출은 반 혁명 세력의 파쑈적 폭압으로 일시 저조되였으나 투쟁을 통하여 남조선 인민들은 더욱 각성되고 단련되였으며 그들의 진출이 남조선 정세 발전에 심각한 영향을 주었다.

《미 제국주의자들과 그 앞잡이들은 어떠한 탄압으로써도, 어떠한 기만 술책으로써도 부단히 확대 강화되고 있는 남조선 인민들의

반미 구국 투쟁을 막을 수 없다. 남조선에서의 미제와 그 주구들의 파쑈적 폭압은 남조선 인민들을 더욱 각성시키고 단련시키며 결국에 가서는 미제의 식민지 제도를 매장하고야 말 혁명 력량을 강화하는 결과를 가져 오고 있을 뿐이다》(김 일성, 《조선 로동당 창건 20 주년에 제하여》).

반미 구국의 기치 하에 일떠선 인민 대중의 혁명적 진출의 강화와 이에 당황한 반동 세력의 전례 없이 악랄한 반혁명 공세—바로 이것이 지난해 남조선 정세 발전의 주되는 추세를 이루었으며 이 과정에서 반 혁명 력량에 대처하는 혁명 력량은 더욱 강화되고 조직화되였다.

1

지난해 남조선 정치 정세 발전의 가장 기본적인 추세는 인민 대중의 혁명적 진출이 반동 세력의 발악적인 공세에도 불구하고 일층 강화되였으며 투쟁의 성격이 새로운 특징들을 나타내면서 더욱 심화 발전된 것이다.

이 특징은 첫째로, 남조선 인민 투쟁의 반미적 성격이 강화된 데서 집중적으로 표현되였다.

지난해에 미제는 《동북 아세아 군사 동맹》 조작에서 관건적 고리로 되는 일본 군국주의자들과 박 정희 도당 간의 결탁을 촉진시키기 위하여 《한일 회담》을 재개하고 빨리 결속시키려고 전면에 나서서 직접 지휘하였다. 한편 미제는 박 정희 도당을 사촉하여 남조선 괴뢰군을 남부 웰남에 대대적으로 파견함으로써 남부 웰남 전쟁에서의 파국을 수습해 보려고 획책하였다.

미제의 이러한 책동은 남조선 인민들과 청년 학생들의 반감을 조장시켰다. 미제의 책동이 로골화되고 그들의 침략적 본성이 광범한 인민들 속에서 더욱 폭로됨에 따라 일제의 재침략과 박 정희 《정권》을 반대하는 남조선 인민 대중의 투쟁은 점차 미제의 간섭과 침략 정책을 반대하는 데로 그 예봉이 돌려졌다.

지난해 4월 말과 5월 초에 있은 미국 고위 관리들의 남조선 방문을 계기로 청년 학생들과 인민들은 《한일 협정의 주범은 바로 미국이다》, 《미국은 우리의 상전이 아니다》, 《미국은 우리의 국내 문제에 대하여 간섭하지 말라》, 《경제 예속이 민족 자립이냐》, 《우리들은 웰남 사태에 양키들의 총알 방패가 될 수 없다》 등의 구호들을 기본 구호의 하나로 들고 투쟁하였다.

물론 이런 반미 구호들은 아직 초보적인 것이기는 하지만 그러나 남조선에 대한 미제의 식민지 예속화 정책과 략탈 정책을 정치, 경제, 군사 등에 걸쳐 전면적이며 직접적으로 규탄한 것으로서 그 전 6.3 봉기 때의 간접적이며 일면적이던 반미 구호에 비하면 현저한 전진을 보여 주고 있다. 이것은 곧 남조선에서 반미 기운이 하나의 추세로 광범한 대중 속에 확대되고 있으며 반미 투쟁이 날로 강화되고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투쟁의 이러한 반미적 성격은 미군 부대에 고용된 로동자들의 생존과 민주주의, 민족적 권리를 위한 투쟁에서도 표현되였다. 그들의 투쟁은 수'적으로 급격히 장성하였을 뿐 아니라 그 요구 조건이 또한 일층 심화되였다.

반미 기운은 지어 종교인들 내에까지 확대되였다. 지난 6월에 영남과 호남 일대의 《일심교》 신도 350여 명이 서울에 올라 와 미군을 몰아 내고 자주적인 남북 통일을 이룩할 것을 절규하면서 시위를 단행한 것은 그 대표적인 실례의 하나이다.

오늘 남조선에서의 반미 투쟁은 미국

지배층 내부에서까지도 《투쟁의 성격이 반정부에서 반미로 변하고 있다》고 경악하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발전하고 있다.

지난해 미제와 박 정희 도당을 반대하여 일떠선 남조선 인민들의 투쟁에서 나타난 중요한 특징은 둘째로, 반제 반파쑈 민주주의 운동이 광범한 각계 각층 군중을 망라한 대중적인 투쟁으로 전개된 데 있다.

투쟁이 대중적 성격을 띠고 발전한 것은 우선 《한일 조약》 반대 투쟁에서 중심 세력을 이룬 청년 학생들이 남조선 사회 발전의 객관적 요구와 각 계층의 리해 관계를 정확히 반영한 애국적이며 민주주의적인 구호와 요구를 제기함으로써 광범한 인민들의 지지를 받은 때 있다.

그것은 또한 《한일 조약》이 남조선 인민들의 력사적인 반일 감정과 관련되며 6.3 봉기를 통하여 남조선 인민들의 정치적 각성이 일반적으로 제고된 데 있다.

그리하여 청년 학생들의 애국적인 반 파쑈 투쟁은 광범한 대중을 투쟁에 궐기시키는 데 있어서 거대한 작용을 놀았다. 대학 교수들을 비롯한 지식인들, 법조계 인사들, 지어 일부 현역 군인들까지 학생 투쟁에 호응해 나섰으며 도시 근로자들과 소시민들은 학생들을 물심 량면으로 지원하고 시위 대렬에 합류하기도 하였다.

실로 지난해《한일 협정》반대 투쟁에는 53 개의 대학과 74 개의 고등 학교의 30여만 명 학생들을 포함하여 《재경 교수단》, 《대한 변호사 협회》,《자강 학회》, 《4. 19 학생회》, 《기독교 련합회》 등 20여 개의 단체에 망라된 량심적인 인사들과 각계 각층 애국적 인민들 160여만 명 이상이 시위, 폭동, 단식, 성토 대회, 서명 운동, 성명 발표, 삐라 살포 등의 각종 형태와 방법으로 참가하였다.

광범한 계층이 참가한 대중적 투쟁은 종래에 비하여 조직성과 투쟁 전술 면에서도 일보 전진하였다.

학생들은 투쟁 정황의 변화에 따라 그에 적응한 조직체를 결성하고 그 지도하에 투쟁을 전개함으로써 조직성과 통일성을 보다 강화하였다. 투쟁에서 조직의 힘과 필요성을 점차 깨달은 대학 교수, 문화인, 종교인 및 《예비역 장성》들과 기타 광범한 사회계의 량심적 인사들도 공동 투쟁 전선을 지향하여 《조국 수호 국민 협의회》를 결성하고 투쟁하였다.

학생들과 인민들은 자체 조직의 지도하에 정황에 적응한 각이한 전술과 투쟁 방법을 능숙하게 적용하면서 적의 파쑈적 폭압에 완강하게 대항하였다.

그들은 적의 탄압이 우심한 조건에서 투쟁의 준비 시기에는 학술 토론회, 강연회, 성토 대회 등을 통하여 대중을 계몽 각성시켰고 투쟁의 앙양 시기에는 시위와 폭동을 위주로 하면서 《폭력은 폭력으로》라는 구호를 들고 무장 군경들을 돌로 까부시는 등 적극적인 투쟁 형태를 취하였다. 또한 투쟁의 방어 시기에는 투쟁 대오에서 군중의 리탈을 방지하고 새 공격을 준비하기 위하여 서명 운동, 외래품 배격 운동 등을 배합하면서 자체 력량과 조직을 정비 수습하였다.

《한일 협정》 반대 투쟁이 적들의 전례 없는 폭압 하에서도 장기간 줄기차게 진행된 것은 바로 투쟁을 이와 같이 보다 조직화하고 다양한 전술 및 투쟁 방법을 능숙하게 적용한 때문이였다.

세째로, 그 특징은 생존과 민주주의적 권리를 위한 로동자들의 진출이 점차 진공적인 경제적 요구에 정치적 요구를 결합시키면서 심화된 데 있다.

작년은 적들의 탄압이 전례 없이 강화된 해였음에도 불구하고 투쟁에 참가한 로동자들의 수는 벌써 11월 현재로 1964년 1년 간의 수에 거의 가까운 25만 명 이상에 달하였으며 투쟁에서 일련의 새로운 추세를 보이면서 발전되였다. 이것은 남조선에서 사회 경제적 모순이 더욱 격화되고 로동자들의 정치적 각성이 높아 가고 있음을 보여 준다.

작년도 남조선 로동자들의 투쟁에서 무엇보다도 주목되는 것은 해고 반대, 해고된 동료의 복직, 임금 인상 등 직공적인 경제적 요구와 《로조》 조직 및 그 활동의 보장 등 정치적 요구를 점차 결합시키면서 발전되여 온 것이다. 1964년에 로동자들의 투쟁에서 제기된 총 요구 건수 중에서 《로조》의 조직과 《단체 협약》 체결을 비롯한 민주주의적 권리에 대한 요구는 7.4%였는데 작년도에는 그것이 19.7%(11월 현재)로 증대되였다. 《로조》 조직을 요구하는 부산시내 목재 부문 로동자들의 투쟁은 그 대표적인 실례이다.

로동자들의 투쟁에서 또한 주목되는 것은 반동적인 《로조》 간부들의 로동운동에 대한 파괴 분렬 책동을 물리치면서 로동자들이 자체로 투쟁 조직체를 만들고 그에 의거하여 투쟁을 전개하려는 움직임이다.

지난 5월 외국 기관 《로조》 산하 로동자들이 반동적 어용 《로조》를 배격하고 자체의 투쟁 조직체를 결성하여 투쟁한 것을 비롯하여 경남 마산의 화신 산업 회사 로동자들, 부평 지구 산하 33개 《로조》 분회와 부산 철도 로동자들이 독자적인 조직체를 만들고 투쟁을 전개하였다.

이와 함께 지난해 남조선 로동자들의 투쟁은 그 완강성과 적극성에서도 종래에 비하여 많은 전진을 보였으며 호상 련대성과 행동 통일에 대한 지향이 강화되였다.

작년 4월과 5월 동신 화학 주식 회사 로동자들과 인천 판유리 공장 로동자들이 괴뢰 도당의 집단적인 해고 조치를 비롯한 파쑈적인 보복 조치에도 불구하고 계속 완강히 투쟁함으로써 광범한 로동자층과 사회계에서 커다란 반향을 일으켰다. 10월과 11월에 전개된 부두 운수 부문과 미군 부대 산하 로동자들의 투쟁에서는 련대적인 동정 투쟁이 진행되였다.

농민들의 투쟁에서도 보다 적극적인 투쟁 형태의 비중이 장성하였다.

남조선 농민들은 미제의 군사화 정책의 중요한 일환인 군용지 확장을 비롯하여 땜 건설, 공장 부지 선택 등을 통하여 감행된 미제와 괴뢰 도당의 토지 략탈을 반대하며, 토지 대'가의 반환 및 저수지 보수 등 생활 상 권리를 요구하여 시위, 롱성, 집단 항거 등 투쟁을 전개하였다.

이러한 모든 사실은 남조선 로동자들의 투쟁이 자체의 부족점을 극복하면서 점차 발전되여 가고 있으며 농민들의 투쟁도 더욱 심화 발전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 주고 있다.

2

지난해 남조선에서의 정치 정세 발전은 인민 대중의 앙양된 혁명적 진출에 대처하여 반혁명 세력의 반동적 공세가 강화된 것으로 또한 특징 지어진다.

남조선 청년 학생들과 인민들의 투쟁은 일정한 조직성과 완강성, 지구성을 보여 주면서 줄기차게 전개되였음에도 불구하고 적들의 발악적인 탄압으로 말미암아 커다란 시련을 겪지 않을 수 없었다.

박 정희 도당은 인민 대중의 강력한 항거를 무릅쓰고 끝내 나라를 팔아 먹는 매국 배족의 책동을 실현하기 위하여

년초부터 《강경 일변도》의 전면 탄압 방침을 세우고 그것을 실현하는 데 혈안이 되여 날뛰였다. 이미 3. 24 및 6. 3 봉기를 통하여 타격을 받은 박 정희 도당은 소위 《3~4월 위기설》에 대처한다는 구실 하에 괴뢰군을 기본으로 하는 파쑈적 폭압 체제를 정비 보강하고 그 력량을 대대적으로 증강하였다.

그들은 사실 상 계엄 상태를 의미하는 《위수령》을 공포하고 《한일 조약》을 반대하는 일체 투쟁을 불법적인 것으로 규정하였으며 평화적 시위에 동원된 학생들과 인민들을 무자비하게 탄압하였다. 시위에 동원된 1만여 명의 군중이 체포 구금되였다는 사실만 들어도 괴뢰 도당의 발악이 얼마나 극심하였는가 하는 것을 짐작할 수가 있다.

박 정희 도당은 인민 대중의 진출을 막기 위하여 괴뢰 군경의 총검으로 거리를 채우는 동시에 괴뢰 내무부에 《경찰 행정 자문 위원회》, 《문교부》에 《데모 수습 대책 위원회》 등 새로운 폭압 기구를 설치하였으며 인민 대중과 언론 기관들의 활동을 얽어 매기 위한 각종 반동 《법안》들을 조작하였다. 박 정희 도당은 폭압의 예봉을 투쟁의 중심 세력인 학생들과 교수들, 언론인들에게 돌렸다. 《한일 조약》을 반대한 평화적 시위는 처음부터 괴뢰 군경들의 류혈적인 탄압과 맞서지 않으면 안 되였다.

반동들은 학생들의 시위 대렬이 가두에 진출하지 못 하도록 하기 위하여 학교를 포위 봉쇄하였으며 조기 방학과 휴교 조치를 취하여 투쟁 력량을 분산시키는 한편 학생들의 투쟁을 지지 동정하는 언론인들과 교수들에 대한 탄압을 강화하였다.

《한일 협정》 비준 후에 와서는 데모의 《뿌리를 뽑기》 위하여 시위의 주동자들을 대량적으로 검거하며 그들을 《국가 보안법》, 《반공법》, 《내란 선동죄》 등에 걸어 기소하였으며 《민족주의 비교 연구회》를 비롯한 일련의 학생 조직들을 금지시키는 조치를 취하였다. 진보적 교수들에 대해서는 소위 《정치 교수》라는 딱지를 붙여 학원에서 축출하였다.

이와 함께 박 정희 도당은 공화국 북반부의 혁명적 영향력을 저지하며 장성하는 혁명 력량을 억제하기 위하여 대대적인 《반공》 깜빠니야를 벌리고 각종 방법으로 삼엄한 공포의 분위기를 조성하기에 날뛰였다. 그들은 남조선 전역에 걸쳐 《민간 자위대》, 《반공 련락소》 등의 조직을 정비 강화하였으며 림전 태세의 확립을 표방하고 신형 무기의 반입, 각종 군사 연습 등으로 전쟁 분위기를 조성하면서 인민 대중의 주의를 딴 데로 돌리려고 하였다.

그들은 각 지방에서 《반공 강연》과 《반공 전시회》, 《반공 웅변 대회》 등을 빈번히 조직하여 북반부 현실을 엉터리없이 외곡하며 공산주의를 비방 중상하는 악선전을 진행하면서 남조선 사회의 모순과 부패상, 괴뢰 도당의 매국 배족적인 책동을 합리화하기에 광분하였다.

박 정희 도당은 이와 같이 대내적으로는 혁명 세력에 대한 파쑈적 폭압과 반공 공세를 강화하는 한편 대외적으로는 일제 독점 세력을 비롯한 외래 독점 자본을 광범히 걷어 들이여 남조선의 심각한 경제적 파국을 수습하고 반 《정부》 감정을 완화시키며 나아가서 저들의 장기 집권을 위한 경제적 지반을 마련하려고 책동하였다. 지난해에 박 정희 도당이 일본 독점 자본 뿐만 아니라 구미 독점 자본까지도 끌어 들이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책동한 리유가 바로 여기에 있었다.

1964년도 말에 박 정희 자신이 직접 서독을 방문한 데 뒤이어 영국, 프랑스,

이딸리아, 화란 등 구미 자본주의 국가들과 동남 아세아 각 괴뢰 국가들에 《경제 사절단》을 파견하였고 또 이 나라들의 《경제 사절단》을 끌어 들여 재정 차관, 상업 차관, 투자 및 《기술 원조》 등 일련의 협정을 체결하였다.

박 정희 도당은 한편으로는 외국 독점 자본을 끌어 들이면서 다른 편으로는 외래 독점 자본의 도입을 위한 경제적 터전을 마련한다는 구실 하에 예속 자본가들을 육성하며 그들의 생산적 토대를 강화하는 조치를 취하였다. 괴뢰 도당은 도입하는 외래 자본, 그 중에서도 특히 생산 자본을 예속 자본가들에게 독점시키면서 《내자》 조달이라는 명목으로 인민들에게서 수탈한 거대한 자금을 그들에 집중 융자하고 그들의 기업 활동을 백방으로 보장해 주는 일련의 조치를 취하였다. 그들은 지난해 10월 1일부터 실시한 《금리 현실화》를 통하여 실로 400억 원의 시중 자금과 고리대 자금까지 흡수하여 예속 자본가들의 생산 자금으로 융자해 주었으며 작년도 남조선 전 금융 기관 대출 총액의 75%에 해당하는 700억 원을 《정책 금융》의 명목으로 예속 자본가들에게 집중 융자해 주었다.

미제의 《원조》의 축감으로 일시 위축되였던 남조선의 예속 자본가들은 박 정희 도당의 비호 밑에 침체에서 벗어나 자본 및 생산의 집적과 집중은 현저히 강화하게 되였으며 《중공업》과 군수 산업 부문에로 계속 진출할 수 있게 되였다. 박 정희 도당은 이렇게 함으로써 장기 집권의 토대를 강화하는 동시에 인민 대중의 강력한 투쟁 력량에 맞서는 반동 세력을 추세우며 통치 집단 내부의 불화와 알륵을 무마할 것을 노리고 있다.

그 어떤 경제 《시책》과 탄압도 남조선 위정자들의 처지를 개선할 수 없었다. 경제의 《자유화》와 파쑈적 폭압은 오히며 인민들의 반 《정부》 감정을 격화시켰으며 사회적 혼란과 지배층 내부의 모순을 심화시키는 결과를 가져 왔다.

3

지난해 남조선의 정치 정세 발전에서 나타난 또 하나의 뚜렷한 특징은 괴뢰 지배층 내부의 모순과 대립이 극도의 첨예성을 띠게 되였다는 데 있다.

이 모순과 갈등은 오늘 수습할 수 없는 위기에까지 이르렀는바 그것은 여당과 야당 간의 대립과 박 정희 통치 집단 내부의 파벌 싸움, 그 통치 체계의 혼란과 동요 등에서 집중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현 괴뢰 통치 집단 내부의 모순과 갈등은 과거 《자유당》과 《민주당》 집권 시기보다도 더욱 첨예화되였으며 《국회》, 《내각》 및 군부에 이르기까지 확대되여 반동 통치 체계 전반을 뒤흔들어 놓고 있다.

우선 남조선에서 여당과 야당 간의 대립, 당파 싸움이 그 어느 때보다도 심각화되고 있다. 지난해 여당과 야당 간의 대립과 당파 싸움은 야당이 《한일 협정》을 반대하는 인민 대중의 혁명적 진출에 편승하여 《정권》을 탈취할 목적으로 감행한 대《정부》 공세로 하여 더욱 격화되였다. 야당은 《현 국회를 해산하고 총선거를 실시할 것》을 주장하면서 《국회》 내에서의 퇴장, 《국회 의원》직 사퇴 등의 술책을 씀으로써 한때 《국회》의 기능을 마비시키기까지 하였다. 야당의 《민중당》 소속 《국회 의원》들의 《원내 복귀》로 여당과 야당 간에 야합이 이루어지고 마비 상태에 처했던 《국회》가 다시 열리기는 하였으나 권력과 리권 문제를 둘러 싼 그들 간의 모순과 대립은 계속 첨예화되고 있다.

《한일 협정》 반대 투쟁 시기에 격화된

야당 내부의 모순도 《국회 의원》직을 사퇴하였던 《민중당》 소속 《국회 의원》들의 《원내 복귀》를 계기로 《강경파》와 《온건파》로 분렬되였다.

《국회 의원》직을 사퇴한 종래의 원내 《강경파》들과 원외 《강경파》들은 자파 세력을 편성하기 위한 신당 운동을 벌리였다. 그러나 《선명 야당》 결성을 목적한 신당 형성도 역시 처음부터 지도권 쟁탈을 위한 싸움으로 난관에 봉착하고 있다.

여당과 야당 간의 대립, 야당 내부의 분렬이 심해졌을 뿐 아니라 리권과 권력 쟁탈을 둘러 싼 박 정희 통치 집단 내에서의 모순과 갈등도 격화되였다.

여당인 《민주 공화당》 내부에서는 물론 《국회》와 《내각》 및 군부까지도 포함한 통치 체계 전반에 걸쳐 리권과 《요직》 쟁탈을 둘러 싼 암투가 계속되였으며 이것은 《한일 협정》의 《국회》 비준과 당 지도 체계 개편 책동을 계기로 더욱 로골화되였다.

현재 원내에서 경제적 실권을 장악하고 있는 비주류파와 이를 제거하려는 주류파 간에도 《원내외 요직》 쟁탈을 중심으로 다시 《강경파》와 《온건파》로 대립되고 있다. 사태는 《민주 공화당》 소속 일부 《국회 의원》들이 《국회》 내부에서 야당 측이 제출한 《내무, 국방, 문교》 등 《장관》들의 《해임 건의안》 투표에 찬성하는 데까지 이르렀다. 특히 지난해에 군부의 반《정부》 쿠데타 음모 사건은 박 정희 도당에게 있어서 심각한 타격으로 되지 않을 수 없었다.

박 정희 도당이 집권한 이후 10여 차에 걸치는 반《정부》 쿠데타 음모 사건들은 대부분 통치 집단 내의 군부 세력을 중심으로 하여 혹은 그들을 배경으로 하여 시도되였다. 작년 5월에 있은 반《정부》 쿠데타 음모 사건도 바로 군부의 상층 장교들이 중심이 되였으며 이것으로 하여 박 정희의 지반은 다시 한번 뒤흔들리고 그의 위기는 더욱 심각화되였다.

일제의 재침 책동과 박 정희 도당의 매국 배족적인 책동을 반대한 남조선 청년 학생들과 인민들의 혁명적 진출의 강화로 괴뢰 통치 체제와 행정 기능도 심히 혼란 상태에 빠지게 되였으며 중하층 경찰, 《공무원》들 속에서 불평 불만이 증대되고 《공무 집행》을 태공하는 현상들이 적지 않게 나타나고 있다. 남조선 출판물들까지도 《행정 기능은 전국 이래 최고도로 둔화되고 있으며 공무원들의 사기가 비길데 없이 저조되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박 정희 도당의 지반을 이루고 있는 괴뢰군 내에서도 인민들의 혁명적 진출의 영향 하에 동요가 일어 나고 반《정부》 기운이 증대되였다. 지난해에 《한일 협정》을 반대하는 남조선 인민들의 투쟁에는 일부 하층 장교들과 병사들, 지어 《예비역 장성》들까지 참가하였다. 오늘 괴뢰 군부 내에서는 월남 파병을 반대하는 기운도 점차 높아 가고 있으며 괴뢰군 사병들 속에서 염전, 염군 사상이 광범히 파급되고 있다.

이 모든 것은 오늘 박 정희의 통치 집단 내부에 걷잡을 수 없는 혼란과 위기가 조성되였으며 미제의 식민지 통치 지반이 밑 뿌리채 뒤흔들리고 있다는 것을 보여 주고 있다.

* *

오늘 남조선 인민들과 청년 학생들은 반혁명 공세가 전례 없이 강화된 조건하에서도 미 일 제국주의자들과 박 정희 도당을 반대하고 조국의 자주적 통일을 실현하기 위하여, 생존의 권리와 민주주의를 위하여 계속 투쟁을 전개하

고 있다.

박 정희 도당은 전 민족의 [illegible] 반대를 무릅쓰고 저들의 매국 [illegible] 기어코 성사시킴으로써 남조선에서의 사회적 모순을 더욱 격화시키고 있다. 박 정희 도당은 이미 자기들의 가면마저 다 벗어 던지고 《을사 오적》의 파렴치한 매국 매족 행위를 서슴없이 되풀이하였다.

미제와 그 주구들의 발악적인 책동으로 말미암아 남조선 인민들의 대중적인 진출은 일시 저조되였으나 이것은 남조선에 대한 미제의 식민지 통치가 안정되였다거나 괴뢰 통치 집단 내부의 모순이 해소되였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결코 아니다.

발톱까지 무장한 강대한 적을 상대로 하는 남조선 인민들은 새로운 투쟁을 준비하면서 보다 큰 승리를 가져 오기 위하여 때를 기다리고 있으며 혁명 력량을 부단히 확대 강화하고 있다. 그들은 미제와 그 주구 박 정희 도당을 반대하는 투쟁에서 더욱더 커다란 경험들을 축적하였으며 필요한 결론들을 찾고 있다.

반혁명의 공세는 일시적이며 상대적이다. 미제와 박 정희 도당이 제아무리 반항해도 남조선 인민들의 혁명적 진출을 결코 막을 수 없다.

물론 남조선 혁명가들 앞에는 의연히 간고한 시련이 놓여 있으나 그들은 혁명 대오를 더욱 정비 강화하고 반혁명의 폭력을 이겨 낼 수 있는 만반의 힘을 갖추며 더욱 큰 힘을 길러 나갈 것이다.

지금 남조선에는 강력한 폭풍을 앞둔 가장 귀중한 정적의 시각이 흐르고 있다. 그 속에서 인민들의 분노는 지나 간 모든 투쟁의 경험과 교훈을 깊이 되색이면서 새로운 격전을 준비하고 있다.

조만간에 터져야 할 폭풍우를 앞두고 남조선 혁명가들은 자기들의 혁명 조직을 더욱 강화하고 반미 구국의 기치 밑에 각계 각층 인민 대중을 결속시킴으로써 남조선 인민들의 강력한 지도 력량으로 등장할 것이며 미제와 그 주구들을 반대하는 인민 민주주의 혁명은 성과 있게 추진될 것이다.

근로자 제 1 호 (루계 287 호)

편집 위원회

발행소 • 근 로 자 사　　주 소 • 평양시 중구역 경상동

인쇄소 • 평양 종합 인쇄 공장

인 쇄 • 1966년 1월 3일　　발 행 • 1966년 1월 5일

전 세계 로동자들은 단결하라!

2 호　　　　　　1월 20일

평 양　근로자사　1966

전 세계 로동자들은 단결하라!

조선 로동당 중앙 위원회
기 관 지
(반 월 간)

제 2 호 (288)
1966년 1월 (하)

차 례

일본 군국주의를 반대하여 투쟁하자

일본 군국주의가 패망한 때로부터 20년이 지났다.

일본 군국주의자들의 침략과 략탈로 인하여 아세아의 수 많은 인민들은 일찌기 없던 재난과 불행과 고통을 당하였다.

제 2 차 세계 대전 후 아세아 인민들과 세계의 진보적 인민들은 일본에서 군국주의가 완전히 청산되고 민주화가 실현되여 아세아의 평화와 안전이 보장될 것을 진심으로 념원하였다.

그러나 미제와 일본 반동층의 책동으로 말미암아 일본 정세는 인민들의 기대에 전'적으로 어긋나게 변하여 가고 있다.

미제의 비호 밑에 일본 군국주의는 다시 머리를 쳐들고 일어 났다. 일본 군국주의는 지금 미제의 아세아 침략에 복무하면서 그 대'가로 파산된 《대동아 공영권》을 되살려 보려고 꿈꾸고 있다.

이것은 아세아와 세계 인민들의 안전에 대한 위협으로 된다.

인민들은 일본 군국주의자들이 감행한 죄악의 력사를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다. 일본에서의 위험한 사태 발전을 결코 묵과하지 말아야 하며 재난의 력사가 되풀이되는 것을 허용하지 말아야 한다.

1. 력사는 고발한다

일본 제국주의의 근대 력사는 국내 인민에 대한 무제한한 착취와 파쑈적 탄압, 다른 나라에 대한 끊임 없는 침략 전쟁과 강도적 략탈의 력사이다.

천황제와 반봉건적인 지주제, 그리고 이 량자와 밀접하게 결합된 특권 대자본은 일본을 전쟁에서 전쟁에로 이끌어 갔다.

1868년의 《명치 유신》을 거쳐 자본주의 발전의 길에 들어 선 일본은 처음부터 군사적, 반봉건적 특성을 띠고 있었다. 일본에서의 부르죠아 개혁은 일부 봉건 령주들과 무사들이 중심이 되여 봉건적 억압을 반대하는 인민들의 투쟁에 편승하여 수행하였다. 그렇기 때문에 부르죠아 개혁은 철저하게 되지 못하였으며 중도반단으로 끝났다.

일본은 구미 자본주의 렬강보다 뒤늦게 자본주의 발전의 길에 들어 섰다. 당시 세계의 식민지 분할은 거의 끝나 가고 있었다.

일본이 구미 자본주의 렬강과 같이 식민지를 가지려면 오직 군사적 충돌에 의해서만 가능하였다. 이것은 일본 자본주의로 하여금 주로 침략 전쟁에 매여 달리게 하였다.

일본 자본주의의 후진성과 그 군사적 반봉건적 특성은 일본 자본주의에 가장 강도적이며 가장 야수적인 성격을 부여하였다.

그들은 약한 이웃 나라에 대해서 일관하게 침략과 략탈을 감행하여 왔다. 그러나 구미 렬강에 대해서는 아부하면서 이를 등에 업고 자기의 팽창 야욕을 충족시켜 왔다. 이와 같이 일본 군국주의는 강대한 제국주의 세력 앞에서는 굽신거리고 그들을 섬기며 약소 국가에 대해서는 항상 횡포무도하게 대하고 이를 침략하였다.

《일본은 동방 제국, 아세아 제국을 략탈할 가능성을 가지고는 있으나 그러나 다른 나라의 지지 없이는 여하한 독자적인 재정적 및 군사적 력량도 가질 수 없다》(레닌).

자본주의 발전의 첫 시기에 일본의 금융적 기초는 매우 미약하였다. 년간

예산은 3억 원, 은행의 금 보유량은 1억 원 정도에 불과하였다. 일본의 경제 형편으로써는 전쟁 비용의 절반을 대기가 어려웠다. 군사 장비에 있어서도 서방의 지원 없이는 전쟁을 할 수 없었다.

일본 군국주의자들은 이러한 자체의 약점을 서부 렬강에 의거하면서 그들을 등에 업는 방법으로 보충하여 왔다.

일본 군국주의자들은 미 영 제국주의자들의 차관과 군사 원조를 받아 가지고 1875년에 조선에 대한 침략을 본격적으로 시작하였으며 1910년에는 《한일 합병 조약》을 강요하여 조선을 자기의 완전한 식민지로 만들었다. 일제는 조선을 아세아 대륙 침략의 거점으로, 병참 기지로 전환시켰다.

일본 군국주의자들은 미 영 제국주의를 비롯한 구미 렬강의 지원 밑에 청일 전쟁(1894~1895)을 도발하였다. 전쟁에서 승리한 일본은 3억 6천만 원의 배상금과 대만, 팽호 렬도 등의 령토를 중국에서 탈취하였다.

일본 군국주의자들은 미 영 제국주의의 원조 밑에 로일 전쟁(1904~1905)을 도발하였다. 전쟁의 결과 일본은 남부 싸하린과 료동 반도를 손아귀에 넣었다.

일본 제국주의자들은 미 영 제국주의자들의 지지 밑에 세계에서 첫 사회주의 국가인 쏘련을 교살하기 위한 무력 간섭에서도 돌격대로 나섰다.

1918년에 일본 제국주의자들은 7만여 명의 부대를 씨비리와 싸하린 지역에 투입하였으며 10억 원의 군사비를 지출하였다.

일제는 1938년에는 하싼호, 1939년에는 할힌골강 지역 등에서 련이어 새로운 반쏘 침공을 시도하였다.

그러나 쏘련을 반대하는 일제의 침략 행동은 모두 실패하였다.

1931년에 일제는 미 영의 고무 하에 중국을 침공하여 만주를 강탈하였다. 조선, 대만, 남부 싸하린으로 이루어진 그들의 식민지에 만주가 첨가되였다. 일본 제국주의는 방대한 식민지 소유국으로 등장하였다.

비대하여질수록 한 푼의 리윤이라도 더 짜내며 한 치의 땅이라도 더 걸어쥐려고 발악하는 것은 제국주의의 본성이다.

일제는 1937년 중국에 대한 전면적 무력 침공의 길에 들어 섰다.

중일 전쟁의 초기에도 미 영 제국주의는 계속 일본 군국주의의 침략 행위를 도와 주었다.

일본 군국주의자들은 전체 중국과 전체 아세아를 지배하려고 날뛰였다.

일본 제국주의자들의 이러한 끝없는 침략적 야망은 지금까지 등에 업고 온 미 영 제국주의와도 정면으로 충돌하지 않을 수 없게 되였다.

그러나 일제는 이 나라들을 반대하여 단독으로 전쟁을 할 만 한 능력을 아직 가지지 못 하였었다. 그리 하여 그는 파쑈 독일과 이딸리아와 야합하였다. 일본 제국주의는 1936년에 쏘련을 반대하여 나치스 독일과 《방공 협정》을 체결하였다. 1937년에는 이딸리아가 여기에 가담하여 일, 독, 이 3 개국 《방공 협정》이 성립되였다. 이에 기초하여 일본은 1940년에 파쑈 독일 및 이딸리아와 함께 쏘련을 침공하며 또한 미 영도 반대하여 세계를 재분할하려는 목적 밑에 3 개국 군사 동맹을 체결하였다.

그리 하여 일제는 1941년에 태평양 전쟁을 도발하였다.

일본 제국주의자들은 전쟁 행정에 웰남, 라오스, 캄보쟈, 말라이, 버마, 타이, 필리핀, 인도네시아 등 나라들을 강점하고 인도, 뉴질랜드, 오스트랄리아까지 위협하였다. 그들은 《대동아 공영권》의 구호 밑에 아세아의 모든 나라들을 지배하며 그 우에 군림하려고 획책하였다.

한 전쟁에서 새로운 전쟁에로 넘어 갈 때마다 독점 자본은 인민들의 고혈로 살찌였다. 략탈 전쟁은 일본 독점체들에게 문'자 그 대로 돈'벼락을 안겨 주었다. 일본 4대 독점 재벌의 총자본은 1930 년대에는 8억 5천만 원이였던 것이 태평양 전쟁 말기에는 38억 원으로 늘어

났다.

《명치 유신》 이후 1874년의 대만 침공에서 시작한 일본 군국주의의 남의 나라에 대한 침략과 략탈 전쟁은 10여 차를 거듭하였다. 일본 군국주의자들은 태평양 전쟁 시기까지 11 개 나라와 지역을 식민지 및 반식민지화하고 강점하였다.

일본 군국주의자들은 식민지, 반식민지와 강점 지역들을 《최신의 모든 기술적 발명과 순전히 아세아적인 고문과를 결합시킨 전대미문의 야수적 방법》(레닌)으로 통치하였다.

《조선인은 일본 법들에 복종하든가 그렇지 않으면 죽어야 한다》—이것이 일본 군국주의의 조선에 대한 통치 방법이였다.

일제는 조선의 수 많은 무고한 사람들을 야수적 방법으로 학살하였다. 그들은 심지어 조선 사람의 말과 이름마저 빼앗으면서 조선 민족을 완전히 말살하려고 책동하였다.

《3광 정책》 즉 모조리 죽이고, 모조리 불태우고, 모조리 략탈하는 것이 그들의 중국 인민에 대한 통치 방법이였다. 중일 전쟁 행정에서만 하여도 일본 제국주의자들은 1,200만 명의 중국 인민을 무참히 살해하였으며 1만 개소 이상의 중국 도시와 농촌을 불태웠다.

태평양 전쟁 행정에 동남 아세아의 모든 나라들에서 일제는 집단적 학살 만행을 수 없이 감행하였다. 웰남에서 200여만, 인도네시아에서 200여만, 필리핀에서 110만의 인민들이 희생 당하였다.

일본 제국주의자들은 강점한 나라들에서 자연 부원과 막대한 재물들을 마음 대로 략탈하여 갔다.

일본 군국주의자들이 조선에서 강탈하여 간 재부는 개괄적 계산에 의하더라도 조선 민주주의 인민 공화국 화폐 가격으로 수천억 원이며 중일 전쟁 기간에 중국에서 략탈하여 간 것은 500억 딸라 이상이며 태평양 전쟁 기간에 동남 아세아에서 빼앗아 간 것은 당시의 일본 화폐로 5천억 원에 달하였다.

그러나 일본 제국주의자들은 이러한 야수적 살인 만행과 강도적 략탈로써도 결코 인민들을 굴복시킬 수 없었으며 기울어진 전선의 형편을 만회할 수도 없었다. 그들이 기승을 부리며 침략을 확대한 것은 결코 일본 군국주의의 강대성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였다. 그와는 반대로 그것은 죽어 가는 제국주의의 최후 발악을 보여 주는 것이였다.

일본 군국주의자들이 침략 전쟁을 확대하며 식민지적 략탈을 강화하면 할수록 그것은 자멸을 더욱 촉진할 뿐이였다.

일본 군대는 전선의 도처에서 섬멸적인 타격을 받았다.

침략과 략탈에 혈안이 된 일본 군국주의자들은 패배를 거듭하면서도 수백만의 병력과 막대한 군수 기재를 전선에 련속 투입하였다. 그러나 이것은 침략자들에게 아무런 도움도 주지 못하였으며 오히려 더욱 비참한 결과를 가져다주었다.

일본에서 가장 《정예군》이라고 호언장담하던 100만의 관동군도 쏘련 군대의 진격에 의하여 하루 아침에 괴멸 당하였다.

《무적의 황군》으로 허장성세하던 일본 군대는 기본 력량을 분쇄 당하고 4분5렬 되였다.

일본 군국주의자들은 전쟁을 지속할 능력을 상실하였다.

또한 조선에서, 중국에서 일본 제국주의자들은 인민들의 강력한 반일 민족 해방 투쟁에 부딪쳤다. 동남 아세아의 점령 지역들에서도 례외 없이 일본 군국주의를 반대하는 항쟁 운동이 앙양되였다. 이것은 멸망에 직면한 일제 침략자들에게 더욱 수습할 수 없는 심대한 타격으로 되였다.

일본 제국주의자들은 침략의 마수를 뻗친 아세아의 모든 곳에서 궁지에 빠졌으며 그의 지배는 걷잡을 수 없이 무너져 갔다.

군사 감옥으로 전환된 일본 국내에서도 지배층에 대한 인민 대중의 불만은 커지고 반전 운동은 강화되였다. 전쟁 경

세는 일대 혼란에 빠졌다. 지배층 내부에서 또한 모순이 커 가고 서로 더 많은 리윤을 얻기 위한 추잡한 싸움이 벌어졌다.

일본 제국주의자들은 전선의 전면적 패배를 은폐하고 인민들을 계속 전쟁의 죽음터로 내몰려고 하였으나 결국 종파산을 면할 수 없었다.

《8굉 1우》(온 세상이 한 집안이라는 뜻)의 구호를 내걸고 전 아세아와 나아가서는 전 세계를 《황국화》하려던 일본 군국주의의 과대망상은 반파쑈 인민 력량 앞에서 무조건 항복으로 끝장 났다.

일본 군국주의는 침략 전쟁으로 력사 무대에 등장하였다가 결국 침략 전쟁에서 망하고 말았다. 침략과 략탈 전쟁이 구경에 가서는 패배와 파산을 면할 수 없다는 것은 력사 발전의 법칙이다.

력사는 일본 군국주의가 아세아에서의 서방 제국주의의 대리인이며 살인과 략탈의 날강도이며 전쟁의 도발자이며 민족 해방 운동의 교살자이라는 것을 실증하여 주고 있다.

인류는 또한 이러한 범죄자를 결코 용서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 주고 있다.

2. 미제의 비호 밑에 일본 군국주의는 되살아 났다

군국주의는 제국주의 발전의 중요한 특징으로 되고 있다. 제국주의 단계에 들어 와서 군국주의는 사회 생활의 모든 분야를 포괄하고 전면적으로 발전한다. 이것은 제국주의 나라들에서 전반적인 경향성으로 나타나고 있다.

독점 자본가 계급은 최대한의 리윤을 추구하기 위하여 나라의 군국화를 추진시킨다. 식민지 쟁탈과 세계 제패를 위한 제국주의 렬강들 간의 경쟁은 격화된다. 그들은 이 경쟁을 힘에 의하여 해결하려 한다. 또한 제국주의자들은 사회주의 진영과 국제 공산주의 운동 및 로동 운동과 민족 해방 운동을 적극 반대하여 나선다.

그리하여 제국주의 렬강은 침략과 전쟁 준비를 위해 부단히 군비를 증가하고 군사력을 증강하며 경제의 군사화를 다그친다. 국가 기구를 파쑈화하고 인민들에 대한 탄압을 강화한다. 사상 분야에서 인종주의와 배타주의를 공공연히 고취하고 전쟁 선동을 대대적으로 진행한다.

재벌과 군벌은 더욱 결탁한다. 독점 자본가 계급은 군국주의를 통하여 대내적으로는 인민 대중에 대한 탄압과 착취를 강화하며 대외적으로는 다른 민족에 대한 침략과 략탈을 감행한다. 군국주의는 독점 자본의 계급적 지배의 도구이다.

근대 력사의 전 기간을 통하여 군국주의는 일본에서 전형적으로 발전하여 왔다.

일본 군국주의는 가장 배타적이며, 침략적이며, 호전적이며, 폭압적이며, 략탈적이였다.

군벌은 국가 생활에서 큰 정치 세력을 형성하고 있었다. 군벌은 정치적 권력을 장악하고 정부의 대내외 정책을 지배하였다. 그것은 나라를 계속되는 침략과 전쟁에로 내몰았다.

침략과 전쟁 정책은 결국 일본 군국주의자들의 패망의 길이였다.

제 2 차 세계 대전에서의 쏘련을 선두로 한 반파쑈 민주 력량의 승리는 군국주의를 근절하고 일본이 평화 애호적이며 민주주의적인 나라로 발전할 수 있는 길을 열어 놓았다.

군국주의를 청산하자면 무엇보다도 그의 사회적 근원을 제거하며 군국화의 온갖 기구를 파괴하여야 한다.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비록 군국주의가 일시 큰 타격을 받는다 하여도 그것은 또다시 되살아 나게 된다.

제 2 차 세계 대전 이전 시기에 일본 군국주의의 사회적 기둥은 천황제 절대

주의와 독점 자본주의와 농촌의 반봉건적 지주 제도였다.

일제의 패망 후 일본에서 군국주의를 그 근저로부터 소멸하자면 바로 이 사회적 기둥을 청산하여야 하였다.

포츠담 선언을 비롯한 국제 협정들에서는 일본 군대의 완전한 무장 해제, 전쟁 범죄자들에 대한 처벌, 군국주의 단체와 세력의 제거, 독점의 해체, 군수 산업의 금지, 정치, 경제, 문화, 사회 생활 전반에 걸친 민주화의 실시, 인민들의 자유 의사에 의한 민주주의적 정부의 수립 등을 예견하였다.

이 국제 협정들이 실현되였더라면 일본은 인민의 의사에 부합되게 평화 애호적인 민주주의 국가로 발전할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현실은 이와 정반대로 되였다. 일본을 점령한 미제는 첫날부터 일본을 비군국화할 데 대한 국제 협정들을 한 개의 휴지'장으로 만들었다.

아세아 침략 계획 수행에서 미제는 일본에 특별한 의의를 부여하고 있었다. 미제는 우선 일본의 전략적 위치와 인적 및 물적 자원을 중요시하였다. 그들은 일본을 군사 기지화하고 군국주의 세력을 되살려 사회주의 진영과 민족 해방 운동을 반대하는 돌격대로 길러 낼 것을 타산하였다.

한편 패전하여 막다른 골목에 빠진 일본 군국주의자들에게는 미제의 비호가 필요하였다. 그들은 미제의 품속에서 과거의 죄과에 대한 응당한 징벌을 모면하고 저들의 정치적 지반을 유지하며 다시 한번 일어 나 옛식민지 제국을 회복할 것을 마음 먹고 있었다.

시장과 세력권 쟁탈을 위하여 한때는 피투성이의 싸움을 전개하던 미제와 일본 지배층은 저마다 이러한 타산에서 출발하여 새로 주종 관계를 맺고 결탁하는 길에 들어 섰다.

일본 군국주의를 청산하자면 무엇보다도 천황제를 철폐하는 것이 중요하다. 천황은 일본의 첫째 가는 전범자였다. 그러나 미제는 천황을 전범자들에 대한 국제 재판에서 제외하였다.

새 헌법이 제정되였으나 천황은 자기 자리에 그 대로 남았다.

군국주의의 온상인 재벌들의 《해체》 소동 역시 형식적이였다. 그것은 미국 독점 자본과의 경쟁 능력을 약화시키고 미국 자본의 침투에 유리하게 길을 닦아 주었을 뿐이다.

《농지 개혁》이 실시되였으나 농촌에서의 반동 진지는 무너지지 않았다.

군대의 골간들은 경찰, 해상 경찰 등 각종 명목의 은페된 형태로 계속 보존되였다. 관료 통치 기구도 그 대로 남겨 두었다. 전범자들과 군국주의 고취자들의 대다수는 재판이나 공직 추방에서 제외되였다.

일본 군국주의 세력은 패전 후에 큰 타격을 받지 않았다.

그들은 미제의 비호 밑에 자기 지반을 확보하였다.

미제와 일본 통치배들은 반동 세력을 비호하고 군국주의 재생의 터전을 닦는 한편 각종 악법을 조작하여 일본 공산당을 비롯한 민주 력량에 대하여 가혹한 탄압을 가하였다.

결국 전후에 일본에서 미제가 취한 모든 조치들은 군국주의의 사회적 지반과 군국주의 기구를 보존하고 일본에 대한 미국의 지배 체계를 확립하기 위한 것이였다. 그리 하여 일본 군국주의는 미제의 비호 밑에 되살아 나게 되였다.

미제가 도발한 조선 전쟁은 일본 독점 자본의 부활과 일본 군국주의 재생에서 중요한 전환점으로 되였다.

조선 전쟁 기간에 미제와 일본 지배층은 군국화를 촉진시키기 위하여 일방적으로 쌘프랜시스코 단독 강화 조약과 미 일 《안전 보장》 조약을 체결하였다.

단독 강화 조약과 미 일 《안전 보장》 조약은 미군의 일본 강점과 군사 기지화를 합법화하였으며 《개별적 혹은 집단적 자위권》이라는 명목 밑에 일본이 재무장하고 침략적 군사 동맹에 가담할 수 있는 길을 열어 놓았다. 이것은 일

본에 관한 국제 협정에 완전히 배치되는 것이였다.

조선 전쟁과 쌘프랜시스코 단독 강화 조약의 체결을 계기로 미제는 일본의 재군국화를 종전과 같이 은페된 형태로써가 아니라 공개적 형태로 진행하였다.

《경찰 예비대》, 《해상 보안대》라는 명의로 드디여 군대가 창설되였다.

재편성된 일본 군대는 미군의 지휘 밑에 미국식 군사 기술과 미국제 무기로 무장하였다.

이와 함께 일본은 조선 전쟁 수행을 위한 미제의 기지로 전환되였다. 조선을 폭격한 미국 항공기들은 일본의 기지에서 출발하였으며 미국 함대는 일본 항구들을 기지로 작전을 수행하였다. 미군 부대를 도와 일본 군대와 함선들이 직접 조선 전쟁에 동원되였다. 이것은 일본 군국주의가 이 때부터 벌써 미제의 아세아 침략의 중요한 일익을 담당하여 나섰다는 것을 의미한다.

미제에 의하여 부활되기 시작한 일본 독점 자본은 조선 전쟁 기간에 일대 호경기를 쥐었다.

조선 전쟁 기간에 일본 독점체들은 22억 딸라의 미군 《특수》를 받아 공업 생산을 70%나 높였다. 일본 독점 자본가들은 이것을 《신풍》(하늘이 도와주는 바람)이라고 불렀다.

원래 전쟁으로 자랐고 전쟁으로 망한 것이 일본 독점 자본이 걸어 온 발자취이다. 평균 10 년도 못 되는 동안에 한번씩 진행하는 매 전쟁마다에서 일본 독점 자본은 살쪄 왔다. 일본 독점 자본은 미제의 조선 침략 전쟁에 가담하여 우리 인민의 피로 물든 딸라를 받아 또다시 배를 불리고 자라났다.

미일 간의 신《안전 보장》 조약의 체결은 일본 군국주의 부활에서 또하나의 새로운 단계로 되였다.

미제는 1960년의 신《안전 보장》 조약에서 일본의 재무장을 새로이 촉진시키며 《공동 방위》라는 명목 밑에 일본 군대를 직접 자기들의 아세아 침략에 동원할 수 있게 하였다. 신《안전 보장》 조약은 사회주의 나라들을 침략하기 위한 미일 군사 동맹을 강화하며 일본 군국주의의 핵 무장의 길을 열어 놓았다. 그것은 일본 인민에 대한 미일 반동 지배층의 억압을 더욱 강화할 것을 목적한 것이다.

신《안전 보장》 조약 체결 후 일본의 재군국화는 급속히 촉진되고 있다. 현재 일본은 군사적 면에서 《자위대》의 명칭으로 27만여 명의 병력과 호위함 50척, 잠수함 10 척을 포함한 15만 톤의 각종 함정과 1,400여 대의 비행기를 보유하고 있다. 최근에 와서 일본 지배층은 《자위대》를 로케트 무기로 장비하였으며 그의 핵 무장화를 서두르고 있다.

일본 군대는 어느 때나 수십 수백만의 대부대로 편성될 수 있도록 골간 부대로 육성되고 있다. 각 병종 부대들은 조선, 중국, 쏘련, 동남 아세아를 작전 지역으로 가상한 《산악전》, 《내한 훈련》, 《밀림전》 훈련 등을 진행하고 있다.

일본 군국주의자들은 오끼나와 뿐만 아니라 일본 본토를 미국의 핵 기지로 제공하며 전 령토를 《아세아의 병기창》으로 만들려 하고 있다. 일본에는 200여 개의 미 륙해공군 기지가 그물처럼 뒤덮여 있다.

되살아 난 일본 군국주의 세력은 지금 각종 수단을 발동하여 군국주의 사상과 복수주의 사상을 고취하고 있다.

천황은 또다시 우상으로 만들어지고 있다.

천황제 절대주의적 국가 의식들이 부귀되고 있다. 반동 지배층은 1968년 《명치 유신》 100 주년을 계기로 파쑈적 성격을 띤 이른바 《소화 유신》을 단행할 것을 공공연히 떠들고 있다.

한때 침략과 략탈에 날뛰다가 죽은 자들의 《위령탑》과 《충혼비》가 세워지고 있으며 해마다 이 자들을 위한 《위령제》가 거행되고 있다. 일본 《자위대》 장병들 속에서 《충신 명장》들의 《모범》을 본받아 《목숨 바쳐 천황에 충성》하라는 군국주의 정신이 배양되고 있다.

군국주의자들은 과거 일본이 감행한

모든 침략 전쟁이 《동진하는 서방 세력을 배제한 성전》이였기 때문에 《본질상 해방 전쟁이였다》는 황당한 주장을 류포시키고 있다.

또한 《일본이 조선, 대만, 만주에 많은 자금을 밀어 넣었으니 이제는 적극적으로 선배들과 선조들의 본을 따야 할 때가 왔다》고 떠벌리고 있다. 이러한 강도적 론법에 따라 일본 군국주의자들은 옛길을 더듬어 또다시 침략을 감행해 나서야 한다는 것을 로골적으로 뇌까리고 있다.

해외 침략의 야망에 불타고 있는 일본 지배층은 국내에서 파쑈 체제의 확립을 다그치고 있다.

그들은 국가 기구를 반동화하고 인민 탄압 기구를 확장하고 있다. 각종 악법들을 조작하여 인민들의 민주주의적 권리를 말살하며 민주주의적 정당, 사회 단체들의 활동을 봉쇄하려고 획책하고 있다. 그들은 헌법을 개악하여 징병제를 실시하고 일본 군대의 핵 무장화와 해외 파병을 합법화하며 전시 비상 동원 체제를 갖추려 하고 있다.

일본에서 벌어지고 있는 사태는 정치, 경제, 군사, 사회 의식의 모든 령역에서 군국화 과정이 급속히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말해 준다.

미제와 일본 지배층은 자기들의 모든 범죄적 행위를 《공산주의 위협》으로부터의 방위라는 구실로써 합리화하려 하고 있다.

일본 지배층은 《일본이 반공 투쟁의 제 1 선에 서 있다》고 떠들고 있다. 지난날 제 2 차 세계 대전을 도발할 때 히틀러 독일과 파쑈 이딸리아, 군국주의 일본이 모두 《반공》의 구호를 들고 나왔던 것을 사람들은 똑똑히 기억하고 있다. 일본 군국주의자들은 만주를 강점하였을 때에 이것을 《극동에 있어서의 공산주의 위험에 대한 장벽을 만드는 것》이라고 떠벌렸다.

시대는 달라졌으나 침략의 원흉들은 같은 나발을 불어대고 있다. 제국주의자들의 반공 소동은 그들의 침략과 전쟁 책동을 은폐하기 위한 상투적인 기만극이다. 이러한 반공 나발은 이미 오래 전에 밑창이 드러났다. 세상에 그것을 믿을 사람은 없다.

오늘 되살아 난 일본 군국주의는 그 전날의 군국주의와는 다른 차이점을 가지고 있다. 일본 군국주의를 재생시킨 장본인은 미 제국주의이다. 일본 군국주의는 미제에 예속되여 있으며 그와 결탁하고 있다. 일본 군국주의는 미제와 일본 독점 자본의 리익에 복무하고 있다.

미제에 대한 예속성과 일본 독점 자본을 위한 침략성—이 2중성이 되살아 난 일본 군국주의의 주요 특징으로 되고 있다.

일본 군국주의는 미제와 결탁하고 있기 때문에 더 교활하고 더 위험하다.

일본 군국주의는 현재 이미 정치에 끼여 드는 정도를 벗어 나 직접 국가 정책을 결정하는 세력으로 정치 무대에 등장하고 있다.

오늘 미제와 일본 지배층이 군국화 정책을 추진시키고 있는 것은 결코 일본 독점 자본의 지위를 강화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도리여 그것은 독점 자본주의의 진지를 더욱 약화시키며 불안정하게 만들 뿐이다.

군국주의는 자신의 멸망을 배태하고 있다.

《부르죠아지가 그들의 전쟁 기도에 깊이 끌려 들어 가면 갈수록, 그들이 로동 계급과 근로 농민을 반대하여 테로적 투쟁 방법을 자주 쓰면 쓸수록 혁명적 위기는 더욱 빨리 장성하게 될 것이다》(쓰딸린).

군국주의는 독점 자본주의의 부패성과 기생성의 집중적 표현이다.

군비 확장과 경제의 군사화는 많은 재부와 로동력을 비생산적 소비에 탕진하게 한다. 군수 산업의 일면적 발전은 생산의 무정부성을 심화시키며 보다 심각한 경제적 위기를 낳게 한다.

그것은 광범한 근로 대중을 빈궁과 무권리 속에 몰아 넣음으로써 그들의 불만과 반항을 증대시킨다. 그리하여 독점 자본주의의 모순을 불가피적으로

첨예화시킨다.

결국 군국주의 정책의 강화는 썩고 죽어 가는 제국주의의 운명을 앞당기게 한다.

3. 일본 군국주의는 또다시 해외 침략의 길에 들어 섰다

일본 군국주의는 미제의 비호 밑에 오늘 해외 침략의 발'걸음을 한걸음 한걸음 내디디고 있다.

제국주의는 다른 나라에 대한 침략과 략탈 없이는 살 수 없다. 현시기 일본 독점 자본주의의 발전은 해외 시장을 확대하지 않고서는 더 나갈 수 없는 단계에 이르렀다. 되살아 난 독점을 토대로 하여 일본 공업은 1964년에 전쟁전 1934～1936년 수준의 5 배 이상으로 장성하였다.

생산과 자본은 고도로 집적 집중되였다. 시장은 독점 자본이 최대한의 리윤을 추구하기 위하여 무정부적으로 확대하는 생산에 따르지 못하고 있다. 일본은 심각한 과잉 생산 위기에 봉착하고 있으며 생산의 침체 또는 감퇴 현상이 일부 전략적 산업 부문을 제외한 모든 공업 부문에서 일어나고 있다. 이 모순은 전후 일본 독점 자본이 식민지를 가지지 못한 조건으로 하여 더욱 증대되고 있다. 지난 시기는 침략 전쟁과 식민지 략탈을 통하여 막대한 원료 원천과 넓은 시장을 획득할 수 있었다. 그러나 오늘은 극심한 원료의 부족과 판로난에 부닥치지 않을 수 없게 되였다. 일본 지배층은 해외 침략에서 이 모순의 해결을 찾으려 하고 있다.

그들이 침략 정책을 로골화하고 있는 것은 또한 미 제국주의자들이 아세아 지역에서 무너져 가는 자기의 식민지 지반을 유지하며 특히 웰남 침략 긴쟁에서 당하고 있는 패배를 수습하기 위하여 일본 군국주의 세력을 리용하려는 것과 관련되여 있다.

미제는 자기의 아세아 침략 정책이 파산에 부닥칠수록 일본의 역할에 더 큰 의의를 부여하고 있다.

미제의 아세아에 대한 전략의 기본은 아세아 사회주의 나라들을 봉쇄하고 전복하며 민족 해방 운동을 탄압하고 식민지 체계를 유지 확대하려는 데 있다. 미제는 자기의 이 전략 계획을 실천하기 위하여 추종 국가들과 괴뢰들을 광범히 망라한 반공 전선을 결성할 것을 획책하고 있다. 미제는 이 쁠럭에서 일본 군국주의로 하여금 핵심적 역할을 담당케 하며 그를 돌격대로 내세우려 하고 있다.

일본의 대외 정책은 미제의 아세아 전략 계획의 수행에 복무하고 있다. 여기로부터 일본 정부는 조선 민주주의 인민 공화국을 적대시하며 《두 개 중국》 조작 음모에 가담하며 웰남 민주 공화국을 반대하는 정책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신생 독립 국가들의 자주 자립을 방해하며 민족 해방 투쟁을 반대하여 책동하고 있다.

제국주의자들의 침략 정책 수행에서 군사적 쁠럭과 쌍무적 동맹의 조직은 중요한 골간을 이루고 있다.

제국주의자들은 군사 쁠럭과 쌍무적 동맹을 통하여 여기에 가담한 국가들을 정치, 경제, 군사적으로 통제하며 그들을 다른 나라에 대한 침략에 끌어 들여 리용하고 있다.

일본 군국주의자들은 미제와 함께 아세아에서 각종 군사 동맹을 조작하는 데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미제와 일본 군국주의 간에는 《안전 보장》 조약을 통하여 이미 군사 동맹이 형성되였다.

이리 하여 일본은 아세아에서 미제의 침략과 민족적 억압과 반동의 거점으로 되고 있다.

지난해 말 일본 정부는 미제의 계획에 따라 파쑈적 강권을 발동하여 국회에서 침략적인 《한일 조약》을 비법적으로 통과시키고 이 비준서를 남조선 괴뢰 도당과 황급히 교환하였다. 이것은 일본 반동 지배층과 박 정희 도당 간의 정치 경제적 결탁일 뿐 아니라 본질에 있어서 군사적 결탁이다.

일본 지배층은 《한일 조약》을 통하여 조선의 통일을 방해하며 유엔의 명목 밑에 일본 군대의 남조선 파견을 합리화하려 하고 있다.

일본 군국주의자들은 미제의 지휘 밑에 일본, 남조선, 대만 등을 망라한 《동북 아세아 군사 동맹》을 조작하려고 서두르고 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 남부 웰남, 필리핀, 타이, 말레이시아, 오스트랄리아, 뉴질랜드 등까지 규합하여 아세아에서 단일 반공 군사 블럭을 형성할 데 대한 미제의 전략 계획을 실현하려 하고 있다.

이 계획의 기저에 파산된 《대동아 공영권》을 재현시켜 보려는 일본 군국주의의 야욕과 세계를 제패하려는 미제의 침략적 의도가 엉켜 있다는 것은 비밀이 아니다.

일본 군국주의자들은 미제의 아세아 침략에 복무하는 대'가로 자기의 해외 팽창 야욕을 충족시키려 하고 있다.

그들은 미제와 협동하여 아세아를 침략하기 위한 구체적 계획을 벌써 작성하였다. 일본 군대의 참모부는 1963년 6월에 조선과 기타 사회주의 나라들을 반대하여 일으킬 침략 전쟁 계획을 짜놓았다.

작년 봄 일본 국회에서 폭로된 일본 방위청의 《세 개 화살 작전》 계획과 그 후 또다시 드러난 《날아 가는 룡 작전》 계획이 바로 그것이다.

《세 개 화살 작전》 계획에서는 조선에서 전쟁을 일으킬 것을 가정하고 있다.

전쟁 발발을 계기로 일본 통치배들은 전국에 파쑈적 국가 총동원 체제를 확립하며 모든 물자, 물가, 금융, 운수, 언론, 출판에 대한 통제와 징병, 징용 등을 실시할 것을 예견하고 있다. 이와 함께 일본 군대는 미국 군대와 공동으로 조선, 중국, 쏘련을 폭격하고 해상 봉쇄를 실시하며 상륙 작전을 진행하기로 되여 있다.

이 《세 개 화살 작전》 계획에 근거하여 작성된 《날아 가는 룡 작전》 계획에서는 일본 군대가 미국 군대와의 공동 작전을 벌리면서 조선 민주주의 인민 공화국과 중국에 기여 들 준비를 하기 위하여 남조선과 오끼나와에 파견된다는 것을 규정하고 있다.

일본 수상 사또는 《세 개 화살 작전》 계획이 폭로되자 《그런 것을 연구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떠벌렸다. 그 후 방위청 장관은 《세 개 화살 작전 연구는 필요한 것이니 계속하겠다》고 내놓고 말하였다.

그런즉 이 침략 계획은 결코 단순한 연구를 목적한 것이 아니다. 이것은 실천을 위한 계획이다.

일본 군국주의자들은 지금 실제상 미제의 웰남 침략 전쟁에 가담하고 있다. 일본 수상 사또는 미제의 웰남 침략을 《정당한 행동》이라고 앞장 서서 지지하며 미제를 돕는 데서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하고 있다.

지금 일본은 웰남 침략을 위한 미군의 기지로 되고 있다. 웰남 해안에서 전쟁 행위를 감행하고 있는 미 제 7 함대는 요꼬스가를 기지로 하고 있으며 웰남 민주 공화국에 무차별 폭격을 감행하는 미군 폭격기들도 역시 일본에 기지를 두고 있다.

오끼나와와 함께 일본 본토에 있는 기타 수 많은 미군 기지들은 모두 미국의 웰남 침략에 직접 복무하고 있다.

일본은 남부 웰남에서의 침략 전쟁을 위해 막대한 량의 무기와 군수품을 계속 보내 주고 있다. 이 뿐만 아니라 일본 지배층은 선원들을 파견하여 미군의 상륙 작전을 돕고 있다.

웰남 인민을 반대하는 침략 전쟁을 통하여 일본 독점 자본가들은 조선 전쟁 때와 같이 또다시 횡재를 하며 동남

아세아에서의 자기들의 특권적 지위를 확보할 것을 노리고 있다. 오늘 그들은 로골적으로 《웰남 전쟁은 일본의 현 불경기를 일소하는 두 번째의 신풍이다》라고 말하고 있다.

사실 상 일본 군국주의자들은 미제의 웰남 침략 전쟁에 그 어느 세아토 성원국들이나 미국의 구라파 동맹국들보다도 더 적극적으로 참가하고 있다.

일본 군국주의자들이 조작한 《세 개 화살 작전 계획》, 《날아 가는 룡 작전 계획》, 《한일 조약》, 미제의 웰남 침략 전쟁 등은 모두 긴밀히 련관된 미제의 아세아 침략 계획의 구성 부분이다.

일본 군국주의자들은 오늘 식민지 민족 해방 운동을 탄압하며 사회주의 진영 나라들을 반대하는 데 있어서 미제의 가장 충실한 조력자로 나서고 있다.

일본 지배층은 이러한 추악한 역할과 범죄 행위를 그 무엇으로써도 은폐할 수 없다.

일본 지배층은 사회주의 진영을 반대하며, 민족 해방 운동을 반대하며, 아세아, 아프리카의 민족 독립 국가들을 반대하면서 자신을 어떠한 위험한 자리에 놓고 있는가를 알아야 한다.

일본 군국주의자들은 자기의 침략 계획 수행에서 이미 그 밑창이 다 드러난 낡은 수법과 함께 교활하고 은폐된 신식민주의 수법에 매여 달리고 있다. 그들은 미제의 침략과 전쟁 정책에 적극 가담하는 한편 《원조》, 《공동 개발》, 《경제 협력》의 간판 밑에 다른 나라에 대한 경제적 침투를 강화하고 있다.

이것은 신식민주의 정책의 구체적 형태의 하나이다. 제국주의자들의 《원조》, 《공동 개발》, 《경제 협력》—그것은 바로 잉여 상품의 강매와 잉여 자본의 수출이다.

그것은 또한 략탈의 수단이며 피원조국에 대한 정치 경제적 예속을 실현하는 도구이다.

<제국주의 국가들은 표면 상으로는 호상간의 <친선>과 <단결>을 주장하나 뒤에서는 상대방을 반대하는 파괴 공작을 진행하며 <협조>와 <원조>를 표방하면서 실지에 있어서는 그것을 다른 나라들을 정치 경제적으로 예속시키기 위한 수단으로 리용하고 있다>(김 일성).

제국주의의 경제적 침략에서 주요한 자리를 차지하는 자본 수출은 일반적으로 산업 자본 수출과 대부 자본 수출의 두 가지 형태를 띤다.

오늘 일본 군국주의는 전쟁 배상금, 《원조》, 차관, 연불 수출 등의 형태를 띤 국가 자본 수출을 강화하고 있다.

일본 군국주의자들의 해외 팽창과 침략에서 주되는 대상은 아세아, 아프리카, 라틴 아메리카 나라들이다. 그 중에서도 특히 그들은 동남 아세아에 주력하고 있다. 일본 군국주의자들은 아세아 지역에 광범히 침투해 들어 감으로써 미국의 아세아 침략 정책을 보강하는 동시에 자기 자신의 세력권을 형성하려고 획책하고 있다.

일본 지배층은 교활하게도 2 차 대전 기간에 일본 침략군이 감행한 략탈과 만행에 대한 배상금 지불을 동남 아세아 나라들에 대한 경제적 침투의 중요한 수단으로 리용하고 있다.

배상금 지불은 일본 군국주의자들에게 있어서 특수한 형태의 국가 자본 수출로 되고 있다.

아세아 나라들과 배상 협정을 체결한 후 이 지역에 대한 일본의 상품 수출은 47% 증대하였으며 자본주의 세계에서 두 번째 자리를 차지하게 되였다.

일본은 특히 남조선과 대만에서 경제적 팽창을 강화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한일 조약》에 근거하여 남조선 괴뢰 도당과의 공모 하에 《청구권》, 《경제 협력》 등의 명목으로 남조선에 8억 딸라를 투입할 것을 계획하고 있다. 과거 조선 인민을 착취하고 략탈한 미쯔비시, 미쯔이, 스미도모 등 독점 재벌들이 또다시 남조선에 기여 들어 치외 법권적 영업 활동을 하고 있다. 일본 지배층은 남조선 경제를 일본의 경제의 부속물로 만들려고 획책하고 있다.

1965년에 대만의 장 개석 도당에게는

1억 5천만 딸라의 차관을 주기로 하였다. 얼마 전에 일본 정부는 또한 남부 윁남, 라오스, 남조선의 괴뢰들에게 매년 4억 딸라의 《긴급 원조》를 줄 것을 결정하였다. 일본 정부는《일본, 남조선, 대만 공동 시장》의 창설, 말레이시아, 필리핀, 타이를 묶어 세운《원 쁠럭》의 형성까지 예견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단독으로서 뿐만 아니라 미제를 비롯한 서방 제국주의 국가들과 함께 집단적으로 신식민주의적 착취를 감행하는 데 나서고 있다.

미제가 자기의 침략 정책을 엄폐하기 위하여 내놓은 쫀슨의《동남아 개발 원조 계획》에 대한 적극적인 지지, 유엔의 간판 밑에 아세아 인민들을 착취할 목적으로 설치되는《아세아 개발 은행》에서 주도권을 잡으려는 시도들이 그것을 보여 주고 있다.

아프리카, 라틴 아메리카 나라들에 대해서는 주로《원조》, 연불 수출, 원차관 등의 형식으로 체화 상품을 판매하고 있다.

1964년 말 현재 일본의 자본 수출 총액은 25억 딸라에 달하였다. 해외에 투자한 자본으로 일본 독점 자본은 본국에서보다 몇 배나 더 많은 리윤을 짜내고 있다.

최근 시기 일본 독점 자본은 아세아, 아프리카, 라틴 아메리카 나라들에서의 경제적 난관과 약점을 리용하여 특히 기업 수출, 부동산의 획득, 지하 자원 개발을 위한 투자, 기술《협조》등을 강화함으로써 경제적으로 더욱 깊이 침투하고 있다.

일본 독점 자본은 아세아, 아프리카, 라틴 아메리카 신생 독립 국가들의 자립적 민족 경제 건설을 방해할 것을 목적하고 있다. 만일 나라의 경제가 외래 독점 자본의 침식을 받는다면 독립 국가들은 풍부한 인적 및 물적 자원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경제의 락후성과 기형성을 극복하지 못할 것이며 정치적 독립도 공고히 할 수 없을 것이다.

일본 군국주의자들은 이렇게 경제적으로 뒤떨어진 나라와 인민을 회생시키는데서 자기의 정치 경제적 리득을 얻으려 하고 있다.

일본 지배층은 경제적 침투와 함께 또한 아세아, 아프리카 나라들의《벗》으로 가장하고 종교, 사상, 문화 분야에도 침투하고 있다.

그들은 여기에서 일제에 대한 환상을 조성하고 부패 타락한 사상적 독소들을 부식시켜 이 나라 인민들의 민족 주체의식과 혁명적 의지를 마비시키며 반제 기세를 무마하고 아세아, 아프리카 나라들 간의 친선과 단결을 파괴하려 하고 있다. 그리 하여 궁극에 가서는 일본 상품 시장의 확대와 독점 자본 침투의 길을 개척하기 위한 목적을 추구하고 있다.

일본 군국주의자들은 아세아적 분장을 하고 미제의 침략을 가장 충실히 도와 나서고 있으며 또한 직접적인 침략자로서 등장하고 있다.

그러나 이것은 불가피적으로 일본 군국주의자들과 다른 나라 인민들 간의 민족적 모순을 더욱 첨예화시키고 있다.

일본 군국주의자들이 해외 침략을 강화하면 할수록 그들은 각국 인민들의 더욱 강력한 반항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일본 군국주의의 해외 진출은 또한 세력권 확장에 눈이 어두운 제국주의 렬강들 간의 모순을 격화시키고 있다.

일본 정부의 침략 정책은 결코 독점 자본주의를 파멸에서 구원하여 줄수 없다.

4. 일본 군국주의를 반대하는 투쟁은 미제를 반대하는 투쟁의 일환이다

일본 군국주의를 반대하는 투쟁은 미제를 반대하는 투쟁과 련결되여 있다.

그것은 바로 미제가 일본 군국주의를 부활시킨 장본인이며 그 비호자이기 때문이다.

미 제국주의는 가장 큰 국제적 착취자이며, 현대 식민주의의 아성이며, 침략과 전쟁의 주되는 세력이며, 세계 반동의 원흉이며 국제 헌병이다. 공산당 및 로동당 대표들의 회의 성명에 규정된 이 결론은 오늘의 현실에도 전적으로 타당하다.

물론 최근 년간 제국주의 렬강들 간의 력량 관계에서 일정한 변화가 있는 것을 무시할 수 없다. 미국의 지위가 상대적으로 약화된 반면에 영국, 프랑스, 서부 독일, 일본, 이딸리아의 지위는 상대적으로 강화되였다. 이러한 경향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다.

그러나 오늘 미국의 지위는 제국주의 진영 내에서 여전히 우세하다. 미 제국주의는 경제적으로나 군사적으로나 다른 제국주의 나라들을 압도하고 있다. 미국의 공업은 자본주의 세계의 공업 총생산액의 거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다.

미국 군대는 영국, 프랑스, 이딸리아, 서부 독일, 일본 군대를 합한 것의 근 1.5 배나 된다. 군사 장비에 있어서도 미국은 다른 자본주의 나라들을 압도하고 있다. 이러한 우세로 하여 미제는 세계 제국주의의 두목으로 되고 있다.

오늘 미제는 가장 침략적인 제국주의 국가이다. 그는 사회주의 국가들과 평화 애호 국가들을 반대하는 침략 행동의 선두에 서 있으며 세계 도처에서 평화를 교란하고 인민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

미제는 해외에 2,300여 개의 군사 기지를 설치하고 여기에 125만여 명의 군대를 상시적으로 주둔시키고 있다.

나토, 쎈토, 세아토, 안쥬스 등 집단적인 군사 동맹과 쌍무적인 군사 동맹들이 미제에 의하여 조작되였다.

미제는 세계 도처에서 민족 해방 운동을 진압하며 식민지와 예속 국가들에서 착취와 략탈을 강화하고 있다.

그러므로 오늘 세계의 모든 평화 애호 인민들은 미제와의 투쟁을 주되는 과업으로 내세우고 있다.

현실은 단결할 수 있는 모든 력량을 결속하여 미제를 반대하는 공동 전선을 강화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사회주의 진영 나라 인민들, 아세아, 아프리카, 라틴 아메리카 인민들, 세계의 모든 평화 애호 인민들은 반제 투쟁의 기치 하에 단결하여 도처에서 미제에 타격을 주어 그 손발을 얽어매야 한다. 오직 그렇게 함으로써만 미제의 침략과 전쟁 정책을 파탄시키고 세계 평화를 고수할 수 있다.

미제의 핵 공갈에 겁을 먹고 그와의 투쟁을 포기하는 것은 세계 혁명에서 물러 서며 평화 옹호 투쟁에 엄중한 해독을 끼치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는 미제에 대하여 조금도 환상을 가지지 말며 그 침략 정책 앞에서 양보하지 말며 랭정한 태도를 가져야 한다.

오늘날 전 세계 인민들의 첫째 가는 투쟁 대상은 어데까지나 미 제국주의이다. 그러나 이것은 결코 다른 제국주의와의 투쟁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우리는 미제를 반대하는 동시에 미제의 침략을 도와 나서고 있는 다른 제국주의를 반대하여 투쟁하여야 한다.

특히 일본 군국주의와 서부 독일 군국주의를 반대하는 투쟁을 강화하여야 한다.

일본과 서부 독일은 동방과 서방에서 또다시 두 개의 전쟁 온상으로 되였다. 이런 조건에서 일본 군국주의와 서부 독일 군국주의를 반대하는 투쟁을 결코 소홀히 하여서는 안 된다.

우리는 서부 독일 군국주의와 일본 군국주의의 위험성에 대하여 그 어느 하나를 중시하고 다른 하나를 경시하는 립장을 취하지 말아야 한다. 세계 정

세를 평가함에 있어서 편견에 사로잡히지 말아야 하며 구라파나 혹은 아세아나 어느 일방에 치우치지 말아야 한다.

오늘 아세아 정세는 매우 긴장되여 있다. 미제는 특히 윁남 인민을 반대하는 침략 전쟁을 확대하기 위하여 혈안이 되고 있다. 일본 군국주의자들은 미제의 아세아 침략 정책에 복무하고 있다. 아세아의 현 정세는 전반적인 세계 정세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사회주의 나라들과 진보적 인민들은 아세아에 낯을 돌려야 한다. 미제의 침략 정책에 적극 호응하여 나서고 있는 일본 군국주의의 준동에 경각성을 높이며 그를 반대하여 견결히 투쟁하여야 한다.

미제와 일본 군국주의 간의 관계에 대하여 옳은 견해를 가지는 것이 중요하다. 우리는 미 일 간의 호상 관계를 일면적으로가 아니라 전면적으로 보아야 한다.

물론 미 제국주의자들과 일본 통치배들 사이에는 일정한 모순이 있다. 일본 지배층은 자기들의 력량이 상대적으로 강화되는 데 따라 미제의 통제에서 벗어나 자주성을 회복하려고 한다.

미 일 간의 모순은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더욱 커질 수 있다.

우리는 미제와 일본 통치배들 간의 이러한 리해 관계의 대립을 침략과 전쟁 정책을 반대하며 평화를 위한 투쟁의 리익에 부합되게 옳게 리용하여야 한다. 그리하여 미제를 더욱 고립시키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나 오늘의 형편에서 미 일 간의 모순을 과대 평가하여서는 안 된다. 일본 제국주의자들이 자주성을 주장한다 하여 그들이 진보적인 력량과 반미 공동 전선을 도모하리라고는 생각할 수 없다.

일본 제국주의자들이 자주성을 회복하려는 경향은 그의 반동성과 침략성을 버리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호상간의 모순에도 불구하고 미제와 일제 간의 관계는 충돌을 일으킬 만큼 그러한 정도에 이르지는 못 하였다. 일본 통치배들에게 지나친 기대를 걸지 말아야 한다.

현시기 미 일 관계를 규정하고 있는 주되는 것은 종속적인 동맹 관계이다.

《일본 독점 자본주의의 최근의 급속한 부활과 강화는 미 제국주의에 대한 종속적 동맹의 테두리 안에서 일본 독점 자본의 지위를 상대적으로 높이게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 제국주의에 대한 일본 독점 자본의 종속적 동맹 관계는 오늘날 의연 기본적으로 변화되지 않았다》(일본 공산당 제 9 차 대회에서 한 미야모도 겐지의 보고).

미 제국주의자들은 아세아 침략의 거점으로서 일본을 계속 강점하고 있으며 정치, 경제, 군사의 모든 분야에 걸쳐 지배하고 있다. 일본 독점 자본은 자본, 원료, 기술, 시장 등에서 미국에 예속되여 있다. 일본의 외자 도입액의 90%는 미국이 차지하고 있다. 미국의 대일 투자액은 급격히 불어 나고 있다. 미국 독점체에 대한 일본 독점체의 직접적인 종속적 결합이 진행되고 있다. 미 일 자본의 합영 기업체는 1963년 말에 200 개 이상에 달하였다.

일본 군대는 사실 상 미군의 지휘 밑에 있으며 미제의 아세아 전략의 일익을 담당하고 있다. 외교 분야에 있어서도 일본 지배층은 일관하여 대미 추종 정책을 견지하고 있다.

그들은 모두 사회주의 진영과 국제 공산주의 및 로동 운동을 반대하고 있으며 민족 해방 운동을 반대하고 있으며 일본 국내에서의 민주 운동을 반대하고 있다.

미제는 일본을 발판으로 하고 일본 군국주의를 리용하지 않고서는 아세아에서 침략 정책을 충분히 실현할 수 없다. 또한 일본 군국주의자들은 아직 미 제국주의자들과 대등한 립장에서 경쟁하며 대결할 만한 력량을 가지고 있지 못 하다. 일본 군국주의는 미제를 등에 업지 않고서는 자기의 침략적 야망을 실현할 수 없다.

이 모든 것은 미 일 제국주의 호상간에 갈등과 모순이 있으나 근본적인 문

제들에 있어서는 리해 관계가 일치하고 있다는 것을 말하여 준다. 미제와 일제는 리해 관계의 공통성으로 하여 호상 결탁하고 있다.

미제를 반대하는 투쟁과 일본 군국주의를 반대하는 투쟁을 분리시켜서는 안 된다. 일본 군국주의를 반대하는 투쟁은 미제를 반대하는 투쟁의 일환으로 된다.

만약 우리가 일본 군국주의를 반대하여 투쟁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미제의 지위를 강화하여 주는 것을 의미할 것이다.

우리는 일본 지배층에 대하여 환상을 가지지 말아야 한다.

일본 지배층은 독점 재벌의 대리인이며 군국주의의 옹호자이다.

일본 정부는 미 일 반동 세력의 리익에 충실히 복무하고 있다.

요시다 내각으로부터 기시, 이께다, 사또 내각에 이르는 력대 일본 통치배들이 실시하여 온 모든 정책이 이것을 실증하여 준다.

반동 세력의 지배 하에서 누가 수상의 자리에 올라 앉든지 간에 일본 정부의 반동적 정책에서 근본적 변화를 기대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일본 통치배들에 대하여서는 원칙적인 투쟁을 전개하여야 한다. 민족 리기주의적 립장이나 개별적이며 일시적인 리익으로부터 출발하여 문제를 보아서는 안 된다. 일본 군국주의를 반대하는 투쟁에서 일치한 보조를 취하며 집단적으로 그 침략을 막아 나서야 한다.

우리는 일본 군국주의자들의 위험한 책동에 경각성을 높이며 그들이 다시 머리를 쳐들지 못 하게 하며 미제의 돌격대로 나서지 못 하게 하여야 한다. 일본 군국주의자들이 국내에서 파쑈 체제를 강화하고 다른 나라를 침략하고 략탈하지 못 하도록 하여야 하며 감히 불장난을 하지 못 하도록 하여야 한다.

일본 군국주의자들은 아세아에 위치하고 있다는 사정을 리용하여 아세아, 아프리카 인민들의 《벗》으로 가장하면서 반제 전선 대렬에 끼여 들려 하고 있다.

그들은 미제의 앞잡이로서 반제 전선을 내부로부터 약화시키고 와해시키며 제국주의를 반대하는 투쟁을 하지 못 하도록 각방으로 방해하고 있다. 우리는 일본 군국주의자들의 위선적인 정체를 폭로하고 반제 전선에 대한 그들의 와해 파괴 책동을 걸음마다 폭로 분쇄하여야 한다. 이렇게 하여 일본 군국주의를 국제 무대에서 고립시켜야 하며 반제 전선 대렬에 끼여 들려는 책동을 파탄시켜야 한다.

우리는 일본 군국주의를 반대하는 일본 인민의 투쟁을 적극 지지하여야 한다. 오늘 일본에서는 미제와 그와 결탁한 독점 자본을 반대하는 투쟁이 힘 있게 전개되고 있다. 일본 인민은 《한일 조약》과 《동북 아세아 군사 동맹》 조작 음모를 반대하는 투쟁, 미제의 웰남 침략 전쟁을 반대하는 투쟁, 일본의 핵 기지화와 핵 전쟁 준비를 반대하는 투쟁 등을 광범히 전개하고 있다.

이 투쟁은 독점체들의 착취와 수탈을 반대하며 생활 조건 개선을 위한 투쟁과 밀접히 결부되여 진행되고 있다.

일본 인민의 반미 반 독점 민주주의 운동의 선두에는 일본 로동 계급의 전위 부대인 공산당이 서 있다. 일본 공산당은 로동 계급을 비롯한 농민, 지식인, 청년 학생, 근로 소시민, 중소 기업가 등 각계 각층 인민들을 결속하고 투쟁을 강화하고 있다. 일본 인민의 광범한 민주주의 운동은 일본 군국주의자들이 함부로 날뛸 수 없게 하며 아세아와 세계 평화를 수호하는 데 크게 기여하고 있다.

일본 인민의 민주주의 운동에 대한 국제주의적 련대성을 강화하여야 한다.

일본 민주 운동 대렬의 단결을 약화시키는 어떠한 일도 하여서는 안 된다.

일본 군국주의를 반대하는 투쟁은 비단 일본 인민의 과업으로만 될 수 없다. 일본 군국주의는 일본 인민에게 막대한 불행과 고통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아세아 인민들에게 커다란 재난을 가져오며 세계 평화를 엄중히 위협하게 된다.

일본 군국주의를 반대하는 투쟁은 일본 인민과 함께 아세아와 세계 평화 애호 인민들의 과업으로 된다. 일본 인민과 함께 세계의 모든 혁명 력량과 평화 애호 력량이 단결하여 투쟁한다면 일본 군국주의자들의 침략 기도를 분쇄할 수 있다.

*　　*

오늘 시대는 달라졌다. 우리 시대는 제국주의가 멸망하고 사회주의와 민족해방 혁명이 승리하는 위대한 전환의 시대이다.

사회주의 진영 나라들의 위력은 날로 강화되고 있다. 이것은 현시기 세계 정세 발전의 추세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으로 되고 있다. 식민지 노예의 쇠사슬을 벗어 던진 신생 독립 국가들은 반제 투쟁의 기치 밑에 새 생활을 성과적으로 건설하고 있다. 피압박 민족들의 해방 운동은 계속 거대한 규모로 앙양되고 있다.

미제는 도처에서 타격을 받고 수세에 빠지고 있다.

제국주의 식민지 체제는 걷잡을 수 없이 무너지고 있다. 제국주의자들이 마음 대로 약소 민족들을 침략하고 억압하면 시기는 영원히 지나 갔다.

과거에 제국주의의 후방이였으며 제국주의를 기름지게 하였던 아세아, 아프리카, 라틴 아메리카는 제국주의의 무덤으로 변하고 있다.

미제는 인민들의 혁명 운동의 파도를 가로막아 보려고 온갖 책동을 다하고 있다.

그러나 제국주의자들은 아무리 발악하여도 력사의 수레바퀴를 꺼꾸로 돌릴 수는 없다. 미제를 괴수로 한 제국주의의 종국적 파멸은 불가피하다.

일본 군국주의자들은 이 엄연한 현실을 똑똑히 보아야 한다.

사또 정부는 시대가 달라졌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제국주의가 멸망하고 사회주의가 승리하는 것은 움직일 수 없는 력사 발전의 법칙이다. 력사적 사실들은 제국주의가 강한 것 같이 보이나 반드시 멸망한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다》(김 일성).

인민들은 일본 군국주의의 재침략 책동을 결코 용허하지 않을 것이며 그들에게 더욱 준엄한 심판을 내릴 것이다.

만약 일본 군국주의자들이 력사의 교훈을 망각하고 또다시 감히 침략을 감행 한다면 그것은 자멸을 초래할 것이다.

오늘 사또 정부가 미제에 추종하면서 군국주의의 길로 나가는 것은 일본의 민족적 리익을 완전히 배반하는 것이다.

일본이 나아가야 할 길—그것은 일본 공산당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독립과 민주주의, 평화와 중립의 길이다.

일본은 미제의 예속에서 벗어 나야 하며 미제를 반대하여 나서야 한다.

이것이 일본 인민과 아세아 및 세계 인민의 리익에 부합되는 길이다.

전 사회의 혁명화와 일'군들의 당성, 계급성, 인민성

지도 일'군들의 당성, 계급성, 인민성 제고는 전 사회 혁명화의 중심 문제이다

최근 년간 우리 당은 혁명 발전, 사회주의 건설 발전의 요구로부터 출발하여 전 사회를 혁명화할 데 대한 방침을 제시하면서 특히 간부들의 당성, 계급성, 인민성을 높이는 문제를 첫자리에 놓고 있다.

사회주의 건설이 심화 발전되고 있으며 내외의 정세가 매우 긴장되여 있는 우리 혁명 발전의 현 단계에서 전 사회를 혁명화하는 것은 합법칙적인 요구로서 제기되고 있다. 새로운 임무, 새 과업을 제기할 때마다 사상 사업, 사상 혁명을 선행시키는 것은 우리 당의 일관한 방침이다.

전 사회의 혁명화, 이것은 중요하게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에서의 근로자 대중과 그들의 의식성의 역할에 관한 맑스-레닌주의적 견지로부터 그리고 또 계속 혁명의 립장으로부터 출발하고 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경제 문화의 발전이 결국 자본가들의 리윤욕에 의하여 추동된다면 우리 사회 발전의 원동력은 레닌이 가르친 바와 같이 오직 근로 대중의 의식성이다. 생산 수단과 주권이 인민의 손에 있는 조건 하에서 국가와 인민의 복리를 위해 사회주의, 공산주의 위업에 헌신하려는 근로자들의 혁명적 의식 이외에 《우리가 의거하여야 할 힘의 최후의 원천》이란 있을 수 없다. 사회주의 하에서 사람들에게 자기 로동에 대한 개인적인 물질적 관심이 있는 한 그것을 무시하고 사회주의를 건설할 수는 없다. 그것은 반드시 국가와 사회의 리익에 부합되게 충족되여야 하며 적극적으로 리용되여야 한다. 그러나 그것이 힘의 최후의 원천으로, 사회주의 사회 발전을 추동하는 원동력으로 될 수 없다는 것은 명백하다. 우리가 진실로 공산주의를 향하여 나가자고 한다면 바로 매개 근로자들이 다 의식적인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자로 되게 하는 데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사회주의 건설이 참으로 근로자들 자신의 사업으로, 그들의 의식적이고 자각적인 사업으로 되게 하자면 비단 당원들 뿐만 아니라, 로동자들 뿐만 아니라 모든 근로자들이 국가와 사회를 위하여, 전체 인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일하려는 공산주의적 의식을 가지게 하며 점점 더 높이게 하는 방향에서 사람들을 교양하고 훈련하는 이외에 길은 없는 것이다.

우리는 물론 부단히 과학 기술을 발전시키고 로동 생산 능률을 제고함으로써만 사회주의 건설의 완성에로, 공산주의에로 접근할 수 있다. 그런데 경험은 김 일성 동지가 교시한 바와 같이 《로동 생산 능률을 높이는 데 있어서 결정적 의의를 가지는 것은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자신의 행복을 위하여 자기의 온갖 정력과 지혜를 다 바쳐 싸우려는 로동자들의

고상한 사상›이라는 것을 보여 주고 있다. 오늘날 생산을 정상화하고 절약 투쟁을 강화하며 사회적 로동 생산 능률을 제고하여 나라의 살림살이를 알뜰하게 꾸리고 인민 생활을 향상시킬 데 대한 과업도 구경은 모든 일'군들과 근로자들의 애국적, 혁명적 사상에 의해서만 성과적으로 해결될 수 있다.

전 사회를 혁명화하며 모든 근로자들을 혁명가로 만들자는 이것은 우리 당의 철저한 군중 로선의 표현이며 힘의 최후의 원천에 관하여, 혁명적 의식의 역할에 관하여 레닌이 가르친 바 그 길을 따라 나가는 것을 의미한다.

전 사회를 혁명화하는 것은 또한 계속 혁명의 견지에서도 필수적인 요구로 된다. 우리 당 창건 20 주년 경축 보고에서 천명된 바와 같이 우리는 지금 혁명 도상에 있으며 우리의 앞길은 아직도 멀다. 그런데 우리가 조국을 통일하고 전 조선에서 공산주의를 실현할 때까지, 세계 혁명이 승리할 때까지 지도 일'군들, 당원들만이 혁명가로서 투쟁한다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다. 전체 근로자들이 다 혁명가로서 자각적으로 투쟁하게 되여야 하며 그렇게 되면 될수록 종국적 승리는 앞당겨질 것이다.

전체 근로자들을 혁명적 사상으로 무장시키는 것은 물론 그들을 공산주의 사회에 적응한 전면적으로 발전된 새 형의 인간으로 육성하는 길로도 되며 사회주의 혁명의 필수적인 구성 부분으로 된다.

김 일성 동지는 혁명적 사상으로 사람들을 교양할 데 대하여 말씀하면서 다음과 같이 교시하였다:

‹당 조직들은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몇 푼의 돈을 위하여서가 아니라 당과 인민을 위하여, 조국의 통일과 세계 혁명을 위하여 투쟁한다는 고상한 혁명 정신으로 교양하여야 한다. 그리하여 모두가 다 높은 당성과 계급성, 인민성을 발휘하도록 하여야 하겠다›.

현 시기 전 사회를 혁명화함에 있어서 중심 문제는 지도 일'군들의 혁명화 즉 그들의 당성, 계급성, 인민성을 제고하는 것이다. 이것은 무엇보다도 당면한 제반 과업 해결에서 지도 간부들이 놀아야 할 역할에 의하여 설명된다.

당은 우리 혁명 발전의 현 단계에서 조성된 긴장된 내외 정세 하에서 전체 근로자들의 혁명 의식을 더한층 제고함으로써 제기된 혁명 과업들을 훌륭히 수행하자고 하는바 첫째로 생산자 대중을 교양하고 혁명화하는 사업도 지도 일'군들의 책임에 속하는 문제이며 다음으로 당 정책 관철에 대한 조직 지도 사업을 개선하는 문제도 전'적으로 간부들의 역할에 달려 있다.

력사적인 7 개년 계획의 중요한 고비에 들어 서는 오늘 우리의 정세는 매우 심각하며 고도로 긴장되여 있다. 미 제국주의는 지금 웰남 인민을 반대하는 파렴치한 침략 전쟁을 확대하며 자주적 발전의 길로 나아가는 기타 인민들에게도 침공의 마수를 뻗치려 하면서 일본 군국주의를 재생시켜 극동에 새 전쟁의 온상을 마련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일제의 남조선 재침의 길을 열어 주고 있다. 미 일 반동들의 움직임은 우리 인민에게 최대의 경각성과 해당한 대책을 요구한다. 우리는 만일의 경우에 대한 준비 없이 있을 수 없으며 그렇다고 해서 평화적 건설을 줄일 수도 없는 것이다.

나머지 기간을 최대한으로 리용하여 7 개년 계획을 성과적으로 수행하는 것은 오늘날의 절박한 임무이다. 지금까지 우리는 실로 많은 것을 건설하여 놓았는데 경험은 건설 그 자체보다도 건설의 성과를 잘 리용하며 그것이 완전히 은을 내게 하는 것이 더 어렵다는 것을 보여 주고 있다. 이리하

여 오늘 우리 당과 인민 앞에는 이미 축성하여 놓은 자립적 경제의 밑천을 남김 없이 리용하며 나라 살림살이를 알뜰하게 꾸리여 인민 생활을 응당한 수준에로 끌어 올리며 생산의 발전을 한층더 촉진해야 할 과업들이 나서 있다. 이 과업들을 원만히 해결하고 7 개년 계획의 높은 고지를 점령함으로써만 우리는 앞으로의 새로운 비약을 이룩할 수 있다.

이에 있어서 우선 결정적으로 중요한 것은 인민 경제에서 일체 랑비를 근절하고 내부 예비를 최대한으로 적발 동원하는 것이다.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절약의 의의는 그 어느 때보다도 크다. 이것은 전체 생산자 대중이 자각적으로 발동됨으로써만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이다. 이것은 생산자 대중의 계급적 각성, 나라의 주인된 자각과 애국주의 정신을 결정적으로 높일 것을 요구하는바 대중을 교양할 책임은 바로 지도 일'군들에게 있으며 대중을 교양하자면 우선 간부들 자신이 수양을 높여야 한다.

이리 하여 오늘 지도 일'군들의 사상 수준, 그들의 당성, 계급성, 인민성을 높이는 것은 전체 군중을 혁명화하고 그들로 하여금 당 정책 관철에서 더 높은 계급적 각성과 애국적 헌신성을 발휘하게 하는 데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간부들은 정치적, 실무적 표징에 의하여 근로자들 속에서 선발된 지휘 성원들이며 그들의 혁명적 사상, 그들의 당성, 계급성, 인민성은 언제나 군중을 교양하고 혁명화하며 그들을 고무 추동하는 거대한 힘으로 된다.

지도 일'군들은 당원들을 교양하고 당원들은 군중을 교양하며 한 사람이 열 사람을 깨우쳐 주고 열 사람이 백 사람을 가르쳐 주며 백 사람이 만 사람을 이끌고 나가도록 하는 것은 군중 로선에 기초한 우리 당의 교양 방침이다. 이리 하여 간부들의 당성과 계급성, 인민성을 높이는 것은 우선 군중을 혁명화하는 데 있어서 커다란 의의를 가진다.

현시기 지도 일'군들의 당성, 계급성, 인민성을 제고하는 것이 가지는 보다 중요한 의의는 직접적으로 혁명 과업 수행에 대한 조직 지도 사업에서 그들의 책임성을 높이게 하는 거기에 있다.

우리가 이미 조성해 놓은 생산력의 제 요인을 가장 합리적으로 리용하며 나라 살림살이를 과학적으로 짜고 들어 생산에서 뿐만 아니라 재생산 과정의 모든 환절들에서 랑비를 없애고 최대한의 예비를 얻어 내는 그러한 조직 지도 사업이 오늘날 생산력의 발전과 인민 생활의 향상을 위하여, 7 개년 계획의 성과적 수행을 위하여 관건적 의의를 가지는데 이것은 무엇보다도 지도 관리 일'군들의 역할에 관한 문제이다.

우리 제도 하에서는 모든 근로자들이 다 나라와 생산 수단의 주인답게 국가와 경제를 관리하며 나라 살림살이를 꾸리는 데 자각적으로 참가하게 되여야 한다. 이것은 사회주의 단계에서 간부들의 역할, 조직 지도 사업의 의의를 조금도 감소시키지 않는다. 사회주의 국가는 그가 해결하여야 할 력사적 과업을 완수할 때까지 부단히 그 기능을 발전시켜야 하는바 이것은 사실 상 지도 간부들의 역할을 높이는 것을 통해서만 해결되는 문제이다.

김 일성 동지가 말씀한 바와 같이 국가 경제 기관 일'군들은 당의 전사이며 로동 계급의 선봉이며 인민의 충복이다. 그들은 당과 인민의 두터운 신임으로 하여 사회주의 건설에 대한 조직 지도 사업의 무거운 책임을 지니고 있다. 지도 일'군들이 당의 전사로서, 계급의

선봉으로서, 인민의 충복으로서 이 책임을 원만히 수행하느냐 못하느냐 하는 것은 첫째로 그들의 혁명성, 그들의 당성, 계급성, 인민성 여하에 달려 있다. 참말로 당성, 계급성, 인민성이 높다고 하면 실무 능력이나 사업 방법은 얼마든지 발전시킬 수 있는 것이며 이리 하여 당의 로선과 정책을 관철하는 데서 해결하지 못할 문제란 거의 없을 것이다.

지휘 성원들의 당성, 계급성, 인민성은 사회주의 건설, 혁명 발전을 위한 거대한 추동력이다. 사회주의 건설에 대한 지도 관리가 점점 더 높은 책임성과 사업 수준을 요구하게 되면 될수록 더욱 그러하다.

현시기 긴장된 내외 정세 하에서 나라의 살림살이를 잘 꾸리여 생산을 정상화하고 인민 생활을 더욱 향상시키며 새로운 비약을 준비함에 있어서 우리 당이 일'군들의 당성, 계급성, 인민성을 높이는 문제에 결정적 의의를 부여하는 가장 중요한 리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사회주의 건설에 엄중한 해독을 끼칠 수 있는 형식주의, 관료주의 등 낡은 사회의 사상 잔재에 근원을 둔 질환들은 오직 일'군들의 당성, 계급성, 인민성이 높아지는 데 따라서만 퇴치될 수 있다. 사람들이 사회주의 단계에서는 낡은 사상 잔재로부터 완전히 해방되지 못하는 만큼 지도 관리 사업에서 형식주의, 관료주의가 발로되는 것은 피하기 어려운 현상이다. 문제는 이것을 반대하여 어떻게 투쟁하는가 하는 데 있다. 그것을 뿌리채 청산하지 않고서는 그 해독성을 막아 낼 수 없다. 그것은 그 뿌리로 되는 부르죠아적 의식 대신 혁명적 군중 관점으로, 당성으로 사람들을 무장시킴으로써만 청산할 수 있는 것이다. 지도 일'군들의 당성, 계급성, 인민성을 제고하는 것은 그들의 사업에서 형식주의, 관료주의 등등 질병을 퇴치하게 함으로써 사회주의 건설을 크게 추동하게 된다.

우리의 많은 지도 일'군들은 과거 일제 통치 하에서 대중을 쟁취하며 주권을 전취하기 위한 투쟁 환경에서 단련되지 못하였다. 우리 당은 창건되자마자 집권당으로 되였다. 이러한 사정은 우리 일'군들 속에 관료주의적, 형식주의적 작풍이 적지 않게 남아 있을 수 있게 하였다. 그러니 만큼 그들에게 있어서 당성, 계급성, 인민성을 높이는 것은 더욱 긴절한 문제로 된다.

간부들을 당성, 계급성, 인민성으로 튼튼히 무장시키는 것은 혁명의 전망, 계속 혁명의 견지에서도 중요한 문제로 된다.

일반적으로 혁명이 장기화하고 또 사회주의 건설이 진척되면 될수록 일'군들 속에서 권태증과 안일성이 조성될 수 있다는 것은 우리에게 있어서도 결코 례외로 되지 않는다. 이것은 우리의 많은 일'군들이 일제가 적 치하에서의 간고한 혁명 투쟁의 시련을 겪지 못했다는 그 사실을 고려할 때 더욱 그러하다. 또한 우리의 간부 대렬에서도 세대는 교체되고 있으며 이리 하여 남북 통일의 문이 열리게 될 때 착취 제도조차 체험하지 못한 일'군들이 반동들과 맞서게 될 수 있다. 통일된 후에는 남조선에서 혁명을 추진시키고 사회주의를 건설하기 위해서도 준비된 간부들이 더 많이 요구될 것이다.

이상과 같은 사정들이 현시기 지도 일'군들의 당성, 계급성, 인민성을 높이는 것을 긴절한 문제로, 전체 근로자들을 혁명화하는 데서의 중심 문제로 되게 한다.

일'군들의 당성, 계급성, 인민성과 사업 기풍, 작풍 및 방법

사람들의 당성, 계급성, 인민성은 그들의 혁명적 사상을 원천으로 한다. 우리는 항상 당성, 계급성, 인민성의 통일에 대하여 말하는데 이 세 가지는 바로 로동 계급의 혁명적 사상에 의하여 통일되여 있다.

로동 계급의 력사적 사명에 대한 자각과 이의 실현을 위하여 투쟁하려는 혁명적 의지—여기로부터 계급에 대한 충실성 즉 계급성이 흘러 나온다. 우리의 계급성, 이것은 필연적으로 인민성을 예상한다. 왜냐 하면 로동 계급의 력사적 사명에 대한 자각과 이를 위하여 헌신하려는 의지는 로동 계급의 해방을 떠나서 인민의 해방이 있을 수 없고 인민의 해방이 없이는 로동 계급의 해방도 있을 수 없다는 데 대한 인식과 근로 인민에 대한 진정한 인도주의적 사랑을 전제로 하기 때문이다. 우리가 진정으로 로동 계급을 사랑하고 그의 해방, 그의 복리를 위해 투쟁하려고 할 때 인민 대중을 사랑하고 그들의 해방, 그들의 복리를 위해 투쟁하게 되는 것은 자연스럽고 필연적인 일이다. 그러므로 공산주의자들에게 있어서 계급성은 인민성과 불가분적으로 련결되여 있다. 또 공산주의자들에게 있어서 인민성은 계급성을 전제로 하는 것이며 계급성을 떠난 인민성이란 있을 수 없다. 그것은 로동 계급의 리익과 령도적 지위를 고수하는 것을 떠나서는 인민의 해방도, 복리도 실현될 수 없기 때문이다. 과거의 어떤 계급의 계급성, 어떤 계층의 인민성도 로동 계급과 공산주의자들의 계급성, 인민성과는 같지 않았다. 착취자들의 계급성이 인민성을 내포할 수 없다는 것은 더 말할 필요도 없거니와 선진적 계급과 계층들에서 보는 인민성도 전체 피압박 계급의 해방의 사상과 결부되지 못한 제한성을 가지고 있었다.

인민성까지도 내포하는 우리의 계급성의 최고 형태—이것이 곧 우리의 당성이다. 《당성이 있으면 계급성이 있고 또 계급성이 있어야 인민성이 있는 것이다》(김 일성). 당성이 높은 사람 즉 당에 대하여 무한히 충실한 사람은 로동 계급과 전체 인민에 대하여 무한히 충실한 사람이며 그들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그들을 위해 복무하는 사람이다. 당성이란 그 목적, 그 내용으로 보아 로동 계급을 비롯한 전체 인민에 대한 사랑과 그들의 리익을 위해 투쟁하려는 의지로부터 흘려 나오는, 당에 대한 충실성이다. 자기 자신과 자기 기관의 공명을 위한 《당에 대한 충실성》—이러한 것은 사실상 당성이 아니며 당의 리익, 계급과 인민의 리익에 배치되는 것이다.

현시기에 있어서 특히 강조하여야 할 것은 인민성을 떠난 당성, 계급성이 있을 수 없다는 그것이다. 공산주의의 종국적 목적은 로동 계급을 포함한 전체 인민의 해방과 행복한 생활에 있으며 전 인류의 해방에 있다. 이것이 바로 로동 계급의 력사적 사명이다. 그러므로 로동 계급의 당에 있어서 그 활동의 최고 원칙은 인민의 복리 증진에 있는 것이며 당원들과 공산주의자들에 있어서 인민의 리익과 배치되거나 인민의 리익을 돌보지 않는 그러한 계급성, 당성이 있을 수 없는 것이다.

우리는 항일 빨찌산들에게 있어서 인민에 대한 육친적인 사랑과 그들의 리

익에 대한 무한한 충실성이 동시에 높은 당성과 계급성의 표현이였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치렬하고 간고한 대적 투쟁의 환경에서도 바로 그러하였다. 오늘 사회주의 건설의 시대에 있어서 우리의 당성, 계급성은 무엇보다도 경제, 문화 건설의 모든 사업에서 인민의 복리를 증진시키며 그들의 생활을 향상시키는 결과를 가져 와야 한다. 인민 생활이야 어떻게 되건 말건 계획이나 하면 되는 것으로 생각하며 인민의 요구와 형편을 무시하면서 《당에 충실하게》 그 무엇을 하자고 한다면 여기에는 아무런 당성도 계급성도 없는 것이다.

이상과 같이 당성, 계급성, 인민성은 유일한, 로동 계급의 세계사적 사명에 대한 자각과 이를 위해 투쟁하려는 의지의 각이한 표현들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당성, 계급성, 인민성을 제고하는 길은 바로 로동 계급의 혁명적 사상, 로동 계급의 세계관, 로동 계급의 력사적 사명에 대한 자각으로 무장하는 것이다. 구체적 실제적으로는 당 생활, 사상 투쟁을 통한 단련이며 당 정책 관철을 위한 실지 사업과 투쟁을 통한 단련이며 학습과 사상 수양을 통한 단련이다.

로동 계급의 사상, 세계관, 그 력사적 사명에 대한 자각이란 단순한 지식이 아니며 인식이 아니다. 그것은 인식과 의지의 결합이며 통일이다. 그러므로 문제는 로동 계급의 력사적 사명에 대하여 맑스-레닌주의가 가르치는 바를 단순히 아는 데 있는 것이 아니다. 중요한 것은 이에 대한 인식이 이를 위해 투쟁하려는 의지, 로동 계급과 근로 인민에 대한 사랑의 감정과 결합되는 거기에 있다. 이 감정, 이 의지가 행동에서, 사업과 생활에서 리기주의적, 자기 본위주의적 감정과 의지를 극복하는 정도에 따라서만 사람들의 당성, 계급성, 인민성은 높아지는 것이다. 우리의 사상 단련, 당성 단련은 요컨대 부르죠아, 소부르죠아적인 개인주의적 심리와 의지를 극복하고 계급과 인민을 생각하며 조국을 사랑하고 이를 위하여 자기의 모든 것을 바쳐 일하며 싸우려는 심리와 의지로 무장하는 데 있다.

일'군들의 혁명적 사상, 그들의 당성과 계급성, 인민성은 결국에 가서 지도 관리 사업에서의 성과 또는 실천적 결과에서 표현되며 그것으로 평가된다. 그런데 사람들의 사상, 그들의 당성, 계급성, 인민성은 반드시 실천 행정에서의 일정한 사업 기풍, 사업 방법 및 작풍을 규정하게 되며 이 기풍, 작풍, 방법 여하에 따라 사업 성과가 크게 좌우되는 것이다. 일'군들의 철저한 혁명적 사상, 그들의 높은 당성, 계급성, 인민성으로부터는 혁명가적 기풍, 인민적 사업 작풍, 과학적인 사업 방법이 흘러 나오며 비혁명적인 낡은 사상 잔재가 농후하고 당성이 높지 못할 때에는 형식주의, 관료주의 등 그릇된 사업 기풍, 작풍, 방법이 불가피하다.

사람들의 사업 및 생활 기풍, 사업 방법과 작풍은 물론 고정 불변한 것이 아니다. 혁명 과정에서 사람들의 사상이 개조되고 혁명적 사상이 확고해지며 당성, 계급성, 인민성이 제고됨에 따라 사업 및 생활 기풍, 사업 방법과 작풍도 부단히 개선되며 발전한다. 이리 하여 우리는 로동 계급의 혁명적 사상으로 튼튼히 무장하고 높은 당성과 계급성, 인민성을 소유하게 됨에 따라, 낡은 사상 잔재에 뿌리를 가진 형식주의적, 관료주의적 사업 기풍, 작풍, 주관주의적 사업 태도, 수공업적 사업 방법 등등을 청산하고 혁명가적 기풍, 과학적이며 혁명적인 사업 방법 및 인민적 작풍

을 확고히 수립할 수 있다. 이것은 실지 사업에서 당성을 발휘하여 훌륭한 성과를 가져 오게 하는 중요한 담보로 된다.

일반적으로 사회주의 건설 시기에 있어서 특히는 사회주의 건설이 고도로 심화 발전되고 있는 현시기에 있어서 일'군들의 당성, 계급성, 인민성은 《혁명적으로》 사업하고 생활하는 기풍, 작풍에서 표현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그것만으로는 사회주의 건설에 대한 지도 관리, 나라 살림살이에 대한 처리를 원만히 보장할 수 없다. 오늘날 일'군들의 당성, 계급성, 인민성은 반드시 법칙에 맞게 경제를 과학적으로 관리 운영하며 인민의 요구에 맞게 합리적으로 사업을 조직하는 기풍과 방법에서 중요하게 표현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사업을 진지하게 연구하고 필요한 지식과 자료를 얻기 위해 꾸준히 노력하며 자기 단위 사업에 정통하는 그러한 기풍에서 표현되여야 한다.

현시기 일'군들의 혁명가적 기풍을 확립함에 있어서 주요한 문제들

일'군들의 당성, 계급성, 인민성이 높아지면 그것은 사업과 생활에서 혁명가적 기풍과 혁명적, 과학적 사업 방법 및 군중적 작풍을 확고히 수립하게끔 되여야 하며 이것은 또한 현시기 당이 해결하자고 하는 가장 중요한 문제인 나라 살림살이를 알뜰히 꾸리는 데서 집중적으로 나타나야 한다.

현시기 일'군들의 혁명가적 기풍과 혁명적 사업 방법 및 인민적 작풍을 확립함에 있어서 제기되는 중심 문제들은 당 정책을 무조건, 끝까지 관철하며, 일을 실속 있게 책임적으로, 과학적으로 하며, 군중에 철저히 의거하여 사업하며, 항상 긴장되고 동원된 태세를 견지하고 계속 투쟁하고 전진하며, 일하면서 배우고 배우면서 일하는 기풍을 확립하는 것이다.

당 정책을 무조건, 끝까지 관철하는 것은 당원들, 공산주의 혁명 투사들에 있어서 첫째 가는 가장 중요한 사업 기풍이다.

우리 당은 조선 혁명의 참모부이며 조선 인민의 지도적 및 향도적 력량이다. 당이 제시하는 로선과 정책은 조선 인민이 나아갈 유일하게 정당한 길이다. 당의 로선과 정책을 관철함이 없이는 우리 나라에서 사회주의, 공산주의의 승리가 있을 수 없고 인민의 자유와 행복이 있을 수 없다. 그러므로 당에 충실하고 로동 계급과 인민 대중을 위해, 사회주의, 공산주의 위업을 위해 복무하려는 사상이 있고 계급적 각성이 있을 때 무엇보다도 당의 로선과 정책을 옹호하며 무조건 지지하며 끝까지 관철하는 데 관심을 집중하고 모든 힘과 지혜와 정력을 기울이게 되는 것은 필연적인 일이다. 당 정책을 옹호하고 관철하려는 혁명가적 기풍은 일'군들과 근로자들의 당성, 계급성, 인민성, 그들의 혁명적 사상의 첫째 가는 징표로 된다. 당 정책에 걸서 대하며 그것이 잘 관철되지 않을 때 아파할 줄 모르며 당이 제기한 과업을 해결하기 위하여 진지하게 연구하고 아득바득 애쓰는 기풍이 없이는 당성에 대하여 말할 수 없으며 로동 계급의 사상에 대하여 말할 수 없다.

당 정책을 끝까지 관철하는 혁명가적 기풍은 어떠한 난관 앞에서도 굴하지 않으며 일신의 안일과 리해를 돌보지 않고 필요한 경우에는 생명을 바치는

것도 서슴지 않는 고도의 강의성과 불굴의 투쟁 정신을 전제로 한다. 이것이 부족하다면 주관적으로는 아무리 당에 충실하고 혁명을 위해 이바지하려 한다 하여도 당의 로선과 정책들을 끝까지 관철하는 혁명가적 기풍을 견지하지 못할 것이다.

당의 정책을 무조건 옹호하고 철저히 관철하는 기풍은 국가의 법과 규정들을 존엄성 있게 대하며 그것을 잘 준수하는 태도와 떼여서 생각할 수 없다. 국가는 당의 로선과 정책을 집행하는 혁명의 무기이며 그의 법과 규정들은—인민 경제 계획도 포함하여—당 정책의 법률적 표현이며 로동 계급의 의지와 인민의 념원의 반영이다. 그러므로 혁명을 위하여, 당과 인민을 위하여 싸우는 투사라면 누구를 막론하고 국가의 법과 규정들의 권위를 존중하고 그것을 모범적으로 준수하는 기풍을 소유하여야 한다.

당의 로선과 정책은, 매개 일'군들이 자기가 맡은 사업을 실속 있게 책임적으로 하는 기풍, 다시 말하면 맡겨진 과업의 집행을 완전히 책임지는 립장에서 세밀하게 연구하고 과학적으로 조직하고 지도하는 기풍이 확고할 때에라야만 철저히 관철될 수 있다.. 이것은 현 시기 일'군들의 지도 관리 사업에서 가장 중요한 요구로 된다.

일을 실속 있게 하는가 못 하는가 하는 것은 무엇보다도 우선 사상 문제이다. 당과 혁명으로부터 위임 받은 과업을 진정 자기 일로 접수하고 이를 철저하게 책임적으로 수행하려는 사상이 있어야만 당 정책을 신중하게 연구하고 그것을 관철하기 위하여 머리를 쓰게 되며 모든 조건들을 구체적으로 타산하고 사업을 실속 있게 조직하는 기풍이 서게 될 것이다.

자기 사업에 대한 깊은 연구 없이 보통 하는 대로 틀에 맞추어 일을 처리하며 일을 벌여 놓고는 총화하고 결속 지을 줄 모르며 일이 되여도 그만 안 되여도 그만 애타할 줄 모르며 걸치레나 하고 허풍치기를 좋아하는 형식주의적 기풍은 당성과는 하등의 인연도 없는 것이며 혁명 위업에 해독만을 끼칠 수 있다. 이런 사업 기풍 또는 작풍이 지배하는 데서는 사업 능력을 제고하려는 욕망도 노력도 있을 수 없다.

일을 실속 있게 하는가 못 하는가 하는 것은 또한 자질에도 관계되는 문제이다. 일'군들은 흔히 주관적으로 당에 충실하자고 하지만 일을 과학적으로 실속 있게 할 수 있는 자질이 부족한 데로부터 당 정책 관철에서 성과를 거두지 못할 뿐만 아니라 때로는 당의 의도와 배치되는 주관주의적 오유를 범하는 수도 적지 않다.

지도 관리 사업에서의 높은 책임성과 구체성, 일을 실속 있게 하는 기풍은 당과 혁명에 대한 충실성, 로동 계급의 위업에 대한 헌신성, 계급적 각성의 중요한 표징이다. 로동 계급의 력사적 사명을 위해 끝까지 투쟁하려는 확고한 사상을 소유한 사람들만이 진정으로 당 정책의 관철 여부와 나라의 살림살이와 인민의 생활에 대하여 애타하고 아파할 줄 알며 따지고 계산하며 법칙에 맞고 객관적 현실에 맞게 사업을 조직 지도하는 기풍과 자질을 소유하게 될 것이다.

일'군들의 사업 기풍에서 또한 중요한 것은 철저하게 군중에 의거하여 사업하는 것이다.

사회주의, 공산주의 위업에서 지도 일'군들의 역할이 아무리 중요하다 할지라도 실지에 당의 로선과 정책을 현실로 전변시키는 것은 근로자 대중이며 그 목적도 바로 그들의 복리를 증진시키

는 데 있다. 당과 지도 일'군들의 모든 지혜와 힘의 근본 원천은 대중에 있다. 혁명적 군중 관점은 로동 계급의 사상의 불가결의 부분이다.

그러므로 진실로 로동 계급의 사상을 소유하고 당과 혁명을 위해 일하려는 사람이라면 군중을 무시하고 군중에 대하여 거만하며 자기만이 총명한 체 하는 그러한 기풍, 작풍이 있을 수 없다. 군중을 믿고 그들에게서 배우며 그들에 의거하여 사업하는 기풍은 높은 당성, 계급성, 인민성의 뚜렷한 표징의 하나이다. 김 일성 동지는 《…매개 당원들의 당성은 군중 관점에서 모든 사업을 조직 집행하는 것으로써 표현되여야 한다》(김 일성 선집 제 4 권, 240 페지)고 말씀하였다.

군중 속에 들어 가 사업할 대신에 사무실에 앉아 문서놀음과 잡다한 회의로 시간을 보내며, 모든 사업에 정치 사업을 선행시킬 대신에 군중을 명령하고 호령하며, 군중의 무궁무진한 힘과 지혜에 의거할 대신에 개인의 소총명을 앞세우는 등의 관료주의, 명령주의, 《행정》 만능, 《기술》 만능의 사업 태도, 사업 작풍은 당성, 계급성, 인민성과 아무런 인연도 없다.

당의 힘, 로동당원의 힘은 광범한 군중을 당 주위에 단결시키고 그들에게 철저히 의거하여 사업하는 데 있다. 우리 당이 지난날, 국내외의 계급적 원쑤들을 타승하고 자연과 사회를 개조하여 오늘과 같은 위대한 승리를 달성한 비결도 바로 여기에 있다.

일'군들이 우리 당의 혁명적 사업 방법인 청산리 방법을 체득한다는 것은 그들의 당성, 계급성, 인민성이 사업 방법, 사업 작풍에 구현되는 것을 의미한다. 당성, 계급성, 인민성을 높이고 군중 관점으로 철저히 무장할 때라야 청산리 방법의 요구 대로 항상 군중 속에 들어 가 정치 사업을 선행시키며 군중을 가르치는 동시에 그들에게서 배우면서 사업을 지도하는 기풍을 확립할 수 있다.

공산주의자들은 언제나 부단 혁명의 립장에 서 있다. 우리 일'군들은 이미 얻은 승리에 자만함이 없이 항상 긴장되고 동원된 태세를 견지하며 계속 투쟁하고 전진하는 기풍을 확립하여야 한다.

계속 투쟁하고 전진하는 기풍은 로동 계급의 혁명 사상의 중요한 표징이다. 권태증과 안일성, 이것은 혁명에서 물러 서는 것을 의미하며 부르죠아, 소부르죠아 사상의 발현을 의미한다.

우리의 혁명은 간고하며 앞으로도 오래도록 간고할 것이다. 더우기 현 정치 정세는 추호의 안일성도 허용하지 않는다. 언제나 검박하게 생활하며 최후 승리까지 계속 긴장되게 투쟁하며 전진하는 것이 필요한바 이러한 혁명적 기풍은 오직 우리들의 사상적 무장이 철저하고 로동 계급적 세계관이 확고할 때라야만 소유할 수 있고 견지할 수 있다.

자기 생애의 마지막까지 일하면서 배우고, 배우면서 일하는 기풍은 공산주의 투사들에게 고유한 특징이다. 우리 일'군들이 이러한 기풍을 확립하는 것은 현 시기에 특히 중요한 문제의 하나로 된다.

일찌기 레닌은 《혁명에 리성적으로, 의식적으로, 성과적으로 참가하기 위해서는 배워야 한다》(레닌 전집 제 26 권, 414 페지)고 강조하였다. 우리가 공산주의자로, 혁명가로 되기 위해서는 우선 혁명적 사상으로, 맑스-레닌주의 세계관으로 철저하게 무장하여야 하는데 이것은 오직 부단한 학습과 실천 투쟁을 통해서만 이룩할 수 있고 공고화될 수 있다. 공산주의자들이 부단히 학습하여야 하는 것은 또한 자기의 정치 리론적, 실무적 자질을 높이기 위해서도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사회주의 건설이 진척

되면 될수록 우리들에게 얼마나 많은 지식이 요구되며 얼마나 높은 자질이 요구되는가 하는 것은 생활이 이것을 웅변으로 말해 주고 있다.

일'군들이 비록 사상적으로 준비되여 있다 할지라도 지식이 부족하고 능력이 부족할 때에는 본의 아니게도 주관주의, 형식주의를 범하지 않을 수 없다. 또 확고한 정치적 식견이 부족하고 혁명 발전, 경제 발전의 법칙에 기초하여 자립적으로 사물을 판단하는 능력이 부족할 때에는 당의 의도, 당 정책의 본질적 요구를 옳바로 받아 물지 못 하고 이것을 강조하면 이리로 쏠리고 저것을 강조하면 저리에 쏠리는 그런 현상을 초래할 수 있다.

권태를 모르고 꾸준히 학습하여 세계관을 확립하며 지식과 능력을 제고하는 것은 물론 용이한 일이 아니다. 오직 숭고한 혁명적 사상, 당과 인민에게 충실하려는 계급적 각성만이 사람들로 하여금 모든 애로와 곤난에도 불구하고 꾸준히 학습하여 혁명을 위해 자기의 자질을 높이게끔 한다.

우리들에게 있어서 계급과 인민에 대한 복무와 자신의 발전 및 완성은 전'적으로 일치한다. 맑스는 일찌기 사람이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에 대하여 말하면서 다음과 같이 썼다: <…중요한 지침으로 되여야 할 것은 인류의 행복과 우리 자신의 완성이다. …인간의 본성이란 그 인간이 자기 동시대인들의 완성을 위하여, 그들의 행복을 위하여 일할 때에만 자기 완성을 달성할 수 있게 되여 있다>(<공산주의자의 품성> 로동당 출판사, 1965, 83 페지). 우리 사회에서 이것은 그 누구에게나 전'적으로 해당된다.

오늘 일'군들이 학습하지 않고서는 혁명에 적극적으로 효과적으로 참가할 수 없으며 당성, 계급성, 인민성을 충분히 발휘할 수 없다. 혁명하는 사람에게 있어서는 학습하는 시간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일하면서 배우며 배우면서 일하는 기풍을 수립하여야 한다.

* *

우리 당은 조선 혁명의 승리적인 수행을 위하여 언제나 우리 나라의 실정과 맑스-레닌주의 원칙에 기초한 자체의 신념으로부터 독자적인 정책과 방침들을 제시하고 있다. 전 사회를 혁명화하며 특히 지도 일'군들의 당성, 계급성, 인민성을 제고할 데 대한 방침도 바로 그러한 방침들 중의 하나이다.

우리 당원들과 지도 일'군들은 여기에 담긴 당의 의도와 그 객관적 근거, 그 정당성을 깊이 체득함으로써 이 방침을 철저히 관철하여야 할 것이다. 이를 관철하는 것은 오늘날 나라의 살림살이를 알뜰하게 짜고 들어 따지고 계산하여 절약 증산의 예비를 최대한으로 찾아 내며 인민의 생활 수준을 눈에 띄게 향상시키는 데서 구체적으로 표현되여야 한다.

생산의 정상화는 사회주의 공업 발전의 중요 예비

손 경 준

(1)

오늘 인민 경제에 대한 관리 운영을 과학적으로 조직하여 생산을 확고하게 정상화하는 것은 사회주의 공업 발전을 가일층 추진하는 데서 가장 중요한 예비로 된다.

생산을 정상화한다는 것은 있는 설비를 효과적으로 리용하며 그 능력을 최대한으로 발휘시킴으로써 국가의 생산 계획 과제를 분기 별, 월별, 일별로 어김없이 수행하며 생산을 계통적으로 장성시킨다는 것을 의미한다. 생산을 정상화하는가 못 하는가 하는 문제는 결국 전 사회적 규모에서 체화 로동과 산 로동을 합리적으로 리용하는가 못 하는가, 나라의 살림살이를 알뜰히 꾸려 나가는가 못 나가는가 하는 것과 관련되는 중요한 문제이다.

지난 기간 당의 현명한 령도 밑에 우리 인민들은 돈전을 아껴 가면서 장차 나라의 사회주의 건설을 가일층 추진하며 생활을 보다 향상시킬 수 있는 튼튼한 밑천을 마련하여 놓았다.

우리 나라에는 야금, 기계, 화학 공업을 비롯한 강력한 기간적 중공업 기지가 축성되였으며 경공업 기지도 튼튼히 꾸려졌다. 1965년에 국영 기업소 수는 전쟁 전에 비하여 약 4 배로 장성하였으며 공업 부문에서의 고정 폰드의 규모도 현저히 확대되였다.

이것은 현존 설비의 능력을 최대한으로 발휘시키며 생산을 정상화하는 것이 생산 장성의 가장 큰 예비로 된다는 것을 말하여 준다. 이미 꾸려 놓은 중공업과 경공업의 토대를 효과적으로 리용한다면 우리는 막대한 량의 공업 제품을 추가적으로 더 생산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생산의 정상화는 생산의 보다 급속한 장성을 보장함으로써 당면한 생산적 및 소비적 수요를 원만히 충족시킬 수 있게 할 뿐 아니라 앞으로의 확대 재생산을 위한 터전도 더욱 튼튼히 다질 수 있게 한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고정 폰드의 확대 재생산을 위한 기본 원천은 국민 소득 중에서 축적을 위하여 돌려지는 부분이다. 생산을 정상화함으로써만 국민 소득이 급속히 장성하며 국민 소득이 급속히 장성하는 조건 하에서만 당면한 인민들의 생활을 향상시키기 위한 소비 폰드를 증대시키면서도 축적의 절대량을 증대시킬 수 있는 것이다.

설비의 리용률을 높이며 생산을 정상화하는 것은 또한 고정 폰드의 이전 가치를 증대시킴으로써 우리에게 현존 기계, 설비들을 더 빨리 현대화할 수 있는 가능성을 준다. 일부 로후한 기계, 설비들을 현대화하며 그 능력을 체계적으로 높이는 그 자체가 기본 투자를 증대시키는 것과 동일한 의의를 가지며 확대 재생산을 위한 터전을 다지는 것으로 된다.

생산을 정상화하는 것은 원가를 체계적으로 저하시키면서도 제품의 질을 제고하며 종업원 1 인 당 생산액을 급속히 높이는 등 기업소 경영 활동의 모든 질적 지표들도 더욱 개선할 수 있게 한다. 생산이 정상화되는 조건 하에서만 로력과 로동 시간의 완전한 리용을 보장할 수 있으며 원자재와 연료의 랑비를 근절하고 비생산적 지출을 감소시킬 수 있다.

생산의 정상화는 이와 같이 투자의 효과성을 높이며 더 많은 자금을 얻어 내게 함으로써 나라의 사회주의 공업 발전의 급속한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부문에 자금을 투하할 수 있게 한다.

요컨대 오늘 우리 나라 공업 발전의 가장 중요한 예비는 있는 설비를 최대한 효과적으로 리용하며 생산을 정상화하는 데 있으며 이러한 예비의 완전한 동원 리용은 우리에게 7개년 인민 경제 발전 계획을 더 빨리 수행할 수 있게 하는 지름'길을 제공해 준다.

생산의 정상화는 사실 상 사회주의 제도 자체의 본질로부터 흘러 나오는 요구이다.

자본주의 경제와 달리 사회주의 경제는 계획적, 균형적으로만 발전할 수 있다. 사회주의 경제의 계획적, 균형적 발전은 전 사회적 규모에서 이미 조성된 생산 능력과 사회적 로동을 최대한 합리적으로 리용하여 생산을 완전히 정상화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

사회주의 제도는 생산의 모든 단위, 모든 고리들에서 생산을 정상화할 수 있는 사회 경제적 요인을 가지고 있으며 이것은 자본주의 제도에 비한 사회주의 제도의 우월성의 하나로 된다.

생산 수단에 대한 사'적 소유가 지배하며 생산이 오직 자본가들의 리윤 추구를 위해서만 진행되는 자본주의 하에서는 생산의 무정부성이 하나의 객관적 법칙으로 작용하며 여기에서는 전국적 규모에서의 생산의 정상화란 있을 수 없다. 생산의 무정부성은 과잉 생산 공황을 불가피하게 하며 인민 생활을 여지 없이 파탄시킨다.

인민들의 지불 능력 있는 수요에 비한 상대적 과잉 생산 공황은 막대한 량의 사회적 로동의 체화물을 자본가들의 본능적인 사고 방식에 따라 때로는 의식적인 방화의 희생물로, 때로는 대양의 심연 속에 영원히 파묻혀 버리는 무용지물로 되게 한다.

오직 생산 수단에 대한 사회주의적 소유에 기초하고 있으며 생산이 인민들의 물질적 복리를 위하여 진행되는 우리 제도 하에서만 생산이 정상화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재생산의 전 과정을 계획적으로 이룩하고 사회적 로동을 가장 합리적으로 리용하여 경제를 자본주의 경제에 비할 수 없이 높은 속도로 발전시킬 수 있는 것이다.

오늘 생산의 정상화가 나라의 사회주의 공업을 급속히 발전시키기 위한 중요 예비로 되며 또 우리에게 생산을 정상화할 수 있는 사회 경제적 요인이 있다고 하여 결코 그것이 저절로 실현되는 것은 아니다. 무엇보다 일'군들이 적극적이며 의식적인 노력으로 당이 이미 제시한 생산 정상화의 기본 방도를 정확히 관철함으로써만 생산을 정상화할 수 있다.

김 일성 동지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설비 관리와 기술 준비를 잘 하며 원료와 자재를 원만히 공급하며 로동 행정 사업을 개선 강화하여 생산의 파동성을 근절하고 생산을 완전히 정상화하여야 하겠다》(《조선 로동당 창건 20주년에 제하여》, 46페지).

우리는 이러한 방침을 정확히 관철하여 생산을 정상화함으로써 인민 생활을 결정적으로 개선 향상시키며 나라의 정치 경제적 위력을 더욱 튼튼히 하려는 당의 의도를 훌륭히 실현하여야 할 것이다.

(2)

생산의 정상화는 현존 고정 폰드를 나라의 경제 발전에 가장 효과적으로 리용하는 것을 의미하는 만큼 그것은 로동 대상을 로동 도구의 능력에 적응하게 정확히 맞물려 공급할 것을 요구한다. 고정 폰드의 규모가 아무리 크고 가공 공업의 생산 능력이 아무리 높아진다 하더라도 가공 대상이 적시적으로 정확히 공급되지 않는다면 생산 과정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질 수 없으며 확대된 고정 폰드

와 높아진 가공 공업의 생산 능력도 응당한 수준에서 자체의 위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없다.

생산에 대한 물질적 보장은 바로 이러한 생산의 중요 요소의 하나인 로동 대상을 정확히 공급하는 것을 말하며 따라서 그것은 원료, 연료, 자재, 동력의 공급, 협동 생산의 정확한 보장 및 적시적인 수송의 보장 등을 포괄한다.

원료, 연료, 동력이 없이는 가공되는 대상이 있을 수 없으며 생산 수단도 소비품도 만들 수 없다. 따라서 원료, 연료, 동력을 생산하는 채취 공업과 동력 공업은 생산의 첫 공정으로서 모든 공업 부문의 발전에 선행되여야 한다. 이 부문의 생산물은 직접 인민 생활에 필요한 소비 재료로 공급되기도 하지만 그 대부분은 생산적 소비에 돌려진다. 이 부문의 선차적 발전이 없이는 금속, 화학, 건재 공업 등 1 차 가공 공업의 정상적인 발전을 기대할 수 없으며 나아가서는 기계, 경공업 등 2 차 가공 공업의 발전도 보장할 수 없다.

그러나 채취 공업 및 동력 공업과 가공 공업의 발전에서 어느 것에 더 큰 힘을 넣는가 하는 문제는 해당 시기 경제 발전의 구체적 조건에 따라 각이하게 제기될 수 있다.

당은 매 시기 경제 발전의 구체적 조건을 과학적으로 타산한 데 기초하여 채취 공업 및 동력 공업과 가공 공업 간의 호상 관계를 정확히 해결하여 왔다.

해방 후 일제의 략탈적인 식민지 경제 정책에 의하여 기계 제작 공업을 비롯한 가공 공업이 결여되고 채취 공업이 기형적으로 팽창된 조건에서 당은 채취 공업과 가공 공업의 발전에 다같이 힘을 넣으면서도 특히 가공 공업의 발전에 선차적 의의를 부여하였다. 이것은 가공 공업이 나라의 경제적 락후성과 예속성을 청산하고 자립적 경제 토대를 건설함에 있어서 결정적 의의를 가진다는 사회주의 경제 건설의 일반적 원리 뿐 아니라 일면적으로 팽창한 채취 공업이 가공 공업의 급속한 발전에 따르는 증대되는 수요를 충족할 수 있었다는 당시 우리 나라 경제 발전의 객관적인 현실에 근거한 과학적인 방침이였다.

오늘날에 와서는 우리 나라 기계 제작 공업이 기계 설비에 대한 국내 수요를 기본적으로 충족할 만큼 강력한 토대를 가지게 되고 가공 공업의 기술 장비와 생산 규모가 현대적 면모를 띠게 된 현실정으로부터 출발하여 당은 가공 공업을 계속 보강하면서 채취 공업 선행의 방침을 관철하는 데 심중한 주의를 돌리고 있다. 당의 이러한 방침은 가공 공업에 필요되는 로동 대상을 충분히 공급하여 있는 설비의 능력을 최대한으로 발휘시키고 생산을 정상화할 수 있게 함으로써 한편으로는 나라의 자립적 경제 토대를 더욱 강화할 수 있게 할 것이며 다른편으로는 인민 생활을 더 빨리 향상시킬 수 있게 할 것이다.

그러므로 채굴 공업에서 탐사 사업을 선행하고 기술 혁신을 강력히 추진시키며 과학 연구 사업을 강화할 데 대한 당의 방침을 철저히 관철함으로써 장성하는 광석과 석탄 수요를 보다 원만히 충족시켜야 할 것이며 림산 공업에서는 목재 생산 원천을 과학적으로 조사 장악한 데 기초하여 선진적인 순환식 채벌 방법을 적극 도입하며 수송 수단의 리용률을 높임으로써 국가적으로 조성된 목재의 긴장성을 더 빨리 풀어 나가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이와 함께 전력 공업 부문에서는 수력 발전소와 화력 발전소 건설을 합리적으로 배합하며 대규모 발전소와 중소 규모 발전소 건설을 병행할 데 대한 당의 일관한 방침을 견지함으로써 전력 공급에서 계절적 파동성을 근절하며, 이미 착수한 중요 대상들에 력량을 집중하여 그 조업 개시 기일을 앞당기고 기존 발전소들에서 수차 효률을 높이는 등으로 전력 생산량을 결정적으로 증대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송전망 체계를 더욱 확장하고 전력 계통을 튼튼히 꾸려 전력의 도중 손실을 축감시

키며 전기를 많이 쓰는 부문에서 절약 투쟁을 강화하고 나아가서는 전력을 쓰지 않는 부문으로 전환시키는 것 등은 전력 생산의 증대와 함께 현시기 당면하게 제기되는 중요한 전투적 과업의 하나이다.

협동 생산에서 엄격한 규률을 확립하는 것은 생산에 대한 물질적 보장 사업을 개선하는 중요한 요인이며 생산 정상화를 보장하는 기본 방도의 하나이다.

그것은 공장, 기업소들에서의 가공 대상이 석탄, 광석, 목재 등 채취 공업 생산물 뿐 아니라 가공 공업 자체의 반제품도 포괄하며 많은 경우에 한 공장의 생산물이 다른 공장에서는 로동 대상으로 된다는 사정과 관련된다. 전문화와 협동화 및 결합화의 발전은 현대적 공업 생산의 본질적 특징으로서 그것은 생산의 급속한 발전을 힘 있게 추동한다.

사실 오늘 우리 나라의 공업은 바로 이러한 발전 수준에 이미 도달하였으며 금후에는 더욱더 높은 수준에로 올라가게 될 것이다. 지금 우리가 생산하는 많은 공업 제품들은 수다한 부문, 공장들의 협동 생산에 의하여 이루어진다. 례하면 자동차와 뜨락또르는 수십 개 공장, 기업소들의 협동 생산품이며, 청진 화학 섬유 공장에서 생산되는 화학 섬유는 전국의 300여 개 공장, 기업소의 로동 대상으로 공급된다.

이런 조건 하에서 어느 한 기업소의 협동 생산 규률에 대한 사소한 위반이라도 그것은 련관된 다른 기업소의 생산 정상화를 불가능하게 하며 나아가서는 인민 경제의 계획적, 균형적 발전을 저해하게 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협동 생산품의 품위와 대상을 실정에 맞게 정확히 규정하고 협동 생산품은 반드시 1 개월 이상 선행하여 공급하는 강한 규률을 확립함으로써 생산 장성에서 전문화와 협동화의 거대한 역할을 충분히 발휘시키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자재 공급 체계의 강화는 생산 정상화를 위한 조직 사업에서 가장 중요한 자리를 차지한다. 특히 인민 경제의 규모가 방대해지고 제품의 품종이 다양해진 현 조건 하에서 모든 자재를 생산 현장에 적시적으로 공급해 주는 것은 특별히 중요한 문제로 나선다. 사소한 자재가 없는 경우에도 생산은 정상화될 수 없는 것이다.

김 일성 동지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자재 공급은 계획 실행을 보장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행정 조직 사업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가 조직 사업에 대하여 많이 말하지만 자재를 원만히 대 주는 것보다 더 중요한 조직 사업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자재를 제때에 민활하게 공급하며 우에서부터 생산 현장에 자재를 직접 내려 보내 주는 정연한 체계를 확립하여야 할 것이다**»(«모든 힘을 여섯 개 고지의 점령을 위하여», 7페지).

자재 공급 사업을 강화하기 위하여서는 계획화 사업을 잘 하고 자재를 효과적으로 리용할 수 있도록 정확히 분배, 공급하며 우에서 책임지고 직접 아래에 현물로 공급해 주는 대안 체계의 원칙적 요구를 철저히 관철하는 것이 필요하다.

생산에 대한 물질적 보장은 자재를 우로부터 적시적으로 정확히 공급해 줄 뿐 아니라 매개 기업소들에서 자체의 내부 예비를 최대한으로 동원 리용하며 생산 과정에서 자재를 가장 절약적으로 리용할 때만이 성과적으로 실현될 수 있다. 소비 기준을 과학적으로 설정하며 내부 채산제를 도입하고 자재 소비에 대한 재정적 통제를 강화하는 등 자재를 절약적으로 리용하기 위하여 당이 취한 제반 대책들은 바로 이러한 요구를 실현하기 위한 것이다.

자재를 절약적으로 리용하기 위한 사업에서 특별히 중요한 의의를 가지는 문제는 생산자 대중 속에서 나라 살림살이의 주인된 자각을 키워 주는 것이다. 자재를 아무리 풍부히 그리고 적시적으로 공급해 준다 하더라도 생산자들이 나라 살림살이의 주인된 자각이 없이 그것을

되는대로 써 버린다면 자재의 부족을 면할 수 없을 것이다. 이것은 마치 밑 빠진 독에 물을 붓는 격이 될 것이다. 오직 생산자 대중들이 나라의 주인된 자각을 가질 때만이 그들은 이미 제정된 자재의 소비 기준을 엄수할 뿐 아니라 하나의 쇠쪼각, 한 오리의 실이라도 더 아껴 쓰고 폐설물, 지방 자재를 비롯한 내부 예비를 효과적으로 동원 리용하며 대용 자재도 더 많이 도입하려고 노력하게 될 것이다. 바로 이렇게 될 때 우리는 있는 자재, 있는 설비, 있는 로력으로 더 많이 생산할 데 대한 당의 요구를 보다 훌륭히 관철할 수 있다. 따라서 일'군들은 자재를 우료부터 생산 현장에까지 적시적으로 공급해 줄 뿐 아니라 그것을 절약적으로 리용하도록 생산자들에 대한 교양 사업을 강화하는 동시에 자재 소비에서 통제 사업을 강화하기 위한 대책을 세우는 것이 필요하다.

자재의 정확한 공급은 운수 사업의 개선을 전제로 한다. 원료, 연료, 자재의 운반 과정은 곧 생산 과정의 계속이며 이것이 없이는 현대적 공업 생산은 실현될 수 없다.

그러므로 운수 부문에서 당이 이미 제시한 제반 과업들을 짧은 기간 내에 철저히 수행하기 위한 투쟁을 강화함으로써 장성하는 인민 경제적 수송 수요를 원만히 충족시키는 것은 생산에 대한 물질적 보장에서 절박하게 제기되는 중요한 문제이다.

(3)

로동 대상이 충분히 마련되는 조건 하에서 생산 과정을 보장하는 결정적 요소는 설비이다. 설비는 생산 과정에서 로동 대상에 인간의 로동을 전가함으로써 그것을 일정한 형태의 새로운 생산 수단과 소비품으로 전화시킨다. 설비가 자체의 능력을 어느 정도로 발휘하는가에 생산 장성이 결정적으로 의존한다.

설비의 능력을 충분히 발휘시키기 위해서 제기되는 중요한 문제는 기술 관리 사업을 잘 하고 기술 준비를 선행하며 이미 조성한 생산 능력에 살을 붙이는 것이다.

우선 기술 관리를 잘 하는 것이 필요하다.

김 일성 동지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설비의 리용률을 높이며 생산을 정상화하는 데 있어서 결정적 의의를 가지는 것은 기술 관리 사업을 잘 하는 것이다》(《모든 힘을 여섯 개 고지의 점령을 위하여》, 18 페지).

기술 관리를 잘 하는 문제는 특히 생산의 기술 장비 수준이 높아지고 생산에서 기계화, 자동화 및 화학화가 광범히 도입되고 있는 현 조건에서 더욱 절실하게 제기되는 것이다.

기술 관리는 설비 자체의 기술 공학적 속성의 요구를 정확히 해결할 때에 따라야만 과학적으로 진행될 수 있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어떠한 설비를 막론하고 그것은 많은 부분품들로 이루어지고 있다. 설비의 부분품들은 생산 과정에서 점차 마모되기 마련이며 마모의 정도가 일정한 한계에 이를 때 설비는 자체의 능력을 어느 정도나마 상실한다. 생산 과정에 참가하고 있는 설비의 이러한 일반적인 기술 공학적 속성은 사람들로 하여금 설비의 상태와 부분품들의 마모 정도를 일상적으로 알아보고 계획적으로 미리미리 수리 또는 교체할 것을 요구한다. 이러한 요구를 정확히 실현하기 위하여 당은 계획적 예방 보수 체계를 철저히 확립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설비의 과학적 관리 방법으로서의 계획적 예방 보수 제도를 철저히 확립하는 것은 기계 설비들을 일상적으로 점검하여 제때에 보수할 수 있게 함으로써 설비의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정상적인 작업 상태를 유지하며 수명을 연장하고 능력을 제대로 발휘할 수 있

게 하며 생산도 과학적으로 조직할 수 있게 한다. 그것은 또한 설비의 수리로 인한 작업 휴지 시간을 단축시키고 보수의 질을 높일 수 있게 한다. 이것은 설비의 리용률을 높이며 생산을 정상화하는 중요 담보로 된다.

계획적 예방 보수는 예비 부속품을 품종, 규격 및 재질 별로 3 개월 분 이상 확보하는 조건 하에서만 잘 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공무 동력 직장의 기술 장비를 강화하는 동시에 그 기술 력량을 해당 기업소의 설비 보수를 위한 부속품 생산에 전'적으로 돌리는 것은 예방 보수 체계를 철저히 확립하는 기본 조건으로 된다.

이와 함께 부속품의 대량 생산을 보장하며 사회적 로동 생산 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부속품의 규격화 사업을 추진하고 그 생산을 전문화하는 것이 생산의 장성에서 본질적 의의를 가진다.

예비 부속품을 3 개월 분 이상 확보하며 그 생산에서 사회적 로동 생산 능률을 높이는 것과 함께 설비 보수 작업을 전문화하고 설비의 분해, 조립 작업을 기계화하며 합리적인 보수 조직의 형태와 방법을 적극 도입하여 보수로 인한 작업 휴지 시간을 단축시키는 것은 설비 리용률을 높이고 생산을 정상화하는 중요 요인으로 된다.

설비의 관리 운영은 직접 기계 설비를 다루는 생산자 대중이 이 사업에 자각적으로 참가할 때 비로소 충분히 실현될 수 있다. 그러므로 생산자 대중 속에서 사상 교양 사업을 강화하며 기대를 애호 관리하는 산 모범과 대중적 운동을 적극 지지 일반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기술 관리를 개선하는 것과 함께 기술 준비를 선행하는 것은 설비의 리용률을 높이는 중요한 방도이다.

그것은 기술 준비를 선행할 때에라야만 새 기술과 선진 작업 방법 및 선진 기술 공정을 도입할 수 있으며 품종도 확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 많은 공장, 기업소의 경험은 선진적인 공구, 지구 하나만 도입하는 경우에도 같은 설비로써 훨씬 많은 제품을 생산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 주고 있다.

그러므로 모든 공장, 기업소들에서는 기술 준비의 선행을 생산 조직의 중요 원칙으로 인정하고 이 사업을 강화하는 데 깊은 관심을 돌려야 할 것이다.

이미 조성해 놓은 생산 능력의 기본 골간에 살을 붙이는 것은 있는 설비의 능력을 최대한으로 발휘시키는 데서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그것은 오늘 공업의 모든 부문들이 제품 생산에서 서로 밀접히 련결되여 있으며 개별적 공장, 기업소들에 있는 설비들도 원자재의 투입으로부터 완제품을 내는 데 이르기까지의 통일적 생산 과정에 놓여 있다는 사정과 관련된다. 만약 서로 련결된 부문 및 설비 간에 그 능력 상 균형이 잘 맞아 떨어지지 않고 빈 구석이 있게 된다면 설비의 리용률을 높일 수 없으며 생산도 정상화할 수 없다. 이미 조성해 놓은 생산 능력의 기본 골간에 필요한 부대 설비들을 갖추어 줄 때에라야만 기존 설비의 능력을 충분히 발휘시킬 수 있다. 례하면 이미 건설된 야금로의 능력에 알맞게 광석 사별장, 소결 및 구단광 직장 등 광석의 예비 처리에 필요한 설비들을 완비해 주며 장입 능력과 강괴 처리 능력을 보충 완비해 줄 때 야금로는 자체의 능력을 충분히 발휘할 것이며 로동 생산 능률이 높아지고 생산도 급속히 장성할 것이다.

그러나 살을 붙이는 사업은 쉬운 일이 아니며 단번에 해치울 수 있는 일도 아니다. 그것은 과학과 기술의 발전 및 재정 물질적 힘의 성숙에 따라 점차적으로 해결하여야 할 사업이며 일상적인 꾸준한 사업이다. 만약 살을 붙이는 것이 있는 설비의 능력을 최대한으로

발휘시키며 생산을 정상화하는 데서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는 것만을 강조하면서 모든 부문, 모든 공장, 기업소들에서 필요한 요소들에 일시에 살을 붙이려 든다면 오히려 역량이 분산되여 당면한 생산에 지장을 주게 될 것이며 나아가서는 나라의 전반적인 경제적 앙양을 가로막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살을 붙이는 사업에서는 당이 이미 제시한 방침에 따라 그 대상이 인민 경제의 급속한 발전과 기업소의 생산 장성에서 노는 역할을 과학적으로 타산한 데 기초하여 선후차를 옳게 가리고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 급한 것부터 계단식으로 하나씩 해결해 나가며 현존 설비와 생산 면적을 보다 합리적으로 리용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살을 붙이는 사업은 매개 공장, 기업소들에서 개별적 설비들 간, 개별적 생산 공정들 간에 그 능력 상 균형을 보장하기 위한 사업과 관련되여 있다. 생산 공정 간의 균형이 정확히 유지되지 못 하는 주되는 원인은 련결된 생산 과정에서 《약한 고리》가 생기는 데 있다. 그러므로 이러한 《약한 고리》를 적시에 적발 퇴치하여 그것을 능력이 높아진 련결된 생산 공정의 수준에 끌어 올려 균형을 유지하는 것은 생산을 계통적으로 장성시키게 하며 생산을 정상화할 수 있게 한다.

이에 있어서 일부 기술적으로 락후한 설비를 개조하는 것은 특별히 중요한 문제로 나선다. 설비의 기술적 개조는 투자의 경제적 효과성을 높이며 자금을 절약하고도 생산 능력을 새롭게 조성함으로써 있는 설비로 더 많이 생산할 데 대한 당의 정책적 요구를 보다 원만히 실현할 수 있게 한다.

(4)

김 일성 동지가 지적한 바와 같이 《사람은 생산의 가장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요소이며》 《로동 행정 사업은 다 사람과 직접 관계되는 일이다》. 따라서 로동 행정 사업을 개선하여 생산에 참가하는 사람들의 열성과 능력을 높여 주지 않으며 로동을 과학적으로 조직하지 않는다면 생산에 필요한 원료, 연료, 자재 및 동력이 제대로 보장되고 기계, 설비들이 정비된 상태에 있다고 하더라도 생산 과정을 정상적으로 실현할 수 없으며 로동 생산 능률을 높일 수 없다. 로동 행정 사업을 개선함으로써만 잘 조직된 생산에 대한 물질적 보장 사업이 은을 낼 수 있고 설비도 능력을 최대한으로 발휘할 수 있으며 생산이 정상화될 수 있다.

또한 로동 행정 사업을 강화하며 사람과의 사업을 잘 하는 것은 생산의 정상화를 위한 제반 물질 기술적 대책들을 성과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튼튼한 담보로 된다. 생산 설비들을 보수 정비하며 원료, 자재를 직접 다루는 생산자 자신들이 나라의 살림살이에 대한 주인다운 책임감을 소유하고 당의 방침을 관철하는 데 자각적으로 발동되여야만 생산에 대한 물질적 보장 사업과 기술 관리 사업도 성과적으로 실현될 수 있다.

따라서 로동 행정 사업을 강화하여 모든 생산자들이 자기의 지혜와 능력을 최대한으로 발휘시킬 수 있게 하는 것은 생산의 정상화를 보장하기 위한 사업에서 매우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게 된다.

생산을 정상화하기 위한 사업에서 모든 일'군들의 역할을 높이기 위하여서는 무엇보다도 먼저 그들의 정치적 각성과 열성을 고도로 불러 일으키는 것이 중요하다.

모든 사업에서 정치 사업을 선행하여 매개 생산자들로 하여금 나라 살림살이의 주인된 자각과 의무감, 자기들이 맡은 혁명 과업에 대한 책임감을 가지고 사회적 로동에 헌신적으로 참가하도록 하여야만 생산의 매개 고리들이 정상적으로 움직이며 생산 정상화에 필요한 모든 요인들이 자기의 역할을 충분히

다하게 될 것이다. 특히 매개 일'군들이 자기 공장, 기업소의 범위, 나아가서는 전국적 범위에서의 생산의 정상화를 위하여 자기가 담당한 임무가 무엇이며 그것을 어떻게 실현하여야 할 것인가에 대하여 정확히 알고 행동하도록 정치 사업을 구체적으로 진행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와 동시에 로동 행정 사업의 가장 중요한 내용을 이루는 사회주의 분배 원칙을 철저히 관철함으로써 매개 생산자들이 자기 로동의 결과에 대한 물질적 관심성을 가지도록 하는 것이 요구된다.

정치 도덕적 자극과 결합된 사회주의 분배 원칙의 정확한 관철은 자기 로동의 결과에 대한 일'군들의 물질적 관심성을 제고시킴으로써 생산의 정상화를 확고히 보장한다. 그것은 무기능 로동에 비하여 기능 로동에 보다 많은 보수를 지불하게 함으로써 일'군들의 기능 수준을 높이도록 추동하며 매개 생산자들이 자기 앞에 부과된 임무를 더 훌륭히 수행할 수 있게 한다. 그것은 인민 경제의 핵심적 부문들에 높은 지불을 하게 함으로써 전국적 범위에서의 생산 정상화에서 중요한 역할을 노는 이 부문의 선차적 발전을 추동한다. 사회주의 분배 원칙의 정확한 관철은 또한 낡은 사상 잔재를 근절하고 로동에 대한 옳은 태도로 근로자들을 교양하는 중요한 수단으로도 된다. 그것은 사회주의 분배 원칙의 정확한 관철이 로동 규률을 자각적으로 준수하게 하고 로동에서 헌신성과 성실성을 발휘하도록 자극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사회주의 분배 원칙의 철저한 관철을 위한 필수적 전제인 로동 기준량을 과학적으로 설정한 데 기초하여 로임 지불의 다양한 형태를 해당 부문, 기업소의 로동의 특성에 알맞게 적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로동력을 인민 경제 각 부문에 균형적으로 배치하며 로동 조직을 합리적으로 하는 것은 로동 행정 사업의 중요 내용이며 생산을 정상화하기 위한 기본 조건의 하나이다. 로동력의 균형적 배치와 로동의 합리적인 조직은 사회적 로력 부원을 합리적으로 리용할 수 있게 하며 로동 생산 능률을 높일 수 있게 한다. 생산 부문과 비생산 부문; 기본 생산 부문과 보조 생산 부문 간의 로력 배치를 생산 부문과 기본 생산 부문의 로력의 량적 및 질적 구성을 높이는 방향에서 진행하며 제품의 생산 공정과 작업의 특성과 요구에 적응하게 그리고 선진적인 로동 기준량에 기초하여 적재 적소에 로력을 배치하는 방향에서 로동 조직을 합리적으로 할 때에야만 전 사회적 규모에서 로력의 긴장성을 보다 성과적으로 풀 수 있으며 개별적 기업소들에서 각이한 소질과 체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재능을 최대한으로 발양시킬 수 있다.

특히 매개 기업소들에서 교대, 휴식, 작업반 및 분조 조직을 합리적으로 하는 것은 로동 시간을 충분히 리용하며 기업소의 생산 능력을 최대한으로 발휘시키는 중요한 방도이다.

로력 배치의 균형 및 로동 조직의 개선과 함께 근로자들의 기술 기능 수준을 체계적으로 높이기 위한 구체적인 조직 사업을 진행하며 로동 보호 안전 대책을 철저히 강구함으로써 생산에서 사람들의 건강을 보호하며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생산 계획을 부기 별, 월 별, 지표 별로 수행해 나가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농업 과학과 농업 생산

김 계 현

오늘 우리 당은 농업 생산 발전에서 농업 과학의 역할을 더욱 높일 것을 중요하게 제기하고 있다. 농업 과학의 발전에 기초하여 농업 생산을 급속히 장성시키는 것은 사회주의 농촌 경리 발전의 객관적 요구이며 현시기 우리 당 앞에 제기된 가장 중요한 과업의 하나이다.

농업 과학은 원래 농업 생산 실천 과정에서 발생 발전하지만 그것은 농업 생산 발전에서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한다. 농촌에서 생산 관계의 사회주의적 개조에 의하여 생산력 발전을 저애하던 사회 경제적 근원을 청산한 이후에 있어서 농업 과학은 농업 생산 발전에서 더욱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농업 과학을 급속히 발전시킴으로써만 농업 생산의 제 요인들을 효과적으로 리용할 수 있으며 농촌에서 기술 혁명을 더욱 촉진시키고 집약 농법을 계속 발전시켜 농업 생산을 부단히 증대시킬 수 있다.

《현대적 과학, 기술에 기초한 집약 농법은 가장 선진적인 영농 방법이며 그것은 농사에서 다수확의 기본으로》되며 《영농 사업에서의 우리 당의 기본 방침이다》(김 일성, 《우리 나라 사회주의 농촌 문제에 관한 테제》 21 페지).

우리 나라에 토지가 제한된 조건에서 인민들의 생활 향상과 인구의 증가에 의하여 부단히 장성하는 농업 생산물에 대한 수요를 원만히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농업의 집약화 수준을 높여 농업 생산을 장성시켜야 한다.

엥겔스가 지적한 바와 같이 인간의 관리 하에 있는 생산력은 무한하며 토지의 수확성은 생산 수단과 로동의 투하, 과학 발전에 의하여 무한히 제고된다. 단위 면적에 대한 생산 수단과 로력의 추가적 지출에 의한 단위 당 수확고의 제고도 오직 과학 기술의 발전에 의하여서만 이룩될 수 있다.

농업 과학을 발전시키지 않고서는 새로운 기계 기술의 도입, 다수확 작물과 품종의 육성, 경종 방법의 개선 등을 가져 올 수 없으며 더 많은 로력과 비용을 지출하고도 단위 당 생산성을 높일 수 없다.

오늘 우리 나라 농촌에서는 기술 혁명의 급속한 추진과 농업에 대한 공업의 강력한 지원에 의하여 농기계를 비롯한 각종 선진적인 기술 수단과 새로운 종류의 화학 비료, 살초제, 살충제가 다량적으로 공급되고 농업 생산도 공업 생산과 같이 하나의 기술 공정으로 전환된 조건에서 농업 과학 기술이 노는 역할이 더욱 높아지게 되였다.

농업 과학의 가일층의 발전이 없이는 농사를 더 잘 지을 수 없으며 과학 기술 지식을 소유함이 없이는 농촌 경리를 옳게 지도할 수도 없다.

농업 과학을 발전시키는 문제는 농업 생산이 자연의 영향을 많이 받으며 자체의 생물학적 특성을 가지고 있는 사정과 관련하여 더욱 절실하게 제기된다. 각이한 지대에서 각이한 특성을 갖는 기후 풍토 조건, 동식물의 생리적 특성을 과학 리론적으로 연구함으로써만 동식물의 퇴화와 자연 재해로 인한 농작물의 피해도 방지할 수 있으며 새로운 품종을 육성하고 각이한 지대 조건에 맞는 경종 방법을 수립할 수 있다.

농업 과학은 생산 수단을 부단히 개선하며 새로운 기술 공정을 도입함에 있어서 뿐 아니라 생산자-농민들의 낡은 사상 잔재를 철저히 극복하며 그들의 생산 열의를 부단히 높임에 있어서

도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락후한 수공업적 기술에 의거하여서는 농민들의 사상 문화 수준을 결정적으로 제고할 수 없으며 그들의 생산 열의를 계속 높일 수도 없다.

농민 대중의 로력적 열성과 창발성은 과학 및 기술과 결합됨으로써만 참다운 위력을 발휘할 수 있다. 농업 과학의 발전과 기술적 진보 없이 농민 대중의 열성 하나만 가지고서는 농업 생산을 더욱 급속히 장성시킬 수 없으며 농업 생산의 장성이 없이는 공업의 급속한 발전과 인민 생활의 획기적 향상을 보장할 수 없고 나아가서는 우리 나라 사회주의 제도의 우월성을 전면적으로 발양시킬 수도 없다.

그러므로 우리 당은 언제나 농업 생산의 급속한 장성을 위하여 농업 과학 발전에 심중한 관심을 돌려 왔다. 농업 과학을 발전시키기 위하여 당은 농업 대학을 증설하고 전문적인 과학 연구 기관인 농업 과학원을 확장하였으며 지대 별로 분원과 시험장 및 육종장들을 증설하고 그 물질 기술적 토대를 강화하였으며 농업 과학자, 기술자 대렬을 튼튼히 꾸렸다. 그리고 과학과 생산을 밀접히 결합시키고 과학자, 기술자들을 농촌에 대대적으로 파견하는 일련의 대책을 취하였다.

당의 정확한 정책과 현명한 령도에 의하여 우리 나라 농촌 기술 혁명에서는 결정적인 전진이 이룩되였으며 농업 과학 발전에서 일정한 성과들이 달성되였다. 새로운 품종들이 육성되였으며 각종 전모 육성법을 비롯하여 경종 체계가 확립되였다. 농경지의 토양을 과학적으로 조사 분석한 데 기초하여 시비 체계와 토양 개량 대책이 수립되였으며 식물 생리, 농업 화학, 농업 미생물 연구 사업에서도 일정한 성과들이 달성되였다.

그러나 현시기 급속히 발전하는 우리 나라 농촌 현실과 농업 부문 앞에 나선 방대한 과업은 농업 과학을 더욱 발전시키며 그것이 농업 생산에 더 잘 복무하도록 할 것을 절실한 요구로 제기하고 있다.

*　　*

농업 과학이 농업 생산에 더 잘 복무함에 있어서 중요한 문제는 사회주의 농촌 건설에서 긴절하게 해결을 요하는 당면한 문제들과 농촌 경리의 장래 발전을 위한 전망적 문제들을 옳게 배합하여 선후차와 경중을 가려 중심 고리에 력량을 집중하는 것이다.

농업 생산에서 당면하게 제기되는 현실적 문제들의 해결에 력량을 집중하면서 동시에 전망적 의의를 가지는 과학 기술적 문제들과 이 부문 기초 리론을 발전시키며 당면한 현실적 문제를 해결함에 있어서도 단위 면적에서 알곡의 수확고를 높이기 위한 집약 농법 발전에 기본을 두면서 경제적 효과성이 높고 한 점을 뚫으면 이여의 문제들이 련관되여 풀릴 수 있는 그러한 중심 문제에 힘을 집중하여야 한다.

과학 연구의 목적이 아무리 좋아도 그것이 우리 농촌 현실에 맞지 않고 먼 장래에 가서야 실현할 수 있다면 그리고 그 연구 성과를 생산에 도입할 때 로력과 자재를 많이 들이면서도 경제적 효과성이 높지 못 하다면 그것은 큰 의의를 가지지 못 한다.

오늘 농업 과학 부문 앞에 중요하게 제기되는 당면한 문제는 기술 혁명 수행을 촉진시키기 위하여 밭갈이, 김매기, 수확, 탈곡, 운반을 비롯한 영농 작업의 모든 부문에 걸쳐 종합적 기계화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며 지대적 특성에 맞게 농기계들의 리용률을 제고하며 관개 용수를 합리적으로 리용하며 관개 시설물의 효률을 높이는 것이다. 그리고 급속히 증대되는 화학 비료의 효과를 더욱 높이기 위하여 토양 조건과 작물의 특성에 맞게 과학적 시비 체계를 철저히 확립하며 살초제, 살충제, 살균제 등 각종 농약의 효과적 리용 대책을 연구하며 농업의 기본 생산 수단

인 토지의 비옥도를 계통적으로 높이기 위한 종합적인 토지 개량 방도를 연구하는 것이다.

이와 함께 농업 과학 앞에는 각종 농작물의 원원종과 다비 조건에 맞는 논벼 신품종을 육성하며 특히 2모작과 고지대의 농업 발전을 위하여 숙기가 짧고 랭해에 견디며 수확이 높은 신품종을 육성하며 지대 별 농작물의 경종 체계를 확립하는 동시에 축산, 과수, 잠업 등에서 당면하게 해결을 요하는 일련의 과학 기술적 문제들을 연구하여야 할 과업이 제기되고 있다. 우리 농업 과학자들은 농업 생산에서 당면하게 제기되는 바로 이러한 문제들의 해결에 력량을 집중하여야 한다.

농업 생산에서 제기되는 현실적 문제들을 과소 평가하면서 먼 장래에 가서야 실현될 수 있는 문제들과 현실과는 동떨어진 기초 리론만을 연구하여야 한다고 생각한다면 이것은 과학 발전에서 실천의 의의를 무시하는 것으로 된다.

모든 과학 리론은 실천에서 출발하여 실천에 복무하며 실천 속에서 검증된다. 그러므로 농업 과학이 농업 생산에서 제기되는 현실적 문제들을 해결함으로써 농업 과학 자체의 발전을 촉진시킬 수 있으며 농업 생산에 더 잘 복무할 수 있다.

농업 생산에서 제기되는 당면한 과학 기술적 문제들을 연구함에 있어서는 우리 나라의 구체적 현실에 맞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우리의 농업 과학자, 기술자들은 주체적 립장에 튼튼히 서서 자체의 힘으로 우리 나라 토양과 기후 조건에서 우리의 기술에 의거하여 우리 나라 농업 생산에서 제기되는 과학 기술적 문제들을 해결하며 다른 나라에서 달성한 농업 과학 기술과 선진 영농 경험을 도입함에 있어서도 우리 나라 농업 생산을 발전시키는 립장에 철저히 서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섭취하여야 한다.

우리 나라 농업 생산을 발전시킴에 있어서도 전국적 의의를 가지는 일반적 문제와 지방적 의의를 가지는 특수적 문제들을 고려하며 매개 지방의 구체적 실정에 맞게 과학 연구 사업을 진행하여야 한다.

이러한 요구는 농업 생산이 공업 생산과는 달리 각이한 기후 및 지대적 조건에서 이루어지는 특성과 관련하여 더욱 절실하게 제기된다. 농업 생산 과정에서의 물질 운동은 그 자체의 특성으로부터 물리 화학적 운동과 함께 생물학적 운동이 동반되며 그것은 시간과 장소에 따라 서로 달리 변화된다. 농업 생산은 지형 조건, 해발고, 경사도와 그 방향, 해안과 내륙 조건 그리고 리용되는 로동 수단의 특징과 로력 조건에 의하여 달라진다.

특히 우리 나라는 3면이 바다에 둘러 싸여 있고 북부로부터는 대륙성 기후의 영향을 받으며 도처에는 강과 산이 있어 토양 및 기후 조건이 골짜기마다 포전마다 다르며 같은 지대에서도 자연 경제적 조건에 따라서 해마다 요구하는 기술적 조건이 각이하다.

이러한 사정은 우리가 다른 나라에서 달성한 과학 기술과 선진 영농 경험을 우리 나라에 기계적으로 도입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우리 나라 자체에서도 한 개의 지대에서 종합된 과학의 성과를 다른 지방에 일률적으로 도입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 준다.

더우기 기술 지표가 권고의 성격을 띠지 않을 수 없었던 과거 개인농 때와는 달리 사회주의적 집단 경리로 전화된 오늘에 있어서는 과학 기술의 성과가 기술 발전 계획으로서 법적 성격을 띠며 그것은 매개 협동 농장에서 반드시 집행할 의무성을 부여한다. 그러므로 농업 과학자, 기술자들이 현실에 맞지 않는 연구 결과나 기술 지표를 무책임하게 제공하는 것은 기술 지도에서 관료주의와 주관주의를 낳게 하는 전제로 된다.

과학적으로 이미 그 우월성이 생산에서 검증된 랭상모도 해당 농장의 구체적 실정과 생산 조건을 고려함이 없이

덮어 놓고 내려 먹이거나 옥수수가 다수확 작물이라 하여 바람이 심한 해안 지대에도 일률적으로 심게 하거나 늦종자인 백색 마치종을 북부 고산 지대에 도입하라고 한다면 이것은 오히려 농업 생산력 발전을 저애하게 된다. 이것은 농업 생산 장성을 저애할 뿐 아니라 농민들의 창발성과 적극성을 마비시키며 더 나아가서는 당과 대중을 리탈시키게 하는 엄중한 후과를 가져 오게 한다.

농업 과학이 농업 생산의 구체적 현실에 맞게 더 잘 복무하기 위해서는 농업 과학 일'군들이 우선 우리 당 정책과 우리 나라 농촌 경리의 장래 발전 방향과 전망을 잘 알아야 하며 우리 나라 농촌의 자연 풍토 조건과 생산 조건 등을 구체적으로 파악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농업 과학자, 기술자들이 생산 현장에 접근하는 문제가 중요하다. 농업 과학자, 기술자들이 생산을 직접 담당 수행하는 농민 대중 속에 들어 가야만 현실에서 요구하는 참다운 과학 연구 사업을 진행할 수 있으며 농업 과학의 성과와 영농 기술을 더 빨리 더 광범히 도입하여 우리 나라 농업 생산을 급속히 발전시킬 수 있다.

이것은 또한 농민들의 영농 경험과 농업 기술자들의 집체적 지혜를 동원하여 지대 별 특성에 알맞는 농업 기술을 창조하고 발전시킬 수 있게 하며 농민들에게 새로운 과학 기술을 배워 주고 농민들이 창조한 우수한 경험들을 과학 리론적으로 안받침해 줄 수 있게 한다.

김 일성 동지는 농업 과학자들이 농촌 현실에 들어 갈 데 대하여 다음과 같이 교시하였다: **«과학자들은 한 자리에 앉아서만 사업할 것이 아니라 각 지방에 내려 가서 지도하여야 하겠다. 그리 하여 개별적인 군, 개별적인 협동 조합들의 실제적 조건에 알맞는 영농 기술을 연구해 내야 할 것이다»**(김 일성 선집 제 5 권, 16 페지).

농업 과학자들은 생산 현실에 들어 가서 농민들과 같이 일하며 생활하는 과정에서 걸린 문제를 찾아 연구 과제로 설정하며 그 연구 사업의 목적과 의의 및 그의 수행 방법을 생산자들에게 구체적으로 알려 주고 그들을 연구 사업에 적극 인입하고 자기의 로동을 통하여 직접 연구 과제를 완성함으로써 현실에 맞는 연구 사업을 진행할 수 있다.

농업 과학자, 기술자들이 생산 현실에 들어 감으로써 선조들이 오랜 력사적 시기를 걸쳐서 이루어 놓은 우수한 영농 전통과 고귀한 영농 기술을 전면적으로 연구하고 계승 발전시킬 수 있으며 구체적 현실에 맞는 과학 연구 사업을 진행할 수 있다.

매개 지방에서 오랜 기간 내려 오는 영농 방법은 우리 선조들이 수천 년을 두고 대대손손 내려 오면서 거듭되는 실패와 우여곡절을 통하여 그 지대의 자연 기후 풍토 조건에 맞게 이루어 놓은 영농 경험의 총화이며 여기에는 일정한 과학적 근거들이 있다. 우리 선조들이 바람이 심한 강령과 옹진 지방에서 옥수수를 심지 않고 고구마를 많이 심은 것이나 강우량이 많은 세포, 평강 지대에서 밭'이랑을 넓게 한 것 등은 이러한 실례로 된다. 그러므로 우리 과학자, 기술자들은 고전 농법과 농민들이 이룩한 선진 영농 경험을 과소 평가할 것이 아니라 그를 잘 살려서 계승하고 여기에 새로운 과학 기술을 안받침하여 현실적인 영농 조건에 부합되게 그것을 더욱 발전시켜야 하며 완성시켜야 한다.

농업 과학이 농업 생산의 구체적 조건에 맞게 더 잘 복무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정밀 시험과 생산 시험을 호상 유기적으로 결합하여 종합적 견지에서 연구하는 것이 중요하다.

종합적 연구를 통해서만 생산 도입에서 제기될 수 있는 것들을 해명하며 과학 연구 사업에서 정확성을 보장할 수 있다.

농업 과학 연구 사업은 지방적 특성을 옳게 타산한 기초 우에서 실험실적 연구와 정밀 포장 시험을 진행하고 생산 시험을 거쳐서 동식물의 생장 발육

계단과 그에 따르는 기술 공정의 요구가 일치되도록 하여야 한다.

농업 생산 과정은 파종으로부터 수확에 이르기까지 부단히 련결되여 있으며 그 생산물은 개별적 공정들의 종합적 련계로써 이루어진다.

그러므로 모 육성 시험과 파종량 시험, 재식 밀도 시험, 시비량과 시비 방법 시험 등에 대한 개별적인 연구 사업도 반드시 종합적인 련관 속에서 고찰되여야 하며 또한 한 부문의 연구 결과가 다른 부문에 미치게 될 영향과 지역적 조건에 따르는 법칙성들이 동시에 해명되여야 한다.

농업 과학에서는 그의 기본 사명에 부합되게 포장 시험을 정확히 진행하는 것이 중요하다. 실험실적 연구는 매개 생산 요인들의 작용을 인공적으로 지어준 조건에서 농업 과학의 리론적 기초를 수립하는 중요한 단계로 된다. 그러나 실험실적 연구에서 얻어 낸 법칙성은 정밀 포장 시험과 생산 시험을 통하여 검증되지 않고서는 그 리론의 정확성과 보편성을 확증할 수 없으며 생산에 도입할 수도 없다.

포장 시험은 농업 과학 연구의 중요한 구성 부분이며 과학의 성과를 생산에 도입하는 고리이며 농업 과학이 생산을 위하여 복무하는 길이다.

특히 생산 시험은 농업 과학의 개별적인 성과들을 생산에 도입하는 과정에서 제기되는 문제들을 종합적으로 해결하며 농사에 경험이 많은 농민들과 기술자들을 이에 광범히 인입하여 그들의 지혜를 동원하는 한편 그들에게 실물을 통하여 선진 과학 기술을 배워 주고 그에 대한 신심과 자각성을 높여 줄 수 있게 한다.

그러므로 우리 과학자, 기술자들은 시험 연구 사업을 대중화할 데 대한 당의 방침에 근거하여 각종 시험 포전을 생산 현장에 설치하고 대중적인 시험 연구 사업을 진행하여야 한다.

새로운 과학 연구의 성과와 영농 기술을 생산에 도입함에 있어서는 반드시 5 년 이상의 시험 단계를 거쳐 그것도 기후 풍토 조건이 각이한 곳에서 여러 번 시험하여 그 우월성을 과학적으로 검증한 기초 우에서 하는 것이 중요하며 또한 농민들이 그 유리성을 체득하고 새 기술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는 기초 우에서 하는 것이 중요하다.

아무리 훌륭한 과학 기술 성과도 생산 시험을 거치지 않고서는 공고한 것으로 될 수 없으며 농민들 자신이 그 유리성을 파악하지 못할 때에는 생산에 도입하여 실지로 높은 성과를 기대할 수 없다.

농업 생산에서 당면하게 제기되는 과학 기술적 문제들을 해결하는 데 힘을 기울이면서 동시에 우리 나라 사회주의 농촌 경리를 전망성 있게 발전시키기 위하여 새로운 과학 분야를 개척하고 최신 과학 기술의 성과를 농업 생산에 광범히 도입하며 중요한 기초 리론들을 적극 발전시켜야 한다.

우리가 생산 실천에서 제기되는 당면한 문제에 힘을 집중하여야 한다고 하여 우리 나라 농촌 경리 발전에서 전망적 의의를 가지는 기초 리론을 과소 평가해서는 안 된다. 이것은 실천에서 리론의 의의를 무시하는 결과를 가져 오며 결국 경험주의에 빠지게 된다. 농업 과학 리론은 농업 생산 실천의 단순한 집계가 아니며 과학적인 추상을 통하여 더욱 심화 발전된다. 기초 리론 연구는 당장 농업 생산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 못 하나 농업 과학의 장래 발전을 위한 밑천으로 된다. 그 뿐 아니라 농업 생산에서 아직 과학의 영향이 미치지 못 하고 있는 새로운 분야들을 개척함으로써 농업 생산에 복무하게 된다. 당면한 문제의 연구도 기초 리론에 의하여 안받침될 때에 비로소 공고한 것으로 된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이미 기초가 축성된 동식물의 생태와 생리 및 병리 부문을 계속 연구하며 특히 농작물의 발육 생리와 영양 및 수분, 광을 비롯한 대

사 생리 등 응용 생리 부문 연구 사업
은 강화하여야 한다. 또한 유전 부문
은 더욱 발전시키며 동식물의 특성에
기초하여 생산성이 높은 품종을 목적
지향성 있게 개량하며 육종 부문에서
제기되는 방법론적 문제를 부단히 완성
시키며 기타 자연 과학이 달성한 성과
들을 농업 과학 연구 사업의 발전과 농
업 생산에 직접 리용하기 위한 연구 사
업을 강화하여야 한다.

이리 하여 우리 나라의 농업 과학을
최단 기간 내에 세계적 수준에 도달하
도록 하여야 한다.

* *

농업 과학이 농업 생산에 더 잘 복무
하기 위해서는 농업 과학자, 기술자들이
자신을 혁명화하며 농업 생산을 직접
책임지는 립장에 튼튼히 서야 한다.

우리 농업 과학자들은 단순한 학자인
것이 아니라 간고한 혁명 실천 투쟁에
서 교양되고 단련된 당의 붉은 전사
이며 사회주의 농촌 건설의 믿음직한
역군이다.

우리 과학자, 기술자들이 자신을 로동
계급의 혁명 사상으로 철저히 무장할
때 높은 책임성을 가지고 당과 인민 앞
에 지닌 영예로운 임무를 다하기 위하
여 정력적으로 더욱 완강히 투쟁하게
될 것이며 과학 연구 사업에서 높은
성과를 달성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진심로 당과 인민을 위하여 나라를
위하여 일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의 명
예나 보수를 위하여 일하는 사람은 생
산에서 긴절하게 해결을 기다리는 문제
를 연구하지 않고 취미주의적으로 부차
적인 문제를 가지고 시간을 보내게 되
며 일단 설정된 연구 과제도 끝까지 수
행하지 않고 중도반단하게 되며 그것
을 생산에 도입할 때까지 완전히 책임
지지 않게 된다.

만약 농업 과학자들이 공명주의에 사
로잡히게 되면 국가 과제 수행에 전력
을 다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의 명예와
출세를 위하여 아직 완성되지도 않았거
나 경제적 효과성이 없는 연구 결과를
생산에 도입하려고 서두르게 되며 있는
지식과 경험을 허심하게 서로 나누지
않고 자기의 《소총명》만을 내세우면서
남의 성과를 존중하지 않게 된다.

그러므로 우리의 농업 과학자, 기술자
들은 자신의 낡은 사상 잔재를 철저히
극복하며 로동 계급의 혁명 사상으로,
공산주의 사상으로 무장하며 농업 생산
의 벅찬 현실 속에 들어 가서 당과 인
민이 아파하는 당면한 문제들을 해결하
기 위하여 당의 붉은 과학자답게, 혁명
가답게 헌신 분투하여야 한다.

우리의 농업 과학자들이 당과 인민을
위하여 충실히 복무하기 위해서는 자신
의 과학 리론 수준을 제고하여야 한다.
과학 연구 사업은 창조적 사업으로서
과학 지식으로 튼튼히 무장하지 않고서
는 훌륭한 성과를 기대할 수 없다. 그
러므로 농업 과학자들은 혁명적 학풍을
수립하고 완강하고 인내성 있게 과학적
진리를 탐구하여야 한다.

농업 과학이 농업 생산에 더 잘 복무
하기 위해서는 농업 과학 연구 사업에
대한 지도에서 청산리 방법을 철저히
관철시키며 전국의 농업 과학 연구 사
업에 대한 통일적인 지도 체계를 확립
하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농업 과학자들의 준비 정도와
재능 등을 고려하여 그들을 적재 적소
에 배치하고 고착시켜 한 부문을 전공
시키며 그들을 타사업에 동원시키거나
행정화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농업 과학 연구 사업에서 필요
한 모든 물질 기술적 조건들을 제때에
보장하여 주도록 하여야 한다.

이리 하여 우리의 농업 과학자, 기술자
들이 자기의 모든 재능과 창조적 열성
을 발휘하여 사회주의 농촌 건설에서
제기되는 과학 기술적 문제들을 성과적
으로 해결하며 우리 나라 농업을 최단
기간 내에 높은 과학 기술적 토대 우에
올려 세우도록 하여야 한다.

남조선 반동 문예 평론의 독소를 반대하여

리 증 필

1

문예 평론은 독자와 작가들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 문학 예술과 현실과의 참된 관계를 지어 주는 데 있어서 실로 무거운 사명을 지니고 있다. 이로부터 문학 예술의 높은 발전을 이룩한 시대에는 언제나 평론의 선도적 역할이 동반되였으며 개별적 작가 예술인들에 의하여 창조된 긍정적 요소들과 민족 문학 예술의 우수한 유산들이 평론 활동에 의하여 옳바르게 계승되고 발전되여 왔다.

문예 평론의 사명이 이처럼 크기 때문에 예술 발전의 전 력사를 통하여 평론가들은 작가와 더불어 언제나 사회적 존경과 사랑의 대상으로 되여 왔다. 그러나 이것은 그들이 진보적 평론 활동의 길에 확고히 서서 자기들 앞에 부과된 력사적 사명을 옳게 다하였을 때에 있어서만 그러하다.

오늘 남조선 문학 예술의 상태는 이 문학 예술의 발전에 복무하여야 할 문예 평론이 그들 앞에 부과된 력사적 사명과 평론의 본질적 임무를 옳게 다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말해 주고 있다. 그들의 그릇된 주장은 남조선 문학 예술의 발전을 저해하고 있을 뿐 아니라 그 퇴폐성을 더욱 격증시키는 요인으로 되고 있다. 남조선에서 문학 예술의 급속한 개화를 위하여 응당 옳게 계승 발전시켜야 할 민족 문학의 빛나는 유산들이 반동 문예 평론에 의하여 외곡되고 있는 반면에 문학 예술의 참다운 발전과는 인연이 없는 구미 부르죠아 반동 문예 조류들이 광범히 류포되여 건전한 창조 정신을 마비시키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서 남조선에서는 인민 생활과는 인연이 먼 퇴페적인 내용들로 엮어진 문학 작품들이 대중의 사상 의식을 침식하고 전반적인 사회 생활을 더욱 어지럽히고 있다. 륜리와 도덕은 땅에 떨어지고 세기말적인 풍조가 온 남조선을 휩쓸고 있으며 《근친 상간》, 《육친 살상》을 비롯한 패륜, 패덕 행위와 범죄 사건들이 그 어느 때보다도 격증되고 있다.

그리 하여 오늘 남조선의 적지 않은 문학 예술 작품들은 사람들에게 투쟁 의욕을 북돋우어 주는 창조의 원천으로서가 아니라 퇴페적인 《미국식 생활 양식》을 부식시키고 절망과 염세주의를 고취하는 유해로운 존재로 되고 있다.

남조선 문학 예술이 이 지경에 이르게 된 근본 원인은 물론 미제의 남조선 강점으로 인한 사회 정치 생활의 부패와 괴뢰 정권의 반인민적인 문예 정책에 있다. 미제와 그 주구들의 극심한 탄압으로 지난 기간 남조선에서 진보적 경향의 문학 예술은 자유로운 발전의 길을 억제 당하여 왔고 민족 문화와 예술은 전반적으로 쇠퇴의 길을 걸어 왔다. 퇴페성의 근본 원인은 바로 여기에 있다.

이와 더불어 여기에서 문제로 되는 것은 미제와 그 주구들의 반인민적 문예 정책에 적극 추종하여 작가의 고상한 사명과 지조를 저버리고 반동 작품을 창작한 작가들의 그릇된 태도와 그

들의 창작 활동을 직접 선도한 문예 평론의 유해로운 주장과 설교인 것이다. 특히 남조선 문학 예술을 오늘의 지경으로 이끌어 간 데 있어서 반동 문예 정책을 직접 대변해 나선 문예 평론이 져야 할 책임이 큰 것이다.

지난 기간 남조선 문예 평론이 진실로 조국의 운명을 생각하고 민족 문학 예술의 장래 발전을 책임지려는 립장에서 있었다고 하면 남조선 문학 예술이 과연 오늘의 지경에 이르렀겠는가? 남조선의 적지 않은 문예 평론가들은 이러한 립장에 서기는 고사하고 오히려 반동 통치배들의 반인민적 요구에 추종하여 문학 예술을 참된 발전의 길에서 리탈시키는 심히 그릇된 주장을 일삼아 왔으며 또 의연히 그러한 길을 걸어 가고 있다.

그들은 과연 무엇을 주장했으며 그들이 노리는 목적은 어디에 있는가? 반동 문예 평론의 각이한 주장들의 본질은 한마디로 그들의 반인민적인 계급적 립장으로부터 출발하여 문학 예술의 참된 인식 교양적 기능을 말살하려는 하나의 총적인 목적을 추구하고 있는 데 있다. 그들은 이러한 목적 밑에서 이미 파산된 지 오랜 《순수 예술》이니, 《예술의 초계급성》이니 하는 낡아 빠진 구호를 들고 문학 예술을 현실에서 분리하고 그것을 《절대적 진리》의 표현으로, 주관적 환상의 《순수한 구조물》로 간주하며 예술에서의 사회적 내용을 거부하고 현실 생활에 대한 작가의 지성적인 판단을 전적으로 배격하는 데로 나아가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립장은 나아가서 남조선 반동 문예 평론의 활동 방식의 반인민적 특성을 규정해 주고 있다. 그들은 문학 작품을 분석함에 있어서 거기에 담겨진 내용이 얼마나 진실하고 또 그것이 사회 생활에 어떠한 영향을 줄 것인가에는 관계 없이 작가의 허무맹랑한 주관적 환상을 체계화하는 것을 평론 활동의 주되는 과업으로 내세우고 있다. 따라서 그들에게 있어서는 작품의 진실성 여부는 문제로 되지 않는다. 오히려 그들은 문학 예술이 현실 생활을 진실하게 반영하는 것을 반대하면서 그것이 현실에서 멀리 떨어져서 아무도 믿을 수 없는 황당한 거짓을 일삼을 것을 설교하기까지 하는 것이다.

남조선의 한 평론가는 《시를 찾아서》라는 글에서 이 세상에 한 편의 시를 태여나게 하는 것은 실생활과는 전혀 무관계한 《거짓》에 있다고 전제하고 《이러한 종류의 거짓은 그것이 더욱 지독한 거짓일수록 그것을 받아 들이는 립장에 자리한 사람을 기쁘게 해 주고 황홀하게 해 주는 것이다》라고 쓰고 있다. 그는 다음과 같이 계속한다: 《시인이란 인간은 가장 멋들어진 미치광이인 것이다…멋들어진·미치광이기 때문에 마치 미치광이가 아닌 것 같은 미치광이다》.

실로 허무맹랑한 주장이 아닐 수 없다.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주장이 단순히 개별적 평론가들의 기형적인 취미를 반영하고 있다는 데만 있지 않다. 중요한 것은 그것이 오늘 남조선 문학 예술에 끼치는 그 심대한 해독성에 있는 것이다. 문학 예술의 발전을 선도하는 문예 평론이 이러할진대 그 영향을 받는 문학 예술은 어데로 갈 것이며 또 그것이 광범한 독자 대중을 무엇으로 교양할 것인가?

남조선의 작가 예술인들은 문학 예술이 사람들에게 아무런 희망도 리상도 안겨 줄 수 없는 황당한 거짓만을 일삼게 하려는 반동 문예 평론의 설교가 결코 미학적 관점의 문제만이 아니라는 것을 똑똑히 깨달아야 할 것이다. 《순수 예술》의 구호는 그 자체가 반동적인 사회 정치적 견해를 대변하는 것이며 근로 계급의 리상과 념원을 반영하는 건전한 문학 예술의 발전을 막는 흉악한 장애물인 것이다. 이러한 사실은 남조선 반동 문예 평론이 《순수》의 구호 밑에 문학 예술에 요구하는 내용을 고찰할 때 더욱 명백해진다.

2

남조선 반동 문예 평론이 문학 예술

작품을 분석하면서 가장 많이 띠드는 측면의 하나는 무서운 불행 속에서 허덕이는 인간의 절망, 허무, 죽음에 대한 주제이다.

이에 대한 설교는 일반적으로 남조선에 광범히 류포되고 있는 실존주의를 사상 미학적 기초로 하고 있다. 남조선의 일부 평론가들은 오늘날 더욱 심각화되고 있는 제국주의의 위기에 직면하여 극도의 절망과 허무에 빠져 있는 통치 계급의 정신적 체험이 마치 전 인류의 체험이고 인간의 속성인듯이 주장하면서 절망과 허무, 죽음을 합리화하기 위한 각종 궤변을 꾸며 내고 있다.

그리 하여 그들은 문학 예술이 이러한 주제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인간의 불행, 《범죄 의식》, 병'적 심리, 《비극 의식》과 같은 것을 중요한 묘사 대상으로 삼아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남조선의 한 평론가는 극도의 허무주의와 절망감에 빠져서 온갖 범죄 행위를 감행하는 인간 군상을 그린 장편 소설 《나무들 비탈에 서다》를 찬양하여 다음과 같이 쓰고 있다: 《불행의, 악의, 추의 요소를 창조하는 것이야말로 숙명적이며 생리적인 문학의 매력이 아닌가, 영원의 이름으로 문학이 터전한 곳, 거기 아니면 숨쉴 수 없고 살맛 없는 인간적 현실의 필경의 의미, 그 곳이야말로 항상 인간의 소매를 끄는 그 비극이라는 뜰이다》. 《인간에 대해서 불행은 무서운 흡혈귀이지만 그것 없이 인간은 마치 꽃발 우거진 선인의 나라처럼 살맛 없고 무의미하기만 한, 이른바 불행은 문학에 있어서 그러하듯 생의 불가결한 조건이다》.

불행을 문학과 생의 불가결한 조건이라고 하며 더우기 불행이 아니면 《숨쉴 수 없고 살맛 없》다고 하는 상기 평론가는 그렇게 주장함으로써 인간의 진정한 가치를 부정하고 남조선 인민들의 전례 없는 고통과 불행을 오히려 찬미하며 그들에게 들씌워진 그 모든 재난을 숙명적인 것으로 설교하고 있는 것이다. 상기 평론가의 이와 같은 설교는 그가 얼마나 반인민적인 미학관에 사로잡혀 있는가 하는 것을 말해 주고 있다.

남조선 문학에서 비극적 소재가 중요한 묘사 대상으로 된다는 것은 더 말할 필요도 없다. 그러나 남조선 문학이 비극적 소재를 취급해야 하는 것은 단순히 그 자체를 확인하거나 더우기 그것을 찬미하고 절망과 허무를 고취하기 위해서가 아닐 것이다. 남조선 문학이 비극적 소재를 다뤄야 하는 진정한 의의는 그러한 비극을 빚어 내는 사회적 근원을 사람들에게 보여 주고 그것을 제거하기 위하여 투쟁하도록 그들을 고무하는 데 있는 것이다. 그렇게 함으로써 그것은 사람들에게 참된 행복의 길을 가리켜 주어야 한다. 바로 여기에 문학의 고상한 사명과 기능이 있는 것이다.

문학이 인간의 비극을 숙명적인 것으로 확인하고 찬미해야 한다고 하는 남조선 반동 평론의 설교는 남조선 문학의 이러한 사명과 기능을 말살하려는 시도에 불과한 것이다. 인민 대중의 정치성과 혁명성을 극도로 두려워하는 남조선 반동 평론가들은 사회의 진보와 인류의 행복을 위한 대중의 투쟁을 약화시키기 위하여 인간이 불행과 절망에서 영원히 벗어 날 수 없다는 것을 주장하고 있다.

그들은 인간이 영원한 불행과 절망 속에서 몸부림치다가 죽음을 택함으로써만 거기에서 해방될 수 있다고 말하는 것이다. 여기로부터 그들은 죽음, 살인을 적극 찬미하고 합리화하고 있다.

이미 우에서 지적한 장편 소설 《나무들 비탈에 서다》에서 동호라는 인물은 어떤 질투의 동기에서 자기와 치정 관계를 맺고 있던 옥주라는 녀자를 죽여 버린다. 그 후 그는 생활에서 극도의 권태증을 느끼다가 자기도 죽어 버린다.

이에 대하여 상기 평론가는 다음과 같이 이들의 죽음과 살인을 합리화하고 있다: 《동호는 동호 스스로의 내'적 유기체적 조화를 보존하기 위해서 옥주의 유기체를 죽여야 했고 또 스스로의 유기체를 죽여야 했다…독자는 동호의

죽음에 대해서 어떤 높은 차원에 있어서의, 지성의 령역이 아닌 다른 령역에 있어서의 질서감을 가지면서 내질적인 타당성을 판단이 아니라 경험한다》.

상기 평론가는 죽음과 살인이 육체의 조화를 보존하기 위한 본능적 행위이며 지성의 판단으로써는 그것에 하등의 의미도 주지 못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따라서 그는 문학이 보다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할 문제는 지성적인 것이 아니고 오히려 지성이 《그 앞에서 말을 끊고 정지하는 육체의 의미》 즉 죽음의 본능을 감지하고 그 조화를 실현해 주는 데 있다고 하는 것이다.

이것이 오늘날 매일과 같이 자살과 살인을 빚어 내는 남조선 현실을 놓고 평론가가 하는 말이다. 그들이 문학 예술에서의 죽음과 살인의 묘사를 그토록 찬미해 나서는 의도의 본질은 너무나도 명백하다. 생활고에 시달리다 못해 일가족이 집단 자살을 하고 불순한 치정 관계 때문에 서로 살인하는 남조선 사회의 그 모든 모순을 인간의 육체적 본능에 귀착시키는 반동 평론은 그렇게 함으로써 사회적 모순을 똑바로 볼 수 없도록 독자들과 작가들의 사고력을 마비시키고 남조선 문학을 더욱더 무서운 범죄의 길로 이끌어 가고 있는 것이다.

《순수》의 이름 밑에 남조선 반동 문예 평론이 선교하는 또하나의 측면은 색정주의에 대한 주제이다.

이것은 일반적으로 프로이드주의 미학을 기초로 하고 있다. 색정주의를 설교하는 남조선의 일부 평론가들은 예술 작품을 예술가의 성'적 욕망의 표현이라고 하며 예술가의 창조적 환상의 근원이 성'적 욕망에 있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여기로부터 그들은 문학 예술이 무제한한 색정 세계를 묘사할 것을 요구하면서 인간 관계를 단순한 동물적 관계로 귀착시키고 모든 기성 도덕을 전면적으로 거부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그들은 현대의 륜리관이 온갖 비극의 원인이 된다고 하면서 남조선 인민의 가정적 비극과 사회악의 진정한 근원을 호도하고 있다.

남조선의 한 평론가가 《근친 상간》을 주제로 한 소설 《원형의 전설》을 합리화한 《소설의 방법》이라는 글에서 오늘 남조선 인민이 무서운 비극을 맛보는 것은 그들이 현대의 륜리와 문화의 노예이기 때문이며 따라서 그들을 비극에서 해방시키기 위해서는 인류의 도덕과 문화를 파괴해 버리고 인간 행동에서 성'적 본능을 전'적으로 해방시켜야 한다고 주장한 것은 이에 대한 로골적인 실례로 된다.

남조선 반동 문예 평론이 문학 예술에서의 색정주의를 찬미해 나서는 것은 결국 그것으로 인민 대중을 유혹하고 그들의 모든 정력과 사색을 성'적 방종에 허비케 함으로써 남조선에서 날로 격화되고 있는 사회적 투쟁을 제거해 보려는 시도와 관련되여 있는 것이다. 그들은 이러한 시도 밑에 남조선 반동 문학이 로골적인 색정 세계를 묘사하는 것을 적극 찬양하고 그것이 마치 인민 대중의 요구이며 인간 생활의 본질인 것처럼 합리화하고 있다.

남조선 평론가들은 문학 예술에 이런 요구를 제기하면서 자신들이 무엇을 위해서 누구의 넋으로 살고 있는가 하는 것을 다시 한 번 똑똑히 돌이켜 보아야 할 것이다. 인민이 초보적인 생존의 권리마저 빼앗기고 있는 그 땅 우에서 색정주의의 설교가 어찌 문학의 본신으로 될 수 있으며 또 그것이 인민 생활의 본질로, 그들의 절박한 요구로 될 수 있겠는가?

반대로 그것은 노예적 처지에서 해방되기 위하여 일떠선 남조선 인민의 생활과는 근본적으로 적대되며 오늘의 현실을 더욱 깊이 인식하여야 할 남조선 문학의 사명과도 전'적으로 배치된다. 남조선 문학이 진리를 탐구하고 진실로 대중의 요구를 실현하는 길은 색정주의의 묘사가 아니라 우리 인민이 조상 전래로 이어 받은 고상한 도덕 풍습과 로동 속에서 맺어지는 그들 호상간의 건실한 애정 관계를 밝히는 것이다. 남조

선 문학은 이러한 애정 관계를 묘사하면서 근로 인민의 높은 정신 도덕 세계를 보여 주어야 하며 인간의 참된 행복과 사회의 진보를 위하여 복무하는 진실한 애정 관계란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보여 주어야 한다. 나아가서 그것은 인간의 참다운 행복을 파괴하는 남조선 사회의 모순을 적발 폭로하고 사람들에게 새 생활 창조를 위한 힘과 기쁨과 지혜를 안겨 주어야 하는 것이다. 남조선 문학이 진실로 이렇게 되자면 그는 싸우는 인민의 생동한 전형을 창조하여야 하며 그들이 준엄한 현실에서 체험하는 정신 세계를 아무런 편견도 없이 똑바로 보여 주어야 할 것이다.

만일 문예 평론가의 직업이 개인적 취미에 의해서 하는 일이 아니라면 그리고 그들이 민주 문학의 개화 발전을 통해서 오늘의 세대 뿐만 아니라 미래의 세대들에게서까지도 잊힐 수 없는 이름으로 불리여지기를 원한다면 그들이 남조선 문학에 요구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이 한 길 뿐이다.

현실에 대한 파렴치한 외곡과 비인간적 본능 행위의 확대, 그 절대화가 《순수》의 이름으로 불린다면 그 《순수》야말로 가장 타기스러운 불순물이며 허위와 기만에 가득 차 있는 것이다.

남조선 반동 문예 평론의 이러한 기만성은 특히 그들의 《반공 문학》에 대한 선전에서 가장 로골적으로 드러나고 있다.

《반공 문학》에 대한 선전은 남조선 반동 문예 평론이 《순수》의 이름으로 인민 대중을 더는 설득할 수 없게 된 저들의 문학의 공허성을 보충하기 위해서 들고 나온 하나의 기만이다. 그것은 이미 우에서 본 《순수 예술》이니 《예술의 초계급성》이니 하는 구호와 결코 별개의 것이 아니다. 《순수 예술》은 그들이 이러한 가면 밑에 퇴폐적인 《미국식 문화》, 《미국식 생활 양식》을 선전하는 반동적 립장을 은폐하려는 것이였다면 《반공 문학》에 대한 설교와 찬미는 그러한 가면마저 벗어 던지고 로골적인 숭미 《반공》의 길에 들어 섰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것들은 본질에 있어서 다 동일한 목적을 추구하며 남조선 반동 문학에서 이 량자는 서로 결합되고 있다.

남조선의 일부 평론가들이 《반공 문학》을 조장시키기 위하여 들고 나오는 중요한 간판은 이른바 《인도주의》니 《개성의 자유》니 《민주주의》니 하는 기만적 구호이다. 그들은 인민이 극심한 기아와 무권리 속에서 신음하고 있는 남조선에는 그 어떤 자유가 있다 하고 인민이 온갖 착취와 억압에서 해방되여 나라의 진정한 주인이 된 공화국 북반부에는 자유가 없는듯이 묘사하고 있다. 그들은 무정부주의적 혼란과 략탈, 파쑈적 강압이 지배하는 남조선에는 그 어떤 민주주의라도 있는듯이 가장하면서 공화국 북반부 인민들의 정치적 통일 단결과 고상한 집단주의 정신의 발현을 자유의 결여로 묘사하고 있다.

남조선의 일부 평론가들은 이러한 허위 선전에 기초하여 공화국 북반부의 사회주의 제도를 엉터리 없이 중상 훼방한 《반공 문학》을 인도주의 문학으로 규정하고 저들의 문학이 마치 《개성의 해방》, 《인간의 존엄》을 위해 투쟁하고 있는듯이 가장하고 있다. 그들은 인도주의를 사회주의적 사실주의 문학과 대립시키면서 《사회주의적 사실주의 문학이 갖는 정치적 이데올로기적 방법이 인간성을 중압하기 때문에 이에 항의하는 이데올로기로서 제기되는 것이 인도주의였다》고 떠벌리고 있다. 그들은 이러한 기만으로써 억압과 착취를 반대하며 인류의 해방을 위하여 싸우는 공산주의자들의 전형을 창조한 사회주의적 사실주의 문학을 외곡하려 하는 것이다.

남조선의 일부 평론가들은 이렇게 하면서 가소롭게도 저들의 《반공》 선전을 민주적 량심과 결부시키고 있다. 그들은 맑스주의적 문예 평론이 문학의 계급성을 인정하는 것을 마치 민주의 분렬을 가져 오려는 시도인듯이 외곡하고 로골적인 숭미 《반공》 사상을 선전

하는 저들의 립장은 그 어떤 민족 단결의 《사상 도의적인 뒤받침》을 념원하는 것인듯이 가장하고 있는 것이다.

조국의 운명이나 민족의 장래 문제는 아랑곳하지 않고 미제의 세계주의 문학과 퇴폐적인 《미국식 문화》, 《미국식 생활 양식》을 선전 부식하는 데 혈안이 되여 있는 그런 평론가들의 행동에서 민족적 량심을 찾는다는 것은 헛된 일일 것이다. 그들은 결코 《민족적 량심》이니 《인도주의》니 하는 기만으로써 자신의 그릇된 립장을 은폐할 수는 없다. 승미 《반공 문학》에 대한 선전은 그들의 행동을 가리고 있던 모든 연막을 벗겨 버리고 미제의 사상적 사환'군으로서의 그들의 정체를 적나라하게 로출시켜 놓았다.

이상에서 보는 바와 같이 문학 예술의 진정한 인식 교양적 기능을 말살하려고 시도하면서 남조선의 일부 평론가들이 문학 예술에 요구하는 내용들이란 그 모두가 현실에 대한 극심한 외곡과 우연적이며 비본질적인 것에 대한 확대 묘사를 전제로 하고 있다. 이로부터 명백해지는 것은 그들이 작가들로 하여금 생활적 진실의 반영을 회피하고 허황한 공담만을 일삼게 함으로써 남조선 문학이 취급하는 생활 현상의 범위는 불가피하게 좁아지고 그 주제는 진부하지 않을 수 없게 된다는 사실이다. 그리하여 독자들에 대한 관능적 자극만을 모색하는 반동 문학이 더욱더 주제의 빈곤을 느끼지 않을 수 없게 되고 있다.

그런데 남조선의 일부 평론가들은 이것을 모면하려고 하면서 결국 문학 예술의 내용을 전'적으로 홀시하고 형식주의와 기교주의를 설교하는 데로 나아감으로써 남조선 작가 예술인들과 문학 예술을 더욱더 극심한 혼란에 빠뜨리고 있다. 이것은 응당한 귀결이다. 그들이 혼란에서 구출되기 위해서는 예술에 대한 근본적인 태도를 바로잡아야 하는 것이지 형식주의나 기교주의에 매달려서 거짓을 참으로 만들 수는 없는 것이다. 예술적 형식이 사상적 내용을 발로하는 작품의 내'적 조직이고 구도일진대 작가의 진정한 기교는 생활의 본질을 인민들이 리해할 수 있는 형식으로 구현하면서 그것을 통하여 심오한 사상적 내용을 담는 때에 있어서만 발휘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진실한 내용에 토대하지 않고서는 그 어떤 훌륭한 형식도 기교도 생각할 수 없다.

이와 관련하여 남조선의 평론가들과 작가 예술인들은 우리 선조들의 가르침을 똑바로 기억할 필요가 있다. 정 다산은 일찌기 다음과 같이 가르쳤다: 《문장이란 무엇인가. 학식이 속에 쌓인 다음에 문장이 밖으로 표현되는 것이 마치 고량진미가 장위에 들어 간 다음에 기름'기가 피부에 나타나며 좋은 술이 입에 들어 간 다음에 붉은 빛이 얼굴에 오르는 것과 같으니 문장을 어찌 밖으로부터 가져 올 것인가?》.

이것은 작가가 현실의 진실을 파악하지 못 하거나 반동 사상으로 인민을 기만하려고 한다면 그가 아무리 수완을 부린다고 하더라도 기형적인 형식 밖에 만들어 낼 수 없다는 것을 가르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사실을 고의적으로 외면하고 있는 남조선의 일부 평론가들은 우연적이며 비본질적인 생활 현상의 묘사를 강요하는 저들의 주장이 마치도 그 어떤 새로운 형식을 탐구하기 위한 시도인듯이 가장하면서 까다롭고 복잡한 언어 형식을 오히려 찬양하고 있다.

남조선의 한 평론가는 《한국의 현대시, 그 난해성에 대한 소고》라는 글에서 저들의 시가 까다로운 것은 시 자체가 까다로운 것이 아니라 그 시대가, 즉 현대인의 마음의 구조가 복잡한 데 그 원인이 있는 것이라고 하면서 언어적 희롱을 일삼는 반동시의 형식을 변호하고 있다.

시란 원래 거기에 담겨진 사상이 심오할수록 간결하고 선명한 것으로 특징적인 것이다. 반동시가 까다로운 것은 그 시의 사상이 공허하고 저렬한 데 있

는 것이지 결코 다른 데 있는 것은 아니다. 일부 평론가들은 저들이 처방하는 사상이 저렬하고 공허하기 때문에 고의적으로 난해한 언어적 형식에 매여 달릴 것을 요구하며 무의미한 기교주의를 찬미해 나서는 것이다.

그들의 그릇된 주장이 얼마나 유해로운 결과를 가져다 주는가 하는 것을 알기 위해서는 오늘의 남조선 문학을 잠간 살펴 보는 것만으로도 족하다.

최근 남조선 잡지들에는 실로 극심하게 형식을 희롱한 시와 소설들이 평론가의 《추천 후기》를 달고 등장하고 있다. 누구에게도 리해되지 않는 순간적 환상의 기록이 앞뒤도 없이 타렬된 소설이 조작되는가 하면 수'자와 암호만을 배렬해 놓은 시가 만들어지고 있는데 이런 현상을 놓고 일부 평론가들은 《의식의 흐름》이니 《영화 기법》이니 《앙띠 로망》이니 《언어의 모더니즘》이니 하는 말로써 그것을 적극 합리화하고 있을 뿐 아니라 저들의 문학이 《문학사 상 희한한 개화기》에 들어 섰다고까지 말하고 있다.

이것은 그들의 주장과는 반대로 남조선 반동 문학이 문학사 상 전례 없는 몰락기에 처해 있다는 것을 말해 주는 것이다. 그것은 일찌기 고리끼가 지적한 바와 같이 《현실에 대한 자기의 비정상적인 적대 관계와 또한 사실들과 현상들의 의미를 외곡하려는 자기의 시도가 단꺼번에는 폭로되지 않도록 자기의 사상을 은폐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형식주의를 리용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는 벌써 언어의 예술에 속하는 것이 아니라 사기술에 속하는 것이다》(《문학론》 4 권, 422 페지).

남조선의 일부 평론가들은 이런 사기술을 조장시킴으로써 남조선 문학의 형식 뿐만 아니라 사상적 내용 전반을 파탄시키고 민족 문학 예술의 발전 도상에 커다란 장애를 조성하고 있는 사실 앞에서 자신을 다시 한 번 똑똑히 돌이켜 보아야 할 것이다.

3

조국은 지금 준엄한 혁명 투쟁의 폭풍우 속에서 전진하고 있다. 모든 인민이, 온 민족이 한 걸음 한 걸음 폭풍우를 뚫고 력사의 새 언덕을 향하여 혁명이라는 수레를 밀어 가고 있다. 준엄한 혁명적 현실은 우리 민족 모두가 이 속에서 각자의 몫을 가지고 위대한 전진 운동에 보탬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 속에서 력사의 방관자로 남을 수 있는 권리는 아무도 가지고 있지 못 하다. 하물며 붓을 창으로 들고 인민 투쟁의, 민족 문학 건설의 선봉이 되여야 할 문예 평론가에게 있었어랴!

허나 우리는 유감스럽게도 남조선 문예 평론의 현 상태를 고찰하면서 그 속의 일부 평론가들이 력사의 단순한 방관자일 뿐 아니라 심히 그릇된 주장으로써 조국과 인민 앞에, 민족 문학 예술의 발전 도상에 실로 엄중한 후과를 끼치고 있다는 사실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이것은 한 강토 우에서 한 조상의 피'줄을 이어 받고 앞으로도 영원히 같이 살아야 할 겨레들의 가슴을 아프게 하지 않을 수 없는 사실이다.

전체 남조선 인민이, 온 민족이 끊어진 조국의 혈맥을 다시 잇기 위하여 미제와의 판가리 싸움에 일떠선 이 시각에 인민의 훌륭한 정신적 량식으로 되여야 할 남조선 문학이, 그 선도자인 문예 평론이 어찌하여 민족의 비운을 외면하고 자아 의식의 상아탑 속에 숨어야 하는가? 순진한 청년 학생들이 청와대 앞에서 쓰러지고 선량한 동포들이 파쑈의 아성과 맞서고 있는 이 시각에 창끝보다 날카로와야 할 문예 평론가의 붓끝이 어찌하여 염세주의와 색정주의를 추구해야 하는가?

오늘 남조선 문예 평론가들은 그들 자체의 똑바른 문학 정신을 가지고 새로운 립장에 들어 서야 할 준엄한 시련의 시각에 처하고 있다. 문제는 지난

시기 남조선의 적지 않은 문예 평론가들이 자체의 문학 정신, 문학적 주견을 가지고 있지 못 하였다는 데 있다. 그들은 자신들이 들고 나온 소위 미학적 주장이 과연 누구의 것이였는가를 랭정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그것들은 모두가 구미 자본주의 나라들에서 산생된 퇴페적인 《미학 리론》들을 민족 생활과는 관계 없이 맹목적으로 받아 들인 데 불과한 것들이 아닌가? 바로 그런 데로부터 그들의 활동에서 민족적인 것을 업수이 여기고 미제의 세계주의 문학을 로골적으로 선전하는 사환'군의 근성이 특징으로 되였던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다.

일부 평론가들이 얼마나 제 넋을 잃고 살아 왔는가 하는 것은 남조선의 한 평론가가 《국문학의 비동화성, 주로 불문학의 영향에 관하여》라는 글에서 현대는 문학의 국제적 교류 시대이니 한 언어의 특징에 도취함이 없이 외래어의 람용을 허용할 것과 류행 추종의 경박성을 운운하지 말고 외래 문화를 거침 없이 받아 들일 도량을 가져야 한다고 부르짖은 것만 보아도 충분히 짐작할 수 있다.

제 넋을 못 가지고 하는 이런 주책 없는 발언이 사람들을 크게 놀랠 수는 없다. 그러나 일부 사람들의 이런 발언이 남조선 문학 예술과 인민들의 의식 발전에 미치는 그 심대한 해독에 대해서 우리는 한시도 잊을 수 없다.

오늘 남조선의 진보적 평론가들과 작가들, 민족적 량심을 지닌 모든 문필 활동가들 앞에는 반동 평론이 퍼뜨려 놓은 독소를 반대하여 날카로운 필봉을 들어야 할 절박한 과업이 나서고 있다. 이것을 반대하지 않고서는 남조선에서 민족 문학 예술의 진정한 발전을 기대할 수 없다.

남조선 평론계에서 이러한 기운은 이미 자라나기 시작하였다. 일부 량심적인 평론가들은 진보적 평론을 추세우기 위한 정의의 필봉을 들고 미제의 세계주의 문학의 선전을 신랄히 폭로 규탄하고 있다.

남조선의 한 평론가는 《자유의 신화》라는 글에서 《미국식 생활 양식》을 신주처럼 떠받드는 한 평론가를 조소하여 다음과 같이 썼다: 《어떤 평론가는 길'거리를 걸어 가는 구두 발'자국 소리까지 서양 사람처럼 해야 한다고 하는데 어처구니 없는 노릇이다…이런 문학 정신은 본 고장으로 아주 수출해 버리는 것이 좋을 것이다. 서양 사람이 못된 한국의 지성인(?)들을 말이다》.

이 필자는 퇴페적인 《순수 문학》에 대처한 인민적 문학을 추세워야 한다고 하면서 진보적 작가들을 적극 고무 추동해 주고 있다.

극심한 반동의 울타리를 뚫고 울려 나오는 그들의 목소리는 아직 크지 못하나 정의를 위하여 진리를 말하려는 그들의 문학 정신은 암흑 속을 비쳐 주는 불꽃처럼 밝고도 희망차다. 이 불꽃이 조만간에 더욱 많은 작가들과 독자 대중의 심장의 눈을 밝혀 주리라는 것은 의심할 바 없다.

근 로 자 제 2 호 (루계 288 호)

편 집 위 원 회

발행소 • 근 로 자 사 주소 • 평양시 중구역 경상동
인쇄소 • 평양 종합 인쇄 공장
인 쇄 • 1966년 1월 17일 발행 • 1966년 1월 20일

ㄱ—6320 값 40 전

전 세계 로동자들은 단결하라!

근로자

3 호 2월 5일

평양 근로자사 1966

근로자

제 3 호 (289)

1966 년 2 월 (상)

전 세계 로동자들은 단결하라!

조선 로동당 중앙 위원회

기 관 지

(반 월 간)

차 례

청산리 교시는 사회주의 농촌 경리 운영의 지침이다

1

1960년 2월에 있은 김 일성 동지의 력사적인 청산리 교시는 농촌에서 사회주의 혁명이 승리한 이후 협동 경리 제도를 운영해 나감에 있어서 제기되는 일련의 리론 실천적 문제들에 정확한 답변을 준 것으로 하여 우리 나라 사회주의 농촌 건설을 추진시키는 강력한 지침으로 되고 있다.

다 아는 바와 같이 농촌 경리의 사회주의적 개조가 완성된 후 맑스-레닌주의 당들 앞에 나서는 가장 중요한 문제의 하나는 농촌의 지배적인 경리 형태인 사회주의적 협동 경리의 관리 운영 문제를 성과적으로 해결하는 것이다. 이 문제의 정확한 해결은 농촌에 확립된 사회주의 농촌 경리 제도를 공고히 하는 데 비상히 큰 영향을 미치며 농업 생산력의 발전을 강력히 추동한다.

사회주의 농촌 경리를 정확히 관리 운영하여 나간다는 것은 참으로 어렵고 복잡한 문제이다. 농촌 경리 발전의 사회주의적 단계는 협동 경리가 지배적인 것으로 특징 지어지고 있으며 도시와 농촌 간의 차이가 소멸되는 공산주의적 발전 단계와는 구별된다. 사회주의 농촌 경리 발전의 현 단계에서는 아직도 과거 사회에서 물려 받은 기술, 문화, 사상 분야에서의 락후성이 완전히 극복되지 못 하였으며 이로 인하여 또한 경제 관리와 소유 분야에서 도시와 농촌 간의 차이가 남아 있다.

그 뿐 아니라 농촌 경리는 레닌이 지적한 바와 같이 절대로 제거할 수 없는 자연적 계절적 제약성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모든 사정으로 하여 사회주의 농촌 경리의 관리 운영에서 제기되는 모든 문제들; 계획화로부터 시작하여 로력 관리와 사회주의 분배 원칙의 관철, 기술 및 설비 관리, 후방 관리, 재정 관리 등은 전 인민적 소유가 지배하고 자연의 영향을 적게 받는 공업에서의 그것에 비해 대단히 어렵고 복잡한 사업으로 되며 그것들은 이 분야에 대한 도시와 로동 계급 측으로부터의 지원을 백방으로 강화하는 동시에 농촌 경리의 모든 특징을 정확히 타산한 기초 우에서 해결될 때 응당한 성과를 이룩할 수 있다. 사회주의 농촌 경리의 관리 운영이 대단히 어렵고 복잡한 사업으로 되는 것은 그의 모든 내용이 협동화 이후 비로소 처음으로 제기되는 것들로서 사회주의 농촌 건설의 실천 과정을 통하여 부단히 보충되고 완성되여야 할 문제들이라는 사정과도 관련되여 있다.

청산리 교시가 가지는 거대한 리론 실천적 의의는 바로 사회주의 농업 발전의 현 단계에서 농촌 경리의 관리 운영을 위한 이렇게 어렵고 복잡한 문제들을 사회주의 경리 운영의 일반적 원칙에 기초하여 정확히 해결할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들을 명시하였다는 데 있다.

김 일성 동지는 청산리를 현지 지도할 당시 사회주의 농촌 경리의 정확한 운영을 위하여 제시한 중심적인 과업들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우리는 청산리를 지도할 때… 협동 농장들에서 경리를 계획적으로 운영하고 농사'일에 힘을 집중하며 로력 조직을 개선하여 로력 랑비를 퇴치하며 로동의 질과 량에 의한 사회주의 분배 원칙을 정확히 관철하여 농민들의 생산 열의를 더욱 북돋아 줄 구체적인 과업을 주었다》.

청산리 교시에서는;

첫째로, 협동 농장의 계획적인 관리

운영 수준을 높일 데 대한 구체적인 과업들이 제시되였다. 청산리 교시에서는 협동 농장들에서 계획 로의 사업을 가장 중요한 일로 여기고 이 사업에 농사의 선생인 농장원 대중을 광범히 참가시키며, 계획을 책임 일'군들이 직접 틀어 쥐고 자기 지대의 특성과 농장의 구체적인 실태, 농장원들의 기술 기능 수준과 그들의 취미와 정서 등까지 잘 타산하여 작성하며, 이렇게 한 번 세운 계획은 누구든지 마음 대로 변경시킬 수 없고 모든 사람들이 거기에 엄격히 의거하여 사업할 것 등이 중요하게 강조되였다.

협동 농장의 계획화 사업을 개선 강화하기 위하여 제시된 이 과업들에는 사회주의 경제의 계획화에서 군중 로선을 관철할 데 대한 사상이 관통되여 있다. 계획화에서 군중 로선을 관철하는 것은 계획을 객관적 현실에 부합되는 과학적이고 현실적인 것으로 되게 하며 그것을 끝까지 관철할 수 있게 하는 담보이다.

둘째로, 협동 농장들에서 모든 력량, 특히 장정 로력을 농사'일에 집중하며 농촌 로력 관리 사업을 현실 발전에 따라 세울 데 대한 과업이 제시되였다.

모든 힘을 농사'일에 돌릴 데 대한 이 교시는 협동 농장들로 하여금 자기의 기본 사명에 상응하게 생산 및 로동 조직에서 중심 고리를 튼튼히 틀어 쥐고 알곡과 축산, 알곡 경리와 기타 부업 경리와의 호상 관계를 정확히 설정함으로써 알곡 생산을 위주로 하면서 농촌 경리의 기타 부문들을 다각적으로 발전시킬 데 대한 우리 당의 방침을 철저히 관철할 수 있게 한다.

생산 및 로동 조직에서 중심 고리를 틀어 쥐고 모든 힘을 농사'일에 집중할 데 대한 청산리 교시에서는 작업반을 합리적으로 조직하고 분조의 역할을 높일 데 대한 문제가 또한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김 일성 동지는 청산리 현지 지도 당시 협동 농장들에서 작업반을 지나치게 크게 하려는 경향을 경계하고 그 규모를 합리적으로 설정하며 알곡 생산을 위주로 하는 작업반 외의 일체 비농업적 성격을 띠는 작업반을 없애며 분조의 역할을 높일 데 대하여 중요하게 강조하였다. 이 교시는 사실 상 농업 로동 조직의 형태와 규모를 옳게 설정할 데 대한 문제로서 대규모적인 협동 경리의 관리 운영에서 결합 로동의 우월성을 최대한으로 발휘시키며 농촌의 모든 로력, 특히 장정 로력을 농사'일에 집중할 수 있게 하는 데서 거대한 리론 실천적 의의를 가진다.

세째로, 협동 농장들에서 사회주의 분배 원칙을 철저히 관철하여 농민들의 생산 열의를 더욱 북돋아 줄 데 대한 문제가 강조되였다.

청산리 교시에서는 사회주의 하에서 로동에 의한 분배 원칙의 준수가 가지는 중요성으로부터 출발하여 협동 농장들에서 로동 지출에 대한 평가 척도와 분배 척도로서의 로력일의 2중적 기능을 높이고 농민들의 생산 열의를 더욱 북돋아 줄 수 있는 물질적 자극의 공간들을 옳게 선택하고 합리적으로 리용할 데 대하여서와 그것을 실현할 수 있는 방도들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였다.

청산리 교시에서 사회주의 분배 원칙의 철저한 관철을 위하여 제시된 중요한 문제들—협동 농장들에서 로력일 평가의 중심을 주요한 농산 작업; 이를테면 밭갈이, 모내기, 김매기 등에 두고 로력일 평가 그루빠를 조직하여 로력일 평가를 집체적으로 진행하며, 작업 등급과 그에 따르는 작업 정량을 과학적으로 작성하고 옳게 적용하며, 생산 계획을 작업반 별로 주고 그것을 초과한 몫은 작업반 성원들이 나누어 먹도록 우대제를 실시하는 등—은 모두다 협동 경리에서 로력일의 2중적 기능을 높이고 농민들의 생산 열의를 북돋아 주기 위한 공간들을 합리적으로 리용할 데 대한 문제들이다.

청산리 교시에서는 이 밖에도 농촌 경리의 기계화에서 현대적 농기계와 각종 중소 농기구들을 합리적으로 배합하며 협동 농장의 민주주의 관리 원칙을 관철

하며 농민들 속에서의 공산주의 교양을 강화할 데 대한 과업 등이 중요하게 강조되였다.

이리하여 청산리 교시에서 제시된 이 모든 과업은 오늘날 인민 경제의 전반적인 지도 관리와 함께 특히는 사회주의 농촌 경리의 정확한 운영을 위하여 우리 일'군들이 튼튼히 틀어 쥐고 나가야 할 근본 문제들로 된다. 그것은 실로 사회주의 농촌 경리 운영의 어느 개별적 시기 뿐 아니라 그 전 과정을 통하여 일관하게 견지되여야 할 지도 리론으로, 지침으로 된다.

청산리 교시가 있은 이후 우리 나라 농촌에서는 농업 생산력의 급속한 발전을 위한 더욱더 유리한 조건들이 조성되였다.

사회주의 농촌 문제에 관한 테제의 기본 원칙에 따라 농촌에서는 사상 혁명, 기술 혁명, 문화 혁명이 강력히 추진되고 있으며 전 당'적, 전 국가적, 전 인민적인 농촌 지원 사업이 대대적으로 전개되고 있으며 협동 농장들에 대한 국가적 지도가 강화되고 있다. 농촌에서 사회주의적 생산 관계는 더욱 공고화되였으며 농업 생산력의 발전을 위한 잠재력은 비상히 확대되였다. 청산리 교시가 있은 이후 최근 4 년 동안에만 하여도 우리의 농촌에는 1만 대 이상의 뜨락또르와 기타 수 많은 농기계들이 더 공급되였으며 근 12만 정보의 논 면적이 새로 늘어 났다.

우리 나라 농촌에 조성되고 있는 이러한 새로운 환경은 오늘 사회주의 농촌 경리의 운영을 개선 강화함에 있어서 근본적인 의의를 가지는 청산리 교시를 더욱 철저히 관철함으로써 농업 생산력 발전을 위한 온갖 유리한 조건과 가능성들을 최대한 효과적으로 리용할 것을 그 어느 때보다도 절실하게 요구하고 있다.

청산리 교시의 생활력은 날이 가고 해가 바뀔수록 더욱더 커지고 있으며 사람들의 심장을 더욱 튼튼히 틀어 잡고 있다.

농업 부문 지도 일'군들과 협동 농장 관리 일'군들이 농촌 사업에서 청산리 교시를 계속 철저히 관철하여 나갈 때 우리 나라에서 농업 생산력의 발전과 전반적인 사회주의 농촌 건설은 더욱 빨리 촉진될 것이다.

2

현시기 농촌 경리의 관리 운영에서 이상의 모든 과업들을 더욱 성과 있게 해결하기 위하여서는 김 일성 동지가 청산리 현지 지도에서 창조하고 그의 실천적 모범을 보여 준 청산리 방법을 철저히 관철하여야 한다. 사업 방법을 개선함이 없이는 농촌 경리의 관리 운영을 개선하기 위하여 제기되는 과업들을 해결할 수 없는 것이다.

김 일성 동지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농촌 경리를 추켜 세우기 위한 기본 방도는 농촌 사업에서 청산리 정신과 청산리 방법을 관철하는 데 있다. 이것은 청산리 지도에서 제기한 과업들을 철저히 집행하며 청산리 방법 대로 농촌 경리를 지도하고 관리 운영하여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농촌 경리를 청산리 방법 대로 지도하고 관리 운영한다는 것은 농업 생산을 완전히 책임지는 립장에서 아래 일'군들을 도와 주며 항상 현지에 내려가 현실 조건에 맞게 농업 생산을 지도하며 정치 사업, 사람과의 사업을 선행시키고 농민 대중의 자각적 열성과 창발성을 동원하여 제기된 과업의 수행을 보장한다는 것을 말한다.

이것은 한마디로 말하여 농촌 경리를 지도하고 관리 운영하는 데서 당의 군중 로선을 관철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농촌 경리에 대한 지도에서 군중 로선의 원칙, 청산리 방법의 요구를 관철함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것은 이 부문 일'군들의 당'적 책임성을 높이는 것이다.

농촌 경리 부문 일'군들은 인민 경제 2대 부문의 하나인 농업 부문을 완전히 책임지고 있으며 농촌 경리를 발전시켜 인민들의 식량 문제를 해결하고 경공업에 원료를 보장하여 인민 생활을 부단히 향상시키는 데 적극 기여하여야 할 영예로운 임무를 지니고 있다.

농촌 경리 부문 일'군들이 자기 임무를 어떻게 수행하는가, 이 임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어떻게 사업하는가에 따라서 전체 인민이 먹고 입는 문제의 해결 여부가 좌우되며 이것은 우리 혁명의 발전, 사회주의 건설의 촉진에 심각한 영향을 미친다.

농업 부문 일'군들의 당과 혁명 앞에서 지니고 있는 이러한 높은 책임성은 농민들, 인민 대중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복무하려는 철저한 혁명 사상, 높은 당성, 계급성, 인민성의 구체적 표현이다. 농사를 잘 짓고 농촌 살림살이를 알뜰히 꾸려 농민들과 인민 대중을 더 잘 살게 하려는 사상이 있어야 농업 생산을 완전히 책임지는 립장에서 그것을 부단히 장성시키기 위하여 머리를 쓰게 될 것이며 계획화를 비롯한 협동 농장의 관리 운영 사업을 더 잘 도와 주고 지도하기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게 될 것이다.

농촌 경리를 청산리 방법 대로 지도함에 있어서 제기되는 또하나의 중요한 문제는 이 부문의 모든 일'군들이 일을 실속 있게 하는 기풍을 확립하는 것이다.

일을 실속 있게 하기 위하여서는 객관 현실, 생산의 제 요인들에 대한 엄밀한 타산에 기초하여 실제적인 성과를 가져 올 수 있도록 일을 구체적으로, 과학적으로 조직하고 집행하여야 한다.

농촌 경리에 대한 지도 관리를 결정적으로 개선하기 위하여서는 현시기 국가의 전문적인 농업 지도 기관, 특히 군 협동 농장 경영 위원회들이 협동 농장들에 대한 기업적 지도를 더욱 실속 있게 보장하는 문제가 중요하다. 군 협동 농장 경영 위원회는 행정 기관이 아니라 공장 관리부와도 같이 협동 농장의 경영 활동을 직접 조직하고 지도하는 기업체이다. 협동 농장 경영 위원회들이 기업적 지도의 요구에 상응하게 협동 농장의 계획화는 물론 토지 관리, 기술 및 설비 관리, 로력 관리, 물자 관리, 재정 관리, 후방 관리 등 모든 면에 대한 책임적인 정확한 지도를 보장할 때만이 농장의 계획적인 관리 운영 수준을 한층더 높아질 수 있으며 농업 생산에서 산만성과 자연 발생성의 요소를 성과적으로 극복할 수 있다. 또한 이렇게 할 때만이 일'군들의 사업에서 주관주의, 형식주의, 허풍치기 등을 청산할 수 있다.

농촌 경리에 대한 기업적 지도를 실속 있게 진행하여야 하는 것은 우리 나라의 기후 풍토 상 특성과 관련하여 더욱 절실한 문제로 제기된다.

우리 나라의 기후 풍토 조건은 지대에 따라 다르고 골짜기마다 다르며 같은 포전이라 할지라도 필지마다 다르며 산 이 쪽이 다르고 산 저 쪽이 다르다. 농사 짓는 방법과 그 시기도 지방마다 각이하다.

해당 지방의 기후 풍토 상 특성을 구체적으로 조사 연구함이 없이 그 어떤 경종법과 작물, 농사 짓는 시기, 종자 등을 주관적 욕망에 의하여, 일률적으로 내려 먹이는 것으로써 농업 생산에서의 성과를 기대한다는 것은 너무나도 어리석은 일이다. 종자만 하더라도 적어도 한 5 년 동안 시험 단계를 거쳐 그의 성과가 확고해진 다음에 도입하지 않는다면 결코 좋은 결과를 가져 올 수 없는 것이다. 하물며 해당 지방의 실정에 맞지도 않는 작물과 농사 방법, 농사 짓는 시기들을 내려 먹여 가지고서야 어떻게 농업 생산을 발전시킬 수 있겠는가.

농사의 선생은 농민 대중이다.

한 지방에서 몇 대(代)를 두고 농사를 지어 왔으며 조상 전래의 우수한 농사 방법을 계승하고 있는 농민들은 자기 지방의 기후 풍토를 손'금 보듯이

꿰뚫고 있으며 어느 논과 어느 밭에는 무엇을, 언제, 어떻게 심고 어떻게 가꾸어야 하는가를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다. 제아무리 농사 기술에 정통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농민들에게 의거하지 않고서는 해당 지방의 기후 풍토와 그에 알맞는 농사 방법을 찾아 낼 수 없으며 조상 전래의 전통적인 우수한 영농 방법을 새로운 과학 기술적 토대 우에서 부단히 발전시킬 수 없다.

농민 대중에 철저히 의거하여 사업하는 것—이것은 군중 로선, 청산리 방법의 중요한 요구이다. 이것은 농촌 경리를 실속 있게 지도하고 그의 관리 운영을 대중화하며 농업 생산을 급속히 발전시킬 수 있게 하는 확고한 길이다.

농민들의 자각적 열성을 높이고 농장의 주인다운 태도를 배양할 수 있도록 정치 사업을 강화하는 것은 군중 로선을 관철하고 청산리 방법을 구현함에 있어서 제기되는 가장 중요한 요구이다.

근로자들의 사상 의식이 로동 생산 능률을 높이는 데서 결정적 역할을 한다는 김 일성 동지의 교시로부터 모든 사업에 정치 사업을 선행시켜야 할 필요성은 널리 알려져 있다. 그러나 농촌 사업 지도에서 정치 사업 선행이 가지는 중요성은 농업 생산 자체의 특성으로부터 특별히 강조되여야 한다.

농업 생산은 공업 생산과는 달리 자연 기후 조건의 영향을 많이 받는 생물체를 로동 대상으로 하고 있다. 농업 로동은 넓은 작업장을 대상으로 하는 만큼 항상 류동하면서 분산적으로 진행될 뿐 아니라 계절적으로 일시에 많은 로력이 요구되며 한 포전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일하게 되므로 매 농장원들이 수행한 작업의 결과 책임 한계를 분간하기 힘들며 로동의 결과가 즉시에 나타나지 않는다. 이런 조건에서 정치 사업을 강화하여 농장원들의 자각성을 높이는 것은 농업 생산을 증대시킴에 있어서 결정적 의의를 가진다.

특히 사회주의 분배 원칙, 물질적 관심의 원칙이 심화 발전되고 분조 도급제가 널리 적용되고 있는 실정에서 우리는 정치 사업을 강화하는 데 특별한 관심을 돌려야 한다. 정치 사업을 선행시키지 않고 물질적 관심 일면만을 강조한다면 농민들의 의식 속에 남아 있는 낡은 개인 리기주의 사상이 되살아 나 집단 경리의 발전에 지장을 줄 수도 있다.

정치 사업은 농업 부문에서 일하는 모든 일'군들이 하여야 하며 모든 사업에 선행되여 진행되여야 한다. 이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농민들에게 우리 당의 농업 정책과 사회주의 농촌 문제에 관한 테제의 본질을 정확히 인식시키는 동시에 사회주의적 애국주의 교양을 강화하는 것이다.

사회주의적 애국주의 교양은 근로자들로 하여금 사회주의 제도와 자기 조국을 사랑하고 나라의 주인으로서의 자각을 높이게 하며 물질적 부를 더 많이 생산할 뿐 아니라 그것을 알뜰히 관리하고 애호 절약하는 사상을 배양할 수 있게 하는 위력한 수단이다. 농민들 속에서 사회주의적 애국주의 교양을 강화해야 자기 조국과 자기 농장과 자기 마을을 사랑하는 사상으로 그들을 무장시킬 수 있으며 집단 로동에 열성적으로 참가하고 농장 살림살이와 국토 관리 사업에 깊은 관심을 돌리도록 고무할 수 있다.

농민들 속에서의 정치 사업, 농민들에 대한 사상 교양 사업은 현실 생활에서 제기되는 절실한 문제들을 해결하는 데 집중되여야 한다. 최근 년간 우리나라 농촌 주민의 구성에서는 현저한 변화가 일어 났다. 농촌에서는 그 곳을 지원해 나간 제대 군인과 로동자, 사무원들, 초중 및 기술 학교 졸업생들의 대렬이 급속히 확대되였다. 그리하여 농

촌에서 오래 동안 농사를 지어 온 농민들은 풍부한 농사 경험을 가지고 있으나 농촌에 새로 진출해 나간 사람들에게는 이것이 부족하다. 이러한 조건에서 농사를 잘 지으라고 일면적인 강조만 하여 가지고는 농업 생산에서 높은 성과를 거둘 수 없다.

중요한 것은 정치 사업, 사상 교양 사업을 통하여 농민들의 자각성과 주인다운 태도를 높이는 동시에 농사에 오랜 경험을 가진 농민들의 선봉적 역할을 제고하여 농촌에 새로 진출한 사람들에게 농사를 짓는 데 필요한 지식들; 례하면 해당 지방의 기후 풍토와 그에 적응한 농사 방법으로부터 거름 만드는 방법, 발갈이하는 방법, 소 관리 방법에 이르기까지를 구체적으로 배워 주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하여 한 고장에서 오래 동안 농사를 지어 온 농민들과 농촌에 새로 진출한 사람들이 서로 배우고 배워 주면서 일치 단결하고 모두가 다 농사 짓는 일에 정통하게 돼야 농업 생산에서 높은 성과를 가져 올 수 있는 것이다.

농민들의 자각성을 높이고 농장의 주인다운 태도를 배양하기 위한 정치 사업을 강화하면서 또한 농장의 민주주의 관리 원칙을 관철하는 것이 중요하다. 협동 농장의 주인은 농장원들이다. 농장원들을 농장의 관리 운영 사업에 광범히 인입하는 것은 그들의 열성과 주인다운 태도를 높이며 관리 일'군들의 형식주의, 관료주의, 주관주의 작풍을 근절할 수 있게 하는 중요한 방도로 된다.

농민들 속에서의 정치 사업을 강화하고 농장의 민주주의 관리 원칙을 관철하여 전체 농민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단합되고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자기 스스로가 일을 찾아서 하며 농장과 나라 살림살이를 알뜰히 꾸며 나가는 기풍이 서게 되여야 농촌 경리의 관리 운영에서 제기되는 모든 문제는 더욱 성과 있게 해결될 수 있다.

농촌에서의 당 사업을 강화하는 것—이것은 이상에서 제기된 모든 문제를 성과 있게 해결함에 있어서 튼튼히 틀어 쥐고 나가야 할 기본 고리이다.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농촌 당 조직들의 행정 경제 사업에 대한 키잡이 역할을 높이는 것이다. 농촌 당 조직들의 키잡이 역할을 높여야 행정 경제 기관 일'군들로 하여금 당이 제시한 방향에 기초하여 자기 사업을 책임적으로, 실속 있게 집행하도록 지도할 수 있으며 당 사업과 행정 경제 사업을 밀접히 결합시켜 나갈 수 있다.

농촌 당 조직들은 군 협동 농장 경영 위원회와 농장 관리 위원회들이 당의 농업 정책, 청산리 교시에서 제시된 과업들을 정확히 집행하도록 방향적 지도와 방법적 지도를 잘 하여야 하며 특히 매 영농 작업에 대한 공정별 키잡이를 정확히 보장하여야 한다.

농촌 당 조직들은 또한 농촌 지도 일'군들과 당원들의 당 생활을 강화하여 그들의 당성, 계급성, 인민성을 부단히 제고하고 그들 속에서 학습 기풍을 철저히 확립하는 동시에 그들에게 사업 방법과 작풍을 잘 가르쳐 주어야 한다.

이리 하여 농촌의 당 조직과 행정 경제 기관들이 당의 농업 정책과 청산리 교시에서 제시된 과업들을 집행하는 데 력량을 집중하고 모든 지도 일'군들이 군중 로선과 청산리 방법을 철저히 관철하게 될 때 농촌 경리를 지도하고 관리 운영하는 사업에서는 일대 전환이 일어 날 것이며 당 중앙 위원회 제 4 기 제 12 차 전원 회의가 농촌 경리 부문 앞에 제기한 과업들은 성과 있게 실현되게 될 것이다.

정치 사업과 경제 사업의 밀접한 결합을 위하여

정치 사업과 경제 사업의 결합은 당 활동의 법칙이다

정치 사업과 경제 사업을 결합시킬 데 대한 요구는 당이 주권을 잡은 이후에 제기되는 문제이다.

맑스-레닌주의 당이 주권을 잡은 이후에는 경제 건설이 중요한 혁명 과업으로 제기된다. 경제 건설을 잘 하여야 나라의 위력을 강화하고 혁명에서 이미 얻은 승리를 공고 발전시킬 수 있으며 인민들의 생활을 향상시킬 수 있다. 이러한 조건에서 정치 사업과 경제 사업을 결합시키는 문제는 경제 건설을 촉진시키기 위한 필수적 요구로 제기되지 않을 수 없다.

정치 사업이 경제 사업과 밀접히 결합되여야 하며 경제 사업이 당 조직 정치 사업에 의하여 안받침되여야 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것은 혁명 과업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당 사업이 어디까지나 당원들과 군중 속에 당의 경제 정책을 반복 침투시키고 그들을 경제 과업 수행에로 조직 동원하며 그 실행 정형을 부단히 검열하며 나타난 결함들을 제때에 고치고 당 정책을 철저히 관철하도록 끝까지 밀고 나가는 조직 정치 사업으로 되여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당 사업이란 당이 자기의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조직 정치 사업을 의미하는바 그것은 즉 당 대렬을 튼튼히 꾸리고 그 전투적 기능을 높이며 군중을 단결시키기 위한 사업이다. 당 조직 정치 사업을 잘 하지 않고서는 당을 강화할 수 없고 당을 강화함이 없이는 자기 앞에 제기된 경제 과업을 옳게 보장할 수 없다.

그런데 경제 사업은 사회주의 건설의 가장 중요한 혁명 과업의 하나인 만큼 경제 사업을 잘 하지 않고서는 사회주의 건설을 성과적으로 추진시킬 수 없으며 사회주의 건설을 옳게 추진시킴이 없이는 결국 당의 정치적 목적 자체도 실현할 수 없다.

당 조직 정치 사업은 그 자체에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어디까지나 당원들과 군중을 각성시키고 당 주위에 튼튼히 묶어 세워서 제기된 경제 과업을 더 잘 수행하도록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다른 한편 경제 사업은 그에 정치적 방향을 제시해 주며 경제 과업 수행에 당원들과 군중을 조직 동원하는 당 조직 정치 사업에 의하여 튼튼히 안받침되여야만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다. 이리 하여 당 조직 정치 사업의 성과는 경제 사업의 결과에 의하여 평가되고 경제 사업은 당 조직 정치 사업에 의하여 안받침될 때 그의 성과가 공고한 것으로 될 수 있는 것이다. 당 조직 정치 사업과 경제 사업이 분리되여 진

행될 때에는 그 중 어느 한 사업도 옳게 보장될 수 없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김 일성 동지는 일찌기 《당 정치 사업과 경제 사업은 우리의 혁명 사업에서 두 개의 측면인 동시에 분리할 수 없는 통일체이며 그 긴밀한 결합은 우리 당 령도 방법의 중요한 특성이며 기본 사업 방법이다》(김 일성 선집 제 4 권, 545～546 페지)라고 교시하였다.

또한 당 중앙 위원회 제 4 기 제 12 차 전원 회의 결정에는 다음과 같이 지적되여 있다:

《당 사업과 행정 경제 사업을 결합하는 것은 당 위원회들의 사업에서 하나의 법칙이다》.

정치 사업과 경제 사업을 밀접히 결합시키는 것은 당'적 령도의 본질로부터 흘러 나오는 필수적 요구이다.

당은 로동 계급의 선봉대이며 혁명의 참모부로서 이 땅 우에 사회주의, 공산주의 사회를 건설하는 것을 자기의 정치적 목적으로 삼는다. 프로레타리아 독재 체계 내의 지도적 력량인 당은 이러한 정치적 임무를 자기의 인전대인 국가 기관들을 통하여 실현한다. 따라서 행정 경제 사업에 대한 당의 령도는 본질에 있어서 정치적 령도이며 또 그렇게 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당의 령도는 어디까지나 그것이 정치적 령도로 되는 경우에라야만 경제 건설의 성과를 보장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일찌기 레닌은 경제에 대한 정치의 우위성을 지적하면서 《문제는 다음과 같이 설 따름이다(또 맑스주의적으로는 이렇게만 설 수 있다), 즉 문제에 대한 옳은 정치적 취급이 없이는 소여의 계급은 자기의 지배를 유지할 수 없으며 따라서 자기의 생산적 과업도 해결할 수 없을 것이다》(레닌 선집 제 32 권, 95 페지)라고 강조하였다.

그러면 당의 정치적 령도는 어떻게 실현되는가?

당'적 령도의 기본 요구는, 한편으로는 정확한 로선과 정책을 작성 제시하며 다른 한편으로는 당 조직 정치 사업을 통하여 그 수행을 옳게 보장하는 것이다.

따라서 경제 사업에 대한 당의 령도는 제기된 경제 과업의 수행을 직접 집행하는 국가 경제 기관들에 명백한 사업 방향을 제시해 주고 그 기관 일'군들로 하여금 그 사업을 잘 하도록 지도하는 동시에 당 조직 정치 사업을 통하여 당 조직들과 당원들, 광범한 군중을 각성시켜 혁명 과업 수행에 성과 있게 조직 동원하는 것으로 되여야 한다.

만일 당이 정치적 참모부로서의 자기의 사명을 망각하고 행정 사업, 경제 기술적인 실무 사업에 몰두하게 된다면 로동 계급과 전체 인민의 근본적 리익을 위한 전반적 사업을 정책적 견지에서 옳바르게 분간할 수 없게 되며 결국은 경제 사업 자체도 성과 있게 추진시킬 수 없게 된다. 그렇다고 하여 경제 사업과 유리된 당 내부 사업에만 머물러 있다면 그것도 역시 혁명 과업의 수행을 보장할 수 없는 결과를 가져 오게 되는 것이다.

오직 당 조직 정치 사업을 경제 사업과 분리시킴이 없이, 다시 말하면 정치 사업과 경제 사업을 밀접히 결합시키고 후자에 전자를 튼튼히 안받침하여야만 당은 자기의 정치적 령도를 실현할 수 있다.

이처럼 정치 사업과 경제 사업을 밀접히 결합시켜 당 내부 사업과 행정 경제 사업에 대한 지도를 모두 심도 있게 진행하는 것은 우리 당 활동의 전 과정에서 일관하게 견지되고 있으며 우리 당 사업 방법의 중요한 특성을 이루는 하나의 원칙이다.

우리 당은 창건 첫날부터 특히는 나라의 사회주의 건설이 진척됨에 따라 정치 사업과 경제 사업을 밀접히 결합시키는 데 각별한 관심을 돌려 왔으며 이 과정에서 풍부한 경험을 쌓아 올렸다.

여기에서 우선 중요한 것은 각급 당 위원회들의 집체적 령도제를 강화하는 기초 우에서 국가 경제 기관들에 대한 《키잡이》 역할을 높이는 것이였다.

당 위원회들의 《키잡이》는 당 기관들로 하여금 행정 경제 사업에 대한 방향적 지도와 방법적 지도를 결합시켜 사업을 전반적으로 장악하고 그에 대한 지도를 당'적으로 보장할 수 있게 한다. 이것은 프로레타리아 독재 체계내의 지도적 력량인 당과 그의 인전대인 국가 기관들의 호상 관계를 확고히 수립하고 당 및 국가 사업에서 형식주의, 주관주의, 관료주의를 극복할 수 있게 하며 국가 경제 기관들에 대한 당'적 지도에서 행정을 대행하거나 그의 뒤꼬리를 따르는 편향들을 극복하게 함으로써 당 조직 정치 사업과 경제 사업을 밀접히 결합시킬 수 있게 한다.

다음으로 당 기관 뿐 아니라 국가 경제 기관의 모든 일'군들이 항상 정치 사업을 선행시키면서 여기에 경제 기술적인 사업을 따라 세우도록 지도하는 것이 중요하였다. 이것은 사회주의 건설 전반에 대한 당의 정치적 령도를 전면적으로 폭 넓게 실현할 수 있게 할 뿐 아니라 정치 사업과 유리된 《행정 만능》, 《기술 만능》의 수공업적 방법들을 극복하고 행정 경제 사업의 성과를 당'적 방법, 정치 사업의 방법으로 보장할 수 있게 한다.

우리 당은 항상 각급 당 위원회들의 《키잡이》 역할을 부단히 높이고 청산리 방법을 일반화하는 과정을 통하여 모든 사업에 정치 사업을 확고히 선행시키는 원칙을 견지하였으며 일'군들의 정치 사상 수준과 실무 수준을 높이고 군중을 혁명화함으로써 정치 사업과 경제 사업을 밀접히 결합시키고 사회주의 건설에 대한 령도를 정확히 실현할 수 있게 되였다.

정치 사업과 경제 사업의 밀접한 결합은 당 위원회들의 역할 여하에 결정적으로 달려 있다

당 위원회는 모든 부문 사업의 참모부로서 해당 단위의 사업을 전'적으로 책임지고 지도한다. 당 위원회의 이러한 임무는 다만 당 조직을 통하여서만 수행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당의 로선과 정책을 직접 집행하는 국가 경제 문화 기관, 사회 단체들을 통하여 실현된다. 따라서 해당 단위에서 제기되는 경제 과업이 옳게 해결되는가 못 되는가 하는 것은 당 위원회들이 당 정책 수행에 당 조직들과 행정 경제 기관들을 통일적으로 발동시키는가 못 시키는가 하는 데 결정적으로 달려 있다. 만일 당 위원회들이 경제 사업과 유리된 순수 《당 내부 사업》에 몰두하거나 반대로 행정 사업을 대행한다면 행정 경제 기관들에 정확한 방향과 방도를 제시할 수 없으며 그 수행에 당 조직 정치 사업을 안받침해 줄 수 없다.

당 위원회들의 역할을 높여 정치 사업과 경제 사업을 밀접히 결합시키기 위하여서는 무엇보다도 먼저 당의 로선과 정책을 실정에 맞게 능동적으로 전개하여야 한다.

당 정책을 전개한다는 것은 그것을 전반적으로 틀어 쥐고 각이한 실정에 맞게 구체화하여 끝까지 관철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 당의 로선과 정책, 당 중앙 위

원회의 지도적 방침들에는 가장 원칙적이고 기본적인 사업 방향과 구체적인 수행 방도들이 명시되여 있다. 따라서 당의 로선, 정책을 사상적으로 무조건 접수할 뿐 아니라 이것을 확고히 틀어 쥐고 실정에 맞게 구체화하여 끝까지 관철하는 것은 모든 당 기관들과 당 조직들이 사회주의 건설에서 높은 성과를 달성할 수 있게 하는 확고한 담보로 된다. 이것은 또한 각급 당 조직들이 국가 경제 기관들의 사업을 통일시키고 그에 대한 정확한 지도를 보장할 수 있게 하는 담보로 된다.

일찌기 김 일성 동지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였다:

<당 정책에서 원칙과 기본 방향을 옳게 파악하여야 한다. 그래야 자체의 지방 실정에 맞게 창조적으로 일할 수 있다. 당 결정에 박아 놓은 것이면 하고 박아 놓지 않으면 안 하고 이렇게 기계적으로 일해서는 안 된다.

당 정책은 전국적 범위에서 총적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지 지방마다 무엇을 어떻게 하라고 일일이 제시할 수는 없다. 그렇기 때문에 당 정책에 대한 깊은 연구가 필요하며 그것을 잘 집행하기 위한 일'군들의 조직적 수완과 능동성이 요구된다>(김 일성 선집 제 6 권, 21 페지).

당의 로선과 정책을 자체 실정에 맞게 구체화하기 위하여서는 당 정책의 본질을 정확히 파악하고 거기에 철저히 의거하여 그것을 전면적으로 관철하기 위한 사업 방향과 방도를 옳게 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옳은 사업 방향과 방도는 일'군들에게 구체적인 목표와 전망을 주며 신심을 가지고 그 사업에 달라붙게 한다. 그런데 사업 방향과 방도는 당 정책에 대한 심오한 연구와 객관 현실에 대한 조사 연구 사업이 선행될 때에라야만 정확히 수립될 수 있다. 이것이 선행됨이 없이는 사업 방향과 방도를 수립함에 있어서 주관주의와 형식주의를 면할 수 없으며 당 정책을 자체 실정에 맞게 철저히 관철할 수 없다.

사업 방향과 방도를 규정함에 있어서는 당 정책을 전반적으로 틀어 쥐고 어느 하나도 빼짐 없이 전면적으로 관철하는 데 깊은 관심을 돌리면서 선후차를 가려 중심 고리에 력량을 집중하도록 하여야 한다. 당 정책에는 집행해도 좋고 안 해도 좋은 것이란 있을 수 없다. 문제는 당 정책을 전면적으로 관철하되 자체의 실정, 자체의 력량에 대한 과학적인 타산에 기초하여 그의 선후차를 정확히 가려 하나하나 해결해 나가는 데 있다. 이것은 사업 방향 및 방도를 규정하는 데서 고려하여야 할 아주 중요한 문제이다. 이 문제가 정확히 해결되여야 당 및 국가 경제 기관들이 뚜렷한 목표를 가지고 일할 수 있으며 당 조직 정치 사업과 경제 사업을 밀접히 결합시킬 수 있는 전제가 마련된다.

물론 이 사업에서는 높은 당'적 책임감으로부터 출발되는 신중성과 집체성이 충분히 발양되여야 한다. 그러나 제 아무리 정확한 방향과 방도가 세워졌다 할지라도 그것은 당 조직 정치 사업에 의하여 안받침됨이 없이는 실현될 수 없다.

일단 사업 방향과 방도가 세워지면 그의 수행을 위한 경제 사업을 대담하게 포치하고 전개력 있게, 통이 크게 밀고 나가야 하며 이에 당 조직 정치 사업을 안받침하여 그것을 부단히 심화시킬 줄 알아야 한다. 그리 하여 당 정책과 그의 수행 방도를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 속에 전망적인 목표로부터 당면한 과업에 이르기까지 침투시키는 동시에 당면한 혁명 과업 수행에 당 조직

정치 사업을 집중시켜야 하며 그 행정을 통하여 경제 사업의 수행 정형을 체계적으로 료해 장악하고 걸린 문제들을 풀어 주며 새롭게 제기되는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면서 당 사업을 부단히 심화시켜야 한다. 이렇게 당 조직 정치 사업을 제기된 경제 과업 수행에 안받침해서 부단히 심화시켜 나가야만 전반적 사업을 틀어 쥐고 중심 과업 해결에 력량을 집중하면서 국가 경제 기관들로 하여금 당의 로선과 정책을 어느 하나도 놓치지 않고 전면적으로 끝까지 관철하도록 지도할 수 있다.

자강도 우시군 당 위원회의 경험은 이것을 실증하여 주고 있다.

우시군 당 위원회는 당의 농업 정책을 자체 실정에 맞게 구현하는 데서 새로운 성과를 달성하였다. 군당 위원회 일'군들은 우선 김 일성 동지의 청산리 교시를 비롯하여 당 중앙 위원회 제 4 기 제 3 차 전원 회의 결론, 《우리 나라 사회주의 농촌 문제에 관한 테제》 등 농업 부문 당 정책을 다시 체계적으로 깊이 연구하고 군 사업에 대한 력사적인 자료를 종합 분석한 기초 우에서 군중 속에 들어 가 당 사업과 행정 경제 사업에서 걸린 고리를 푸는 데 진지하게 달라붙었다. 즉 군당 위원회는 농장원들의 자각적 열성을 동원하는 고리로서 분조 단위 년간 도급제를 군내에 전반적으로 도입할 데 대한 방침을 결정하고 그에 당 및 행정 조직 사업을 따라 세웠으며 그 과정에서 발로되는 이러저러한 편향들을 극복하기 위한 당 조직 정치 사업을 부단히 심화시켰다. 이리 하여 이 군에서는 지난 해에 농촌 경리에 대한 지도 관리 문제를 더 잘 해결하고 농민들의 열성을 높여 농업 생산에서 새로운 앙양을 이룩하였다.

생활은 당 정책을 자체 실정에 맞게 구체화하여 정확한 방향과 방도를 수립하고 그 수행에 당 조직 정치 사업을 집중시킬 때에라야만 정치 사업과 경제 사업을 밀접히 결합시켜 사회주의 건설에서 높은 성과를 달성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 주고 있다.

정치 사업과 경제 사업을 밀접히 결합시키기 위하여서는 또한 당 위원회들이 해당 단위의 경제 과업 해결에 당 기관 내 부서들과 행정 경제 기관 일'군들을 통일적으로 발동시켜야 한다.

당 기관 일'군들과 행정 경제 기관 일'군들은 제기된 혁명 과업 수행이라는 하나의 공통된 임무를 지니고 있으면서도 그것을 보장함에 있어서는 직능과 분공에서 일정한 차이를 가지고 있다.

당 기관 내 부서들과 일'군들은 부과된 직능과 분공에 따라 당 조직 사업과 사상 사업을 진행하며 경제 사업에 대한 지도를 수행한다. 그러나 직능과 분공이 다르다고 하여 결코 당 사업을 기계적으로 분리시켜서는 안 된다. 조직부 일'군들이라고 해서 당 사상 사업과 경제 사업에 관심을 적게 돌리거나 선전부 일'군들이라고 해서 당 조직 사업과 경제 사업에 적게 관심해서는 안 되며 또 경제 부서 일'군들이라고 해서 당 조직 정치 사업에 관여하려 하지 않는 경향도 있어서는 안 된다. 당 기관 내 부서들은 어느 부서나 할 것 없이 모두가 다 당 위원회의 기구로서 그의 통일적인 지도 밑에 한결같이 움직여야 한다. 그렇지 않고 각기 자기 부서 사업만을 하려고 한다면 결코 해당 단위에 제기된 경제 과업의 수행을 정치 조직적으로 옳게 보장할 수 없다. 당 기관 내 모든 부서들이 통일적으로 움직이기 위하여서는 당 위원회의 유일적인 계획 밑에 조직부 일'군들은 정치 사업을 앞

세우면서 그에 조직 사업을 따라 세우며, 선진부 일'군들은 사상 사업을 하면서 그에 조직 사업을 안받침하여 경제 사업을 보장하여야 하며 경제 부서 일'군들은 당 조직 정치 사업으로 경제 과업의 수행을 성과적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당 위원회들이 해당 단위의 경제 과업을 옳게 해결하자면 당 기관 내 부서 일'군들 뿐만 아니라 행정 경제 기관 일'군들도 통일적으로 발동시켜야 한다.

당 기관 일'군들은 제기된 경제 과업의 수행을 당 사업으로 보장한다면 행정 경제 기관 일'군들은 경제 기술적인 실무 사업으로 그것을 보장한다. 따라서 그들이 통일적으로 발동되여야 각자의 위치에서 제기된 경제 과업을 해결하기 위한 방도를 찾고 그것을 집중적으로 풀어 나갈 수 있다.

그러므로 당 위원회에서 제기된 과업의 수행 방도를 토의한 다음에는 반드시 당 기관 내 모든 부서들과 행정 경제 기관들이 수행하여야 할 사업들에 대한 분공을 명확히 조직하고 당 일'군들은 당 사업을 위주로 하면서 행정 경제 사업을 지도하게 하며 행정 관리 일'군은 행정 조직 사업을, 기술 일'군은 기술 관리 사업을 하면서 정치 사업을 하게 함으로써 각자가 자기의 특성에 맞게 사업을 부단히 심화시켜 나가도록 하여야 한다. 이렇게 그들의 일하는 각도가 서로 달라야 같은 문제를 가지고도 각자가 자기의 견지에서 그것을 보고 풀기 위한 방도를 강구할 수 있으며 당 조직 정치 사업과 경제 사업을 더욱 밀접히 결합시켜 제기된 경제 과업을 성과적으로 풀어 나갈 수 있다.

평양 전기 공장 당 위원회의 사업 경험은 당 일'군과 행정 기술 일'군들을 그들의 특성에 맞게 통일적으로 발동시키는 것이 정치 사업과 경제 사업을 결합시키는 데서 얼마나 중요한 의의를 가지는가를 똑똑히 보여 주고 있다.

공장 당 위원회는 지난해 자기 앞에 부과된 경제 과업의 수행을 옳게 보장하기 위하여 기술 혁신 운동을 군중적으로 전개할 데 대한 문제를 중심적 과업으로 제시하였다. 당 위원회는 이 과업을 토의 결정하면서 당 일'군은 당 력량을 옳게 배치하고 로동자, 기술자들을 기술 혁신 운동에 조직 동원하기 위한 당 조직 정치 사업을, 행정 일'군은 그와 관련된 행정 조직 사업과 후방 사업을, 기술 일'군은 기술 관리 사업을 각각 책임지고 수행하도록 구체적인 분공을 조직하였다.

그리 하여 모든 일'군들이 로동자들 속에 들어 가 한결같이 정치 사업을 선행시키면서도 당 일'군들은 대중을 자력 갱생의 혁명 정신으로 무장시키고 기술 혁신 운동을 저애하는 기술 신비주의, 보수주의, 소극성 등을 극복하기 위한 사상 투쟁을 경제 사업과 밀접히 결부시켜 진행하였으며 행정 기술 일'군들은 공장의 생산 계획과 기술 발전 계획을 맞물리고 로동자들과 기술자들의 창조적 협조를 광범히 조직하였으며 기술적으로 제기되는 문제를 실속 있게 해결해 나아갔다.

공장 당 위원회는 이렇게 기술 혁신 운동을 추진시키면서 수시로 모여 앉아 당 및 행정 기술 일'군들이 각자의 위치에서 보고 느낀 바를 진지하게 협의하고 또 새로운 분공을 조직해 가지고 다시 군중 속에 들어 가 로동자들을 군중적인 기술 혁신 운동에로 강력히 고무 추동하였다. 이리 하여 이 공장에서는 년초에 결의한 것보다 100 건이나 더 많은 1,800여 건의 기술 혁신안을 생산에 도입함으로써 달마다, 분기마다 기술 발전 계획과 증산 계획을 넘쳐 수

행하였으며 지난해 12월 1일 현재로 년간 계획을 지표 별로 초과 완수하는 빛나는 성과를 달성하였다.

평양 전기 공장 당 위원회의 이러한 사업 경험은 오직 당 위원회의 집체적 령도 밑에 당 및 행정 기술 일'군들이 통일적으로 발동되여 자기에게 위임된 사업을 책임적으로 수행할 때에라야만 정치 사업과 경제 사업을 밀접히 결합시켜 제기된 과업을 성과 있게 추진시킬 수 있다는 것을 보여 주고 있다.

정치 사업과 경제 사업의 밀접한 결합은 일'군들에게 높은 정치적 식견과 풍부한 경제 기술 지식을 요구한다

정치 사업과 경제 사업을 밀접히 결합시키는 것은 당 조직 정치 사업을 통하여 당원들과 군중 속에 당의 경제 정책을 반복 침투시키고 그들을 경제 과업 수행에로 조직 동원하며 그 실행 정형을 부단히 검열하고 나타난 결함들을 제때에 극복하면서 끝까지 밀고 나가야 심화되는 것 만큼 극히 어렵고 복잡한 사업이며 높은 창발성을 요구하는 사업이다. 이 사업은 일'군들이 항상 문제를 정치적으로 보고 경제 기술적으로 타산할 줄 모르고서는 옳게 보장될 수 없다.

당 조직 정치 사업이 경제 사업을 안받침해 주자면 일'군들이 항상 제기된 문제를 당'적 각도, 정치적 각도에서 볼 줄 알아야 한다.

비록 사소한 생산적 과업이라도 그것은 결국 사회주의 건설을 추진시켜 인민 생활을 향상시키기 위한 우리 당의 정책적 요구로부터 흘러 나온 것이다. 그러므로 일'군들이 항상 사물 현상을 정치적 각도에서 고찰하고 분석하며 처리할 줄 알아야 당의 정책적 요구를 정확히 관철시켜 제기된 과업의 수행을 철저히 보장할 수 있다. 행정 경제 사업에서 제기되는 문제라고 해서 그것을 정치적 각도에서 보지 못하고 기술 실무적으로만 보고 처리하게 되면 결국 일'군들이 행정 실무주의에 빠져 정치 사업과 경제 사업을 밀접히 결합시킬 수 없게 된다. 그러므로 일'군들은 언제 어디서나를 막론하고 항상 문제를 정치적 각도에서 보고 풀 줄 알아야 한다.

김 일성 동지는 이에 대한 구체적인 실례를 들어 다음과 같이 교시하였다:

«용해 작업에서, 제강 작업에서 잘못된 것을 다만 부속품이 나쁘다든가 무슨 기자재가 모자란다든가 하는 데만 끌어다 붙이는 식으로 분석할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일하는 태도, 그의 사상적 동태, 사물에 대한 판단의 정확성 여부를 분석할 줄 알아야 한다» (김 일성 선집 제 6 권, 434 페지).

누구보다도 당 기관 일'군들이 제기되는 모든 문제를 항상 당'적 각도, 정치적 각도에서 분석해 보고 풀어 줄 줄 알아야 한다. 당 사업을 위주로 하는 당 일'군들이 걸린 문제를 찾아 내여 그것을 당'적 방법으로 풀기 위한 대책을 세우고 경제 사업에 당 조직 정치 사업을 안받침해 줄 줄 모르고서는 경제 사업을 정치적으로 지도할 수 없다.

행정 경제 기관 일'군들도 이에서 례외로는 될 수 없다. 행정 경제 기관 일'군들은 단순한 행정 실무 일'군이 아니다. 그들은 행정 경제 사업을 당'적으로 위임 맡아 수행하는 정치 활동가이다. 문제를 정치적으로 취급하지 않고 기술 실무적으로만 처리해서는 경제 사업을 옳게 풀어 나갈 수 없다.

물론 사회주의 건설이 진척됨에 따라

경제 기술적인 문제가 더욱 중요하게 제기되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이 모든 문제는 구경 사람들을 통하여 구현되는 것이며 따라서 대중 자신이 각성되고 동원되지 않고서는 성과 있게 해결될 수 없다.

그러므로 행정 경제 기관 일'군들도 항상 모든 문제 처리에서 정치적 립장을 견지하고 정치 사업을 선행시키면서 경제 사업을 사람과의 사업을 통하여 정치적으로 풀 수 있게 되여야 한다. 그래야 제기된 문제 해결에서 당의 정책적 요구를 철저히 관철할 수 있으며 군중의 힘에 의거하여 그것을 힘 있게 밀고 나갈 수 있다.

이와 같이 우리는 정치 사업과 경제 사업을 밀접히 결합시키고 모든 사업을 정치적 방법으로 풀어 나갈 때에만 당 및 국가 경제 기관 사업에서 형식주의, 관료주의, 명령주의를 철저히 극복하고 대중의 창발성을 부단히 높여 사회주의 건설을 강력히 추진시킬 수 있다.

당 조직 정치 사업이 경제 사업을 안받침해 주자면 또한 지도 일'군들, 당 일'군들이 항상 제기된 문제를 경제 기술적으로 분석하고 타산하고 계산할 줄 알아야 한다.

인민 경제에 대한 당'적 지도를 옳게 보장하기 위하여서는 풍부한 경제 기술 지식이 요구된다. 이것이 없이는 인민 경제를 계획화하고 조직 집행하는 전 과정에 대한 과학적 지도를 보장할 수 없다.

인민 경제에 대한 지도 관리에 복무하는 행정 경제 일'군들 뿐 아니라 당 사업을 전문적으로 하는 당 일'군들에게 있어서도 경제 기술 지식을 소유하는 것은 현시기 각별히 중요한 문제로 제기된다. 그것은 사회의 발전 법칙, 사회주의 경제 법칙을 알고 그것을 활용할 줄 알며 제기되는 기술 실무적 문제들을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을 소유해야 정치 사업과 경제 사업을 밀접히 결합시키고 행정 경제 사업에 대한 당'적 지도, 《키잡이》를 실속 있게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제기된 문제를 경제 기술적으로 분석하고 타산하고 계산하는 일을 단순한 실무 사업으로 생각하면서 그것에 응당한 관심을 돌리지 않는다면 결코 정치 사업과 경제 사업을 결합시킬 수 없다.

당 일'군들이 경제 관리 운영 정형에 어둡고 경제 기술 지식을 소유하지 못하면 결국 경제 사업에 대한 주관주의, 형식주의를 범하게 되며 당 사업은 허공에 뜬 것으로 된다.

그러므로 당 일'군들은 정치 경제학, 공업 및 농업 경영학 등을 체계적으로 학습하고 사회주의 경제 법칙과 경제 관리 운영의 기본 문제들을 깊이 파악하는 동시에 특히 자기 부문의 실정과 경제 기술 지식에 정통하기 위하여 결정적으로 투쟁하여야 한다. 그래야 경제 사업에 깊이 파고 들어 제기되는 문제를 세밀하게 료해 분석하고 구체적으로 타산한 기초 우에서 그것을 풀기 위한 당 조직 정치 사업을 주동적으로 전개할 수 있다.

생활은 당 일'군을 비롯한 행정 경제 기관의 모든 일'군들이 당의 의도, 당의 로선과 정책으로 철저히 무장하고 제기되는 문제들에 정치적으로 대할 줄 알 뿐 아니라 그것을 경제 기술적으로 분석하고 계산할 줄 알며 걸린 문제를 당'적 방법, 정치적 방법으로 풀 수 있는 능력을 소유하게 될 때에라야만 정치 사업과 경제 사업을 밀접히 결합시킬 데 대한 당의 요구를 더욱 철저히 관철할 수 있으며 사회주의 건설을 더욱 힘 있게 추진시킬 수 있다는 것을 보여 주고 있다.

기본 건설에서 당의 집중화 정책을 관철하며 투자의 경제적 효과성을 제고하자

리 민 수

1

기본 건설을 집중화하고 투자의 경제적 효과성을 제고하는 문제는 적은 축적으로 보다 큰 생산 능력을 조성하는 것으로서 사회주의 경제 건설에서 제기되는 가장 중요한 전략적 방침의 하나이다.

특히 락후한 물질 기술적 토대 우에서 공업화의 과업이 제기되였고 그것을 제한된 자금과 원천으로 매우 짧은 력사적 기간 내에 완수할 것이 요구되는 우리 나라의 조건에서 이 문제는 더 절실한 의의를 가진다.

우리 나라에서 건설을 집중화하고 투자의 경제적 효과성을 높일 필요성은 비단 여기에서만 흘러 나오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경제 건설에서 우리 당이 자립 경제 로선을 견지하고 있는 것과 관련하여 더욱더 중요하게 제기되고 있다.

최신 과학 기술에 토대하고 다방면적으로 발전된 자립적 민족 경제를 창설하기 위한 방대한 기본 건설을 자력 갱생의 원칙에서 성과 있게 보장하자면 당의 집중화 정책을 관철하며 투자의 경제적 효과성을 높이는 문제에 경제 건설의 첫 시기부터 1 차적인 주의를 돌리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김 일성 동지는 벌써 1948년 1월에 국영 기업소 지배인, 기술자들과의 담화 석상에서 남에게 의존하지 말고 자체의 힘으로 민족 경제를 건설할 데 대한 과업을 제시하면서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건설 사업에서 선후차를 가리는 문제가 매우 중요하다… 하루 이틀에 다 건설할 수는 없으므로 제일 긴절한 것부터 먼저 건설하는 수 밖에 없다. 일면만 생각하고 전체를 보지 않거나 오늘만 생각하고 래일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반드시 전체 인민 경제와 나라의 발전 전망을 고려하여 건설에서 선후차를 엄밀히 규정하며 자금과 기술과 로력을 긴급한 건설 대상들에 집중하여야 하겠다》(김 일성 선집 제 2 권, 20 페지).

건설을 집중화하며 투자의 경제적 효과성을 최대한으로 제고할 데 대한 당의 방침은 전후 사회주의 경제 건설에서 철저히 견지되고 정확히 구현되였으며 거대한 성과를 달성하였다.

우리 당은 중공업을 우선적으로 발전시키며 경공업과 농업을 동시에 급속히 발전시키는 로선에 립각하여 생산적 건설을 앞세우면서 주택, 공공 문화 후생 시설 등의 비생산적 건설을 병행시키는 현명한 방침을 제시하였으며 경제 발전의 매 단계에서 중심 고리로 되는 부문과 대상들을 명확히 규정하고 그에 력량을 집중하도록 하였다.

복구 개건 시기에 당은 부문 별 투자 구성에서 우선 인민 경제의 물질적 기초로 되는 전력, 석탄, 금속, 화학, 기계, 건재 등을 비롯한 중공업의 기간적 부문들을 결정적으로 선행시키며 경공업과 주택 및 문화 후생 시설 건설을 급속히 추진시켰으며; 형태별 투자 구성에서도 복구 개건과 신설을 합리적으로 배합하고 그에 전신의 공업화를 강력히 안받침함으로써 단시일 내에 적은 투자

로 보다 많은 건설을 보장할 수 있게 하였다.

7개년 계획의 력사적 과업 수행에서도 우리 당은 기본 건설을 집중화, 정상화하며 투자의 경제적 효과성을 높일 일련의 조치를 강구하여 방대한 생산적 및 비생산적 건설을 자체의 내부 축적으로 해결하도록 하였다. 이에 있어서 1961년 3월 전원 회의는 큰 의의를 가진다. 전원 회의는 기본 건설에서 선진 구조 도식과 새로운 건설 방법을 광범히 도입하여 철재와 목재를 비롯한 자재, 자금, 로력을 극력 절약할 것을 제기하였는데 이것은 7개년 계획 수행에서 가장 난 문제의 하나였던 투자의 긴장성을 푸는 기본 열'쇠로 되였다.

상술한 바와 같이 건설을 집중화하고 투자의 경제적 효과성을 제고할 데 대한 당의 방침은 우리 나라 사회주의 건설에서 이미 커다란 성과를 달성하였다.

그러나 이것은 조금도 자만할 근거로 될 수 없으며 실지 오늘 현실 발전의 요구에 비해 볼 때 이 문제 해결에서는 개선할 여지가 많다.

만일 우리가 지난 시기 달성한 성과에 만족하여 급속히 발전하는 기본 건설의 요구를 구체적으로 연구 분석하지 않으며 필요한 대책을 제때에 강구하지 않는다면 막대한 내부적 예비와 가능성을 잃어 버리게 되며 경제 발전과 인민 생활에 손실을 주게 될 것이다.

현시기 기본 건설에서 당의 집중화 정책을 관철하고 투자의 경제적 효과성을 제고하자면 새 환경의 요구에 맞게 일련의 개선 대책을 강구하는 것이 절실히 필요하게 되였다.

이것은 물론 기본 건설이 발전하고 건설 사업에서 커다란 변화가 일어 난 사정과 중요하게 관련되고 있다.

그러면 현시기 기본 건설 사업에서 일어 난 변화들과 그로 인하여 초래된 관리 운영 상에서의 새로운 요구들은 어떤 것이며 그것이 건설의 집중화와 투자의 효과성 제고에 어떤 영향을 주고 있는가?

기본 건설 사업에서 산생된 가장 중요한 변화는 건설 대상들의 형태와 내용 상에서 새로운 특징이 더욱더 강화된 것이다.

7개년 계획 수행의 마지막 시기에 들어 선 오늘 우리 나라에서 진행되는 건설은 거의 전부가 신설이고 그 압도적 부분은 사회주의 물질 기술적 토대 강화를 위한 생산적 건설이며, 그것도 우리가 처음 해 보는 대규모의 화력 발전소, 화학 비료 공장 등을 비롯한 전력, 화학, 금속 공업 부문의 복잡한 대상들이다.

그런데 이와 같은 생산적 건설 중에서도 그 많은 부분이 새로운 공업 기지들을 창설하는 건설이 아니라 기존 생산 설비들과 건물들을 증설하고 완비하며 약한 고리에 살을 붙이는 형태의 건설들이다. 례하면 야금 공장들에서 용광로를 새 기술에 기초하여 개건 확장하거나 평로 압연 계통을 증설 보충하는 등의 건설이 생산적 건설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미 꾸려진 골간에 살을 붙이는 형태의 건설을 강화하는 것—이것은 현시기 우리 당이 확대 재생산 조직에서 관철하고 있는 중요한 건설 방침의 하나이다.

이 방침은 기본 건설 투자의 경제적 효과성을 제고하고 적은 투자로 단시일 내에 생산을 증대시킬 수 있는 커다란 가능성을 조성한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 당은 금년도 건설 사업의 중심을 제시함에 있어서도 확고히 이 원칙에 립각하고 있는 것이다.

다방면적으로 발전된 자립적 민족 경제 건설과 관련하여 기본 건설의 내용이 더욱 다양해지고 기술적으로 복잡해진 객관적 조건은 건설 관리 체계에서도 새로운 변화를 가져 오게 하였다.

최근 년간에 건설 부문에서는 설계와 시공 및 건재 생산에 대한 관리 지도 체계가 분리되고 지역별, 부문별로 되는 전문 건설 기관, 기업소들이 창설되였으며 전국적인 전문 건설 관리 체계가 확립되였다.

건설에서의 이러한 관리 체계의 확립은 우리 나라 기본 건설 발전의 객관적 요구를 반영한 것이며 관리 지도의 개선에서 응당한 현상이였다.

기본 건설의 발전과 관련하여 산생된 이상과 같은 제 변화들은 건설 관리 운영 조직에서 일련의 새로운 요구들을 제기하고 있다.

그것은 우선 기본 건설의 계획화 사업을 그 어느 때보다도 심화 발전시킬 것을 요구하고 있다.

현대적 공업 건설이 촉진되고 개별적인 건설 대상들이 복잡해질수록 계획은 더욱더 세분화되여야 하며 계획 규률은 일층 강화되여야 한다. 례를 들어 이제는 한개 대상에만도 수천 수만 종의 복잡한 각종 설비들과 부속품들 및 건재품들이 요구되는데 우리는 이것들을 모두 빠짐 없이 타산하고 계획하고 맞물려야 되며 그 중 어느 하나라도 무락시킬 때에는 건설을 제 기일 내에 완성할 수 없게 되며 사업은 혼란에 빠지게 된다.

다음으로 기본 건설 발전에서의 제 변화는 설비 및 건재 생산과 건설 조직에서 전문화와 함께 협동화의 강화를 요구하고 있다.

기본 건설의 전문화가 발전된 조건하에서는 건설주, 설계 기관, 시공 기업소, 설비 및 건재 생산 기업소들 간의 보다 긴밀한 협동 생산이 보장되여야 하며 시공에서도 설비 조립, 기계화 및 시공 기업소들 간과 기업소 내의 전문별 직장 및 작업반들 간의 협동 생산이 정확히 맞물려야만 건설이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다.

건설에서 이 문제의 정확한 해결 없이는 계획 규률을 확립할 수 없으며 투자의 경제적 효과성도 제고할 수 없다.

끝으로 건설 분야에 조성된 새 환경은 건설에서의 과학 기술적 연구와 기술 경제적 분석 및 타산을 철저히 진행하며 건설의 기술 준비를 결정적으로 강화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현대적 건설에서는 과학 기술적 연구와 기술 경제적 타산을 앞세우지 않고서는 일보도 전진할 수 없다. 특히 공업 부문들과 생산 공정들을 기술적으로 보충하고 완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살을 붙이는 형태의 건설이 강화되는 현 조건에서 이것은 더욱더 절실한 요구로 되고 있다.

그것은 우선 살을 붙이는 형태의 건설이 골간을 꾸리는 건설에 비할 때 비록 시공의 규모는 작지만 기존 생산 체계와 기술 공정들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와 분석에 기초하여 확증된 정확한 결론과 경제적 효과성에 대한 심중한 타산 밑에 진행될 것을 요구하는 복잡한 사업이기 때문이며 또 많은 경우 살을 붙이는 형태의 건설을 출시하는 데서 기술 경제적 검토와 타산을 선행시키지 않고 그저 건설주의 주관적 욕망에 따라 《한번 해 보자》는 식으로 그것을 진행할 우려가 많기 때문이다.

조성된 현실적 조건에서 생산 공정의 전반에 대한 통일적인 연구와 철저한 기술 경제적 타산을 진행함이 없이 개별적 생산 계통 또는 설비만을 증설 확대한다면 건설이 끝나도 조업을 할 수 없

게 되거나 또는 불완전 조업을 하게 된다.

요컨대 기본 건설 발전의 현 계단에서 건설을 집중화하고 경제적 효과성을 제고하는 문제는 이 분야에서 일어 난 온갖 변화들과 그로 인하여 초래된 관리 운영 상에서의 이상과 같은 제 요구들을 정확히 처리함이 없이는 원만히 해결될 수 없게 되였다. 만일 이와 같은 객관적 요구를 무시하고 기본 건설 투자의 경제적 효과성을 제고하는 문제를 단순한 행정 명령식 방법으로 해결하려 한다면 기업소들의 경영 활동에서는 정상성을 잃게 되고 무질서가 조성되여 국가 살림살이에 손실을 주게 될 것이다.

현시기 당의 집중화 정책을 관철하고 투자의 경제적 효과성을 높임에 있어서 일련의 새로운 개선 대책이 요구되는 리유가 바로 여기에서 흘러 나오고 있다.

얼마 전에 우리 당은 기본 건설을 집중적으로, 중점적으로 진행하며 투자의 경제적 효과성을 최대한으로 높일 것을 또다시 강조하였다.

김 일성 동지는 우리 당 창건 20 주년 경축 대회에서 한 보고에서 사회주의 경제 건설의 당면 과업인 7 개년 계획의 웅대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계속 힘차게 전진할 것을 강조하면서 다음과 같이 교시하였다:

《여기에서 우선 중요한 것은 기본 건설을 분산시키지 말고 집중적으로, 중점적으로 진행하는 것이다. 국가 자금을 동결시키지 않도록 시작한 기본 건설은 제때에 끝내며 투자된 자금이 빨리 효과를 나타내게 하여야 한다》(《조선 로동당 창건 20 주년에 제하여》).

기본 건설에서 집중화 정책을 관철하고 투자의 경제적 효과성을 제고할 데 대한 당의 방침을 실현하는 것은 금년도에 전력 공업, 화학 공업 및 금속 공업 등의 중심 고지들을 점령하고 농업을 비롯한 인민 경제 전반의 급속한 발전을 보장하며 나아가서는 7 개년 계획의 제 과업들을 성과적으로 수행함에 있어서 관건적인 의의를 가진다.

현시기 건설을 집중화하고 투자의 경제적 효과성을 제고하는 문제의 정확한 해결은 오직 현실 발전의 요구에 적응하게 계획화를 비롯한 건설 관리 운영을 개선하고 기술 경제적 타산을 선행시켜 선진 기술을 적극 도입하며 지도 일'군들의 관리 운영 수준을 결정적으로 높임으로써만 가능하게 되였다.

2

기본 건설의 집중화는 소여 시기의 인민 경제 발전에서 중심 고리로 되는 중요 부문, 중요 대상에 력량을 집중하여 그것을 단시일 내에 신속히 해결함으로써 전반적 경제 발전에서의 균형과 속도를 보장하는 동시에 개별적 건설 대상의 조업 개시 기일을 단축하고 미완성 건설 투자액을 축감하여 자금 회전을 촉진하고 투자의 경제적 효과성을 높이자는 데 그 목적이 있는 것이다.

건설 집중화의 과업을 성과적으로 실현하자면 첫째로, 조성된 조건에 맞게 계획화 사업을 개선하여 투자 방향과 건설 대상 및 그 선후차를 정확히 규정하며 둘째로, 선진 기술과 건설 방법의 도입에 기초하여 건설 조직을 합리화하며 세째로, 자재 보장 사업을 결정적으로 강화할 것이 요구된다.

계획화 사업은 건설의 집중화를 실현함에 있어서 첫 출발점으로 될 뿐만 아니라 우리가 튼튼히 틀어 쥐고 나가야 할 기본 고리로 된다.

우리 당은 건설의 집중화를 실현하기 위하여 건설 계획화에서 다음과 같은 원칙, 과학 기술적으로 충분한 파악이 없거나 설계 또는 자재의 보장성이 없는 대상은 계획에 예견하지 말고 지어진 조건과 힘에 맞게 건설을 계획하며 일단 세운 계획은 어떤 일이 있더라도 반드시 수행하는 계획 규률을 확립하며 이미 시작한 건설을 완전히 끝낸 다음에 새로운 건설에 착수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만일 건설 계획화에서 이와 같은 원칙이 위반될 때에는 건설은 분산되고 미완성 건설 투자액은 증가되며 자금, 로력, 자재들은 랑비된다.

현시기 기본 건설의 계획화를 개선하고 건설의 집중화를 실현하기 위하여 가장 중요하게 제기되는 것은 건설 전반에서 특히는 계획화 사업에서 발로되고 있는 주관주의, 형식주의 및 본위주의를 극복하는 것이다.

건설 계획화에서의 주관주의, 형식주의는 우선 계획을 건설자 대중과 토의하지 않고 책상 우에서 세우며 많은 경우에 기초 년도 예정 실적을 과장하여 계산하며 건설의 물질 기술적 보장성을 큰 것만 대강대강 타산하는 데서 표현되며 기관 본위주의는 인민 경제 전반의 견지에서가 아니라 부문, 기업소 및 지방의 립장에 서서 새로운 건설을 무리하게 요구하거나 건설 대상을 계획에 물리기 위하여 인위적으로 투자액을 낮추어 제기하는 데서 표현된다.

건설 사업에서의 이와 같은 주관주의, 형식주의 및 본위주의는 당의 집중화 정책을 관철하며 투자의 경제적 효과성을 제고하는 데 있어서 큰 장애로 된다.

그러므로 건설 집중화의 과업을 실현하기 위하여서는 무엇보다도 먼저 계획화 사업에서의 주관주의, 형식주의 및 본위주의를 퇴치하여야 하며 그 기초 우에서 김 일성 동지가 교시한 바와 같이 대상 별 계획화를 강화하여야 한다.

대상 별 계획화에서는 건설주, 설계, 시공 및 계획 일'군들이 대상별로 그루빠를 무어 직접 현장에 나가서 우선 모든 건물들과 구조물들에 대하여 그 세부에 이르기까지 다 예견되여 있는가, 나라의 살림살이를 알뜰히 꾸리는 견지에서 볼 때 불필요한 건물들과 구조 요소들이 건설에 포함되여 있지 않는가, 시공에서 자재, 설비 및 로력이 얼마나 들며 그 보장 가능성은 어떠한가, 시공의 선후차를 어떻게 정할 것인가 하는 등등의 제반 문제들을 구체적으로 따지고 정확히 해결하는 것이 요구된다.

그런데 대상 별 계획 작성을 위한 이와 같은 타산을 정확히 진행하자면 무엇보다도 과학 기술적 연구와 함께 설계를 이에 선행시키는 문제가 중요하다. 특히 처음 건설해 보는 생산적 건설에서는 중간 시험 공장의 건설을 통한 과학 기술적 검증을 거친 후에 건설 계획에 예견하며 계획 작성에 앞서 반드시 설계서를 보장함으로써 대상 별 계획화를 위한 세밀하고 정확한 타산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만일 이와 같이 하지 않는 경우에는 계획을 정확히 세울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시공 과정에서 오작, 반복 시공과 그로 인한 랑비와 조업 개시의 지연을 면치 못하게 될 것이다.

기본 건설 계획화에서는 이 외에도 생산, 운수, 시공 등 건설에 참가하는 모든 부문들이 능력 상에서 호상 정확히 맞물리도록 하는 동시에 건설의 모든 부문, 모든 단위에서 계획 규률을 확립하여 시공을 정상화함으로써 조업 개시 기일을 무조건 보장하도록 하여야 한다.

건설의 집중화를 실현함에 있어서 다

음으로 중요하게 제기되는 것은 선진 기술과 건설 경험의 광범한 도입에 기초하여 시공 조직을 합리화하며 조업 개시 기일을 앞당기는 것이다.

투자 방향이 정확히 설정되고 건설 대상이 명확히 규정되였다 하더라도 시공 조직을 되는 대로 하며 건설 수단들과 로력을 분산시켜 놓는다면 건설의 집중화는 실현될 수 없다. 특히 건설은 넓은 지역에서 진행되고 계절적 영향을 많이 받으며 건설 재료의 생산과 공급이 일시에 이루어질 수 없는 특성을 가지고 있는 것 만큼 시공 조직에서 작은 착오라 할지라도 그것은 건설에서 무질서와 분산성을 초래할 수 있다.

시공 조직을 개선하기 위하여서는 우선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시공 조직 설계와 시공 조직 계획을 작성하고 그에 립각하여 시공의 전 과정을 정확히 조직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시공 조직 계획에서는 계단별 조업을 보장하며 기본 생산 공정의 조업을 선행시키는 원칙에서 매개 세분 대상들 및 시공 공정들의 선후차가 규정되여야 하며 기계 설비들과 운수 수단들, 특수 기능 로력과 일반 로력들을 가장 효과적으로 리용하는 방향에서 작업 조직이 예견되여야 한다.

이와 같은 시공 조직 계획에 근거하여 한 대상에 력량을 집중하고 그것을 끝낸 다음 다른 대상에로 넘어 가도록 하여야 한다.

이와 함께 대상 별로 유일적인 시공 지휘 체계를 세워 협동 작업을 성과적으로 보장할 수 있게 하며 시공 행정 전반에 대한 지령 지휘를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건설의 집중화에서 대상 설비와 자재의 보장 사업은 큰 의의를 가진다. 그것은 건설의 전 행정이 방대한 량에 달하는 각종의 건재품들과 설비품 및 부속품들을 처리하는 과정으로 되기 때문이다. 건설 현장에서의 경험은 건설의 집중화를 위한 행정 조직 사업에서 설비 자재의 공급이 첫째 가는 사업이라는 것을 보여 주고 있다.

건재와 설비를 공급하는 데서 자재 상사의 조직자적 역할을 높이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자재 상사의 역할은 다만 생산된 건재와 설비들을 건설 기업소에 공급하는 데만 있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자재 공급을 조직하면서 한편으로는 필요한 시설품들과 건재품들을 시간적으로나 질량적으로 정확히 보장하도록 생산 기업소들을 자극하며 다른 한편으로는 소비 과정을 장악함으로써 공급된 제품들을 절약적으로 리용하도록 건설 기업소를 통제하는 데 있다.

특히 자재 상사들은 생산 기업소들에서 마감 자재들과 규격이 복잡한 제품들의 생산을 차요시함으로써 조업 개시 기일을 지연시키는 일이 없도록 하며 건설 기업소들에서는 중요 대상에 공급되는 설비, 자재들이 다른 부문에 류용되거나 랑비되는 현상이 발로되지 않도록 투쟁하여야 한다.

당이 제시한 건설 방향에 립각하여 건설을 계획적으로 집중화하는 것, 이것은 동시에 건설을 정상화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모든 부문, 모든 단위들에서는 대안의 사업 체계에 립각하여 계획화, 시공 조직, 자재 공급 및 후방 사업들을 새 환경의 요구에 맞게 개선함으로써 건설을 완전히 정상화하도록 하여야 한다.

3

기본 건설 자금의 절약은 투자의 효과성을 제고하는 직접적인 방도로 된다.

그것은 근로자들 속에서 정치 사업을 강화하며 그들의 열성과 적극성을 높이는 동시에 선진적인 기술과 건설 방법을 도입하여 내부 예비를 탐구 동원함으로써 매개 건설 대상의 건설비와 경영비를 낮추는 데서 보장된다.

현시기 기본 건설 자금을 절약하는 데서 선차적인 문제는 경제 지도 일'군들 속에서 건설 조직을 합리화하고 나라의 살림살이를 알뜰히 꾸리려는 사상 관점과 기풍을 확립하여 적은 밑천을 가지고 더 많은 생산을 낼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오늘 우리 나라의 공장, 기업소들에는 생산 면적의 리용 측면에서 막대한 예비가 있다.

우리가 이러한 예비와 가능성을 동원 리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주의를 덜 돌리고 종래와 같이 계속 대규모의 기본 건설에 의하여 생산의 확대를 실현하려고 한다면 투자의 경제적 효과성을 높일 수 없으며 짧은 기간 내에 큰 생산 능력을 조성할 수 없다.

사실 생산을 확대하는 데 있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큰 건물이나 넓은 면적 그 자체가 아니라 좋은 제품을 많이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인 것이다.

그러므로 기본 건설 자금을 절약하기 위하여 오늘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경제 지도 일'군들 속에서 발로되고 있는 이와 같은 사상적 편향들과 강력히 투쟁하면서 현존 생산 면적을 최대한으로 리용하기 위한 필요한 대책을 강구하는 것이다.

우선 모든 공장, 기업소들에서는 현 생산 면적의 리용 정형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하고 일부 공장들과 직장들을 통합 또는 조절하며, 탐구된 생산 면적에 새로운 생산 설비들을 설치하며 한 건물 안에 더 많은 직장을 밀어 넣어 큰 투자 없이 새로운 생산 능력을 얻어 내도록 하여야 한다.

이와 동시에 건설을 계획하거나 설계함에 있어서 기술 경제적 타산을 철저히 진행한 토대 우에 모든 건설물들의 능력 규모에서 지나친 예비를 두는 일이 없도록 하며 당장 필요치 않는 부대 건물들은 뒤로 미루며 이미 있는 건물들과 시설물들을 최대한으로 리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기본 건설 자금을 절약하는 데서 또한 중요한 것은 기술 혁신 운동을 전면적으로 강화하고 선진 과학 기술을 백방으로 도입하여 건설비를 극력 낮출 데 대한 당 중앙 위원회 1961년 3월 전원회의 결정을 계속 관철하는 것이다.

우선 건설에서 선진적인 구조 도식을 적용하고 선진적인 부재, 건재를 리용하여 구조물 단위당 중량을 감소시키고 철, 목재, 세멘트 등의 소비 기준을 계통적으로 저하시켜야 한다.

인민 경제 전반에서 긴장성을 띠고 있는 철재와 목재를 대용할 수 있는 각종의 부재와 건재를 해결하는 것은 국가에 큰 부담을 줌이 없이 기본 건설을 발전시키게 하며 가볍고, 견고한 건설 자재의 리용은 건물과 구조물을 경방향으로 전환시키여 시공에서 로동 생산 능률을 제고하고 건설 원가를 저하시킨다.

그러므로 건설 과학 연구 사업을 개선하고 선진 기술을 도입하여 이미 일정한 성과를 얻은 새로운 예비 응력 철근 콩크리트 부재들을 더 발전시키며 수지 및 자기 건재 생산을 강화하며 농촌 건설용 세멘트 기와에 이르기까지의 모든 건재들을 더 가볍고 견고한 건설 자재로 전환시키도록 투쟁하여야 한다.

이와 함께 설계 단계에서, 생산 과정에 지장이 없는 설비들은 로천에 배치하며 또 원료 조건과 생산 기능이 류사한 공장과 직장들은 국방 상 지장이 없는 한 린접하여 건설하거나 통합하여

건설함으로써 건설비를 대폭 축감시켜야 한다.

또한 건설에서 지방 건재를 광범히 탐구 리용하며 기후 조건과 기타 지역적 특성에 적응한 경제적인 구조 형식을 택하는 것은 절약을 위한 큰 예비로 된다.

우리 나라에는 도처에 석재, 석비레, 목재 등을 비롯한 풍부한 건재 원천이 있다.

그러므로 심심산'골에 있는 광산의 선광장을 건설하기 위하여 콩크리트 부재나 콩크리트 전주를 운반해 갈 필요가 없으며 화강암, 응회암 등 좋은 석재가 있는 산간 지대에 벽돌이나 세멘트를 실어다가 주택을 지을 필요가 없으며 황해남도에 짓는 집 구조를 자강도에 짓는 집 구조와 같게 할 필요가 없다. 돌이 많은 데서는 돌로, 목재가 많은 데서는 목재로, 석비레가 많은 데서는 석비레로 집을 지을 수 있게 설계를 만들며 시공을 조직해야 한다. 기본 건설에서 농촌 건설과 채취 공업 건설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오늘 지방 건재를 리용하고 경제적인 구조 형식을 선택하는 것은 비단 건설비를 절약하는 데서만 그 의의가 있는 것이 아니라 또한 긴장된 운수 문제를 푸는 데서도 커다란 의의를 가진다.

건설의 공업화는 건설 작업에서 기계화 수준을 높이고 로동 생산 능률을 제고하여 건설비를 크게 저하시킨다.

이미 1958년에 평양시 건설자들은 당의 호소를 받들고 주택 건설에서 전면적인 공업화로 이행함으로써 7,000 세대의 주택 건설 자금으로 2만 세대 이상의 주택을 건설한 경험을 가지고 있다.

우리는 이미 얻은 경험과 교훈을 살리면서 공업화 정책을 계속 관철하여 건설의 온갖 단위에서 건설비를 극력 저하시켜야 한다.

이와 함께 모든 건설장들에서 철재, 목재, 세멘트 등 중요 건설 자재들의 소비 기준을 계통적으로 낮추며 보관 관리를 개선하여 물자의 랑비를 방지하고 건설 원가를 낮추도록 하여야 한다.

기본 건설 투자의 경제적 효과성을 제고하는 데서 건설비의 저하는 결정적인 의의를 가진다.

그러나 이것은 투자의 효과성 제고를 위한 유일한 방도는 아니다.

기본 건설 투자의 경제적 효과성은 건설비와 함께 건설물의 경영비 수준에도 크게 의존한다.

생활은 건설물에서의 경영비의 절약이 기본 건설 투자의 경제적 효과성을 높이게 하는 또하나의 중요한 고리이라는 것을 보여 주고 있다.

실지 기술 공정이 합리화되고 작업 공정이 기계화되였을 뿐만 아니라 직장, 작업반 및 기대 간에 균형이 보장되여 있는 생산적 건설물에서는 그 운영비가 매우 낮다. 이것은 전화된 형태에서의 기본 건설 자금의 절약이며 기본 건설 투자의 효과성 제고를 의미한다.

비생산적 건설에서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례를 들어 농촌 주택 건설에서 주민 구성의 구체적 실정에 맞게 세대당 간수 비률을 합리적으로 설정한다든가, 공공 건물 건설에서 선진적인 건축 기술과 경험을 적극 도입하여 한 건물을 다각도로 리용할 수 있게 건설한다면 실지 투하된 자금의 효과는 더 클 것이다.

그러므로 모든 설계 일'군들, 시공 일'군들은 나라의 주인다운 립장에서 건설물의 생산성과 편리성을 높이고 경영비를 절약하자면 어떻게 해야 하

는가를 알아 내고 해당한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4

우리 나라에서 건설을 집중화하고 투자의 경제적 효과성을 높이며 제한된 자금으로 더 많은 생산 능력을 조성하는 문제는 어느 개별적 집단이나 부문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 재생산에 참가하고 있는 모든 집단, 모든 일'군들의 높은 창발적 열성과 공동의 노력에 의해서만 원만히 해결될 수 있다. 즉 계획 일'군들로부터 건설주, 설계 및 시공 일'군들에 이르기까지 관리 지도 일'군들로부터 로동자, 기술자들에 이르기까지의 모든 일'군들이 인민의 귀중한 재부인 건설 자금이 어떻게 투자되고, 어떻게 실현되며, 그 경제적 효과성이 어떠한가에 대하여 항상 관심을 돌릴 뿐만 아니라 자금의 랑비와 비경제적 리용에 대하여서는 추호도 용허하지 않을 때 나라의 경제 토대를 강화하는 과업의 실현은 촉진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당의 집중화 정책을 관철하고 투자의 경제적 효과성을 높이기 위하여서는 무엇보다도 광범한 일'군들 속에서 사상 교양 사업을 선행시켜야 하며 그에 물질적 자극을 옳게 배합하여야 한다.

기본 건설에서 집중화의 결과나 투자의 경제적 효과성은 많은 경우에 은폐된 형태로 나타나는 데로부터 개별적 단위에서 그것을 직접 인식하고 평가하는 것이 매우 어렵다. 그러므로 건설 부문에서 정치 사업을 전개하거나 물질적 자극을 강화하는 것이 극히 복잡할 뿐만 아니라 많은 경우에 그것이 일반적인 호소에만 그치고 말 우려가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은 사정은 지도 일'군들로 하여금 이 문제에 특별한 주의를 돌리며 구체적인 실정에 맞게 사업을 심화시킬 것을 요구한다.

우선 건설을 집중화하며 투자의 경제적 효과성을 높이는 문제가 경제 발전을 촉진하는 데서 가지는 거대한 의의와 그 실현을 위한 구체적 방도들을 근로자들 속에 광범히 해설 침투시켜야 한다.

이에 있어서 특별히 주의할 것은 모든 단위들에서 기술 경제적 분석 사업을 강화하고 거기서 얻은 구체적인 자료를 가지고 정치 사업을 진행하는 것이다. 이것은 일'군들로 하여금 자기들의 노력의 결과가 어떠한가를 제때에 알게 함으로써 사업에 대한 높은 긍지를 가지게 하며 맡겨진 과제 수행에서 자각적 열성을 크게 발양시키게 한다.

기본 건설 투자의 효과성 제고와 관련한 정치 사업을 전개함에 있어서 또한 중요한 것은 이 사업을 일부 지도 일'군들 속에서 발로되고 있는 그릇된 관점 특히는 나라 살림살이에 대한 무책임한 태도를 퇴치하기 위한 사상 투쟁과 결합시켜 진행하는 것이다. 정치 사업을 이렇게 진행함으로써만이 일'군들 속에서 당성, 계급성, 인민성을 확립케 하고 사업에서 주관주의, 형식주의, 본위주의를 극복하게 하며 언제나 국가적 립장에 서서 일'군들이 사고하고 행동하게 할 것이다.

사상 정치 사업을 선행시키면서 그에 물질적 자극을 배합하는 것은 투자의 경제적 효과성을 제고함에 있어서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지금 건설 분야에서 투자의 효과성 제고를 위한 물질적 자극을 강화하는 데서는 개선할 문제들이 허다하다.

물론 이것은 로동의 결과를 즉시에 그리고 정확히 측정하는 것이 다른 부문에 비하여 어려운 사정과 크게 관련되여 있다.

건설 분야에서 사회주의 분배 원칙을 정확히 관철하고 물질적 자극을 강화하는 것은 국가에 주는 리익의 견지에서 볼 때 다른 물질적 생산 분야에서의 그에 비하여 더 중요하다. 그리고 실지 우리가 진지하게 연구하고 필요한 대책을 강구하며 독립 채산제, 현물 평가제, 도급제 등의 경제적 공간들을 합리적으로 적용한다면 이 문제를 능히 해결할 수 있는 것이다.

기본 건설 투자의 효과성 제고를 위한 물질적 자극을 강화하기 위하여서는 국가에 준 리익에 상응하게 기업소 내 매개 일'군들이 물질적으로 혜택을 입도록 하는 효과적인 대책을 강구하는 것이 요구된다.

이미 건설 기업소에 도입되여 적지 않은 성과를 거둔 현물 평가제는 이 문제를 능숙하게 해결한 합리적인 형태의 하나로 된다.

현물 평가제는 건설의 분산을 방지하고 조업 개시 기일을 앞당기며 투자의 효과성을 높이는 데 강력한 자극을 줄 수 있도록 이것을 개별적인 일'군들의 리해 관계와 직접적으로 결합시킨 것이다.

설계 부문에서 우수한 설계에 대한 평가 문제도 국가와 개별적인 일'군들의 리익을 철저히 결합시키는 원칙에서 반드시 합리적으로 해결되여야 한다.

기본 건설 투자의 리용 문제는 국가 살림살이를 꾸리는 데서 극히 중요한 의의를 가지는 것 만큼 이에 대한 국가적 검열, 통제 사업이 반드시 안받침되여야 한다.

지방 인민 위원회들과 각종 검열, 통제 기관들은 건설 기관, 기업소들에서 건설을 분산시키거나 조업 개시 기일을 지연시키는 현상들을 제때에 적발 시정시키며 계획 외 공사를 철저히 단속 통제하여야 한다.

정치 사업을 선행시키고 물질적 자극을 배합하며 국가적 통제를 강화하는 이 모든 것들은 각급 당 조직들의 령도적 역할을 일층 높임으로써만 성과적으로 해결될 수 있다.

그것은 기본 건설이 건설 부문에만 국한되는 사업이 아니라 물질적 생산의 여러 부문들과 관련되는 사업이며 또 그 자체가 국가의 만년대계를 꾸리는 사업이기 때문이다.

각급 당 조직들은 기본 건설 사업을 경제 지도에서의 가장 중요한 문제로 제기하고 그것을 튼튼히 틀어 쥐며 키잡이 역할을 높은 수준에서 진행하여야 한다.

오늘 건설 부문 당 조직들 앞에 나선 중요 과업은 현대적인 복잡한 건설을 원만히 보장할 수 있도록 기술 전문 별로 건설자 대렬을 튼튼히 꾸리고 그들의 역할을 높이는 동시에 간부들의 관리 지도 수준을 제고하는 것이다.

특히 건설의 경제적 효과성 문제가 과학 기술의 발전에 크게 의존하는 조건에서 이 부문의 당 조직들은 설계 일'군들을 비롯한 건설 기술자, 전문가들과의 사업을 강화하는 것이 요구된다.

건설 부문 내 모든 당 조직들은 설계 일'군들을 비롯한 기술자, 전문가들 속에서 정치 사업을 강화하여 그들이 조금도 자만하거나 또 안일 해이됨이 없이 정력적으로 사업하며 선진 과학 기술의 요새를 성과 있게 점령해 나가며 광범한 로동자들을 도와 당이 요구하는 대로 기본 건설 사업을 급속히 발전시키도록 하여야 한다.

건설 부문에서는 상술한 바와 같은 제반 경제적 및 조직 기술적 대책들을 강구하고 방대한 예비와 가능성을 찾아 내여 더 많이, 더 좋게, 더 효과성이 높게 건설함으로써 인민 경제에 보다 많은 생산 수단을 보장해 주고 근로자들에게 주택과 문화 후생 시설을 충분히 보장해 주어 7개년 계획의 높은 고지를 어김 없이 점령하도록 하여야 한다.

《한국사》를 평함 (3)

—15~19 세기 중엽을 중심으로—

원사 김 석 형

력사학 학사 장 국 종

《한국사》 제 3 분책(《근세》 전기 편)과 제 4 분책(《근세》 후기 편)에서는 우리 나라 봉건 시대의 발전기인 15~16 세기와 그 붕괴기인 17~19 세기 중엽을 각각 취급하였다. 이것은 왕조사적으로 보면 리조의 성립으로부터 그 말엽에 이르는 시기에 해당한다. 이 4,5 세기 동안에도 우리 인민은 가혹한 봉건적 억압과 끊임 없는 외래 침략을 반대하는 투쟁을 통하여 빛나는 애국주의 전통을 이룩하였으며 우수한 민족 문화 유산을 다음의 시기 즉 근대에로 물려 주었다.

뿐만 아니라 이 시기에 우리 봉건 사회 내부에서는 근대 자본주의 사회에로의 이행을 준비하는 일련의 요소들이 자라났다.

이것은 우리의 력사가 우여곡절을 겪으면서도 한자리에 답보하지 않고 계속 발전하였음을 말하는 것이며 조선 인민 자체의 힘으로 사회, 정치, 경제, 문화의 모든 령역에서 전진과 변혁을 이룩할 수 있었음을 보여 주는 것이다.

《한국사》 제 3, 제 4 분책의 편자는 그 제 1, 제 2 분책의 편자들과는 약간 어조를 달리 하여 《민중의 력사》, 《새로운 력사》를 써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문화 사관》, 《사회 사관》을 표방하고 있으나 그 역시 사실인즉 전자들과 마찬가지로 조금도 《새로운》 것을 내여 놓지 못 하였으며 《민중》의 편에 설 대신에 침략자와 봉건 지주 계급의 립장에서 력사를 서술하고 있다.

1

우선 《한국사》는 임진 조국 전쟁 시기 왜적을 반대하여 싸운 조선 인민의 투쟁을 외면하였으며 근대 외래 자본주의 세력의 침입을 미화하고 있다. 이로써 《한국사》는 미일 제국주의자들의 조선 침략을 뒤받침해 주고 있다.

15~19 세기 중엽 우리 인민의 반침략 전쟁들에서 가장 큰 자리를 차지하는 것은 1592~1598년의 임진 조국 전쟁이다. 흉악무도한 일본 사무라이의 침략을 반대하여 우리 인민은 극히 불리한 처지에서도 최후의 빛나는 승리를 쟁취하였다. 바다의 리 순신 무적 함대와 륙지의 곽 재우 부대를 비롯한 영용한 의병 부대들과 우리 인민들의 투쟁은 불리한 전국을 수습하고 적을 타승할 수 있었던 결정적 요인이였다.

그러나 《한국사》의 《문화 사관》에서는 우리 의병 부대들의 활동이 《작전 상 큰 수복(收復)은 없었던》(제 3 분책, 620 페지) 것으로 극히 미미하게 묘사하였다. 그러다 보니 이 《사관》에서는 당시 우리를 지원해 온 명나라 군대의 역할이 지나치게 과장되지 않을 수 없었다. 일례로 전쟁 진행 과정을 직관적으로 보여 주는 지도(제 3 분책, 623 페지)에는 조선 의병과 관군의 중요 행군로, 주둔지

등 일체 중요한 군사 작전 상 의의를 가지는 것들은 거의 무시되고 주로 명나라 군대의 진공로와 주둔지, 왜군의 점령 지역이 기입되여 있을 뿐이다.

당시의 조선 《민중》을 대표하던 우리 의병들의 활동을 이와 같이 무시한 이 전쟁 지도는 결코 조선 사람의 력사 지도로는 될 수 없다.

조선 인민의 투쟁을 허무주의적으로 대한 《한국사》의 편자는 조선 정부에서 《명군의 계획에 따라 장관을 분파(分派)하여…수비하게 되였다》(제 3 분책, 653 페지)고 하면서 사실을 외곡하여 투쟁의 주인을 명나라 군대로 묘사하고 있다.

임진 조국 전쟁 때 조선과 명의 두 나라 군대가 공동의 원쑤 일본 침략자를 반대하여 여러 전선에서 협동 작전을 진행한 것은 사실이다. 《한국사》의 편자도 궁한 나머지 몇 군데서 부득이 실토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처럼 당시 명나라 군대의 역할은 제한된 것이였다. 구체적인 전쟁 과정이 보여 주는 바와 같이 왜적의 침입을 반대하는 이 전쟁에서 주동적 역할을 담당 수행한 것은 조선 인민이였다. 임진 조국 전쟁 서술에서 이와 같이 주객을 전도하는 것은 일제 어용 학자들이 오래 전부터 써 오던 상투적인 수법이였다.

《한국사》는 다시 더 나아가 왜적을 반대해 싸운 우리 인민들을 모독하고 그들의 각종 형태의 투쟁을 외곡하였다. 심지어 우리 인민을 방화범으로까지 만듦으로써 우리의 고귀한 문화재에 대한 왜적의 야만적 파괴 소각과 략탈 행위를 감싸주었다. 당시 왜적들은 다른 어느 지방에서도 그러하였지만 특히 서울에서 우리 나라의 귀중한 문화 유물을 무참히 파괴 소각하고 략탈해 갔다. 그러나 《한국사》 편자는 그 죄를 오히려 수도 인민들에게 돌리고 있다.

당시 서울 인민들은 평시에는 가혹하게 인민들을 억압 착취하다가 왜적이 쳐왔을 때에는 배신적으로 도망한 악질 통치자들의 집과 아울려 인민들을 직접 가혹하게 억압 착취하던 관료 기구 례하면 노비를 취급하던 장예원(掌隷院) 등을 불살랐던 것은 사실이다.

이와 같은 인민들의 당연한 보복 투쟁을 왜적들의 서울 강점에서 빚어진 본격적인 파괴 방화 행동보다도 더 강조하는 것은 《한국사》 편자의 무지라기보다도 왜적의 후손들에게 아첨하려는 비굴성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당시 인민들이 배신적인 통치 계급에게 준 타격은 극히 제한된 범위의 것이였으며 수도의 전면적인 파괴 소각은 왜적이 서울을 강점한 후의 일이다. 《한국사》의 편자가 서울을 파괴 소각하였다는 《란민(亂民)》이야말로 바로 서울 뿐만 아니라 지방 도처에서 의병을 조직하여 왜적과 싸웠으며 귀중한 문화재를 적들의 파괴와 략탈로부터 수호한 사람들이였다. 리조 실록을 비롯한 고귀한 각종 문화재의 수호에서 발휘한 우리 인민의 고상한 애국 정신은 영용한 의병들의 투쟁과 함께 전쟁의 전 과정을 빛내고 있다.

《한국사》의 편자는 임진 조국 전쟁의 종결을 침략의 괴수 도요도미 히데요시의 사망에서 초래된 당연한 결과로서 묘사하였는데 결국 이는 임진 조국 전쟁에서 조선 인민이 승리하지 못하였음을 선전하려는 것이다.

일제의 식민지 기반에서 해방된 오늘날에 와서도 이렇게까지 일제의 비위를

맞추기에 애쓰는 일련의 《력사학자》들이 있다는 사실은 실로 가슴 아픈 일이다.

《한국사》의 편자는 1627년 녀진의 침입에 대해서도 그것이 녀진 측의 침략적 야욕에서 출발한 것이 아니라 《조선이 그 국내에 명(明)의 장병을 주류(駐留)시켜 이를 은연히 원조하고 후금(後金—녀진)에 대하여는 사절(使節—사신)의 왕래조차 없는 상태이라 이에 조선을 정벌하여 명의 본토 진입 전에 그 후환을 없애고 또 조선과의 통교(通交)로써 무역 상의 리득을 얻고자 마침내 인조 5년(정묘—1627년) 정벌 개전을 결의하》(제 4 분책, 89 페지)였다고 썼다.

《한국사》는 이 전쟁을 서술하는 데서도 침략자가 구실로 내걸던 말을 편자 자신의 말로 되풀이하고 있는 것이다.

《한국사》 편자의 이러한 립장은 근대에 들어 와서 자본주의 렬강의 침입과 관련하여 더욱 로골적으로 나타난다. 천주교의 침투를 자본주의 렬강의 침입과 분리시키고 있는 《한국사》는 천주교를 《근대 문명의 서광》으로 묘사하면서 그것이 조선에 비법적으로 들어 온 사실을 감추고 《정조 14년(1794년)에 선교사의 파견을 간청한 조선 신도(信徒—교도)들의 희망에 따라 익년 북경 주교(北京 主教)는 포도아인 신부 〈레메더오스〉를 조선으로 보냈다》(제 4 분책, 312 페지)고 하였다.

1801년의 천주교에 대한 탄압 사건은 외래 자본주의 침입의 척후병인 사교(邪教)의 교도들에 대하여 당시 조선 정부가 국법으로 처단한 정당한 조치였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사》의 편자는 이 사건에 대하여 침략자의 립장에 서서 《유감의 뜻》을 표시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자본주의 렬강의 무력을 끌어 들여 조선 정부를 굴복시키려던 매국적인 황 사영(黃嗣永)의 편지 사건에 대하여 《한국사》는 그것을 기를 쓰고 감싸주면서 선량한 한 교도가 프랑스에 그 《교난의 전말과 현상을 상세히 호소하고 원조를 청하려고》 한 것으로 묘사하고 계속하여 이 편지 사건은 《천주교도를 매국적이라고 보던 관헌(官憲)이나 반대파에게는 외세 도입이라는 절호의 구실과 증적(證跡)을 준 셈이》(제 4 분책, 324 페지)였다고 하였다. 이런 자들을 반역자로 보지 않고 반대로 극력 비호하는 편자의 이 파렴치한 립장은 바로 오늘 미 일 제국주의에 복무하는 남조선 력대 괴뢰 도당들을 감싸주려는 것 외에 아무 것도 아니다.

1861년 천주교 탄압 역시 국법에 의한 정당한 조치였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사》는 이것을 조선 측이 잘못을 저지른 《참상(慘狀)》으로 묘사하였다.

근대 자본주의 침입을 미화하는 《한국사》는 19 세기 초의 자본주의 침략의 선견대인 이양선(異樣船)의 조선 근해 출몰에 대해서도 그 침략성을 엄폐하고 그것을 《조선의 근해 측량이나 혹은 〈탐험〉적인 호기심에 의한 접근에 불과하였던 것이다》(제 4 분책, 402 페지)라고 하여 마치도 평화적 목적을 가지고 온 것처럼 사실을 외곡하였다.

삼척동자가 생각해도 부인할 수 없는 1866년 프랑스 함대의 강화도 침입에 대해서도 그것을 침략 행동이 아니라고까지 하였다.

《한국사》 편자에게는 프랑스의 침입이 《두 신부를 구출하기 위하여 출병》(제 4 분책, 392 페지)한 것으로 보였던 것이다. 기독교 선교사를 남의 나라

에 비법적으로 잠입시켜 종교의 간판을 걸고 정탐 활동을 감행케 하다가 체포 처단 당하면 이를 구실로 군대를 파견하여 그 나라를 침략하는 것이 구미 자본주의 침략자들의 동방 아세아에 대한 구식민주의 수법이라는 것은 《한국사》의 편자도 모를 리 없는 명백한 상식이다. 그러나 《한국사》의 편자는 구미 침략자들과 관련된 서술에서는 이와 같이 자신을 속이고 있는 것이다.

1866년 《셰너럴 셔맨》호의 침입에 대한 서술에 이르러서는 침략자가 미국인인 것 만큼 편자의 비굴한 립장이 더욱 로골적으로 드러나고 있다. 《한국사》에 의하면 해적선의 침입 목적이 마치도 《조선 해상의 조난(遭難) 선원을 구조할 것과 무역을 여는》(제 4 분책, 425~426 페지) 데 있으며 조선 인민에 의한 그의 격퇴는 《셰너럴 셔맨》호가 대동강을 소항(遡航)하여 화공(火攻)을 당하는 《불상사》로 되고 있다. 《셔맨》호가 조선의 금은 보화를 탐내여 평양과 그 부근에 기여 들었다는 사실은 《한국사》의 편자도 부정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사》 편자는 상대가 성조기를 단 미국 배였기 때문에 그 침입 목적을 얼버무릴 수 밖에 없었다.

재생하는 일본 군국주의에 아첨하는 《한국사》의 편자는 《강화 조약》 서술 부분에서도 그 침략적 본질을 폭로한 대신에 조약 《제 1 조에 조선은 자주지국임을 특서(特書)함으로써 청국의 속국이 아닌 독립국임을 세계 렬국(列國)에 처음으로 공포 선명한 것이다》(제 4 분책, 435 페지)라고 함으로써 일본의 침입에 의하여 비로소 조선의 독립이 선포된 것처럼 떠벌리였다. 이 조약에 조선이 자주의 나라임을 새삼스럽게 밝힌 것은 일본 침략자들의 딴 《배'심》을 반영한 데 불과한 것이다.

2백 수십여 년간의 조청 관계에서 볼 때 조선의 외교 활동에 대하여 청나라 정부는 간섭할 수도 없었고 간섭한 일도 없었다. 그러나 강화도 조약 체결 당시에 이르러 청나라는 새롭게 맺어지려는 조 일 관계에 간섭하려고 하였다. 이러한 간섭에는 전통적인 봉건 외교 형식 문제를 놓고 구명하여야 할 점이 없지는 않으나 아뭏든 당시의 조선이 청나라의 속국이 아니였음은 《한국사》의 편자도 모를 리가 없다.

《한국사》의 편자가 우리 인민의 애국 투쟁을 이 시기 서술에서도 이와 같이 계통적으로 외곡함으로써 일관하여 외래 침략자들의 범죄 행위를 극력 엄폐 또는 미화하고 있는 것은 바로 오늘 미 일 제국주의자들의 침략 행위와 나라를 송두리째 팔아 먹고 있는 남조선 반동 통치배들의 더러운 계급적 처지를 두둔하고 미화하는 것 외에 아무 것도 아니다. 《한국사》 편자의 이러한 립장은 우리 봉건 사회의 내부 문제를 취급하는 데서도 그대로 드러났다.

2

《한국사》는 외래 자본주의 침입 이전 시기에 조선 봉건 사회 내부에는 자본주의 요소조차 발생하지 않았다고 력사를 외곡하였으며 우리 나라의 문화를 모독하였다.

《한국사》의 편자는 리조 후기의 우리 나라의 상품 화폐 관계가 매우 락후하였다고 서술한 다음 《장시(場市—시장)

는…개개의 고립적 존재이요, 타 장시와의 련결은 몇 사람들의 부보상(負褓商—등'짐 장사와 보'짐 장사)에 의하여 보지(保持)되는 상태였던 것이다》(제 4 분책, 257 페지)라고 하였다.

18 세기 이후의 우리 나라 시장은 몇 사람의 보부상에 의하여 련계가 취해지는 정도로 상품 류통 면에서 보잘것 없는 것이거나 자연 경제의 장벽에 의하여 폐쇄된 고립적인 개개의 존재는 아니였다.

나라의 상품 류통 령역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 장시는 18 세기 중엽에는 함경북도를 제외한 전국 각지를 포괄하였고 전국의 장시는 1,000여 개에 달하였다. 장시에서는 부근 농민들과 함께 여러 지방을 돌아 다니면서 장사하는 보부상들과 배편을 리용하는 선상(船商)들에 의하여 전국 각지의 상품이 광범히 류통되였다. 그 중 특히 규모가 큰 장시들은 전국적으로 손꼽히는 상업 도시로 발전하였다. 중요한 도시와 장시를 련결하는 신작로(新作路)도 개척되였다. 상인들의 교통, 운수, 통신 조직은 정부의 교통 운수 체계인 우역(郵驛) 제도와 통신 체계인 기발(騎撥), 보발(步撥) 제도에 비하여 훨씬 신속 정확하고 다양하였다. 이와 동시에 수상 교통로가 발달함에 따라 비교적 먼 지방의 물품들이 장시에 모여 들었다. 항구를 낀 강경, 마산, 원산, 진주 등지의 장시를 대상으로 하여 대상인들이 큰 배를 가지고 다니면서 장사하였다.

고문서의 기록들에 의하면 치밀한 도로와 장시망으로 각 지방의 여러 장시, 도시들과 련결된 전주 읍내 장의 상인들은 전라도 각지의 피물(皮物)을 비롯한 다양한 상품을 사들이며 큰 배편에 의주의 야일개(野日浦)까지 실어 보내는 일이 드물지 않았다. 생산지와 소비지를 련결하는 도로망과 항로의 발달에 일정한 제한이 있고 자급자족적인 자연 경제의 장벽이 의연히 뻗치고 서 있었던 것은 사실이나 장시를 통한 상품 류통 과정의 진전은 미약하나마 자연 경제의 장벽을 밑으로부터 뒤흔들어 놓기 시작하였으며 이로써 비록 완만하게는 하였으나 전 민족적 시장 형성 과정이 준비되여 갔다.

상품 화폐 관계와 장시의 발전을 왜소하게 평가한 《한국사》의 편자는 사회의 《상류에 자본의 축적이 없고 하류에는 극빈한 농민들이 군거(群居)하고 있었을 뿐이니 생산력이 발전할 근저(根底)가 없고 특히 산업이나 공업 같은 것은 량반 자신들이 이것을 천시하므로 그것을 일으키거나 촉진할 요인이 없었다》(제 4 분책, 277~278 페지)고 아무도 설복시킬 수 없는 황당무계한 궤변을 늘어 놓았다.

《한국사》는 계속하여 일본 제국주의 침입 이전의 조선 봉건 사회 내부에서는 《근대적인 경제 조직을 배양할 아무 싹도 볼 수 없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제 4 분책, 278 페지)고 단정함으로써 일제의 조선 침략을 합리화하는 데로 나갔다.

과연 《한국사》의 편자가 주장하는 것처럼 리조 후기에 조선 사회 내부에서 자본 축적이 불가능하였고 생산력이 발전할 근거가 없었으며 근대적 경제 조직을 배양할 아무러한 싹도 찾을 수 없었다는 말인가? 력사적 사실은 《한국사》 편자의 주장과는 아주 다른 정경을 보여 준다.

전 민족적 시장 형성이 준비되고 있은 데 대하여서는 앞에서 지적하였다. 이에 따라 18 세기 이후 봉건 통치 체제는 반봉건 투쟁에 의하여 뒤흔들리기 시작하였으며 봉건적 신분 제도에도 금

이 생겨 났다. 령락한 농민들은 이전처럼 노비 신분으로 전락하여 인신적으로도 타인에게 예속되는 일은 극히 드물게 되였으며 일정하게 신분적으로 《자유》롭게 된 농민들은 도시 수공업장에로 흘러 들거나 관료들의 통제를 덜 받는 깊은 산중에 있는 광산 혹은 해안과 섬에 들어 가 고용 로동자로 되였다.

중세기적인 부역 밖에 몰랐던 국가 경리의 운영과 광업, 수공업 등의 생산 부문에서 고용 로동이 광범히 적용되였다. 《자유로운》 임금 로동이 출현하고 상업 자본의 산업 자본으로의 전화 과정이 극히 제한된 범위에서나마 진행되였다. 18 세기부터 일부 금, 은, 동, 철 광들에서 자본주의 경영 형태들이 출현하였다. 1858년에 이르러서 함경도 암행어사는 자신이 보고 들은 것을 왕에게 보고한 가운데서 《매개 금, 은, 동 광산들에서는 수천 명의 일'군들이 모여 들고 물품으로 없는 것이 없으며 읍내 부호들이 여기에 투자하는 경우가 많아 천척이나 깊은 광갱(鑛坑)들을 파고 있다》는 것을 들고 있다.

이 시기 상업 자본의 산업 자본으로의 전화 과정은 다른 수공업 부문에서도 일어 나고 있었다. 18 세기 70 년대 말 봉건 정부에서 금속 화폐 100만 량을 주조할 때에 오한주(吳漢柱)를 비롯한 상인 조직과 상인들이 이에 투자하였다. 오한주는 19 세기 초에 유기(鍮器)를 매점하였고 19 세기 50 년대에는 정부로부터 화폐 주조 청부를 맡고 자기 자본으로 원료와 연료를 구입하고 로동력을 사서 20만 량을 주조하였다. 유철 수공업 부문에서 임금 로동의 보다 발전된 형태는 상인들이 직접 경영하는 유기 수공업장에서 찾아 볼 수 있다. 19 세기 50 년대부터 이름 난 평북 운전군 청정리의 납청(納淸) 유기는 자본주의적 경영 방법으로 생산되였다. 자본가인 경영주는 2만~3만 량의 자본을 가지고 설비와 원료를 장만하였고 로동자들은 3 개의 공정에서 각각 자기 맡은 일을 수행한 데'가로 경영주로부터 임금을 받았다.

수공업장의 규모는 작았으나 제품의 판로는 전국적이였다. 수공업의 다른 부문과 어업 경영에서도 사정은 류사하였다.

이와 같이 우리 봉건 사회도 한자리에 답보하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인류 력사 발전의 합법칙적인 로정을 따라 새로운 근대 사회에로의 비약을 준비하고 있었던 것이다. 《한국사》의 편자들과 그 밖의 제국주의 종복들만이 이와 같은 력사적 사실을 덮어 놓고 가리여 보려고 애쓰지마는 그들의 시도는 어느 때도 성공하지 못할 것이다.

《한국사》는 이 시기의 문화를 서술함에 있어서도 꼭 같은 립장을 취하고 있다. 《한국사》는 《순조 일대와 고종 갑오 개혁까지를 일거로 한 시기(19 세기 초~1894년)는 혼돈하고 불안하고 침체하고 무질서한 사회상이 문학 방면에도 나타나서 창극과 잡가가 아무 계통도 없이 배회하고 창작의 능력도 고갈되여 볼 것이 없이 지나 오면서 일본을 통한 서양의 신문예 사조를 받아 들이게 될 기운을 기다리고 있었다고 하여도 가할 것 같다》(제 4 분책, 603~604 페지)고 하였다.

이것은 흑백을 완전히 전도한 것이다. 19 세기 초부터 농민 폭동을 주제로 한 농민 민요는 도시 주민들의 음악 생활에 심대한 영향을 주었는바 도시 주민들은 이러한 농민 민요들을 자기들의 감정에 맞게 소화하여 새 류형의 가요를 구두로 창작하기 시작하였는데 이런 노래들은 총체적으로 잡가라고 불렀다. 잡가는 인민들 속에서 오랜 전통을 가지고 전래한 민요들에 기초하면서 19

세기에 자기의 새로운 경지를 개척하여 력사 무대에 등장하였다. 인민적이며 전투적인 잡가는 발생 초기부터 높은 수준의 도시 가요로서 가곡(歌曲) 계렬의 가요를 압도하고 당시 인민들의 예술 생활의 전면에 나섰던 것이다.

창극은 천재적인 판소리의 명수 신재효(申在孝, 1812～1884)와 그의 제자들의 눈부신 노력에 의하여 그 기초가 닦아졌다. 신 재효의 후계자들인 조선 창극인들은 외래 침략 세력과 그 반동 문예 사조를 반대하고 19 세기에 이룩된 창극 문화의 우수한 싹을 계승하였던 것이다.

외래 자본주의 침입 이전 시기에 발생하였거나 그 기초가 이루어진 잡가와 창극의 전통을 묵살한 《한국사》의 편자는 우리의 재능 있는 봉건 시대의 연극인들에 대해서도 모독하면서 당시 연극이 발전하지 못한 것은 《무식 무기력한 예인(藝人)들이 사회의 최하층에서 구차히 존속할 뿐이》(제 4 분책, 609 페지)였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봉건 지주 계급의 리익을 대변하는 《한국사》의 편자는 당시 광대로 불린 연극인과 같은 피지배 계급 출신의 예술가들을 무력한 것으로 보고 천시하였다.

《한국사》의 편자는 봉건 통치의 부패상을 폭로하는 다른 모든 우수한 인민적 작품들과 그 작가에 대하여도 마찬가지로 적대시하였다.

조선 실학자의 대표자의 한 사람이며 봉건 제도의 부패상을 신랄하게 폭로한 천재적 작가인 연암 박 지원에 대하여 《한국사》는 부득이 《대문장가》라고 인정하면서도 그의 일파의 문체를 《사체(邪體)》로 규정하고 관변적인 《정통파》와 구별된다고 하면서 헐뜯고 있다.

《한국사》의 편자는 또한 김 삿갓과 그의 시를 평가하여 《그 위인과 그 파격시(破格詩)가 한문단(漢文壇)에서 이채를 띤 존재였다. 국말(國末)의 란정(亂政)과 시대의 문란한 풍조를 희롱하는 일종의 희화(戱畵)적 존재로서 정상적인 문학적 작품이라고 할 수는 없고 일종의 희문(戱文)에 불과한 것이나 국말 세상(世相)의 반영으로 볼 수 있는 자료가 되는 것이다》(제 4 분책, 596 페지)라고 하였다. 《한국사》 편자의 의견에 의하면 김 삿갓의 시는 시 이전의 한 개 희롱적인 문장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이처럼 지배 계급의 립장에서 《한국사》를 서술한 편자는 봉건 말기의 낡고 추악한 것들—량반들과 토호들, 승려들과 풍수쟁이들을 위력 있는 풍자의 웃음으로 규탄한 재능 있는 인민적 시인 김 삿갓을 고의적으로 내리깎고 헐뜯었다.

김 삿갓의 작품에 대한 모독과 17 세기의 반동 학자이며 정치가인 송 시렬에 대한 평가는 매우 대조적이다.

송 시렬은 리 이의 철학 사상을 계승하였으나 인식론에서 그의 선진적 요소들을 완전히 포기하고 철저한 관념론에 떨어졌다. 리조 시기의 대표적 사대주의자의 한 사람인 송 시렬의 사회 정치적 견해는 극히 반동적인 것이였다. 로론당파의 립장을 합리화하는 그의 사상 체계는 리조 멸망에 이르기까지 봉건 통치 계급의 전통적 사상으로 복무하였으며 이와 다른 모든 사상 조류는 탄압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사》의 편자는 리조 후반기의 가장 반동적 학자이며 인민에게 가장 적대적이였던 송 시렬에 대하여 《걸출한 학자》, 《엄의강대(嚴毅剛大)하고 영웅 호걸의 기상》(제 4 분책, 446 페지)을 가진 학자로 묘사하고 있다.

김 삿갓을 헐뜯고 모욕하면서 송 시렬을 이와 같이 숭상하는 것은 우리 나라 봉건 지주 계급의 비루한 사대주의

를 비호하고 정당화하려는 립장에서 온 것이다.

《한국사》는 이 시기 우리 문학 예술사 전반을 슬기로운 우리 인민의 예술적 재능의 자체 발전의 력사로서가 아니라 오로지 큰 나라의 것의 영향과 그것의 모방으로서 처리하고 있다.

《한국사》의 이러한 립장은 오늘도 조선 인민을 식민지 노예로 다시 만들어 보려고 망상하는 자들 외에 그 누구도 즐겁게 할 수 없을 것이다.

3

봉건 지주 계급의 립장에 선《한국사》는 빈말을 늘어 놓으면서 인민들의 반봉건 투쟁을 교묘한 수법으로 심히 모독하였다.

《한국사》의 편자는 앞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종래의 력사가 왕가(王家)를 중심으로 하는 것이요, 정치에 편중하는 것이요, 어떠한 일부 계층을 위주하여 일반 민중을 경시 무시한 것이므로 이것을 근본적으로 해소하여야 하고 새로운 력사는 마땅히 민중의 생활을 토대로 한 기록이여야 한다는 주장이 있고 종래의 사료를 근본적으로 재검토 재편성하여야 한다는 태도도 있어 필자도 이러한 사조에 동감하기도 하고 또 그러한 점에 념급 고려(念及 考慮)하고자 힘쓰기도 하였》(제 4 분책, 670 페지)다라고 하였다. 이 말이 얼마나 위선적인가 하는 것은 《한국사》가 왕정 내부의 움직임에 대하여 어느 정도로 많은 관심을 돌리고 있는가에서와 인민들의 반봉건 투쟁을 얼마나 모욕하고 있는가에서 잘 드러난다.

《한국사》는 다른 부르죠아 력사서에 못지 않게 지배 계급 내부의 싸움인 당쟁에 대하여 지루하게 설명하고 있다. 그러면서도 이 책에서는 같은 종류의 다른 력사서에 비하여 봉건 정부의 재정 경제적 면과 시책이 좀더 자세히 서술되여 있다. 그러나 이런 것으로 하여 《민중의 력사》의 면모가 갖추어지는 것이 아니다. 《민중의 력사》가 되기 위해서는 바로 《한국사》의 편자가 적대시하고 되는 대로 취급하고 있는 농민 전쟁, 농민 폭동이 정확하게 평가, 서술되여야 할 것이다. 당시의 《민중》은 바로 농민들이며 그들의 투쟁이 사회 발전의 추진력으로 되기 때문에 농민 전쟁, 농민 폭동을 떠난 《민중의 력사》는 있을 수도 없다.

1467년 함경도의 거의 전 지역에서 거세차게 일어 난 리 시애의 농민 전쟁은 리조 성립 후 처음 일어 난 큰 농민 전쟁이였다. 그러나 《한국사》는 이 농민 전쟁을 과소 평가하여 보잘 것 없는 지방적인 한 개 반란으로 간단히 취급하였으며 농민 전쟁의 지도자 리 시애에 대해서는 사실을 외곡하여 《리 시애는 길주로 패주하여 재화(財貨)를 싣고 녀진으로 도망하려 하였다》(제 3 분책, 98 페지)고 모독하였다.

16 세기에 있은 봉건 지배 계급 내부의 싸움인 사화(士禍)에 대해서는 장황하게 서술하면서도 같은 세기에 봉건적 억압을 반대하여 황해도 일대에서 투쟁한 림 꺽정 농민 폭동군에 대해서는 《괴상한 도적》이라고 간단히 묘사하고 말았다.

1811～1812년 평안도 지방에서 일어난 거세찬 반봉건 투쟁인 홍 경래 농민 전쟁에 대해서는 관군과 반란군 간에 진행된 국내 전쟁으로만 묘사하고 있다.

《한국사》의 편자는 홍 경래 농민 전쟁 때 농민군에 의하여 임명된 각 고을의 수령들을 례외 없이 《립시 수령》으로 부르면서도 임진 조국 전쟁 때 왜적에게 투항한 반역자로서 침략군이 《회

명 부사》로 임명한 국 경인은 놈들이 부르는 대로 부사라고 하였다. 반봉건 투쟁 과정에서 승리한 농민군이 해방 지역에 임명한 지방 수령은 가짜로 인정하면서도 외적의 일시적 강점 지역에 배치된 반역자는 진짜로 대접하고 있는 《한국사》의 진의도는 저절로 명백한 것이다.

《한국사》는 나아가서 1862년 진주 농민 폭동과 그 후 계속 일어 난 전국적인 농민 폭동에 대해서는 사회를 혼란에 이끄는 《민란(民亂)》으로, 폭동자를 《란민》으로 모독하고 있다.

《한국사》는 《민란이 왕조 말기에 가까와질수록 더욱 심하여 간 것도 피폐 극약(疲弊 極弱)한 민중이 자력으로 반항 분기하였다기보담 몰락 관인(官人)이나 불평 지식인들이 민중의 곤고(困苦), 불평, 반항심을 리용 선동하여 그들을 림사(臨死) 발악케 한 것이니 홍 경래란이나 동학란이나 기타 가지의 대소 민란이 다 그러한 것이였다》(제 4 분책, 673 페지)고 하였다.

여기에서 말하는 몰락 관인, 불평 지식인은 의심할 바 없이 농민 폭동의 지도자를 가리키는 것인데 《한국사》 편자는 지도자들의 고무적인 역할이 없었다면 농민 폭동은 일어 나지 않았을 것이라 한다. 농민 폭동이 일어 남에 있어서 지도자들의 고무적 역할이 큰 것은 사실이나 결정적인 것은 당시의 파국적 정치 정세이며 사회 경제적 위기이다.

19 세기 중엽 가혹한 착취를 반대하여 일떠선 농민들의 사기는 앙양되였고 이로 인하여 낡은 봉건 통치 체제는 파멸을 피치 못할 위기에 직면하였으며 도처에서 일촉즉발의 정세가 조성되였다. 이런 정세를 옳게 판단하여 지도자들이 인민들을 투쟁에로 궐기시킨 것을 《한국사》는 《림사 발악케 한 것》이라고 서술하고 있는 것이다.

《한국사》 편자의 이러한 립장은 봉건 국가의 계급적 성격을 모호하게 서술한 부분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한국사》는 봉건 국가에서 실시한 대동법(大同法)의 본의가 관리들로부터의 인민들에 대한 《과외 징수를 엄금》(제 4 분책, 193 페지)함에 있다느니 《납공(納貢)자의 부담으로 하였던 상납물 수운역(輸運役)이 상납미(上納米)에서 지급(支給)되는 역가(役價)로써 이루어졌다는 점은 국민 사역(使役) 상의 커다란 변화라고 하겠다》(제 4 분책, 190～191 페지)느니 하는 식으로 봉건 정부의 징세 조직의 개편에 대하여 아낌 없는 찬사를 보내고 있다.

이렇게 봉건 지배 계급과 그들의 국가를 미화하는 립장에 서서야 《민중의 력사》를 쓸 수 없음은 명백하다.

4

《한국사》는 사료 취급이 매우 거칠고 소홀하며 도처에서 엄중한 과학 상 오유를 범하였다.

일제 어용 학자들이 오래 전에 조작한 《조선사 대계》에 근거하여 15～19 세기 중엽을 《근대》로 시대 구분해 놓고 서술에서는 한사코 근대적 요소를 부정하는 《한국사》의 서술 체계 자체에 관하여는 구태여 따지려고도 하지 않는다. 다만 사료를 부정확하게 다루거나 전연 사료에 의거하지 않음으로써 범한 몇 가지 착오에 대하여 지적하려 한다.

《한국사》의 편자는 리조 후기에 함경도와 평안도에서도 농민들에게 공물(貢物)을 쌀로 납부하게 한 대동법을 실시한듯이 서술하면서 종래 이 지방들에서 그것이 실시되지 않았다고 서술한 것은 검토되여야 한다는 식으로 서술하고 있다(제 4 분책, 182～183 페지 참조). 그러나 상기 두 개 도에 대동법을 실시하지 않았다는 것은 여러 사료들이 명백

히 말하여 주고 있다. 리조 후기의 각 왕 《실록》, 《비변사 등록》, 《승정원 일기》 등 기본 사료에는 상기 두 개 도에서의 대동법의 실시를 전하는 기사는 없다. 오직 이 지방의 읍지와 기타 약간의 문헌들에 대동법이라고 한 서술이 보이는데 읍지의 전면적인 연구를 진행한다면 이 지방에서 대동법이라고 한 것은 보통 다른 지방에서 보는 바와 같은 대동법이 아님을 쉽게 리해하게 된다.

함경도와 평안도의 대동법은 일반적 의미에서 쓰이는 대동법이 아니라 각 고을 관리들과 토호들이 지방 인민들을 고리대적으로 착취하던 제도였다. 일제 조선 강점 시기까지만 하여도 이 지방들에서는 그러한 종류 중의 한 고리대곡을 대동이라고 불렀다.

또한 《한국사》의 편자는 1391년에 공포된 조세 제도인 과전법(科田法)에서 공, 사전(公, 私田)의 조(租)를 전(田) 1결(結)에서 30 두(斗)로 한다는 규정을 해석하면서 이것은 병작반수(並作半收)하던 사전조 즉 지주들이 소작 농민들로부터 수탈하던 50%의 소작료도 30 두로 감액하였다고 썼다.

《한국사》의 이러한 견론은 전혀 무근거하다. 여기에서 공, 사전이라고 하는 것은 국가의 땅과 개인의 땅을 구별하는 것이 아니라 봉건 정부의 수조(收租) 면에서 전조를 소작 농민들로부터 징수하는 것과 공신 량반들에게 넘겨 주는 것의 두 가지로 구별한 것이다.

과전법은 결코 병작반수하던 지주 토지의 150 두 가량의 소작료를 수확의 10 분의 1 밖에 안 되는 30 두로 규정한 것이 아니였다. 봉건 정부의 한 개 법령으로써 소작 제도를 폐지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실로 가소로운 일이다.

또한 《한국사》는 《주현의 밑에는 〈면〉 또는 〈사〉(社, 함경도에 많다), 〈방〉(坊, 평안도에 많다)이 있고》(제 3 분책, 211 페지)라고 하여 리조 시기에 면에 해당하는 것으로 함경도에는 사가 아닌 것이 따로 있고 평안도에는 방이 아닌 것이 따로 있는듯이 서술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사》 편자가 리해하는 것과는 달리 리조 말에 면 명칭이 고쳐질 때까지의 이전 시기에는 례외 없이 평안도와 황해도에서는 면을 방이라고 하였고 함경도에서는 면을 사라 하였다. 기타 지방에서도 면을 사라고 한 곳도 있었다.

이 밖에도 과학 상 오유는 허다하지만 여기서 론의의 대상으로 삼으려고 하지 않는다.

《새로운 력사》 서술을 시도한다고 떠들어도 우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립장, 관점이 바로서지 못한 데다가 사료 분석마저 부정확하니 실로 한심한 일이다.

*　　*

이상에서 15～19 세기 중엽의 《한국사》 서술에 대하여 론평하였다. 《한국사》는 이 부분 서술에서도 전철을 되풀이하였을 뿐 아니라 《민중의 력사》 혹은 《새로운 력사》를 서술한다고 하면서 우리 력사를 더욱 엄중하게, 더욱 교묘하게 외곡하였다.

《한국사》 편자가 그 어떠한 잔꾀를 부린다 하더라도 외래 침략자와 이와 결탁한 국내 반동 세력에 아부 굴종하며 복무하고 있는 자기의 추악한 정체를 결코 가릴 수는 없다.

제국주의 무역은 신생 독립국들에 대한 침략과 략탈의 수단

리 섭

무역을 통한 제국주의자들의 신생 독립국에 대한 침략

부르죠아지들이 해외 침략의 첫 수단으로서 일찍부터 무역을 리용하여 왔다는 것은 온 천하에 알려진 사실이다.

그들은 국내에서 농촌을 도시에 종속시킴으로써 자본의 원시 축적을 강화한 것처럼 대외 무역을 통하여 미개발 국가들을 《선진국》에 예속시켰으며 농업국을 공업국에 종속시키면서 국경을 넘어 타 민족을 략탈하기 시작했다.

자본의 시초 축적 단계에 진행된 《노예 무역》과 《아편 무역》의 저주로운 력사가 바로 그것을 말하여 주고 있으며 250여 년(1600~1858)이란 장구한 기간 동남 아세아와 인도에 불평등한 교환 관계를 강요하면서 마음 대로 침공한 영국의 《동인도 회사》의 력사가 그것을 증명하여 주고 있다.

우리 나라 력사에서도 일찌기 《샤만호》의 이름을 단 양키 해적선이 《통상》을 표방하면서 대동강을 거슬러 올라 와 침략의 첫 발을 들여 놓으려 하였으며 일제 역시 《운양호 사건》을 만들고 《개항》과 《통상》을 구실로 우리 나라에 대한 첫 침략을 감행했다.

특히 양키들은 노예 상인들의 후예들이며 그들의 선조들은 해적과 노예 장사로 미주에 제국주의 아성을 쌓아 올렸다. 제국주의 시기에 와서 세계 시장을 통한 그들의 이러한 략탈적인 무역은 금융 자본의 세계적 지배를 위한 수단으로까지 발전하였다.

그리하여 미제를 두목으로 하는 제국주의자들은 오늘 여전히 대외 침략의 첫 수단의 하나로서 무역을 통하여 독점 자본가들의 야욕을 실현하는 통로를 개척하고 있다.

무역은 원래 나라들 간의 상업적인 련계를 통하여 있는 것은 서로 바꾸어 쓰고 없는 것은 사들임으로써 매개 나라의 자주적인 발전을 도모하는 데 이바지하는 효과적인 수단이다. 어떠한 나라든지 세상에 존재하면서 그와 동떨어진 《고립 경제》를 건설할 수 없는 것 만큼 무역은 국가들 간에 맺어지며 또 반드시 맺어져야 할 필연적인 경제 관계이다.

그러나 자기 나라 인민들 뿐 아니라 타국 인민들의 피와 땀을 빨아 내지 않고서는 하루라도 살아 갈 수 없는 제국주의 독점 부르죠아지들에게 있어서 무역은 그 본래의 사명과는 멀리 떨어져 타국에 대한 경제적 및 정치적 침략을 실현하는 수단으로 리용되고 있다.

더우기 오늘날 미 제국주의자들은 무역을, 전후 자주적인 발전의 길에 들어 선 신생 독립 국가들을 경제적으로 교살하며 저들의 신식민주의 정책을 실현하기 위한 특종의 수단으로, 식민지 간접 통치의 공간으로 삼고 있다.

미 제국주의자들이 무역을 저들의 신식민주의 정책의 중요한 일환으로 리용하고 있는 것은 전후 변천된 정세와 관련된다.

주지하는 비와 같이 제 2 차 세계 대전 이후의 정치 정세 발전은 미제에게 더욱 불리하게 되였다. 전후 세계에는 10여 개의 사회주의 국가들이 출현하였으며 아세아, 아프리카, 라틴 아메리카의 광범한 지역에서는 50여 개에 달하는 국가들이 새로 독립을 쟁취하였다.

신생 독립 국가들은 전후 사회주의 국

가들의 급속한 정치 경제적 발전에 고무되면서 하루 속히 나라의 경제적 자립을 달성하기 위한 투쟁을 강력히 전개하고 있으며 이를 위하여 자립적 민족 경제를 건설할 것을 지향하고 있다. 많은 신생 독립 국가들은 지금 과거의 종주국이였던 제국주의 국가들로부터 강요된 온갖 불평등한 경제 관계를 폐지하거나 제한하며 다시는 굴욕적인 경제 관계를 맺는 것을 원치 않고 있다.

이러한 조건에서 미제는 오늘날 이 나라들의 민족적 독립에 대한 《동정자》로, 《벗》으로 가장하면서 보다 교활한 신식민주의 수법으로 경제적 착취와 정치적 지배를 계속 유지 강화하기 위하여 표면 상 《평등》과 《자유 의사》의 외피를 쓴 무역에 더욱더 매달리지 않을 수 없게 되였다.

사실 상 지금 적지 않은 아세아, 아프리카, 라틴 아메리카 신생 독립 국가들과 미국이 진행하는 무역은 흔히 무역 일반이 갖는 유무상통의 탈을 씀으로써 그 략탈적 본질을 가리고 있으며 또한 바로 그것으로 하여 미제는 이 나라들로부터 큰 저항을 받음이 없이 경제적인 략탈과 정치적인 지배를 계속 감행하고 있다.

제 2 차 대전 후 미 제국주의자들이 무역을 후진국에 대한 정치적, 군사적 또는 금융적 침략 수단들과 함께 그처럼 필사적으로 발전시키려고 날뛰고 있는 리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미제는 전후 독립을 달성하였으나 경제적으로 자립하지 못하고 있는 적지 않은 신생 독립 국가들의 경제에 무역을 통하여 깊이 침투함으로써 이 나라들로 하여금 중공업을 비롯한 기간적 공업 부문들을 발전시킬 수 없게 하고 있으며 저들의 원료 공급지로, 잉여 상품 소비지로 계속 머물러 있기를 강요하고 있다.

그 뿐 아니라 오늘날 미제는 신생 독립 국가들의 정치 경제적 발전의 길을 막으며 해외 시장을 더욱 확고히 하기 위하여 다른 제국주의 국가 독점 재벌들과 세계적인 련합을 형성함으로써 판매 시장의 분할을 꾀하며 원료와 자본 수출 시장의 분할을 감행하는 데까지 이르고 있다. 그들은 《가트》, 《국제 통화 기금》 등 국제 반동 무역 기구를 조작하여 저들의 침략적인 관세 정책과 통화 정책을 신생 독립 국가들에 강요하고 있으며 이 나라들의 대외 상업을 통제하고 시장과 식민지 략탈을 위한 공동 전선을 펼치고 있다.

미제는 윁남 침략 전쟁을 확대하는 한편 《아세아 개발 계획》을 조작하여 동남 아세아 일대에 대한 상품과 자본의 침투를 발광적으로 노리고 있다.

미 제국주의자들은 더 나아가서 무역을 통하여 신생 독립 국가들의 내정에 간섭하고 이 나라들을 자기의 정치적 목적에 복종시키고 있다.

미 제국주의자들은 자본주의 세계 시장에서 차지하고 있는 독점적인 지위를 리용하여 사회주의 국가는 물론 신생 독립 국가들에 대하여 경제 봉쇄 정책을 씀으로써 저들의 대외 침략 정책을 실현하려고 발광하고 있다.

미제가 자기의 무역 권내에 들어 있는 라틴 아메리카 제국과 기타 많은 나라들에 꾸바와의 외교 관계를 단절하며 그렇게 하는 경우에만 상품도 팔아주고 미주의 정기 항행로에서 배선도, 항구 정박도 할 수 있다는 조건을 강요하는 하나의 사실에서만도 그것을 명백히 찾아 볼 수 있다.

미제는 또한 《사회주의 국가에 대한 전략 물자 수출 금지》라는 이름을 걸고 자기의 통상권 내 무역에 일일이 간섭하며 자주권을 엄중히 유린하고 있다. 조선에 대한 침략 전쟁 이후 미제가 아세아 사회주의 국가들에 대한 《경제 봉쇄 정책》을 자

본주의 세계에 강요하고 있다는 것은 이미 세상이 잘 아는 사실이다.

무역을 통한 독점체들의 치부와 략탈

미제를 위시한 제국주의 국가 독점체들은 현시기 자본주의 세계 무역을 장악하고 그것을 제멋 대로 지배하고 있다. 미제는 기타 제국주의 독점체들과 함께 생산과 상품과 자본의 우세를 리용하여 거대한 국제 독점체들을 형성하고 자본주의 국제 시장(무역)에서 상품 가격을 마음 대로 조종하면서 높은 리윤을 짜 내고 있다.

국제 독점체들은 상품 가격을 직접 조종하기 위하여 저들의 생산량과 상품의 수출, 수입량을 배정하거나 제한하는 방법을 쓰기도 하고 또한 저장한 상품으로 국제 시장의 공급과 수요의 규모를 유리하게 조절하는 음모와 모략들을 꾸미고 있다.

국제 독점체들은 수출품에 대한 가격을 설정할 때 그것을 생산하지 못 하는 나라에 대해서는 보다 높은 독점 가격을 설정하고 더욱더 많은 리윤을 짜 내고 있다.

그와 반면에 해당한 상품을 생산하는 나라들에 대해서는 낮은 가격을 설정하고 상품을 투입함으로써 시장을 독점하며 그 나라 경제를 신식시키려 한다.

미국 독점 재벌들은 농산물 수출에서 처음에는 흔히 국내보다 25~50%나 싸게 팔며 경우에 따라서는 생산비보다 70~75%나 더 낮은 가격으로 다른 나라에 투매한다.

보통 가격과 투매(낮은) 가격 간의 차이에서 오는 손실은 독점 자본가들이 국내 시장에서 가격을 인상함으로써 보상하거나 제국주의 국가들의 예산 자금에서 실시하는 수출 장려금과 보조금에서 보상 받는다.

국제 독점체들은 이러한 덤핑(투매) 정책으로 경쟁자를 격파하고 시장을 쟁취한 후에는 상품 가격을 독점적으로 끌어 올린다.

이처럼 상품의 생산과 판매 및 원료 시장에 대한 통제권을 자기 수중에 더욱더 집중시킨 국제 독점체들은 저들이 수출하는 공업 제품 가격을 체계적으로 높이며 반면에 수입하는 원료 제품 가격은 계통적으로 낮추는 조건을 얻는다.

특히 미국 독점 자본가들이 아세아, 아프리카, 라틴 아메리카 국가들의 주요 수출품인 1 차 산품 가격을 계획적으로 저하시키고 있는 것을 보게 된다.

유엔의 통계 자료에 의하면 미제를 위시한 서방 제국주의자들은 1952~1961년의 10 년 간에 석유를 제외한 1 차 산품 가격을 평균 33.1% 저하시켰으며 그 중 농산물과 광물 가격은 39.2%나 각각 저하시켰다. 반면에 제국주의 국가들의 주요 수출품인 기계 설비 가격은 31.3%나 등귀시켰다.

특히 주목되는 것은 동일한 상품의 경우에 있어서조차 아세아, 아프리카, 라틴 아메리카 국가들이 수출한 식료품 가격은 지난 6 년 간(1957~1962)에 20.8%나 저락하였으나 미제가 수출한 식료품 가격은 같은 기간에 3%나 등귀한 사실이다.

이것은 자본주의 국제 무역에서 독점적 지위를 차지한 제국주의 국제 독점체들이 가격 정책에서 부리는 롱간의 엄중성을 반영해 준다.

지어 미국 독점 자본가들은 국제 독점체들의 괴수노릇을 하면서 한때의 경제적 우세로 장악하였던 《국제 무역 기구》까지 발동하여 무역에서의 저들의 가격 정책을 비호하면서 계속 독점적 지배와 리윤을 노리고 있다.

미제를 위시한 제국주의 독점 자본가들이 자본주의 세계 무역에서의 독점적 지배를 통하여 감행하는 략탈은 가격 정책에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무역에서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화물 수송,

상업망 리용, 상품의 매매에 리용되는 은행 대부 등등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다 아는 바와 같이 상품은 교환과 소비를 위하여 생산되며 그 사용 가치는 소비자의 손에 들어 감으로써만 실현된다.

상품을 화폐로 전화시키는 판매 과정이나 화폐를 상품으로 전화시키는 구매 과정은 국내 상업과 달리 대외 무역에서는 막대한 류통비를 요구한다. 따라서 무역에서는 류통 수단의 유무가 중요한 의의를 갖는다.

제국주의 국가들은 자본주의 세계의 해운 및 화물 수송을 거의나 독점하고 있으면서 신생 독립 국가들이 이것을 리용하는 경우 높은 보험비와 수송비를 부과하고 있다.

지금 아세아, 아프리카, 라틴 아메리카 나라들의 수출 총액에서 35%를 차지하는 화물은 중량이 무겁고 체적이 크고 가격이 낮은 1차 산품이다. 이 나라들은 자체의 원해 수송 수단들을 극히 미약하게 갖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미제를 위시한 서방 10개의 해운 국가들은 자본주의 세계 시장에서 원해 화물 수단의 90%를 장악하고 아세아, 아프리카, 라틴 아메리카 나라들에서 수송되는 화물에 대해서는 차별적인 운임과 보험료를 강요하면서 해마다 19억 딸라 이상을 추가적으로 착취하고 있다.

미제를 두목으로 하는 제국주의 독점체들은 또한 아세아, 아프리카, 라틴 아메리카 나라들에 직접 상업망을 펴거나 대리점과 자매 회사를 조직함으로써 저들에게 유리하게 무역 거래를 독점하고 리윤을 짜 내고 있다. 일부 경우 독점 자본가들은 신생 독립 국가의 철도, 항구, 창고업까지 장악하고 빈틈 없이 착취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제국주의 독점 자본가들은 세계 도처에다 저들의 은행을 설치하고 국제 무역에서 쓰이는 세계 화폐로서 딸라나 파운드와 같은 제국주의 통화를 강요함으로써 신생 독립 국가의 무역 기관에 깊이 침투하여 지배적 역할을 놀고 있다.

화폐와 은행은 류통에서 지불 수단으로 되며 그 역할 여하가 무역 발전에 크게 영향을 준다. 독점 자본가들은 언제나 정치 경제적인 실력을 배경으로 하여 무역에서 자국 화폐의 지배적 지위를 백방으로 강화하고 기타 나라들의 화폐를 종속시킴으로써 그 나라의 무역을 좌지우지하고 있다.

레닌은 제국주의자들이 세계 제패를 다투는 힘은 은행의 수에 의해 결정된다고 명백히 지적하였다. 독점 자본가들은 은행과 화폐를 리용하여 신생 독립 국가들의 무역 및 류통 부문에 직접 침투하면서 예속적인 조건으로 융자를 강요하고 이 나라들의 경제에서 지배적 역할을 노리고 있다.

이것은 《세계 은행》이 신생 독립 국가에 제공하는 차관의 67%가 국제 독점체들이 원료를 쉽게 략탈하며 상품 침투를 용이하게 할 수 있는 교통 운수 부문과 전력 부문에만 집중되고 있는 것을 보아도 알 수 있다.

또한 국제 독점체들은 대외 시장을 확대하고 무역에서 독점적 지배와 략탈을 강화하기 위하여 자본 수출에 적극 매달리고 있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신생 독립 국가들은 제국주의자들의 무제한한 상품 침투를 막기 위해 관세 장벽을 치거나 세계 화폐로 강요된 딸라나 파운드의 우세를 막기 위해 환자 제한을 가하고 있다.

그런데 자본 수출은 독점 자본가들이 저들의 상품 수출을 방해하는 신생 독립 국가들의 관세 장벽을 뚫고 들어 가는 유력한 무기로 된다.

제국주의 독점 자본가들은 약한 경제적 토대를 가진 신생 독립 국가들에 대량의 자본을 침투시키고 있으며 그리하여 그 나라의 값싼 로동력과 원료를 가지고 현지에서 상품을 만듦으로써 관세

장벽이나 환자 제한에서 벗어 나서 장사를 하고 있다.

제국주의 독점 자본가들의 자본 수출은 주로 채취 공업과 농업 부문에 집중되고 있으며 이것들은 전'적으로 수출을 목적으로 개발됨으로써 그들 자신이 값싼 1차 산품을 독점하고 국제 시장에서 거액의 리윤을 추가적으로 취득하고 있다. 그리 하여 라틴 아메리카에 대한 미국의 투자만 보더라도 전후 변간에 10배 이상 증가되였다.

독점 자본가들의 이러한 해외 자본 수출은 각 방면에 걸쳐 그들의 세계적 지배를 확립하는 동시에 또한 신생 독립 국가들의 대외 무역 발전의 성격과 그 수출입 상품의 용량, 구성 및 지역적 방향에까지 간섭하는 결과를 가져 오고 있다.

미제를 위시한 제국주의자들은 또한 국제 무역에서 독점적 지배를 강화하고 신생 독립 국가들에 대한 예속적인 무역 거래를 강요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원조》를 크게 리용하고 있다.

제국주의자들의 《원조》는 주로 상품 납입 형태를 취하는 것 만큼 그들이 제정하는 가[illegible]으로, 그들이 지정하는 상품을 《원조》 받는 나라에 일방적으로 내며 먹이는 독점적인 상품 강매 수단이다.

미국 국제 개발처 장관이란 자는 《미국의 대외 원조 계획은 자금을 해외로 류출하는 것이 아니라 미국 상품 수출을 돕는 원천으로 리용되고 있다》고 실토했다.

사실 남조선에 배정된 미제의 《원조》 총액의 90% 이상이 미국 잉여 상품이나 잉여 군수 물자의 강매로써 실현되고 있으며 그것들은 국제 시장 가격보다 평균 20% 이상 더 높은 가격으로 투매되고 있다.

《진보를 위한 동맹》 계획에 의한 《원조 배당》은 우선 미제의 《원조》를 받는 나라들이 미국에 납입하는 원료 가격을 그들이 요구하는 대로 낮출 것을 전제로 한다. 이리 하여 라틴 아메리카 나라들은 1961년도만 하여도 20%나 가격 인하를 강요 당했기 때문에 도합 14억 딸라의 손실을 보았다.

뿐만 아니라 미제는 《원조》 받는 나라들이 같은 상품을 다른 나라로부터 더 유리한 조건으로 사들이는 것을 금지하며 나아가서 자기들이 략탈하는 원료의 품목과 수량까지도 지정하여 그것을 공급할 의무를 지우고 있다.

제국주의자들은 또한 무역의 독점적 지배와 략탈을 강화하기 위하여 다른 나라의 관세 장벽을 맥박으로 격파하는 동시에 오히려 자신은 더욱더 차별적인 관세 정책을 쓰고 있다.

관세 정책을 통하여 미제를 위시한 제국주의 독점 자본가들은 저들의 경제를 해외 경쟁자로부터 보호하는 동시에 무역 상대국에 대하여 가공 제품 수출에는 높은 관세 장벽을 설정하고 그 수출을 견정적으로 방해하며 원료 수출은 낮은 관세를 부과하면서 그 수출을 적극 장려하고 있다.

제국주의 국가들의 《가공 정도에 의한 루진 관세률》

품명	미국의 수입 세률(%)	구라파 공동 시장의 수입 세률(%)
원 면	0~8	8
면직물	25	17
대 마	0~1.5	0
대마직물	8	23
원 모	0~4.7	0
모직물	46	18
원 피	0~4	0
피혁제품	17	16
천연고무	0	0
다이야	19	27
원 목	0	0~5
판 자	11	12.5
철광석	0	0
선 철	7	7

제국주의 국가들이 가공 정도에 따라 루진 관세률을 적용하고 있다는 것은 우의 표가 명백히 말해 주고 있다.

도표가 보여 주는 바와 같이 제국주의자들의 관세 정책은 신생 독립 국가들로 하여금 원료 공급지로 계속 남아 있게 한다. 동시에 그 관세는 결국 상품에 부과됨으로써 소비자들이 부담하게 되는 만큼 자본가들의 추가적인 착취적 수단으로 된다.

이처럼 제국주의 독점 자본가들은 대외 무역의 독점적 지배를 리용하여 각 방면에 걸쳐 가장 악랄한 방법으로 략탈을 강화하고 있다.

국제 무역에서 이러한 독점적 지배를 통한 착취는 통털어 제국주의 국가들이 정치, 경제, 군사적인 실권을 배경으로 하여 강도적으로 감행하는 략탈이다.

제국주의 독점 재벌들은 모략과 강권을 발동시키는 외에 또한 무역에서 다만 가치 법칙을 통해서도 막대한 리윤을 긁어 모으고 있다.

다 아는 바와 같이 자본주의 국제 시장에서는 인간의 욕망이나 의사와는 관계 없이 상품 교환에서 필연적으로 나타나는 가치 법칙이 작용한다. 가치 법칙이란 상품의 생산과 교환이 사회적 필요 로동 지출의 기초 우에서 실현되는 상품 생산의 경제 법칙이다.

사회적 필요 로동량을 미달했거나 초과했거나를 막론하고 시장에서는 상품이 오직 사회적 필요 로동량에 기초하여 교환되느니 만큼 가치 법칙의 실현 과정은 바로 같지 않은 부동한 로동의 상쇄 과정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발전된 기계적 생산에 의거한 제국주의 국가와 그렇지 못한 신생 독립 국가 사이의 상품 거래는 부동한 국민적 가치의 상쇄 과정으로 이루어지지 않을 수 없다.

후진국 시장에서 일반적으로 발전된 제국주의 국가의 상품이 압도적인 것은 경제 발전에서 앞선 나라와 뒤떨어진 나라에서 생산된 동일한 량의 동종의 상품이 가지고 있는 국민적 가치에서 현저한 차이가 생기기 때문이다.

보다 높은 수준의 생산력을 가진 나라는 그렇지 못한 나라에 비하여 보다 적은 국민적 가치로 상품을 생산하게 된다. 결과 경제 발전에서 앞선 나라는 자기의 상품을 경쟁국들보다 눅게 팔더라도 사회적 필요 로동 지출에 상응한 가격 이상으로 판매할 가능성을 가지게 됨으로써 신생 독립 국가 시장에서 그 나라 국산품을 질식시키고 뻐젓하게 거액의 리윤을 긁어 모으고 있다.

현시기 제국주의자들이 무역에서 얻는 수입을 보면 더욱 명백해진다.

1952～1964년의 13 년 간에 제국주의 국가들이 순전히 부등가 교환을 통하여 아세아, 아프리카, 라틴 아메리카 나라들로부터 착취한 금액은 612억 딸라에 달하였다. 이 기간 아세아, 아프리카, 라틴 아메리카 나라들이 부등가 교환으로 입은 손실액은 처음보다 마지막 시기에는 무려 3 배나 높아지고 있다.

경제학자들의 계산에 의하면 제국주의자들이 해마다 아세아, 아프리카, 라틴 아메리카에서 얻는 리윤은 200억 딸라에 달한다. 그 중 무역에서만 150억 딸라의 리윤을 긁어 모으고 있으며 이것은 그들이 이 지역에서 직접적 투자로 얻는 수입의 3 배에 달한다.

오늘 제국주의 독점 자본가들이 차별적인 무역 정책을 강화하면서 부등가 교환을 통한 은폐된 착취를 공공연히 확대하고 있는 리유도 여기에 있다.

결과 제국주의자들은 부등가 교환을 통하여 신생 독립 국가들의 풍부한 자원과 로력의 창조물들을 《무상의 공납물》로 빼앗아 가고 있다. 뿐만 아니라 제국주의 국가의 상품은 신생 독립국 시장에서 그 나라의 국산품을 여지 없이 구축함으로써 그 나라들을 더욱더 원료 공급지로 전락시키고 있다.

일찌기 칼 맑스는 선진 자본주의 나라의 상품이 후진국 시장에 주는 영향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기계적 생산은 외국 시장에서 수공업적 생산을 파멸시킴으로써 이 시장을 강제적으로 자체의 원료의 생산지로 전화시킨다》(《자본론》 제 1 권 2 분책, 110 페지).

실로 오늘 라틴 아메리카, 아프리카 및 중동 국가들의 수출에서 원료와 농산물이 보통 80%를 차지하며 아세아와 대양주 국가들의 수출에서 이것들이 60% 이상을 차지하는 것도 부등가 교환의 엄중성으로써 설명된다.

이상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제국주의 무역은 독점 자본가들의 추가적인 리윤 원천이며 타국 인민들을 략탈하는 치부의 수단이다.

신생 독립국에 미친 략탈적인 무역의 후과

미제를 위시한 제국주의자들의 략탈적인 무역 정책으로 말미암아 아세아, 아프리카, 라틴 아메리카 나라들의 무역 구조에는 혹심한 기형성과 락후성이 강요되였으며 이것은 이 지역 경제적 후진성의 중요한 요인의 하나로 되였다.

아세아, 아프리카, 라틴 아메리카의 수 많은 신생 독립 국가들은 독립 당초부터 신식민주의의 그물에 포위되여 있었다.

제국주의자들은 과거와 마찬가지로 《단작 경리의 수익성》과 《생산 전문 발전의 유리성》에 대하여 떠들면서 략탈적인 무역 정책을 계속 강화하고 있다.

미제를 위시한 제국주의자들은 아세아, 아프리카, 라틴 아메리카 나라들에 채취 공업과 단일 작물 재배만을 강요하면서 다각적 경리와 민수 공업 발전의 길을 억제하고 이 나라들을 영원히 제국주의의 농업-원료적 부속물로 만들려 하고 있다.

제국주의자들이 강요한 단작 경리로 가나에서는 코코아, 브라질에서는 커피만 심게 되였으며 혁명 전 꾸바에서는 사탕만 심지 않을 수 없었다.

제국주의자들이 저들의 식생활의 수요만을 타산하여 강요한 이러한 기형적인 단작 경리는 이 나라들이 독립된 후에도 자본주의 나라 독점체들의 차별적이며 예속적인 가격 정책에 의존하지 않을 수 없게 만들었다.

례하면 브라질은 뜨락또르(30~39 마력) 한 대를 사기 위하여 1955년에는 2.38 톤의 커피를 수출하였다면 1962년에는 4.79 톤을 수출해야 했으며 같은 기간 가나는 3.06 톤의 코코아를 수출하던 것으로부터 7.14 톤을 수출해야 뜨락또르 한 대를 구입할 수 있게 되였다.

결과 이 나라들에서는 수출이 년년이 장성하여도 국민 소득은 해마다 떨어진다. 유엔의 자료에 의하더라도 현재 후진 국가들은 동일한 량의 공업 제품을 사기 위해서 50 년 전보다 40%나 더 많은 원료를 수출하지 않을 수 없다고 한다.

이러한 현상은 미제를 위시한 제국주의 국가들이 자본주의 국제 시장에서 실시하는 독점적인 가격 정책으로 말미암아 또한 정치적 압력이 동반하는 돌변한 상품 수요 거절로 말미암아 부득이 헐값으로 투매하지 않을 수 없는 생산국의 기막힌 사정을 반영한다.

혹 대외 시장에서 수출품이 체화될 때 베네수엘라 농민들은 주식 대용으로 할 수 없이 바나나를 구워도 먹고 삶기도, 찌기도 하여 가까스로 허기증을 면하고 있다.

이것은 제국주의자들이 그처럼 좋다고 떠드는 《단작 경리》의 피눈물 나는 후과이며 또한 강요된 《생산 전문》의 피치 못할 산물이다.

맑스는 1848년 《자유 무역에 관한 연설》을 하면서 《자연의 우월성》으로 강요된 단작 경리의 후과를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여러 분, 여러 분은 커피나 사탕의 생산은 서인도의 자연적 사명이라고 생각할는지도 모르겠다.

지금으로부터 두 세기 전에는 상업과 하등 관계 없는 자연은 이 곳에서 커피나무도, 사탕수수도 배양하지 않았다.

그리고 아마 50 년도 못 가서 이 곳에서는 커피도 사탕도 찾아 볼 수 없게 될 것이다〉 (맑스 엥겔스 선집 제 4 권, 481 페지).

사실 단작 경리에서 생산된 유일한 수출품에 의존하는 나라들은 항상 불안

한 심정으로 세계 시장의 가격 변동을 바라 보며 경쟁자가 출현하지 않을가 두려워하고 있다.

제국주의자들의 략탈적인 무역 정책의 후과는 신생 독립 국가 경제의 기형성에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그 엄청난 락후성에서도 찾아 볼 수 있다.

오늘 아세아, 아프리카, 라틴 아메리카 나라들의 인구는 세계 인구의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나 그의 무역고는 아직도 얼마 되지 않는다. 1962년에 이 나라들의 수출은 대체로 2~3 종의 1 차 산품 수출에 의존했을 뿐만 아니라 수입의 77.4%는 공업 제품이였다.

오늘 이 지역의 많은 나라들은 비옥하고 광대한 땅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농산물에 대한 국내 수요를 충족시키지 못 하고 있으며 풍부한 지하 자원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민족 공업을 발전시키지 못 하고 공업 제품의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이로 말미암아 아세아, 아프리카, 라틴 아메리카 신생 독립 국가들의 국제 수지는 해마다 적자를 내고 있다. 미 국제 개발처의 자료에 의하더라도 이 지역 나라들의 국제 수지 총적자액은 1955년에 100억 딸라였다면 1964년에는 300억 딸라로, 근 10 년 간에 3 배로 늘어났다. 그리 하여 이 나라들이 무는 리자만도 해마다 10억 딸라 이상이나 된다.

자기의 두 손으로 막대한 부를 창조하고 있으나 이 지역 인민들은 보는 바와 같이 빚더미 우에서 가난에 시달리고 있다.

미제를 두목으로 하는 신구 식민주의자들은 아직도 아세아, 아프리카, 라틴 아메리카의 대부분의 나라들에서 경제 명맥과 무역을 장악하고 있으며 이 나라들의 발전을 억제하는 주되는 질곡으로 남아 있다.

이러한 형편에서 오늘 자기 력사의 새로운 발전 단계에 들어 선 아세아, 아프리카, 라틴 아메리카의 수 많은 신생 독립 국가들은 생활의 경험으로부터 출발하여 민족 경제를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오직 외세를 배격하고 자력 갱생의 혁명 정신에 의거하는 자립적 민족 경제를 건설해야 한다는 것을 깊이 인식하고 있다.

자립적 민족 경제 건설은 정치적 독립을 공고히 하는 물질적 기초이며 민족 해방 혁명의 완수를 위한 하나의 변속적인 혁명 과정이다.

오직 자립적인 민족 경제를 건설할 때만이 진정한 평등과 호혜의 원칙에 기초하여 다른 나라와 대등한 립장에서 무역 관계를 맺을 수 있으며 협조할 수 있다.

장구한 세월에 걸쳐 제국주의 무역 정책의 개개의 희생자로 되여 온 이 지역 인민들은 국제 무역에서 서로 공동의 보조를 취하며 단결하는 것이 무엇보다 힘이라는 것을 깨닫고 있다.

제국주의 국제 무역의 희생자로 되여 온 이 지역의 적지 않은 나라들은 개개의 기업체가 운영하던 대외 무역을 국가가 통제하며 통일적인 계획으로 거래하는 조치를 취하고 있다.

제국주의 국제 무역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아세아, 아프리카, 라틴 아메리카 인민들은 뭉쳐야 한다.

제 2 차 아세아 아프리카 경제 토론회 총선언에서는 이 지역 나라들이 단결하여 제국주의 국가들이 누리는 경제적 특권을 보이코트하며 그들과의 경제 관계를 제한할 것을 일치하게 호소하였다.

국제 무역에서 제국주의자들의 부단한 압력과 위협을 분쇄하는 것은 곧 뒤떨어진 나라들이 경제 발전의 내부적 가능성을 동원 개발함에 있어서나 자주적인 국제 무역을 발전시킴에 있어서 가장 효과적인 조치로 된다.

오늘 아세아, 아프리카 및 라틴 아메리카 인민들이 반제 투쟁에서 국제적 단결과 전투적 련대성을 강화하는 것은 미제를 위시한 제국주의자들의 략탈적인 무역 정책을 분쇄하는 데 결정적 의의를 가진다.

묻답 학습

부르죠아 통치 계급이 표방하고 있는 《자유》의 본질

자유는 인간에 있어서 가장 고귀한 것 중의 하나이다. 인간의 참다운 가치와 창조적 지혜는 오직 자유가 보장되여 있는 조건 하에서만 충분히 발현될 수 있다.

그러므로 사람들은 자유와 인간 생활을 불가분적으로 결합시키면서 먼 옛날부터 진정한 자유를 실현하기 위하여 목숨 바쳐 싸워 왔으며 오늘도 그러한 싸움은 우리 조국 남반부를 비롯한 세계 도처에서 계속되고 있다.

자유를 위한 사람들의 이 싸움은 사회가 지배 계급과 피지배 계급으로 분렬되여 있는 한 계급 투쟁의 주요한 내용을 이루면서 끊임 없이 지속된다. 바로 이러한 조건 하에서 지배 계급들은 자유를 위한 대중의 투쟁을 무마하고 저들의 착취적 지반을 영구히 유지하려는 목적으로 자유에 대한 각종 외곡을 일삼게 되였다.

어떤 자들은 인간 생활은 숙명적인 것이므로 인간은 그 앞에서 아무런 자유도 가질 수 없는 무력한 노예와 같은 것이라고 선교하였다. 그런가 하면 또 다른 자들은 객관 세계의 필연성과 합법칙성을 부인하고 인간의 의지는 절대적으로 자유로운 것으로서 인간의 행동 역시 그 무엇에 의해서도 제약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다. 남조선의 한 필자는 《자유는 원래 사람들이 자연적으로 가지고 있는 상태를 뜻하는 것》(《현대인 강좌》 제 2 권, 231 페지)이라고 말하고 있다.

이러한 론의들은 그 어느 것이나를 막론하고 구체적인 현실을 고의적으로 외면하고 계급 사회에서 광범한 근로 대중에게 강요된 부자유의 근원을 똑바로 보지 않으며 하며 나아가서 자연과 사회의 합법칙성을 인식하고 불합리한 사회를 변혁하려는 사람들의 실천 투쟁의 의의를 말살하려는 데서 나온 것이다.

과거에 지배 계급에게 복무한 모든 철학자들은 그들이 이와 같은 그릇된 립장에 서 있었으므로 자유의 문제를 과학적으로 해명할 수 없었다.

이 문제를 처음으로 과학적으로 해명한 것은 맑스주의 철학이다. 맑스주의는 자유란 자연과 사회의 객관적 필연성, 합법칙성을 인식하고 그 인식된 진리를 인간에게 유리하게 실천에서 리용함으로써 객관 세계를 지배하는 것이라고 인정한다.

생산 수단에 대한 사'적 소유가 지배하는 계급 사회에서는 사람들에 대한 억압과 착취가 지배한다는 것은 필연적인 합법칙성이다. 이 합법칙성을 인식하지 못한 옛날 사람들은 자기들의 사회적 부자유가 《타고 난 운명》인 것처럼 생각하고 그 필연성 앞에 맹목적으로 굴종하였다. 실사 억압과 착취를 반대하여 투쟁하는 경우에도 그 사회적 억압과 착취로부터 해방되여 진정한 자유를 실현할 수 있는 명확한 길을 알지 못 하였다.

그러나 맑스주의에 의하여 사회 발전의 합법칙성이 과학적으로 해명되고 근로 대중이 맑스주의가 가리키는 혁명의 길을 따라서 사'적 소유를 청산한 결과 사회주의 나라 인민들은 처음으로 진

적한 사회적 자유와 해방을 쟁취하였다.

여기에서 우리는 진정한 자유는 객관 세계의 필연성, 합법칙성을 파악할 뿐 아니라 그 지식을 사회적 실천에 적극적으로 적용할 때에만 얻어진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원래 인간의 자유는 자연적 현상이 아니라 사회적 현상이다. 인간 자신이 사회적 존재이며 실천도 사회적 실천이며 따라서 인간의 자유도 사회적 자유가 아닐 수 없다. 그러므로 맑스주의 철학은 자유를 《인식된 필연》으로 인정하는 동시에 이것을 사회 력사 발전의 산물로 규정하는 것이다.

계급 사회에서 사람들이 자유를 찾하여 전진하는 도상에서는 심로 유혈적인 투쟁을 진행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것은 착취 계급들이 저들의 탐욕적인 리익을 추구하기 위하여 근로 대중의 자유에로의 전진을 필사적으로 가로막기 때문이다. 현시기에 와서 자유의 문제가 더욱 날카롭게 제기되게 된 커다란 원인도 바로 사회적 억압과 착취가 더욱 우심해지고 있는 것과 관련된다.

착취 계급이 청산되지 않는 한 자유의 문제는 해결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부르죠아 사상가들은 자본주의 사회에서 마치도 자유의 문제가 해결되였으며 이 자유는 오로지 《서방 문명》에 의하여 주어진 《선물》인듯이 선전하고 있다. 남조선에서 《자유》를 론하는 사람들이 의례히 《서구식 자유와 민주주의》를 운운하는 것은 그러한 표현으로 된다.

제국주의 부르죠아지와 그 대변인들은 근로 대중을 억압 착취하는 자본주의 사회에서의 저들 소수의 《자유》를 전 인류의 자유로 바꾸어 놓으면서 갑다한 자유를 인용한다.

부르죠아지는 우선 《개성의 자유》를 고창하는바 그들이 《개성의 자유》를 부르짖기 시작한 것은 봉건주의를 반대하는 부르죠아 혁명 시기에 경제적 발전의 요구에 의한 것이였다. 즉 자본주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되는 로동력이 시장에서 상품으로 매매되자면 농노들과 수공업자들이 봉건적인 신분 예속과 동업 조합의 질곡으로부터 해방되여 최소한의 《개성의 자유》가 보장되여야 했다. 부르죠아지 《개성의 자유》는 이렇게 시작된 것인데 이 《개성의 자유》는 나아가서 자본가들의 《기업의 자유》, 《경제의 자유》로 확대되여 갔다.

그러나 자본주의 하에서 생산 수단을 독점하고 있는 자본가와 로동력 이외에는 아무 것도 가지고 있지 못한 로동자 사이에 맺어지는 로동력의 매매 계약은 처음부터 《자유로운 계약》으로는 될 수 없었다. 그것은 오히려 로동자들을 《기아의 규률》로 얽어 매고 봉건적 억압 대신에 더욱 무서운 금전의 권력으로 그들의 자유를 구속하게 되는 것을 의미하였다.

결국 자본주의 사회에서 《개성의 자유》란 자본가들에게 있어서는 로동력을 사서 그것을 착취하여 치부하는 권리를 의미하며 로동자들에게 있어서는 헐값으로 자기의 로동력을 팔아서 임금 노예로 되지 않을 수 없는 비참한 처지를 의미한다.

오늘 남조선 로동자들과 농민들의 처지가 이것을 잘 말해 주고 있다. 남조선의 한 신문이 개탄하고 있듯이 남조선 로동자의 대부분은 이른바 《기진맥진한 민주 시민》의 처지에서 허덕이고 있다.

부르죠아 《자유론》자들의 말 대로 하면 《개성의 자유》를 가지고 있어야 할 남조선 농민들은 대대로 살아 오던 고향을 떠나 류랑 걸식하는 수가 해마다 늘어 가고 있다.

오늘 제국주의자들과 그 대변인들은 또한 자본주의 사회에 완전한 《정치적 자유》가 보장되여 있다고 떠들어 대고 있다. 도대체 그들이 표방하는 《정치적 자유》란 어떤 것인가?

한때 부르죠아들은 봉건적 지배를 반

대하기 위하여 《자유》라는 구호로 근로 대중을 유인하였다. 오늘날에 와서 그들은 이 《자유》를 프로레타리아트를 반대하는 무기로 리용하고 있다. 독점 자본가들은 온갖 폭력 기구와 선전 수단을 자기 수중에 장악하고 자국 내에서는 물론이요 세계 도처에서 파괴 략탈 행위를 함부로 감행하면서 이를 반대하여 진출하는 근로 대중과 진보적 세력들을 무자비하게 탄압하고 있다. 미제 강점 하에 있는 남조선에서 리 승만 《정권》 말기에 반동 통치배들이 3.15 부정 선거와 같은 《표의 쿠데타》를 감행하면서 부정 선거를 반대해 나선 인민들의 투쟁을 《공산주의자들의 사촉》으로 날조하여 탄압한 사실은 이미 잘 알려져 있다. 박 정희 매국노들이 매국적 《한일 협정》을 반대해 나선 남조선의 애국 청년 학생들을 《반공법》 위반이라 하여 마구 체포 구금하고 지어는 학살까지 한 사실은 오늘 남조선에서 매국노들에게는 《매국의 자유》가 있으나 애국자들에게는 애국의 자유마저 없다는 것을 말하여 주는 것이다.

박 정희 도당은 종래에 형식적으로나마 존재하였던 《로동법》을 수차에 걸쳐 개악함으로써 로동 계급의 초보적 권리마저 박탈하고 있으며 관제 로조인 《한국 로총》에 로동자들을 강제 편입하고 있다.

부르죠아 사회에서의 《정치적 자유》의 결여는 오늘 남조선에서 보는 바와 같은 언론인에 대한 탄압에서도 여실히 나타나고 있다. 박 정희 도당은 언론 기관들을 어용화하기 위하여 량심적인 언론인들에 대한 체포 구금과 퇴직, 면직의 강요, 집단 폭행 등 류례 없는 파쑈적 폭압을 감행하고 있다. 언론인들에 대한 경찰, 《정보부》 특무들의 구타 행위나 카메라를 빼앗는 현상은 지금에 와서 례사로 되고 있다.

그들은 남조선 언론인들이 《인민》이란 말 한마디를 써도 《용공 분자》로 몰아 처벌하며 우리 민족이 일일천추로 갈망하는 조국 통일에 대하여 글 한 줄, 말 한마디 발표하여도 《국시 위반》이요, 《반공법》 위반이요 하여 엄형에 처한다. 그러면서도 그들은 오늘 남조선에 《언론의 자유》, 《출판의 자유》가 있다고 선전한다.

바로 이것이 미국식 《정치적 자유》의 진상이며 이른바 《자유 세계》의 내막이다.

사실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부르죠아 어용 학자들은 어떻게 하나 이 《자유 세계》의 본질을 가리고 진정한 자유를 위한 근로 대중의 투쟁을 무마할 목적으로 잡다한 《자유의 철학》을 조작해 내였으며 그것을 집요하게 류포시키고 있다.

그러한 것 중의 하나는 오늘 남조선에도 널리 류포되고 있는 《실존주의》 철학이다.

실존주의자들은 인간의 육체와 정신을 분리시키고 인간이 물질의 노예로 남아 있는 한 《자유》는 있을 수 없다고 말하고 있다. 실존주의자들이 내세우는 《실존》은 무엇보다도 《정신》인 것이며 이 《정신》은 물질적 욕망이라는 멍에를 벗어 던져야만 진정한 《자유》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이다. 물욕에 사로잡혀서 자본가를 반대하여 투쟁하는 것은 《나》를 잃고 《자유》를 잃은 행동이라는 것이다.

또한 실존주의자들은 인간을 사회적 인간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추상적 인간으로 보는 데로부터 인간의 《본성》은 《개성》에 있다고 하면서 인간은 출생과 동시에 《자유로운 존재》이며 그 《자유》는 개성적 인간의 고유한 속성으로서 사회를 떠난 절대적인 것으로 본다.

이리 하여 실존주의자들은 자유의 문제를 다만 개별적 인간의 《내면 세계》의 문제에 국한시키고 외부 세계와의 인연을 끊음으로써 겨우 남아 있는 《정신적 자유》만을 절대화한다.

이것은 결국 인간의 자유를 모든 사회적 제약과 사회 도덕적 규범과는 관련 없는, 마음 내키는 대로 행동하는 것으로 본다는 것을 의미한다. 여기에 바로 실존주의가 매국주의자들의 무제한한

침략과 략탈, 전횡을 합리화하는 요소가 있으며 사람들을 패덕과 타락으로 끌고 가는 독소가 내포되여 있는 것이다.

자유의 본질을 외곡하는 데서 또한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는 것은 《실용주의》 철학이다.

미국 양키들이 《딸라 만능주의》와 《미국식 생활 양식》의 《리론적》 기초로 되고 있는 실용주의는 진리는 객관적인 것이 아니며 각자에게 《유익》한 것, 개인에게 《만족》을 주는 것이 곧 《진리》의 규준이라고 하는 극단한 개인 리기주의적 《진리관》에 기초하고 있다.

남조선에서 실용주의의 추종자들은 이러한 《진리관》의 견지에서 오직 살아 있는 동안 최대의 향락을 누리는 것만이 인간의 행복이며 이러한 향락을 충족시키기 위한 개인의 행동은 마땅히 자유로와야 한다고 설교하고 있다.

실용주의적 《자유》의 본질을 남조선의 한 단편 소설에서는 다음과 같이 묘사하고 있다: 《누구에 의한 것도, 누구를 위한 것도 아닌, 순 개인적인 자유, 그것은 순 개인적인 소득에 의해 아무도 모르는 극히 은밀한 소득에 의해 열린 가능성의 세계…그 안의 자유였다. 왜 그것을 싫다 물리치겠는가, 자유를 갈구하는 목구멍에는 설사 불의의 피'방울일지라도 넘어 가고나야 되는 것이다》(《6월의 그림자》, 《현대 문학》, 1962년 제1호).

작가는 여기에서 《나의 욕망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어떠한 수단도 진리이다》라고 하는 실용주의의 《진리관》을 그대로 옮겨 놓으면서 남조선 인민들로 하여금 미래도 전망도 생각지 말고 오직 순간의 향락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살고 그것을 위해서 어떤 비굴한 행동도 감행할 수 있다는 것을 설교하고 있는 것이다.

오늘 자본주의 세계에 광범히 류포되고 있으며 남조선에서도 큰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신토마스주의》 철학도 인간의 자유를 외곡하는 데서 그 일익을 담당하고 있다.

《신토마스주의》에 의하면 인간은 항상 《자유》를 욕망하며 그 《자유》는 무엇보다도 《개인의 정신적인 완성》에 의하여 실현된다고 설교한다. 《개인의 정신적인 완성》이란 매 개인이 《선한 사람》으로 되는 것을 의미하며 《선한 사람》으로 될 때만이 인간은 《자유》를 누릴 수 있다는 것이다. 이들의 《선한 사람》이란 지배 계급들의 억압과 착취에 반항할 줄 모르는 무능력한 노예를 의미한다.

이 《신토마스주의》 철학도 사람들을 그의 《내'적 발전을 위하여 물질적 본성의 멍에에서 해방시켜야 한다》고 하며 사람들은 현실에 대하여 눈을 감아야 한다고 설교한다. 결국 이들의 설교는 기아와 빈궁의 나락에 떨어진 근로 대중에게 그 처지에 만족하여야 하며 모든 것을 잊어 버리고 오직 정신 속에서 《자유》를 찾아야 한다고 말하는 것이다.

이상에서 보는 바와 같이 진정한 자유의 원쑤들은 《자유》를 내걸고 바로 그 《자유》의 이름으로 인민들의 자유를 말살하려고 한다. 소위 《자유의 녀신상》이 높이 솟아 있는 미국 땅에서 원주민은 거의 다 학살되였으며 《자유와 평등》의 헌법이 있다는 미국에서 극심한 인종 차별이 지배하고 있다. 미제 식민지 통치 하의 남조선에서 통치배들은 온갖 전횡을, 지어는 민족을 배반하고 나라를 파는 일까지도 서슴없이 감행하고 있으나 밑바닥에 깔린 백성들은 제 나라 제 땅을 마음 놓고 가갈 자유조차 없으며 생명 재산에 대한 부단한 위협을 느끼고 있다.

이러한 조건 하에서 그들에게는 오직 《실업의 자유》, 《기아의 자유》, 《류랑 걸식의 자유》가 있을 뿐이다.

금전의 권력이 지배하고 인격도 량심도 모두 현금으로 계산되는 부르죠아 사회에서 빈궁한 근로 대중이 자유를 누릴 수 없다는 것은 너무도 명백한 사실이다. 그들이 진정으로 자유를 누리

기 위해서는 그들 자신이 투쟁으로 착취와 억압을 근절하고 인민이 나라와 사회의 주인으로 되는 사회주의 사회를 건설하여야만 한다. 인간의 진정한 자유는 오직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실현하는 조건 하에서만 가능하다. 사회주의 사회 하에서는 부르죠아들의 허위적인 《자유》가 허용되지 않는 대신 진정한 자유, 인민의 자유가 연매를 맺게 된다.

오늘 미제와 그 추종들은 저들이 《자유의 수호자》라고 하면서 사회주의 나라들에는 자유가 없다고 집요하게 선전하고 있다.

물론 사회주의 나라에서는 침략과 략탈의 《자유》, 억압과 착취의 《자유》가 허용되지 않는다. 사회주의 하에서는 《착취할 <자유>, 기근을 리용하여 치부할 <자유>, 자본의 정권을 회복하기 위하여 투쟁할 <자유>, 조국의 로동자 및 농민을 반대하여 외국의 부르죠아지와 결탁할 <자유>》(레닌 전집 제 29 권, 370 페지)는 허용될 수 없다. 그러나 사회주의는 소수의 독재와 착취를 진압함으로써 광범한 대중의 자유를 실현하였다.

진정한 자유를 실현하는 길—그것은 오직 소수의 착취 계급을 타도하고 절대 다수의 근로 인민을 낡은 사회의 온갖 사회적 질곡으로부터 해방하는 혁명의 길인 것이다. 피착취 계급은 결코 무권리와 부자유가 지배 계급의 억압과 착취에서 온다는 것을 인식하는 데 그칠 수는 없다. 맑스가 《철학자들은 여러 가지로 세계를 해석하였을 뿐이였다. 그러나 문제는 세계를 변혁하는 데 있다》고 한 유명한 명제는 자유 실현의 길을 밝히는 데 있어서도 중요한 지침으로 된다.

혁명이 없이 자유는 얻어질 수 없다. 남조선의 한 부르죠아 대변인은 혁명을 두려워하는 나머지 다음과 같이 쓰고 있다:《자유와 평등은 다 같이 안정된 권위를 필요로 하며 권위가 안정되고 성장되기 위해서는 그 토대로서 전통과 종교 특히 제도적인 전통과 도덕률에 립각한 보다 높은 질서를 수반하지 않으면 안 된다》(《현대인 강좌》 제 2 권, 321 페지).

여기에서 《안정된 권위》, 《제도적인 전통과 도덕률》이란 착취 계급들의 권위, 착취 제도의 전통과 도덕률을 의미하는 것이며 이것을 《안정된》 것으로 《성장》시키자는 것은 인민들의 자유를 더욱 침해하자는 것 이외의 아무 것도 아니다.

인민들은 소수의 전횡이 지배하고 광범한 근로 대중의 자유와 권리가 무참히 짓밟히는 낡은 통치 제도를 《안정된 권위》로 《성장되게》 할 것이 아니라 그러한 제도를 근본적으로 뒤집어 엎고 무권리와 노예적 처지에서 해방되여야 한다. 오직 이 길만이 진정한 자유를 실현하는 길이다.

조 중 학

근로자 제 3 호 (루계 289 호)

편 집 위 원 회

발행소 · 근 로 자 사 주소 · 평양시 중구역 경상동
인쇄소 · 평양 종합 인쇄 공장
인 쇄 · 1966년 2월 3일 발 행 · 1966년 2월 5일

7—6338 값 40 전

전 세계 로동자들은 단결하라!

호 3월 20일

평양 근로자사 1966

근로자

전 세계 로동자들은 단결하라!

조선 로동당 중앙 위원회

기 관 지

제 4 호 (290)

1966년 3월 20일

차 례

— 문 답 학 습 —

농촌 문제 해결을 위한 우리 당의 맑스-레닌주의적 길

토지 개혁 법령 발포 20 주년에 제하여

우리 나라에서 농촌 문제 해결의 첫 력사적 변혁이였던 토지 개혁이 수행된 때로부터 20 년의 세월이 흘렀으며 김 일성 동지의 《우리 나라 사회주의 농촌 문제에 관한 테제》가 발표된 지 2 년이 되였다.

지난 20 년 간은 조선의 공산주의자들이 민주주의 혁명과 사회주의 혁명을 수행하고 사회주의 건설을 촉진하여 농촌의 면모를 근본적으로 일신한 기간이였다.

우리 나라에서 농촌 문제는 혁명의 승패와 사회적 진보를 좌우하는 관건적 문제의 하나로, 그의 해결이 매우 어렵고 복잡한 과업으로 제기되였다. 외래 제국주의자들에 예속된 락후한 농업 국가였던 우리 나라에서는 농촌 문제를 옳게 해결하여야만 로농 동맹을 공고화하고 혁명을 촉진시킬 수 있었으며 민족 경제를 발전시키고 사회주의 건설을 강력히 전개해 나갈 수 있었다.

우리 당은 농촌 문제의 해결에 시종일관 커다란 관심과 힘을 돌렸으며 우리 나라의 현실에 맑스-레닌주의를 능숙히 적용하여 혁명의 각이한 단계에서 이를 훌륭히 해결하여 왔다.

세기적으로 락후하였던 우리 농촌은 선진적인 사회주의 농촌으로 되였다. 무권리와 무지, 가난에 시달리던 우리 농민들은 농촌의 당당한 주인으로, 문명하고 지식 있는 사회주의 근로자로 되였으며 행복한 생활을 누리고 있다.

농촌에서 사회주의가 승리한 이후 7~8 년 밖에 안 되는 기간에 사회주의 농촌 건설에서는 커다란 전진이 이룩되였으며 특히 테제가 나온 이후 농촌의 면모는 기술, 문화, 사상의 모든 분야에 걸쳐 급속히 개변되고 있다.

날이 가고 해가 바뀔수록 우리의 농촌은 더욱더 현대적인 기술을 가진 부유하고 문화적인 사회주의 농촌으로 발전하고 있다.

실로 농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우리 당의 20 년 간의 투쟁은 사회를 변혁하고 자연을 정복하며 인간을 개조하는 위대한 혁명 투쟁이였다. 우리 당은 농촌 문제 해결을 위한 투쟁 과정에서 거대한 승리를 달성하였으며 고귀한 경험을 축적하였다.

오늘 우리 인민은 당의 령도 하에 테제가 밝혀 준 사회주의 농촌 문제 해결의 길을 따라 확신성 있게 전진하고 있다.

민주주의 혁명 단계에서의 농촌 문제

반제 반봉건 민주주의 혁명을 수행함에 있어서 농민 문제, 농업 문제를 정확히 해결하는 것은 극히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이 단계에서 농민 문제, 농업 문제의 기본은 토지 문제이다. 우리 나라에서 토지 문제의 해결은 민주주의 혁명의 기본 내용으로, 정치, 경제, 사회적 진보를 촉진하기 위한 기본 고리로 되였다.

《우리 농촌을 지배하고 있던 봉건적 토지 소유 관계는 수백만 농민들을 봉건적 착취와 예속에 얽어매고 농업 생산력의 발전을 구속할 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사회적 진보를 장애하는 질곡으로 되여 있었다. 그러므로 토지 문제의 해결은 반제 반봉건적 민주 혁명에서 기본 내용을 이루고 있었다》(김 일성).

우리 당은 해방 후 토지 문제의 해결을 반제 반봉건 민주 혁명의 첫째 가는 과업으로 제기하였다.

장기간에 걸친 일본 제국주의의 식민지 통치의 결과 우리 나라는 해방 당시까지 락후한 식민지 반봉건 사회로 남아 있었다. 농업이 우리 인민의 주되는 생업이였으며 주민의 80%가 농민이였다. 농촌에는 제국주의적, 봉건적 착취 관계가 지배하고 있었으며 농민들은 2중 3중으로 억압 당하고 략탈 당하였으며 무권리와 빈궁, 암흑 속에서 신음하였다. 해방 전 1944년에 전체 농호의 4%에 지나지 않았던 지주가 총 경지 면적의 58.2%를 차지하고 있었으며 그 중 대지주들은 일본인들이 다수였다. 농민의 근 80%는 토지가 전혀 없거나 부족한 소작농, 반소작농, 고용농들이였으며 부농 경리의 발전은 매우 미약하였다.

농업 생산력을 봉건적 생산 관계의 질곡에서 해방하지 않고서는 농업을 발전시킬 수 없었으며 공업의 복구 발전도, 인민 경제의 전반적 앙양도, 자립적 민족 경제의 건설도 기대할 수 없었다.

농민을 지주들의 억압과 착취로부터 해방하여야만 그들의 정치적 열성과 생산 의욕을 높일 수 있었으며 농촌의 중세기적인 락후성을 퇴치하고 농민들의 생활을 향상시킬 수 있었다.

농촌의 봉건적 토지 소유 관계를 청산함으로써만 제국주의자들과 국내 반동의 중요한 사회적 지반이였던 지주 계급을 숙청하고 우리 나라 농촌의 민주주의적 진지를 강화할 수 있었으며 로동 계급과 농민의 동맹을 가일층 공고히 할 수 있었다. 특히 해방 후 미제국주의자들에 의하여 조국이 량단되고 남반부에 국내외 반동 세력이 집결되여 우리 혁명의 전진을 저해하려고 발광하는 조건에서 북반부에서 토지 혁명을 철저히 수행하는 것은 혁명적 민주 기지를 창설하고 공고화하며 조선 혁명을 힘 있게 추진시키기 위한 절실한 요구로 제기되였다.

당과 인민 정권은 3.7제 등 소작료를 감면하는 투쟁으로부터 시작하여 일제와 그 주구들의 토지를 몰수하는 투쟁을 진행하였으며 조건이 성숙되자 1946년 3월 5일 력사적인 토지 개혁 법령을 발포하였다.

토지 개혁을 위한 당의 방침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소유 관계를 우리 나라의 실정에 맞게 해결한 것이며 그것을 철저히 수행한 것이다.

우리 당은 토지를 근로 농민의 소유로 넘기는 원칙에서 토지 문제를 해결

하였다.

우리 나라에는 경지가 심히 제한되여 있었으며 압도적 다수의 근로 농민들이 토지를 가지지 못 하고 장기간 지주의 가혹한 착취와 압박을 당하여 왔다. 토지가 상품화된 지 비교적 오래고 토지에 대한 사’적 소유제의 전통이 강하였으며 땅에 대한 농민들의 애착심이 매우 컸다. 제 땅을 가지고 제 농사를 짓는 것은 우리 농민들의 평생 소원이였다.

토지를 근로 농민들의 소유로 넘길 데 대한 당의 방침은 토지에 대한 농민들의 절절한 념원과 우리 나라의 구체적인 사회 경제적 조건을 반영한 유일하게 정확한 것이였다.

우리 당은 토지 혁명이 나라의 정치적 및 경제적 발전을 위해서 뿐만 아니라 앞으로 농촌 문제의 종국적 해결을 위하여 심각한 영향을 미친다는 데로부터 출발하여 토지 개혁을 가장 철저하게 수행하였다. 토지 개혁의 철저성은 무상 몰수, 무상 분배의 원칙에서 봉건적 착취 관계를 완전히 청산하고 토지가 착취의 수단으로 되는 것을 엄격히 제한한 데서 표현되였다.

토지 개혁에서는 일본 국가, 일본인, 민족 반역자의 소유 토지는 물론 5 정보 이상의 지주 소유 토지와 계속적으로 소작 준 일체 토지가 무상으로 몰수되고 고용농, 토지 없는 농민, 토지 적은 농민들에게 무상으로 분배되였다. 소작 제도와 분여된 토지의 매매 및 저당이 법적으로 금지되고 개인 소유 토지의 한계가 5 정보로 제한되였다.

5 정보 이상의 지주 소유 토지는 물론 그 이하라도 계속적으로 소작을 준 일체 토지를 몰수함으로써만 중소 토지 소유자로서 소작을 주는 자들이 많았던 조건에서 봉건적 착취 관계를 완전히 청산할 수 있었다.

또한 개인 소유 토지의 최고 한계를 5 정보로 한 것은 당시 우리 나라의 조건에서 보통 자가 로력으로는 그 이상 경작할 수 없었기 때문이며 따라서 그것은 농촌에서의 부농화 과정을 억제하는 합리적인 조치였다.

이 모든 조치는 농촌에서 봉건 제도를 완전히 청산하고 반동의 경제적 지반을 철저히 제거하였을 뿐만 아니라 혁명의 다음 단계에서 농촌의 사회주의적 개조를 보다 용이하게 할 수 있는 중요한 조건으로 되였다.

토지 혁명에서 승리하기 위하여서는 혁명의 대상과 동력을 정확히 규정하고 력량을 옳게 편성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우리 당은 고농, 빈농에 튼튼히 의거하면서 농촌의 주인인 농민들 자신이 토지 개혁을 집행하게 하며 이 과정에서 그들을 정치 사상적으로 훈련시키도록 하였다. 고용농과 빈농을 중심으로 농촌 위원회를 조직하고 토지 개혁 수행에서 그들이 주동적 역할을 놀게 하였으며 그 집행자로 되게 하였다.

토지 개혁은 로동 계급의 지도와 방조가 없이는 승리할 수 없다. 당은 로동 계급의 선진적인 대부대를 농촌에 파견하여 토지 개혁을 위한 농민들의 투쟁을 적극적으로 지도 방조하게 하였다. 이와 함께 당은 모든 민주 력량을 단합하여 토지 개혁 실시를 위한 투쟁에 나서게 하였다. 토지 개혁 수행에서 민주주의적 제 정당, 사회 단체들과의 통일 전선이 강화되고 광범한 민주주의적 력량이 이에 동원되였으며 토지 개혁은 실로 전 인민적인 투쟁으로 전개되였다. 인민 정권의 강력한 독재 기능과 인민 대중의 높은 혁명적 기세에 의하여 반동 분자들의 파괴 암해 책동은 분쇄되였다.

당의 이 모든 조치들은 첨예한 계급 투쟁 속에서 진행된 우리 나라의 토지 개혁을 철저하게 수행할 수 있게 한 믿음직한 담보였다.

해방 후 당과 인민 정권이 새로 창건되였으며 조국이 량단되고 정세가 복잡한 조건 하에서도 우리 당은 토지 개혁과 같은 어려운 혁명 과업을 대담하게 제기하고 농민들과 전체 인민들을 동원하여 그것을 불과 20 일 동안에 승리적으로 완수하였다.

이것은 대중의 혁명성을 굳게 믿고 그에 튼튼히 의거하며, 투쟁 속에서 조직과 대중을 단련하고 혁명을 주동적으로 전개해 나가는 우리 당의 현명한 령도에 의하여 이룩된 것이다.

토지 개혁의 실시에 의하여 우리 나라 총 경지 면적의 53%, 소작 주던 토지의 95%에 달하는 100만여 정보의 토지가 무상으로 몰수되여 그 중 98만 1,000여 정보가 총 농가 호수의 70% 이상에 달하는 고용농, 토지 없는 농민, 로지 적은 농민들에게 무상으로 분여되였다. 지주 토지 소유는 영원히 청산되고 소작 제도는 완전히 철폐되였다.

토지 개혁과 함께 농업 현물세제가 실시됨으로써 농민들은 일제 시기의 고률 소작료와 온갖 가렴 잡세로부터 해방되였다.

토지 개혁에 의하여 반제 반봉건 민주주의 혁명 단계에서의 농민 문제, 농업 문제는 훌륭히 해결되였다.

우리 나라의 농민들은 자유로운 농민으로, 로동 계급과 함께 민주주의 독립 국가 건설의 기본 력량으로 되였으며 우리의 농촌은 반동의 근거지로부터 민주주의의 근거지로 전환되였다.

토지 개혁 이후 우리 나라 농업 생산은 급속히 장성하였으며 농민들의 생활은 현저히 향상되였다.

1948년에 알곡 총수확고는 벌써 토지 개혁을 수행한 1946년에 비하여 40%나 증가하였으며 일제 시대의 최고 수준을 10.4% 초과하였다.

땅의 주인이 된 농민들은 농업 증산 운동과 애국미 운동을 광범히 전개하여 민주 국가 건설에 적극 참가하였으며 조국 해방 전쟁 시기에는 토지와 자유를 준 당과 인민 정권을 위하여, 자기들의 토지를 고수하기 위하여 헌신적으로 투쟁함으로써 전쟁 승리에 크게 기여하였다.

토지 개혁은 미제와 그 주구들을 반대하는 남조선 인민 특히 농민들에게 거대한 고무적 힘으로 되였으며 그들이 나갈 길을 밝혀 준 등대로 되였다.

아세아에서 처음으로 실현된 우리 나라의 토지 개혁은 식민지적 봉건적 착취와 압박에 신음하는 동방 각국 인민들과 농민들을 무한히 고무하였으며 그들에게 커다란 혁명적 영향을 주었다.

사회주의 혁명 단계에서의 농촌 문제

1. 농업의 사회주의적 협동화는 사회주의 혁명 단계에 있어서 농촌 문제 해결의 기본

사회주의 혁명 단계에 있어서의 농민 문제, 농업 문제는 농촌에서 자본주의 요소를 청산하고 개인 농민 경리를 사회주의적 집단 경리로 개조함으로써 농민들을 온갖 형태의 착취와 압박에서 영원히 해방하며 농업 생산력을 사'적

소유에 기초한 낡은 생산 관계의 구속에서 완전히 해방하는 데 있다.

토지 개혁은 농촌에서 봉건적 토지 소유 관계를 청산함으로써 농민들을 지주의 착취와 예속에서 해방하며 농업 생산력을 봉건적 생산 관계의 질곡에서 해방하는 거대한 력사적 변혁이였다. 그러나 토지 개혁은 농촌 문제 해결에서 첫걸음에 지나지 않는다.

농촌에서 소상품 생산이 지배하는 한 농업 생산력을 완전히 해방할 수 없고 착취와 빈궁의 근원을 청산할 수 없으며 농민들의 생활을 근본적으로 개선할 수 없다.

또한 계획적으로 급속히 발전하는 사회주의 공업과 소상품 생산에 기초한 농업은 일정한 단계에서 반드시 모순에 부닥치게 된다.

그러므로 개인 농민 경리를 협동화하여 사회주의적 집단 경리로 개조하는 것은 혁명 발전의 합법칙적 요구이며 사회주의에로의 과도기에 해결하여야 할 기본 과업이다.

문제는 주객관적 조건을 타산하여 소농 경리를 협동화할 수 있는 가장 적절하고 성숙된 시기를 옳게 포착하고 제때에 이를 제기하고 적극적으로 추진시키는 데 있다. 만일 조건이 성숙되기 전에 농업 협동화를 조급하게 제기하거나 반대로 조건이 성숙되였음에도 불구하고 농업 협동화를 추진시키지 않는다면 로농 동맹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농업 생산력 발전에 지장을 주게 된다.

당은 반제 반봉건 민주주의 혁명 과업을 수행하고 과도기에 들어 서면서부터 이미 농촌 경리의 사회주의적 개조를 위한 준비 사업을 진행하였다. 그러나 전쟁 전 시기에는 아직 이를 위한 사회 경제적 및 물질적 조건이 충분히 성숙되지 못 하였다. 당은 바로 전후 시기를 우리 나라에서 농업 협동화의 가장 적절하고 성숙된 시기로 보았다.

전후 시기 농촌 경리의 사회주의적 협동화는 북반부 사회 발전의 억제할 수 없는 요구로 제기되였으며 또한 민주 기지를 정치 경제적으로 공고화하여야 할 조선 혁명의 절박한 요구로 제기되였다.

전쟁으로 인하여 농촌 경리의 물질 생산적 토대는 심히 파괴되고 농촌에서 로력과 축력은 매우 부족하게 되였다. 이러한 조건에서 소상품 생산적 개인 농민 경리의 모든 제한성은 더욱더 뚜렷이 나타나게 되였다.

개인 농민 경리를 그 대로 두고서는 전쟁의 피해를 짧은 시일 내에 회복할 수 없었으며 농업 생산력을 계획적으로 급속히 복구 발전시킬 수 없었다. 이것은 공업의 급속한 복구 발전과 나아가서는 전반적 인민 경제의 발전에 커다란 지장을 줄 수 있었다. 사회주의 공업과 개인 농민 경리 간의 모순은 전후 시기에 급속히 복구 발전되는 공업과 극히 완만히 복구되는 농촌 경리 간의 불균형으로서 나타날 위험성이 있었다.

전쟁으로 인하여 우리 농민들의 생활은 전반적으로 령락되였으며 빈농민들의 수가 40%로 증가되였다. 부단히 자본주의를 낳는 소상품 생산적 개인 농민 경리에 의거하여 가지고는, 그것도 영농 토대가 약화되고 제한성이 심하게 나타나게 된 개인 농민 경리에 의거하여 가지고는 령락된 농민 생활을 급속히 안정 향상시킬 수 없었으며 특히는 빈농민 문제를 도저히 해결할 수 없었다.

농업 협동화를 실현하여야만 농업 생산력을 계속 발전시키고 공업과 농업 간

의 균형을 보장할 수 있었으며 농민들의 생활을 부단히 향상시키고 빈농민 문제를 완전히 해결할 수 있었다.

또한 농업 협동화를 진행하여 농촌에서 반동 세력이 의거할 수 있는 지반을 없앰으로써만 로농 동맹을 공고히 하고 우리 당의 농촌 진지를 더욱 강화하며 공화국 북반부의 혁명 기지를 반석 같이 다질 수 있었다.

우리 나라의 형편에서 전후 시기 농업의 사회주의적 협동화는 더는 지연시킬 수 없는 절실한 요구로 되였으며 농민들 자신이 자기들의 어려운 처지로부터 계속 낡은 방법으로 살 수는 없다는 것을 깨닫고 새로운 길을 찾게 된 생활적 요구였다.

당시 우리 나라에서는 협동화를 수행할 수 있는 충분한 조건이 준비되여 있었다.

해방 후 첫 시기부터 인민 경제에서 압도적 우세를 차지하고 있었던 사회주의 경제 형태는 개인 농민 경리에 매우 큰 영향을 주었으며 특히 국영 공업의 급속한 발전은 협동화 운동에 강력한 지원을 줄 수 있는 물질적 토대를 조성하였다.

전사에 우리 나라 농촌에서는 국가 농목장, 농기계 임경소를 비롯한 사회주의적 경제 성분이 크게 자라 났으며 농민들 속에서 오랜 관습으로 되여 있던 협동 로동 조직들이 광범히 보급되였다.

국내외 계급적 력량 관계도 사회주의적 개조에 결정적으로 유리하였다.

전후에 우리 나라에서는 사회주의적 개조를 반대하는 세력이 미약하였던 반면에 근로 농민 대중은 장기간의 혁명 투쟁과 가렬한 전쟁을 통하여 정치적으로 각성되고 단련되여 그 력량은 더욱 장성하였다. 인민 대중 속에서 당의 위신이 높고 각계 각층 인민들이 당 주위에 집결되고 대중의 정치적 각성이 제고된 것은 사회주의적 개조를 성과적으로 진행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담보였다.

이 모든 것으로부터 당은 정전 직후 1953년 8월에 소집되였던 당 중앙 위원회 제 6 차 전원 회의에서 농업 협동화를 당면 과업으로 제기하고 농민들의 열성이 제고됨에 따라 이 운동을 적극 추진시켰다.

우리 당은 농업의 사회주의적 협동화를 실현함에 있어서 경리 형태의 사회주의적 개조와 기술적 개조 간의 호상 관계를 정확히 해결함으로써 농업 협동화 운동에서의 하나의 새로운 경험을 창조하였다.

우리 나라에서의 농업 협동화 운동은 생산력과 기술 발전 수준이 비교적 낮은 조건에서 전개되였다.

물론 공업화를 실현하고 농업까지 포함한 인민 경제의 모든 부문들을 새 기술로 장비하지 않고서는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를 보장할 수 없다. 그러나 수공업적 기술에 기초한 협동 경리도 소규모 분산적인 개인 농민 경리보다 비할 바 없는 우월성을 발휘한다.

레닌은 농민들의 토지와 농기구를 단순히 통합한 데 불과한 협동 경리에서도 분산적인 소규모 개인 경리에서는 달성할 수 없는 경리의 개선을 가져 오며 그 전보다 로동 생산 능률을 2~3 배로 높이며 인간 로동을 2~3 배로 절약하게 된다고 지적하였다.

경리가 령세하고 로력과 축력이 부족하였던 우리 나라에서는 수공업적 기술에 기초한 농업 협동 경리도 생산 수단

과 로력을 계획적으로 조직적으로 관리 운영하며 협업의 우월성을 발양시켜 생산성을 더욱 높일 수 있었다.

이로부터 당은 현대적 농기계를 대량적으로 생산할 수 있으리 만큼 공업이 발전할 때까지 기다리지 않고 우선 경리 형태의 개조를 실현함으로써 농업 생산력의 급속한 발전 특히 기술 혁명을 위한 광활한 길을 열어 놓았다.

우리 당은 경리 형태의 개조를 선행시키면서 기술 개조를 부단히 추진시켰다. 우리는 초기에 현대적 농기계는 부족하였지만 우리 나라 농촌의 기술 개조에서 첫자리를 차지하는 수리화를 하여 물을 주면서 협동화를 진행하였다.

《사회주의적 공업화를 실현하지 않고서는 생산 관계의 사회주의적 개조가 불가능하다》느니, 《현대적 농기계가 없이는 농업을 협동화할 수 없다》는 등의 견해는 우리의 현실에 의하여 여지 없이 분쇄되였다.

만일 우리가 농업 협동화를 위한 모든 조건들이 성숙되였던 시기를 놓쳐 버리고 사회주의 공업화와 농업의 기계화에 이를 선행시키지 않았더라면 전쟁에 의하여 그처럼 혹심하게 파괴되였던 농촌 경리를 급속히 복구 발전시킬 수 없었을 것이며 이것은 결국 공업과 인민 경제의 전반적 발전을 훨씬 더 지연시키게 되였을 것이다.

우리의 경험은 현대적 농기계가 거의 없는 조건 하에서도 생활이 낡은 생산 관계의 개조를 절실히 요구하며 또 그것을 담당할 만한 혁명 력량이 준비되였을 때는 농업의 협동화를 능히 실현할 수 있으며 그렇게 조직된 협동 경리도 개인 농민 경리에 비하여 결정적으로 우월하다는 것을 보여 주었다.

2. 농업 협동화에서의 실물 교육과 자원성의 원칙, 당과 국가의 강력한 지도와 지원

우리 당은 농촌 경리의 사회주의적 협동화를 실물 교육과 자원성의 원칙에 의하여, 당과 국가의 강력한 지도와 방조에 의거하여 전후 불과 4~5 년 동안에 승리적으로 완성하였다.

로동 계급이 농민을 사회주의의 길로 인도하기 위하여서는 실물을 통하여 농민들을 교육하고 그들이 자원적으로 협동화의 길에 들어 서게 하여야 하며 당과 국가가 강력히 지도하고 방조해야 한다.

우리 당은 자원성의 원칙을 엄격히 준수하며 실천적 모범을 통하여 농민들에게 협동 경리의 우월성을 인식시키는 기초 우에서 협동화 운동을 발전시켰다.

《어떠한 혁명 투쟁이나 건설 사업에서나 다른 나라의 경험을 연구하고 섭취하는 것도 물론 필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어디까지나 자체의 경험이다》 (김 일성).

자체의 경험에 의거함으로써만 농민들을 설복할 수 있고 나라의 실정에 맞는 협동화의 옳은 방도를 찾을 수 있다.

우리 당은 초기에 빈농들과 농촌의 당 핵심들로써 경험적으로 매개 군에 몇 개씩의 협동 농장들을 조직하고 그것을 공고화함으로써 협동 경리의 우월성을 실물로 보여 주었으며 이를 통하여 광범한 농민 대중 특히 중농들이 자원적으로 협동 경리에 들어 서게 하였다. 이렇게 함으로써 농업 협동화에서 전략적 의의를 가지는 중농 문제를 옳게 해결하였으며 농업 협동화 운동의 승리적 발전을 보장하였다.

경험적 단계를 설정한 것은 농민들에게 협동화의 우월성을 사실로써 보여준 동시에 우리 나라의 실정에 적합한 협동 경리의 형태와 규모, 협동화의 속도를 정확히 규정할 수 있게 하였으며 이 운동을 승리적으로 이끌고 나갈 수 있는 자체의 경험과 자신심을 가질 수 있게 하였다.

협동 경리의 형태는 사회 경제적 처지와 의식 수준에 따르는 각 계층 농민들의 각이한 요구와 그들의 전통, 관습 등을 고려하여 될 수 있는 대로 많은 농민들이 쉽게 접수할 수 있도록 설정되여야 한다.

협동화 당시 토지는 농민들의 사'적 소유로 되여 있었으며 그들의 경제적 처지와 사상적 준비 정도는 각이하였다. 당은 우리 농촌의 이러한 실정에 근거하여 협동 경리의 세 가지 형태, 과도적 형태들인 고정적 로력 협조반 및 반사회주의적 형태와 완전한 사회주의적 형태를 설정하고 구체적인 정형에 적응하게 그 형태를 선정하도록 지도하였다.

농민들의 역축과 농기구 등은 기계적으로 통합하지 않고 그들의 희망에 따라 통합하든가 또는 일정한 시기까지 계속 사'적 소유로 남겨 두면서 공동으로 리용하도록 하였으며 통합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해당한 대'가를 치르도록 하였다.

협동 경리의 형태와 생산 수단의 통합 방식을 이렇게 설정한 것은 농민들 특히 중농으로 하여금 협동 경리를 용이하게 접수할 수 있게 하였으며 협동화 과정에서 있을 수 있는 폐단을 미리 방지할 수 있게 하였다.

협동 경리를 조직함에 있어서 우리 당은 농민들의 준비 정도를 고려함이 없이 조급하게 높은 형태를 취하려 하거나 또는 기계적으로 낮은 형태로부터 순서를 밟아서 높은 형태로 올라 가려는 편향을 다같이 엄격히 경계하였다.

농민들의 토지 소유 상태가 령세하고 비교적 균등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들의 혁명성과 정치적 각성이 높은 우리 나라에서는 초기부터 완전한 사회주의적 형태가 압도적 우세를 차지하였으며 농업 협동화의 완성과 동시에 그의 유일적 지배가 확립되였다.

우리 당은 농업 생산력의 발전 수준, 관리 간부의 준비 정도, 협동 경리의 공고화 정도 등을 고려하여 협동 경리의 규모를 정확히 규정하였다.

당은 조건을 타산함이 없이 처음부터 협동 경리의 규모를 지나치게 크게 하려는 편향을 경계하면서 작은 것으로부터 점차적으로 큰 것으로 발전하도록 지도하였다.

협동 경리 운영의 경험이 부족하고 관리 간부들의 수준과 농민들의 의식 수준이 어리며 농업의 기술 수준이 낮았던 협동화의 첫 시기에는 협동 경리를 10~20 호의 작은 규모로 조직하였으며 그 후 점차 40~100 호로 그 규모를 확대하였다.

협동화가 완성되고 협동 경리가 정치 경제적으로 더욱 공고화되였으며 관리 간부들의 수준이 높아지고 농촌에서 기술, 문화 혁명 과업이 전면에 나서게 되자 당은 1958년 10월 말에 농업 협동 경리를 우리 나라의 행정 말단 단위인 리 단위로 통합하였다.

그리 하여 우리의 농업 협동 경리들은 평균 500 정보의 경지와 300 호의 농가를 망라한 더욱 발전된 공고한 사회주의적 경리로 되였으며 농업 생산력의 발전, 특히 농촌의 기술, 문화 혁명을 더 잘 촉진할 수 있게 되였다.

생활은 협동 경리의 규모 문제의 이러한 해결이 전'적으로 정당하다는 것을 확증하였다. 만일 조건이 변화함에도 불구하고 계속 협동 경리를 지나치게 작은 규모로 유지한다면 그것은 불피코 농업 생산력의 발전을 저해할 것이며 그와는 반대로 주객관적 조건을 고려함이 없이 규모를 지나치게 크게 한다면 그것은 협동적 소유의 의의를 상실하게 하고 협동 경리 발전에 지장을 줄 것이다.

우리 당은 자원성의 원칙에 의하여 농민들을 협동 경리에 인입함에 있어서 정확한 계급 정책을 시종일관 견지하였다.

전후 협동화 초기에 우리 농촌에는 빈농이 약 40%나 되였으며 약 60%를 차지한 중농도 일부 부유한 층을 제외하고는 경제 및 생활 형편에서 빈농과 대동소이한 처지에 있었다. 또한 중농의 대부분은 토지 개혁의 혜택을 받은 신중농이였다. 이와 반면에 부농은 0.6%에 불과한 데다가 그 경제적 지반도 매우 미약하였다.

당은 우리 농촌의 이러한 계급적 력량 관계로부터 출발하여 농업 협동화에서 빈농에 튼튼히 의거하며 중농과의 동맹을 강화하며 부농을 제한 개조하는 계급 정책을 실시하였다.

모든 협동 농장들에서 빈농들이 핵심적 역할을 담당하도록 하였으며 비교적 부유한 농민들로만 협동 경리를 조직하거나 협동 경리에 부농의 영향이 미치지 않도록 하였다. 다른 한편 중농을 강제로 협동 경리에 인입하거나 그들의 리익을 침범함으로써 중농과의 동맹을 약화시키는 편향을 엄격히 경계하였다.

당은 부농들의 착취 행위를 엄격히 제한하면서 협동화 운동이 발전함에 따라 부농을 개조하는 방침을 취하였다. 우리의 현실은 농촌 경리의 사회주의적 개조에서 조건에 따라서는 부농에게모 수탈의 방법이 아니라 개조의 방법을 적용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 주었다.

농업 협동화 운동에서 자원성의 원칙을 준수한다는 것은 결코 이 운동을 자연 발생성에 방임하여도 된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로동 계급의 당과 국가의 지도와 방조를 떠나서는 협동 경리 제도가 농촌에서 발생할 수도 없거니와 또한 공고 발전될 수도 없다.

우리 당과 국가는 협동 경리의 발생과 공고 발전을 위하여 농민을 강력히 지도하고 방조하였다.

당은 협동화 운동을 전개하면서 우선 농민들 속에서 계급 교양을 강화하여 그들의 사상 무장을 선행시켰으며 농촌에서의 당 력량의 강화, 협동 경리들에서의 사회주의적 제도와 질서의 확립, 관리 간부들의 옳은 선발 배치와 관리 및 기술 일'군들의 양성 등 정치 조직 사업에 제 일차적인 관심을 돌렸다.

이와 함께 당은 재정, 물자, 로력 등 모든 것이 부족하였던 전후 복구 건설의 그 어려운 조건에서도 농촌 경리 부문과 그와 직접 관련된 공업 부문에 거액의 국가 투자를 하였으며 협동 농장들과 농민들에게 막대한 물질적 및 재정적 방조를 주었다. 또한 농촌에서 로동 계급의 정치, 사상, 문화적 영향을 강화하며 긴장된 로력 문제를 풀어 주기 위하여 거대한 규모의 로력적 지원을 주었다.

당과 국가의 이와 같은 적극적인 지도와 방조는 빈농민들로만 조직된 초기의 빈약한 협동 경리들을 추켜 세워 개

인 경리에 비한 그 우월성을 보여 주는 데 있어서나 량적으로 급속히 장성한 협동 경리들을 경제적으로 공고히 하는 데 있어서나 결정적 역할을 하였다.

당의 현명한 령도, 농민 대중의 높은 혁명적 열의, 조직된 협동 경리의 정치 경제적 공고화—이것은 우리 나라에서 농업 협동화를 승리적으로 완수할 수 있게 한 확고한 담보로 되였다.

농업 협동화의 완성은 우리 나라 혁명과 사회 경제 발전에서 력사적 의의를 가지는 위대한 사변이였다.

농업 협동화에 의하여 농촌에서 착취와 빈궁과 락후성의 온갖 근원은 영원히 청산되고 농업 생산력은 낡은 생산 관계의 질곡에서 완전히 벗어 났으며 생산력을 발전시키고 농민들의 생활을 향상시킬 수 있는 광활한 길이 열려졌다.

협동 경리의 우월성과 날로 강화되는 물질 기술적 토대에 기초하여 농업 생산은 급속히 장성하였다.

협동 경리들의 경제적 토대는 계속 튼튼해졌으며 농민들의 생활은 해마다 개선되였다. 협동 농장 농가 1호당 분배 몫은 1955년을 100으로 할 때 1958년에는 알곡은 146%, 저류는 260%, 현금은 364%로 각각 급속히 장성하였다.

그리하여 전후 첨예한 문제로 제기되였던 빈농민 문제는 완전히 해결되였으며 원래 식량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던 공화국 북반부는 식량을 자급자족하는 지대로 전변되였다.

협동화의 승리는 공업과 농업의 균형적 발전을 위한 사회 경제적 전제를 조성하고 공업화의 촉진과 전반적 인민 경제 발전에 결정적으로 유리한 국면을 열어 놓았다.

농업 협동화는 또한 개인 상공업의 개조를 촉진하여 우리 나라 도시와 농촌에서 사회주의 제도의 전면적 승리를 가져 오게 하였다.

도시와 농촌에서 전면적으로 승리한 사회주의 제도의 토대 우에서 우리 사회의 정치적 기초인 로농 동맹이 공고화되고 농촌의 사회주의 진지, 북반부의 혁명 기지는 더욱 반석 같이 다져졌다.

우리 나라의 천리마 운동, 사회주의 건설의 대고조는 도시와 농촌에서 결정적으로 승리한 사회주의 제도에 기초하여 이루어진 것이다.

이 모든 사실은 농업 협동화가 농촌 문제의 해결과 전반적 혁명 발전에서 결정적인 전진으로 된다는 것을 말하여 준다.

사회주의 하에서의 농촌 문제

1. 사회주의 농촌 문제의 본질

농업 협동화의 완성으로 농촌 문제는 종국적으로 해결되는 것이 아니다. 농업 협동화가 완성된 이후에도 도시와 농촌 간의 차이, 로동 계급과 농민 간의 계급적 차이가 남아 있으며 따라서 농민 문제, 농업 문제는 계속 남아 있게 된다.

사회주의 농촌 문제는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의 중요한 구성 부문으로 된다.

사회주의를 건설하며 장차 공산주의

에로 이행하기 위하여서는 생산력을 고도로 발전시켜야 하며 도시와 농촌 간의 차이, 정신 로동과 육체 로동 간의 차이를 없애야 한다. 이렇게 하자면 무엇보다도 도시를 발전시켜야 하며 공업을 발전시켜야 한다. 그러나 도시와 공업이 아무리 발전하여도 농촌을 락후한 상태로 남겨 두고서는 사회주의를 성과적으로 건설할 수 없으며 공산주의를 실현할 수 없다. 반드시 농업 생산력을 고도로 발전시키고 농촌의 생산 관계를 부단히 완성하여야 하며 농민들의 기술, 문화, 사상 수준을 로동 계급의 수준에 추켜 세워 농촌 문제를 옳게 해결하여야만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건설할 수 있다.

사회주의 농촌 문제는 장기간의 꾸준한 투쟁과 노력에 의하여서만 완전히 해결할 수 있는 복잡하고 어려운 과업이다.

농촌의 착취 계급을 청산하고 낡은 생산 관계를 개조하는 것도 어려운 일이지만 승리한 사회주의 제도를 공고히 하고 발전시키며 농민들을 고된 로동과 사상, 문화적 락후성에서 해방하고 도시와 농촌 간의 차이를 없애는 것은 더욱 오랜 시일을 요하는 창조적인 과업이다.

김 일성 동지는 《우리 나라 사회주의 농촌 문제에 관한 테제》에서 사회주의 하에서의 농촌 문제의 내용과 그의 해결을 위한 길을 과학적으로 천명하였다. 테제는 우리 나라 사회주의 농촌 건설의 성과와 경험을 개괄하고 맑스-레닌주의를 창조적으로 적용하여 작성된 농촌 문제의 종국적 해결을 위한 강령적 문헌이다.

사회주의 하에서 농촌 문제는 그 이전 시기와 근본적으로 다르게 제기된다.

사회주의 혁명 단계까지는 농촌에서 생산 관계를 혁명적으로 개조하는 것이 중심 문제였지만 이 과업이 완성된 사회주의 하에서는 농촌에 수립된 사회주의 제도를 부단히 공고화하는 기초 우에서 도시와 농촌 간의 차이를 점차 없애는 것이 중심 문제로 된다.

《사회주의 하에서의 농민 문제와 농업 문제는 농촌에 수립된 사회주의 제도를 부단히 공고화하는 기초 우에서 농업 생산력을 고도로 발전시키고 농민들의 생활을 부유하게 하며 착취 사회가 남겨 놓은 농촌의 락후성을 퇴치하고 도시와 농촌 간의 차이를 점차적으로 없애는 데 있다》(김 일성).

사회주의 농촌 문제는 로동 계급의 령도를 강화하여 농민을 로동 계급화하고 공업의 방조를 강화하여 농업을 공업화하며, 국가적 소유의 지도적 역할을 높여 협동적 소유를 전 인민적 소유로 전환시키며, 도시의 지원을 강화하여 농촌을 도시의 수준에 끌어 올리는 문제이다.

사회주의 농촌 문제는 단순한 기술 경제적 문제가 아니다. 그것은 농촌 경리의 물질 기술적 토대를 강화하는 문제인 동시에 기술, 문화, 사상 등 농촌 생활의 모든 령역에서 낡은 사회의 유물을 청산하고 새것을 창조하는 사회 경제적 문제이며 혁명의 기본 동력을 튼튼히 꾸리고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을 촉진하는 정치적, 전략적 문제이다.

우리 당은 사회주의 농촌 문제의 본질로부터 출발하여 정치, 경제, 사상, 문화의 모든 분야에서 맑스-레닌주의적인 해결 대책을 세우고 실천하여 왔다. 당은 사회주의 농촌 건설에서 고귀한

경험과 실천을 쌓아 올렸다.

김 일성 동지는 이에 기초하여 사회주의 농촌 문제 해결의 기본 원칙을 다음과 같이 천명하였다:

《첫째로, 농촌에서 기술 혁명과 문화 혁명, 사상 혁명을 철저히 수행하여야 하며;

둘째로, 농민에 대한 로동 계급의 지도, 농업에 대한 공업의 방조, 농촌에 대한 도시의 지원을 백방으로 강화하여야 하며;

세째로, 농촌 경리에 대한 지도와 관리를 공업의 선진적인 기업 관리 수준에 부단히 접근시키며 전 인민적 소유와 협동적 소유의 련계를 강화하고 협동적 소유를 전 인민적 소유에 부단히 접근시켜야 한다》.

사회주의 농촌 문제 해결의 이 기본 원칙은 농촌에서 혁명을 부단히 전진시키고 끝까지 완수하며 모든 분야에 걸쳐 로동 계급의 령도적 역할을 높여야 한다는 맑스-레닌주의 원칙에서 출발하고 있다.

계속 혁명의 사상, 로동 계급의 령도적 역할을 높임으로써 농민들을 로동 계급화하는 사상, 이것이 김 일성 동지의 《우리 나라 사회주의 농촌 문제에 관한 테제》를 관통하고 있는 기본 사상이다.

2. 사회주의 농촌에서의 사상 혁명과 기술, 문화 혁명

우리 당은 사회주의 농촌 건설을 촉진하기 위하여 농촌에서 사상 혁명을 선행시키면서 이에 병행하여 기술 혁명, 문화 혁명을 힘 있게 추진시키는 원칙을 관철하고 있다.

사회주의가 승리한 이후 농촌에서 혁명을 강력히 추진시키는 방침은 우리 당의 철저한 계속 혁명의 립장을 구현하고 있다.

우리 당은 혁명 도상에서의 모든 승리와 성과를 혁명의 새로운 승리, 종국적 승리를 위한 토대로 삼으면서 농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혁명을 부단히 전진시켜 왔다.

협동화가 완성된 후 당의 임무는 도시와 농촌 간의 차이를 청산하고 농민들을 공산주의에로 이끌어 가기 위하여 혁명을 계속 추진하는 데 있다.

《만일 사회주의적 협동화가 실현되였다고 하여 혁명을 중단한다면 민주주의 혁명과 사회주의 혁명을 통하여 앙양된 농민들의 열성을 계속 견지할 수 없으며 그것을 더욱 높일 수 없다. 농촌에서 혁명을 계속하지 않고는 사회주의 농촌 경리 제도를 공고 발전시킬 수 없고 그 우월성을 발양시킬 수 없으며 도시와 농촌 간의 차이를 없앨 수 없다》(김 일성).

사회주의와 공산주의 건설을 위하여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도시와 농촌 간의 차이를 전면적으로 밝히며 특히 그의 근원을 해명하고 계속하여야 할 혁명의 내용을 정확히 규정하는 것이다.

김 일성 동지는 도시와 농촌 간의 차이를 도시에 비한 농촌의 기술, 문화, 사상적 락후성과 이로 인한 소유 관계 및 경제 관리 수준에서의 차이라고 해명하였으며 도시와 농촌 간의 차이를 없애기 위한 중심적인 혁명 과업을 기술, 문화, 사상 혁명으로 규정하였다.

착취 사회는 기술적으로 락후한 농촌 경리를 물려 주었으며 농민들의 사상 문화적 락후성을 가져 오게 하였다. 바로 이와 같은 락후성으로 하여 소유 관계와 경제 관리 수준에서의 차이, 로동 계급과 농민 간의 계급적 차이가 남아

있게 된다. 그러므로 이 차이를 없애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농촌에서 기술, 문화, 사상 혁명을 수행함으로써 그를 낳게 한 근원을 없애야 한다.

농촌에서의 기술, 문화, 사상 혁명은 각각 독자적 사명과 의의를 가지고 있으나 이것들은 호상 련관되여 있으며 서로 작용하는 통일적 관계에 놓여 있다.

그러므로 사회주의 농촌에서는 반드시 세 가지 혁명을 서로 밀접히 련결시켜 통일적 과정으로 수행하여야 한다. 기술, 문화 혁명에만 치우치고 사상 혁명을 소홀히 하거나 사상 혁명만 내세우고 기술, 문화 혁명에 관심을 적게 돌려서는 안 된다.

사상 혁명은 모든 사업에 선행시켜야 할 가장 중요하고도 어려운 혁명 과업이다.

협동화 이후에도 농촌에서 계급 투쟁은 계속된다. 사상 혁명을 선행하여야만 농촌에서 계속되는 계급 투쟁에서 승리할 수 있다. 농촌 계급 투쟁은 외부로부터 침입하는 적대 분자들과 전복된 착취 계급의 잔여 분자들의 파괴 책동을 격파하는 투쟁에서와 농민들의 의식 속에 남아 있는 낡은 사상 잔재를 반대하는 투쟁에서 표현된다. 농민들의 계급적 각성을 높이고 그들 속에서 사상 사업을 강화하여야만 사회주의 농촌을 철옹성 같이 수호할 수 있으며 그를 가일층 공고화할 수 있다.

사상 혁명을 선행하여야만 농민들의 정치 의식 수준을 높이고 근로자들이 동지적으로 협조하고 자각적으로 일하는 사회주의의 본질적 우월성을 남김 없이 발양시킬 수 있다.

농민들은 오래 동안 고립 분산된 소농경리 하에서 살아 왔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낡은 사상과 관습이 뿌리 깊이 남아 있게 된다. 이와 함께 농업에서는 공업과 달리 생물체를 다루며 로동은 분산적으로 진행되고 그 결과를 즉시에 정확히 판단할 수 없다. 농업은 기계화 수준이 낮으며 기계화하여도 손로동이 적지 않게 요구된다. 농촌 부락은 생산의 단위인 동시에 생활 단위이다. 농업 생산과 농민 생활의 이러한 특성은 농촌에서 사상 사업을 강화할 것을 더욱 긴절한 문제로 제기한다.

사회주의 농촌에서 사상 사업을 약화시킨다면 농민들 속에서 낡은 사상 잔재가 되살아 날 수 있으며 혁명의 시련을 겪지 못한 새 세대들의 계급적 각성이 해이될 수 있다.

우리 당은 농민들 속에서 항상 정치 사업을 모든 사업에 선행시켰으며 협동화를 시작하면서부터 계급 교양을 기본으로 하는 공산주의 교양을 강력히 진행하여 농민들의 사상에서 커다란 변혁을 가져 오게 하였다.

사회주의와 공산주의를 건설하는 것은 결국 기술과 문화를 발전시켜 전체 인민이 부유하고 문명한 생활을 누리게 하자는 것이다. 농촌에서 기술, 문화 혁명을 수행하지 않고서는 농업 생산력을 고도로 발전시킬 수 없고 농민들을 고된 로동에서 해방할 수 없으며 그들의 물질 문화 생활을 높일 수도 없다.

우리 당은 협동화를 실현하는 한편 곧 기술 혁명의 수행에 착수하였으며 문화 혁명을 일관하게 추진하여 왔다.

당은 농촌 기술 혁명의 수행에서 우리 나라의 구체적 실정으로부터 출발하여 수리화를 먼저 해결하면서 기계화, 전기화, 화학화를 다같이 힘 있게 전개하였다. 수재와 한재를 극복하고 농민들의 힘든 일을 덜어 주며 로동 생산 능률을 제고하고 높고 안전한 수확을 내자면 반드시 수리화, 기계화, 전기화, 화학화의 과업을 실현하여야 한다.

우리 나라의 농촌 기술 혁명은 사회주의 건설의 대고조 과정에서 특히 자립적 민족 경제의 토대가 축성되고 강화됨에 따라 본격적으로 전개되였으며 군중적 운동으로 비상히 빠른 속도로 추진되였다.

수리화의 력사적 과업은 이미 기본적으로 수행되였다. 전국이 관개망으로 뒤덮이고 자연 재해를 기본적으로 극복하게 되였으며 흉년을 모르는 공고한 생산 토대가 축성되였다.

기계화, 전기화, 화학화에서도 커다란 성과가 달성되였다. 1958년 협동화가 완성된 당시 우리 농촌에는 뜨락또르가 100 정보 당 0.14 대(15 마력 환산)였는데 1965년에는 그것이 1.03 대로 증가하였다. 우리 나라에서는 전체 농촌 리의 95.5%, 전체 농가 호수의 81%에 전기가 들어 갔다. 화학 비료의 정당 시비량도 체계적으로 장성하여 1964년에는 300 키로 그람에 달하였다.

문화 혁명 수행에서도 빛나는 성과가 달성되였다.

우리 농촌에서 젊은 세대들은 모두 7 년제까지의 일반 지식을 소유하고 있으며 농촌에 기술 학교가 광범히 설치되여 수 많은 청소년들이 기술 교육을 받고 있다. 우리 나라 협동 농장원 1,000 명 당 기술자, 전문가 수는 1965년에 17 명에 달하였다. 농민들의 일반 지식 수준과 기술 문화 수준은 급속히 높아지고 있으며 농촌마다 깨끗하고 활기 있고 살기 좋은 사회주의 문화 농촌으로 꾸며지고 있다.

농업 생산의 부단하고 급속한 장성과 협동 농장들의 정치 경제적 공고화, 농민들의 물질 문화 생활의 계통적인 향상과 그들의 정치적, 로력적 열성의 앙양—이것이 사회주의 농촌에서 계속 혁명을 위하여 투쟁하여 온 우리 당 정책의 위대한 결실이다.

3. 로동 계급의 당과 국가의 지도 방조는 농촌 문제의 종국적 해결을 위한 기본 조건

우리 당은 사회주의 농촌 문제를 성과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로동 계급의 령도적 역할을 확고히 보장하며 농민에 대한 로동 계급의 지원을 부단히 강화하는 원칙을 견지하고 있다.

선진적인 로동 계급이 농민을 적극 지도하며 발전된 공업이 농업을 방조하며 도시가 농촌을 백방으로 지원하는 것은 사회주의 농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기본 조건이다.

농민들을 도와서 공산주의까지 이끌고 가는 것은 로동 계급의 력사적 임무이다.

농민들은 협동화를 통하여 사회주의 길에 들어 설 때와 마찬가지로 오직 로동 계급의 령도와 적극적인 지원 하에서만 공산주의로 넘어 갈 수 있다.

협동화가 승리한 이후 로동자, 농민은 동일한 사회주의적 경제 토대 우에서 긴밀히 협조하고 방조하는 친선적인 두 계급으로서 다같이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의 중요한 일익을 담당하여 투쟁하는 사회주의 근로자들이다. 협동적 소유와 전 인민적 소유는 혈연적으로 련결되고 호상 의존하고 있는 사회주의적 소유의 두 형태이며 다같이 사

회주의 국가의 경제적 기초를 이루고 있다.

더우기 협동화된 이후 농촌 경리의 발전과 농민들의 생활에 대한 책임은 개별적 농민들로부터 로동 계급의 당과 국가에 옮겨졌다.

그러므로 로동 계급의 당과 국가는 로동자, 사무원들의 생활에 대하여서뿐만 아니라 농민들의 생활에 대하여서도, 국가적 소유 뿐만 아니라 협동적 소유의 발전에 대해서도 다같이 완전히 책임지고 돌보아야 한다.

농촌 경리를 공업과 같이 현대적인 기술적 토대 우에 올려 세우며 공업 발전에 농업을 따라 세우자면 인민 경제의 지도적 부문인 공업의 강력한 지원이 있어야 한다.

농업은 생산에 필요한 기계 설비를 자체로 생산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자연의 영향을 많이 받는 생산 부문으로서 급속히 발전하는 공업에 따라 세우기 힘들다. 농업 생산 자체의 특성으로 하여 농촌 경리를 전면적으로 기계화하기도 매우 힘들며 생산과 로력을 옳게 조직하고 계획화하는 등 농촌 경리를 과학적으로 관리 운영하는 것도 극히 어렵고 복잡한 문제로 된다.

이러한 형편에서 기술 발전에서나 관리 운영 수준 및 소유 면에서 농업을 공업의 수준에로 끌어 올리며 공업과 보조를 맞추어 계획적으로 힘 있게 전진하는 현대적인 생산 부문으로 강화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공업의 강력한 지원이 필수불가결한 것이다.

《사회주의 협동화가 완성된 후 농촌에서 기술 혁명, 문화 혁명, 사상 혁명을 강력히 추진시키며 도시와 농촌 간의 차이를 점차 없애기 위하여서는 농촌에 대한 당과 국가의 지도와 방조를 백방으로 강화하여야 하며 도시가 농촌을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김 일성).

사회주의 하에서 농촌 문제 해결의 성과 여부는 농민들에 대한 로동 계급의 령도와 농촌에 대한 국가의 지원 여하에 달려 있다.

공산주의자들은 사회주의 건설의 첫날부터 농촌에 대한 지도와 지원을 백방으로 강화하여 자본주의가 남겨 놓은 농촌의 락후성을 퇴치하고 도시와 농촌 간의 차이를 한 걸음 한 걸음 축소시켜 나가야 한다. 만일 공업의 위력이 강화된다 하여도 농촌 사업을 홀시하고 농민들을 적극 도와 주지 않는다면 도시와 농촌 간의 차이는 없어지지 않을 뿐더러 점점 더 커질 수 있다.

농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서는 무엇보다도 농촌을 홀시하는 낡은 사상, 공업만 발전시킨다면 모든 일이 다 되는듯이 생각하는 그릇된 관점을 결정적으로 없애야 한다.

우리 나라에서는 경지가 적을 뿐만 아니라 척박하며 농업 생산을 위한 자연 조건이 불리하여 식량을 비롯한 농산물에 대한 수요를 충족시키는 것이 매우 어려운 문제로 되고 있다. 그리고 논농사를 위주로 농촌 경리는 다각적으로 발전하고 집약화되여 있으며 골짜기와 포전마다 조건이 각이하다. 따라서 생산, 기술, 관리 등 모든 면에 걸쳐 로동 계급의 지원이 더욱 절실히 제기된다.

이로부터 우리 당은 협동화가 완성된 이후 로동 계급이 농민을 책임지고 도와 주며 모든 힘을 다하여 공업이 농업을 방조하고 도시가 농촌을 지원하는 방침을 관철하고 있다.

이것은 로동자와 농민을 다같이 공산주의 사회로 이끌어 가자는 철저한 군중 로선으로부터 출발한 혁명적 립장이며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의 합법

적적 요구를 반영한 과학적인 립장이다. 농촌을 지원하는 것은 결국 로동 계급 자체의 력량, 그의 계급적 지반을 강화하는 것이며 도시와 공업 자체를 발전시키기 위한 것이며 농민을 로동 계급화하는 과정을 촉진하는 것이다.

공업의 힘이 약할 때에는 불가피하지만 일단 힘이 조성된 후에는 결정적으로 농촌을 도와 주어야 한다.

우리 나라에서 공업의 기초 축성은 농촌에 대한 지원에서 새로운 전환점으로 되였다.

과거 락후한 농업 국가였던 우리 나라에서는 공업화를 위하여 농촌에서 일정한 자금을 얻지 않을 수 없었다.

그러나 공업화가 추진되고 중공업을 기본으로 하는 자립적 공업의 토대가 튼튼히 축성되였으며 강력한 로동 계급의 대부대를 가지게 된 후에는 공업이 농업을 지원하는 데로 방향을 돌렸으며 모든 분야에 걸쳐 농촌을 강력히 지원하는 데로 넘어 갔다.

우리는 농업에 대한 국가적 지원을 전면적으로 강화할 수 있는 자체의 위력한 공업을 가지고 있다. 1949년 공업 및 농업 총생산액에서 농업이 53%를 차지하였다면 이미 1960년에는 그것이 29%로 줄어 든 반면에 공업은 71%로 그 비중이 현저히 제고되였다.

농촌에 대한 지도와 지원은 어느 한 분야에만 국한될 수 없으며 모든 령역에 걸쳐 진행되여야 한다.

농민에 대한 정치 사상적 지도는 농민을 로동 계급화하며 계급적 차이를 제거하기 위한 필수적이며 선차적인 요구로 된다.

사회주의를 더 잘 건설하며 앞으로 공산주의를 실현하기 위하여서는 농민을 로동 계급화하여야 한다. 그러자면 농민에 대한 로동 계급의 정치 사상적 지도를 강화하여 농민을 로동 계급의 혁명성, 당성, 계급성으로 튼튼히 무장시키고 그들의 문화 수준을 높여야 한다.

당은 사회주의 근로자로 된 농민들을 로동 계급의 세계관, 공산주의 사상 의식으로 무장시키며 그들을 로동 계급화하기 위하여 정치 사상적 지도를 부단히 선행시켜 왔다.

농촌에 대한 정치 사상적 지도가 강화됨으로써 사회주의 농촌 진지가 일층 공고화되였으며 농민들은 당의 농촌 정책을 관철하기 위하여 자각적으로 투쟁하고 있다.

우리 당과 국가는 농촌에 대한 정치 사상적 지도를 부단히 강화하면서 모든 힘을 다하여 농촌을 물질적으로, 기술적으로, 문화적으로, 재정적으로 적극 도와 주고 있다.

나라의 경제적 위력이 강화됨에 따라 농촌 경리에 대한 국가의 물질 기술적 지원은 해마다 장성하였으며 최근 시기에 이르러 그것은 더욱 방대한 규모에 달하고 있다.

당은 뜨락또르, 자동차를 비롯한 농기계 및 화학 비료 생산 등 농촌 경리를 위하여 복무하는 공업 부문을 급속히 발전시키면서 농촌에 대한 투자를 부단히 증대시켰다.

1953년부터 1958년까지의 기간에 인민 경제에 대한 국가 기본 건설 투자 총액 중 9.2%가 농촌 경리 발전과 농촌 문화 건설에 돌려졌다면 1959년부터

1964년까지의 기간에 그것은 17.2%로 일층 제고되였다. 1964년 한 해 동안에 농촌에 대한 기본 투자액은 1953년부터 1958년까지 6 년 동안의 투자액과 대등하였다.

우리 당은 농촌에 대한 로력적 지원도 부단히 강화하여 왔다.

공업은 농업을 물질 기술적으로 지원하는 것이지만 공업 자체의 발전에 따라 부단히 장성하는 로력적 수요는 주로 농촌 로력에 의거하는 것이 일반적 현상이다.

그러나 농촌 경리가 집약화되고 기계화하기 힘들 뿐만 아니라 기계화하여도 상당한 로력이 소요되는 우리 나라 농촌의 구체적 현실에 비추어 당과 국가는 농촌에 대한 로력 지원을 계속 강화하고 있다.

로력 지원은 긴장된 농촌 로력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할 뿐만 아니라 간부들과 로동 계급 핵심 력량을 직접 농촌에 파견함으로써 농촌 진지를 공고히 하며 정치, 사상, 기술, 문화의 모든 면에 걸쳐 농촌 지원을 더욱 효과적으로 실현할 수 있게 하고 있다.

농민들의 수입을 체계적으로 증가시키며 로동자와 농민의 생활 수준을 고르게 향상시키는 것은 농촌 지원에서 해결하여야 할 중요한 과업이다.

당은 평지대 농민의 생활과 산간 지대 농민의 생활을 고르게 향상시키며 도시와 농촌 간의 생활 상 차이를 제거하기 위하여 모든 힘을 기울여 왔다.

농업 생산력을 급속히 발전시키는 한편 농업 현물세의 감면, 농산물 수매 가격의 인상, 농기계 작업료와 관개 사용료 및 농기구 가격의 인하, 농민에 대한 무상 치료 등을 통하여 그들의 부담을 체계적으로 덜어 주고 수입을 제고시켰다.

나라의 경제적 위력이 강화된 조건 하에서 당은 농업 현물세를 완전히 폐지하며 농촌의 모든 생산적 건설을 비롯하여 농촌 문화 주택, 각종 문화 시설 등 비생산적 건설에 이르기까지 국가의 부담으로 실시할 데 대한 중요한 조치를 취하였다. 이것은 농촌 경리를 가일층 발전시키며 협동 농장들을 공고히 하고 농민들의 물질 문화 생활을 급속히 향상시키는 데서 거대한 역할을 놀고 있다.

농촌 지원을 효과적으로 실현하자면 정치, 경제, 문화의 모든 전선에서 당과 국가의 통일적이며 종합적인 지도를 보장하여야 한다.

당은 우리 나라의 구체적 실정으로부터 출발하여 군을 농촌 사업을 통일적으로 장악하고 지도하는 지역적 단위와 거점으로 규정하였다.

《군은 농촌에서의 기술 혁명, 문화 혁명, 사상 혁명의 수행을 촉진하는 거점으로 되며 도시와 농촌을 련결시키고 농촌에 대한 도시의 정치, 경제, 문화적 지원을 실현하는 거점으로 된다》(김 일성).

이러한 거점이 있어야만 지역적으로 분산된 농촌에 대한 지도와 지원을 효과적으로 실현할 수 있으며 농촌 문제를 훌륭히 해결할 수 있다. 이로부터 당은 군의 역할을 높일 수 있도록 군을 목적 의식적으로 튼튼히 꾸렸으며 군 사업을 부단히 개선 강화하여 왔다.

사회주의 농촌 건설의 정치적 거점으로서의 군의 역할이 제고됨으로써 당의 의도와 정책이 농촌에 거침 없이 침투되고 있으며 군의 일'군들이 농민들 속에 들어 가 그들을 도와 주고 그들과 합심하여 당의 정책들을 훌륭히 관철하고 있다. 농민에 대한 로동 계급의 정치 사상적 영향은 더욱 강화되였다.

지방 산업 공장들이 군을 단위로 튼튼히 꾸려짐으로써 그것이 농촌을 위하여 더 잘 복무하게 되였으며 상품 공급 사업이 더욱 개선되고 도시와 농촌 간의 경제적 련계가 일층 심화 발전되고 있다.

군 소재지에 교육, 문화, 보건 시설이 갖추어지고 도시의 선진 문화가 농촌에 급속히 보급되고 있으며 농촌의 면모와 농민들의 생활이 개변되고 있다.

이와 같이 정치, 경제, 문화의 모든 분야에서 도시와 농촌을 련결시키는 거점인 군의 역할이 제고됨으로써 기술, 문화, 사상 혁명이 촉진되고 농촌 건설이 성과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최근 시기 당과 국가는 농촌에 대한 지도와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중요한 조치를 취하였다. 군당 위원회를 비롯하여 군급 기관들을 튼튼히 꾸렸으며 농촌 지도 사업을 더욱 성과적으로 실현할 수 있게 하였다. 수 많은 간부들이 지방에 파견되여 농업 생산과 농민들의 생활 향상을 위하여 적극 도와 주고 있으며 농촌 지원이 전 국가적, 전 사회적 운동으로 광범히 조직 전개되고 있다.

로동 계급의 지원, 공업의 방조를 전면적으로 강화할 데 대한 우리 당의 방침은 농촌 문제 해결에서 위대한 결실을 맺고 있다.

우리 나라의 현실은 사회주의가 승리하고 공업의 토대가 축성된 다음에는 로동 계급의 당과 국가가 모든 힘을 다하여 농촌을 전면적으로 지원하는 이것이 바로 사회주의의 길에 들어 선 농민에 대한 로동 계급의 옳은 립장과 태도이며 농민 문제, 농업 문제를 성과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가장 정당한 길이라는 것을 보여 주고 있다.

4. 협동 농장 관리 운영의 개선과 협동적 소유의 발전

우리 당은 사회주의 농촌 경리의 지도 관리를 개선하며 협동적 소유를 점차적으로 전 인민적 소유의 수준에 끌어 올리는 문제를 성과적으로 풀어 나가고 있다.

경제 관리 수준과 소유 관계에서의 공업과 농업 간의 차이를 없애는 것은 사회주의 농촌 문제의 종국적 해결을 위하여 매우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관리 운영 수준과 소유 관계에서의 공업과 농업 간의 차이를 없애기 위해서는 그를 낳게 한 농촌의 기술, 문화, 사상적 락후성을 청산하는 동시에 농촌에 대한 도시의 지원을 백방으로 강화하는 기초 우에서 경제 관리와 소유 문제 자체를 해결하는 옳은 방도를 찾아야 한다.

농촌의 기술, 문화, 사상적 락후성은 과거 사회로부터 물려 받은 력사적 유물로서 그것을 청산하여야 한다면 경제 관리와 소유 면에서의 차이는 사회주의 제도 하에서 새롭게 창조된 경제 관리 제도와 협동적 소유를 부단히 개선 완성하는 기초 우에서 해결되는 것이다.

협동 농장에 대한 지도 관리 문제를 옳게 해결하는 것은 매우 복잡하고 어려운 일이다. 우리 당은 맑스-레닌주의

원칙과 자체의 경험에 기초하여 이 문제를 풀기 위한 명확한 방향과 방도를 찾았다.

사회주의 농촌 경리에 대한 지도와 관리를 개선하는 기본 방향은 농업 협동 경리의 관리 운영 방법을 공업의 선진적인 기업 관리 방법에 접근시키는 데 있다.

이렇게 하자면 농업 협동 경리를 공업과 같은 선진적인 기업적 방법에 의하여 관리 운영하여야 한다.

<기술 지도의 강화, 모든 경영 활동의 가일층의 계획화와 조직화—바로 이것이 농업 협동 경리의 관리 운영을 개선하는 기본 방향이며 경제 관리에서의 공업에 비한 농업의 락후성을 퇴치하는 기본 방향이다>(김 일성).

김 일성 동지의 청산리 지도는 사회주의 농촌 경리에 대한 지도 관리를 개선 강화하는 데서 획기적인 전환의 계기로 되였다.

우리 당의 전통적인 혁명적 사업 방법, 당의 군중 로선을 사회주의 건설의 현실에 구현한 청산리 정신과 청산리 방법의 보급은 협동화된 농촌의 새 환경에 적응하게 농촌 지도 사업을 개편하게 하였다.

모든 지도 일'군들이 아래에 내려 가 농장의 사업을 직접 조직하며 도와 주게 됨으로써 생산 및 로력 조직의 개선, 사회주의 분배 원칙의 관철 등 협동 농장의 관리 운영에서 기본으로 되는 문제들이 잘 풀리게 되였으며 농장에 대한 당과 국가의 지도가 결정적으로 개선되였다.

청산리 지도 이후 농촌에서는 기술, 문화, 사상 혁명이 촉진되였으며 농촌에 대한 국가의 물질 기술적 지원이 급격히 증대되였다. 농촌 사업은 그 범위가 확대되고 복잡하여졌으며 농촌 경리 앞에는 훨씬 더 방대한 과업이 제기되였다.

협동 농장들의 기술 장비가 강화되였으며 생산이 더욱더 째여지게 된 조건에서 농촌 경리는 공업과 같은 선진적인 기업적 방법에 의하여서만 훌륭히 관리 운영될 수 있게 되였다.

이로부터 우리 당은 1962년 초에 종전의 농업 지도 체계를 근본적으로 개편하고 협동 농장들을 기업적 방법으로 지도 관리하는 전문적인 농업 지도 체계를 새로 내오는 조치를 취하였다.

우리 나라 농촌 경리 발전의 요구를 구현한 군 협동 농장 경영 위원회의 창설은 청산리 정신, 청산리 방법을 발전하는 우리 농촌의 현실에 맞게 더욱 심화 발전시킨 것이다.

경영 위원회는 협동 농장들을 직접 지도하는 기능과 국가의 물질 기술적 방조를 직접 실현하는 기능을 통일시킨 전문적인 농업 지도 기관이다.

군 협동 농장 경영 위원회가 나오게 됨으로써 농장에 대한 기술적 지도를 더욱 강화할 수 있게 되였으며 매개 지방의 실정에 맞게 생산을 조직하고 계획화할 수 있게 되였다.

경영 위원회의 지도 관리가 강화됨으로써 협동 농장들에서 민주주의가 발양되고 농촌 기술 혁명이 힘 있게 추진되게 되였으며 경리 운영 수준이 전반적으로 높아지고 있다.

특히 최근에 협동 농장들에서 작업반 우대제를 강화하면서 분조 도급제를 전반적으로 도입하게 된 것은 협동 농장들의 기업 관리 수준을 공업에 더욱더 접근시키며 농업 생산 관계를 개선 완성함에 있어서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분조 도급제는 농장원들의 자각적 열

성을 고도로 발양시키며 그들을 농업 생산과 기업 관리에 주인답게 참가하게 하였으며 사회주의 분배 원칙을 더 잘 관철하고 협동 농장의 모든 경영 활동을 더욱 과학적으로 관리 운영할 수 있게 하였다.

기업적 지도의 강화, 협동 농장들의 경영 활동의 개선은 협동적 소유를 발전시키고 더욱 완성하게 한다.

협동적 소유의 발전에서 전 인민적 소유와 협동적 소유 간의 호상 관계, 공업과 농업 간의 련계에 관한 문제를 옳게 해결하는 것이 중요하다.

우리 당은 공업과 농업 간의 직접적 생산적 련계를 강화하며 협동적 소유에 대한 전 인민적 소유의 지도적 역할을 높이는 방향에서 두 소유를 유기적으로 결합시키는 원칙을 견지하고 있다. 이것은 협동적 소유의 전 인민적 소유에로의 전환 과정을 촉진하는 정확한 길이다.

경영 위원회는 협동적 소유를 발전시키는 동시에 전 인민적 소유와 협동적 소유를 유기적으로 결합시키며 공업과 농업 간의 직접적인 생산적 련계를 더욱 강화하여 협동적 소유의 전 인민적 소유에로의 전환 과정을 촉진시킨다.

전 인민적 소유는 협동적 소유에 더 넓게 더 깊이 침투하게 되였으며 농민에 대한 로동 계급의 정치 사상적 영향이 강화되고 공업의 기계 기술, 선진적인 기업 관리와 생산 문화가 농촌 경리에 더 잘 보급되게 되였다.

농촌 경리에 직접 복무하는 국가 기업소들이 강화되고 그 역할이 높아짐에 따라 농업 생산에 참가하는 생산 수단에서 국가 수단이 차지하는 비중이 점차 증대되여 1964년에는 근 60%에 달하였다.

공업이 발전되고 전 인민적 소유에 속하는 현대적인 물질 기술적 수단들이 농업 생산에서 점차 압도적 비중을 차지하게 됨에 따라 협동적 소유의 전 인민적 소유에로의 점차적 전환 과정이 촉진될 것이다.

협동적 소유에 대한 전 인민적 소유의 지도적 역할을 부단히 강화함이 없이는 협동적 소유를 전 인민적 소유에 접근시킬 수 없다. 다른 한편 현실적 조건과 가능성을 타산함이 없이 협동적 소유를 조급히 전 인민적 소유에로 전환시킬 수도 없다.

우리의 경험은 군중 로선에 기초하여 협동 농장을 기업적 방법으로 지도 관리하며 협동적 소유에 대한 전 인민적 소유의 지도적 역할을 부단히 높이는 방향에서 두 소유를 유기적으로 결합시켜 나아가는 것이 소유 관계와 경제 관리 수준에서의 농촌의 락후성을 가장 순조롭고 빠르게 청산할 수 있는 길이라는 것을 보여 주었다.

* *

토지 개혁 후 20년 간에 우리는 농촌 문제 해결에서 거대한 성과를 달성하였다.

알곡 생산은 해방 전에 비하여 2배로 장성하고 목축업을 비롯한 농촌 경리의 기타 부문이 크게 발전하였으며 우리 나라에서 가장 어려운 문제의 하나였던 식량 문제는 기본적으로 해결되였다. 지난날 가난과 굶주림에 시달리던 우리 농민들이 오늘에 와서는 전반적으로 중농 또는 부유 중농 수준의 생활을 하게 되였다. 사회주의 근로자로

전변된 농민들의 사상 의식과 정치적 각성은 더욱 높아졌으며 그들 속에서 서로 돕고 이끌며 집단을 사랑하는 공산주의적 미풍이 확립되고 있다. 농촌의 면모도 몰라 보게 달라졌다.

농촌 문제 해결에서의 모든 승리와 성과들은 우리 당의 맑스-레닌주의적 령도에 의하여, 당의 로선과 정책을 관철하기 위한 우리 인민의 투쟁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다.

농민, 농업 문제를 성과적으로 해결하여 온 우리의 투쟁 경험은 무엇을 보여 주는가?

그것은 우선 농촌 문제를 성과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서는 주체를 철저히 확립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혁명 발전의 매 단계에서 우리 나라의 현실에 맞는 정확한 로선과 정책을 수립하고 실천한 이것이 농촌 문제를 승리적으로 해결할 수 있게 한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되였다. 우리는 자기 자신의 성과와 경험에 기초하여 새롭게 제기되는 사회주의 농촌 문제 해결의 옳은 방향을 찾았다.

우리의 경험은 또한 농촌 문제를 성과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서는 혁명을 계속 전진시키고 끝까지 수행하는 립장을 견지하여야 한다는 것을 보여 주고 있다.

우리 당은 계속 혁명의 립장을 견지하고 토지 개혁을 철저히 수행하면서 사회주의에로의 이행을 준비하였으며 농업 협동화가 완성되자 곧 기술, 문화, 사상 혁명을 전면적으로 제기하였다.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언제나 농촌이 혁명적 분위기로 들끓게 하였으며 농민 대중을 혁명과 건설을 위한 투쟁에 적극 인입할 수 있었다.

우리의 경험은 로동 계급의 당과 국가의 강력한 지도와 지원이 농촌 문제의 해결을 위한 결정적 담보이라는 것을 보여 주고 있다.

로동 계급의 령도적 역할을 백방으로 높이고 힘 자라는껏 농촌을 지원함으로써 우리는 그처럼 락후하던 농촌을 짧은 기간 내에 오늘과 같은 발전된 사회주의 농촌으로 추켜 세울 수 있었다.

농촌 문제를 성과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서는 계급 로선과 군중 로선을 밀접히 결합하여 관철하는것이 중요하다.

당은 매 혁명 단계에서 농촌의 계급적 력량 관계를 옳게 분석하고 그에 적응한 정확한 계급 정책을 실시하였다. 당은 극소수의 계급적 원쑤를 제외한 모든 농민들을 혁명의 편에 쟁취하였으며 반혁명 분자들의 반항을 분쇄하고 농촌 문제의 해결을 위한 투쟁을 광범한 농민 대중 자신의 투쟁으로 되게 하였다.

우리 인민은 당의 령도 하에 20 년 동안 농촌 문제 해결에서 위대한 성과를 달성하였다. 그러나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은 많으며 우리 앞에는 보다 어렵고 중대한 과업들이 남아 있다. 우리는 테제를 관철하기 위한 투쟁을 시작한 데 불과하다.

우리는 이미 얻은 성과를 더욱 공고 발전시키며 사회주의 농촌 건설을 촉진하기 위한 투쟁에 힘차게 달라붙어야 한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농촌에서 살림살이를 알뜰히 꾸리는 것이다. 이것은 현시기 농촌 경리를 가일층 공고 발전시키며 농민들의 생활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제기되는 선차적 과업이다.

우리는 귀중한 로력과 자재, 자금을 들여 농촌에 수 많은 기계 설비들을 생산 공급하였으며 방대한 생산 시설들과

문화 후생 시설들을 건설하여 놓았다.

우리는 이미 건설하여 놓은 관개 시설들과 창고들을 잘 관리하고 그를 효과적으로 리용하며 문화 주택들을 깨끗이 거두어야 한다.

이와 함께 농기계의 리용률을 높이며 물을 절약하고 땅을 알뜰히 거두며 하천 정리 사업을 잘 하고 도로, 교량, 산림 등 일체 우리의 귀중한 재산들을 잘 관리하여야 한다.

사회주의 농촌 건설을 촉진하기 위하여서는 농촌의 주인인 농민들 자신의 자각적 열성을 최대한으로 발양시켜야 한다.

모든 일'군들은 청산리 방법의 요구대로 농민 대중 속에 들어 가 정치 사업을 강화하고 그들을 성의껏 도와 주며 민주주의를 고도로 발양시킴으로써 모두가 단합되여 제기된 혁명 과업 수행에 적극 동원되도록 할 것이다.

이와 함께 농촌에서 로동 행정 사업을 개선하며 협동 농장들의 관리 운영 사업을 과학적 토대 우에 올려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 분조 도급제를 정확히 실시하며 사회주의 분배 원칙을 철저히 준수하며 농장의 경영 활동을 더욱 계획화하고 조직화하여야 한다.

농촌 기술 혁명은 사회주의 농촌 건설에서 우리 앞에 나서고 있는 가장 긴절한 혁명 과업이다. 우리는 현대적 농업 과학 기술을 적극 도입하는 동시에 장기간에 걸쳐 농촌에서 축적된 귀중한 영농 경험을 존중히 하고 광범히 보급하여야 한다. 특히 실천에 의하여 검증된 기술, 매 지방의 특성에 맞는 선진 영농 방법을 도입하고 발전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이러한 모든 과업을 성과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서는 당 위원회들의 령도적 역할을 높이며 농촌 사업에 대한 당'적 지도를 일층 강화하여야 한다. 특히 농민들 속에서 사상 교양 사업을 강화하여 그들을 향토와 조국을 열렬히 사랑하며 사회주의 제도를 고수하고 그것을 더욱 공고 발전시키기 위하여 모든 것을 다 바치는 고상한 사회주의 애국주의 사상으로 튼튼히 무장시켜야 한다.

농업 근로자 동맹, 사로청, 녀맹 단체들의 역할을 일층 높이며 전체 농촌 근로자들을 당 주위에 더욱 굳게 결속시켜 당이 제시한 기술, 문화, 사상 혁명의 성과적 수행을 위하여 전력을 다하도록 조직 동원하여야 한다.

오늘 전체 인민은 전국이 농촌을 적극 지원할 데 대한 당의 호소를 받들고 모든 힘을 기울여 농촌을 도와 나서고 있다.

농민들은 자기의 혁명 초소를 굳건히 지키며 당의 농업 정책 관철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투쟁하고 있다.

우리는 농촌 지원을 일층 강화하고 농민들의 창조적 열의를 더욱 높임으로써 금년에 반드시 알곡 정당 500 키로그람 증수 과제를 완수하여야 하며 농업 생산의 장성과 농민들의 생활 향상에서 새로운 전변을 가져 와야 할 것이다.

우리는 테제가 제시한 과업을 해결하기 위하여 완강히 투쟁하여야 하며 총국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하여 나아가야 한다.

당의 령도 밑에 사회주의 농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테제가 밝혀 준 길로 전진하는 우리 인민 앞에는 더욱 큰 승리가 있을 것이다.

농업 근로자들 속에서 주인된 자각과 태도를 배양하자

강 병 모

우리 당은 농촌 문제 해결에 계속 커다란 힘을 집중하고 있으며 농업 생산력의 발전과 농민들의 생활 향상을 위하여 모든 것을 아끼지 않고 있다.

당 중앙 위원회 제 4 기 제 12 차 전원 회의는 군 사업을 강화하고 나라의 살림살이를 알뜰히 꾸리며 전국이 농촌을 도울 데 대한 새로운 획기적인 조치를 취함으로써 테제의 실현과 농업 생산에서 일대 전환의 계기를 열어 놓았다.

우리 나라 농촌 경리의 물질 기술적 토대는 현대적 기계와 기술로 장비되고 농민들의 생활은 날로 향상되여 가고 있으며 사회주의 농촌의 면모는 더욱더 일신되여 가고 있다. 오늘 우리 나라 사회주의 농촌 건설의 전면적 촉진과 당이 제기한 혁명 과업은 농촌 건설의 직접적 담당자들이며 생산자 대중인 농업 근로자들의 혁명적 의식과 창조적 열성을 더욱 높일 것을 요구한다.

당의 농업 정책이 정확하고 전국이 농촌을 지원하며 농업 생산에 대한 일군들의 책임성이 높아지고 사업 태도와 방법이 달라지고 있는 유리한 조건에서 농촌 사업에서의 새로운 전진은 농촌의 주인인 농업 근로자들이 당의 농업 정책을 관철하며 농업 생산을 앙양시키기 위하여 얼마나 헌신적으로 투쟁하는가에 달려 있다. 이 문제는 농업 근로자들을 농촌의 주인으로서의 높은 자각과 태도를 가지도록 교양함으로써만 해결할 수 있다.

농업 근로자들을 나라와 협동 농장에 대한 주인다운 태도로 교양하는 것은 공고히 확립된 사회주의 농촌 경리 제도를 공고히 하고 그 우월성을 원만히 발양시킴에 있어서 중요한 문제로 된다.

농촌에 사회주의 협동 경리 제도가 확립됨으로써 우리 나라의 농민들은 착취와 억압에서 영원히 해방된 영예로운 사회주의적 근로자로 전변되였으며 나라와 농촌의 주인으로 되였다. 그러나 농민들의 사상 의식은 사회주의 농촌 경리 제도가 확립되였다고 하여 짧은 시일 내에 새 제도에 상응한 높이에까지 올라 서는 것은 아니다.

이것은 농민들에게 남아 있는 개인리기주의와 소소유자적 근성 등 오랜 뿌리를 가진 낡은 사상 잔재가 하루 이틀에 극복될 수 없다는 사정과 관련된다.

협동 경리의 생활을 통하여 우리 농민들의 사상 의식에서는 커다란 전변을 가져 왔으나 수세기에 걸쳐 물려 받은 낡은 사상 잔재가 그리 길지 않은 협동 생활 과정에서 완전히 극복될 수 없으며 또 그렇게 되리라고 기대할 수도 없다. 농민들 속에서 이러저러하게 나타나는 낡은 사상 잔재는 사회주의 생활 원칙인 집단에 대한 높은 자각과 책임성, 서로 돕고 협력하는 정신과는 량립될 수 없다.

농업 근로자들 속에서의 낡은 사상 잔재를 반대하는 투쟁은 나라와 농장에 대한 그들의 주인다운 자각과 태도를 높여 주며 사회주의 농촌 경리 제도에 상응하게 살며 일할 수 있게 하는 사업과 밀접히 결합되여 있다. 그러므로 농업 근로자들을 주인다운 태도로 교양하는 것은 사회주의 협동 경리 제도의 본질적 요구이며 나아가서는 공산주의적

집단 생활 원칙을 일상 행동과 생활에서 구현할 수 있게 하는 전제 조건으로 된다.

농업 근로자들을 주인다운 태도로 교양하는 것은 사회주의 농촌 경리 제도의 요구일 뿐 아니라 농업 생산 자체가 가지는 특수성과도 관련된다.

농업 로동은 집단적 로동이라 할지라도 공업에서와는 달리 넓은 지역을 대상으로 분산되여 소집단으로 일하고 있다. 또한 농업 생산은 복잡하고 다양한 생활 환경을 요구하는 생물체를 다루는 사업이다. 그런 까닭에 농업 생산은 불가피하게 자연과 기후 조건의 영향을 많이 받으면서 철을 다투게 된다. 뿐만 아니라 여기에서는 로동의 결과가 즉시에 나타나지 않으며 한 번의 실수 때문에 생산에서 입는 후과가 그 어느 부문보다도 크다.

이러한 농업의 특성과 조건들은 모든 영농 사업과 작물 관리에서 보다 신중하고 성실한 태도, 높은 자각성과 책임성을 요구하게 된다.

농업 근로자들 속에서의 주인다운 태도는 나라와 협동 농장의 살림살이를 알뜰히 꾸리며 농촌에 제기된 당면한 혁명 과업을 성과적으로 수행함에 있어서도 중요하게 제기된다.

오늘 협동 농장의 살림살이는 방대한 규모로 늘어 났다. 협동 농장들은 수백 정보의 토지와 현대적 농기계와 농기구를 비롯한 수 많은 물질 기술 수단들을 갖고 있으며 농사 뿐 아니라 상업, 보건 등 여러 사업을 맡아 보고 있다. 이미 마련된 농장의 생활 토대가 은을 내게 하기 위해서는 있는 것을 아껴 쓰고 정중히 다루며 적은 것으로써 더 생산하려는 알뜰한 살림'군의 태도가 요구된다.

지금 우리의 협동 농장들과 농업 근로자들 앞에는 농촌 기술 혁명을 계속 강력히 추진시켜 사회주의 농촌 경리의 물질 기술적 토대를 새로운 높이에 올려 세우며 알곡 정당 500 키로 그람 증수 운동을 전 군중적으로 밀고 나가야 할 무거운 임무가 맡겨져 있다.

한 사람의 관리 위원장이나 몇몇 관리 일'군들의 지혜와 힘, 적극성만으로써는 대단히 큰 협동 농장의 살림살이를 알뜰히 꾸려 나갈 수 없으며 기술 혁명도, 농업 생산도 힘 있게 발전시켜 나갈 수 없다. 모든 농업 근로자들이 주인다운 립장에서 협동 농장의 집단 생활에 적극 참가하여 살림살이를 착실하게 꾸리고 당의 농업 정책을 철저히 관철하기 위하여 애쓰며 자기의 창조력과 재능을 남김없이 발휘하는 여기에 바로 협동 경리를 발전시키고 농업 생산을 증대하는 결정적 담보가 있다.

협동 농장들에서 분조 도급제의 전반적 도입과 관련해서도 농업 근로자들을 주인다운 태도로 교양하는 문제가 절실하다.

분조 도급제의 도입은 우리 나라 협동 경리 발전의 현 단계에서 농업 로동의 특성과 농촌의 구체적 실정에 적응하게 농촌 로동 조직의 형태와 규모를 가장 합리적으로 해결하고 로동에 대한 평가 방법을 가일층 심화시킨 것으로서 농민들의 생산 의욕을 높여 주는 중요한 요인으로 되고 있다. 농민들의 이러한 생산 의욕은 그들이 혁명 과업 수행에 높은 열의를 가지고 자각적으로, 책임적으로 주인답게 나서도록 하는 교양 사업이 선행될 때 공고한 것으로, 지속적인 것으로 된다.

분조 성원들 속에 공동 경리와 집단에 대한 높은 자각적 열성을 가지고 나서는 주인다운 기풍이 부족하면 분조의 집체적 지혜와 집체적 력량을 농사'일에 효과적으로 동원할 수 없으며 따라서 분조 도급제의 우월성을 충분히 발양시킬 수도 없다. 모든 분조 성원들이 굳게 단합되여 소출을 더 많이 내기 위한 예비를 부단히 탐구 동원하고 농사'일을 제철에 실속 있게 해 나가며 분조와 작

업반, 농장의 관리 운영에 적극적으로 참가함으로써만 분조 도급제는 농업 생산력을 촉진하는 강력한 추동력으로서의 자기의 생활력을 전면적으로 발휘할 수 있다.

* *

농업 근로자들 속에서 나라와 농장에 대한 주인다운 태도를 배양하기 위하여 선차적으로 해결하여야 할 문제는 낡은 사상 잔재를 뿌리 뽑고 그들을 공산주의적 집단주의 사상으로 튼튼히 무장시키는 것이다. 집단주의 사상의 커다란 힘은 바로 개인의 리익과 사회적 리익, 국가의 리익을 호상 밀접히 결합시키며 사회의 모든 성원들이 굳게 뭉쳐 일하며 생활하는 공산주의적 정신에 기초하고 있는 데 있다. 농업 근로자들이 집단주의 사상의 이러한 본질적 요구를 옳게 파악하게 될 때 집단에 의거하여 생활하며 나라와 농장의 모든 재산을 아끼고 사랑하며 살림살이를 알뜰히 꾸리며 공동 로동에 성실하게 참가하며 동지 간에 서로 사랑하고 호상 협조하며 조직의 규률을 자각적으로 지키는 주인다운 태도가 나올 수 있다.

특히 농업 근로자들 속에서 《농장의 일이자 내 일, 농장의 재산이자 내 재산》이라는 정신을 갖도록 교양하는 것이 중요하다.

〈우리 사회에서는 전체 근로자들이 나라 살림살이의 진정한 주인이다. 근로자들이 나라의 살림살이를 주인답게, 알뜰하게 하면 나라를 부강하게 만들고 자기들의 생활을 높일 수 있으며 나라의 살림살이를 남의 일처럼 되는 대로 하면 나라를 부강하게 만들 수도 없고 자신들이 잘 살 수도 없다〉(김 일성).

우리의 농민들은 나라와 협동 농장의 주인이며 사회주의적 협동 경리에 자기의 생활적 기초를 두고 있다. 따라서 협동 농장의 경제 토대가 굳건해지고 재산이 늘어 나면 날수록 매 농장원들에게 차례지는 몫이 커지고 생활이 펴여 나가게 된다. 협동 농장의 집단적 리익을 떠나서 그 어느 농민의 개인적 리익이란 있을 수 없으며 결국 집단의 사업과 리익에 성실하지 않는다면 자기에게 손실과 불행을 가져 올 뿐이다.

농업 근로자들 속에서의 주인다운 태도는 무엇보다도 먼저 나라와 협동 농장의 공동 재산을 아끼고 사랑하며 협동 농장의 살림살이를 알뜰히 꾸려 나가는 데서 표현되여야 한다.

협동 농장의 재산들은 어느 개인의 재산인 것이 아니라 전체 농장원들의 공동 재산이며 우리의 전반적 협동 경리의 발전과 모든 농민들의 생활 향상을 위한 토대이며 대대로 물려 주어야 할 밑천이다. 그러므로 협동 농장의 공동 재산을 사랑하고 아끼고 잘 관리하는 것은 매개 농장원들의 고상한 의무로 된다.

공동 재산에 대한 주인다운 태도는 우선 땅을 사랑하고 잘 다루는 데서 나타나야 한다. 땅은 농업의 기본 생산수단으로서 농사의 운명은 바로 땅을 어떻게 사랑하고 잘 다루는가에 달려 있다. 농경지가 제한되여 있는 우리 나라의 실정에서 토지를 잘 보호 관리하고 백방으로 리용하는 것은 농촌 경리의 발전에 있어서 뿐 아니라 나라의 전반적 살림살이를 꾸려 나가고 인민 생활을 향상시킴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토지를 다루는 데서 현실적으로 나서는 문제는 해안 방조제를 더욱 튼튼히 쌓고 사방 야계 공사와 중소 하천 정리 사업을 빈틈 없이 진행하며 밭머리에 버드나무도 심고 배수로도 잘 째여 토지가 류실 매몰되거나 곡식이 피해를 받는 일이 없도록 하며 논풀이를 많이 하고 다락밭을 만들며 흙깔이 운동을 대대적으로 전개하여 토지를 부단히 개량해 나가는 것이다.

또한 기름진 땅에 함부로 건물을 짓

거나 쓸데없는 길을 내여 토지를 랑비하며 곡식을 심지 않고 공지를 남겨 놓는 등 땅을 아껴 쓸 줄 모르는 현상을 반대하여 강한 사상 투쟁을 전개하는 것이 중요하다.

오늘 우리의 협동 농장들에 협동화의 초기와는 달리 당과 국가의 배려에 의하여 수 많은 현대적 농기계들과 농업 생산 설비, 영농 기자재들이 공급되고 문화 주택들이 련이어 일떠서는 등 살림살이가 날을 따라 커지고 있는 조건하에서 중요하게 제기되는 것은 농민들이 공동 재산에 대하여 주인다운 태도를 가지는 문제이다.

우리 일'군들에게는 농업 근로자들 속에서 농업의 중요한 생산 수단이며 농장의 귀중한 재산들인 뜨락또르, 자동차, 탈곡기를 비롯한 농기계들과 저수지, 관개 수로, 양수장 등 관개 수리 시설들을 자기의 것처럼 잘 관리하고 파손되면 제때에 보수하여 쓰며 부림소와 소농기구를 잘 거두며 사랑하는 정신을 배양하도록 교양할 과업이 제기된다.

절약 투쟁은 농업 생산 장성의 중요한 예비이다. 농촌을 건설하고 농사를 지을 줄 알 뿐 아니라 땀을 흘려 생산한 농산물들과 모든 물자들을 아껴 쓸 줄 알아야 한다. 아무리 많이 생산하고 농기구와 비료 등 영농 기자재들을 산처럼 쌓아 놓는다 하더라도 다른 한쪽에서 망탕 써 버리거나 되는 대로 다룬다고 한다면 생산을 계속 높일 수 없으며 결국 협동 농장에도 농장원 개인들에게도 커다란 손실을 가져 오게 된다.

농기계와 농기구들을 한지에 내버려 두어 녹이 쓸고 못 쓰게 되여도, 비료와 농약이 바람에 날리고 비'물에 씻기여 내려 가도, 영농 자재와 물자들이 파손되고 부패 변질되여 가도 가슴 아파하지 않으며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게 되는 것은 나라와 농장 살림살이의 주인다운 태도가 아니며 이러한 태도는 우리의 사회주의적 협동 농민들의 집단 생활에서 응당 배격되여야 한다.

농촌의 모든 고리와 단위들에서 엄격한 절약 제도를 확립하고 랑비를 반대하여 대중적으로 투쟁하고 호상 통제하며 한 알의 낟알, 한 방울의 물, 한 그람의 연유, 자재와 자금, 로력을 극력 절약하고 그것을 더욱 합리적으로, 효과적으로 리용하기 위한 투쟁을 전 군중적 운동으로 전개하는 것이 특별히 중요하다.

농장의 진정한 주인으로서의 자각은 공동 재산에 대한 애호 정신 뿐 아니라 농장의 전반적인 사업과 생활에 대하여 일상적으로 관심하고 주인다운 립장에서서 모든 문제를 살피고 활동하는 데서 표현되여야 한다. 그래야만 대중적인 노력과 지혜에 의하여 농장의 기업 관리 운영을 개선할 수 있으며 농장의 부를 증대시키고 살림살이를 더 잘 꾸려 나갈 수 있다.

우리의 협동 경리 생활의 원칙은 어느 한 농장원이나 어느 한 분조, 작업반만 잘 살게 하자는 것이 아니라 모든 농장원, 모든 분조와 작업반이 다 잘 살게 하며 오늘만 잘 살 것이 아니라 래일은 더 잘 살며 대대손손 이어 가면서 부강 발전할 것을 요구한다. 그러므로 모든 농업 근로자들은 개인의 립장에서 문제를 보고 활동하거나 자기에게 맡겨진 일이나 충실히 하면 된다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분조장의 립장, 작업반장의 립장에서 모든 것을 살피고 일해야 하며 또한 모든 작업반장들은 관리 위원장의 립장에, 관리 위원장은 전체 농장원들과 인민의 립장에 서서 활동하여야 한다.

모든 농장원들이 자기가 할 임무는 무엇인가, 농장과 작업반, 분조에서 년중에 해야 한 일은 무엇인가, 농장에서 현금 수입은 얼마나 되며 쓴 돈은 얼마나 되는가, 관리 위원회의 활동에서 무엇이 잘 되고 무엇이 잘못되였는가 하는 것을 알아야 하며 잘 된 일에 대해서는 기뻐하고 잘못된 일에 대해서는

가슴 아파하면서 그것을 고치기에 애쓰며 자기가 할 일은 어김없이 하는 주인다운 태도를 가져야 할 것이다.

협동 농장의 주인으로서의 높은 자각과 태도는 또한 농장의 공동 로동에 적극적으로 참가하여 농사'일을 알뜰하고 실속 있게 하는 데서 표현되여야 한다.

우리 나라 농촌에서 기술 혁명이 강력히 추진되여 많은 농산 작업을 기계로 수행하게 되였으나 아직도 적지 않은 부분이 손로동에 의존하고 있다.

그러므로 농업 근로자들이 로동에 어떻게 성실히 참가하는가에 따라서 농업 생산의 성과가 크게 좌우된다.

농사 짓는 일은 농업 근로자들에게 맡겨진 기본 혁명 과업이다. 이 과업은 전체 농장원들이 당의 농업 정책을 정확히 파악하고 자기의 위치와 초소에서 농사를 더 잘 지으며 당면하여서는 매 정보마다 500 키로 그람의 알곡을 더 내기 위하여 이악하게 달라붙어 투쟁함으로써만 해결될 수 있다. 이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매개 농장원들이 농장과 작업반, 분조의 영농 계획과 자기가 할 임무를 언제나 똑똑히 알고 봄붙임과 모내기, 김매기, 가을걷이를 비롯한 농사'일을 제철에 착실히 하며 단순히 공수를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더 좋고 높은 결실을 얻기에 모든 정성을 쏟아 붓는 데 있다.

오늘 우리 농촌에서 장정 로력의 위치와 역할은 매우 크다. 농촌의 건장한 장정 로력들이 농장의 부차적인 부분에서 일하는 것을 수치로 생각하고 농산 작업의 어렵고 힘든 부분을 담당하여 한 몫씩 제껴 나갈 때 농사'일의 중요한 고리가 풀려 나갈 수 있다.

로동은 우리 농민들에게 보다 부유한 새 생활을 가져다 줄 뿐 아니라 그들의 사상 의식의 개조 과정을 촉진한다. 그러므로 로동은 농업 근로자들로 하여금 농장 일에 주인답게 참가하게 하는 훌륭한 학교로 된다. 사람들은 로동 과정을 통하여 《… **로동을 천시하며 일하기를 싫어 하는 착취 계급의 사상을 증오하며 일하지 않는 것을 아주 부끄러운 것으로 생각하며 로동을 신성하고 가장 영예로운 것으로 생각하며 로동하기를 즐기는 사람으로**》(김 일성, 《사회주의적 농촌 경리의 정확한 운영을 위하여》 33 페지)될 수 있다.

농업 근로자들은 로동이 가지는 이러한 특성을 정확히 파악하고 자기가 하는 농사'일에서 보람과 행복을 찾으면서 농장 사업에 성실히 참가하여야 하며 자신들을 유능하고 견실한 사회주의 농촌 건설자로 단련시켜 나가야 한다.

집단과 조직을 사랑하고 동지를 사랑하며 서로 협력하고 단결하는 것은 나라의 주인된 태도의 중요한 표징의 하나이다.

개별적 농장원들의 힘은 집단 생활의 조직된 힘에 의하여 하나로 굳게 단합될 때 위대한 힘을 나타내게 되며 사회주의 농촌 경리 제도의 우월성을 원만히 발양시킬 수 있다. 우리의 모든 농촌 집단들이 정치 사상적으로 뿐 아니라 동지적으로 서로 굳게 단합됨으로써만 사회주의 농촌 진지는 더욱 튼튼한 요새로 전변될 것이다. 농촌에서의 천리마 작업반 운동의 경험은 모두가 집단에 의거하여 서로 돕고 배우며 힘과 지혜를 합쳐 일하며 생활한다면 온갖 낡은 것을 짓부시고 농사도 더 잘 짓고 기술, 문화 혁명 과업도 훌륭히 실현할 수 있으며 인간 개조 사업도 성과적으로 수행해 나갈 수 있다는 것을 보여 준다. 농장 생활에서 항상 농장의 발전과 리익을 생각하며 동지를 사랑하며 집단 속에서 자기의 힘과 지혜와 정열을 더 높이 발휘하는 것이 나라와 농장의 주인된 립장이며 태도이다.

우리의 농업 근로자들은 자기 분조, 자기 작업반만 앞서려 할 것이 아니라 모든 농장원들과 협동 농장 전체를 앞선 수준으로 끌어 올리기 위하여 투쟁하며 나아가서는 자기의 군과 도를 생각하며 일상적인 활동을 전국의 공동 리익과 결부시킬 줄 알아야 한다. 태천군 농업 근로자들의 말기: 뒤떨어진 농

장을 앞선 농장의 수준으로, 뒤떨어진 작업반을 앞선 작업반의 수준으로, 뒤떨어진 분조를 앞선 분조의 수준으로 끌어 올리고 소출이 낮은 평을 소출이 높은 평으로 만들 데 대한 훌륭한 모범은 우리의 모든 농업 집단들이 본 받아야 할 본보기로 된다.

집단 내의 화목과 단결을 강화함에 있어서 큰 의의를 가지는 것은 각계 각층 군중들과의 사업을 강화하여 그들을 우리 당 주위에 튼튼히 묶어 세우는 것이다. 각계 각층 군중들과의 사업을 강화하는 데서 선차적으로 제기되는 문제는 늘 대중과 접촉하고 생활하는 초급 일'군들의 군중 관점과 태도를 바로 잡는 것이다. 농촌의 초급 일'군들은 각계 각층 군중을 단결시킬 데 대한 당의 방침을 옳게 인식하고 사회 정치 생활이 각이한 군중들을 아량 있게 포섭하고 따뜻하게 대하며 그들이 화목한 분위기 속에서 흥겹게 생활하고 힘껏 일하도록 일상적으로 관심하는 것이 필요하다.

사회주의 협동 경리 제도 하에서 새로운 집단적 규률의 준수는 협동 농장들을 공고화하는 기본 조건의 하나로 된다. 모든 협동 농민들이 농장의 기준 규약을 비롯한 모든 규정들과 규률을 자각적으로 준수하며 사업과 생활에서 언제나 농장의 의지와 목적에 복종하며 국가 및 사회 질서와 공중 도덕 생활에서 모범이 됨으로써만 협동 농장들을 조직 사상적으로 튼튼히 할 수 있다.

* *

농업 근로자들을 나라와 협동 농장에 대한 주인다운 태도로 교양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사업의 하나이다. 이것은 모든 농업 근로자들의 사상 의식을 협동 경리 제도의 급속한 발전에 따라 세우며 그들을 자각적인 사회주의 농촌 건설자로 육성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오직 꾸준하고 깊이 있는 사상 교양 사업을 통해서만 원만히 해결할 수 있다. 나라와 농장에 대한 주인다운 태도의 기초에 놓여 있는 것은 자기 제도, 자기 나라와 자기 인민에 대한 더 없는 사랑과 충성심이다. 자기의 향토와 마을을 사랑하고 자기의 부모 처자와 인민을 사랑하며 나라의 산천과 일목 일초를 사랑하는 애국주의 사상이 부족하다면 나라와 농장을 사랑할 수 없으며 집단의 사업에 충실할 수도 없다. 나라와 농장에 대한 주인다운 태도는 사회주의적 애국주의 사상의 중요 측면이며 표현이다.

그러므로 농업 근로자들 속에서 나라와 집단에 대한 주인다운 태도를 배양하기 위하여서는 사회주의적 애국주의 교양을 강화하여야 하며 그를 부단히 심화시켜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농업 근로자들을 오직 조국의 광복과 혁명의 승리를 위하여 모든 것을 다 바쳐 투쟁하였으며 동지와 집단을 위하여 자기의 목숨도 서슴없이 바친 항일 빨찌산들의 열렬한 애국주의 사상과 혁명 정신으로, 고귀한 집단주의 사상으로 무장시키며 당의 혁명 전통을 계승하여 해방 후 토지 개혁과 농업 협동화를 위한 투쟁, 사회주의 농촌 경리 제도를 공고화하는 투쟁에서 우리 농민들이 발휘한 애국적 투쟁 정신으로 옳게 교양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농업 근로자들을 자기 고장의 전통적인 우수한 영농 방법과 기술을 발전시켜 농업 생산을 높이고 향토를 꾸리는 사업에서 달성한 성과들로 교양하는 것이 요구된다.

농업 근로자들을 교양하는 힘 있는 방법은 긍정적 모범에 의한 감화 교양이다. 우리의 일'군들은 농업 근로자들 속에서 당의 농업 정책을 이악하게 관철하며 협동 농장의 살림살이를 알뜰히 꾸려 나가는 데서 훌륭한 모범을 보이고 있는 분조, 작업반, 농장들과 공동 재산의 관리와 집단 로동에 만 없이 충실하고 착실한 살림'군들을 찾아 내여 높이 내세우고 모두가 그것을 본 받고 따르도록 교양함으로써만 정치 사업에서

큰 성과를 거둘 수 있다.

나라와 집단에 대한 주인다운 태도는 우리 시대의 애국자들인 천리마 기수들의 사업과 생활에서 훌륭하게 표현되고 있다. 농촌에서의 천리마 작업반 운동은 집단적 생산 혁신과 인간 개조 사업을 유기적으로 결합시키고 있으며 그것이 대중 자신의 사업으로 되고 있다. 우리의 일'군들은 매개 천리마 기수들과의 사업을 강화하여 모두가 참된 공산주의자로 되게 하며 그들이 어느 때 어느 곳에서든지 조직 생활에 충실하고 나라와 집단의 살림살이에서 거울이 되며 뒤떨어진 사람들을 동지적으로 도와 주고 이끌어 작업반과 농장을 하나의 붉은 집단으로 꾸려 나가도록 하는 데 심중한 주목을 돌려야 할 것이다.

농업 근로자들에 대한 교양에서 농촌 당 조직들의 지도적 역할을 강화하며 특히 농업 근로자들의 혁명적 대중 단체인 농업 근로자 동맹의 역할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 농업 근로자 동맹 단체들은 당 조직들의 지도 하에 농촌에서 사상 혁명을 선행시킬 데 대한 원칙을 확고히 견지하고 농업 근로자들 속에서 사상 교양 사업을 진공적으로 밀고 나가며 특히 당원들과 사로청원들을 제외한 농근맹원들에 대한 교양 사업을 책임적으로 실속 있게 조직 진행하여야 한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형식주의를 극복하고 농촌에 제기된 경제 과업의 해결과 농장 살림살이에서 농업 근로자들의 주인다운 역할을 높이는 데 교양 사업의 주공을 돌리는 것이다.

분조 도급제의 전반적 도입으로 말미암아 분조는 농장의 기층 생산 단위이며 생활 단위로 되였다. 그러므로 우리의 일'군들은 분조에 일상적으로 내려가서 일하고 생활하며 실정을 옳게 료해 장악하고 분조 앞에 나선 구체적인 경제 과업, 분조 성원들의 일상적인 생활과 밀접히 결부시켜 교양 사업을 실속 있게 진행함으로써만 정치 사업의 성과를 기대할 수 있다. 특히 분조, 작업반, 농장의 관리 운영과 살림살이 형편을 보여 주는 실물 교양을 옳게 조직하여 농장원들의 자각을 더욱 높여 주며 그들의 실천 활동과 생활에서 나타나는 우수한 사실들을 제때에 사회적으로 높이 평가하는 것이 매우 효과적이다.

농업 근로자 동맹 단체들은 특히 많은 농사 경험을 가지고 있는 실농군들과의 사업을 강화하여 그들의 적극성과 영향력을 높이는 데에 깊은 관심을 돌려야 한다.

농근맹 일'군들은 오랜 실농군들의 농사 경험을 적극 장려해 주는 한편 새로운 영농 기술을 가르쳐 주어 그들이 농산 작업에서 핵심적 역할을 놀도록 백방으로 지도 방조하는 것이 필요하다.

우리의 농촌에는 오랜 농사 경험을 가진 농사'군들과 더불어 부단히 새로운 세대들이 농촌 건설을 맡아 나서고 있다. 이들의 투지와 열성은 대단히 높으나 농사 짓는 구체적 부문에 들어 가서는 걸리는 문제가 많다. 이러한 사정은 젊은이들에게 오랜 농사 경험과 새로운 농사 방법을 가르쳐 주어 그들이 어떤 농사'일이든지 막히는 일이 없이 해낼 수 있는 실농군으로 되도록 할 것을 요구한다. 이 요구는 오랜 농사'군들의 우수한 영농 경험에 새로운 과학적인 영농 기술을 안받침하여 그들을 통해서 농장의 젊은이들을 모두 착실한 농사'군으로 키워 나감으로써 성과적으로 해결될 수 있다.

농업 근로자 동맹 단체들과 그 일'군들은 한 개 단위씩 깊이 침투하여 농업 생산과 사상 생활에서 걸리고 있는 고리들을 풀고 모범을 창조하여 일반화하는 방법으로 사상 교양 사업을 부단히 심화시켜 나가야 한다.

일'군들이 모든 농업 근로자들을 나라와 집단에 대한 충실성의 정신으로, 사회주의 협동 경리의 참다운 주인으로, 근면하고 착실한 농촌의 살림'군으로 교양할 때 알곡 생산을 비롯한 모든 농업 생산 부분들에서 전환이 일어나고 협동 경리 제도가 더욱 공고 발전되며 전반적 사회주의 농촌 건설은 그 만큼 촉진되게 될 것이다.

농촌을 실속 있게 돕는 것은 로동 계급의 숭고한 임무

최 월 성

《우리 나라 사회주의 농촌 문제에 관한 테제》에서 김 일성 동지는 《농민에 대한 로동 계급의 지도, 농업에 대한 공업의 방조, 농촌에 대한 도시의 지원》을 사회주의 하에서의 농촌 문제 해결의 기본 원칙의 하나로 제시하였다.

이 원칙을 실현함에 있어서 로동 계급의 국가적 지원은 결정적 의의를 가진다. 우리의 국가 정권은 농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강력한 기술 부대와 물질-기술적 수단들을 틀어 쥐고 있다. 이 기술 부대와 수단들을 힘 있게 조직 동원하는 것은 사회주의 농촌 건설을 성과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믿음직한 담보로 된다.

로동 계급은 농촌을 돕는 데 있어서 국가적 지원을 기본으로, 결정적인 것으로 간주하지만 결코 이것으로 자기들의 사명을 다했다고 간주하지 않는다. 로동 계급은 자기들의 국가적 체계에 의한 지원에 직접적인 사회적 운동에 의한 지원을 안받침함으로써만 국가적 지원 자체도 더 위대한 생활력을 발양하게 할 수 있고 사회주의 농촌 문제 해결을 위한 원대한 설계도를 성과적으로 실현해 갈 수 있다. 테제에서 지적하고 있는 바와 같이 로동 계급은 농민들의 생산 조건, 생활 조건을 국가적으로만이 아니라 《전 사회적으로 보장하여 주도록 할 것》이며, 지방 공업 기업소들은 물론 《지방에 있는 중앙 공업 기업소들은 주변의 협동 농장들을 물질 기술적으로, 정치 사상적으로 적극 도와 주어야 한다》.

농촌을 돕기 위한 공장, 기업소들의 사회적 운동에 큰 의의를 부여하고 있는 테제의 이러한 정신에 비추어 볼 때 이것을 얼마나 실속 있게 구현하는가 하는 문제가 로동 계급 앞에 제기된다.

우리 개성 방직 공장 당 위원회는 테제 정신에 기초하여 농촌을 돕기 위한 로동 계급의 사회적 운동을 적극 추진시키면서 그것이 실제적으로 생활력을 발휘하도록 하는 데 커다란 힘을 기울였으며 그 행정에서 일정한 경험과 교훈을 얻게 되였다.

(1)

사회주의 농촌 건설을 얼마나 성과적으로 추진시키는가 하는 문제는 무엇보다도 먼저 농촌의 주인인 농민들 자신이 혁명 과업 수행에 얼마나 높은 혁명적 열의를 가지고 떨쳐 나서는가 하는 데 달려 있다. 로동 계급의 국가적 지원과 사회적 지원은 결국 농민들의 열의와 창발성을 농촌 건설에 힘 있게 동원할 수 있을 때에만 응당한 생활력을 나타낼 수 있다.

농촌 지원 사업은 단순한 기술-실무적인 사업으로 될 것이 아니라 우선 농민들의 혁명적 열의를 발양시키며 그들을 로동 계급의 혁명 사상으로 무장시키기 위한 정치-사상 사업으로 되지 않으면 안 된다.

우리 개성 방직 공장 당 위원회가 농촌 지원을 위한 사회적 운동을 강화하면서 우선적으로 주의를 돌린 것은 바로 이 문제이다. 더우기 방직 공장이란 쇠를 뽑거나 기계를 깎는 공장들과는 달라서 남들처럼 성능 높은 기술 설비들을 만들어 농촌에 대대적으로 공급

하기도 어렵고 또 녀성 로동자들이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조건에서 로력적으로도 남들처럼 자리가 푹푹 나게 도와 주기 어려운 형편에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비록 큰 방조는 못 주더라도 우리의 지성을 다하여 농민들이 그 지성에 감동되여서라도 사회주의 농촌 건설의 주인된 자각와 긍지를 높이여 농사에서 성과를 올리도록 하는 데 노력을 집중하였다. 《지성이면 감천》이라고 사실 이러한 우리의 노력이 농촌을 돕는 데 있어서 적으나마 열매를 맺게 한 출발점으로 되였다고 생각한다.

우리가 농촌을 돕기 위하여 틀어 쥐고 나가는 모든 대책들의 밑바닥에는 바로 이러한 사상이 놓여 있다: 말하자면 많이는 돕지 못 하더라도 실속 있게 도우며 하나를 돕더라도 똑똑히 돕자는 것이다.

우리는 우선 지원 대상 농장을 고정시키기로 하였다. 우리의 힘에 맞게 일정한 대상 농장에 지원을 집중하자는 것이였다.

우리는 작년 초에 덕적 협동 농장을 맡고 년말에 다시 자하 협동 농장을 하나 더 맡아 지원 대상 농장을 두 개로 고정시켰다.

지원 단위를 고정하고 우리 로동자들과 덕적리, 자하리 농장원들 간에 각종 형태로 련계를 강화하게 되자 그들 사이에는 점차 매 개인들에게 이르기까지 따뜻한 동지적, 인간적 관계가 이루어져 갔다. 로농 동맹이 생동한 형태로 깊이 들어 갔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 로동자들에게 있어서 덕적리, 자하리 농민들을 돕는 것은 가까운 벗을 위하는 뜨거운 심정의 표현으로 되게 되였다. 비'바람 몰아 치고 날씨가 변덕을 부릴 때면 그들은 벌써 덕적골에 대한 생각으로 잠을 못 이루었다. 지난 여름 장마철의 한밤 중에 덕적 농장의 저수지가 위험에 처하였다는 소식이 왔을 때였다. 로동자들은 그 누가 시킨 일도 아닌데 온통 자리를 차고 일어나 저마끔 농장으로 달릴 기세로 공장에 모여 들었다.

우리는 여기에서 **로농 동맹을 인간적 관계에까지 심화하는 것이 농촌에 대한 지원을 실속 있게 하기 위한 기본 바탕으로 된다**는 것을 깊이 깨닫게 되였다.

우리가 농촌을 실속 있게 돕기 위하여 끌고 나가는 중요한 문제의 하나는 이 사업을 **전망적이고 정상적인 사업으로** 진행하는 것이다.

테제에서 쓰고 있는 바와 같이 《농민들을 공산주의 사회까지 이끌고 가는 것은 공산주의자들과 로동 계급의 숭고한 임무》이다. 로동 계급은 농촌 돕기를 결코 일시적인 깜빠니야로가 아니라 전망적인 사업으로 정상화해 나가지 않으면 안 된다. 우리 공장의 로동 계급은 바로 이러한 립장에 서서 지원 대상 농장의 사업을 전망 계획을 가지고 년중 정상적으로 돌보아 주기에 힘쓰고 있다.

여기에는 필연적으로 **우리의 로력을 년중 농촌에 내보내는 문제**가 나선다. 이것을 어떻게 풀 것인가? 문제는 난하였으나 우리의 로동 계급은 **천리마 작업반 운동을 한층 발전시키는 사업을 통하여 이 문제 해결의 열'쇠를 찾고야** 말았다.

로동자들은 원래 남반부의 해방을 위한 애국 운동의 몫으로 남반부 애국자들을 작업반 성원으로 받아 들이고 있었는데 이 번에는 여기에 농촌 지원의 몫으로 또 한 명의 애국자를 받아 들이는 운동을 벌리였다. 그리 하여 그 애국자의 몫으로 매 작업반에서 한 사람씩 로력을 내여 윈 교대로 농촌에 파견하는 방법을 취하고 있다. 이것은 많지 않은 로력을 갖고 있는 작업반들에서 평균 두 사람 분의 생산을 더 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 만큼 매우 긴장된 투쟁을 요하는 과제로 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러므로 이 운동 행정에서 천리마 기수들이 로력 예비를 찾기 위한 기술 혁신 운동과 기술 기능 수준을 높이기 위한 투쟁이 한층 고조된 것은

당연한 귀결이였다.

로동자들은 더 나아가서 이러한 형태의 천리마 작업반 운동—자체의 생산 투쟁과 남반부의 해방을 위한 애국 운동, 농촌 지원 운동 이 3자를 하나로 결합시킨 운동—을 농장원들과의 경쟁 체결로써 농촌 천리마 작업반 운동과도 맞물려 놓고 있다. 이렇게 함으로써 그들은 농민들이 로동 계급의 귀중한 지원을 참으로 보람 있게 리용하도록 하는 데까지 농촌 지원 운동을 심화시키고 있다.

우리가 농촌을 잘 돕기 위하여 중요하게 끌고 나가는 사업은 또한 도시에 비한 농촌의 사상, 기술, 문화 수준에서의 차이와 소유 형태에서의 차이, 기업 관리 운영 수준에서의 차이를 극복하는 문제를 통일적으로 틀어 쥔 것이였다.

지난 시기 우리의 농촌 돕기 운동은 주로 로력적 측면과 물질-기술적 측면에 머물러 있었다. 우리의 로동 계급은 자기들의 실천적인 농촌 지원 운동에서와 레제를 깊이 연구하는 행정에서 농촌 지원이 참으로 큰 생활력을 나타내게 하자면 그것을 로력적, 물질-기술적 측면에서만이 아니라 도시에 비하여 뒤떨어진 모든 측면:사상 문화 분야에서, 소유 형태와 기업 관리 분야에서 전면적으로 실현하여야 한다는 것을 명백히 깨닫게 되였다. 그리 하여 그들은 종전의 일면적인 농촌 지원을 전면적인 지원에로 전환시켰다. 이것은 역시 덕적 농장에 대한 우리 로동자들의 지원이 크게 은을 나타내게 한 중요한 담보로 되였다.

공장 당 위원회는 지도 일'군들 속에서 농촌 지원 사업에 관심을 높이도록 하면서 그들이 농장 사업을 공장 사업의 일환으로 간주하도록 교양하는 데 커다란 의의를 부여하였다.

우리 공장에서는 점차 지원 대상 농장을 공장의 한 개 직장으로 여기게 되였다. 그리 하여 우선 공장 당 위원회가 농촌 지원 사업을 위원회적 사업으로 틀어 쥐였으며 공장 참모부와 공장의 모든 사회 단체 조직들이 역시 공장 사업과 더불어 농촌 지원 사업을 자체 사업의 한 부분으로 확고히 틀어 쥐고 나가게 되였다.

이러한 사업 조치들이 우리의 농촌 지원을 위한 사회적 운동을 일정한 성과에로 이끈 기본 요인들이였다고 말할 수 있다.

(2)

우리는 덕적 농장에 대한 지원 사업을 시작하는 첫날부터 **농장 당 조직의 사업을 도와 사상 혁명을 밀고 나가는 데 일차적 주의를** 돌리였다.

다 아는 바와 같이 사회주의 농촌 건설에서 사상 혁명은 모든 사업에 앞세워야 할 가장 중요하고 가장 어려운 사업이다. 이 사업을 우선적으로 도와 주는 것이 우리의 다른 모든 사업들의 방조에서도 훌륭한 결실을 가져 오게 할 것이였다.

공장 당 위원회는 농촌 사상 혁명을 도와 주기 위한 구체적 방도를 탐구하면서 농장원들 속에서도 우선 계급 교양과 사회주의적 애국주의 교양을 중요하게 끌고 나가도록 하였다. 그것은 현 시기 우리 당 사상 사업에서 중심적 요구로 되고 있다는 의미에서만이 아니라 구체적으로는 미제 침략자들에게 남편과 부모 처자들을 빼앗긴 사람들이 많은 이 곳의 실정, 미국놈과 맞서고 있는 분계선이 멀지 않은 곳에 있다는 이 농장의 실정으로 보아도 중요한 것이였다.

공장 당 위원회는 또한 이 곳 농민들의 사상 의식 수준을 타산한 기초 우에서 그것에 맞는 구체적 교양 방법들을 적용해 나가기에 힘 썼다. 우선 농장 당 조직에 철저히 의거하여 **농장원들의 계층별 특성을 구체적으로 료해하고** 거기에 맞는 사상 교양 방법을 적용하는 데 중요한 관심을 돌리였다. 청년들은 청

년들 속으로, 녀성들은 녀성들 속으로 들어 가게 하였으며; 거기에서도 또한 가정 별, 개인 별로 들어 가 농장원들의 정서와 심리, 희망에 맞게 교양하도록 하였다.

공장 당 위원회는 우선 덕적리의 장래를 걸머지고 나갈 청년들의 정신 세계를 깊이 료해하고 그들에 대한 교양을 방조하는 데로 달라붙었다. 일부 청년들이 도시로 갈 것만을 꿈꾸면서 고향 땅에 마음을 붙이지 않고 있는 것을 알게 된 우리 공장 당 위원회는 공장과 농장의 사로청 단체들을 발동하여 로농 청년 토론회를 조직하도록 하였다. 《로동당 시대 청년들의 참된 리상과 행복은 무엇인가?》, 《우리의 고향 마을을 살기 좋은 락원으로 꾸리자!》 등의 제목으로 진행된 토론회는 농장의 핵심 청년들과 특히 공장 로동 청년들의 열렬하고도 론리 정연한 토론으로 하여 모두가 이 사회주의 농촌, 혁명 선렬들의 피의 대'가로 얻어졌고 선조들이 그렇게도 바라마지 않던 착취 없고 압박 없는 이 땅에서 향토의 자유로운 주인으로 힘껏 일하는 것이 더 없는 행복이라는 것을 깊이 깨닫게 하였다.

공장 사로청 단체들에서는 또한 농촌 청년들을 공장에 데려다가 로동 청년들이 자기 조국의 미래를 위하여 어떻게 일하며 배우고 있는가를 보여 주기도 하고 농촌에 나가서 강연도 해 주었다.

공장 당 조직은 또한 녀성 농장원 비률이 높은 덕적 농장에서 녀성 교양 문제를 도와 주는 데 커다란 주목을 돌리였으며 여기에 공장 녀맹 단체를 적극 인입하였다.

공장 녀맹 단체에서는 농장에서 우선 뒤떨어진 녀성들과 과거에 사회 정치 생활이 복잡했던 녀성들 속에 깊이 들어 가 그들의 사상 생활을 구체적으로 알아 내는 데 큰 힘을 넣었다. 그리고 얻어진 자료에 근거하여 매 녀성들의 처지와 립장을 누구보다도 잘 알아 줄 수 있는 공장 녀성들로 교양 사업 그루빠를 조직하였다. 이 그루빠 성원들에게는 농장 녀성들의 교양을 위한 일정한 제마가 분공되였으며 그것이 준비되는 차제로 공장 자체에서 출연시켜 보고 농장에 내보내였다. 그리 하여 과거에 가난에 쪼들리거나 빚값에 팔리여 원한에 찬 눈물로 청춘 시절을 보낸 그런 녀성들이 많은 곳에는 처지가 미슷했던 녀동무를 내보내여 오늘의 행복과 사회주의 제도의 우월성에 대해서 이야기하게 하였고; 일시적 후퇴 시기에 미국놈들에 의하여 남편이 남으로 끌려 간 녀성들이 많은 곳에서는 남편을 미국놈들에게 빼앗긴 녀동무가 통일의 념원과 조국의 래일을 위한 투쟁에 대해서 이야기하도록 하였다.

이렇게 되자 이 곳 녀성들은 자기들의 심정을 그렇게도 속속들이 꿰뚫고 이야기해 주는 데 깊이 감동되여 흉금을 터놓고 자기들이 이 때까지 농장의 사업과 생활에서 있는 힘과 지혜를 다 바치지 못한 것을 탓하였으며 혁명의 전진을 위하여 더 열성적으로 일해야 되겠다는 것을 다짐하여 나섰다.

공장 당 위원회와 직맹 단체에서는 로동자들의 투쟁 모습과 생산 성과를 편지를 통하여, 공장 신문과 교환 방송을 통하여 계속 전달해 주고 있으며 농장원들을 계통적으로 데려다가 공장 구경도 시키고 로동자들의 일솜씨도 보여 주는 사업을 조직하고 있다. 이것은 농장원들에게 로동 계급의 혁명성, 조직성, 규률성을 보여 주는 데 있어서 커다란 작용을 놀고 있다.

우리는 이 행정을 통하여 로동 계급이 농촌 사상 혁명을 적극 방조해 주는 것이 로동 계급 자체의 사상 개조를 위하여서도 매우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는 것을 체험하게 되였다.

공장의 당 조직과 사회 단체들은 농촌에 나가는 로동자들에게 무엇보다도 로동 계급이 농민을 공산주의에로까지 이끌어 주어야 한다는 계급이라는 것을 옳게 깨우쳐 주면서 령도 계급으로서 농촌을 힘껏 지원하고 방조하는 것은 숭고한 임무로 된다는 것을 잘 알며

주었다. 공장 로동자들은 령도 계급이라는 립장에 서서 농촌에 나가게 되자 모든 점에서 각오를 새로이 하게 되였으며; 농촌 현실에 나가서는 더욱더 자신들이 령도 계급으로서 부족점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자신들을 사상적으로 단련하기에 더 힘쓰게 되였다.

결과에 특히 지난 시기 사상 수양이 부족하였던 로동자들: 례컨대 우리 공장에서 적지 않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초중 졸업생, 기술 학교 졸업생들 가운데서 뚜렷한 정신적 변화가 일어 났다. 사회 생활 경험이 적고 간고한 시련을 겪어 본 일이 거의 없는 이들에게는 사상적으로 미숙한 점이 많았으며 학생 생활 기분이 농후하였다. 그런데 이들이 지난 한 해 동안에 몹시도 달라진 것이다. 어딘가 모르게 의젓해지고 궁리가 깊어졌으며 더우기 농촌에 나갔을 때에는 모든 면에서 농장원들의 본보기가 되기에 무등 애쓰는 것을 볼 수 있게 되였다. 결과에 이런 어린 로동자들이 제일 많고 따라서 일이 잘 풀리지 않았던 방적 직장에서 지난해 3.4 분기부터는 생산이 완전히 정상화되는 기쁜 일이 생기였다. 사람들 속에서의 사상적 변화는 생산에서의 변화를 통하여 물질적으로 표현되였다.

이러한 경험을 통하여 우리 공장 당 위원회가 얻게 된 귀중한 교훈의 하나는 **로동 계급의 교양 문제는 그들을 공장 생산 행정에서만이 아니라 농촌 사업에도 적극 인입하여 실제적으로 이 사회의 령도 계급으로서의 역할을 수행케 하는 행정을 통해서만 효과 있게 풀 수 있다**는 사실이다.

우리는 농촌 사상 혁명의 방조에 선차성을 부여함으로써 농촌 지원 사업 전반을 성과적으로 진행해 나갈 수 있었으며 그것이 큰 생활력을 발휘하도록 할 수 있었다.

(3)

우리 공장에서는 공장 당 위원회의 지도 밑에 더적 농장의 사상 사업을 돕는 데 선차적 의의를 부여하면서 기술적 지원을 동시에 강력히 추진시켜 농업 생산력을 고도로 발전시키며 농민들의 생활을 유족하게 하며 그들을 고된 로동에서 해방할 데 대한 테제의 요구를 관철하기 위한 사업을 힘 있게 밀고 나가고 있다.

농촌에 대한 기술적 지원을 실속 있게 진행하기 위하여서는 우선 지원 대상 농장의 기술 실태를 료해하는 것이 필요하였으며 그것이 반드시 첫 공정으로 되여야 하였다.

공장 당 위원회는 공무 동력 직장과 기술부의 준비된 일'군들을 농장에 파견하여 농장에서 가지고 있는 기술 수단들과 기술 력량을 조사 장악하고 그 가동 정형을 료해하게 하였다. 료해된 자료에 의하면 농장에 복무해 주고 있는 뜨락또르들을 비롯하여 자체의 많은 달구지들과 축력 제초기, 탈곡기, 사료 분쇄기, 호리 그리고 양수기, 전동기, 변압기와 기타 세재기, 정미소 등이 있었고 농장적으로 수명의 기사와 기수가 있었다. 이것은 물론 적지 않은 힘이였다. 과거 호미와 낫, 보습만 가지고 낡은 방법으로 농사 짓던 때를 생각하면 그야말로 놀라운 힘이며 재부인 것이다.

그런데 이 귀중한 기술 수단과 력량은 농업 생산에 충분히 복무하지 못하고 있었다. 우선 적지 않은 기계들은 부속품 몇 개가 없어서 돌아 가지 못 하였고 돌아 가는 경우에도 다루는 사람들의 기술 부족으로 하여 자체의 성능을 다 나타내지 못 하는 형편이였다. 여기에는 물론 기술에 대한 일'군들의 신비성과 무관심성도 일부 작용하였다.

농장의 이러한 약한 고리들을 풀어 주는 데 있어서 기술적 지원의 단계를 설정할 데 대한 공장 당 위원회와 관계

자들의 협의회의 결정은 중요한 조치로 되였다.

기술적 지원의 단계를 설정함에 있어서는 우리 나라 사회주의 농촌 문제에 관한 김 일성 동지의 테제가 제시한 기술 혁명의 과업을 덕적 협동 농장의 실정에 맞게 실현하도록 하는 데 관심을 돌리였다.

그리 하여 기술적 지원의 첫 단계에서는 농장원들에게 평균 2~3 개씩의 호미와 낫을 비롯한 소농기구들이 차례지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으며; 다음에는 농장적으로 필요한 부속품을 자체로 깎아 쓰며 농기계를 제때에 보수할 수 있는 수리 분조를 꾸려 주도록 하였다.

다음 단계는 앞으로 2~3 년 동안을 기간으로 하여 매개 작업반의 기술 장비를 튼튼히 꾸려 주면서 점차 농장의 기계화, 전기화, 수리화, 화학화를 전면적으로 지원하는 데로 나아가는 것이였다.

지난 1 년 간에는 첫 단계의 과업을 실현하면서 특히 농장 수리 분조를 꾸려 주는 데 힘을 집중하였다. 이리 하여 수리 분조는 《로농호》 선반 1 대를 비롯하여 볼반, 용접기, 구라인다와 2 조의 단조 도구 등 기계 설비와 도구로 훌륭히 꾸려졌다. 우리는 또한 수리 분조를 책임지고 운영해 나갈 수 있는 기술 인'군들도 키워 주었다.

우리 공장의 로동 계급이 덕적 농장에 대한 기술적 지원을 줌에 있어서 수리 분조를 꾸린 것은 중요한 의의를 가지였다. 그것은 농장이 가지고 있는 모든 기술 수단들을 제때에 보수하여 정상적으로 움직일 수 있게 함으로써 막대한 로력 예비를 얻어 내게 한 것이며, 농장원들이 기계 기술과 기능을 배우고 익힐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여 준 것이다.

농민들의 생활을 향상시키는 것은 테제가 제시한 중요한 당면 문제의 하나이다.

우리 공장 로동자들은 이 고리를 푸는 데도 공장의 물질-기술적 지원이 옳게 돌려지도록 응당한 주목을 돌리였다.

덕적골에는 축산업을 발전시킬 수 있는 사료 원천이 많으며 수천 마리의 오리를 기를 수 있는 저수지도 있고 기름을 짤 수 있는 산열매들이 도처에 널려 있다. 이것을 옳게 리용하기만 한다면 농민들의 생활 향상을 위한 밑천을 훌륭히 마련하여 줄 수 있었다.

우리 공장의 로동자, 기술자들은 덕적의 농장원들과 함께 돼지, 토끼 등 가축 사육 문제와 부업 생산을 증대시키기 위한 대책을 강구하고 조직 사업을 뒤따라 세웠다. 그리 하여 사철 사료를 생산할 수 있는 종합 사료 공장을 세울 것을 설계하고 이미 종합 사료 분쇄기와 혼합기를 만들어 놓았으며 한편 인공 부화기와 기름틀 등을 만들어 오리 사육과 기름 생산을 위한 기술적 토대를 마련하여 주었다.

이와 같이 로동 계급의 기술적 지원이 농장원들의 생활과 직접 련관 속에 진행됨으로써 농장원들은 공장 로동 계급의 지원에 감동되여 농사'일에 열성을 내게 되였으며 한편 로동자들은 자기들이 하는 사업에 더욱 보람을 느끼고 힘껏 동원되게 되였다.

공장 당 위원회는 이러한 경험에 기초하면서 유능한 기술 력량을 동원하여 농장의 기술적 장비를 더욱 강화하며 농장원들의 힘든 로동을 덜어 주기 위한 사업도 적극 추진시키고 있다.

공무 동력 직장의 전문 기술 집단은 정미 공장을 기술적으로 완전히 개조해 줌으로써 출미률을 18%나 더 높이였으며 비료뿌림틀을 포함한 새로운 농기계를 창안하는 데 성공하였다. 또한 설비 수리 직장 동무들은 1,500여 메터의 구간에 이동식 삭도를 놓아 농장원들의 운반 작업을 헐하게 해 주는 데서도 일정한 성과를 거두었다.

우리 공장이 농촌에 대한 기술적 지원에서 중요하게 끌고 나가는 문제의 하나는 자력 갱생의 혁명 정신으로 농촌 지원 자재와 로력 예비를 얻어 내고

있는 것이다.

선반을 비롯하여 크고 작은 기계들과 수 많은 농기구들을 만드는 데는 실로 막대한 자재와 로력이 요구되였다. 공장 당 조직과 직맹에서는 로동자 대중과 광범한 토의 밑에 자재는 사회적 운동으로, 로력은 기술 혁신으로 해결하는 원칙을 내세우고 그 실머리를 하나 하나 풀어 나가고 있다.

《농촌 지원 창고 운동》을 발기한 공무 동력 직장의 로동자, 기술자들은 시내외의 곳곳을 다니면서 수십 톤의 파철을 얻어 내였고 시내 공장, 기업소들에 수소문하여 다른 데서 필요되는 부속품을 깎아 주고 대신에 요구되는 중요 부분품과 부속품들을 받아 오는 등 노력을 아끼지 않았다.

한편 공장에서는 기술 혁신·운동을 강력히 추진하여 지난해에 로동자들 속에서 제기된 500여 건의 창의 고안 중에서 463 건을 생산에 도입하였다. 이리하여 여기에서만도 수만 공수의 로력 예비를 얻어 냄으로써 농촌에 대한 지원을 성과적으로 해낼 수 있었다.

오늘 우리 로동자들이 농촌 지원을 위한 대중적 기술 혁신 운동을 추진시키면서 중요하게 부족점으로 느끼고 있는 것은 농업 과학 기술과 농기계에 대한 지식이 거의 없다는 사실이다. 이로부터 로동자들은 농촌에 대한 기술적 지원을 전면적으로 주기 위하여 부문 별 농업 과학 및 기술 연구 소조를 조직할 것을 발기하고 그 준비 사업을 추진시키고 있다.

(4)

농촌에서의 사상 혁명, 기술 혁명은 문화 혁명을 어떻게 추진시키는가 하는 문제와 밀접히 련결되여 있다.

우리 공장의 로동 계급은 덕직 농장에 나가서 사상 혁명, 기술 혁명과 더불어 문화 혁명을 도와 주는 행정에서 이 3자를 통일적으로 틀어 쥐고 나갈 데 대한 테제 지신의 정당성을 실천적으로 체험하였다. 사상 사업 분야에서 례컨대: 계급 교양을 깊이 있게 하기 위하여 과거 사회와 오늘 사회의 본질적 차이, 사회주의 제도의 우월성, 제국주의의 반동성 등을 알려 주자고 하니 로동자들 자신도 론리적으로 해설하기가 어려웠지만 더우기 농민들이 새겨 듣기 어려워 하였다. 이것은 바로 농민들에게 그것을 받아 들임 만한 일반 지식의 밑천이 적기 때문이라는 것을 말하여 준다. 기술 혁명의 측면에서도 사정은 마찬가지였다. 농민들 속에서 기술 술어들과 기술의 원리들을 알려 주는 사업은 매우 어려웠다. 우리 로동자들의 평균 지식 수준은 초중 졸업 정도를 넘는 데 비하여 덕적, 자하 농장원들의 평균 지식 수준은 인민 학교 졸업 정도에 불과한 것이다. 또 그들은 우리 공장 로동자들과는 달리 현대적 도시 문화와 접촉할 기회를 많이 갖고 있지 못하다. 이러한 것들은 문화 수준 상, 생활 상에서 현저한 차이라고 말할 수 있다. 사상 혁명, 기술 혁명을 심화시켜 들어 가려면 이러한 문화 분야에서의 차이를 메우는 문제가 반드시 동시에 풀리지 않으면 안 된다.

여기에서 우리 공장 당 위원회가 취하게 된 조치는 우선 가장 초보적인 생활 문화부터 고쳐 주기로 한 것이였다.

수상 동지는 각지의 공장, 기업소들을 현지 지도하는 행정에서 로동자들의 주택 마을에 들릴 때마다 로동자들은 생활을 문화 위생적으로 꾸리는 면에서도 령도 계급으로서의 모범을 보여 주어야 한다고 항상 강조하였다. 우리는 이 교시 대로 로동자들의 가정을 알뜰히 꾸리도록 지도하면서 이것을 실지 농민들에게 보여 주는 기회들을 수차 조직하였다. 로동자들은 농장원들을 자기들의 집에 데려다가 같이 먹고 자고 하면서 가정을 안뜰하게 꾸리고 생활을 치밀하게 조직하는 것을 실천을 통하여 구체적으로 보고 느낄 수 있도록 도와 주

었다. 이런 과정에서 농민들은 로동자들의 깐깐하고 문화적인 살림살이에 감복하여 자신들도 생활을 개변해야 되겠다고 다짐하여 나서게 되였다.

덕적 농장에서는 가정의 모든 주부들과 아들에 못지 않게 또한 남정들이 살림을 꾸리는 데 떨쳐 나섰다. 우리의 로동 녀성들이 또한 여기에 힘을 합쳐 주었다. 매 가정은 별로 큰 노력을 들임이 없이 면모를 일신하였다.

이에 고무되고 자신을 얻은 농민들은 모든 분야에서 문화성을 높이며 문화 혁명을 수행하는 데 높은 혁명적 열의를 가지고 달라붙게 되였다. 가장 초보적이고 큰 힘이 들지 않는 분야부터 문화적으로 개조해 줌으로써 우선 농민들을 문화 혁명에 적극 나서도록 하며 고 한 우리의 타산은 그 대로 적중하였다.

생활 문화에서 개변을 일으키고 그것을 습관화하도록 하면서 농민들의 일반 지식 수준과 기술 수준을 높이는 데로 이끌어 가는 것이 농촌 문화 혁명의 성과적 수행을 위하여 가장 중요한 문제로 된다.

덕적 농장원들의 일반 지식 수준 제고를 방조하도록 책임을 진 공장 직맹 위원회에서는 로동자들의 학습 지도에서 경험이 많은 동무를 덕적리에 내보내여 근로자 중학교 교원들을 방조하면서 자기의 경험을 그들에게 넘겨 주게 하였다. 그 후 덕적리에서는 근로자 중학교 교원들과 유치원 교양원들이 서로 돕고 통제하면서 농장원들의 학습을 실속 있게 이끌어 나가고 있다. 또한 공무 동력 직장 청년 천리마 작업반에서는 매 사로청원들이 자기들과 경쟁을 무은 덕적 농장 구암 작업반의 사로청원들과 농장원들을 한 사람씩 맡아서 자기들의 수준에 이끌어 올리는 운동을 벌리고 있다.

공장 병원에서는 농장 진료소 일'군들과 초소장들의 수준과 역할 제고에 방조를 주고 있다. 공장 병원에서 파견된 순의는 농장 진료소 일'군들과 위생 초소장들을 도와 농장원들에 대한 전반적인 검진 사업을 마치고 공장 병원, 시 중앙 병원과의 련계 밑에 그들에 대한 치료 예방 사업을 계획적으로 방조해 주고 있다.

공장의 유치원, 탁아소에서도 그들 대로 농장의 유치원, 탁아소에 나가서 그곳 교양원과 보육원들에게 어린이들에 대한 선진적인 영양 관리법과 교양 방법을 가르쳐 주고 있다. 그리고 한편 가르쳐 준 것을 실천에서 익혀 주기 위하여 자신들이 일정한 기간 농장의 유치원, 탁아소에 나가서 일하고 농장의 교양원, 보육원들을 공장의 유치원과 탁아소에 데려다가 가르쳐 주는 등 방법을 배합하고 있다.

공장에서는 이 밖에도 또한 덕적 농장원들이 살림을 문화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필요한 물질적 조건을 갖추어 주는 데도 응당한 주의를 돌리고 있다. 지난 한 해 동안에만도 공장에서는 덕적 농장의 리발소에 개방식 보이라를 놓아 주었으며 수질이 나쁜 마을의 주민들을 위하여 십여 대의 뽐프 수도를 만들어다가 우선 2 대를 설치해 주었다. 아직 전기가 들어 가지 않았던 일부 가정들에는 새로 전기를 놓아 주었으며 모든 집들을 문화 주택으로 개조해 줄 계획을 추진시키면서 지난해에는 우선 문화 후생 시설들을 비롯한 공공 건물들과 30여 간의 농장원 주택을 도시의 것에 못지 않게 꾸리였다.

또한 농장원들의 일상적인 교양의 마당으로 되는 당 력사 연구실, 선전실 등도 훌륭히 꾸려 주었다.

농촌의 문화 혁명을 도와 주면서 우리가 얻고 있는 중요한 교훈의 하나는 이 분야에서도 사상, 기술 혁명 분야에서와 마찬가지로 로동 계급이 령도 계급으로서의 역할을 옳게 수행하려면 자체를 철저히 무장해야 한다는 문제이다. 일반 지식 수준, 기술 수준을 매우 높이고 생활 문화와 도덕 문화 분야에서도 수준을 한결 높여 농촌에 나가서 살며 행동하게 되는 매 걸음마다에서 농

민들에게 현대 문명인으로서의, 전면적으로 발전해 가는 공산주의적 인간으로서의 풍모를 유감 없이 보여 주는 것이 요구된다.

이렇게 함으로써만 로동 계급은 농촌 문화 혁명 수행에 농민들을 더 성과적으로 이끌어 붙일 수 있으며 우리의 농촌을 훌륭한 사회주의 문화 농촌으로 건설할 수 있다.

(5)

덕적골의 농민들은 다른 농민들과 마찬가지로 력사적으로 적은 땅떼기에서 주먹구구로 일하여 왔다. 그들이 과거 개인농으로 있을 때, 땅이 적고 기술 수단도 거의 없고 살림살이가 크지 않았을 때에는 주먹구구로 일하여도 별로 문제될 것이 없었다. 그러나 오늘 집단화된 사회주의 농장, 현대적 기술로 나날이 장비되여 가고 있는 덕적의 사회주의 경리를 주먹구구식으로는 도저히 운영해 나갈 수 없다. 사회주의 농촌 경리 제도의 우월성을 높이 발양시키기 위해서는 반드시 과학-기술적으로 농장을 관리 운영해 나가야 한다.

그러나 이 곳 관리 일'군들과 농민들은 자기들의 경리를 아직 과학-기술적으로 관리 운영하는 법을 잘 모르며 또 이것에 대해서 관심도 부족하다. 때문에 그들은 군 경영 위원회의 기업적 지도를 잘 받아 물지 못 하고 있다. 이것은 물론 그들의 과거 생활 습성이 가져다 준 낡은 타성이며 극복되지 않으면 안 될 현상이다.

우리는 덕적 농장과 자하 농장을 도와 줌에 있어서 관리 일'군들의 이러한 부족점을 극복해 주는 데도 높은 책임감을 가지고 대하고 있다.

여기에서 우리가 틀어 쥐고 나가는 중요한 문제는 군 협동 농장 경영 위원회의 기업적 지도가 생활력을 잘 발양하도록 농장 전반의 기업 관리를 정상적으로 돌보아 주되 특히 금년에는 분조 도급제를 옳게 도입하도록 도와 주는 것이며; 여기에서도 또한 한 개 단위에서 모범을 창조하고 일반화하는 것이다. 이것은 농민들에게 기업적 지도 방법의 우월성을 비교적 헐하게 깨닫게 해 줄 수 있고 기업 관리 문제에 깊은 관심을 갖도록 자극해 줌으로써 실천적 의의를 가진다.

우리 공장에서 이 사업을 직접 책임지고 나간 행정 부지배인 동무는 우선 작업반과 분조의 년간 생산 계획을 세밀하게 세우는 것을 방조하는 데 1차적 주목을 돌리였다. 그것은 바로 계획 작성이 기업 관리의 중요한 출발점으로 되기 때문이다. 그는 덕적 농장 관리 위원회와 작업반들, 분조들의 지난해 농산 사업을 이모저모 종합 분석 료해하는 한편 특히 시범 작업반으로 선정된 7 작업반에서의 현 물질-기술적 상태와 보장 대책 등을 하나하나 따져 가면서 금년도 농산 계획을 같이 세워 주고 있다. 이 곳 농장원들이 새해에 보다 현실적인 계획을 가지고 투쟁 목표를 확신하면서 일하게 된 것은 커다란 성과의 하나일 것이다.

다른 부문에서와 마찬가지로 농사'일에서도 경영 활동은 그 전반이 밀접히 련관되여 있는 만큼 계획 작성과 더불어 반드시 생산 조직, 토지와 농기계 및 관개 시설의 리용, 로력 조직, 자재 보장, 생산물의 분배, 재정 관리 등 협동 농장의 모든 경영 활동을 전면적으로 료해하고 농민들과 함께 조직하며 그 실천을 도와 주는 것이 요구된다.

우리 공장에서는 덕적 농장과 자하 농장의 이러한 기업 관리 전반을 정상적으로 돌보아 주기에 힘쓰면서 특히 기술 관리를 도와 주기에 노력하고 있다. 다 아는 바와 같이 농촌 경리의 발전을 위하여 중심 문제로 되는 것은 기술의 역할을 백방으로 높이는 것이다.

덕적 농장도 과거에 비할 수 없이 굉장한 물질-기술적 수단들을 가지고 있

오며 또 국가 소유의 현대적 기술 수단들이 농산 작업에 직접 복무하고 있다. 그러나 이 수단들을 실지 관리 운영해 본 경험이 거의 없기 때문에 그 생활력을 옳게 발양시키지 못하고 있다. 우리 공장에서 덕적 농장에 만들어 준 물질-기술적 수단들도 로동자들이 직접 돌보아 줄 때에는 패 돌아가다가도 돌어 오고 나면 가동률이 쑥 떨어지는 현상을 볼 수 있었다. 우리는 사실 지난 기간에 있어서는 농촌에 대한 기술적 지원이란 그저 기술 수단이나 만들어 주면 되는 문제로 간주하였다. 그런데 막상 그 문제를 해결하고 보니 이 번에는 기계를 돌릴 사람이 없었으며, 기능자를 양성해 놓고 나니 이 번에는 또 관리 일'군들이 기술 수단들을 유익하게 써 먹을 줄 몰랐고 더 아프게는 기술 관리에 대해서 관심이 부족한 것이 문제였다.

여기에서 우리가 얻게 된 교훈은 로동 계급이 농촌에 기술 수단을 만들어 주는 것으로써 농촌 기술 혁명을 다 도와 주었다고 만세 부를 것이 아니라 그 관리 운영 문제를 풀어 주는 데까지 책임지고 나아가야 한다는 그것이였다. 그리 하여 지금 공장에서는 공무 동력 직장의 유능한 기술자를 농장에 파견하여 현지에서 기능 전습 사업을 조직하도록 하는 한편 농장의 관리 일'군들을 공장에 데려다가 일정한 기간 기업 관리 방법을 가르쳐 줄 조치도 생각하고 있다.

우리가 농촌의 기업 관리 문제를 도와 주면서 중요한 관심을 돌린 문제의 하나는 이 사업에서 군중 로선을 관철하도록 하는 것이였다. 사회주의 농촌의 기업 관리 문제는 결코 몇몇 인'군들의 판단과 재능만으로써 해결될 수 없다. 협동화된 농촌의 방대한 살림살이는 대중의 지혜에 철저히 의거함으로써만 옳게 관리 운영해 나갈 수 있다. 덕적 농장에서 계획 토의와 작성에 농민 군중을 적극 참가시킴으로써 많은 생산적 예비와 절약 예비들을 찾아 내였고 농민들의 창발성과 기업 관리에 대한 인식을 새로이 하고 관심을 높이게 한 것은 우리에게 귀중한 경험으로 되였다.

농장의 기업 관리를 이처럼 잘 도와 주려면 이것을 공장의 기업 관리의 한 부분으로 밀접히 련결시켜 놓는 문제가 반드시 제기된다. 공장의 기본 사명은 역시 공업 생산인 조건에서 이것을 공장의 기업 관리에 잘 맞물려 놓지 않는다면 아무래도 소홀하게 대할 수 있으며 계통성과 체계성을 보장하지 못하고 일시적인 깜빠니야 사업으로 그치고 말 수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덕적 농장과 자하 농장을 우리 공장의 한 개 직장으로 여기고 참모 회의 때마다 그 기업 관리에 관심을 돌리고 농장의 기업 활동을 도와 주도록 하고 있다.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협동 농장이 군 경영 위원회의 기업적 지도를 효과 있게 받아 들도록 노력하고 있다.

*　　*

우리는 농촌을 돕기 위한 로동 계급의 사회적 운동을 심화시키면서 이 운동이 커다란 의의를 가진다는 것을 깨닫게 되였다.

그것은 우선 이 운동이 로농 동맹을 강화 발전시킴에 있어서 커다란 의의를 가진다는 사실이다. 오늘 우리 공장 로동자들은 덕저리와 자하리에 사랑하는 가족들이라도 남겨 둔 것처럼 언제나 그 곳의 생산과 생활 형편에 대해서 걱정하고 돌보아 주기에 힘쓰며; 또 농장원들은 농장원들 대로 우리 공장 로동자들을 믿고 따르며 그들의 정성 담긴 도움을 어떻게든지 값 있게 쓰려고 애쓰며, 자기들로서도 로동자들을 도울 수 있는 데까지 도우려고 노력하고 있다. 로농 동맹은 인간 관계에로까지 파고 들면서 농민을 로동 계급화하며 두 형제 계급을 하나로 합류시키고 있다.

다음으로 우리는 농촌을 사회적 운동으로 실속 있게 돕는 것이 로동 계급의

국가적 지원의 생활력을 높이 발양시키는 중요한 방도로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되였다. 우리가 더직 농장에 꾸려 준 수리 분조는 농장에 복무해 주고 있는 국가의 물질-기술적 수단이 정상적으로 가동하도록 하는 데 크게 이바지하고 있다. 또 우리가 농민들에게 기술에 대한 옳은 인식과 기술 지식을 주기에 노력하고 있는 것도 국가의 물질-기술적 수단의 위력을 높이게 해 주는 중요한 요인으로 되고 있다.

다음으로 우리는 농촌을 돕기 위한 로동 계급의 사회적 운동을 심화시키면서 우리 로동자들이 농민에 대한 령도 계급으로서 응당 놀아야 할 역할과 위치를 똑똑히 깨닫게 되였으며 로동자들이 농민을 일상적으로 도와 주는 형식과 방법을 찾는 데서 일정한 경험을 가지게 되였다. 지난 기간에는 주로 우리가 공장 생산을 통하여 도시에만이 아니라 농촌에까지 봉사함으로써 자기들의 임무를 수행한 셈이였다. 이것은 물론 로동 계급의 국가적 체계에 의한 지원 형태의 구성 부분으로서 령도 계급으로서의 사명을 수행하는 기본 형태로 될 것만은 틀림 없다. 그러나 농민을 공산주의 사회에로까지 책임지고 이끌어 주어야 할 로동 계급의 력사적 사명으로부터 출발하여 볼 때 이것만으로써는 부족한 것이다. 우리는 령도 계급으로서의 로동 계급의 사명을 다하려면 농촌을 직접 사회적 운동으로 모든 분야에 걸쳐 정상적으로 돕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절실히 깨닫게 되였다. 이것은 물론 테제에 명시되여 있는 정신이지만 우리는 실천 속에서만 그 참뜻을 명백히 파악하게 된 것이다.

끝으로 우리 로동 계급이 농촌을 직접 도와 주는 사회적 운동은 농장의 발전을 위해서 절실한 문제로 될 뿐 아니라 공장 사업 자체 발전을 위해서도 매우 큰 의의를 가지는 사업으로 된다는 것이다. 솔직히 말해서 우리는 지난 기간 농촌 돕기를 적지 않게 부담으로 간주하고 있었다. 그런데 우리가 농촌 돕기 운동을 심화해 들어 가면서부터는 어느 사이엔가 이 그릇된 견해를 깡그리 잊어 버리게 되였다는 사실이다. 그것은 바로 이 운동을 통하여 우리 사업 자체에서 더 기세가 오르고 능률이 올랐다는 사정과 관련된다. 사실 우리는 지난해에 종전의 어느 해보다도 농촌을 실속 있게 도우면서도 년간 계획을 례년에 비하여 더 성과적으로 12월 8일 현재 증산 목표까지도 포함하여 100.3%로 초과 수행하는 성과를 올린 것이다.

이러한 경험을 통하여 우리 공장 당 위원회는 농촌을 돕기 위한 로동 계급의 사회적 운동을 앞으로도 계속 힘차게 끌고 나감으로써 김 일성 동지께서 밝혀 준 테제의 사상을 실현하기 위하여 백방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하고 있다.

(필자는 개성 방직 공장 당 위원회 위원장임)

로동과 휴식의 결합

강 재 영

1

7개년 인민 경제 계획의 완수와 나라의 살림살이를 알뜰히 꾸리기 위한 전체 근로자들의 긴장된 로력 투쟁이 전개되고 있는 오늘 매개 부문, 매개 단위의 일'군들 앞에는 전반적인 관리 운영 수준을 높이는 동시에 근로자들의 로동과 휴식을 합리적으로 결합시키기 위한 조직 사업도 훌륭히 진행하여야 할 임무가 나서고 있다.

근로자들의 로동과 휴식을 결합시키는 것은 대중의 로력적 열성과 창조적 지혜를 더욱 계발하고 그것을 물질적인 결과로 전환시키기 위한 조직 사업의 하나이다.

우리 당은 해방 후 로동 법령으로 근로자들의 로동과 휴식의 법적 권리를 공고화하였을 뿐 아니라 사람들의 매일매일의 생활에서 그것을 완전히 향유할 수 있는 온갖 조건을 보장하였다. 특히 당은 로동과 휴식을 밀접히 결합시키는 원칙을 사회적 로동 조직 령역에서 철저히 관철시키는 데 커다란 관심을 돌려 왔다. 인민 경제 각 부문에 따라 로동 시간의 길이를 합리적으로 설정하고 그 집행에서 강한 규률을 세우며, 교대 조직과 각종 작업 중 휴식 조직을 매개 부문, 단위의 실정에 맞게 더욱더 완성하며, 근로자들의 휴가 조직을 정확히 진행하며, 온갖 휴식 조건을 더 훌륭히 마련하여 주는 등은 근로자들의 로동과 휴식을 합리적으로 결합시키기 위하여 우리 당이 일관하게 견지하여 온 방침이다.

인민 경제 모든 부문에서 관리 조직과 로력 조직이 째여지고 대중의 로력적 열성이 부단히 앙양되는 우리의 현실은 당의 이 방침을 더욱 철저히 관철시킬 것을 요구하고 있다.

지도 일'군들이 매개 근로자들의 로동 과정뿐 아니라 생활의 모든 측면 특히는 문화적인 휴식과 학습, 정서 생활에 대하여서까지 깊은 관심을 돌리는 것은 생산자 대중의 높은 열의를 생산과 건설에 훌륭히 조직 동원하기 위한 튼튼한 담보이다. 근로자들의 로력적 열성의 앙양에 면밀한 조직 사업을 따라 세우며 대중의 생활의 구석구석에까지 깊은 관심을 돌리는 것은 오늘 모든 관리, 지도 일'군들의 의무로 되는 것이다.

근로자들의 로동과 휴식을 밀접히 결합시키기 위하여 지금 우리 당이 가장 중요하게 내세우고 있는 문제는 인민 경제 매개 부문에서 해당 부문의 구체적 실정에 맞게 로력 조직 형태를 더욱더 개선하는 것이다.

인민 경제의 매개 부문들은 자체의 고유한 생산 기술적 특성들을 가지고 있으며 로동의 기술적 조건도 동일하지 않다. 야금 공업 부문을 비롯하여 각종 공업로를 기본으로 하는 련속적 생산 부문도 있고 채굴 공업과 같이 주로 지하 막장에서 로동이 진행되는 부문도 있으며 농업과 같이 계절성을 띠는 생산 부문도 있다. 또한 어로 부문은 련일 바다 우에서 작업한다는 특성을 가진다…이러한 각이한 특성을 가진 부문들에서 생산의 정상적 발전을 보장하면서 근로자들의 로동과 휴식을 밀접히

결합하자면 반드시 매개 부문마다에서 그에 상응한 합리적인 로력 조직 형태를 찾아 내고 교대 조직과 구체적 생산 조직을 해당 부문의 특성에 맞게 면밀히 진행하여야 하는 것이다.

우리 당은 이미 인민 경제 각 부문에서 로동과 휴식을 잘 결합시킬 수 있는 로력 조직의 구체적 형태를 도입하도록 필요한 모든 조건들을 보장하여 주었다. 당은 일련의 부문들에 교대 로력을 따로 주고 대휴 제도를 실시하며 매개 부문에서 매 교대 당 작업 시간의 길이를 균등하게 배정하도록 하는 조치를 취하였으며 각 부문에서 합리적인 로력 조직 형태를 도입하는 원칙적 방도들도 제시하였다.

당이 취한 이러한 모든 조치들에 의거하여 매개 부문, 매개 단위들에서 로동 조직을 잘 하면 생산과 생활, 로동과 휴식을 합리적으로 결합할 수 있는 더욱더 훌륭한 로동 조직 형태들을 찾아 낼 수 있다는 것을 실천은 보여 주고 있다. 그 대표적 실례가 채굴 공업 부문에 도입되고 있는 《업간 휴식 작업 방법》이다. 채굴 공업 부문은 지하 막장에서 주로 작업이 진행되며 준비 작업과 기본 작업이 순차성을 띠면서도 한 장소에서 진행된다. 이 작업 방법은 이러한 특성을 고려하여 작업을 전문화하고 교대를 빈틈 없이 조직함으로써 근로자들의 휴식을 훌륭히 보장하면서 동시에 로동 생산 능률을 급속히 높일 수 있게 하는 구체적 로력 조직 형태이다. 또한 농업 부문에서 분조 도급제를 실시하는 경험도 생산의 특성에 맞게 로력 조직의 구체적 단위를 합리적으로 설정하는 것이 근로자들의 로동과 휴식을 더 잘 결합시키는 데서 얼마나 큰 의의를 가지는가 하는 것을 보여 주고 있다. 우리 당이 근로자들의 로동과 휴식을 결합시키기 위하여 매개 부문의 기술적 장비 수준을 제고하여 근로자들의 로동을 더 헐하게 하는 문제와 함께 로력 조직 형태를 개선하는 문제에 커다란 관심을 돌리고 있는 리유가 여기에 있다.

오늘 로동과 휴식을 합리적으로 결합시킴에 있어서 또한 중요한 것은 로동 행정 사업의 모든 고리에서 규률과 질서를 강화할 데 대한 당의 방침을 관철하는 것이다.

로동 규률을 강화할 데 대한 당의 요구는 로동에 대한 일'군들의 자각성을 높이고 제정된 로동 시간을 최대한 효과적으로 리용할 뿐 아니라 규정된 작업 마감 시간, 휴식 시간들을 엄수하고 시간 외 로동을 없애며 근로자들의 정기 및 보충 휴가 제도를 철저히 집행하는 문제 등도 포괄한다.

그것은 로동 규률을 강화하는 목적이 한편으로는 생산의 정상적인 발전을 보장하는 동시에 다른 한편으로는 근로자들의 모든 생활을 계획적으로, 정상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모든 부문, 모든 단위들에서 근로자들에게 휴식 시간과 휴가, 공휴일 휴식 등을 철저히 보장해 주는 동시에 시간 외 작업을 조직하거나 퇴근 시간을 지연시키는 등 무질서한 현상을 근절하는 것은 로동 규률을 강화하는 사업의 구성 부분으로 된다.

로동과 휴식을 결합시키기 위하여 오늘 우리 당이 중요하게 제기하고 있는 다른 하나의 문제는 근로자들의 휴식 조건을 더욱더 훌륭히 보장하는 것이다.

당은 근로자들의 휴식을 더욱 문화적으로 보장하기 위하여 막대한 국가 투자를 들여 구락부와 도서실, 체육, 문화 오락 시설들 나아가서는 정휴양 시설들을 부단히 확대 발전시키고 있으며

매개 생산 단위마다에서 각종 군중 문화 사업을 활발하게 조직 진행할 데 대한 방침을 견지하고 있다. 이것은 우리 당의 인민적 사회 문화 시책의 불가분리의 구성 부분이다.》

인민 경제 모든 단위들에서 당이 지어 준 이러한 조건들에 의거하여 매개 근로자들의 건강과 지력을 발전시키며 정서를 풍부하게 하도록 온갖 대책을 취하는 것은 기술, 문화 혁명을 촉진하며 인민 생활을 더욱 향상시키기 위한 투쟁이 강화되고 있는 오늘 아주 절실한 문제로 된다. 특히는 정휴양망들의 사업을 개선함으로써 그것을 근로자들의 건강을 증진시킬 뿐 아니라 의식 수준을 높이는 교양 장소로 확고히 발전시킬 데 대한 당의 방침을 관철하는 것이 중요하다.

바로 이상과 같은 것들이 오늘 근로자들의 로동과 휴식을 결합시키는 데서 제기되는 문제들이다.

이러한 모든 문제들은 결코 큰 자금이나 많은 로력이 들어야 해결할 수 있는 것들이 아니다. 무엇보다도 지도 일'군들이 근로자들의 로동과 휴식을 결합시키는 문제가 가지는 커다란 의의를 똑똑히 파악하고 당의 의도를 정확히 구현하기 위하여 노력하는 데 모든 것이 달려 있다.

그러면 로동과 휴식을 밀접히 결합시키는 문제가 어떤 의의를 가지는가를 보기로 하자.

2

근로자들의 로동과 휴식을 합리적으로 결합시키는 것은 우선 오늘 우리의 매개 단위들 앞에 나선 중요한 과업인 로동 생산 능률을 부단히 장성시키는 문제를 성과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필수적 조건으로 된다.

로동과 휴식의 결합은 본질에 있어서 로동력의 소비 과정과 재생산 과정을 통일적으로 조직하는 사업이며 그것은 사회적 로동 조직의 부단한 개선 완성에서 언제나 제기되는 문제의 하나이다.

물론 사회적 로동 조직에서 일차적으로 제기되는 문제는 매개 생산자들이 로동 도구를 리용하여 로동 대상에 직접 작용하는 과정 즉 로동 과정을 능률적으로 조직하는 것이다. 이것은 사회주의 하에서의 로동 조직의 목적이 결국은 최소한의 로동 지출로 보다 큰 생산 성과를 달성하는 데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사회주의 하에서의 로동 조직은 비단 이 과정에만 관심을 돌릴 수는 없다.

자연과 사회를 변형시키며 물질 문화적 부를 창조하는 로동 과정은 사람들이 이미 축적한 육체적, 정신적 힘 즉 로동력을 소비하는 과정이다. 가장 단순하고 쉬운 로동도, 비록 오늘 우리의 생산 현장과 같이 로동 조건이 훌륭히 구비된 환경에서 하는 로동인 경우에도 그것은 결국 인간의 힘을 소모하는 과정으로 된다. 그리 하여 일정한 시간이 흐르는 동안 계속 일하면 사람들은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피로하게 되고 작업 능률이 조만간에 떨어지는 경향을 보이게 되는 것을 피할 수 없다.

이것은 사회적 로동 생산 능률의 부단한 제고를 위하여서는 인간의 육체적, 정신적 능력을 지출하는 과정을 잘 조직할 뿐 아니라 바로 인간의 로동 능력을 갱신하는 문제도 동시에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말하여 준다.

특히는 과학 기술이 발전하고 생산 과정에 더욱더 현대적인 기계 설비와 생산 방법이 도입됨에 따라 근로자들의

기술, 문화 수준은 부단히 높아져야 한다. 오늘 우리 나라에서는 기술 혁명이 급속히 진척됨에 따라 매개 생산 공정을 담당하고 있는 일'군들의 기술 기능 수준을 높이는 문제가 생산의 더욱 높은 발전 속도를 달성하기 위하여서나 물자의 절약, 제품의 질 제고를 위하여서나 절실한 요구로 나서고 있다.

이러한 조건에서 근로자들의 정신적 능력, 문화 기술 수준을 급속히 제고하기 위한 충분한 조건을 보장하는 경우에만 생산 과정에서 사람들의 역할은 더욱 제고되며 단위 시간 내 그들의 생산 능률도 높아지는 것이다.

따라서 근로자들의 로동과 잘 조직된 문화적 휴식을 합리적으로 결합시키는 것은 생산 과정의 가장 결정적이며 능동적인 요인—주체적 요인의 역할을 계통적으로 장성시킴으로써 로동 생산 능률의 급속하고 끊임 없는 장성을 보장하기 위한 튼튼한 담보로 된다.

사회주의적 로동 조직이 가지는 우월성의 하나는 바로 로동 생산 능률의 부단한 장성을 위하여 필수적으로 제기되는 이 요구를 전 사회적 범위에서나 개별적 생산 단위의 범위에서나 가장 훌륭히 보장할 수 있는 모든 조건을 가지고 있다는 데서 표현된다.

로동력이 잉여 가치를 낳는 특종의 상품으로서만 중시되는 자본주의적 로동 조직에서는 로동자가 기계의 완전한 부속물로 취급되며; 자본은 도대체 로동자의 수명이나 그의 건강의 유지를 문제로조차 삼지 않는다. 여기에서는 《…로동력의 정상적인 유지가 로동일의 한계를 규정하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로동력의 가급적 많은 일상적 지출이 (그 지출이 아무리 병'적이고 강제적이고 고통스러운 것이라 할지라도) 로동자의 휴식 시간의 한계를 규정한다》(맑스, 《자본론》 1의 1, 317~318 페지, 1965년, 조선 로동당 출판사 판). 결국 자본주의적 로동 조직은 마치 탐욕적인 농업 경영자가 토지의 수익성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토지의 비옥도를 략탈함으로써 그 생산성 자체를 저락시키는 결과를 가져 오는 것과 같이 인간 로동력의 위축과 너무나 이른 피폐와 사멸을 가져옴으로써 로동 생산 능률의 부단한 장성을 방해한다.

로동의 성격이 근본적으로 변화되고 생산의 사회적 목적과 근로자들의 근본적 리해 관계가 일치되는 사회주의 하에 와서 생산자들은 처음으로 생산과 자기 자신의 생활의 완전한 주인으로 되며 모든 사업이 기계로부터가 아니라 생산자 자신으로부터 출발하여 조직된다.

근로자들에게 있어서 로동은 한갓 부담이 아니라 보람찬 생활의 중심 내용으로 되며 그것이 그들의 문화 휴식을 포함한 다른 모든 생활과 유기적으로 결합될 수 있는 현실적 가능성을 갖는다. 이러한 가능성은 당과 국가가 실시하는 각종 사회 경제적 및 문화적 시책에 의하여 현실화되며 특히는 매개 경제 단위들의 일상적인 로동 조직 사업에 의하여 더욱더 구체화된다.

이와 같이 근로자들의 로동과 휴식을 합리적으로 결합시키는 문제는 사회주의적 생산 관계가 로동 생산 능률의 부단한 장성을 위하여 열어 놓은 무한한 가능성을 전면적으로 리용하기 위한 중요한 사업 분야로 되며 사회주의적 로동 조직을 개선 완성하는 전 과정에서 튼튼히 틀어 쥐고 나가야 할 원칙으로 된다.

3

로동과 휴식의 합리적 결합이 가지는 의의는 또한 그것이 모든 근로자들을 전면적으로 발전된 새 형의 인간으로

육성하기 위한 전제 조건으로 된다는 데 있다.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은 생산력을 급속히 발전시킬 뿐 아니라 매개 사람들의 개성을 전면적으로 발전시키고 전체 근로자들을 다방면적으로 발전된 새 형의 인간으로 교양 육성할 것을 요구한다.

《사회주의와 공산주의는 생산력의 높은 발전 수준을 요구하며 근로자들의 높은 문화 수준을 요구한다. 사회주의와 공산주의를 건설하는 것은 결국은 전체 인민의 행복한 생활을 보장하며 그들의 부단히 장성하는 물질적, 문화적 수요를 더욱더 완전히 충족시키기 위한 것이다》(김 일성, 《우리 나라 사회주의 농촌 문제에 관한 테제》).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의 이러한 근본적 요구를 실현하는 것은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의 전 행정에서 제기되는 모든 문제들을 해결함에 있어서 반드시 견지해야 할 출발적 원칙으로 된다. 전체 근로자들의 물질적, 문화적 요구를 더욱더 훌륭히 충족시키고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그들을 전면적으로 발전시키는 과업은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의 어느 한 단계에 가서 일시에 해결되는 것이 아니며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의 전 기간에 걸쳐 점차적으로 해결되는 것이다.

우리 나라에서는 현실적으로 기술, 문화, 사상 혁명의 강력한 추진과 사회주의 건설의 전면적인 앙양에 의하여 사회 생산력이 해마다 비약적으로 발전되고 있을 뿐 아니라 근로자들의 육체적 건강과 지력, 정신 도덕적 풍모들이 급속히 개변되고 있다.

오늘 기술, 문화, 사상 혁명을 더 빨리 실현하며 근로자들의 다방면적인 발전을 촉진시키기 위한 모든 가능성들을 목적 의식적으로 리용하는 것은 당연한 사회주의 건설을 위해서나 전망적인 과업의 해결을 위해서나 참으로 큰 의의를 가진다.

근로자들의 로동과 휴식을 합리적으로 결합시키는 것은 바로 사회주의 제도가 지어 준 풍부한 가능성들을 잘 리용하여 이 과정을 촉진하기 위한 전제 조건으로 된다.

다 아는 바와 같이 인간의 로동 과정은 자연과 사회를 개조하고 물질 문화적 부를 창조하는 과정인 동시에 인간 자체를 변형시키는 과정이다. 사람에게 있어서 머리와 손이 한 데 속한 것처럼 로동 과정에서는 육체적 힘과 정신적 능력이 동시에 참가한다. 또한 로동 과정은 육체적, 정신적 능력의 소모 과정인 동시에 사람들이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단련되는 과정이며 인간의 지력과 생산 경험이 풍부화되는 과정이다. 특히 사회주의 하에 와서 로동이 창조적인 성격을 띠게 되고 생산 과정에 과학, 기술이 급속히 도입됨과 관련하여 로동 과정에서 근로자들의 기술, 문화, 사상 수준은 급속히 제고된다. 이제 와서 사람들은 로동 과정을 통하여 생산 경험과 기술 뿐 아니라 관리 능력까지 체득하게 된다. 따라서 직접적인 로동 과정을 떠나서는 인간의 개성의 발전이나 근로자들의 전면적 발전에 대하여 말할 수 없다.

이것은 사람들의 다방면적 발전을 위한 결정적인 조건이 모든 근로자들을 사회적 로동에 적극 참가시키는 데 있다는 것을 보여 주는 동시에 또한 로동을 조직하고 관리를 진행하는 일'군들이 생산 뿐 아니라 근로자들의 개성의 전면적 발전에 대해서도 깊은 관심을 돌려야 한다는 것을 말하여 준다.

로동 과정이 참으로 사람들의 개성을

전면적으로 발전시키는 사업을 촉진할 수 있게 조직되자면 무엇보다도 그것이 사람들의 생활 전반과 유기적으로 결합되여야 하며 그들이 과학 기술도 배우고 예술도 즐길 수 있는 충분한 조건을 마련하는 사업과 생산을 밀접히 결합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사회주의 하에서도 아직은 낡은 분업의 잔재가 남아 있고 로동의 기술적 조건이 인간의 개성의 전면적 발전을 위한 요구를 다 보장할 수 있으리 만큼 충분히 발달되여 있지는 못한 형편에서 로동 과정에서의 인간의 육체적, 정신적 발전은 제한성을 떠지 않을 수 없다. 아직 일정한 직업과 고정된 생산 부문에서 로동하는 사회주의 하에서의 근로자들에게 있어서는 자기의 취미와 정서에 따라 학습도 하고 문화, 체육, 예술 활동에도 참가할 수 있는 조건을 목적 의식적으로 조성하지 않고서는 자기의 개성을 전면적으로 발전시킬 수 없는 것이다.

지난 시기 로동과 문화 휴식, 로동과 학습을 밀접히 결합시키는 우리 당의 제반 조치들이 성과적으로 실현됨으로써 우리의 근로자들 속에서는 수 많은 학자, 기술자, 전문가들과 체육인, 예술인들이 배출되였으며 오늘 우리 나라에서는 과학과 기술, 문화 예술을 발전시키는 데 대중들 자신이 더욱더 직접적으로 참가하고 있다. 그리 하여 우리의 생산자 대중은 과학, 문화의 향유자일 뿐 아니라 그 창조자로 당당히 등장하고 있으며 그들의 재능은 다방면적으로 발전하고 있다. 이러한 성과와 경험은 생산 실천과 과학, 문화, 근로자들의 로동과 문화적 휴식을 밀접히 결합시키는 것이 과학, 문화와 생산을 발전시킴에 있어서 뿐 아니라 사람들의 개성을 전면적으로 발전시키고 그들을 다방면적으로 발전된 공산주의 인간으로 육성하는 필수적인 전제로 된다는 것을 보여 주고 있다.

따라서 오늘 우리 당이 근로자들 속에서 학습 기풍을 수립하며 체육 써클, 예술 써클을 포함한 군중 문화 사업을 생산과 결부시켜 활발하게 진행하며 그들의 취미와 정서에 따르는 각종 문화 휴식을 적극 조직할 것을 그처럼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 *

근로자들의 로동과 휴식을 결합시키는 문제는 인민 경제 매개 부문, 매개 단위들에서 일하는 지도 일'군들의 혁명적 군중 관점 확립 여부와 직접 관련되고 있다. 그것은 이 원칙이 인간을 가장 귀중한 재부로 인정하며 근로자들의 리익을 위하여 모든 것이 바쳐지는 사회주의 제도의 본성에서부터 흘러 나온 것이기 때문이다. 지도 일'군들이 혁명적 군중 관점으로 확고히 무장되면 될수록 로동과 휴식을 더 잘 결합시킬 수 있는 훌륭한 로동 조직 형태들이 창조되고 일반화될 것이며 근로자들의 휴식 조건도 보다 훌륭히 마련될 것이다.

모든 일'군들은 휴식이 새로운 로동을 준비하는 과정으로, 근로자들의 개성을 전면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중요한 조건으로 된다는 것을 깊이 인식하고 로동과 휴식을 합리적으로 결합시킬 데 대한 당의 방침을 매일매일의 일상적 사업에서 훌륭히 구현하여야 할 것이다.

민주주의적 민족 권리를 위한 총련의 투쟁

양 원

최근 일본 군국주의자들은 남조선 괴뢰 도당과 공모하여 재일 동포들의 인권과 제반 민주주의적 민족 권리를 엄중히 유린하는 데로 나가고 있다. 그들의 이러한 책동은 미제의 직접적인 조종 하에 감행된 《한일 조약》 결속을 계기로 더욱 로골화되고 있다.

일본 정부는 《한일 조약》에서 꾸며 놓은 《재일 교포 법적 지위 협정》의 《발효》를 구실로 재일 동포들의 거주권과 공민권을 비롯한 중대한 권익에 관한 문제를 공화국과의 협의도 없이 또 그들의 의사를 거역하고 조선 인민의 그 누구도 대표할 수 없는 박 정희 도당과 공모의 방법으로 처리하고 있다. 이러한 행동은 재일 조선 공민들의 기본 인권과 민주주의적 민족 권리를 해치는 용납할 수 없는 범죄적 책동이며 공화국과 우리 인민에 대한 공공연한 도전 행위이다.

《재일 교포 법적 지위 협정》이란 재일 동포들에게 《한국 국적》을 강요하여 그들을 남조선 괴뢰 도당에게 내여 맡기는 동시에 강제 추방을 비롯한 온갖 민족적·차별과 탄압을 《합법화》하기 위한 범죄적 문건에 지나지 않는다. 이 《협정》의 제 1 조에 의하면 《영주권 신청》에도 《대한 민국 국적 증명서》를 덧붙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것은 《영주권》 획득을 미끼로 재일 조선인들에게 괴뢰 《한국 국적》을 강요하려는 것 외의 아무 것도 아니다.

오늘 일본 당국이 재일 동포들에게 그처럼 《한국 국적》을 강요해 나서고 있는 목적은 박 정희 도당의 지위를 돋우어 주고 그들을 주구로 삼아 남조선에 대한 재침략의 음모를 손 쉽게 실현해 보자는 데 있으며 재일 동포들의 민족적 단합을 깨뜨리고 조국 통일과 민주주의적 민족 권리 옹호를 위한 그들의 힘을 분렬, 약화시키자는 데 있다. 또한 이것은 일본 인민들 속에 민족 배타주의 사상을 고취함으로써 조 일 량국 인민들 간의 친선 관계의 발전을 방해하고 재일 동포들의 애국 사업과 총련 단체들의 활동을 억제하자는 것이다.

재일 동포들에 대한 일본 정부의 이 모든 부당한 처사는 국제법과 인도주의 제 원칙에 전적으로 위반되는 행위로서 즉시 철회되여야 한다.

일본 정부는 과거 일제가 조선 인민 앞에 범한 죄과에 비추어 보나 또 국제법상 요구에 비추어 보나 응당 재일 동포들에게 외국인으로서의 권리와 대우를 보장하여야 한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현대 국제법은 외국인들에게 민족적 멸시와 박해를 가하거나 그들의 인권을 유린하는 국가의 그 어떠한 행위도 금지하고 있으며 자기 나라 공민과 동일하게 그들을 보호

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세계의 모든 나라는 이러한 국제법과 국제 판례에 의하여 다른 나라 국적을 가지면서 자국에 거주하는 외국인들에게 정치, 경제, 문화의 제 권리를 부여하고 있다.

일본 정부도 이를 인정하고 있으며 자국 내에 거주하고 있는 다른 모든 외국인들에 대하여서는 실지 이법규를 적용하면서도 유독 재일 조선 공민들에게만은 외국인으로서의 대우와 생활 상 권리를 보장해 주지 않고 있는 것이다. 이것은 오늘 일본 당국이 말로는 국제법 준수를 운운하고 있으나 사실에 있어서는 국제법과 국제 판례를 란폭하게 유린하고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

뿐만 아니라 일본 정부는 재일 동포들이 일본에 살고 있는 동안 모든 생활상 편의와 민주주의적 민족 권리를 보장해 주어야 할 도의적 책임도 지니고 있다.

오늘 일본에 살고 있는 조선 공민들은 지난날 일제 식민지 통치자들에 의하여 《징용》, 《징병》으로 강제로 끌려갔거나 일제의 가혹한 착취와 탄압의 결과 살 길을 잃고 일본에 건너 간 사람들이며 그 자제들이다. 일본 정부의 《후생성 로동국》이 발표한 축소된 자료에 의하더라도 1939년부터 1944년까지의 기간에 일제는 《징병》으로 36만 5,000여 명에 달하는 청장년들과 67만여 명의 조선인 로동자들을 《징용》으로 일본에 끌어 갔다. 일제가 패망하기 직전까지 일본에 있은 조선 동포들의 수는 무려 300여만에 달하였다. 그러므로 재일 조선 공민들에 대한 문제는 일본 제국주의의 조선 강점과 그의 식민지 통치가 남겨 놓은 유산이 아닐 수 없다.

일본 제국주의자들은 지난 시기 재일 조선인들에 대하여 민족적으로 멸시하고 학대하였으며 탄광, 광산, 군사 기지 건설 등 가장 위험하고 고된 로동 부문에 내몰아 우마와 같이 혹사하였으며 가혹하게 착취하였을 뿐 아니라 지어 군사 비밀을 보장한다는 구실 하에 조선인들을 집단적으로 학살하는 만행까지 감행하였다.

만약 일본 정부가 진심으로 과거 일제가 조선 인민 앞에 저지른 죄악에 대하여 책임을 느끼며 국제법의 원칙과 인도주의적 규범에 충실하려 한다면 절대로 재일 동포들을 박해하고 탄압할 수 없으며 마땅히 그들에게 외국인으로서의 지위와 주권 국가 공민의 권리를 보장해 주어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반동 지배층은 재일 조선인들을 《무국적인》이니, 《제 3 국민》이니 뭐니 하면서 갖은 모욕과 탄압을 계속 가하고 있으며 그들에 대한 일본 불량배들과 테로 분자들의 살상, 폭행 만행을 적극 비호 조장하고 있다. 심지어 일본 반동들은 미제의 사촉 하에 재일 동포들의 민주주의적 민족 권리를 옹호하기 위한 단체인 총련을 《파괴 활동 방지법》의 대상 조직이라고 하면서 그를 비방 중상하고 총련 조직에 대한 파괴 모략 책동을 계속 일삼고 있다.

이처럼 일본 당국이 인도주의와 국제법의 초보적인 규범마저 란폭하게 유린하고 있는 조건 하에서 재일 동포들이 자기들의 인권과 제반 민주주의적 민족 권리를 옹호하기 위한 투쟁은 지극히 정당하다.

오늘 총련은 재일 동포들의 인권 및 생활권을 해결하고 생활 과정에서 제기되는 일체 곤난을 자신의 힘으로 뚫고 나가기 위한 투쟁을 완강하게 전개하고

있다. 민주주의적 민족 권리를 옹호하기 위한 재일 동포들과 총련의 이러한 투쟁은 양보할 수 없는 그들의 신성한 권리에 속한다.

총련의 강령에는 재일 동포들의 민주주의적 민족 권리를 옹호하며 동포 자녀들에 대한 민주주의적 민족 교육의 권리를 고수하고 강제 추방을 반대하며 그의 희생자들을 구원하고 조국으로의 왕래의 자유 등을 실현하기 위하여 투쟁할 것이 명시되여 있다. 이것은 이국땅에서 빈궁과 무권리에 신음하고 있는 재일 동포들의 사활적 요구와 절실한 념원의 반영인 것이다.

총련은 자기의 강령적 요구와 임무로부터 출발하여 최근 일본 당국이 《법적 지위 협정》을 방패로 재일 조선인들에게 《한국 국적》을 들씌우려는 부당한 책동을 반대 배격하고 그들의 공민권과 거주, 직업, 《사회 보장》 및 영업 활동의 자유와 민주주의적 민족 권리를 옹호하며 동포 호상간 서로 돕고 이끌면서 생활을 꾸려 나가기 위한 투쟁을 광범히 전개하고 있다. 이 과정을 통하여 재일 동포들의 단결된 힘과 고상한 동포애가 더욱 발양되고 있다.

일본 당국의 차별 정책과 탄압 책동이 우심한 속에서도 총련은 실업 당한 동포들에게는 직업을 알선해 주고 재해 입은 동포들을 구제하며 극빈자와 애국 운동 희생자 및 파산 당한 상공인들에게는 융자를 마련해 주는 등의 사업을 적극 진행함으로써 그들이 불안정한 생활을 극복하고 총련의 제반 애국 사업에 열성적으로 참가하게끔 하고 있다.

상부 상조 운동의 일환인 동포 상공인들의 신용 조합 사업도 크게 발전하고 있다. 총련과 재일 상공인들의 애국적 발기에 의해 이루어진 27 개의 신용 조합은 자기 산하에 70 개의 점포를 가진 큰 조직으로서 기업 및 영업 활동에서의 자유와 권익을 옹호하고 호상 유무상통하는 사업을 활발히 전개하고 있다. 이처럼 동포 호상 힘을 합세하여 서로 도와 주고 유무상통하는 것은 그들의 생활 상 곤난을 해결해 주며 민족적 각성과 단합을 강화함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또한 총련은 재일 동포들의 민족 교육에 대한 일본 정부의 탄압 책동을 반대하고 민족 교육에 대한 합법적 보장, 재일 조선인 학교들에 대한 법적 승인, 재일 조선인 고급 학교 졸업생들의 일본 대학에로의 진학 자격의 인정 등 절박한 요구를 제기하고 그 실현을 위하여 투쟁하고 있다. 이것은 최근 재일 조선 공민들의 민주주의적 민족 교육에 대한 일본 당국의 탄압 책동이 더욱 로골화되고 있는 형편에서 긴요한 과업으로 되지 않을 수 없다.

최근 일본 정부는 《재일 한국인의 법적 지위 협정에서의 교육 관계 사항의 실시》라는 구실 밑에 재일 동포들의 인권인 민족 교육의 권리를 란폭하게 침해하려 하고 있다. 지어 그들은 재일 조선 학교들에 대하여 그 운영을 허가하지 않으며 새 《제도》를 실시하겠다고 파렴치하게 떠벌리고 있다.

이러한 책동은 재일 조선 공민들의 인권과 민주주의적 민족 권리에 대한 란폭한 유린 행위이다.

재일 동포들이 자기의 자녀들에게 민주주의적 민족 교육을 실시하는 것은 그 누구도 침해할 수 없는 민족적 권리이며 그들의 절절한 념원이다.

재일 동포들은 일본 제국주의 통치 시기 모국어를 배우기는 고사하고 모국어로 말하는 자유마저 박탈 당하였으며

조국의 력사와 지리, 유구한 문화 전통을 알려고 생각만 하여도 《범죄》로 인정되고 가혹한 탄압의 대상으로 되였다.

이러한 쓰라린 경험을 가지고 있는 재일 동포들은 자라나는 후대들에게 우리 말과 우리 글을 배워주기 위하여 총련의 지도 하에 커다란 애국 운동으로 교육 사업을 발전시켰다. 이 과정에서 그들은 허다한 난관과 시련에 부닥치지 않으면 안 되였으며 일본 당국의 부단한 박해와도 싸우지 않으면 안 되였다. 그러나 그 어떠한 난관과 시련도 그들의 정의롭고 애국적인 불굴의 의지를 꺾을 수 없었다.

재일 동포들은 총련의 주위에 굳게 뭉쳐 민족 교육 발전을 위하여 돈 있는 사람은 돈을 내고 지식 있는 사람은 지식을 내고 힘 있는 사람은 힘을 내여 학교를 짓고 교과서를 만들었으며 민주주의적 민족 교육을 발전시킬 튼튼한 토대를 마련하는 데 헌신하였다.

그리 하여 오늘 총련은 유치원으로부터 대학에 이르기까지 정연한 민주주의적 민족 교육 체계를 수립하여 놓았다.

지금 총련 산하에는 현대적 시설을 갖춘 조선 대학을 비롯하여 71 개의 초급 학교, 39 개의 중급 학교, 9 개의 고급 학교를 포함한 150 개의 각급 정규 학교와 320여 개의 비정규 학교에서 4만여 명의 동포 자녀들이 모국어로 조국의 지리와 력사, 날로 륭성 발전하는 사회주의 조국의 찬란한 현실을 배우고 있다.

민주주의적 민족 교육 사업을 통하여 총련은 재일 동포들을 사회주의적 애국주의 사상으로 교양하고 그들을 조선 민족으로서의 높은 자각과 공화국 공민된 영예와 긍지를 더 한층 간직하게 하였으며 언제 어디서나 자기 조국-조선 민주주의 인민 공화국을 옹호하여 투쟁할 수 있도록 교양하고 있다. 총련이 제기하고 동포 대중이 지지하여 궐기한 이 투쟁은 날을 따라 더욱 발전할 것이다.

또한 민주주의적 민족 권리를 위한 총련의 투쟁에서 중요하게 제기된 문제는 재일 동포들의 귀국 사업을 성과적으로 보장하며 조국으로의 왕래의 자유를 실현하기 위한 투쟁이였다.

재일 동포들은 조선 로동당과 공화국 정부의 두터운 동포애적 시책과 총련의 적극적인 투쟁에 의하여 1959년 첫 귀국이 시작된 때로부터 오늘까지 184 차에 걸쳐 8만 5,000여 명이나 조국의 따사로운 품으로 돌아 오게 되였다. 조국의 품에 안긴 그들은 조선 로동당과 공화국 정부의 두터운 배려와 조국 인민들의 따뜻한 보살핌 속에서 일본에서는 꿈에도 생각할 수 없었던 행복하고 자랑찬 새 생활을 창조하고 있으며 날로 번영하는 조국의 사회주의 건설에 참가하여 빛나는 로력적 성과를 거두고 있다.

재일 조선 공민들의 조국에로의 귀국 실현은 공화국 북반부에 수립된 사회주의 제도의 우월성을 뚜렷이 시위하는 것이다. 특히 최근 시기 재일 조선인들에게 《한국 국적》을 강요하려는 일본 당국의 집요한 책동에도 불구하고 수 많은 동포들이 공화국의 품으로 계속 돌아 오고 있는 것은 조선 민주주의 인민 공화국이야 말로 해내외 전체 조선 인민들의 희망의 등대이며 3천만 조선 인민의 진정한 조국이라는 것을 확증하여 주고 있다.

오늘 일본 반동 지배층이 미제의 사촉을 받아 가면서 제아무리 재일 조선인들의 공화국 공민권을 인정하지 않고 박 정희 도당과 공모하여 그들의 외사

와는 정반대되는 《한국 국적》을 강요하려고 날뛰여도 그것은 결코 버림과 증오의 대상물로 밖에는 되지 않을 것이다.

총련은 재일 동포들의 귀국 사업에서 달성한 성과를 더욱 공고히 하면서 지금 조국 왕래의 자유를 실현하기 위한 투쟁을 광범히 전개하고 있다.

재일 조선 공민들의 공화국으로의 자유 왕래, 이것은 그 누구에 의해서도 유린될 수 없는 그들의 신성한 합법적 권리이다.

한 독립 국가의 재외 공민이 자기의 생활상 필요에 의해 조국으로 자유롭게 왕래하는 것은 국제법과 국제 관례에 의하여 공인된 원칙이며 이 원칙들은 오늘 모든 나라에서 다 실시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당국은 《국교 관계가 없다》는 황당무계한 구실로 재일 조선 공민들의 조국으로의 왕래의 자유를 계속 거부하려 하고 있다.

총련은 일본 정부의 이와 같은 비우호적이며 부당한 책동을 반대하고 조국으로의 자유로운 왕래의 실현을 위하여 견결히 투쟁하고 있다. 이 투쟁은 그의 정당성으로 하여 광범한 일본 인민들과 일본의 민주주의적 제 정당 사회 단체 및 세계의 평화 애호 인민들로부터 절대적인 지지를 받고 있다.

총련과 재일 조선 공민들의 이러한 애국적인 투쟁을 지지하여 주민의 85% 이상을 포괄하는 1,068개의 일본 지방 의회들이 재일 동포들의 조국 왕래의 자유를 실현시키기 위하여 결의를 채택하고 일본 정부의 부당한 태도에 항의해 나서고 있다.

오늘 재일 조선 공민들은 이미 달성한 성과에 기초하여 자기들의 인권과 민주주의적 민족 권리를 가로막고 있는 일본 당국자들의 비인도적인 온갖 부당한 처사를 칠회시키고 조국으로의 왕래의 자유를 전면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투쟁을 더욱 광범하게 전개하고 있다.

총련은 또한 남조선에서 미제 침략자들을 몰아 내고 분렬된 조국의 자주적 통일을 촉진하기 위한 투쟁을 줄기차게 전개하고 있다.

조국 통일은 조국 인민들과 더불어 재일 조선 공민들의 절박한 념원이며 생활상 요구이다. 따라서 그 실현을 위한 투쟁은 재일 동포들에게 있어서 신성한 민족적 권리로 되며 의무로 된다.

오랜 기간 이국 땅에서 생활하고 있는 재일 동포들은 조선 인민의 첫째 가는 원쑤 미제를 남조선에서 몰아 내고 헤여졌던 부모, 형제, 친척들이 서로 만나 단란한 가정을 이루고 천세만세 행복하게 살아 갈 것을 간절히 념원하고 있다.

그러나 미제의 남조선 강점으로 하여 해방 후 20년이 지나도록 재일 동포들은 물론 남북 조선 인민들도 서로 갈라져 살고 있다.

총련은 이러한 민족적 비극을 하루속히 없애고 재일 동포들의 숙망을 실현하기 위하여 결성된 첫날부터 조선 로동당과 공화국 정부의 조국 통일 방안을 받들고 조국 통일의 력사적 위업을 촉진하기 위한 투쟁을 꾸준하게 전개하여 왔다.

총련은 자기의 강령에서 《조국의 주권과 령토를 침해하고 내정에 간섭하는 외래 침략자들을 철거시키며 그의 앞잡이 괴뢰 도당을 고립시키며 조국의 평화적 통일 독립을 위하여 헌신》할 것을 중요 과업으로 제기하고 있다.

이것은 조국의 륭성 발전과 량단된

국로의 통일을 실현하려는 재일 동포들의 꺾을 수 없는 애국심의 발현이며 민족적 량심의 산 표현이다.

조국 통일을 촉진하기 위한 총련의 이 방침은 재일 동포들의 확고한 지지를 획득하고 있으며 반미 구국 투쟁의 기치 하에 60만 재일 동포들을 결속시키고 그들을 조국 통일을 위한 성스러운 투쟁에 적극 조직 동원하고 있다. 총련의 주위에 굳게 단합된 재일 동포들은 이 투쟁에서 빛나는 성과들을 달성하였으며 앞으로 더 과감하게 투쟁함으로써 조국 통일 위업에 보다 기여할 것이다.

총련이 달성한 이 모든 성과들은 조선 인민의 경애하는 수령 김 일성 동지를 수반으로 하는 조선 로동당과 공화국 정부의 뜨거운 동포애적 시책과 육친적 배려를 떼여 놓고 생각할 수 없다. 조선 민주주의 인민 공화국은 창건된 첫 날부터 모든 해외 동포들과 특히 이국 땅에서 갖은 고초를 당하고 있는 재일 동포들의 생활에 항상 깊은 관심을 돌려 왔으며 민주주의적 민족 권리 옹호를 위한 그들의 투쟁을 백방으로 지지 성원해 주었다.

또한 이것은 동포들의 아픔을 자기 일처럼 아파하고 제때에 해결해 주며 그들에 의거하여 모든 문제들을 풀어 나가는 총련이 시종일관 견지하여 온 군중 로선의 빛나는 결실이다.

총련이 달성한 이 모든 성과에는 또한 재일 동포들의 민주주의적 민족 권리 옹호를 위한 정당한 투쟁을 적극 지지 성원해 준 일본의 민주주의적 제 정당 사회 단체들과 광범한 일본 인민들의 고매한 지성이 깃들어 있다.

민주주의적 민족 권리를 위한 투쟁에서 총련이 달성한 이 모든 성과들은 공화국의 기치 하에 굳게 뭉쳐서 자기의 정당한 요구 조건을 관철하기 위한 그들의 앞길을 가로막을 힘은 절대로 있을 수 없다는 것을 웅변으로 실증하고 있다.

* *

지난 시기 민주주의적 민족 권리 옹호를 위하여 미 일 반동들의 온갖 책동을 물리치고 굴함 없이 투쟁한 총련과 재일 동포들이 걸어 온 길은 실로 자랑찬 투쟁의 로정이였다.

오늘 재일 동포들은 조선 로동당과 공화국 정부 주위에 굳게 단결하여 자기들의 모든 힘과 지혜를 조국의 륭성 발전과 통일 위업에 바치고 있으며 일본 군국주의자들의 차별 정책과 탄압 책동으로부터 이권과 민주주의적 민족 권리를 영예롭게 고수하고 있다.

전체 조선 인민은 총련과 더불어 재일 조선 공민들의 민주주의적 민족 권리가 일본 당국에 의하여 유린되고 그 어떤 정치적 흥정의 롱락물로 되는 것을 절대로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한국 국적》 강요를 반대하고 공화국 공민권과 제반 민주주의적 민족 권리를 위한 총련의 투쟁은 그 정당성으로 하여 앞으로도 계속 빛나는 성과를 달성할 것이다.

신식민주의와 《근대화론》

로 재 선

《근대화론》은 신식민주의를 변호하는 《리론》으로서 미제의 《세계 전략》에 복무하는 사상적 도구이다.

제 2 차 세계 대전 이후 아세아, 아프리카, 라틴 아메리카 전역에서 반제 민족 해방 투쟁은 미증유의 규모로 앙양되였으며 제국주의 식민지 체계는 밑바닥으로부터 무너지기 시작하였다. 제국주의자들은 저들의 《생명선》이며 기본 후방인 식민지 체계를 구원하기 위하여 발악하게 되였으며 그 발악은 낡은 식민지 체계를 신식민주의 체계로 재편성하는 방향에 집중되였다.

신구 식민주의의 교체는 식민주의를 변호하는 사상 리론 분야에도 그대로 반영되였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현대 식민주의 사상은 19 세기 말 20 세기 초에 키플링, 세실 로즈, 고비노 등 제국주의 대변자들에 의하여 제창된, 공공연한 식민지 지배를 합리화하는 《리론》이였다. 그들은 식민지에 대한 제국주의의 《문명자적 사명》과 《고등 인종》에 의한 《렬등 인종》 지배의 숙명적 불가피성을 설교하였었다. 그것은 로골적인 예속, 강압과 략탈에 기초한 구식민주의에 진'적으로 부합되였다.

그러나 이러한 사상은 과거의 식민지 및 반식민지들에 형식적으로나마 《독립》을 부여하고 그 나라들과의 《협조》를 표방하면서 식민주의를 보존하지 않을 수 없게 된 새로운 환경에서는 이미 비현실적인 것으로 되였다. 때문에 제국주의 어용 사상가들은 신식민주의에 적응하게 현대 식민주의 사상을 개작하며 재편성하여야만 하였다.

《근대화론》은 식민주의의 사상 리론적 재편성 과정에서 속출한 《후진국 개발론》, 《남북 관계론》, 《경제 성장 단계론》 등 잡다한 《리론》들이 종합되고 체계화된 것이다.

《근대화론》은 특히 전쟁 전략과 《평화》 전략, 군사적 침략과 사상 문화적 침략의 통일을 주장한 케네디의 량면 정책을 계기로 제국주의자들에 의하여 발광적으로 선전되였다. 남조선과 일본을 비롯한 아세아 각국들에서 《근대화론》이 요란스럽게 선전되기 시작한 것도 이와 때를 같이 하고 있다.

1961년 《정권》에 들어 앉은 박 정희 도당이 소위 《한국의 근대화》를 정책 상의 최고 목표로 내걸고 나선 것도 결코 우연한 일이 아니였다. 매국 역적이 《정권》을 잡자마자 《지금 우리 민족은 근대화의 과제를 앞에 놓고 있다》느니, 《우리 나라 근대화의 과제를 완수하는 것이 민주 혁명의 목표》이며 《민족사적 과제》라느니 하고 떠벌린 것은 이들이 미제 상전의 신식민주의 정책을 충실히 집행하려는 주구들임을 보여 준 것이였다.

미 제국주의자들이 《근대화론》을 신식민주의의 중요한 사상 리론적 도구로 내세우는 리유는 어디에 있는가?

그것은 우선 《근대화론》이 경제 침략 면만을 주로 합리화하는 《후진국 개발론》 등과는 달리 신식민주의 정책의 개별적 측면이 아니라 정치, 경제, 문화, 사상, 군사 등 모든 분야의 침략을 전체적으로 합리화하는 데 매우 편리한 《담보》를 주기 때문이며 또한 《승미》, 《반공》 등 반동 사상 조류들을 묶어 세우는 데 있어서 가장 포괄적이고 융통성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

구경 《근대화론》의 본질은 식민지 예속 국가 및 신생 독립 국가들이 반제 투쟁도 혁명도 하지 말아야 하며 할 필요가 없다는 거기에 있다.

대다수의 식민지 예속 국가 및 신생 독립 국가들은 제국주의 식민지 통치의

악독한 후과로 경제 문화적으로 뒤떨어진 처지에 놓여 있다. 이러한 나라들에서 식민지 통치의 후과를 청산하기 위해서는 민족 민주주의 혁명을 끝까지 수행하여야 한다. 다시 말하면 제국주의와 봉건주의를 반대하는 민족 해방의 과업과 민주주의적 변혁의 과업을 철저하게 완수하여야 한다.

아세아, 아프리카, 라틴 아메리카 여러 인민들에게 뒤떨어진 경제 문화를 강요한 것도 제국주의이며 더우기 오늘 그러한 후진성을 극복하기 위한 이 지역 인민들의 투쟁을 가로막는 기본 장애도 바로 제국주의이다. 그러므로 제국주의를 반대하는 혁명의 길만이 이 나라 인민들에게 진정한 독립과 광명한 미래를 약속해 준다.

식민지 예속 국가 및 신생 독립 국가들에서 제국주의의 지배력이 종국적으로 청산당하는 것을 두려워하는 식민주의자들에게는 아세아, 아프리카, 라틴 아메리카 인민들의 경제 문화적 후진성을 제국주의 식민지 정책 때문에가 아니라 이 지역들이 《근대화》되지 못 하였기 때문이라고 설명하며 따라서 이 나라들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근대화》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는 《리론》이 유리하고 합리적이였다. 미제의 어용 사상가들의 론리에 의하면 이 지역 인민들이 당면한 근본 문제는 빈곤으로부터 해방되는 것이며 빈곤으로부터 해방되는 길은 《근대화》하는, 즉 구미 자본주의 국가를 따라 가는 것이다.

《후진성》을 근대적 과학, 기술, 지식, 자본, 문화 등의 결여에 귀착시키는 저들의 주장을 합리화하기 위하여 신식민주의 변호자들은 《근대화》의 개념을 근대적 과학 문명, 근대적 기계 기술을 도입하는 사회적 변혁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미제의 대표적 《근대화론》자의 한 사람인 라이샤워는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근대〉라든가 〈근대화〉라고 하는 말에 대한 일반적인 정의는 없으나 내가 말하는 그것은 최근 200 년 동안에 출현한 극히 복잡한 사회를 말한다. 이 사회에는 많은 특징이 있다. 그 하나는 과학적 지식을 가지고 진보를 실현한다는 것이다. 즉 과학적으로 계획해서 이전에 존재하고 있던 것보다 더 훌륭한 것을 만들어 낸다는 것이다…근대 사회에서는 기계에 의해서 사람의 힘의 여러 배에 달하는 힘을 발휘하게 되는 것이 바로 그것이다》. 그는 근대 사회의 성격을 이처럼 비과학적으로 묘사하면서 근대 사회가 다른 사회와 구별되는 가장 기본적인 특징을 《국민의 독서 능력이 거의 100%에 달하는 것》과 《국내의 대중 보도 수단(매스콤)의 높은 보급률》이라는 두 가지로 규정 짓고 있다.

미국 사회학자 헐은 근대 사회의 기본 징표를 보다 구체적으로 전개하면서 다음과 같은 조항을 렬거하였다: 1) 과학적 환경에서의 개인의 독서 및 서사 능력 발전 조건이 보장된 사회, 2) 인구의 비교적 고도의 도시 집중 현상, 3) 상품의 광범한 류통과 각종 편의 봉사 기관의 발전, 4) 사회 성원의 경제 및 정치 생활에의 광범한 참여와 그들 간의 광범한 공간적 상호 작용, 5) 대중 보도 수단의 보급, 6) 정부, 기업체, 공업 등과 같은 대규모적 사회 기관의 존재, 7) 각종 대규모적 인구 집단의 국가적 통제 하에로의 편입 등이다.

보는 바와 같이 여기에서는 생산력과 생산 관계, 사회 정치 제도 등과 관련되는 본질적인 특성이 완전히 배제되고 다만 사회의 물질적, 기술적 발전 수준만이 렬거되고 있다. 바로 여기에 《근대화론》의 반동적, 기만적 본성이 있다.

생산력의 발전 문제는 생산 관계, 즉 사회의 경제 토대와 상부 구조의 변혁 문제를 떠나서 론의할 수 없다. 만일 소여의 생산 관계가 자기의 시대를 다 살고 생산력과의 모순에 빠지게 되는 경우에 그것은 생산력 발전에 부정적으로 작용한다. 이 때 생산의 사회적 형식

으로서의 생산 관계는 생산 발전의 길을 열어 주는 것이 아니라 그 발전을 구속하게 된다. 이 모순을 해결하기 위한 사회 혁명의 시기에는 낡은 상부 구조가 새로운 생산 관계 발전의 요구와 충돌한다. 이 때 낡은 상부 구조를 변혁하고 청산함이 없이는 새로운 생산 관계에 의한 낡은 생산 관계의 교체를 실현할 수 없으며 따라서 생산력의 발전을 촉진시킬 수 없다. 그러므로 《후진국》들에서의 생산력의 발전 문제는 그 나라들의 제국주의적, 봉건적 생산 관계, 그것을 옹호하는 상부 구조의 철폐 문제와 떼여 놓고 생각할 수 없는 것이다.

《근대화》에 대한 신식민주의자들의 외곡되고 비과학적인 장황한 설교는 결국 그러한 《근대화》의 실현이 바로 《후진국》과 《발전된 나라》, 즉 제국주의 국가와의 《협조》에 의해서만 가능하다는 결론을 도출하며 그것으로써 《후진국》들에서의 혁명을 반대하고 식민지적 지배를 계속 유지하려는 제국주의자들의 침략 정책을 《정당화》하는 데 복무하기 위한 것이다.

최근 년간 《근대화론》에 체계적인 《리론적》 기초를 부여하기 위하여 수많은 미국의 부르죠아 반동 사회학자들이 동원되였다. 《근대화론》을 리론적으로 체계화하려는 시도에서 가장 주목할 만한 것은 미 제국주의자들이 제 2차 세계 대전 후 최대의 과학적 《발견》의 하나라고 떠들어 대고 있는 미제의 이름난 어용학자 로스토우의 《경제 성장 단계론》이다. 로스토우 자신이 《경제 성장 단계론》의 첫머리에서 자기의 《리론》은 《현시대의 초미의 문제》인 《근대화》 문제에 대답을 주기 위한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그는 인류 사회의 발전을 제멋대로 꾸며 낸 사회 발전 도식에 기초하여 설명하면서 인류 력사를 《근대화》 시기와 전 《근대화》 시기의 두 단계로—《전통 사회(傳統社會)》와 《근대 사회(공업 사회)》의 두 시기로 구분하고 더 나아가서 《근대 사회》를 다시 경제 장성의 징표에 기초하여 1) 《과도적 사회》, 2) 《도약 단계》, 3) 《성숙 단계》, 4) 《대량 소비 단계》의 네 개 발전 단계로 구분하고 있다.

로스토우가 주장하는 인류 사회의 첫 단계—《전통 사회》란 생산 수준이 낮고 공업이 종속적 성격을 띠고 있으며 과학 활동이 없는 사회라는 것이다. 그 다음에 온다는 《과도적 사회》의 기본 특징은 자본 투자률의 증가와 1인당 자본 스토크의 증가에 의하여 규정되며 《도약 단계》는 자본 투자률이 국민 소득의 5% 이하인가 혹은 10% 이상으로 결정적으로 이동하는가에 따라서 결정된다고 한다. 그리고 《성숙 단계》는 철도 건설 후의 강(鋼)의 시대를 의미하며, 《대량 소비 단계》는 자동차의 대량적 보급, 세대용 교외 주택, 가정 용품의 전기화, 랭장고로부터 텔레비존에 이르기까지를 마련하고 사는 것 등으로 특징 지어지는 시대로서 근대 사회 발전의 가장 높은 단계이며 따라서 《인류 사회의 리상적이고 가장 완성된 사회》를 말한다는 것이다.

보는 바와 같이 여기서는 사회 발전 단계의 구분이 오직 자본가들에 의해서 투자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으며 공업 생산력이 어떻게 발전해 나가는가 하는 것을 문제로 삼고 있을 뿐 사회 경제 구성태의 교체 문제는 전혀 도외시되고 있다.

생산, 기술, 과학 등 요인이 사회 발전에서 결정적 역할을 논다는 이러한 도식이 바로 사회 발전에서 생산 관계, 즉 경제 토대, 상부 구조, 사회 혁명, 계급 투쟁 등이 노는 의의와 역할을 말살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는 것은 더 말할 것도 없다.

로스토우는 마치도 그러한 발전 단계가 사회 발전의 합법칙성을 반영하는 것처럼 날조하면서 다음과 같이 문제를 설정하고 있다—현시기 아세아, 아프리카 나라들의 대다수는 그 발전이 《과도적 사회》나 《도약 단계》에 처하고 있는데 이 나라들의 《근대화》를 위하여 충

요한 것은 어떻게 하면 《성숙 단계》를 거쳐 《대량 소비 단계》로 빨리 발전하겠는가 하는 방도를 찾아 내고 그에 부합되는 정책을 탐구하는 것이다라고. 로스토우의 《리론》으로 안받침됨으로써 《근대화론》은 《과학적》 체계의 외피를 갖추게 되였으며 식민지 예속 국가 및 신생 독립 국가 인민들이 혁명을 포기하고 신식민주의의 올가미에 걸려 들도록 하는 제국주의자들의 책략을 보다 《효과적》으로 정당화하게 되였다. 미제국주의자들이 《근대화론》은 새로운 《세계관》으로 된다고 추켜 올리는 리유도 여기에 있는 것이다.

제국주의 특히 미제를 위한 《근대화론》의 《실용적》 특징은 그것이 신식민주의 일반을 변호하는 도구로 되고 있을 뿐 아니라 신식민주의에 기초하여 전개하여야 할 보다 구체적인 여러 분야의 정책적 문제들을 포괄하는 사회학적 《리론》으로 되고 있다는 데 있다. 《근대화론》의 본질을 전면적으로 알기 위해서는 이 측면의 문제들에도 고려를 돌려야 한다.

신식민주의의 구체적인 정책들을 사회학적 각도에서 모색하고 있는 미제의 어용학자들의 견해는 최근 시기 부르죠아 서적 시장에 나타난 많은 저작들에서 잡다하게 제기되고 있다. 그 중 특징적인 몇 가지 문제를 개괄하면 다음과 같다:

정치적 분야에서: 여기서는 《근대화》의 전제 조건을 낡은 제도의 청산과 관련시키지 않는 데 모든 설교의 초점이 돌려지고 있다.

《근대화론》자들은 식민지 예속 국가 및 신생 독립 국가들의 정치 제도가 봉건적이건 반(半)봉건적이건 혹은 부르죠아적 성격을 띠였건 상관 없이 일관하게 현존 정치 제도를 서서히 개량하는 방법으로 《근대화》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 근거로서 그들은 부르죠아 사회학에서 광범히 사용되고 있는 《정수 분자론(엘리트론)》—인민 대중이 아니라 선발된 몇몇 분자가 사회 발전을 결정한다는 《리론》에 기초한 《정치적 진화》의 도식을 조작하고 있다. 그들은 《후진국》 인민들이 《개명》하지 못 하였기 때문에 이 나라들에서 《정수 분자》의 역할은 다른 어느 나라에 비해서도 크고 만능적이라고 설교하면서 《정수 분자》, 즉 제국주의 주구들을 통해서 정치적 권력을 틀어 쥐는 것을 정당화하려 하고 있으며 또한 《정수 분자》의 의식에서 생긴 《진화》는 자연 발생적으로 사회에 민주주의적 제도를 가져 온다느니, 《봉건적 정수 분자》도 능히 《근대화》의 사명을 담당할 수 있다느니 하는 황당한 《발견》으로써 낡은 경제 제도의 혁명적 변혁의 필연성을 거부하려 하고 있다.

남조선에서 박 정희 도당이 《한국을 근대화시키기 위해서는 근대화를 추진시키는 리념과 지도 세력이 없어서는 안 된다》고 떠벌리면서 자신을 그 《지도 세력》으로 자처하고 있는 것도 구경은 이런 악랄한 목적을 추구하고 있는 것이다.

앞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반제 반봉건적 민주주의 혁명의 철저한 수행은 식민지 예속 국가 인민들의 가장 선차적인 혁명적 과업이다. 《정수 분자론》과 《후진국》 정치 제도의 자연 발생적 《진화》에 관한 《근대화론》자들의 잡소리는 혁명에 궐기하고 있는 인민들을 그 길에서 떼여 내려는 악랄한 시도이다. 정치적 분야에서의 신식민주의 정책은 어떠한 혁명적 변혁, 민주주의적 개혁의 실현도 저해하며 오직 제국주의 주구 세력에 의거해서 식민지 통치의 정치적 공간을 틀어 쥠으로써 식민지 지배를 계속하려는 데 귀착된다. 《후진국 근대화》의 정치적 측면과 관련된 부르죠아 사회학 리론의 본질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다.

경제적 분야에서: 경제는 제국주의자들이 신식민주의 정책을 통하여 틀어 쥐려고 하는 가장 기본적 분야이며 따라서 신식민주의 정책을 비호하는 사회학적 연구에서도 중심적 자리를 차지하

는 분야이다.

우선 이 분야에서는 《근대화론》자들이 《후진국》의 농촌 문제에 큰 관심을 돌리고 있는 것이 특징적이다. 《근대화론》자들은 토지 및 농민 문제도 역시 혁명을 저해하고 파괴하기 위한 문제의 일환으로서 제기한다.

그들의 주장에 의하면 《과도 사회》는 사회에 대한 대중의 불만이 극도에 달하는 시기인데 《근대화》를 성공적으로 추진시키자면 이 단계에 처한 나라들에서 사회의 기본 대중을 이루는 농민들의 반항과 토지에 대한 요구를 혁명에까지 이르지 않도록 사전에 조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반혁명적 목적으로부터 그들은 농민들을 기만하고 혁명을 저지시킬 수 있도록 《농지 개혁》을 실시할 것을 설교하고 있다. 미국 어용학자 스페이테이는 남조선에서 실시된 반동적 《농지 개혁》을 그러한 의미에서 《성공적》인 《농지 개혁》의 본보기라고 찬양하였다.

그들은 또한 《농지 개혁》 후에도 계속 장성할 수 있는 농민들의 불만을 무마하기 위하여 《지역 사회 개발》을 실현해야 한다고 력설하고 있다. 《지역 사회 개발론》이란 농촌에 학교, 병원, 도로 등을 건설하고 새 농기구, 새 영농법 등을 도입하여 근대적 문명과 거리가 먼 농민들에게 바로 자신의 생활 주변에서 그 어떤 《근대화》가 진행되고 있는듯한 인상을 주입하며 그렇게 함으로써 대중의 머리 속에서 현존 사회에 대한 혁명적 항거 정신을 배제하고 노예적 순종의 정신을 배양하려는 악랄한 방안이다. 이처럼 《후진국 근대화론》에서 농촌 문제는 농민 대중의 혁명적 진출을 저지시키기 위한 반혁명적 전략의 중요한 구성 부분으로 되고 있다.

경제적 분야에서 다음으로 지적해야 할 것은 《근대화론》이 제국주의자들의 《원조》를 합리화하는 새로운 도구로 되고 있다는 것이다.

《근대화론》자들은 미제의 《원조》에 대한 배격의 목소리가 높아 가고 《원조》의 침략적 본질을 기만하기가 더욱 더 어렵게 된 궁지의 해결책으로 《원조》를 《근대화》 문제와 결부시키고 있다. 그들은 《근대화》가 서방 문명의 도입을 의미하는 만큼 《후진국》이 외부로부터, 즉 서방으로부터 자본과 기술의 《원조》를 받지 않고 《근대화》에 착수한다면 큰 고통과 그로 인한 정치적 위기를 가져 오기 마련이며 따라서 《근대화》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고 《단정》하고 있다. 그러면서 일본과 로씨야에서의 근대화 과정이 인민에게 고통을 가져다 준 것도 주요하게는 외국의 원조 없이 진행된 후과였다고 《예증》하고 있다.

또한 《근대화론》자들은 미제의 《원조》가 배격을 받는 것을 지난 시기 그것이 《후진국의 근대화》라는 원대한 목적을 떠나서 그 때 그 때의 당면한 정치적 목적을 해결하며 특히 위기를 타개하는 방편으로 제공된 때문이라고 설명하면서 미국의 《원조》 정책은 《근대화》 전략의 구성 부분으로 되여야만 성공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피《원조국》 인민들의 불만을 제거할 길을 이렇게 《탐구》해 낸 신식민주의 리론가들은 《근대화》 정책의 유기적 구성 부분으로서 《원조》 정책을 재편성할 구체적 방도를 각방으로 고안하고 있다. 그러나 제국주의 《원조》가 정치의 수단으로부터 《후진국 근대화》를 위한 참된 원조로 변하며 그 성격도 변화된다고 하는 《근대화론》자들의 허울 좋은 《명제》로는 제국주의 자체의 침략적 본성에 의하여 규정되는 제국주의 《원조》의 침략적 본질을 결코 은폐할 수 없다.

《후진국》에 대한 각종 형태의 《원조》의 본질은 무엇보다도 먼저 그것이 《후진국》들에 대한 전면적인, 즉 정치, 경제, 군사적 예속과 지배의 수단으로 복무하고 있는 데 있다. 그것은 원조가 아니라 아세아, 아프리카 및 라틴 아메리카에서 제국주의적 지반을 유지하기 위한 군사 정치적 투자로서 제국주의

지배의 수단이며 강도적 략탈의 수단이다. 이른바 《원조》로서 제공되는 제국주의 국가들의 지출에 비하여 《후진국》들로부터 제국주의 독점체들의 금고에 흘러 들어 가는 수입이 엄청나게 많은 그 엄연한 사실이 그것을 명백히 말하여 주고 있다. 《원조》를 《근대화》에 결부시키려는 시도는 파산 당하고 있는 《원조》 정책을 신식민주의 정책의 기본으로 계속 지탱해 보려는 교활한 술책에 불과하다.

끝으로 사상 문화 분야에서: 《근대화론》자들은 《근대화》의 성공이 그에 대한 대중의 정신 도덕적 지지를 얻을 때에만 가능하며 따라서 그것이 필수적인 전제로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이것은 직접적 통치를 할 수 없게 된 신식민주의의 조건에서 제국주의자들이 사상 문화적 침략에 보다 큰 의의를 부여하게 된 것과 관련되여 있다.

신식민주의 리론가들이 사상 문화적 침략을 강화할 수 있는 온갖 가능성을 《탐구》함에 있어서 특징적인 것은 《민족주의》의 간판을 《근대화론》의 구성 부분으로 전화시키려는 시도이다.

현시기 아세아, 아프리카에서 민족주의는 계급적 제약성으로 말미암아 일정한 제한성을 가지고 있지만 그 반제적 립장은 대중을 반제 투쟁에 동원함에 있어서 긍정적인 역할을 놀고 있다. 때문에 미 제국주의자들은 아이젠하워, 덜레스 집권 시기까지만 해도 민족주의를 위험시 또는 적대시하였다. 그런데 《근대화론》자들은 교활하게도 식민지 예속 국가 및 신생 독립 국가 인민들 속에서 영향력이 큰 민족주의를 《근대화론》과 결합시켜 침략의 도구로 만들 방도를 찾아 내였다.

그들은 《전통 사회》로부터 《근대 사회》에로 이행하는 전환기에 있어서 민족주의라는 심리적 요인이 경제적 요인보다 더 큰 발전의 동력으로 된다는 《리론》을 제기하고 있다. 로스토우는 그 실례로서 로씨야의 근대화를 촉진시킨 동인은 크림 전쟁과 로일 전쟁에서의 패배로 하여 생긴 민족적 심리이며 《명치 유신》 이후에 일어 난 일본의 근대화 과정은 도꾸가와 막부 말기에 일본이 미국의 위협 앞에 굴복한 데 대한 민족주의적 반발심에 의해서 촉진되였다고 설명하고 있다.

이러한 터무니 없는 례증으로써 그 자들은 무엇을 노리고 있는가? 그들의 관심은 민족주의란 제국주의를 반대할 때가 아니라 바로 《근대화》에 기여할 때 유용하다는 허위적인 《정의》를 조작하려는 데 있는 것이다. 그들의 《정의》에 의하면 민족주의에는 보수적 민족주의도 있고 《근대화》를 지향하는 민족주의도 있고 기타 여러 가지 변종들이 있는데 다만 《근대화》에 복무하는 민족주의만이 《좋은》 민족주의라고 한다. 박정희 도당이 《근대화》라는 구호와 함께 《민족 민주주의》니 《민족 주체 의식》이니 하는 기만적인 구호를 들고 나온 것도 바로 여기로부터 출발한 것이다.

이상은 신식민주의의 사상 리론적 도구로 복무하는 《근대화론》의 본질과 그 몇 가지 특징에 대한 간단한 고찰이다.

미제에 의하여 조작된 《근대화론》이 추구하는 주요한 현실적인 정치적 목적을 요략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로, 《근대화론》은 아세아, 아프리카, 라틴 아메리카 인민들의 당면하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가 이 지역 인민들과 제국주의 간의 모순을 해결하는 데 있다는 것을 부정하는 《론거》로 복무하고 있다.

즉 《근대화론》은 아세아, 아프리카, 라틴 아메리카 인민들이 뒤떨어진 원인은 제국주의 통치의 후과가 아니라 빈곤을 낳게 하는 일련의 경제적 요인과 관련되며 따라서 이 지역 인민들의 당면 과업은 제국주의를 반대하는 투쟁이 아니라 《후진성》을 극복하기 위한 대책을 취하는 데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근대화론》자들은 시대의 근본 문제는 바로 아세아, 아프리카, 라틴 아메리카에서 빈곤을 극복하는 문제, 인구 1 인당 소득 지표를 제고하는 문제이며 또

한 세계적으로 공업이 앞선 나라들아 공업이 뒤떨어진 나라들을 돕는 문제라고 력설하고 있다. 이렇게 함으로써 그들은 현시기 식민지 문제의 본질을 민족 해방을 지향하는 혁명적 인민 대 제국주의(신구 식민주의)의 문제로부터 생산 기술 면에서 본 《후진국》 대 《선진국》의 문제로 슬쩍 바꾸어 놓고 있다.

이와 같이 《근대화론》은 아세아, 아프리카, 라틴 아메리카 인민들이 해방을 실현하고 민족적 독립과 나라의 번영을 실현할 수 있는 유일하게 정당한 길인 반제 민족 해방 혁명의 길로 나아가는 것을 저해하고 그들에게 제국주의의 올가미를 들씌우는 데 복무하고 있다.

다음으로 《근대화론》은 아세아, 아프리카, 라틴 아메리카 인민들의 진정한 사회적 진보에로의 길을 가로막는 가장 악랄한 《반공》의 도구로 복무하고 있다.

이 지역 인민들 앞에는 발전의 두 길이 놓여 있는바 사회주의에로의 발전의 길만이 그들에게 참된 자유와 독립과 번영을 약속하여 준다. 《근대화론》은 이 엄연한 진리를 말살하기 위하여 온갖 허구와 날조로 사회주의를 비방 외곡하는 한편 《민주주의적 궤도》 우에서의 자본주의적 《근대화》만이 발전의 유일한 길이라고 떠들고 있다. 지어 어떤 자들은 미국과 같이 《근대화》의 《최고 단계》에 도달한 나라는 《맑스가 말하는 공산주의로 접근》한 나라라고 파렴치하게 뇌까리고 있으며 현시기의 사회주의 국가들은 《근대화》 과정이 《병'적》으로 진행된 사회이므로 사회적 진보에서 장래성을 못 가진다고 떠벌리고 있다. 이와 같이 《근대화론》은 부르죠아 《반공》 리론의 최신의 변종으로, 가장 교활하고 음흉하게 설교되는 《승미》 사상으로 등장하고 있다.

끝으로 《근대화론》자들은 제국주의자들이 실시하고 있는 신식민주의 정책이 그 어떤 사회 발전의 합법칙적 요구에 기초하고 있으며 또한 그것이 그 어떤 《세계 파적》 기초에 서 있는 것처럼 날조함으로써 아세아, 아프리카, 라틴 아메리카 인민들에게 신식민주의가 장래성을 가지고 있는듯이 그릇되게 인식시키려고 책동하고 있다.

미 제국주의자들은 《근대화》를 제창함으로써 자신을 마치도 아세아, 아프리카, 라틴 아메리카 국가들의 경제 문화적 후진성을 극복하는 데 기여하는 적극적인 《조력자》로 가장해 나서고 있으며 그 주구들은 《근대화》를 운운함으로써 자신을 마치도 나라의 후진성을 극복하기 위하여 그 어떤 민족적 과업을 해결하는 것처럼 가장해 나서고 있다. 이 모든 것은 철두철미 인민들에 대한 기만이며 우롱이다. 제국주의 상전에게는 《후진국》 인민들의 진정한 진보의 길을 가로막고 그 나라들에 대한 식민주의적 지배를 유지하게 하는 《담보》를 주고 그 주구들에게는 나라를 제국주의자들에게 내말기는 매국적 본색을 은폐하는 《담보》를 주는 거기에 바로 《근대화론》의 침략적, 매국적 본질이 있다.

이상에서 본 바와 같이 《근대화론》은 제국주의 식민지 체계의 가장 심각한 위기의 반영으로서 미제에게 복무하는 철저한 침략 사상이며 교활한 식민주의 사상이다.

문답 학습

《주한 미 국제 개발처》의 정체

최근 존슨은 미국 국회에 제출한 《대외 원조 교서》에서 《우리에게 적대적이 아니며 자조하기를 결심한 확고한 증거를 보인 국가들에 원조를 집중적으로 제공》하는 방침에 따라 《국제 개발 기금》의 90%를 《한국》을 포함한 저들의 추종 국가들에 주게 될 것이라고 떠벌리였다.

워싱톤 지배층은 이렇게 함으로써 파탄 몰락된 남조선 경제를 개발하는 데 마치 관심이라도 가지고 있는듯 한 환상을 조성하려 하고 있다. 자루 속에 든 송곳은 감출 수 없듯이 그 어떠한 술책으로도 미국 《국제 개발 원조》의 침략적 본질을 은폐할 수는 없다.

다 아는 바와 같이 미 제국주의자들은 2차 대전 후 세계 제패의 야망을 실현하기 위한 도구로 《원조》 정책에 큰 의의를 부여하여 왔다.

이러한 《원조》 정책의 집행 기구는 워싱톤에 있는 《국제 개발국》이다. 이 기구를 통하여 미제는 후진 국가들에 대한 략탈과 침략을 감행하고 있다.

미제는 저들의 《원조 계획》을 현지에서 직접 실현하기 위하여 《국제 개발국》의 직속 기관으로서 세계 도처에 76개의 《원조 계획》 집행 기구를 설치했다.

오늘 남조선에 꾸려 놓은 《주한 미 국제 개발처》도 바로 그 중의 하나이다.

8.15 후 남조선을 강점한 미제는 《대외 원조》라는 미명 하에 1948년 12월 10일 《한미 원조 협정》을 체결하고 그를 현지에서 실현하는 《주한 미 경제 협조처 사절단》을 설치하였다. 그 후 1952년 5월 24일 《한 미》 간에 체결된 《마이어 협정》에 의하여 《유엔군 통일 사령부》의 통제 하에 있던 《원조》 기구는 《주한 미국 대사》의 수중으로 이관되였다. 1964년 말 미제는 후진국 《개발》에 힘쓴다는 미명 하에 《주한 미 경제 협조처》를 《주한 미 국제 개발처》로 개편하였다. 이러한 기구의 개편은 한 보자기 속의 독버섯을 다른 보자기에 옮겨 싼데 불과한 것이다.

오늘 《주한 미 국제 개발처》는 《주한 미 대사관》에 소속되여 한편으로는 그의 정치적인 통제를 받으며 다른 편으로는 미국 대외 《원조》 기관의 본거지인 《국제 개발국》 직속 기관으로서 그의 계획에 따라 움직인다.

미제의 완전한 식민지로 전락된 남조선에서 《주한 미 국제 개발처》는 다른 나라에서보다 더욱 침략적이며 략탈적인 성격을 띠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미제는 남조선에 《주한 미 국제 개발처》를 조작함으로써 첫째로, 남조선에 주는 소위 《원조》 자금이 철저하게 저들의 군사적 침략과 경제적 략탈에 리용되도록 하며, 둘째로, 남조선을 미국의 과잉 상품과 잉여 농산물을 처리하는 판매 시장으로 만들어 자국의 경제적 위기를 완화하려 하며, 세째로, 《원조》라는 미끼로 남조선 경제에 대한 지배와 통제를 강화하여 그것을 저들의 군사적 부속물로 전락시키며 풍부한 지하 자원

을 략탈하려는 목적을 추구하고 있다.

《주한 미 국제 개발처》는 남조선의 모든 경제 기관들을 지휘 감독할 수 있는 방대한 기구와 4,000여 명의 성원(미국인 3,000 명, 조선인 1,000 명)을 가지고 있다.

《주한 미 국제 개발처》는 남조선의 각 도시들과 중요 항구들에 지부를 가지고 있으며 괴뢰 정부의 각 경제 부서들과 은행, 《국영 기업체》들에 미국인 《고문》들을 배치하고 있다. 이들은 《조언자》, 《협조자》라는 가면을 쓰고 실제에 있어서는 《원조》를 미끼로 이러저러한 명령 지시들을 하달하며 심지어 개별적인 기업체들의 운영에 이르기까지 전면적으로 간섭하면서 괴뢰 정부의 경제 기관과 중요 기업소들을 일상적으로 통제 감독하고 있다.

《주한 미 국제 개발처》는 특히 《한미 경제 협력 위원회》를 통하여 경제적 지배와 략탈적 목적을 실현하고 있다.

소위 《한미 경제 협력 위원회》는 형식 상 《주한 미 국제 개발처장》을 위시한 6 명의 미국인과 그와 같은 수의 괴뢰 정부 파리들로 구성되여 있다. 그러나 《동일한 자격》으로 참가하고 있는 괴뢰 정부 대표들은 사실 상 아무런 자주성도 없으며 모든 문제는 미제에 의하여 결정되고 처리된다. 이에 대하여 남조선 출판물들도 《심각한 경제적 위기를 배경으로 조직된 이 기구는 과거 실질적으로 한국 경제를 조직 유지하던 한미 합동 경제 위원회와 같은 성격을 띠고 있으며 재정 및 물동 계획은 물론이고 정부 예산의 편성, 집행 그리고 산업 및 금융 면에까지 커다란 영향력을 미치게 될 것이므로 한국 측으로서는 독자적인 정책이나 자주적인 계획을 스스로 수립할 수 있는 권한을 상실 당하고 있다》(《한국 일보》)라고 썼다.

《한미 경제 협력 위원회》는 사실 상 《주한 미 국제 개발처》가 괴뢰 정부에 모든 명령과 지시를 주고 경제 정책의 방향을 주며 그 집행을 지휘 감독하기 위한 한 개의 상설 기관이다.

《한미 경제 협력 위원회》와 《고문》들을 통한 《주한 미 국제 개발처》의 감독 통제권은 《원조》를 미끼로 괴뢰 정부와 체결한 60여 종의 예속적인 《협정》과 《조약》들에 의하여 더욱 《합법화》되였다.

그것은 《한미 경제 조정 협정》에 의하여 《주한 미 국제 개발처장》이 《대한 민국의 경제 및 계획의 모든 사항을 검토》하며 《필요한 정보》를 마음 대로 요구할 수 있도록 되여 있는 데서 단적으로 찾아 볼 수 있다.

또한 《한미 경제 및 기술 원조 협정》에 의하여 《주한 미 국제 개발처》는 괴뢰 정부의 모든 경제 계획 및 사업에 관한 기록을 제약 없이 계속 시찰하고 검토하게 되여 있다.

《주한 미 국제 개발처》는 남조선의 공업, 농업, 재정, 무역 등 모든 것을 총체적으로 지휘 감독하고 있다.

우선 《주한 미 국제 개발처》는 남조선의 중요 공업 원자재를 독점하고 있으면서 《원조》 물자의 품종, 수량, 도입 시기를 그 때마다 결정하고 있다.

《원조》 물자의 도입에서 그들은 남조선 공업의 수요나 인민들의 수요로부터 출발하는 것이 아니라 미국 독점 자본가들의 파잉 상품 재고와 미국 경제의 현 실정에 적합하게 그 품종과 수량을 조절하고 있다.

해방 후 1964년 말까지 미국이 남조선에 준 37억 딸라의 《원조》 물자 중에서 원자재와 소비재의 비중은 76%를 차지한 데 반하여 시설재는 24%에 불과하다. 이 시설재마저 대부분이 군사

시설 부문에 돌려지고 《민수용》은 6%를 차지하고 있을 뿐이다. 그런데 이러한 《원조》 물자를 미제는 국제 시장 가격보다 15~30%나 더 비싼 가격으로 강매하고 있다.

오늘 미제가 남조선에서 실시하는 식민지 공업 정책은 중공업 시설을 의식적으로 파괴하며 군사화 정책에 복종시킴으로써 민족 공업 발전의 자립성을 박탈하고 재생산 과정을 교란시키고 있다.

이러한 결과에 오늘 남조선의 전반적인 기업 운영 조건이 악화되고 기업 활동이 심히 위축되고 있다는 것은 널리 알려져 있는 사실이다.

특히 남조선 공업 기업체 수의 97%라는 압도적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중소 기업의 20%는 완전 휴업 상태에 있으며 나머지 기업체들도 자금난, 원료난, 판로난 등으로 46%가 제대로 가동하지 못 하고 있다.

다음으로 《주한 미 국제 개발처》는 남조선 농촌 경리의 전반적 부문을 틀어 쥐고 괴뢰 정부에 방향과 지시를 하달하고 그 집행을 통제 감독한다.

미제는 《주한 미 국제 개발처》를 통하여 남조선 농업의 기본 생산 수단인 토지의 축소 및 그의 황폐화를 촉진시키고 있다.

《주한 미 국제 개발처》는 《한미 경제 협력 위원회》를 통하여 매년 남조선 농민들로부터 수탈한 량곡 중 약 130만 석을 군량미에 충당하며 그 밖에 수십만 톤의 농산물, 림산물, 축산물 및 고공품들을 《군납》으로 정발하고 있다.

《주한 미 국제 개발처》는 남조선 농업을 파괴하기 위하여 계통적으로 농업에 대한 투자를 억제하고 있으며 《곡가 조절미》, 《구호미》, 《대여 방출미》 등의 명목으로 미국 잉여 량곡을 도입함으로써 남조선 시장을 교란하며 농업 생산을 정체시키고 남조선 농업을 미제에 철저히 예속시키고 있다. 결과 오늘 남조선에서는 8.15 해방 전에 비하여 경지 면적은 20만 정보, 파종 면적은 근 40만 정보나 축소되였으며 농지의 70%가 산성화되여 알곡 생산량은 해방 전에 비하여 3분의 1이나 감소되였다.

《주한 미 국제 개발처》는 괴뢰 정부의 재정 예산에 대해서도 통제 감독하고 있다.

예산은 인민들의 생활과 국가 정책을 집행하는 데 큰 영향을 주며 국가의 자주성 문제와 직접적으로 관련된다. 그런데 《주한 미 국제 개발처》는 《원조》 물자의 판매 대금인 《대충 자금》을 괴뢰 정부의 재정 예산에 재투입함으로써 (괴뢰 정부 예산의 40~50%) 괴뢰 정부의 재정 예산의 수입과 지출에 대한 일체 권한을 자기들의 수중에 장악하고 있다.

《주한 미 국제 개발처》는 《국회》에서 《예산안》을 심의하기 전에 괴뢰 정부로부터 《예산》 편성에 대한 일체 자료를 보고 받고 그 《예산》이 본국의 《대외 원조》 정책과 식민지 《재정 안정 계획》, 《긴축 정책》 등에 맞게 되였는가를 검토한 후에 괴뢰 국회에 제출하여 《심의》할 것을 강요한다. 이러한 절차로 괴뢰 국회에서 《의결》된 《예산》도 저들에게 필요할 때에는 언제든지 그 자금 지출을 조절할 수 있다.

이리 하여 오늘 남조선에서 재정 및 금융 정책의 실제적인 립안자이며 통제자는 바로 《주한 미 국제 개발처》이며 괴뢰 정부의 은행 기구들은 그 《대행 기관》에 불과하다.

《주한 미 국제 개발처》는 또한 《한미 경제 협력 위원회》를 통하여 외화 사용에 대한 통제를 강화함으로써 남조선

무역을 지배하고 있다.

괴뢰 정부는 《주한 미 국제 개발처》의 동의와 승인이 없이는 1 딸라의 외화도, 1 톤의 《원조》 물자도 마음 대로 쓸 수 없으며 일체 외국 상품의 수입이나 《원조》 물자에 의하여 가공된 상품의 수출은 《주한 미 국제 개발처》가 작성한 수출 계획에 의해서만 진행되고 있다. 그리 하여 오늘 남조선 대외 무역은 완전한 식민지 교역으로 미제의 과잉 상품 강매의 수단으로 전락되였다. 이것은 현재 괴뢰 정부의 20여 개 수출 대상국과 30여 개 수입 대상국 중에서 미제가 남조선 년간 총수입의 80%, 수출의 약 30%를 차지하고 있다는 데서 찾아 볼 수 있다.

오늘 괴뢰 정부의 각 경제 부서들과 경제 기관들은 사실 상 《주한 미 국제 개발처》가 작성한 《경제 정책》을 집행하는 허수아비에 불과하다. 이에 대하여 한 일본 잡지가 《한국 정부는 다만 원조 자금의 분배 위원회에 지나지 않는다. 주한 미 국제 개발처가 한국의 막뒤에 숨어 있는 정부》(《쥬오고론》)라고 한 것은 우연한 사실이 아니다.

이상에서 본 바와 같이 미제는 《주한 미 국제 개발처》를 통해서 남조선의 전반적인 경제 명역을 자기들의 지배와 예속에서 벗어 날 수 없게 철저히 장악하고 있다.

모든 사실은 미제 침략군이 남조선을 강점하고 《주한 미 국제 개발처》가 중요 경제 명맥을 틀어 쥐고 있는 한 남조선 경제는 식민지 예속과 략탈에서 결코 벗어 날 수 없으며 따라서 경제의 자립도, 자유로운 발전도 있을 수 없다는 것을 보여 준다.

남조선 인민들이 오늘의 비참한 처지에서 벗어 나기 위하여서는 모든 불행과 고통의 화근인 미군을 비롯한 《주한 미 대사관》, 《주한 미 국제 개발처》 등 일체 미제 침략 기구들을 몰아 내며 박정희 괴뢰 정권을 타도하고 조국의 자주 통일을 실현하기 위한 반미 구국 투쟁에 한사람 같이 떨쳐 나서야 한다.

박 노 욱

독자들에게

《근로자》는 1966년 4 호부터 월간으로 발행하게 되였음을 알립니다.

《근로자》 편집국

근로자 제 4 호 (루계 290 호)

편집 위원회

발행소 • 근 로 자 사 주소 • 평양시 중구역 경상동
인쇄소 • 평양 종합 인쇄 공장
인 쇄 • 1966년 3월 17일 발행 • 1966년 3월 20일

ㄱ—6355 값 50 전

전 세계 로동자들은 단결하라!

5 호

평양 근로자사 1966

근로자

제5호 (291)

전 세계 로동자들은 단결하라!

조선 로동당 중앙 위원회 기관지

차 례

혁명에서의 청년 교양 문제

홍 순 권

1

청년 교양 문제—이것은 혁명과 민족의 장래 운명에 관련되는 중요한 문제의 하나이다.

김 일성 동지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어느 민족을 막론하고 그 민족의 장래는 청년들이 어떻게 교양되고 훈련되고 준비되는가에 많이 달려 있다고 말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청년들에 대한 교양 문제는 어느 시대, 어느 민족에 있어서나 가장 중요한 문제의 하나로 되여 있었다》(김 일성 선집 제 2 권, 283 페지).

이 사상은 청년 교양 문제가 매개 민족의 장래를 위하여 언제나 심각한 문제로 제기된다는 것을 가르치고 있다.

청년 교양의 목적과 내용은 소여 사회 제도의 성격에 의하여 규정된다.

력사적으로 착취 계급은 청년 교양을 자기들의 착취의 목적에 리용하였다.

레닌은 자본주의 하에서 《로동자와 농민의 젊은 세대는 이를 교육하였다기보다는 오히려 바로 그 부르죠아지의 리익을 위하여 훈련》하였으며 《부르죠아지에게 리윤을 제공할 수 있으며 동시에 그들의 평온과 안일을 방해하지 않는 유용한 종복이 되도록 교육》(레닌 전집 제 31 권, 341 페지 참조)하였다고 지적하였다.

오직 공산주의자들만이 청년 교양 문제를 사회적 진보를 위한 필수적 과업으로 제기하고 이 문제를 전면적으로 해결할 방침을 내세운다. 그것은 혁명과 새 사회의 건설에서 청년 세대들이 차지하는 위치와 역할에 대한 높은 평가로부터 출발하고 있다.

청년들은 사회 발전의 선진 투사들이며 사회의 앞날을 대표하는 역군들이며 새 사회의 건설에 철저한 리해 관계를 가지고 있는 생기 있고 적극적인 세대들이다.

그러나 청년들이 사회 발전에서 진실로 큰 역할을 하는가 못 하는가 하는 것은 그들이 누구의 령도를 어떻게 받으며 어떻게 교양되고 훈련되는가에 크게 달려 있다. 청년들은 오직 옳은 령도와 교양을 받을 때만이 자기들의 훌륭한 자질을 전면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으며 혁명과 민족의 장래 운명을 두 어깨에 걸머지고 나아갈 믿음직한 역군으로 자라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공산주의자들은 청년들을 선진적인 사상으로 교양하는 것을 자체 사업의 중요한 부분으로, 책임적인 사업으로 간주하고 있다. 실로 공산주의자들에게 있어서 청년 교양 문제는 세대 간의 계승적 련계를 보장하는 조건으로서 뿐 아니라 혁명을 계속하려는 혁명적 관점과 립장으로부터 필연적으로 제기되는 중요한 문제이다. 공산주의자들에게 있어서 청년 교양은 이처럼 근본적인 문제로 된다.

공산주의자들은 사회주의 혁명을 성과적으로 수행하며 공산주의에로 갈 때까지, 말하자면 자기들의 세계사적 사

명을 완수할 때까지 혁명을 중단하지 않고 종국적 승리에로 계속 나아가야 한다.

우리 당은 조국 강토에서 미제를 몰아 내고 조국의 통일을 실현하며 반제 민족 해방 혁명과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건설해야 하며 동시에 국제 공산주의 운동의 한 부대로서 세계 혁명의 종국적 승리를 위하여 투쟁할 의무를 지니고 있다.

이 길은 매우 간고하며 또 오랜 력사적 시기에 걸쳐 여러 세대들의 투쟁을 요구할 것이다. 《우리는 자기 세대에 혁명 위업을 완수하지 못 하면 그것을 우리 후대들에게 물려 주어 그들의 대에 가서라도 완성하도록 해야 한다》(김 일성, 《우리의 인민 군대는 로동 계급의 군대, 혁명의 군대이다. 계급적 정치 교양 사업을 계속 강화하여야 한다》). 참으로 청년 교양 문제는 공산주의자들 앞에 제기되는 어렵고도 책임적인 사업으로 된다.

공산주의자들의 혁명 위업은 순탄한 과정이 아니라 치렬한 계급 투쟁을 통해서만 실현될 수 있다. 남반부에 둥지를 틀고 있는 미제와 그 앞잡이들은 북반부의 사회주의 전취물을 파괴하려고 끊임 없이 반혁명적 책동을 감행하고 있다. 또한 각국의 반동들은 사회주의를 반대하여 각 방면으로 음흉하게 책동하면서 특히 혁명적 수양과 단련이 부족한 젊은 세대들에게 기대를 걸고 그들을 사상적으로 타락시키려 하고 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만일 자라나는 젊은 세대들에 대한 교양을 소홀히 한다면 그들은 결코 선배들의 혁명 위업을 옳게 계승 발전시킬 수 없을 것이다.

청년들을 옳게 교양하는 문제는 그들이 사회주의 건설에서 주력군으로 된다는 데서 더욱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우리 혁명이 장기화됨에 따라 공화국 북반부에서는 혁명을 담당 수행하여야 할 세대가 점차 바뀌여지고 있다. 과거 반제 반봉건 민주 혁명과 사회주의 혁명을 수행하여 이 땅에 사회주의, 공산주의 길을 개척한 사람들은 벌써 늙은 세대로 되여 가고 새 세대들이 그들의 뒤를 이어 사회주의 건설의 주력군으로 등장하고 있다. 혁명의 간고성을 직접 체험하지 못 했고 계급적 원쑤들의 가혹한 착취와 압박을 겪어 보지 못한 새 세대들에 의하여 우리 혁명의 장래가 좌우되게 된 사실은 혁명 위업의 계승자인 청년들을 옳게 교양하며 준비시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절실한 문제인가를 말하여 준다. 그들을 더 훌륭하게 교양하고 혁명의 믿음직한 역군으로 키우는 것은 우리 조국의 륭성 발전과 후손만대의 행복을 위한 담보이다.

2

우리 당은 혁명 발전의 매 시기마다 청년 교양의 내용과 방법을 명시하였다. 당이 제시한 청년 교양의 총적 방향은 청년들을 당과 혁명에 무한히 충직하고 지덕체가 겸비된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자로 육성하는 것이다. 지덕체 교양은 우리 혁명 발전의 현실적 요구일 뿐만 아니라 조국의 장래와 관련되여 제기되는 청년 교양의 근본 문제이다.

현 시기 청년 교양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청년들 속에서 사회주의적 애국주의 교양을 강화하는 것이다.

계급 해방을 위한 공산주의자들의 투쟁은 결코 자기 조국의 륭성 발전을 위한 투쟁과 동떨어져 있지 않다. 진정으로 근로하는 계급의 해방을 원하는 사람은 조국이 그 어떤 외래 제국주의자들의 발'굽 밑에 놓이게 되는 것을 허용하지 않을 것이며 인민 대중이 착취 계

급의 억압에 시달리는 것을 결코 허용하지 않을 것이다. 착취 없고 압박 없는 사회주의 사회의 건설을 위하여, 조국의 륭성 발전을 위하여 투쟁하는 것은 공산주의자들의 숭고한 임무이다. 공산주의자는 철저한 애국자이며 자기 조국에 대한 열렬한 사랑은 공산주의자들의 기본 징표의 하나이다. 우리는 청년들을 지덕체가 겸비된 혁명의 계승자로 교양 육성함에 있어서 반드시 사회주의적 애국주의 교양에 깊은 주목을 돌려야 한다.

청년들은 사회주의적 애국주의 사상으로 튼튼히 무장할 때에만 조국의 미래를 위하여 자기의 수준을 높이기에 더욱 힘쓰게 되고 고상한 도덕 품성을 소유하기에 노력하게 되며 로동과 국방을 위하여 체력을 단련하기에 정열을 기울이게 될 것이다.

청년들을 사회주의적 애국주의 사상으로 무장시키는 문제는 그들의 세대적인 특성으로부터도 매우 중요하다.

우리의 많은 청년들은 나라 없는 설움을 겪어 보지 못 하였으며 혁명 투쟁의 간고한 시련도 체험해 보지 못 하였다.

청년들에 대한 사회주의적 애국주의 교양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그들을 당과 수령에 대한 충실성으로 교양하는 것이다. 우리의 청년들은 모두가 당과 수령의 품속에서 행복을 찾았다. 당과 수령의 정확한 령도로 하여 우리 조국은 오늘과 같이 륭성 발전할 수 있게 되였으며 청년들의 행복한 미래가 약속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 청년들을 자기 조국과 인민의 운명을 걸머지고 있는 당과 수령을 위하여 모든 것을 바쳐 싸우도록 하며 그들에게 당과 수령의 전사된 높은 긍지를 간직하도록 하는 것은 사회주의적 애국주의 교양에서 무엇보다 중요하다.

당과 수령에 대한 무한한 충실성, 사회주의 조국에 대한 열렬한 사랑은 높은 계급 의식에 토대하여서만 옳게 발양될 수 있다. 따라서 계급 교양을 기본으로 하는 공산주의 교양, 혁명 전통 교양을 강화함으로써 우리의 청년들이 높은 계급적 각오와 백절불굴의 투지를 가지고 지구 상에서 제국주의를 완전히 소멸할 때까지 혁명을 계속하며 사회주의 전취물을 끝까지 고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와 함께 직업과 로동, 공동 재산을 사랑하는 정신을 높이 발양하도록 해야 하며 나라 살림살이의 참된 주인으로 되게 하여야 한다.

청년들을 전면적으로 발전된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자로 교양 육성함에 있어서 또한 중요하게 관심을 돌려야 할 문제는 그들에 대한 공산주의 도덕 교양과 문화 교양이다.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건설하는 사람들은 응당 높은 지식과 고상한 도덕 품성을 소유하여야 한다. 그런데 청년 시절에는 세계관과 인격이 형성되고 품성이 이룩되는 시기인 것 만큼 발전된 문화와 고상한 도덕을 소유하는 문제가 특별히 중요하게 제기된다. 만일 청년 세대들 속에서 공산주의적 품성을 부단히 배양하지 않거나 그들에게 넓은 지식을 주지 않는다면 그들은 낡은 사상과 낡은 생활 습성에 물젖을 수 있으며 그리 하여 오늘 우리 사회의 훌륭한 건설자로 자라날 수 없으며 공산주의를 건설하며 그 사회에서 살게 될 세대로서의 역할을 다할 수 없다.

청년들을 고상한 도덕 품성을 소유한 인간으로 교양 육성함에 있어서 그들에게 공산주의 도덕에 관한 과학적인 개념과 신념을 주는 것이 중요하다. 모든 도덕적 개념과 신념이 자동적으로 실천적 행동으로 옮겨지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한 견해와 신념을 가지게 하지 않고서는 옳은 행동을 원만히 하게 할 수

없다. 사람들은 옳은 견해와 신념을 가지고 도덕적 규범을 준수하기 위하여 의식적으로 노력하는 과정에서만 고상한 도덕 품성의 소유자로 될 수 있다.

때문에 공산주의 도덕 교양에서 중요한 문제의 하나는 청년들 속에서 조직과 집단을 사랑하고 동지를 사랑하는 집단주의 정신과 로동에 대한 공산주의적 태도를 배양하며 인간성과 문화성을 높이게 하며 례의 범절을 자각적으로 지키도록 도덕적인 견해와 신념을 형성시켜 줌으로써 그들이 신천 생활에서 혁명 투사로서의 역할을 원만히 수행하게 하여야 한다. 한편 청년들 속에서 낡은 도덕 유습의 영향 하에 발로되는 비문화적이며 비도덕적인 일체 낡은 것, 부정적인 것을 증오하는 정신으로 교양함으로써만 그들의 공산주의 도덕 품성을 발전시킬 수 있다.

동시에 문화 교양을 통하여 청년들에게 새 인간으로 형성되는 데 필요한 풍부한 지식을 주어야 한다. 풍부한 지식은 청년들의 사상 의식과 문화성, 인간성을 높이며 훌륭한 도덕 풍모를 배양하는 전제로 된다. 공산주의적 도덕 생활 양식은 모두가 높은 의식에 기초하고 있으며 또 그것이 없이는 공산주의 도덕과 생활 양식의 본질을 리해할 수 없다. 바로 이런 의미에서 청년들에 대한 사상 교양과 문화 교양이 불가분리적으로 련관되여 있다.

청년들에 대한 문화 교양에서 중요한 것은 일반 지식과 기술 수준을 높이는 것이다. 이것이 없이는 청년들을 우리 혁명의 현단계의 기본 과업인 전면적인 기술, 문화 혁명에 성과적으로 준비시킬 수 없다.

청년들은 일반 및 기술 지식과 더불어 인류가 이룩한 현대 과학 지식의 부를 가지고 자기의 머리를 풍부하게 만들어야 한다. 우리는 청년들에게 우리 나라의 력사와 문화에 대한 풍부한 지식을 소유하도록 할 뿐 아니라 더 나아가서 인류가 달성한 자연 및 사회 과학, 문학 예술 지식, 세계 여러 나라의 력사와 문화들에 대한 지식을 소유하도록 하여야 한다. 청년들이 이러한 다방면적인 지식과 상식을 가져야만 그들이 사회주의 건설의 모든 초소에서 훌륭한 일'군으로 일할 수 있으며 기술 혁명, 문화 혁명 수행에 성과적으로 이바지할 수 있다.

혁명 사업을 훌륭히 수행하며 그것을 계속 추진시키기 위해서는 혁명적인 사상 의식과 선진적인 과학 지식을 소유함과 동시에 튼튼한 체력을 가져야 한다.

청년들을 조국과 국방에 원만히 준비시키기 위해서는 체육 사업을 대중화하여 생산 및 교육과 결합된 체육을 발전시키며 특히 체육 사업이 공산주의 교양에 철저히 복무하도록 조직하여야 한다.

이리 하여 우리의 청년들을 모두 다 당'적 사상 체계로, 로동 계급의 혁명 정신으로 무장시키고 지덕체가 겸비된 유능한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자로 육성하여야 한다.

3

청년들은 다른 년령기의 사람들과는 구별되는 일련의 년령-심리적 특성을 가지고 있다. **《생기발랄하고 원기 왕성하고 용감하며 두려움과 피곤을 모르는 것은 청년들의 특징이다. 청년들은 새것에 민감하고 진취성이 강하며 정의와 진리를 사랑하며 그것을 위해서는 물불을 가리지 않고 싸운다》** (김 일성, 《사회주의 로동 청년 동맹의 과업에 대하여》).

청년 교양이란 그들의 이러한 훌륭한 자질을 전면적으로 발양시켜 자연과 사회를 개조하는 물질적 력량으로 되게

하기 위한 사업이다. 청년들에 대한 교양은 이에 적응한 방법으로 진행되지 않으면 안 된다.

청년들의 심리적 특성에서 중요한 것은 우선 그들이 새것에 민감한 것이다. 이것은 청춘 시절이 정신 세계에서의 추상력의 비상한 발전기이고 육체적으로, 생리적으로 왕성한 발육기에 처하여 있다는 사정과 많이 관련된다. 세계관의 형성기에 처한 청년들은 보수적이고 침체적인 것을 배격하고 아름답고 새로운 것, 고상한 것을 지향하며 무엇이진 남보다 먼저 빨리 알고 싶어하고 특히 새로운 지식을 소유하려는 욕망이 크다. 청년들은 고식적이고 천편일률식 교양 방법에 흥미를 가지지 않는다.

청년 교양의 형식과 방법은 응당 그들에게 새로운 정서를 안겨 주고 풍만한 새 지식을 주며 부단히 새 맛이 나는 다양한 것으로 되여야 한다. 이것은 청년들에 대한 정치 사상 교양은 물론 도덕 교양, 육체 단련 등 청년 교양의 모든 분야에서 관통되여야 할 하나의 법칙적 요구이다.

대중 교양의 기본 방법인 긍정 교양은 청년들의 특성으로 하여 그들에 대한 교양에서 특별히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청년들의 중요한 특성의 하나는 정의감이 강한 것이며 이것은 그들로 하여금 긍정에 대한 강한 지향을 가지게 한다. 이것은 우리 청년들이 사회주의 제도 하에서 자라고 있으며 정의와 진리를 사랑하는 훌륭한 민족적 전통을 계승하였다는 데서 더욱 그러하다. 청년들이 가지고 있는 좋은 특성들을 적극 계발하고 긍정적인 측면들을 옳게 찾아 내여 그것을 널리 보급시키고 백방으로 발전시킴으로써 그들 자신이 자체의 힘으로 부정을 극복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긍정은 그 자체가 부정에 대한 비판이다. 그러나 긍정 교양과 함께 청년들에 대한 원칙적인 비판을 잘 배합할 때만이 그들의 세계관은 성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경험은 긍정 교양을 거저 어루만지는 식으로 하여서는 안 된다는 것을 보여 주고 있다. 그것은 오히려 부정적인 것을 조장하여 주는 결과를 가져 올 따름이다. 이런 교훈으로부터 부정을 긍정을 통해 극복하면서 동시에 부정 그 자체에 대한 원칙적인 비판을 대상의 준비 정도에 알맞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청년들에 대한 원칙적인 비판은 그들을 조직 생활과 함께 건설과 로력에서 단련시키는 사업을 결합시킴으로써만 더 큰 생활력을 나타내게 할 수 있다.

젊은 세대들의 특성에 알맞는 교양에서 또한 중요한 것은 매 사로청원들과 청년들의 사상 의식 수준, 지식 정도, 그 부모의 과거 사회 정치 생활 경위 등 대상의 구체적 실정에 적응한 방법을 취하는 문제이다. 각계 각층 출신 청년들의 동맹 조직 생활을 그들의 감정과 일상적인 정신 세계에 적응한 방법으로 지도하는 것이 중요하다. 우리 청년들 중에는 우리 나라 주민 구성의 복잡성과 관련하여 사회 정치 생활이 각이한 사람들의 자녀들이 적지 않다. 그러나 그들의 대부분은 해방 후에 성장하였으며 사회주의 제도 하에서 교육을 받고 사회주의 건설에 직접 참가하면서 사로청 조직 생활을 하는 새 세대들이다. 이것은 청년들이 우리 나라 력사 발전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생겨 난 사회 정치 생활의 복잡성과는 직접적으로 관련되지 않으며 그 가정 환경의 영향도 큰 문제로 제기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렇기 때문에 각계 각층 군중과의 사업을 강화할 데 대한 우리 당의 방침을 정확히 파악하고 모든 청년들을 다 믿고 우리 혁명 위업의 계승자로 교

양 육성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청년 교양은 몇몇 사람에 의하여 좁은 범위에서 소극적으로 진행해서는 큰 성과를 거둘 수 없으며 오직 그 성과의 기본 열'쇠는 이 사업을 전 사회적인 관심 하에 진행하는 것이다. 청년들에 대한 교양의 훌륭한 열매를 위해서는 전체 인민이 후대 교양에 달라붙고 누구나 할 것 없이 모든 청년들을 자기의 혈육처럼 아끼고 사랑하고 가르쳐 주는 것이 필요하다.

후대들에 대한 교양에서 학교는 큰 역할을 수행한다. 우리 당은 누구나 다 배울 수 있는 인민적인 교육 제도를 우리 사회에 확립함으로써 매년 수십만의 청년들이 학교 교육을 거쳐 사회주의 건설에 진출하도록 보장해 주고 있다. 《우리의 학교 교육의 목적은 공산주의 사상으로 무장되고 새 사회 건설에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가진 공산주의 건설자를 양성하는 데 있다. 공산주의 사상과 결부되지 않는 지식은 우리에게 소용이 없다》 (김 일성, 《청소년들의 교양에서 교육 일'군들의 임무에 대하여》).

학교들에서는 모든 학생들이 배우는 기간에 당의 사상 의지를 자기의 것으로 되게 하며 우리 나라의 정치, 경제, 문화의 전반에 정통하여 조선의 공산주의자로서의 확고한 주견과 일할 능력을 가지고 사회에 진출하도록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와 동시에 학교들에서는 학생들에게 우리 나라의 자연 부원과 자연 경제적 특성, 나아가서는 자기 지방의 특성들을 잘 가르쳐 줌으로써 장차 그들이 우리의 자원, 우리의 밑천을 가지고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잘 건설할 수 있도록 교양하여야 할 것이다.

청년들에 대한 교양에서 학교와 함께 사로청 일'군들이 담당하고 있는 위치는 매우 크다. 사로청 일'군들은 당과 혁명 앞에 광범한 청년들을 교양 육성할 영예롭고 중대한 책임을 맡고 있다. 청년 교양에서 사로청 일'군들이 청년식 사업 작풍을 확립하는 것은 특별히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사로청 일'군들은 혁명적 군중 관점을 확고히 소유하고 청년들 속에 깊이 침투하여야 하며 청년들의 특성을 잘 알고 정서적 요구와 취미를 포착하고 거기에 맞는 다양한 사업을 조직할 줄 알며 청년들을 너그럽게 대하고 진지하게 교양할 줄 알며 로숙하면서도 활달하며 풍부한 문화 정서적 소양을 가지고 청년들과 휩쓸리면서 사업할 줄 아는 청년식 사업 작풍을 소유하여야만 청년 교양에서 큰 성과를 달성할 수 있다.

청년들을 옳게 교양하기 위해서는 또한 사로청 일'군들이 자신의 수준을 결정적으로 높여야 한다. 모든 사로청 일'군들은 당 중앙 위원회 제 4 기 제 13 차 전원 회의 결정 정신을 받들고 자기의 수준을 전면적으로 한 계단 더 높이기 위하여 혁명적인 학풍을 세우며 하나라도 더 배우기에 노력할 것이다.

이리 하여 우리는 청년 교양에 관한 당과 수령의 높은 기대와 우리 나라 청년 운동 발전의 현실적 요구에 상응하게 청년들에 대한 교양 사업을 한 계단 높이 발전시켜야 할 것이다.

책임성과 창발성

1

일'군들의 책임성과 창발성—이것은 우리 혁명의 성과적 실현을 위하여, 당 정책의 철저한 관철을 위하여 언제나 가장 중요하게 제기되는 요구의 하나이다.

우리 나라에서 사회주의 건설이 전면적으로 추진되고 나라 살림살이를 알뜰히 꾸릴 데 대한 문제가 그 어느 때보다도 절박하게 나서고 있는 오늘 이러한 요구는 더욱더 심각한 것으로 되고 있다.

다 아는 바와 같이 당의 정책적 요구들은 혁명의 매개 단위와 초소들을 통하여 실현된다.

혁명의 단위와 초소들은 당의 정책이 조직 집행되는 혁명 실천의 거점들이다. 이 거점들이 어떻게 움직여 나가는가 하는 것이 결국 우리 혁명 전반의 전진 운동으로 될 것이다. 혁명의 매개 단위, 매개 초소들이 자체의 역할을 다하여 주어진 조건과 가능성들을 최대한으로 리용하고 제기된 과제들을 실속 있게 풀어 나갈 때에만 당 정책은 전반적으로 원만히 실현될 수 있다. 그러므로 지역적 단위와 거점으로서의 도나 군, 생산 단위로서의 공장, 기업소와 협동농장들이 각각 그 앞에 제기된 과업들을 얼마나 책임적으로 수행하는가 하는 것은 우리 혁명의 성과적 발전을 위하여 큰 의의를 가진다.

가령 군을 례로 들어 보자. 우리의 군들은 전국의 200 분의 1에 해당한 지역과 그 재부, 자원, 주민들을 포괄하고 있다는 의미에서만이 아니라 지방의 경제, 문화의 종합적 발전 단위로서, 지방에 대한 직접적인 말단 지도 단위로서 매우 중요한 위치에 놓여 있다. 매개 군들이 자체의 혁명 과업들을 다 원만히 해결해 나간다면 이것은 곧 전국이 들끓게 된다는 것을 의미할 것이다.

그런데 매개 단위와 초소에서 일이 어떻게 되는가 하는 것은 무엇보다도 먼저 그 곳 일'군들이 자기들에게 분공된 혁명 과업을 얼마나 책임적으로 수행하는가 하는 데 달려 있다.

우리 일'군들은 당과 혁명 앞에서 자기가 맡은 단위의 사업을 책임지고 있으며 살림살이를 틀어 쥐고 이끌어 나가야 할 혁명의 지휘 성원들이다.

사업에 대한 높은 책임성은 혁명의 지휘 성원들이 응당 지녀야 할 고귀한 품성의 하나이다. 매개 일'군들은 자기들 앞에 차례진 과업들이 그 어떤 것이거나를 막론하고 궂은 일, 마른 일, 작은 일, 큰 일 할 것 없이 모두가 당과 인민이 준 혁명 임무라는 것을 깊이 명심하는 것이 필요하다. 매개 일'군들이, 비록 행정-경제 일'군인 경우에 있어서도 자기가 하는 일을 단순한 행정-실무적 직무의 처리로 대할 것이 아니라 혁명의 한 고리를 담당한 전사로서 혁명 전반의 추진에 이바지한다는 영예와 긍지를 가지고 책임성을 다하도록 하여야 한다.

매개 단위와 초소를 책임진 일'군들이 이러한 립장을 옳게 지키지 못한다면 비단 한 단위에서만 아니라 그와 련관된 다른 모든 단위들에서 혁명 과업이 원만히 수행될 수 없게 된다.

당 정책 관철에서 일'군들의 높은 책임성은 그들의 창발성과 떼여 놓고 생각할 수 없다. 일'군들이 맡은 사업을 책임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머리를 쓰고 아글타글 노력하게 되면 필연적으로 사업을 혁명적으로 전개하고 풀어 나가는 창발성이 샘솟기 마련이다.

매개 단위에서 일'군들이 당 정책을 책임적으로 구현하자면 자기 사업을

구체적으로 연구하고 제기되는 문제를 자주적으로 결심하며 조직 정치 사업을 능동적으로, 창발적으로 진행하여야 한다.

김 일성 동지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당 정책은 전국적 범위에서 총적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지 지방마다 무엇을 어떻게 하라고 일일이 제시할 수는 없다. 그렇기 때문에 당 정책에 대한 깊은 연구가 필요하며 그것을 잘 집행하기 위한 일'군들의 조직적 수완과 능동성이 요구된다>(김 일성 선집 제 6 권, 21 폐지).

매 단위들에서 당 정책을 철저히 관철하자면 응당 당 정책의 본질적 요구와 의도를 자체의 실정과 옳게 결합하여 구체화한 사업 방향, 수행 방도를 세워야 한다. 이것은 당 정책을 집행하는 실천 단위의 제 조건의 차이와 특성으로 하여 필수적으로 제기된다.

매개 부문과 단위들은 자연 지리적 조건과 생산 기술적 조건, 주민 구성, 생산자들과 일'군들의 준비 정도 등에서 서로 다른 특성들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조건에서 당의 정책적 요구는 결코 일률적인 처방과 틀에 박힌 방법만으로는 실현될 수 없다.

당 정책을 정확히 관철하기 위해서는 제기된 정책적 요구에 이러한 매 단위의 특성이 옳게 결합되여야 한다.

우리 당은 언제나 일'군들이 자기 지방, 자기 사업 단위의 구체적 특성을 심중히 고려하여 그에 알맞는 사업 대책을 강구할 것을 요구하고 있으며 결코 천편일률식으로 사업하여서는 안 된다고 가르치고 있다.

만일 일'군들이 당의 이러한 요구를 옳게 인식하지 못하고 당 정책 집행을 위한 일률적인 처방을 바라면서 우만처다 보거나 시키는 일만을 기계적으로 처리해 나간다면 군중의 무궁무진한 힘을 동원할 수 없고 해당 단위의 내부 예비와 가능성을 충분히 동원할 수 없으며 당의 요구를 주동적으로 실현해 나갈 수 없다.

일'군들은 자기 단위의 주인이 되여 부단히 궁리하고 머리를 써서 사업을 자주적으로 설계하고 그 집행을 위한 대책을 찾아 내여 어김 없이 관철해 나가야 한다.

말로는 자기 맡은 단위의 사업을 책임진다고 하면서도 실지 사업에 있어서 창발성과 능동성을 발휘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사실 상 빈 말'공부에 지나지 않을 것이다. 일'군들이 자기 사업에 대하여, 자기 사업의 결과에 대하여 참으로 책임지는 립장에 서려고 한다면 실천 활동에서의 창발성, 능동성은 필연적인 귀결로 될 것이다.

이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사업에서 일'군들의 창발성, 능동성이 결코 그들의 소총명이나 공명심으로 대치되여서는 안 된다는 사실이다. 사업에서의 창발성, 능동성은 어디까지나 일'군들이 당 정책을 무조건 접수하고 관철하려는 립장에 기초한 것이여야 하며 해당 단위의 사업을 당과 인민 앞에서 책임지는 립장에서 출발한 것이여야 한다.

모든 단위, 모든 초소에서 일'군들이 이러한 립장, 이러한 관점에 확고히 서서 높은 책임성과 창발성을 발휘할 때 당 정책은 더욱 깊이 있게, 더욱 폭 넓게 관철될 것이다.

2

우리 당은 매개 단위들에서 당 정책을 책임적으로, 창발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모든 조건과 가능성을 지어 주고 있다.

당 정책에는 매 시기의 과업 뿐만 아니라 우리 일'군들이 그것을 잘 집행해 나갈 수 있는 방도까지도 구체적으로

명시되여 있다.

또한 우리 당은 우가 아래를 실속 있게 도와 주는 정연한 사업 체계와 사업 방법을 마련해 주고 있으며 매개 일'군들이 자기 맡은 분야에서 자립적으로, 창발적으로 일해 나갈 수 있는 자질과 능력을 소유하도록 부단히 배려하고 있다. 우리 당은 항상 우로부터의 지도가 어디까지나 상하 합심하여 아래 일'군들을 도와 주고 걸린 문제를 현지에서 함께 풀어 주는 산 지도로 될 것을 요구한다.

이것은 우로부터의 지도가 결코 해당 단위 일'군들의 사업을 대행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어디까지나 그들의 책임성과 창발성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게 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우로부터의 지도가 이렇게 될 때만이 그 지도를 통하여 해결하려는 목적이 원만히 달성될 수 있으며 지도 기간뿐만 아니라 그 후에도 아래 일'군들이 사업을 자립적으로 집행해 나갈 수 있으며 실정에 알맞는 사업 형식과 방법을 발견하고 실천해 나갈 수 있다.

우리 당이 아래 일'군들의 자립성과 창발성을 조금이라도 저해하는 불합리한 규정들과 실정에 맞지 않는 일률적인 지시들을 함부로 만들어 내려 먹이지 말 것을 항상 강조하는 리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우로부터의 지도가 구체적인 경우에도 그것은 집행 단위의 일'군들이 자립적으로, 창발적으로 일할 수 있는 방도를 제시할 뿐이다. 그러므로 우로부터의 지도를 통하여 아래 일'군들은 어디까지나 자기 단위의 주인으로서 자립적으로, 창발적으로 일할 줄 아는 능력을 배양하여야 한다.

일'군들이 당 정책 관철에서 높은 책임성과 창발성을 발휘하자면 무엇보다도 먼저 자기가 맡은 단위의 사업을 당과 혁명 앞에서 책임지며 자기 앞에 제기된 과업을 자체로 해내려는 사상 관점을 확고히 가져야 한다.

사람들은 자신이 그 사업의 주인이라는 것을 자각할 때 일을 더 잘 하기 위하여 백방으로 머리를 쓰게 되며 모든 것을 독자적으로 판단하게 되고 결심을 채택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이렇게 될 때에 그 어떠한 어려운 장애에 부닥치더라도 그것을 뚫고 당 정책을 끝까지 관철하려는 완강성과 혁명적 전개력이 나오게 된다.

사업을 자체로 연구하지 않고 우만 쳐다보거나 남에게 의존하려는 태도로는 당 정책 관철을 위한 그 어떤 창발적인 대책도 취할 수 없으며 사업을 완강하게 밀고 나갈 수 없다.

경험은 일'군들이 주인된 립장을 참답게 자각하고 자기에게 부과된 임무는 자체로 끝까지 수행하려는 각오를 가질 때 당 정책 관철을 위하여 진지하게 노력하게 되며 창발적인 대책들을 강구해 나갈 수 있다는 것을 보여 주고 있다.

우리는 이러한 실례를 자강도 우시군 당, 평북도 염주군 당, 황북도 신평군 당을 비롯한 여러 단위의 책임 일'군들의 사업에서 볼 수 있다.

이미 세상에 알려진 바와 같이 우시군 당 책임 일'군들은 군의 주인으로서 당의 농업 정책을 철저히 관철하려는 높은 책임성을 가지고 사업한 결과 당이 제시한 원칙에 따라 분조 도급제를 실시하는 데서 선구자적 역할을 놀 수 있었다.

우리 당은 농촌에 수립된 사회주의 제도의 우월성을 발양시키고 농업 생산을 증대시키기 위하여 가장 중요한 문제의 하나가 바로 생산자들인 농민 대중의 자각적 열성을 고도로 높이는 데 있으며 이를 위하여서는 사람과의 사업을 잘 하고 협동 농장들에서 로동 행정

사업을 잘 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우시군 당 일'군들은 이렇게 하나 이러한 당의 요구를 실현하려고 애를 썼으며 각 방면으로 노력하였다. 그들은 김 일성 동지의 청산리 교시를 비롯하여 자강도에 주신 현지 교시들, 농촌 사업에 관한 우리 당의 문헌들을 전면적으로, 체계적으로 연구하였다. 또한 농업 경영학을 깊이 학습하는 한편 자기 군의 농사 형편에 대한 자료들을 력사적으로 연구하였으며 실농군들과 광범한 농민들의 의견을 종합하고 분석하였다. 이렇게 하여 그들은 당의 의도대로 분조를 단위로 하여 일정한 로력과 포전, 중소 농기구들을 고착시키고 분배를 생산의 최종 결과와 직접 결부시키는 제도를 도입할 것을 결심하였다.

이 곳 일'군들이 분조 도급제를 도입하는 과정은 결코 평탄하지 않았다. 어떤 사람들은 규정에 위반된다고 하면서 반대하였으며 또 어떤 사람들은 그의 우월성을 믿지 못 하고 동요하였다. 그러나 이 곳 일'군들은 자기 군의 경제 발전과 인민들의 생활에 대하여 당과 혁명 앞에서 전'적으로 책임지는 주인이라는 립장에 튼튼히 서 있었기 때문에 이러저러한 장애를 극복하고 동요없이 자기 신념 대로 관철하였다.

당 정책 관철에서 책임성과 능동성을 훌륭히 발휘하자면 또한 일'군들이 높은 정책적 안목과 맑스-레닌주의적 판단력을 소유하여야 한다.

당 정책을 정확히 파악하고 그의 본질적 요구에 맞게 사고하며 사물을 맑스-레닌주의적 견지에서 판단하고 처리할 줄 아는 능력을 소유하는 것은 오늘 우리 일'군들의 책임적이며 창발적인 활동을 위하여 가장 중요한 문제로 된다.

당 정책을 매개 단위의 각이한 조건에서 구체화한다는 것은 원래 단순한 문제가 아니다. 우리 당 정책은 우리 나라의 현실을 과학적으로 분석하고 맑스-레닌주의를 창조적으로 적용하여 작성된 것이다. 이러한 당 정책의 진수를 파악하고 그 본질적 요구에 맞게 모든 사업을 조직 집행하기 위해서 일'군들은 항상 노력하여야 한다.

일'군들의 정책적 안목이 높아야만 당 정책의 근저에 흐르고 있는 객관적인 합법칙성과 당이 그것을 통하여 해결하자고 하는 의도를 정확히 알고 독자성과 창발성을 훌륭히 발휘하여 높은 성과를 달성할 수 있다. 즉 어떤 경우에 있어서도 당의 의도에 어긋나지 않게 일할 수 있고 같은 조건에서 같은 일을 해도 더 큰 성과를 거둘 수 있으며 나아가서는 훌륭한 창발성을 발휘하여 혁명에 크게 기여할 수 있다. 반대로 정책적 안목이 낮고 맑스-레닌주의적 판단력이 부족할 경우에는 하나를 강조하면 다른 것을 잊어 버리고 한 발'자국 밀면 한 걸음 나가는 식으로 극히 일면적으로, 피동적으로 사업하게 된다. 지어는 주관적으로는 당에 충실하려고 하면서도 결과에 있어서는 일을 잘못 처리하여 당과 인민에게 손실을 끼칠 수도 있다.

자기 사업에 대한 주인다운 립장, 당 정책에 대한 높은 정치적 안목은 일'군들의 혁명적 사업 기풍, 과학적인 사업 태도와 결합될 때 비로소 실제적인 결실을 맺을 수 있다.

자립적으로, 창발적으로 사업하여 당 정책을 훌륭히 관철시키는 일'군들에게서 우리는 례외 없이 현실에 튼튼히 발을 붙이고 일을 실속 있게 하며 군중에 의거하여 모든 과업을 처리하는 혁명적 기풍, 과학적인 사업 태도를 찾아 보게 된다.

사실이 보여 주는 바와 같이 만일 일'군들이 당 정책을 무조건 철저히 관철하려는 사상 관점이 있고 정책적 안목이 높다 할지라도 그가 구체적인 현실에서 유리되고 군중에 의거할 줄 모르며 과학적 타산에 기초할 줄 모른다면 그의 판단이나 결심은 당 정책과 현실의 요구에 부합될 수 없으며 사업에서 실제적인 성과를 이룩할 수 없다.

현실은 일'군들에게 부단히 새로운 자료를 제공하며 머리를 틔워 주는 바탕이다. 현실에 발을 붙임이 없이, 그것을 조사 연구함이 없이는 좋은 궁리, 합리적인 방도도 나올 수 없다.

군중은 생산의 직접적인 담당자일 뿐 아니라 문제 해결의 방도를 누구보다도 제일 잘 아는 교사이다. 일'군들의 능동성, 창발성은 개인의 독단, 소총명과는 인연이 없다. 일'군들이 채택하는 모든 결심, 사업 방법은 군중의 지혜와 힘에 확고히 기초하여야 한다.

이와 같이 일'군들이 현실을 구체적으로 연구하고 광범한 대중의 지혜와 의견에 기초하여 사업할 때 모든 것을 과학적으로 타산할 수 있고 실천 과정에서 복잡하게 제기되는 사업의 여러 환절들을 서로 정확하게 맞물리게 하고 통일적으로 끌고 나가면서 당 정책을 정확하게 관철할 수 있다.

염주군 당 책임 일'군들은 군의 주인이라는 높은 책임성 밑에 군내의 구체적인 현실을 깊이 연구하고 광범한 대중의 의견에 기초하여 사업함으로써 최근 년간 농업 생산을 계통적으로 장성시키는 성과를 달성하였다. 한때 일부 일'군들이 논 농사에서 모내기 기일을 앞당기는 것을 하나의 경쟁으로 여기고 있을때 이 곳 일'군들은 다른 군보다 10 일간이나 늦게 모내기를 시작할 것을 결심하고 그렇게 하였다.

모내기 철의 열흘은 천금과 같이 귀중하다. 어떤 사람들은 《모내기의 적기를 놓친다》고 걱정하였으며 또 어떤 사람들은 《경쟁에서 뒤떨어진다》고 난색을 보였다. 그러나 그 곳 풍토에 대한 과학적 분석과 농사에 오랜 경험을 가진 실농군들의 의견을 종합한 기초 우에서 결심을 채택한 군당 책임 일'군들은 확신을 가지고 자기들이 채택한 결정을 관철시켰다. 이렇게 하니 모를 실히 키워서 적기에 빨리 내고 어린 모가 병충의 피해를 받지 않게 됨으로써 수확고를 높이는 데서 결정적으로 유리한 조건을 마련할 수 있었다.

이것은 매우 단순한 사실처럼 보인다. 그러나 우리는 여기에서도 일'군들의 과학적인 사업 태도와 주인다운 립장이 당 정책을 관철하는 데서 어떤 의의를 가지는가 하는 것을 잘 알 수 있다.

● 우리의 전진 운동은 계속 빠른 속도로 진척되고 있으며 당 정책 관철에서 일'군들이 책임적으로, 창발적으로 일해야 할 요구는 더욱더 커 가고 있다.

그러므로 모든 일'군들이 꾸준한 사상 단련을 통하여 당 정책을 무조건 접수하고 그것을 맡은 단위에서 철저히 관철하려는 주인다운 자각과 립장을 확고히 소유하여야 하며 당 정책에 대한 심오한 리론적 파악, 사업에 대한 부단한 연구를 통하여 정치 실무 수준을 높여야 하며 혁명적인 사업 방법과 과학적인 사업 태도를 체득하여야 한다. 이리하여 우로부터 아래에 이르기까지 모든 부문, 모든 단위 일'군들이 각각 자기 초소에서 주인답게 책임적으로, 창발적으로 사업할 때 당 정책은 성과적으로 관철될 것이며 혁명은 승리적으로 추진될 것이다.

반일 민족 통일 전선 운동의 위대한 업적과 경험

박 득 렬

우리 당과 인민은 반일 민족 해방 투쟁과 공산주의 운동의 발전에 빛나는 공헌을 한 조국 광복회 창건 30 주년을 맞이한다.

항일 무장 투쟁의 불'길 속에서 창건된 조국 광복회와 그 10대 강령은 일제 통치의 가장 암담하던 시기 조선 인민을 나라의 해방과 독립을 위한 성스러운 싸움에로 힘차게 불러 일으켰으며 그들의 앞길을 휘황하게 밝혀 준 투쟁의 기치, 승리의 기치로 되였다.

조국 광복회가 높이 추켜 든 10대 강령의 혁명 사상은 해방 후 공화국 북반부에서 빛나게 실현되였으며 조국 광복회 운동에서 달성한 위대한 업적과 경험은 오늘 사회주의 건설과 조국의 자주적 통일을 위한 조선 인민의 거세찬 투쟁 속에서 더욱더 커다란 생활력을 발휘하고 있다.

조국 광복회는 1936년 5월 5일 김 일성 동지의 직접적인 발기와 지도 하에 우리 나라에서의 첫 반일 민족 통일 전선체로서 창건되였다. 조국 광복회의 창건은 장기간에 걸친 조선 인민의 혁명 투쟁에서 거둔 빛나는 결실이며 우리 나라 반일 민족 통일 전선 운동 발전에서 일대 전환의 계기로 되였다.

통일 전선은 로동 계급이 온갖 가능한 모든 력량까지도 혁명 투쟁에로 조직 동원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혁명 력량 편성 계획과 관련된 전략 전술적 문제의 하나이다.

력사 발전의 결정적 힘은 바로 인민 대중이며 따라서 혁명의 승패도 결국 로동 계급이 인민의 다수를 쟁취하는가 못 하는가에 의하여 좌우된다. 그러므로 로동 계급에게 유리하게 혁명 력량을 편성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통일 전선 문제는 혁명 투쟁에서 제 1 차적 의의를 가지며 맑스-레닌주의 전략 전술의 중요한 구성 부분을 이루고 있다.

인민의 힘을 믿으며 그에 의거하여 혁명을 끝까지 수행하려는 모든 공산주의자들은 반드시 통일 전선의 무기를 튼튼히 틀어 잡아야 한다. 오직 그렇게 함으로써만 대중적 동맹자들을 남김 없이 결속하여 혁명 력량을 튼튼히 편성할 수 있으며 적을 철저히 고립 약화시키고 그를 집중적으로 타격 소멸할 수 있다.

우리 나라에서 김 일성 동지를 선두로 하는 공산주의자들은 이미 1930 년대 초, 항일 무장 투쟁의 첫 시기부터 반일 민족 통일 전선의 형성을 조선 혁명의 중심 과업의 하나로서 제기하였으며 그를 위한 맑스-레닌주의적인 투쟁 로선을 명시하였다.

김 일성 동지에 의하여 제시된 반일 민족 통일 전선 로선은 로동 계급의 령도 하에 로농 동맹에 기초하여 일제를 반대하는 투쟁에로 전체 민족의 력량을 남김 없이 집결 동원시킬 데 대한 우리 나라 혁명 운동 발전의 합법칙적 요구를 가장 정확히 체현하고 있다.

김 일성 동지는 반일 민족 통일 전선 로선을 제시함에 있어서 우리 나라의 식민지 반봉건적 사회 경제 관계와 그에 대응한 계급 관계를 과학적으로 분석한 데 기초하여 조선 인민의 당면한 주되는 적을 일제로 규정하고 이 전략

적 주공 방향에 모든 화력을 총집중시킬 목적 밑에 오직 일제에 대한 태도 하나만을 가지고 단결의 기준으로 삼았다.

김 일성 동지는 이러한 기준에 립각하여 계급, 사상 정치적 견해, 종교 등의 차이 여하를 불문하고 만일 그가 일제를 반대하며 조국의 해방을 지향하는 사람이라면 비록 그것이 일시적이고 불확고하며 사소한 것이라 할지라도 그와 대담하고 폭 넓게 단결하여 온갖 가능한 모든 력량까지도 최대한으로 반일 공동 투쟁에로 인도하여야 한다고 인정하였다.

김 일성 동지는 혁명의 광범한 보조적 력량과의 반일 민족 통일 전선을 위하여서는 우선 로동 계급의 령도를 확고히 보장하고 로농 동맹을 형성 강화함으로써 혁명의 주력군을 튼튼히 꾸려야 한다고 가르쳤다.

혁명의 주력군을 튼튼히 꾸리는 것은 반일 민족 통일 전선의 형성과 그 발전을 보장하는 결정적 담보이다.

우리 나라에서 그것은 통일 전선이 전 민족적 공동의 목적에 기초하여 광범한 사회적 지반 우에서 형성되게 되며 또한 그 운동이 강대한 일제를 대적하여 장기성을 띤 간고한 과정을 거치지 않을 수 없었으므로 더욱 중요하였다. 그러므로 공산주의자들은 혁명의 주력군을 꾸리고 자체의 계급 진지를 강화하여야만 중간 계층의 동요성을 견제하면서 그들과의 동맹을 유지 공고화할 수 있으며 일제를 반대하는 공동 투쟁에로 그들을 힘 있게 이끌어 나아갈 수 있었다.

항일 무장 투쟁 시기 공산주의자들은 이러한 반일 민족 통일 전선 로선에 기초하여 통일 전선 운동을 무장 투쟁 및 당 창건 준비 사업과 밀접히 결합하여 성과적으로 추진시켰다.

이 행정을 통하여 1930 년대 전반기에 조선 혁명의 주도적 력량인 항일 무장 대오가 정치 군사적으로 강화되고 그를 바탕으로 혁명의 주력군이 꾸려졌다. 그리고 광범한 반일 민족 통일 전선 형성을 위한 조직적 및 전술적 준비가 이룩되였다.

조국 광복회는 바로 이러한 투쟁 성과에 토대하면서 1930 년대 중엽 새로 조성된 국내외 정치 정세와 우리 나라 통일 전선 운동 자체 발전의 요구에 부합되게 반일 민족 통일 전선 운동을 전국적 규모에서 조직적이며 체계적으로 확대 발전시킬 목적으로 창건되였다.

조국 광복회 회장으로는 김 일성 동지가 추대되였다.

조국 광복회는 김 일성 동지에 의하여 친히 작성된 '조선 혁명의 투쟁 로선을 전면적으로 정식화한 10대 강령을 발표하였다. 조국 광복회 강령은 《강도 일본 제국주의의 통치를 전복시키고 진정한 조선 인민 정부를 수립할 것》을 조선 혁명의 총적인 전략적 과업으로 규정하고 그를 위한 방도로서 《조선 민족의 총동원으로 광범한 반일 통일 전선을 실현》할 것을 선포하였다.

조국 광복회는 10대 강령과 함께 선언과 규약을 채택하였으며 기관지로서 《3. 1 월간》을 반간하였다.

조국 광복회의 창건은 반일 민족 통일 전선 운동과 전반적 조선 혁명 운동을 일대 앙양에로 이끌어 올림에 있어서 새로운 획기적 단계를 열어 놓았다. 그리 하여 조국 광복회가 창건됨으로써 반일 민족 통일 전선 운동은 일제를 패망시킨 그 승리의 전 행정에서 위대한 업적과 풍부한 경험을 쌓을 수 있게 되였다.

반일 민족 통일 전선 운동에서 달성한 가장 고귀한 업적과 경험은 민족의 모든 반일 애국 력량을 동원 집결함으로써 일제의 식민지 통치를 전복하고 나라의 해방을 위한 조선 인민의 강력

한 혁명 력량을 꾸리여 놓은 데 있다.

김 일성 동지는 조국 광복회가 수행한 업적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교시하였다:

《조국 광복회는 우리의 민족 해방 투쟁의 목적과 과업을 광범한 인민 대중에게 해설하며 조국 해방을 위한 공동 투쟁의 기치 밑에 조선의 모든 애국적 력량을 동원 집결하는 데 있어서 커다란 역할을 하였다》(김 일성 선집 제 4 권, 293~294 페지).

항일 무장 투쟁 시기 공산주의자들은 전국적으로 포치된 조국 광복회 조직을 통하여 로동 계급과 농민 대중을 조직화하고 혁명화하였으며 공산주의자들의 지도적 역할을 강화함으로써 조선 혁명의 주력군을 튼튼히 꾸리였다. 그리고 김 일성 동지가 제시한 반일 민족 통일 전선 로선을 정확히 관철함으로써 일제를 반대하며 민족적 해방을 지향하는 일체 가능한 각계 각층을 조국 광복회 10대 강령의 기치 밑에 최대한으로 통일 결속하였다.

이와 같이 하여 로동 계급의 령도 하에 로농 동맹에 기초하여 반일적인 모든 인민 대중을 단일한 전투적 력량으로 편성하고 조선 인민의 주체적 력량을 확대 강화함으로써 적아간의 력량 관계를 혁명의 편에 유리하게 전변시켜 놓을 수 있었다.

반일 민족 통일 전선 운동의 경험은 민족적 및 계급적 모순이 복잡하게 얽혀 있는 식민지 반봉건 사회의 조건 하에서 주되는 모순을 찾고 그에 기초하여 주공 방향을 정확히 설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 주고 있다. 오직 그렇게 함으로써만 민족적 리해 관계의 공통성에 기초하여 단결의 범위를 최대한으로 넓히고 민족의 모든 반제 력량을 남김 없이 집결할 수 있으며 당면한 주되는 적을 집중적으로 고립 타격할 수 있다.

또한 실제적인 경험은 최대의 힘을 다하여 우선 혁명의 주력군을 준비하여야만 혁명의 광범한 보조적 력량과의 통일 전선을 성과적으로 실현할 수 있다는 것을 실증하였다. 혁명의 주력군을 튼튼히 꾸리는 것은 계급적 처지, 정치적 견해, 종교 신앙 등이 서로 다른 각양한 계급, 계층을 대상으로 광범한 사회적 지반 우에서 진행될 뿐 아니라 제국주의자들과 그와 야합한 민족 개량주의자들의 부단한 공세에 직면하게 되는 식민지 및 반식민지 나라들의 반제 민족 통일 전선 운동에서 각별하게 중요한 문제로 제기된다.

우리 나라에서 혁명의 주력군을 튼튼히 꾸린 것은 항일 무장 투쟁의 위력의 원천으로 되였으며 반일 민족 통일 전선 운동을 확대 발전시킬 수 있었던 결정적 담보로 되였다. 혁명과 반혁명 사이에서 부단히 동요하던 민족 자본가, 민족주의자들을 포함한 중간 계층들을 혁명의 편에 확고하게 끌어 붙이고 그들과의 단결을 유지 공고화할 수 있은 것도 바로 강력한 혁명의 주력군을 준비한 데 크게 기인하였다.

반일 민족 통일 전선 운동의 경험이 보여 준 바와 같이 조선 혁명에 대한 로동 계급의 령도권도 혁명의 주력군을 튼튼히 꾸리고 자체의 독자성과 계급적 원칙을 고수한 데 기초하여 민족 자본가를 비롯한 혁명의 광범한 보조적 력량과의 통일 전선을 실현함으로써 수립될 수 있었다.

이것은 부르죠아 민주주의 혁명에서 부르죠아지를 고립시키고 배제함으로써만 로동 계급의 령도권을 실현할 수 있었던 구라파 자본주의 나라들과는 구별되는 식민지 및 반식민지 나라들의 혁명 운동에 고유한 특성의 하나인바 반제 민족 통일 전선이 식민지 민족 해방 투쟁에서 차지하는 특별히 중요한 위치도 바로 여기로부터 규정된다. 따라서 공산주의자들은 반제 민족 해방 운동에

서 계급적 원칙이라 하여 민족 자본가를 고립 배제하거나 그와는 반대로 통일 전선이라 하여 계급적 원칙을 포기할 것이 아니라 계급 로선과 군중 로선을 유기적으로 결합하여 그를 관철시킴으로써만 로동 계급의 령도권을 실현할 수 있다.

이상과 같이 혁명의 주력군을 튼튼히 꾸리고 혁명의 광범한 보조적 력량을 통일 집속하였으며 조선 혁명 전반에 대한 로동 계급의 령도권을 확립할 수 있었던 것은 반일 민족 통일 전선 운동이 무장 투쟁과 결합되고 그의 강력한 지원에 의거하였기 때문이였다. 통일 전선 운동의 무장 투쟁과의 밀접한 결합, 이것은 우리 나라 반일 민족 통일 전선 운동의 성과적인 발전을 보장한 중요한 요인으로 되였다.

반일 민족 통일 전선 운동은 가장 위력한 최고 형태의 투쟁인 무장 투쟁과 밀접히 결합됨으로써 일제의 반동 공세가 강화되였던 간고한 조건 하에서도 그의 지속성을 견지하면서 혁명의 주력군을 튼튼히 꾸리고 혁명 력량을 보위 육성할 수 있었다. 그리고 공산주의자들은 무장 투쟁의 강력한 지원에 의거하면서 반일 민족 통일 전선 운동을 전개하였기 때문에 일제에게 심대한 타격을 주고 그와 결탁한 민족 개량주의자들의 정체를 대중 속에서 철저히 폭로할 수 있었으며 나아가서 각계 각층 인민 대중의 절대적인 신임을 획득하고 그들을 조국 광복회에로 광범하게 결속시킬 수 있었다.

반일 민족 통일 전선 운동에서 달성한 업적과 경험은 조국 광복회가 항일 무장 투쟁을 중심으로 조선 인민의 전반적 혁명 운동의 강화 발전에 커다란 기여를 한 데 있다.

반일 민족 통일 전선은 조선 혁명의 종국적인 전략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투쟁에서 자기 앞에 맡겨진 전투적 임무를 성과적으로 수행하였다.

조국 광복회는 우선 항일 유격대의 강화와 무장 투쟁의 전면적인 확대 발전을 촉진시켰다.

공산주의자들은 반일 민족 통일 전선 운동을 정확히 지도함으로써 항일 무장 투쟁의 대중적 지반을 축성하였으며 인민 대중을 동원하여 그에 대한 지원을 조직적이며 체계적으로 보장하였다. 그리하여 항일 유격대는 유격 근거지를 창설 공고화함에 있어서와 무장 대오의 보충 확대, 군사 정치 활동에서 인민 대중의 인적, 물적, 정신적인 지지 성원에 의거할 수 있었으며 적들의 포위 속에서도 광범한 대중적 지반 우에서 불패의 력량으로 장성 강화될 수 있었다.

반일 민족 통일 전선은 무장 투쟁을 강화 발전시킴과 함께 로동자, 농민을 비롯한 각계 각층을 반일 투쟁에로 고무 추동하고 로동 운동, 농민 운동, 학생 운동 등 조선 인민의 모든 혁명 투쟁을 강화 발전시킴에 있어서 거대한 역할을 수행하였다.

전국에 포치된 조국 광복회 조직들은 로동자, 농민들과 각계 각층 대중 속에 침투하여 그들에게 과학적인 투쟁 목표와 투쟁 전술을 가르쳐 주었으며 대중의 각종 형태의 투쟁들을 전반적으로 10대 강령에서 명시된 유일한 혁명 로선에 기초하여 바로잡아 나아갔다. 조선 인민들의 혁명 운동은 조국 광복회 조직의 통일적인 지도 밑에 호상간의 련대성을 밀접히 하면서 활발하게 전개되였을 뿐 아니라 또한 무장 투쟁과 련결됨으로써 그에서 힘을 얻고 더욱 강력한 투쟁으로 발전하였다.

이와 같이 조국 광복회는 조선 인민의 각종 형태의 반일 투쟁을 항일 무장 투쟁과 련결시키고 그 하나의 흐름 속에 묶어 세우기 위한 공간적 역할을 성

과적으로 보장함으로써 항일 무장 투쟁과 그를 중심으로 전반적 조선 인민의 혁명 운동을 전국적 판도에서 일대 앙양에로 이끌어 올릴 수 있었다.

반일 민족 통일 전선 운동의 경험이 보여 주는 바와 같이 항일 유격대와 인민 대중과의 혈연적 련계, 무장 투쟁의 통일 전선 운동과의 밀접한 결합은 15성상에 걸치는 간고한 항일 무장 투쟁에서 위대한 승리를 쟁취할 수 있게 한 결정적 요인으로 되였다.

김 일성 동지는 항일 유격대와 인민 대중과의 혈연적 련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어찌하여 항일 빨찌산이 오래동안 지탱할 수 있었는가? 왜 일본놈들이 강대한 무력을 가지고도 우리를 멸망시키지 못 하였는가? 빨찌산들이 옳은 군중 관점에 서 있었고 그들이 군중의 지지를 받았기 때문이다》 (김 일성 선집 제 4 권, 348 페지).

우리 나라 통일 전선 운동의 경험이 실증한 바와 같이 반제 민족 통일 전선의 발전을 위해서는 그것이 가장 위력한 무장 투쟁을 지주로 삼고 그의 강력한 지원에 의거하여야 하나 동시에 무장 투쟁도 역시 반제 민족 통일 전선에 토대하고 광범한 인민 대중의 지지를 획득함으로써만 승리할 수 있다.

또한 경험은 각계 각층 인민 대중의 각종 형태의 투쟁들도 반제 민족 통일 전선 운동과 결합될 때 그 호상간의 련대성과 통일성이 더욱 성과적으로 보장될 수 있으며 무장 투쟁과의 련계 속에서 보다 힘 있게 발전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 주고 있다.

반일 민족 통일 전선 운동에서 달성한 업적과 경험은 상설적인 강력한 반일 민족 통일 전선 조직체를 결성하고 그를 정확히 운영한 데 있다.

반일 민족 통일 전선체를 결성함에 있어서 그 조직 형태를 정확히 규정하는 것은 우리 나라에서 로동 계급은 물론 그 어느 한 계급도 자기의 정당과 전일적인 정치 단체를 가지고 있지 못 하였던 조건에서 매우 중요하고 어려운 문제로 제기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러나 이 문제는 조국 광복회와 같은 독창적인 반일 민족 통일 전선체의 결성으로써 빛나게 해결되였다.

조국 광복회는 유일한 공동 강령과 규약을 가지였으며 민주주의 중앙 집권제에 기초한 자체의 독자적 조직 지도 체계를 가진 반일 민족 통일 전선체였다.

우리 나라에서 반일 민족 통일 전선 운동은 조국 광복회와 같은 강력한 통일 전선체를 가짐으로써 보다 조직적이며 체계적으로 그리고 전국적 판도에서 급속한 발전을 이룩할 수 있었다. 또한 이러한 형태의 통일 전선체는 당시의 구체적 조건 하에서 맑스-레닌주의 당 창건 준비 사업을 위한 조직적 거점으로도 되였는바 공산주의자들은 체계화된 조국 광복회 조직망을 통하여 당 창건을 위한 준비를 성과적으로 추진시켰으며 나아가서 전반적 조선 혁명 운동에 대한 지도를 확고히 실현할 수 있었다.

우리 나라에서 조국 광복회와 같은 강력한 반일 민족 통일 전선체를 결성한 것은 반일 민족 통일 전선 운동에서 이룩한 거대한 업적인 동시에 그 운동의 성과적인 발전을 보장한 중요 담보였다.

김 일성 동지는 반일 민족 통일 전선체를 꾸림에 있어서 일제를 물리치고 민족적 해방을 달성할 혁명 과업이 전면에 나섰던 사정과 함께 통일 전선 운동이 비합법적으로 진행되며 또 그것이 무장 투쟁에 복무하여야 하였던 구체적 조건에 대한 과학적인 분석에 기초하였다.

조국 광복회가 인민들 속에서 하부

조직을 급속히 확대하고 그에 광범한 각계 각층을 결속할 수 있었던 것은 그 활동에서 일관하게 민족적 형식을 취하였으며 이에 준한 각이한 명칭을 띠고 지대적 특성과 주민의 사회 정치적 구성 및 그들의 준비 정도에 맞게 계층 별 혹은 지역 별로 조직되였던 것과 직접 관련되여 있다. 그리고 조국 광복회는 각계 각층의 애국적 인민들을 개인 자격으로 망라하는 한편 10대 강령의 기치 밑에 조선 민족 해방 동맹의 전신 조직인 갑산 공작 위원회를 비롯하여 기성의 혁명 단체들을 조직적으로도 통합함으로써 그의 사회적 지반을 급속히 확대하였다.

조국 광복회는 그의 사회적 지반을 확대할 데 대한 통일 전선적 요구를 정확히 관철시키면서도 그를 조직의 비밀을 보장할 데 대한 비합법적 투쟁 조건의 요구와 유기적으로 결합하여 신축성 있게 처리하였다.

반일 민족 통일 전선 운동에서는 조직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한 최대한의 조직적 대책이 강구되였는바 조국 광복회의 각급 조직들은 상급 조직과 하급 조직 및 동급 조직의 명칭을 단일화하지 않았으며 하부 조직 호상간의 련계도 일체 비밀에 붙이여졌다. 그리고 그 종적 련계도 단선과 복선 포치 등 비밀 고수를 위한 비합법적 조직 체제에 엄밀히 립각하였다.

조국 광복회 조직은 합법성이 허용된 문화 계몽 조직들(야학회, 운동회 등)과 뚜렷한 형태를 갖추지 않은 민간 조직들(친목회, 형제계 등) 그리고 적 어용 단체들(농촌 진흥회, 자위단 등)에 침투되여 그 조직들을 비합법적 혁명 조직의 엄폐물로 리용하였다. 조국 광복회는 조직의 비합법성을 위장할 목적으로 특수 분회, 특수 회원 제도를 설정하고 그 회원을 적 통치 기관, 지어 적군 내에까지도 침투시켰다. 실제 활동에서 커다란 생활력을 발휘한 특수 회원 제도는 비합법적 및 합법적 활동을 밀접히 결합하여 모든 가능성과 잠재력까지도 남김 없이 리용함으로써 통일 전선 운동을 성과적으로 발전시킬 데 대한 전술적 요구를 조직 형식에서 구현한 것이다.

조국 광복회가 조선 인민의 전반적 혁명 운동의 확고한 중심을 이룬 무장 투쟁에 잘 복무할 수 있었던 것도 그 임무의 요구에 기응하게 정확한 조직 형식을 취하였기 때문이였다.

조국 광복회는 각급 조직들에 무장부를 두고 조국 광복회 회원들로써 생산 유격대를 조직하였다. 이것은 바로 조국 광복회 조직 형식의 중요한 특징의 하나로서 무장 투쟁을 지원하기 위한 활동에서 커다란 힘을 나타내였다.

공산주의자들은 이와 같이 조국 광복회의 조직 형식과 조직 체계를 지하 활동의 조건에 맞게 꾸림으로써 일제의 경찰 정보망이 전국을 빈틈없이 뒤덮고 있었던 환경 속에서도 조국 광복회 하부 조직을 광범히 확대하면서 그의 비밀을 고수하여 낼 수 있었으며 항일 무장 투쟁에 성과적으로 복무할 수 있었다.

반일 민족 통일 전선 운동의 경험이 보여 주는 바와 같이 계급적 처지, 사상, 정치적 견해를 서로 달리 하는 여러 계급, 계층과의 행동 통일은 오직 각자의 활동을 유기적으로 련결시키고 조절하며 규제할 수 있는 공동 강령을 가진 통일 전선 조직체에 의하여 안받침됨으로써만 공고한 것으로 될 수 있다. 그리고 경험은 이러한 통일 전선 조직체가 혁명 운동의 힘 있는 추진력으로 되기 위하여서는 그것을 소여의 현실적 조건에 맞게 꾸리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실증하였다.

반일 민족 통일 전선 운동에서 달성한 업적과 경험은 이 운동이 승리를 달성하였던 긴 과정에서 창조되고 적용된 통일 전선 전술과 공작 방법이 확립된

데 있다.

김 일성 동지를 선두로 하는 공산주의자들은 우리 나라 반일 민족 통일 전선 운동의 구체적 실정에 적응한 전술적 원칙을 창조하고 그를 실제 활동에서 능숙히 적용함으로써 고귀하고 풍부한 경험을 축적하였다.

항일 무장 투쟁 시기 실제적인 투쟁 행정에서 하층 통일을 기본으로 상하층 통일 전선을 밀접히 배합할 데 대한 통일 전선의 전술적 원칙이 작성되였다.

공산주의자들은 혁명의 광범한 보조적 력량과의 통일 전선을 실현함에 있어서 민족주의자들의 무장 조직과 종교 단체들을 그 조직 성원의 정치 계급적 구성에 의하여 상층과 하층으로 엄격히 구별하였다. 그리고 상층과 하층에 대하여 각각 그에 알맞는 정확한 립장과 태도를 견지하면서 상층 통일 전선과 하층 통일 전선을 밀접히 배합하였다.

공산주의자들은 민족주의자들의 무장 조직 및 종교 단체들과의 통일 전선의 기본을 하층 통일 전선에 두었으며 우선 선차적으로 그를 강화하는 데 최대의 힘을 돌리였다. 그것은 하층이 기본 계급 출신으로서 광범한 대중을 이루고 있을 뿐 아니라 그 상층의 동요성도 각성된 하층 대중의 밑으로부터의 압력에 의하여 견제될 수 있었기 때문이였다.

하층 통일 전선과 함께 계급적, 사상적 및 종교적 제한성과 취약성으로 인하여 부단히 동요하나 현실적으로 반일을 지향하고 있는 상층과의 통일 전선에 커다란 의의를 부여하였다. 상층 통일 전선은 또한 그들이 조직적으로 하층을 통제하고 그들 속에 영향을 가지고 있었던 조건에서 하층 통일 전선을 위하여서도 매우 유리하였다.

반일 민족 통일 전선 운동 행정에서는 실천적으로 그 타당성이 실증된 단결을 목적으로 단결과 투쟁을 밀접히 결합시킬 데 대한 전술적 원칙이 창조되였다. 이 전술적 원칙은 민족 자본가, 민족주의자 등 중간 계층이 가지고 있는 2중성에 의하여 규정되였다.

공산주의자들은 중간 계층들에게 고유한 2중적인 각이한 두 측면을 정확히 구분한 데 기초하여 그들의 반제적인 측면은 조장 발전시켜 그와 적극 단결하는 동시에 타협적 측면과는 원칙적으로 투쟁하면서 중간 계층과의 행동 통일을 공고히 하기 위하여 힘썼다. 그러나 일제와 결탁한 민족주의자들의 무장 조직 및 종교 단체 내의 일부 상층 분자들에 대하여서는 그들 일제를 반대하나 반일 투쟁에서 동요하는 층과 구분하고 그 자들을 철저히 폭로 고립시키고 타격하는 조치를 취하였다.

공산주의자들의 지도 하에 이러한 전술적 원칙이 정확히 적용됨으로써 이 시기 유일하게 남아 있었던 《독립군》 부대인 《조선 혁명군》을 비롯하여 중국인 반일 부대 등 무장한 민족주의 세력과의 통일 전선을 실현하고 민족 자본가, 민족주의자 및 천도교인들을 비롯한 종교인들을 조국 광복회 조직에 광범히 결속할 수 있었으며 그들을 반일 공동 투쟁에로 확고하게 이끌고 갈 수 있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중간 계층들에 대한 독자성의 존중과 인내성 있는 교양, 합법적 활동과 비합법적 활동의 결합 및 통일 전선 대상의 특성에 따르는 각이한 수단과 형식에 의한 사업 방법 등 다양한 통일 전선 공작 방법이 신축성 있게 적용됨으로써 커다란 생활력을 발휘하였다.

반일 민족 통일 전선 운동의 경험은 광범한 보조적 력량과의 통일 전선을 실현함에 있어서 상층 통일과 하층 통일, 단결과 투쟁을 서로 분리시키고 대치시킨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정황과 대상의 특성에 따라 각이한 방법과 정도로 그를

밀접히 결합시켜야 한다는 것을 보여 주고 있다. 만약 민족 자본가를 포함한 중간 계층들이 가지고 있는 2중적인 두 측면의 그 어느 하나를 절대화하면서 그들의 타협적 측면을 보지 못 하고 일방적으로 단결하려 하거나 그와는 반대로 반일적 측면을 보지 못 하고 일방적으로 투쟁만 하려 한다면 그들과의 통일 전선은 결코 실현될 수 없으며 그를 유지 공고화할 수 없다.

반일 민족 통일 전선 운동에서 달성한 업적과 경험은 국제 반파쑈 통일 전선의 형성 강화에 커다란 기여를 하였으며 자체의 독창적인 경험들로써 통일 전선에 관한 맑스-레닌주의 보물고를 풍부화시킨 데 있다.

공산주의자들은 일제의 파쑈화와 극동에서의 전쟁 제일 발원지의 발생에 의하여 조성된 새로운 정세에 대처하여 일찌기 1930 년대 초부터 반일 민족 통일 전선의 형성을 위하여 투쟁하였으며 국제적으로 파씨즘과 침략 전쟁을 반대하며 민족적 해방을 달성하기 위한 통일 전선 운동의 선구자적 역할을 훌륭히 수행하였다.

반일 민족 통일 전선 운동은 1930 년대 중엽에 국제 공산주의자들의 초미의 전투적 과업으로 제기된 반파쑈 통일 전선 운동의 일익을 담당하고 무장 투쟁과 밀접히 결합되여 힘 있게 조직 전개됨으로써 국제 반파쑈 통일 전선을 형성 강화함에 크게 이바지하였다. 그리고 조선 인민과 함께 아세아 및 세계 인민의 공동의 원쑤이며 국제 파씨즘의 주력의 하나였던 일제에게 결정적인 타격을 가함으로써 그들의 멸망을 촉진시켰다.

공산주의자들의 지도 밑에 반일 민족 통일 전선 운동에서 달성한 고귀하고 풍부한 경험들은 통일 전선에 관한 맑스-레닌주의 보물고를 풍부화시켰다.

반일 민족 통일 전선 운동의 경험이 보여 주는 바와 같이 국제 반제 통일 전선을 위하여서는 매개 나라의 공산주의자들이 무엇보다 먼저 자기 나라들에서 반제 민주 통일 전선 형성을 위한 책임을 다하여야 한다.

매개 나라의 혁명은 세계 혁명의 한 부분으로서 반제 민족 통일 전선도 역시 국제 반제 통일 전선의 한 고리를 이룬다. 따라서 매개 나라들에서 반제 력량의 통일을 실현하지 않고서는 국제적 규모에서의 반제 력량의 공고한 통일이란 기대할 수 없다.

조선 공산주의자들이 반제 력량의 국제적 통일과 국제 혁명 운동 특히 동방 식민지 및 예속 국가들에서의 민족 해방 투쟁의 발전에 고귀한 기여를 할 수 있은 것은 우선 우리 나라의 구체적 실정에 적응하게 통일 전선 운동에서 제기되는 모든 문제들을 독창적으로 해결하면서 민족의 일체 반제 애국 력량을 최대한으로 결속하여 반일 민족 통일 전선을 형성 강화하였으며 조선 혁명의 주체적 력량에 의거하여 조국 광복을 위한 반일 혁명 투쟁을 승리적으로 전개하였기 때문이였다.

김 일성 동지를 선두로 하는 공산주의자들의 탁월한 령도 밑에 반일 민족 통일 전선 운동에서 달성한 위대한 업적과 경험은 해방 후 우리 당이 계승한 혁명 전통의 중요 구성 내용을 이루었으며 우리 당 통일 전선 정책의 기초로 되였다.

해방 후 우리 당은 반일 민족 통일 전선 운동에서 달성한 불멸의 업적과 경험을 전면적으로 계승 발전시키면서 민주주의 혁명 시기, 사회주의 혁명 시기에 이르는 조선 혁명 발전의 전 행정에서 통일 전선 로선을 견지하고 새로운 력사적 조건과 각이한 단계의 혁명 임무의 요구에 맞게 그를 빛나게 실현하였다.

우리 당은 북반부의 광범한 각계 각층 대중을 로동 계급의 령도 하에 로농 동맹에 기초한 민주주의 민족 통일 전선에 결속시킴으로써 그들을 반제 반봉건적 민주주의 혁명 과업의 수행에로 성과적으로 조직 동원하였다. 그리고 전

체 애국적 인민들을 미제의 무력 침공을 반대하는 거족적 투쟁에로 한결같이 불러 일으킴으로써 조국의 자유와 혁명의 전취물을 영예롭게 수호하였다.

우리 당은 사회주의 혁명 시기에도 통일 전선을 계속 공고화하였으며 미제에 모든 화력을 집중할 데 대한 원칙으로부터 각이한 남북 혁명 임무의 요구를 서로 밀접히 결합하여 통일 전선 사업을 조직 전개함으로써 북반부 혁명 기지를 더욱 강화함과 동시에 조선 인민의 반미 구국 력량의 단합을 위한 투쟁에서도 커다란 전진을 이룩하였다.

우리 당의 정확한 지도 하에 통일 전선은 사회주의 혁명과 사회주의 건설에 성과적으로 복무하였으며 북반부를 사회주의적인 단일한 정치적 력량으로 편성하기 위한 어려운 과업을 실현하는 데 커다란 기여를 하였다. 오늘 북반부에서는 당과 인민과의 단결, 전 사회의 정치, 도덕적 통일이 그 어느 때보다도 강화되고 전체 인민들이 사회주의 건설의 모든 단위와 고리들에서 자기들의 창조적 열성을 남김 없이 발휘하고 있다.

우리 당의 통일 전선 정책은 력사적 승리를 달성하고 우리의 혁명은 멀리 앞으로 전진하였다. 그러나 조국은 분렬된 채 미제는 의연히 남조선을 강점하고 있으며 남조선 인민들은 식민지 예속의 생지옥에서 신음하고 있다.

오늘 우리 당 앞에는 미제의 식민지 기반에서 남조선 인민들을 해방하고 조국을 통일하여야 할 민족 지상의 과업이 계속 남아 있다.

조국의 통일 독립과 혁명의 종국적 승리를 위하여서는 우선 조선 혁명의 기지인 북반부를 정치, 경제, 군사적으로 튼튼히 꾸리며 전체 인민을 붉은 단일한 정치적 력량으로 더욱 강력히 편성하여야 한다.

이와 함께 남조선에서 혁명 력량을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를 위하여서는 혁명적 당을 꾸리고 로동자, 농민을 결속시켜 튼튼한 혁명의 주력군을 준비하여야 하며 그 기초 우에서 각계 각층의 모든 애국 력량을 망라한 반미 구국 통일 전선을 형성하여야 한다.

김 일성 동지는 《오늘 남조선에서 모든 애국적 력량을 망라하는 반미 구국 통일 전선을 형성하는 것은 혁명 발전의 가장 중요한 요구이다》(《조선 로동당 제 4 차 대회에서 한 중앙 위원회 사업 총화 보고》, 단행본, 117 페지)라고 교시하였다.

남조선에서는 조국의 분렬과 미제의 식민지 통치에 의하여 극소수의 지주, 예속 자본가 및 반동 관료배들을 제외한 사회의 모든 계급 계층들이 다같이 고통을 겪고 있으며 그들은 공통한 민족적 리해 관계에 의하여 서로 밀접히 련결되여 있다. 애국적 인민들 속에서 반미 감정과 조국 통일의 지향은 날로 더욱 높아 가고 있으며 그들의 투쟁의 예봉도 점차 미제에게 돌려지고 있다.

남조선의 혁명가들은 미제와 그 주구인 박 정희 도당을 반대하는 모든 애국적인 각계 각층, 각당 각파를 반미 구국 통일 전선의 기치 밑에 빠짐 없이 결속하고 혁명 력량을 부단히 확대 강화하여야 한다. 그리하여 북반부의 사회주의 력량과 남조선의 민주주의 력량의 단합된 힘에 의하여 조국의 통일을 달성하여야 한다.

조국 통일은 우리 시대에 반드시 해결하여야 할 숭고한 혁명 임무이다. 우리는 결코 분렬된 조국을 후대들에게 그대로 넘겨 줄 수 없다.

조국 광복회 창건 30 주년에 제하여 우리는 당의 통일 전선 정책에서 이룩한 거대한 승리를 더욱 공고 발전시켜 남북 조선의 혁명 력량을 전반적으로 공고화하고 세계 혁명 력량과의 단결을 계속 강화함으로써 항일 혁명 선렬들이 그를 위하여 피흘리며 투쟁한 조국 광복회 10대 강령을 공화국 북반부에서와 같이 조국의 절반 땅 남반부에서도 하루 속히 실현하고 조국의 자주 통일을 성취하고야 말 굳은 결의에 충만되여 있다.

설비 리용률 제고는 생산 장성의 결정적 고리

최 중 극

우리 당은 사회주의 건설의 첫 시기부터 근로자들의 창조적 적극성과 혁명적 열성에 의거하여 인민 경제 모든 부문에 새로운 기계, 설비들을 더욱더 많이 도입하는 동시에 특히는 현존 기계, 설비의 리용률을 부단히 높이는 데 커다란 관심을 돌려 왔다.

당은 《있는 설비, 있는 로력, 있는 자재로 더 많이 생산하자》는 원칙을 제시하고 기계, 설비의 리용률을 부단히 제고하기 위하여 적극적인 조직 정치 사업을 전개하였으며 기업 관리를 개선하여 왔다.

이리 하여 기계, 설비의 리용률과 생산적 축적의 효과성은 부단히 제고되였다.

우리 나라 공업은 전후 시기에 비상히 빠른 속도로 발전하였으며 생산적 투자의 장성에 따르는 고정 폰드의 규모도 전례 없이 확대되였다. 특히 나라의 전면적인 공업화와 기술 혁명 과업을 성과적으로 실현하며 인민 경제 모든 부문들을 기술적으로 개건할 수 있는 튼튼한 토대가 축성되였다.

아래의 표는 우리 나라에서 설비의 핵심을 이루는 기계 생산 부문이 상당히 빠른 속도로 발전하였다는 것을 잘 보여 준다.

(%)

구분 \ 년도	1946	1949	1953	1956	1960	1964
공업 총생산액	100	337	216	615	21(배)	37(배)
기계 제작 및 금속 가공 공업	100	535	663	21(배)	99(배)	203(배)

생산 수단 생산의 우선적 발전 특히 기계 제작 공업의 급속한 발전에 기초하여 인민 경제 모든 부문들의 종업원 1 인 당 생산적 고정 폰드의 장비 수준은 현저히 제고되였다. 우리는 지금 현대적인 기계, 설비를 비롯한 상당한 정도의 생산 능력을 마련하여 놓았다. 그리 하여 현존 기계, 설비 리용률 제고의 매 퍼센트는 생산의 절대적 장성에서 이전보다 훨씬 큰 의의를 가지게 되였다.

이런 조건 하에서 오늘 생산 장성의 가장 큰 예비는 있는 기계, 설비를 효과적으로 리용하며 그 능력을 최대한으로 발휘시키는 데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당 중앙 위원회 제 4 기 제 12 차 전원 회의는 경제 발전의 높은 속도를 계속 견지하며 인민 생활을 결정적으로 개선 향상시킬 데 대한 중대한 과업을 제기하면서 그 중요 방도의 하나로서 현존 기계, 설비의 리용률을 최대한으로 높일 것을 강조하였다.

인민 경제 모든 부문에 도입되고 있는 현존 기계, 설비, 나라 살림살이의 가장 귀중한 밑천을 더욱 효과적으로 리용한다면 그 만큼 인민 경제는 빠른 속도로 발전하고 인민 생활도 일층 향상될 수 있다.

현존 기계, 설비의 리용률을 최대한으로 높이는 것은 생산을 급속히 장성시키는 동시에 나라의 국방 건설을 현 정세의 요구에 적응하게 강화할 수 있게 한다. 설비 리용률을 높여야만 한편으로는 나라의 경제적 위력을 더욱 강화하고 인민 생활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키기 위하여 사회주의 건설의 높은 속도를 견지할 수 있으며 다른 편으로는

원쑤들의 준동에 대처하여 만단의 준비 태세를 갖출 수 있다.

※ ※

기계, 설비의 리용률을 제고하는 것은 기업 관리를 개선하며 나라 살림살이를 알뜰히 꾸려 나가는 데 있어서 항상 근본적이며 중심적인 문제로 된다. 생산 과정에서 리용되고 있는 기계, 설비는 생산력의 가장 중요한 구성 부분이며 국민부의 핵심을 이룬다. 생산적 고정 폰드의 핵심을 이루는 현존 기계, 설비로써 얼마나 많은 생산물과 새로운 가치의 창조를 보장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은 인민 경제의 해당 부문과 기업소의 사업을 평가하는 중요 지표의 하나로 된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생산의 부단하고 체계적인 장성은 고정 폰드의 확대 재생산 즉 기본 건설에 의한 새로운 고정 폰드의 조업 개시에 의하여서와 현존 고정 폰드의 합리적인 리용에 의하여 달성된다.

고정 폰드의 기본을 이루는 기계, 설비의 리용 수준과 경제 발전의 속도 및 축적 간에는 서로 제약하는 밀접한 호상 관계가 있으며 이 호상 관계에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은 현존 기계, 설비의 리용 수준이다. 경제 발전 수준 특히 공업 발전 수준과 생산적 고정 폰드의 절대적 규모, 종업원 1 인 당 그것의 장비 수준이 높으면 높을수록 기계, 설비의 리용률 제고에 의하여 국가의 추가적 투자 없이 막대한 량의 사회 생산물과 국민 소득을 더 얻을 수 있으며 축적을 더욱 증대시킬 수 있다.

경제 발전 수준이 제고됨에 따라 생산물의 폰드 용량을 저하시키기 위한 투쟁을 일층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물론 로동의 기술적 장비 수준이 제고되면 사회적 로동 생산 능률을 제고시킬 수 있는 유리한 조건이 마련된다.

그러나 이것은 자동적 과정으로써 실현되는 것이 아니다. 문제는 기계, 설비의 리용률을 최대한으로 높이며 사회적 로동 생산 능률을 제고하기 위한 구체적인 사업 조직이 동반되여야 한다.

그것은 특히 인민 경제의 규모가 커지는 것과 함께 생산 장성의 일정한 속도를 보장하기 위한 투자의 규모도 확대된다는 사정과 관련하여 더욱 절실한 문제로 제기된다. 부단한 기술적 진보와 나라의 사회주의적 공업화의 전면적인 실현은 인민 경제 모든 부문들에서 생산적 고정 폰드를 급속히 증대시킨다. 공업화와 인민 경제의 기술적 개건 과정에서 손로동은 기계 로동으로, 낡은 기계는 기술 공학적으로 보다 완성된 기계로 대체되며 기계화, 종합적 기계화 과정이 촉진된다. 이것은 필연적으로 생산 장성의 일정한 속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투자의 규모를 증대시키지 않을 수 없게 한다.

이러한 조건 하에서 기계, 설비의 리용 수준을 부단히 제고하는 것은 보다 적은 자금으로 생산 장성의 속도를 더 높이며 투자의 효과성을 제고하고 나라 살림살이를 알뜰하게 꾸려 나가는 데서 절실한 문제로 된다. 즉 설비 리용률을 제고해야만 기계, 설비의 단위 가치 당 사회적 생산물과 국민 소득의 생산을 증가시킬 수 있으며 기계, 설비에 대한 적은 투자로써도 경제 발전의 소정된 속도를 유지할 수 있는 것이다.

또 기계, 설비에 대한 예정된 투자를 그 대로 실현하는 경우에는 경제의 보다 높은 장성 속도를 달성할 수 있게 할

것이다.

반대로 기계, 설비를 비효과적으로 불완전하게 리용한다면 경제 발전의 소정된 속도를 달성하기 위하여 더 많은 투자를 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것은 축적의 구조(생산적 축적과 비생산적 축적, 로동 수단과 로동 대상 축적의 호상 관계)에서의 변화를 동반한다. 또 소정된 축적의 구조를 그 대로 유지하는 조건 하에서는 축적의 量에 변화를 가져 올 것이다. 즉 소비를 희생으로 하여 축적 특히 생산적 축적에 더 많은 몫을 돌리지 않으면 안 되게 될것이다.

있는 기계, 설비를 효과적으로 리용하며 그 리용률을 최대한으로 높여야만 새로운 투자를 적게 하면서도 나라의 경제를 빨리 발전시킬 수 있다.

현존 기계, 설비 리용률의 제고는 오늘 인민 생활을 결정적으로 개선 향상시키려는 당의 의도를 실현함에 있어서 특별히 중요한 문제로 나선다.

인민의 물질-문화 생활을 급속히 향상시키기 위하여서는 생산 특히 주민들의 생활에 직접적이며 일상적으로 소용되는 소비재의 생산을 증대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그런데 소여 시기의 소비재 생산 규모와 장성 속도는 이 부문에 대한 투자의 규모와 생산적 축적의 효과성, 무엇보다도 기계, 설비의 리용률 수준에 의존한다. 그것은 소비재 생산 부문에서의 설비 리용률 제고가 인민 생활 향상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기 때문이다. 만약 소비재 생산 부문에 대한 투자가 부단히 증가된다고 하더라도 생산적 축적 특히 기계, 설비의 리용률이 낮다면 소비재 생산의 장성 속도는 완만해질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당은 사회주의 건설의 매 시기에 소비재 생산의 급속한 증대를 위하여 이 부문에 막대한 투자를 하는 동시에 모든 예비와 가능성을 동원하면서 특히는 설비의 리용률 제고에 커다란 의의를 부여하였던 것이다.

생산 수단 생산 부문에서의 설비 리용률 제고도 인민 생활 향상에 커다란 영향을 준다.

생산 수단 생산 부문에서의 설비 리용률의 제고는 축적의 효과성을 제고함으로써 축적과 소비 간의 호상 관계를 보다 합리적으로 조절할 수 있게 한다. 즉 상대적으로 적은 축적으로써도 나라의 경제 발전을 촉진시킬 수 있으며 소비 폰드를 증대시킬 수 있다.

특히 우리 나라에서 생산되는 생산 수단은 주로는 인민 생활의 급속한 향상과 직접 관련되는 것들이며 이 부문에서의 설비 리용률의 제고는 소비재 생산 부문에 기계, 설비, 원료, 연료, 자재 등 생산 수단 공급을 증대시킬 수 있게 한다.

생산 수단 생산 부문과 소비재 생산 부문에서의 설비 리용률의 제고는 축적과 소비 간에 적합한 비률로 투자를 실현할 수 있게 함으로써 생산 수단 생산과 소비재 생산의 장성 속도를 부단히 접근시킬 수 있게 하였다.

우리 나라에서 생산 수단 생산과 소비재 생산 간의 접근 정형을 보면 다음과 같다:

(%)

구분 \ 년도 대비	1954～1956	1957～1960
생산 수단 생산	100 405	100 361
소비재 생산	100 209	100 332

특히 1961～1967년 기간에는 그것이 320：310으로서 생산 수단 생산과 소비재 생산 장성이 아주 가깝게 접근된 것이 예견되였다.

우의 자료들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은 생산 수단 생산과 소비재 생산 장성 간의 부단한 접근 과정은 동시에 인민들의 물질-문화 생활의 체계적인 향상을 조건 짓는 과정이기도 하였으며 또

앞으로도 그런 과정으로 될 것이다.

기술적 진보와 로동 생산 능률의 부단한 장성은 생산 수단 특히 기계, 설비의 가치와 그 생산 능력 장성 간의 호상 관계를 변화시킨다. 기술이 급속히 발전하고 이 기초 우에서 사회적 로동 생산 능률이 부단히 제고됨으로써 기계, 설비의 가치는 저하되고 그것의 제품 생산 능력은 장성한다. 이리하여 기계, 설비의 제품 생산 능력의 장성 속도는 그 가치의 장성 속도를 릉가한다. 과학과 기술의 발전에 의하여 야기되는 이러한 사정은 도입된 기계, 설비를 가장 효과적으로 완전히 리용할 것을 요구한다.

특히 오늘 이 문제는 우리에게 낡은 기계, 설비들이 적지 않게 있으나 그것들을 버릴 수도 없고 또 단번에 새 기술 수단들로 교체할 수도 없다는 사정과 관련하여 더욱 절실한 문제로 제기된다.

물론 우리는 생산 발전의 높은 속도를 계속 보장하기 위하여 새로운 기술 수단들을 만들어 내여 생산 과정에 도입하며 로후한 기계, 설비들을 개조하여 현대화하는 사업을 계속 추진시켜야 한다. 그러나 만약 현존 기계, 설비의 리용률을 최대한으로 높이지 않고 새로운 기술의 도입에만 치중한다면 고정 폰드의 효과성을 높일 수 없으며 당면한 생산 계획 과제도 수행할 수 없다. 이것은 결국 자금의 동결과 랑비를 초래함으로써 새로운 기술 수단의 도입을 저애하게 될 것이다.

또한 현존 기계, 설비를 최대한 효과적으로 완전히 리용하지 않는다면 감가상각 기금의 축적에 의하여 갱신되여야 할 기계, 설비들이 결국은 국가의 새로운 투자의 도움으로 갱신되게 될 것인바 이렇게 된다면 확대 재생산을 위하여 돌려져야 할 생산적 축적의 일부가 단순 재생산을 보장하는 데 돌려지게 됨으로써 새로운 기술 수단의 도입을 억제하지 않을 수 없게 할 것이며 따라서 생산 장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우선 현존 설비의 리용률을 최대한으로 높이는 데 중점을 두면서 여기에 새 기술 수단의 도입과 현존 설비의 기술적 개조 사업을 병진시키는 것이 합리적이다.

이런 견지에서 볼 때 미설치, 미가동 기계, 설비들을 퇴치하는 것은 나라 살림살이를 알뜰히 해 나가며 투자의 효과성을 높이는 데서 매우 중요한 문제로 된다.

미설치, 미가동 기계, 설비는 귀중한 국가 자금을 동결시키는 중요 요인의 하나이다.

그것은 또한 단순히 자금만 동결시키는 것이 아니라 미설치, 미가동 기간에 비생산적으로 마모됨으로써 그 가치를 저하시킨다. 이것은 국가 재산의 큰 랑비이다.

미설치, 미가동 기계, 설비들을 더 빨리 설치하고 가동시킨다면 그 만큼 나라 살림살이에 필요한 생산 수단과 소비재 생산이 장성될 것이며 생산적 축적의 효과성도 제고되고 공장, 기업소의 수익성도 높아질 것이다.

반대로 미설치, 미가동 기계, 설비가 많으면 그 만큼 소여의 기계, 설비로 사회에 필요한 각종 사용 가치를 더 생산할 수 있는 것을 생산하지 못하게 할 것이며 생산 장성의 소정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한편으로는 귀중한 기계, 설비를 랑비하면서 다른 편으로는 추가적인 투자를 하지 않으면 안 되게 된다. 이것은 축적과 소비 간의 호상 관계에 그리고 인민 생활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당은 항상 미설치, 미가동 기계, 설비

를 근절하기 위하여 건설을 집중적이며 중점식으로 하며 현존 생산 면적을 완전하게 리용하기 위한 구체적인 대책들을 세우고 그것을 실현시키기 위해 투쟁하여 왔다. 이리 하여 미설치, 미가동 기계, 설비를 현실적인 생산력으로 전환시키는 데서 커다란 성과를 달성하고 있다.

⁂ ⁂

기계, 설비는 가장 중요한 생산 수단이다. 그러나 그 자체만으로써는 어떠한 소비재도, 생산 수단도 만들어 낼 수 없다. 생산의 제 요소들이 서로 잘 결합되는 조건 하에서만 생산 과정 자체가 이루어질 수 있으며 생산 수단의 기본으로서의 기계, 설비도 자체의 힘을 발휘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기계, 설비의 리용률을 최대한으로 높이기 위하여서는, 첫째로, 기계, 설비가 일상적으로 정비된 상태에 있어야 하며, 둘째로, 필요한 량, 질, 규격 및 품종의 가공 대상이 적시적으로 끊임 없이 보장되여야 하며, 세째로, 생산력의 결정적이며 능동적 요소로서의 사람 즉 생산자 대중이 사상 정치적으로, 기술적으로 준비된 상태에 있어야 한다. 이러한 요소들의 조화로운 결합, 생산의 발전은 경제에 대한 관리 운영의 부단한 개선 완성에 의하여 이루어진다. 어느 한 고리가 약해지는 경우에도 기계, 설비의 리용률은 높아질 수 없으며 따라서 생산도 정상화될 수 없다.

그러므로 예비 부속품 생산을 선행하고 설비에 대한 점검 보수 사업을 강화하며 설비들을 일상적으로 정비된 상태에서 유지하는 동시에 기자재 공급 체계를 현실적 요구에 맞게 개선 강화하여 생산에 대한 물질적 보장 사업을 원만히 진행하며 생산자들의 기술 기능 수준을 부단히 제고하는 등 설비 리용률 제고를 위하여 당이 이미 제시한 제반 대책을 철저히 관철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와 함께 기계, 설비 리용률을 최대한으로 높이기 위하여 오늘 특별히 중요하게 제기되는 문제는 생산자 대중의 혁명적 열성을 고도로 발양시키며 그들을 기업 관리에 적극 인입하는 것이다. 당과 혁명을 위하여, 인민과 자기 자신의 행복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일하며 나라 살림살이를 알뜰히 꾸려 나가려는 혁명적 열성이 높으면 높을수록 그리고 대중 자신이 기업 관리의 완전한 주인으로 되면 될수록 그들은 설비 리용률을 높일 수 있는 온갖 예비와 가능성을 찾아 내기 위하여 더 애쓰게 될 것이며, 당이 취한 제반 기술적 대책들도 은을 낼 수 있다.

사회주의 제도 하에서는 제도 자체의 우월성으로 하여 기계, 설비의 리용률 제고에서 생산자 대중의 혁명적 열성을 높이며 그들을 기업 관리에 적극 참가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존재하는 바 이것은 자본주의 제도에 비한 사회주의 제도의 중요한 우월성의 하나이다.

사회주의 사회에서 기계, 설비 리용의 목적과 본질 및 설비 리용률 제고의 가능성은 자본주의 사회에서의 그것과 본질적으로 구별된다.

기계, 설비가 한줌도 못 되는 자본가들의 수중에 장악된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그것이 로동자들을 착취하는 수단으로 즉 자본으로서 로동자들과 대립된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기계, 설비의 리용률이 높으면 높을수록 자본가의 수중에 장악되는 잉여 가치는 더욱더 커지는 반면에 근로자들의 빈궁과 실업은 일층 심해진다.. 또한 이 제도 하에서는 주기적인 경제 공황과 시장 경기의 변동으로 말미암아 기계, 설비의 리용이 불완전할 뿐 아니라 막대한 생산력이

파괴되고 만성적인 조업 부족이 특징으로 된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제도 하에서는 생산자 대중이 기업 관리에 참가할 수 없으며 기계, 설비 리용의 개선에 관심을 가지지 않는다.

사회주의 하에서 기계, 설비의 가장 완전한 리용의 필연성과 가능성은 제도 자체의 본질에 의하여 조건 지어진다. 생산 수단에 대한 사'적 소유가 청산된 우리 제도 하에서 기계, 설비는 인민 대중 자신의 소유로서 부단히 장성하는 사회 성원들의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계획적으로 리용된다. 여기에서는 기계, 설비가 더욱 효과적으로 완전히 리용되면 될수록 전체 사회 성원들의 복리는 증진된다. 따라서 사회주의 사회에서 생산자 대중은 기업 관리의 주인으로서 기계, 설비 리용의 개선에 혈연적인 리해 관계를 가지는바 이것은 기술과 생산 발전의 기본 조건으로 된다.

사회주의 제도가 자본주의 제도에 비하여 우월하며 설비 리용률을 높일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고 하여 그것이 결코 저절로 실현되는 것은 아니다.

사회주의 사회는 공산주의 사회의 첫 단계로서 아직은 이러저러한 면에서 낡은 사회의 흔적을 적지 않게 가지고 있으며 일부 일'군들 속에는 낡은 관습, 낡은 사상 잔재가 적지 않게 남아 있는 것이다.

이러한 사정은 일'군들의 의식 수준을 높여 주며 계산하고 통제를 실시하며 자기 로동의 결과에 대한 근로자들의 물질적 관심성을 높여 주는 등 구체적인 정치 조직 사업과 경제 사업을 진행할 것을 요구한다.

그러므로 인민 경제 각 부문, 매 생산 단위들에서는 자기들 앞에 부과된 경제 과업과 일'군들의 사상적 준비 정도 및 기술 경제적 조건에 적응하게 정치 사업을 구체화하고 그것을 경제 과업 수행의 튼튼한 안받침으로 되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와 함께 기계, 설비 리용의 효과성을 특징 짓는 지표 체계들을 더욱 완성하며 관리 일'군들과 근로자들이 설비의 효과적이며 완전한 리용에 적극 관심을 가지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기계, 설비 리용의 효과성을 특징 짓는 지표 체계는 무엇보다도 통일성과 종합성을 보장하는 방향에서 완성되여야 할 것이다.

지표 체계의 이러한 방향에서의 완성은 지도 일'군들에게 공장, 기업소 경영 활동의 모든 측면들을 호상 련관 속에서 정확히 료해하며 필요한 대책들을 취하고 통제를 실시할 수 있는 과학적인 근거를 줄 뿐 아니라 기계, 설비 리용률 제고에 일'군들이 관심하도록 물질적 자극을 강화할 수 있는 근거도 준다.

기계, 설비 리용의 효과성을 특징 짓는 지표 체계 및 공장, 기업소의 계획 지표 체계를 완성하며 설비 리용률 제고에 일'군들이 관심을 가지도록 물질적 자극을 강화할 때 정치 사업의 선행에 의하여 제고된 대중의 혁명적 열성은 더욱 확고하게 될 것이며 기업 관리는 진정 대중 자신의 사업으로 완전히 전화될 수 있을 것이다.

우리는 이미 마련한 나라 살림살이의 귀중한 밑천인 기계, 설비의 리용률을 최대한으로 높여 생산을 급속히 장성시킴으로써 나라의 정치 경제적 위력을 더욱 튼튼히 하고 인민 생활을 결정적으로 개선 향상시키려는 당의 위대한 구상을 더 빨리, 더 훌륭히 실현하여야 할 것이다.

사회주의 건설에서의 국토 관리

김 정 회

국토 관리는 사회주의 건설의 중요 구성 부분이다

국토 관리는 나라의 경제와 문화를 발전시키며 우리의 강토를 사회주의, 공산주의 락원으로 꾸리기 위한 백년대계의 원대한 사업의 일환이다. 이 사업은 그 내용으로 보아 나라의 령토와 자원을 인민 경제의 발전에 효과적으로 개발 리용하며 나라의 모든 재부를 보호하고 근로자들의 생활 환경을 문화적으로 꾸리는 등 나라 살림살이의 광범한 측면들을 포괄한다.

우리 당은 사회주의를 건설하는 전기간에 걸쳐 사회주의 건설의 다른 모든 과업과 밀접히 결부시키면서 국토 건설과 관리 사업을 강화하는 데 커다란 관심을 돌려 왔다.

공업과 농업을 합리적으로 배치하고 그 발전을 촉진하며, 산림 자원을 조성하고 육성하며, 치산 치수 사업과 관개 하천 공사를 진행하며, 철도와 도로를 건설하고 정리하며, 현대적인 도시와 문화 농촌을 대대적으로 건설하는 등 지난 시기 당의 령도 하에 우리 인민이 진행하여 온 이 모든 사업은 생산력을 급속히 발전시키는 과정이였을 뿐 아니라 국토 건설과 관리 사업을 강력히 추진시키는 과정이기도 하였다. 이 과정에 우리 나라에서는 탄광, 광산들과 공장, 발전소, 철도, 항만 시설이 수 많이 건설되고 수만 리의 수로와 대소 저수지들이 생겨 났으며 도처에 공공 문화 후생 시설들이 거대한 규모로 건설되였다. 그리하여 우리의 국토는 그 면모가 달라졌다.

특히 당은 국토 건설과 관리 사업이 사회주의 건설의 다른 모든 사업과 밀접한 련계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일정한 독자성을 가진 부문이라는 것을 고려하여 중앙으로부터 리에 이르기까지 국토에 대한 관리와 감독을 통일적으로 수행하는 국가 관리 체계를 확립하는 소치까지 취하였다.

이 모든 것들은 우리가 살고 있는 바로 이 땅과 이 자연 조건을 최대한 합리적으로 리용하여 모든 것이 풍부하고 전면적으로 발전된 사회주의, 공산주의 사회를 더 빨리 건설하며 인민들의 물질 문화적 복리를 급속히 증진시키자는 우리 당의 원대한 구상에서 흘러 나온 것이다.

령토와 자원, 재부에 대한 관리 사업을 사회주의 건설의 한 개 구성 부분으로 인정하고 그것을 다른 모든 부문들과의 밀접한 련관 속에서 꾸준히 전개하여야 하는 것은 그것이 나라의 생산력을 발전시키며 사회주의에 상응하는 문화적인 생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필수적 조건으로 되기 때문이다.

다 아는 바와 같이 국토의 중요한 구성 부분으로 되는 자연 조건과 자연 부원은 사회의 물질 문화적 부를 창조하기 위한 항구적이며 필수적인 요소이다. 지하 자원이나 산림 자원, 로지, 강하천 등은 모두다 생산의 물적 요소를 이룬다. 따라서 이런 것들을 잘 관리하고 보호하며 효과적으로 리용하기 위한 사업을 떠나서는 생산력의 급속한 발전이 이루어질 수 없다.

특히 령토와 자원, 재부를 효과 있게 개발 리용하는 것은 자립적인 경제를

건설하며 나라의 경제를 종합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튼튼한 담보로 된다.

경제적 자립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주로 자체의 원료 원천에 의거하여 공업을 건설하여야 하며 자기 나라의 자연 경제적 조건을 최대한으로 효과 있게 리용하는 방향에서 농업을 발전시키고 기술도 발전시켜야 하는바 이것은 국토의 종합적인 리용, 관리를 보장하기 위한 대책을 신중하게 세워야 할 필요성을 제기한다. 채취 공업과 특히 인민 경제의 2대 부문의 하나인 농업과 같이 자연 조건의 영향을 많이 받는 부문들의 발전이 국토의 건설, 관리 사업과 더 큰 련관을 가진다는 것은 일상적으로 체험하는 바이다.

령토와 나라의 자연 조건과 자연 부원을 합리적으로 리용할 뿐 아니라 이미 창조해 놓은 물질적 및 문화적 재부들을 나라와 인민의 살림살이에 유효하게 리용하기 위해서도 국토 관리 사업을 응당한 수준에서 전개하는 것이 필요하다.

김 일성 동지는 이미 창조해 놓은 재부를 잘 관리할 데 대하여 다음과 같이 강조하였다: <국가와 사회의 재부를 계속 증대시키는 것과 함께 이미 창조하여 놓은 재부를 애호하며 모든 살림살이를 알뜰하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우리는 공장, 기업소, 철도, 차량, 항만, 선박, 관개 시설들과 학교, 병원, 구락부, 공공 건물, 주택 그리고 또한 농경지, 산림, 하천, 도로 등 모든 것을 애호하고 잘 관리하며 그것들이 우리 인민의 복리를 위하여 효과 있게 리용되도록 하여야 한다>(김 일성, <조선 로동당 창건 20 주년에 제하여>).

이 모든 것을 잘 관리하는 것은 물론 그것을 직접 리용하는 사업과 밀접히 결부되여 있다. 동시에 이 모든 재부를 전국적 규모에서 통일적으로 장악하고 감독하며 그것들이 나라의 살림살이를 알뜰히 꾸리며 인민들의 물질 문화적 복리를 향상시키는 데 더 잘 복무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관리를 적극 개선하여야 한다.

특히 도로, 유원지 등과 같이 여러 부문, 여러 사람들이 공동으로 리용하는 생산적 및 비생산적 시설들에 대한 관리에는 국토를 전문적으로 관리하는 일'군들을 비롯하여 전체 인민이 주인답게 참가해야 한다.

이와 같이 국토 관리는 인민 경제 발전의 높은 템포를 보장하며 생산력의 장래 발전을 위한 유리한 조건을 조성할 뿐 아니라 이미 꾸려 놓은 밑천을 잘 리용하여 인민들의 생활 향상에 더 효과적으로 복무케 하는 중요한 사업이다. 동시에 국토 관리는 사람들을 둘러 싸고 있는 생활 환경을 사회주의, 공산주의에 상응하게 문화적으로 꾸리는 사업이기도 하다.

자연 조건과 더불어 인간의 힘에 의하여 이 땅 우에 이루어진 모든 가치물들은 사람들의 생활에 이러저러한 영향을 주는 외'적 환경으로 된다. 사회주의, 공산주의는 모든 것이 풍족할 뿐 아니라 자연 환경까지를 포함하여 모든 것이 인간의 생활과 다방면적 발전에 가장 유리하게 전면적으로 꾸며질 것을 요구한다. 잘 꾸려진 외'적 생활 환경은 사람들의 의식 활동에 커다란 영향을 미친다. 알뜰하게 꾸려진 도시와 마을, 공장과 농촌, 전야와 산천은 거기에서 살며 일하는 사람들에게 고상한 정서를 길러 주며 그들의 로동과 생활을 흥겹게 하여 준다.

따라서 국토를 알뜰하게 꾸리고 잘 관리하는 것은 사회주의 근로자들의 높은 정서와 감정에 맞게 문화적인 생활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그들로 하여금 조국을 사랑하고 생산과 건설에 자각적으로 동원되도록 자극한다는 것을 말하여 준다.

이러한 제반 사정으로부터 출발하여 우리 당은 국토 관리 사업을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의 중요한 일환으로서 힘있게 전개하는 데 그처럼 커다란 력량을 돌리고 있는 것이다.

국토 관리는 종합적으로, 전망적으로

나라의 자원과 재부를 잘 관리하고 효과적으로 리용하기 위하여서는 그것을 구성하고 있는 매개 요소들을 전 사회적 규모에서 호상 련관시켜 고찰하는 것이 필요하다.

자연 부원과 인간의 힘에 의하여 창조된 재부들은 단순히 생산과만 관련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일하며 살아가는 여러 가지 측면들과 이러저러하게 련관되여 있다. 또 국토를 구성하고 있는 매개 요소들은 한 가지 목적에만 리용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목적에 리용될 수 있으며 그것들은 호상 불가분리적으로 련결되고 있다. 사회가 발전하고 자연을 정복하는 인간들의 능력이 높아지면 질수록 이러한 모든 사정은 더욱더 강화된다. 이러한 조건에서 협소한 타산에 의하여 산을 무원칙하게 개간하거나 산림을 람벌할 때에는 산림 자원의 조성 그 자체에 영향을 줄 뿐 아니라 강하천의 리용에 지장을 주고 홍수로 하여 농경지를 류실 당하게 할 수 있으며 공장, 기업소에서 유독성 폐설물을 강에 흘려 보내면 양어에 지장을 주는 것과 같은 현상을 초래할 수 있다. 또한 탄광, 광산을 개발하고 산업 시설을 배치할 때에도 그것이 주변 농경지와 강하천의 종합적인 리용 및 주민의 건강과 위생 조건 등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인가에 대하여 타산하는 것이 필요하다.

따라서 국토를 건설하고 관리함에 있어서 그 매개 요소들을 다른 부문, 다른 대상과의 밀접한 련관 속에서 통일적으로 보고 종합적인 타산을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한 요구로 된다.

오늘 우리 나라에서는 종전에 없는 것으로 알려졌거나 리용될 수 없는 것으로 되여 있었던 새로운 종류의 부원들이 인민 경제 발전에 광범히 인입되고 불리하던 것은 유리한 것으로 변화되여 가고 있다. 뿐만 아니라 관개, 하천, 도로 건설과 광산, 탄광 및 도시, 농촌 건설이 성과적으로 추진되고 각종 문화 후생 시설들이 도처에 포치되여 인민들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적극 복무하고 있다.

이 모든 것들은 자연 조건과 자연 부원 그리고 나라의 온갖 재부들을 통일 속에서 호상 련관시켜 고찰하며 그것들이 가지고 있는 각이한 특성들을 종합적으로 리용할 데 대한 우리 당의 일관된 원칙을 더욱 철저히 관철시킬 것을 요구한다. 생산력이 급속히 발전되고 자연 개조 사업이 거대한 규모로 진행되면 될수록 나라의 모든 자원과 재부를 과학적이며 전망적으로 관리하여야 하는 것이다.

이러한 요구로부터 출발하여 우리 당은 현재 및 장래의 인민 경제의 발전과 인민들의 생활상 요구에 적응하게 국토 건설과 관리를 진행하기 위한 국토 총계획을 세울 데 대한 방침을 제기하고 있다.

과학적이며 전망적인 타산에 기초한 국토 총계획의 작성은 나라의 자원들을 사회주의 건설과 인민 생활 향상에 가장 유효하게 리용하며 그 경제적 효과성을 높이기 위한 필수불가결의 조건으로 된다. 그것은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의 먼 장래까지 예견하면서 해당 대상의 유리한 모든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동원 리용할 수 있게 하며 경제

발전을 촉진하고 모든 부문을 균형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게 한다.

국토 총계획을 정확히 작성하기 위해서는 우선 나라의 풍부하고 다양한 자연 조건과 자연 부원, 근로자들의 창조적 로동에 의하여 이룩된 재부, 선조들로부터 물려 받은 문화 유물 등 국토의 현황을 구체적으로 조사하고 그 과학적인 기초를 확정하는 문제가 제기된다. 이것은 국토 총계획의 현실성과 동원성을 보장하는 필수적인 전제로 되며 국토의 종합적인 개발과 전망적인 리용에 대한 감독과 통제도 옳게 할 수 있게 하는 담보로 된다.

그런데 국토 총계획을 작성하는 사업은 매우 범위가 넓고 세밀한 타산을 요구하는 만큼 이것은 국토 관리 부문의 몇몇 일'군들의 힘만으로는 정확하게 실현할 수 없다. 모든 부문, 모든 사람들이 국토를 리용하고 관리하는 데 이러저러한 관련을 가지고 있는 것 만큼 생산 성(국)들과 기업소들, 과학 연구 기관들과 문화 기관들이 다같이 국토 총계획을 작성하는 데 주인답게 참가하여야만 이 사업이 성과적으로 보장될 수 있는 것이다.

특히 각이한 생산 부문들의 현 상태와 발전 전망을 직접 장악하고 있는 생산 성(국)들이 이 사업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동원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인민 경제의 매개 부문들과 생산 성(국)들이 해당 부문의 장래 발전 전망과 관련된 국토 건설 및 관리에 대한 연구 사업을 심화시키며 국토 총계획에 대한 토의에 참가하는 것은 자기의 응당한 의무로 된다.

과학적으로 타산된 계획이 수립된 다음에는 이에 기초하여 지하 자원, 토지 자원, 산림 자원, 수산 자원 등 나라의 모든 자원과 재부를 통일적이며 전망성 있게 개발 리용 및 보호 관리하도록 통제하며 생산력의 합리적인 배치를 보장함으로써 그 운영에서의 효과성을 높이는 문제가 제기된다.

여기에서도 매개 생산 단위들의 역할을 높여야 하는바 특히는 매개 지역과 지방 단위들의 역할과 책임성을 높이는 것이 필요하다. 구체적으로 국토 관리의 주인은 해당 지역 내의 모든 당 조직들과 정권 기관들이다. 례컨대 군은 우리 나라 령토의 200 분의 1을 직접 담당한 국토 관리의 지역적 단위로서 관내의 모든 자원과 재부를 종합적으로, 전망적으로 동원 리용하며 보호 관리하여야 할 임무를 지니고 있다. 이로부터 국토 관리 사업의 성과는 매개 군의 역할과 책임성 여하에 따라서 크게 좌우되게 되는 것이다. 매개 군 단위들에서 자기 지방과 단위의 살림살이를 알뜰히 꾸릴 때 비로소 온 나라가 아름다운 락원으로 전변되리라는 것은 명백하다.

이와 같이 지방 단위들의 역할과 책임성을 높이는 것은 곧 전 국가적 규모에서 국토와 재부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는 것으로 되며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을 위한 과업까지도 예견하면서 국토를 전망적으로 관리해 나갈 수 있게 한다.

국토 관리 사업이 전망성 있게, 종합적으로 진행되여야 한다는 사정과 인민 경제의 모든 부문, 나라의 모든 지역적 단위들의 공동 노력에 의하여서만 성과적으로 보장될 수 있다는 사정은 일'군들의 낡은 사상 잔재와 협소한 관점으로부터 발생할 수 있는 지방주의, 기관 본위주의 등의 사소한 표현도 엄격히 경계하여야 할 필요성을 제기한다. 국토 관리에서 엄격한 제도와 규률을 확립하는 것도 바로 매개 당 조직들에서의 사상 투쟁과 함께 국토 관리에서 발로될 수 있는 이러한 편향을 철저히

극복하기 위한 데 돌려야 할 것이다.

국토 관리와 사회주의적 애국주의 교양

국토 관리 사업을 개선하기 위한 중요 담보는 전체 인민 대중을 이 사업에 적극 인입하는 데 있다.

나라의 자원과 재부는 전국 도처에 광범하게 분포되여 있으며 그것들을 관리하는 사업은 많은 경우에 큰 공장이나 발전소를 건설하는 것처럼 단기간에 집중적으로 진행되는 것이 아니며 매일 매시 일상적인 관심을 가지고 꾸준히 진행해야 한다. 특히 그것은 모든 부문 단위들과 대중의 방원을 요구하는 원대한 사업이다. 국토를 관리하는 사업은 그 자체의 이와 같은 특성으로 하여 모든 근로자들을 살림살이의 참된 주인답게 교양하는 사업을 선행할 것을 요구한다.

인민 대중을 국토 관리 사업에 적극 끌어 들이기 위해서는 그들을 자기의 향토와 조국을 사랑하는 정신으로, 사회주의 애국주의 사상으로 무장시키는 문제가 선차적으로 제기된다.

김 일성 동지는 근로자들 속에서 사회주의 애국주의 교양을 강화할 데 대하여 강조하면서 다음과 같이 교시하였다:

《전체 근로자들을 자기의 향토와 조국을 사랑하며 자기의 직장과 자기의 도시와 농촌을 훌륭하게 꾸리며 모두가 다 자기의 조국을 견결히 수호하는 정신으로 교양하여야 하겠다》(김 일성, 《조선 로동당 제 4 차 대회에서 한 중앙 위원회 사업 총화 보고》).

사회주의적 애국주의는 무엇보다도 자기의 향토와 마을, 공장과 일터에 대한 애착심, 부모처자에 대한 사랑으로부터 출발하여 조국의 자연과 력사와 문화에 대한 사랑, 자기 계급, 자기 인민, 자기 제도에 대한 열렬한 사랑으로 표현되는 산 감정이다.

따라서 근로자들에 대한 사회주의 애국주의 교양은 그들로 하여금 자기의 조국과 인민을 사랑하는 고상한 정신을 가지고 국토와 재부를 보호 관리하며 나라의 살림살이를 꾸리는 데 주인답게 참가하도록 하는 가장 효과적인 수단으로 된다.

우리는 전체 근로자들 속에서 사회주의 애국주의 사상 교양을 강화함으로써 그들이 생산과 건설에서 애국적 헌신성을 발휘할 뿐 아니라 사회 및 국가적 재부를 더 잘 관리하고 실속 있게 리용하는 데서 높은 책임성과 자발성을 발휘하도록 하며 국토 관리 사업의 전 행정에서 정치 사업을 선행하는 원칙을 관철하여야 할 것이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근로자들에게 조국의 자연과 지리에 대한 풍부한 지식을 주며 우리의 모든 재부가 어떻게 이루어졌는가를 가르쳐 주는 사업을 잘 진행하는 문제이다.

우리 나라는 산천이 아름답고 자원이 풍부한 것으로 하여 일찌기 《금수 강산》이라 불리여 왔으며 《광물의 표본》으로 세상에 널리 알려지고 있다. 그뿐 아니라 도처에 명승지와 문화 유적들이 분포되여 있다. 또한 해방 후 우리 근로자들의 창조적 로력과 지혜에 의하여 이룩된 물질적 재부도 수 없이 많다.

이 모든 것들은 우리 인민의 자랑이며 나라의 귀중한 재부이다.

그러나 우리의 주위를 둘러 싸고 있는 모든 자원과 재부는 결코 쉽게 이루어진 것이 아니며 거기에는 우리의 애국 선렬들과 인민들의 피와 땀이 스며 있다.

바로 국토를 관리하는 것은 혁명의 전취물을 수호하며 자원과 재부를 사회주의 건설과 인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폭 넓게 활용하고 보호하는 사업이

며 우리의 후대들에게 넘겨 줄 백년대계의 영예로운 사업이라는 것을 전체 근로자들에게 똑똑히 인식시키는 것이 절실한 문제로 된다.

모든 근로자들 속에서 국토 관리 사업의 실천과 밀접히 결부하여 사회주의 애국주의 교양 사업을 강화하는 것은 국토 관리 사업을 군중적 운동으로 전개해 나가는 데서 큰 의의를 가질 뿐 아니라 애국주의 교양 사업 그 자체의 효과를 높이는 데서도 큰 의의를 가진다.

사회주의 애국주의는 사람들의 일상 생활에서 발현되는 산 감정인 것 만큼 국토 관리 사업과 같이 남녀로소 누구나 매일 접촉하며 직접 다루고 그 혜택을 입는 일상적인 사업을 생활적 바탕으로 하여 애국주의 교양을 진행할 때 그 효과가 빨리 행동으로 나타나고 공고화되면서 애국심은 급속히 배양될 수 있는 것이다.

특히 청소년들을 국토 관리의 구체적 실천에 적극 인입하면서 그들 속에서 사회주의 애국주의 교양을 강화하는 것이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그것은 그들이 오늘 국토 관리에서 노는 위치와 역할이 클 뿐 아니라 사회주의 조국을 걸머질 미래의 주인이라는 사정과 관련된다.

청소년들 속에서 어릴 때부터 자기의 향토에 대한 설계를 구상하고 주위 환경을 위생 문화적으로 꾸리며 조국의 일목일초를 사랑하는 습관을 길러야만 우리가 오늘 건설해 놓은 모든 것이 먼 후'날에까지 보존되면서 큰 보람을 나타낼 것이며 또한 그들이 자기의 주위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는 가장 단순한 감정으로부터 출발하여 자기의 조국과 인민, 자기의 계급과 제도를 눈'동자와 같이 애호하는 보다 심오한 사상 감정을 더 빨리, 더 쉽게 소유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거리와 마을은 어떻게 꾸려야 하며 산림은 어떻게 조성하고 화원을 어떻게 가꾸어야 하며 공원과 유원지를 잘 관리하자면 어떤 것을 알아야 하는가, 유적 유물을 왜 애호하여야 하는가 등 청소년들 속에서 국토 관리 사업의 구체적 내용을 하나하나 가르쳐 주는 문제를 조금도 사소한 일로 취급하여서는 안 될 것이다.

한마디로 말하여 우리는 전체 인민들이 국토 관리 사업을 개선하기 위하여 머리를 쓰고 의식적으로 달라붙게 하여야 하며 모든 일'군들과 근로자들이 나라의 생산력을 발전시키고 조국의 산천을 오곡백과 무르익는 풍요하고 아름다운 락원으로 꾸리기 위하여 한 사람같이 동원되게 하여야 한다.

남조선 로동 운동 발전의 최근 추세

김 학 진

최근 남조선에서는 생활 처지의 개선과 민주주의적 권리를 위한 로동자들의 투쟁이 새로운 추세로 발전하고 있다.

투쟁의 선두에는 외국 기관을 비롯한 중요 산업 부문의 로동자들이 서고 있으며 그들의 독자적 진출이 강화되고 투쟁은 쟁의에서 파업에로 심화되고 있다.

이것은 남조선 로동 계급의 민족적 각성과 계급 의식이 제고되면서 점차 높은 형태로 투쟁이 발전하고 있다는 뚜렷한 표현이다.

로동자들의 적극적 진출은 미제와 박정희 도당에게 심대한 타격으로 되며 남조선의 사회 정치적 위기를 심화시키는 요인으로 되고 있다.

그러므로 날로 앙양되고 있는 남조선 로동 운동의 새로운 발전 추세는 특별히 주목을 끌고 있다.

1

작년 9월 하순, 임금 인상과 로동 조건의 개선을 요구해 나선 7,000여 명의 경남 지구 해상 로동자들과 3만여 명의 외국 기관 로동자들의 진출을 계기로 급속히 확대된 남조선 로동자들의 투쟁은 인천, 부산, 서울 등 중요 산업 지구와 군산, 려수, 목포 등 10여 개의 항구를 포괄하는 광범한 지역에서 전개되였다.

투쟁에는 중요 산업 부문인 석탄, 전력, 철도, 체신 등 《정부》 관리 기업체와 부두, 해상, 자동차 운수, 제조 공업 등 민영 기업체는 물론 외국인 회사에 이르기까지 거의 모든 부문의 로동자들이 망라되였다. 특히 미군 부대에 고용된 로동자들의 파업 투쟁은 금년 초에 이르러 최류탄을 쏘아대는 미군 헌병들과 투석전을 전개하는 등 폭력적인 형태에까지 발전하였다.

초보적인 집계에 의하더라도 작년 하반기부터 현재까지의 쟁의, 파업, 폭력적 진출 등 각종 투쟁에는 연 44만여 명의 로동자들이 참가하였다.

이것은 그 규모와 치렬성에 있어서 5.16 《군사 정변》 후 가장 큰 대중적인 진출이였다.

오늘 남조선 로동 운동의 급속한 장성은 남조선의 정치 경제적 위기와 인민들 속에서 증대되는 반미 반정부적 기운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

《군사 정변》 후 파쑈 통치의 강화는 남조선을 암흑 천지로 만들었다. 미제의 사촉 밑에 박 정희 도당은 안으로는 《반공법》, 《특수 범죄 처벌에 관한 특별법》 등 각종 악법들을 조작하여 인민 탄압을 강화하는 한편 밖으로는 《한일 조약》을 체결함으로써 남조선을 미 일 제국주의자들에게 2중적인 식민지로 내맡겼을 뿐만 아니라 수만 명의 남조선 청장년들을 웰남 전선에 내모는 등 매국 배족 행위를 감행하였다.

특히 박 정희 도당의 반인민적 로동 정책은 로동 계급의 불만을 증대시켰다. 남조선 위정자들은 로조 활동과 파업 투쟁을 억제할 목적 밑에 《로동 조합법》, 《로동 쟁의 조정법》, 《근로 기준법》 등 로동 관계 악법을 수차에 걸쳐 개악하였으며 《로조》 조직을 더욱 관료적인 체계로 개편하였다. 뿐만 아니라 로동 쟁의는 《신고, 판정, 알선, 조정, 중재》 등 5 개의 단계와 랭각 기간을 거쳐야 하는바 결국 로동 쟁의 신고 후 70~80 일 간은 파업에 들어 갈 수 없도록 하였다. 이와 같이 남조선 로동 계급은 초보적 민주주의 권리인

로동 3 권 즉 단결권, 파업권, 단체 교섭권을 박탈 당하고 있으며 류례 없는 박해와 학대를 받고 있다.

반동적 로동 정책은 저임금 정책에서도 표현되고 있다.

일반적으로 로동력 가치로부터 로임의 배리는 자본주의 하에서도 그 한계를 가지고 있다. 그런데 오늘 남조선 로동자들의 임금은 최저 한계를 넘고 있다. 그들의 평균 임금은 최저 생계비의 4 분의 1도 충당할 수 없는 형편이다. 식민지 기아 임금마저도 제대로 지불되지 않아 수개월씩 밀리고 있다. 로동 시간은 하루 평균 10~18 시간을 넘으며 기술 발전의 정체로 고된 로동이 강요되고 있다. 700만의 실업자 및 반실업자 대군이 로동자들의 사회 경제적 처지를 더욱 악화시키고 있다.

특히 최근 박 정희 도당의 《자유화》, 《현실화》 정책으로 남조선의 물가는 5.16 당시보다 현재 2.3 배나 폭등하였고 세금 수탈액은 같은 기간에 2.2 배로 증대되였다. 그런데 괴뢰 통치배들은 《공무원》과 괴뢰군에 대해서는 그나마 봉급 《인상》 놀음을 벌려 놓으면서도 로동자들의 임금은 계속 억제하고 있다.

이것은 최근 로동자들의 불만을 폭발시키는 직접적 동기로 되였다.

투쟁에 궐기한 남조선 로동자들은 반동적 로동 정책, 특히는 저임금 정책을 반대하면서 일치하게 임금 인상과 생활 처지의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이와 같이 남조선 로동 운동의 사회 경제적 근원은 미제와 그 주구인 지주, 예속 자본가들과의 민족적 및 계급적 모순에 기초하고 있다.

2

현 남조선 로동 운동은 그의 발전 과정에서 일련의 특징적인 변화들을 보여 주고 있다.

우선 주목되는 것은 중요 산업 부문 로동자들 특히 미군 부대에 고용된 로동자들의 진출이 적극화되고 있는 사실이다.

남조선에서 중요 산업이란 대체로 종업원 200 명 이상을 가진 군수 공장, 군사 시설 건설장, 전략 물자 채굴장, 동력, 체신, 철도, 운수, 항만, 군사 기지 등 미제의 군사 침략과 직접 련결된 부문이다.

금번 진출에는 미군 부대 및 일본인 회사에 고용된 로동자들과 자동차 운수, 부두 하역, 해상, 광업 부문을 비롯한 13 개의 주요 《정부 관리 기업체》에서 일하는 로동자들이 적극 참가하였는바 그 비중은 작년 하반기부터 현재까지 투쟁에 동원된 연 인원 수 중 무려 80% 이상의 압도적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산업이 발전된 나라들에서는 중요 산업 부문, 대기업소 로동자들의 투쟁이 로동 운동에서 중심적 력량으로 되고 있다. 그것은 이 부문 로동자들의 집중률이 높으며 공통적인 로동 조건을 가진다는 사정으로 하여 로동자들의 단결과 조직적 행동에 유리한 조건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남조선의 경우에 있어서는 이러한 일반적인 조건과 함께 이 부문은 미제의 군수 산업, 군사 시설, 군사 수송, 군사 기지 등 침략과 략탈 정책에 직접 복무하는 산업이므로 민족적 및 계급적 모순의 결절점으로 되고 있다. 이러한 사정으로 최근 년간 이 부문에서 산발적이나마 로동 쟁의는 계속되여 왔었다.

최근 미군 부대에 고용된 로동자들의 투쟁이 일층 강화된 것은 일반적으로 이들의 생활 처지가 계속 악화되고 있는 것과 함께 미제 침략군의 민족적 멸시와 《로조》 활동을 포함한 로동자들의 사소한 민주주의적 요구마저 억압하고 있는 데 대한 반감과 불만의 증대에 기인하고 있다.

특히 이 부문 로동자들을 크게 자극한 것은 작년 봄 박 정희 도당의 미국 방문을 계기로 《한미 행정 협정》을 타

절하려는 책동과 함께 적들이 로동자들의 단체 활동에 대한 억압 책동을 로골적으로 감행한 것과 중요하게 관련된다.

미제는 아직도 조선이 《전략 상 전시 상태》에 있다는 구실로 미군 부대에 고용된 로동자들에 대하여 일체 파업권, 단체 협약권, 단결권 등을 거부하고 있다. 미제는 작년 봄에 외국 기관 로동자들이 28개의 《로조》 지부를 결성하자 이를 비법화하고 《로조》 지부 간부들을 비롯한 수십 명의 로동자들을 집단 해고하는 등 탄압 조치를 취하였다.

이에 격분한 로동자들은 《미국 정부는 반민주주의적이며 치외 법권적인 로무 조항을 즉각 철회하라!》, 《우리는 미국인의 '기만에 더는 속지 않겠다!》 등 반미적인 구호를 들고 진출하였다.

투쟁 행정에서 미제 침략군의 탄압과 간섭이 격심해짐에 따라 로동자들은 부분적으로 미군과 직접 충돌하게 되였다.

지난 1월과 2월에 미제의 부당 해고와 민족적 박해를 반대하여 파업과 시위를 단행한 부평 지구 《경비 분회》 로동자들과 파주 지구 《한국 로무단》 1,100여 명 로동자들이 미군의 류혈적 폭행에 대항하여 투석전과 육박전을 전개한 사실은 그 대표적 실례이다. 이처럼 로동자들이 미제를 직접 상대로 하여 그것도 폭력 투쟁을 전개한 것은 정전 이후 이번이 처음이다.

이리하여 오늘 미군 부대에 고용된 로동자들을 비롯한 중요 산업 부문 로동자들의 투쟁은 점차 적극성을 띠면서 남조선 로동 운동의 주류를 이루어 가고 있다.

남조선 로동자들의 최근 투쟁에서 특징적인 변화의 다른 하나는 ,적지 않은 경우에 그들이 관제 로조의 간섭을 배척하고 자주적으로 투쟁을 전개하고 있는 사실이다. 그들은 관제 어용 로조의 상층과는 관계 없이 그의 하층 조직인 《지부》 혹은 《분회》를 리용하여 독자적으로 진출하거나 《친목회》, 《투쟁 위원회》 등 조직체를 결성하고 투쟁을 전개하고 있다.

본래 남조선에서는 어용 로조 외에 로동자들의 독자적인 진출은 금지되고 있다. 즉 박 정희 도당은 로동자들의 투쟁을 전면적으로 탄압 억제하기 위하여 남조선에서 유일한 관제 어용 로조를 통해서만 로동 쟁의를 할 수 있도록 법적 조치를 강구하여 놓았다. 동시에 그들은 관제 로조의 지도권을 저들의 충실한 앞잡이들에게 집중시키고 로동자들의 파업권, 단체 교섭권 등 일체 권한을 《로조》의 산별 중앙에만 부여하였다.

이것은 박 정희 도당이 로동자들과 직접 련결되고 있는 공장, 기업소 단위 《로조》와 로동자들의 독자적 진출을 말살하고 로동 운동을 더욱더 관제 어용화하려는 시도에서 나온 것이다.

그러나 로동자들은 실지 투쟁 과정에서 관제 로조의 상층을 통한 투쟁이 언제나 굴욕적인 타협이나 실패로 끝난다는 것을 점차 알게 됨으로써 그를 배격하고 자주적인 투쟁으로 지향하게 되였다.

관제 로조의 상층을 배척하는 기세는 놈들이 1963년 12월 쟁의를 좌절시킨 이후 점차 높아졌으며 최근 이러한 기운은 더욱 증대되였다.

금년 초부터 3월 중순까지의 사이에 전개된 로동자들의 투쟁에서 독자적인 진출과 《로조》의 《지부》 혹은 《분회》들이 조직한 투쟁은 무려 94%라는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로동자들의 자주적 진출이 강화되고 밑으로부터의 투쟁 기세가 앙양됨에 따라 적지 않은 《로조》의 하층 간부들은 상층배들과는 달리 로동자들의 투쟁을 좌절시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투쟁에 합류하고 있다.

이리하여 남조선 로동 운동에서 관제 로조의 반동적 기능은 날로 마비되여 가고 있다.

이러한 형편에서 박 정희 도당은 《로조》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고 그 하층

간부들을 교체하며 투쟁에 참가한 주동 인물들을 닥치는 대로 체포 구금하고 있다. 그러나 적들의 이러한 탄압 책동은 로동자들의 더 큰 분격을 자아내고 그들의 투쟁을 더욱 강화하게 할 뿐 아니라 《로조》 내에서 상층과 하층 간의 대립과 모순을 격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최근 남조선 로동자들의 투쟁에서 또 하나의 특징적인 변화는 파업 투쟁의 비중이 높아 가고 있는 것이다.

이것은 적들의 파쑈적 탄압이 심한 조건에서 로동자들이 보다 적극적인 투쟁을 전개하지 않고서는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는 것을 점차 인식하게 된 구체적 표현이다.

5.16 이후 작년까지만 하여도 로동자들의 각종 투쟁에서 파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5%를 넘지 못 하였는데 금년에는 그것이 40%에 달하고 있으며 기본적인 투쟁 형태로 발전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파업 투쟁은 다양한 형식과 방법을 취하고 있다.

적지 않은 경우에 파업은 《사전 예고》에 관한 《법적》 규정을 무시하고 돌발적으로 단행되고 있으며 파상(波狀)적으로 부단히 반복되고 있다. 이와 함께 지역 별, 산업 별 동정 파업이 강화되고 있는데 이것은 남조선 로동 운동에서 새로운 발전 추세이며 금후 로동 운동의 확대 발전에 있어서 매우 주목되는 현상이다.

남조선 로동 운동의 이러한 발전 추세들은 류례 없는 군사 파쑈 통치 하에서도 남조선 로동 계급이 투쟁을 멈추지 않고 있으며 투쟁 속에서 더욱 강력한 조직적 력량으로 장성하고 있다는 것을 뚜렷이 보여 준다.

3

남조선 로동 운동은 비록 최근에 일정한 앙양을 보여 주고 있으나 혁명 발전의 요구에 비해 볼 때 아직 뒤떨어져 있으며 남조선 인민들의 반미 구국 투쟁에서 주도적 세력으로서의 응당한 자리를 차지하지 못 하고 있다. 투쟁은 의연히 경제 투쟁의 범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며 단결력과 련대성이 부족하다.

그러나 남조선 로동 운동의 이러한 제한성들은 로동자들의 금후 투쟁 행정에서 점차 극복되여 갈 것이다. 이것은 계급 투쟁 발전의 합법칙적인 귀결이다.

오늘 남조선에서 로동 운동을 더욱 발전시키여 그것을 혁명 발전의 요구에 따라 응당한 수준에 끌어 올리기 위해서는 현재 진행하고 있는 경제 파업을 정치 파업과 유기적으로 배합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레닌은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정치 파업과 경제 파업은 호상간 서로 지탱하면서 일자가 타자의 힘의 원천으로 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두 형태의 파업의 밀접한 련계가 없이는 참으로 광범한 대중적 운동은—게다가 전 인민적 의의를 가지는 운동은—불가능한 것이다》(레닌 전집 제 18 권, 93 페지).

남조선 로동 계급은 당면한 경제적 투쟁을 남조선 사회의 민주화를 위한 정치 투쟁과 결합시켜야 한다. 남조선 사회의 민주화가 보장됨이 없이는 로동자 대중의 계급적 조직의 공고화는 물론 경제적 처지의 개선도 가져 올 수 없다.

물론 경제적 요구를 실현하기 위한 투쟁은 현시기 남조선 로동 계급 앞에 제기되고 있는 절박한 과업이다.

그러나 경제적 요구의 해결을 위한 투쟁 그 자체도 남조선에서와 같이 초보적인 민주주의조차 보장되지 못한 조건에서는 소기의 성과를 달성할 수 없다.

현실이 보여 주는 바와 같이 남조선 로동 운동은 그 규모에서 대중성을 띠였고 요구 조건과 로동자들의 투쟁 기세도 매우 높으나 미제와 박 정희 도당의 파쑈적 폭압과 와해 책동으로 말미

앎아 자기의 요구를 충분히 관철하지 못 하고 있다.

그러므로 남조선 로동자들은 정치적 자유를 획득하기 위하여 자기들의 기본 권리인 단결권, 파업권, 단체 교섭권의 보장을 요구하며 나아가서는 사상 선택의 자유, 정당 활동의 자유를 요구하여 투쟁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남조선 로동 운동의 가일층의 발전은 또한 로동자들의 계급적 련대성을 강화하며 농민 및 학생을 비롯한 각 계층 인민들의 투쟁을 적극 지원하는 것과 떼여 놓고 생각할 수 없다.

적들의 폭압이 심한 조건 하에서 로동자들의 투쟁은 아무리 적극적인 형태로 전개된다 하더라도 그것이 개별적 단위에서의 투쟁으로 국한되는 한에 있어서는 쉽게 진압 당할 수 있다. 오직 로동자들의 투쟁은 계급적인 련대성을 띠고 광범히 전개될 때만이 적들의 탄압을 박차고 그들에게 결정적인 타격을 줄 수 있다. 그러므로 개별적 기업체 단위의 투쟁을 적극화하는 동시에 그것을 지역 별, 산업 별로 되는 공동 투쟁과 전 남조선적인 대중적 공동 투쟁으로 확대 발전시키는 것이 절박한 문제로 제기된다.

지금 남조선에서 미군 부대에 고용된 조선인 로동자들이 무기한 총파업에로 돌입할 태세에 있는바 파업의 승리를 달성함에 있어서 모든 부문 로동자들이 도처에서 동정 파업을 일으켜 그들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것은 거대한 의의를 가진다. 이 모든 것은 곧 로동 계급의 투쟁을 지구적인 투쟁으로 되게 하며 대중적 지반에 올려 세우는 구체적인 과정이다.

한편 남조선 로동자들은 생존의 권리와 정치적 자유를 위한 각계 각층 인민들의 투쟁에 주동적으로 참가하며 그들과의 련대성을 강화하고 공동 투쟁을 적극 조직 전개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함으로써만 남조선 로동 운동은 인민 운동에서 주도적 역할을 할 수 있으며 전 인민적인 반미 구국 투쟁에로 인민 대중을 조직 동원할 수 있다.

이는 또한 남조선에서 로동 계급의 령도 하에 로농 동맹을 기초로 각계 각층 인민들의 광범한 반미 구국 통일 전선을 형성하는 실천적 방도로 된다.

남조선 로동 운동을 가일층 발전시키기 위한 이러한 투쟁 과업은 남조선에서 혁명의 지도적 력량인 혁명적 당을 튼튼히 꾸리는 조건에서만 성과적으로 실현될 수 있다.

이 문제의 해결이 없이는 현시기 남조선 로동 운동을 맑스-레닌주의와 결합시킬 수 없으며 운동에서의 자연 발생성을 극복하고 거기에 목적 의식성을 부여할 수 없다. 그러므로 혁명적 당을 꾸리며 그의 합법적 지위를 보장하기 위하여 투쟁하는 것은 남조선 로동자들의 가장 중요한 당면 과업으로 된다.

남조선에서 혁명적 당을 꾸리는 기초우에서 광범한 로동자 대중을 대중 단체에 묶어 세우는 것이 필요하다. 로동자들을 민주주의적 대중 단체에 결속하는 사업은 현재 합법적 활동이 허용되고 있는 관제 로조를 민주화하기 위한 투쟁으로부터 시작하지 않을 수 없다.

오늘 남조선 로동자들이 관제 로조의 상층을 불신 배격하면서 《로조》의 민주화와 자주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투쟁하는 것은 바로 남조선 로동자들을 조직화하기 위한 투쟁이기도 하다.

이렇듯 남조선 로동자들이 혁명적인 당의 령도 밑에 자기의 민주주의적 대중 단체에 굳게 결속되였을 때 투쟁은 의심할 바 없이 새로운 발전 단계에 들어 서게 될 것이다.

《한국사》를 평함 (4)

(19 세기 후반기~20 세기 초엽을 중심으로)

력사학 학사 오 길 보

《한국사》는 마지막 2 개 분책을 《최근세사》라는 편명으로 19 세기 60 년대로부터 1919년 《기미 독립 운동》 즉 3.1 운동 직전까지의 우리 나라 사료를 취급한다고 하였다.

앞서 지적한 바와 같이 18 세기 이후 우리 나라에서는 자본주의적 제 관계가 발생 발전하고 있었으나 그것들은 리조 봉건 왕권에 의하여 극도로 억제 당하고 외래 자본주의 침략으로 인하여 거듭 저애를 받게 되였다. 때문에 1860 년대 이후 애국적인 우리 인민들은 나라의 근대화를 지향하면서 반봉건 반침략 투쟁을 줄기차게 전개하였다.

이전 시기와 구별되는 이러한 사회적 및 국가적 제 관계를 반영한 이 시기의 우리 나라 력사를 우리가 근세사로 규정한 것은 과학적으로 정당하다. 이와 달리 《한국사》가 그 시기를 《최근세사》라고 한 것은 비과학적이며 부정확한 것이다. 더우기 《한국사》는 이 시기를 《최근세편》—《전기(前期)—개국기(開國期)》와 《현대편》—《후기(后期)—현대(現代)》로 나누어 놓고 《전기—개국기》를 《철종(哲宗) 말년(1860 년대—필자)부터 구미 제국과의 통상 수교가 거의 완료된 갑오 동학란 직전까지》(《한국사 최근세편》 4 페지)라고 그릇되게 규정하고 있다.

이리하여 《한국사》는 이 시기의 주되는 력사적 내용을 《개국》이라고 보면서 1860 년대 말부터 즉 외래 자본주의 침략의 개시를 《개국》의 전주곡이라고 묘사하였다.

부르죠아 편사학에 있어서도 자기 나라 력사의 내'적 합법칙성을 부인하고 외래 침략자의 력사를 시대 구분의 주요 징표로는 삼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사 최근세편》(이를 아래의 서술에서는 제 5 분책으로 통일함—필자)에서는 전편들에서와 마찬가지로 외래 침략자의 시기 구분점을 그 대로 모방하였다.

《최근세사》의 후기를 1919년 3.1 운동 직전까지로 잡은 것도 결코 우리 력사 발전의 주체적 계기 즉 우리 인민들의 전국적 봉기를 징표로 한 것이 아니라 제 1 차 세계 대전이 1918년에 끝난 것을 기준으로 삼았다. 이에 대하여 편자 자신이 《구미의 서국 사가들이 현대사와 근세사(우리의 최근세사 부분까지 포함해서—필자)의 구분점을 흔히 제 1 차 세계 대전에 두는 것이 보통이였기 때문이다》(《한국사 현대편》 2 페지)라고 설명하고 있다(《한국사 현대편》을 아래의 서술에서는 제 6 분책으로 통일함—필자).

뿐만 아니라 《한국사》 제 6 분책에서는 서문에서 약속한 대로 3.1 운동 직전까지를 서술하지 않고 1910년 일제 강점에서 그치고 말았다. 그 핑계는 국판 980 페지나 되는 이 분책의 지면이 모자란다는 것이다.

일제 어용의 《조선 사학회》가 과거에 《조선사 대계》를 출판하면서 《최근세사》 편의 제 1 장을 1860 년대 《리태왕의 즉위와 대원군의 내정》으로 하고 마지막 장인 제 9 장을 1910년 《한일합병》으로 끝낸 것을 우리는 알고 있다. 《한국사 최근세편》의 시기 구분이 《조선 사학회》의 《최근세편》과 일치된 것은 우연하지 않다.

《조선 사학회》는 일제의 조선 강점과 식민지 통치를 력사적으로 《정당화》하기에 급급하던 일본 사람들의 《학술 단체》였다. 이 단체에서는 조선 력사를 일제의 조선 강점으로써 결론 지을 필

요가 있었다. 오늘 남조선에 퍼지고 있는 《한국사》는 조선 침략을 정당화하기 위하여 미제의 사촉 하에 날조되였다.

이와 같이 결국 《한국사》의 5~6 분책도 순전히 외래 침략자의 립장을 우리 나라 력사 서술의 기본 척도로 삼고 있다.

1

《한국사》 5~6 분책은 그 어느 분책보다도 외래 침략자와 우리 나라와의 관계를 외곡하여 반영하였다.

총체로 《한국사》의 출판은 민족의 력사를 통하여 경험과 교훈을 찾으며 동시에 민족적 자주 의식과 자부심을 배양하기 위하여 영웅적 조선 인민의 력사를 서술하려는 것이 아니라 민족 허무주의를 부식하려는 흉악한 목적에서 출발하였다. 그 중에서도 5~6 분책은 그 전형을 이루고 있다.

5~6 분책의 편자는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외래 침략자 특히 미제의 립장에 충실히 서려고 무진 애를 쓰고 있는 것이 특징적이다.

편자가 미국 침략자들의 죄행을 어떻게 변호하고 있는가를 1866년의 샤만호 사건으로부터 보아 가기로 하자.

이 때 미국 침략자들은 조선을 노리는 자본주의 침략자들의 최선두에 서서 피비린 내를 풍기고 있었다. 널리 알려진 바와 같이 대포를 비롯한 중무기로 장비한 미국 해적선 샤만호는 조선과 략탈적 무역의 길을 열겠다는 것을 표방하면서 평양 주변의 고대 왕릉에서 금은 보화를 략탈하려고 대동강 하류에 침입하였으며 우리 인민들의 재물을 략탈하였고 그들을 함부로 살해하였다.

미국 강도단은 평양성을 지키던 인민들로부터 응당한 징벌을 받았다.

미국의 침략 행위는 그들의 수치스러운 패배로, 우리 인민의 빛나는 승리로 끝났으며 거기서는 조선 인민의 슬기로운 애국 정신과 함께 미국 침략자들의 파렴치하고도 흉악한 본성이 대조적으로 아주 선명하게 드러났다.

《한국사》는 이러한 점에 추호도 관심을 돌리지 않았으며 도리여 샤만호가 미국 배이며 강도단이라는 자명한 사실마저 부인해 보려고 애를 썼다. 편자는 이 사건의 경과 서술에서 이 배에 영국인도 탔으며 말라이인, 청국인도 타고 있었다는 것을 거듭 강조하고 심지어 그들을 백인과 황색 인종으로 갈라 놓기까지 하면서 《샤만호 사건의 중요 인물은 백인이 불과 5 명이였으나 그 국적(國籍)은 미, 영, 정말의 3 개국으로 나뉘고》(제 5 분책, 285 페지) 있다고 하였다.

그러나 《한국사》가 인정하는 바와 같이 샤만호가 《행방 불명》이 되였을 때 그것을 수색한 것은 미국이였으며 샤만호의 《복수》를 위하여 1871년에 함대로 강화도를 침범한 것도 미국이였다. 미국을 위하여 영국, 단마르크를 끌어 들이고 한걸음 더 나아가 이 백인을 위하여 말라이 사람과 청국 사람까지 끌어 들여서도 그 죄행은 가릴 수 없다.

이 미국 강도단의 만행에 대해서도 《한국사》는 부인하려고 시도하였다. 샤만호 침략자들이 우리의 중군 리 현익을 배안에 잡아 가두는 오만무례한 비법 행위를 감행한 것을 하나의 《탈선(脫線) 행위》로 보고 있다.

《이 때 이미 그들의 탈선 행위로 연강 일대에는 살기가 넘쳤는데, 그들 스스로 행선(行船)의 자유조차 잃게 되니 선중의 백인 이하 전원은 불안과 초조속에 리성의 판단도 저버리게 되였다. 따라서 통상과 교역도 이미 실패로 되고 그 이상의 모종 계획은 왕릉 하나 구경도 못한 채 단념할 수 밖에 없었으며 이제 와서는 진퇴유곡(維谷)인 궁지에 자포자기의 광폭무비한 행동만을 감행하게 되였다》(제 5 분책, 281 페지). 남의 나라의 내륙 깊이 그것도 주권 당국의 거듭되는 저지에도 불구하고 들어 와서 살인, 략탈, 강간, 방화 등 갖은 만행을 한 이 략탈자들의 소행이 《불안과 초조》에서 유래한 《리성의 상

실》로써 선명되고 있다.

《한국사》가 이렇게 사실을 외곡하고 있는 것은 바로 상대가 미국 사람이기 때문이다.

샤만호 사건이 있은 지 2 년 후인 1868년 5월에 미국인 젠킨스라는 자의 주동 하에 독일인, 프랑스인들로 구성된 강도단이 미국 정부의 직접적인 동의를 얻어 대원군의 부친 남연군의 무덤을 파 헤치고 시체를 훔쳐 가려고 충청도 덕산군 가야동에 침입하였다.

항해 시에 북독일 련방의 기'발을 달고 오던 이 자들은 가야동에 이르자 뻔뻔스럽게도 로씨야인이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미국은 당시의 집권자인 대원군에게 저들의 침략의 길을 열도록 강요하기 위하여 남연군의 시체를 미끼로 삼는 야만적인 방법까지 서슴지 않았던 것이다. 이 강도 행위가 가야동 부근 인민들의 필사적인 반항을 불러 일으킨 것은 당연한 일이였다.

《한국사》는 이 사건이 강도 미수의 《국제적 범죄》임을 마지 못해 인정하면서도 침입자의 《진의》는 그렇지 않았다고 변명하고 있다. 《한국사》에 의하면 젠킨스 도당의 《진의》는 《첫째 조선 왕국과 통상 조약의 체결을 교섭하자는 것이요, 둘째 조선 왕국의 사신 한 명을 배에 태워 가지고 지구 일주의 려행을 하자는 것이며, 세째 이 같이 함으로써 은둔국 조선을 세계에 소개하자는 것이였다》(제 5 분책, 287 페지)고 하면서 통상 교섭을 운운하며 만행한 주모자는 미국인 젠킨스가 아니라 《유태계 북독일인 에른스트 오펠트라는 자가 사건의 장본인》(제 5 분책, 286 페지)이라고 하였다. 이 설명들은 다름 아닌 미국을 두둔하려는 《한국사》 편자의 《진의》를 말해 줄 뿐이다.

《한국사》 편자가 가야동 인민들의 영용한 투쟁을 말살하고 있는 것은 우연치 않다. 《가동지민 한사저당(伽洞之民限死抵當)》(《고종 실록》 무진년 4월 21일조)이라고 밝히고 있는 당시의 기록으로 보아서도 그 곳에서 전 군중적인 투쟁이 전개되였다는 것은 리해하기는 어렵지 않다. 그런데 《한국사》 5 분책은 그것을 《덕산 군수 리 종신과 묘지기와 약간 명의 동민》(제 5 분책, 288 페지)의 반항으로 서술하였다.

이 때로부터 3 년 후인 1871년에 미국 침략자들은 포 80여 문을 가진 5 척의 군함에 1,230 명의 무장 성원을 태워 가지고 강화도로 침략해 왔다. 이 《신미 양요》도 강화도를 지키던 우리 군인들과 인민들의 영웅적 투쟁으로 격퇴되였다. 이 때 미국 침략자들은 함선과 무장 성원을 잃었을 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심대한 패배를 당하였다.

미국 침략자들은 조선 인민의 용감성 앞에 큰 공포증을 가졌다. 적들도 우리 군인들의 투쟁에 대하여 《그들은(조선군—필자) 비상한 용기를 가지고 응전해 가며 성벽에 올라서 미군에게 흙과 돌을 던졌다. 그들은 죽음을 각오하고 한걸음 한걸음 에워 싸고 밀려 드는 적에 대하여 죽기까지 분전하였다》(그리피스 《은둔국 조선》, 416 페지)고 하면서 《용감성에 있어서는 종래의 그 어떤 민족도 그들을 릉가할 자가 없다》(존 포스터 《동방에 있어서의 미국의 외교》, 315 페지)고 비명을 올렸다.

그런데 《한국사》 5 분책은 조선군의 불사조와 같은 애국적 헌신성을 말살하려고 이 사실을 완전히 전도하여 서술하였다. 즉 미국 침략자들은 쫓겨 간 것이 아니라 《평화리에 통상 수호하다》는 것이 자기들의 《최대의 임무》였기 때문에 《한반도 수역에서 후퇴키로 결정하고… 퇴거하고 말았다》(제 5 분책, 307~308 페지)는 것이다. 또한 편자는 이 때 적아 간에 전개된 투쟁 자체를 《본의 아닌 충돌》이였다고 말하고 있는가 하면 우리 인민의 빛나는 승리에 대해서는 《상호간 국정에 어둡고 의사가 불통하여 신미년(1871년)에 한 미 량국이 무력으로 상충한 것은 량국을 위하여 불행한 사건이였다》(제 5 분책, 707 페지)고 하였다.

《한국사》는 이와 같이 명백한 력사적

사실을 전도함으로써 오늘 남조선에서 나날이 앙양되고 있는 인민들의 반미 투쟁 의식을 무마하려는 매국 역적들의 책동에 복무하고 있다.

이러한 시도는 사진 배렬에서도 나타났다. 《한국사》 제 5 분책에는 《신미 양요》 관계 도판 사진 4 매가 들어 있는데 미국 측 사진은 그들이 강화도에 침입하여 일시적으로 초지진과 광성진을 점령하고 의기 양양한 때의 것이며 우리 측 사진은 정세가 불리한 때에 찍히운 것이다. 《한국사》는 이러한 작간으로 미국 함대와 그 사령관 및 막료(幕僚)들의 《위풍이 당당한》 것을 보여 주는 한편 이에 나포된 우리의 함선과 전투에서 희생된 우리 병사들의 사진을 대조시키면서 우리 인민을 모독하고 있다.

사진 배렬을 통하여 우리 인민들의 애국 전통을 말살하려는 시도는 다른 데서도 찾아 볼 수 있다. 《한국사》 제 5 분책 274 페지와 275 페지 사이에 삽입한 프랑스 천주교 신부인 리델과 척화비(斥和碑) 사진 도판이 바로 그것이다.

척화비의 비문에는 《양이 침범 비전 즉화 주화 매국(洋夷侵犯非戰則和 主和賣國)》 즉 외국 침략자에 대한 길은 오직 두 길 밖에 없으니 하나는 항전이요 다른 하나는 강화이다, 그런데 강화는 매국이다라는 뜻의 절박한 전투적 구호가 큰 글'자로 새겨져 있으며 그 옆에 작은 글'자로 우리의 후손들은 이를 경계하라고(戒我萬年子孫) 하고 병인년에 지어 신미년에 세웠다(丙寅作 辛未立)고 적혀 있다. 이 애국적이며 반침략적인 척화비는 1871년 미국의 침략과 함께 서울과 8 도의 주요 도로에 세워져 전체 인민의 한결같은 지지를 받았고 그들을 조국 수호를 위한 투쟁에로 고무하였다.

척화비의 사실은 이러하다. 그러므로 척화비의 사진은 전기한 미국 함대와 그 사령관과 막료들의 사진을 넣은 즉 1871년 《신미 양요》 부분에 삽입되는 것이 응당한 배렬 순서이다. 그런데 《한국사》 편자는 이를 1866년 프랑스 침략을 서술한 부분에 리델 신부와 같은 장에 그것도 리델 사진의 밑에 배렬하였다. 이것은 우선 미국의 앞잡이로 활동하던 프랑스인 신부를 전면에 내세움으로써 우리 인민의 반침략 투쟁을 왜소화하려는 것이며 그보다 더 중요하게는 반미 기상을 아로새긴 척화비를 프랑스의 침략 부분에 배렬함으로써 반미 투쟁을 반프랑스 투쟁에로 돌리자는 것이다. 이러한 잔꾀로써는 척화비의 진실을 외곡할 수 없으며 각성되고 있는 남조선 인민들을 기만할 수 없다.

1882년에는 조미 조약이 체결되였다. 이 조약이 침략적인 불평등 조약이라는 것은 그 누구도 의심치 않는다. 그런데 《한국사》는 《상호 문화 교류의 친절한 문구도 아끼지 않았으니 당시의 모든 정세로 보아 족히 근대 국가의 체모를 차린 우호 조약이였다고 아니 할 수 없다》(제 5 분책, 743 페지), 《깨끗이 작성했다》(제 5 분책, 738 페지) 등 온갖 미사려구로 그 본질을 덮고 있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미국의 침략의 길을 닦아 준 이 문건에 근거하여 그 후 미국은 일제와 공모하여 철도 부설권, 광산 개발권 등을 강탈하였으며 귀중한 자연 부원을 략탈하였으며 인민의 고혈을 빨아 갔다.

모오스라는 미국인 협잡배는 제 돈은 한 푼도 들이지 않고 얻은 경인 철도 부설권을 다시 일본 침략자에게 275만여 원을 받고 팔아 넘겼다. 이에 대하여 《한국사》는 《미국인 모오스를 믿고 그 특허의 임의 매도권까지 인정해 준 것이 당시의 이 나라 정부였던 만큼 브로카에 불과한 모오스의 행동이나 탓한들 그 무슨 소용이랴》(제 6 분책, 802 페지)라고 쓰고 있다.

미국 선교사들이 우리 나라에 합법적으로 오게 된 것도 1882년 조미 조약에 의해서였다. 이 양키 침병들은 우리 나라 뿐만 아니라 아세아 대륙의 여러 나라에서 교육, 보건 등 각 부문에

침략의 마수를 뻗치였다. 그러나 《한국사》에 의하면 《그들(선교사들—필자)의 부대 사업으로 시작된 교육, 의료, 학술 면의 모든 시설은 진실로 이 나라에 근대 문화를 소개하는 영광을 차지할 수 있었다. 따라서 우리 겨레가 〈자유〉와 〈민주〉를 알고 〈평등〉과 〈박애〉를 알게 된 것도 정녕 이 때부터였으니, 한국 근대 문화에 〈아메리카〉적인 요소가 다른 서구 제국의 그것보다도 가장 뿌리 깊게 박힌 것은 결코 심상한 인연에서 이루어진 것도 아니였다》(제 5 분책, 745 페지)고 한다. 즉 우리 나라의 근대화는 미국 선교사들에 의하여 이루어졌다는 것이다.

음흉한 미국 침략자들은 운산, 대유동을 위시한 많은 광산들에서 막대한 금을 도적질해 가면서 그 략탈성을 은폐하기 위하여 병원과 학교를 몇 개 설치해 놓고 자선 사업을 하는 척 하였으며 스파이를 양성하기 위하여 몇 명 뽑아서 미국 《류학》도 보냈다. 우리 나라의 근대화는 이러한 침략의 첨병인 미국 선교사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

우리 나라에서 근대 문명과 개화를 알게 된 것은 1860 년대부터이며 그를 위하여 본격적인 활동을 한 것은 개화파들이다. 그들은 외래 자본주의 침략 이전에 자주적인 립장에 튼튼히 서서 세계 정세를 연구하고 거기에서 우리 나라의 실정에 맞는 근대 문명과 개화를 도모하려고 하였다. 우리 나라에서 움튼 자유, 민주, 평등, 박애의 사상을 미국 선교사와 관련시키려는 것은 그야말로 파렴치한 행위이다.

《한국사》 5~6 분책의 편자는 조-미 관계 서술에서 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와의 관계 서술에서도 미국의 립장에서서 미국을 비호하고 있다.

그것은 우선 조-일 관계 서술에서 뚜렷이 볼 수 있다.

1876년 강화도 조약 체결 당시 주일 미국 공사는 조선 파견 일본 전권 부사 이노우에에게 미국인 페리의 《일본 원정기》라는 책자를 주면서 일본도 페리가 한 대로 상대방을 무력으로 위협할 것을 권유하였다.

청소한 군국주의 일본이 조선 침략의 계기로 삼은 《강화도 조약》은 미국과의 공모 하에 미국인들의 직접적인 가르침을 받고서야 비로소 체결될 수 있었다. 이것은 이미 세상이 다 아는 사실이다.

미제에 대한 아부는 로일 전쟁에서 일제를 적극 지지해 주고 일제의 조선 강점을 자기들의 필리핀 강점과 교환 조건으로 승인한 1905년 당시 미국의 극동 정책 서술에서도 드러나고 있다.

《한국사》 편자는 1905년 일제의 조선 침략을 미-일 공모가 아니라 미국의 일제에 대한 지나친 《우정》의 결과였다고 쓰고 있다. 《여기에 지금까지 서술한 몇 가지 사실을 종합해 볼 때 미국의 대극동 정책은 이 때를 전후해서 영국의 그것을 로골로 답습하므로 호전국 일제에 대해 과잉 우정도 베풀었던 것이 사실이니 이 과잉 우정이 후일의 화근이였다고 일컬은들 무엇이 잘못일 것이냐》(제 6 분책, 914 페지). 《한국사》 편자는 영국을 끌어 들임으로써 《과잉 우정》 책임까지도 미국 혼자만이 아닌 당시의 일반적인 추세로 묘사하고 있다.

조-일 관계 서술에서 뿐만 아니라 조-청, 조-로 관계 서술에서도 《한국사》의 편자는 미국 사람이나 된 것처럼 행동하고 있다. 짜리 로씨야를 《곰 같은 제국주의 로씨야》(제 5 분책, 147 페지)라고 부르고 있는 것도 바로 미국 사람들이 그렇게 부르기 때문이다.

《한국사》 제 6 분책 2 편 2 장 1 절에는 《로-일 협상과 38선 분할 음모》가 장황하게 서술되여 있다.

1896년 일본과 짜리 로씨야 간에 벌어진 남북 분할 음모는 독장사의 구구로 실현되지 못 하고 말았다. 그런데 《한국사》가 이 내용을 장황하게 서술한 것은 지난 세기 말에도 조선은 이미 분할될 번 했다는 인상을 독자들에게 주자는 것이며 그렇게 함으로써 남북 분

렬이 그 무슨 력사적 근거나 있는 것으로 인식케 하여 오늘의 남북 분렬의 장본인인 미제의 죄과를 모호하게 만들려는 것이다. 《한국사》 편자가 《오늘의 38선 비극에 비추어 그 력사적 죄책(罪責)을 결코 모면할 수가 없는 것이라》(제 6 분책, 771 페지)고 하면서 일제에게 《죄책》을 추궁하고 있는 것은 그 로골적인 표현이다.

2

《한국사》 5~6 분책에는 온갖 반동적인 부르죠아 리론이 도입되였다.

그 중에서도 우리 나라의 지리적 환경이 좋지 못하다는 《지정학》 리론과 아세아에 위치함으로써 우리 나라의 사회 발전이 《락후》하였다는 《아세아 정체론》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지정학은 지리적 요인을 가지고 제국주의 침략 정책을 정당화하려는 반동적인 사회 《리론》이다. 이 《리론》은 한때 파쑈 독일에서 《파씨즘 리론》, 《독일 인종 우월론》에 복무하였으며 일제의 《대동아 공영권》 몽상에도 리용되였다.

오늘은 미 제국주의자들이 세계 제패의 야망을 실현하기 위하여 이 반동적인 《리론》을 리용하고 있다.

《한국사》 제 5 분책 서문에서 편자는 《우리 나라 한반도가 차지한 지정학적 위치는 아세아 동북부의 제일 가는 요충으로서 기후 풍토를 비롯한 여러 가지 천부의 혜택도 세계 중 그 어느 다른 나라에 비교할 바가 아닌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 태여나 살게 되는 자 남달리 그를 사랑하며 수호하게 되는 고장이요, 이웃 땅에 처하여 엿보게 되는 자 스스로 탐욕을 품어 침략하기 쉬운 고장도 이 국토임에 틀림이 없다》(제 5 분책, 1 페지)고 하였다.

편자의 본심은 물론 《아세아 동북부의 제일 가는 요충》 지대이며 《기후 풍토를 비롯한 여러 가지 천부의 혜택도 세계 중 그 어느 다른 나라에 비교할 바가 아닌 것》으로, 《동방 문화의 뚜렷한 선구로서 남다른 력사와 문화를 자랑할 수 있었다》(제 5 분책, 1 페지)는 데 있지 않다. 이것은 양념에 불과한 것으로 문제는 《이웃 땅에 처하여 엿보게 되는 자 스스로 탐욕을 품어 침략하기 쉬운 고장도 이 국토임에 틀림이 없다》는 데 있다. 즉 우리 나라는 지리적 위치로 보아 1860년 이후 구미 자본주의 침략을 당하는 것이 응당하다는 것을 립증하자는 것이다. 편자는 높은 생산력과 찬란한 문화를 창조한 유구한 력사적 전통을 가진 우리 나라에 《지정학》 리론을 끌어다 붙이는 생억지를 합리화하려고 희랍과 로마의 례를 들고 있다. 그는 비유할 수 없고 서로 정치적 정세가 달랐던 희랍과 로마를 인용하면서 《그는(우리 나라를 가리킴—필자) 마치 발칸 반도에 희랍 문명도 찬란한 바 있었으나 복배 수적(腹背 受敵)의 온갖 시련과 수난을 면할 수 없었고 이딸리아 반도에 로마 문명도 자랑할 만 하였으나 그의 력사적인 기복(起伏)과 변천이 결코 순탄(順坦)치 않았던 것이나 다름 없이 우리 민족도…역시 지리적 환경에서 초래되는 시련과 수난을 면할 수가 없었다》(제 5 분책, 1 페지)고 쓰고 있다.

한때는 지리적 위치가 좋아 문화가 발전하고 다른 때에는 지리적 위치가 좋아 《시련과 수난》을 겪어야 한다는 것은 아무리 희랍과 로마의 례를 끌어다 붙여도 모순된 론리다.

여기서 《한국사》 편자는 또하나의 궤변을 늘어 놓지 않으면 아니 되였다. 즉 중세기에는 《지중해를 넘나드는 거박(巨舶) 칠선들이 이딸리아 반도나 발칸 반도를 못 본 체 지나칠 수 없는 그와 반대로 아세아 대륙의 동남 해안을 끼고 태평양을 북상하는 해박 거선들은 그들의 자연 항로에서 어느 정도 움푹히 들어 앉았다고 하여 한반도를 못 본 체 무역풍이 부는 대로 슬금살짝 일본으로만 직행하는 것이 상습으로 되였》는데(제 5 분책, 1~2 페지) 《근대 자

본주의 문명의 발상지가 영국을 중심한 서구라파로 되고 그들의 방향이 해로를 따라 동침하게 된 이후로는 우리 나라의 지정학적 위치가 매우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고 말았다》(제 5 분책, 1 페지)는 것이다.

《자연 항로》에서 움푹히 들어 앉았다는 것은 미국 배나 구라파 배들이 다니는 길에서 떨어져 있어서 불리하였다는 말인데 이것은 편자의 발견이 아니다. 비록 여기서 영국과 서구라파를 들고는 있지만 사실 이것은 조선 침략을 위하여 날뛰던 미국 지배층이 말해 오던 그대로이다.

《아세아 정체론》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아세아 정체론》은 아세아 사회가 근대적 발전 즉 자본주의적 발전에서 구라파보다 뒤늦었던 사실을 과장하고 외곡하면서 아세아 사회를 통털어 언제나 보다 락후했고 근대적으로 발전할 계기를 자체 내에 가지지도 못 했다는 것을 확증하는 《리론》이다.

이 《리론》은 일찌기 구라파 식민주의자들에 의하여 조작되고 퍼뜨려지기 시작하였다.

그들은 어느 때나 구라파가 중심이요 구라파가 모든 사회와 나라의 척도로 되며 아세아는 그 밖의 지역과 마찬가지로 변방이며 락후한 지대이며 예속된 지대로 되여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아세아 사회는 구라파의 지배를 받아야 하고 또한 구라파 문명의 영향 하에서만 근대적인 발전을 할 수 있다고 황당무계하게 주장한다.

《한국사》 5~6 분책의 편자는 이러한 《리론》에 의거하면서 우리 나라는 락후하였기 때문에 1866년, 1868년, 1871년에 미국의 침략을 반대하지 말고 그들의 주장을 받아 들였어야 할 것이였다는 결론을 도출하고 있다. 일례로 미국 침략을 우리 인민이 반대하였기 때문에 《한 미 량국 간의 수교 통상을 서기 1882년까지 저해하는 동시에 이 나라 이 국민이 구미 문화와 접촉하여 근대화할 수 있는 호기회를 동린의 일본보다 훨씬 지연시키고 만 것이다》(제 5 분책, 309 페지)라고 하였다. 여기서 《한국사》는 일본의 자본주의 발전도 미국의 침략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처럼 남의 나라 력사까지 날조하고 있다.

제국주의자들은 다른 나라를 침략하기 위하여 《지정학》이니, 《아세아 정체론》이니 하는 리론을 들고 나온다.

그런데 《한국사》는 무슨 까닭에 침략자들의 반동적인 《리론》을 우리 나라 력사에 적용시키고 있는가? 그것은 오직 우리 나라가 구라파나 미국의 식민지로 되기에 꼭 알맞는 지리적 및 력사적 조건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증명》함으로써 오늘 미제의 남조선 강점의 영구화를 정당화하려는 데 있다. 이렇듯 《한국사》 5~6 분책의 《지정학》과 《아세아 정체론》은 침략자의 《리론》을 충복의 《리론》으로 만든 것이다.

이런 식으로 《지정학》과 《정체론》을 도입한 것은 《한국사》에서 밖에 찾아 볼 수 없다.

3

《한국사》 5~6 분책은 나라의 근대화를 위한 우리 인민의 반봉건 반침략 투쟁을 《외부적 원인》 즉 《타률성》에서 찾고 있다.

《한국사》 편자는 갑신 정변, 갑오 개혁 등 우리 나라의 부르죠아 개혁의 시도들을 외래 자본주의 침략이 있은 이후에 그리고 일제와 같은 침략자의 《덕분》으로 비로소 가능하였던 것처럼 서술하고 있으며 반일 의병 투쟁과 같은 자랑찬 반제 반침략 운동에 대하여서는 극력 말살하려고 시도하였다.

1884년 12월 4일에 일어 난 갑신 정변은 우리 나라 부르죠아 개혁 운동의 첫 시도로서 국내에 강력한 영향을 미치였다. 력사적 사변으로서의 갑신 정변은 실패하였으나 그것이 뿌려 놓은 씨앗은 1894년에 갑오 개혁이 진행될 수 있게 하였다.

갑신 정변은 18 세기부터 우리 사회 내부에서 싹트기 시작한 자본주의적 제 요소의 반전을 배경으로 하고 이미 1876년 개항 이전에 형성된 개화파들에 의하여 단행되였다. 중요한 문제는 개항이라는 외래 자본주의 세력과의 접촉이 있기 전부터 우리 사회 자체 내에 부르죠아 개혁의 필연성에 대한 자각과 그에 기초한 운동이 시작되고 있었다는 데 있다. 그러나 《한국사》는 1882년 임오 군인 폭동 이후 《진실로 개화와 자강 독립에 눈 뜨기 시작한 소장 정치인들은 애국, 애족의 불타는 정열에서 동지들로 더불어 정당 형태도 결성하고 나아가서는 조급하나마 <쿠데타>에 의한 정치 개혁도 서두르게 되였다》(제 5 분책, 533 페지)고 하였다.

보는 바와 같이 《한국사》는 엄연한 사실을 외면하고 일제 어용 학자들이 지난날에 날조한 그 대로 되뇌이면서 오로지 외래 침략 세력이 우리 나라의 개화 반전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처럼 《외부적 원인》에 매여 달리고 있다.

갑신 정변을 지도한 개화파 지도자 김 옥균은 1884년 말~1885년 초에 집필한 갑신 일록에서 《궁녀 모(某)씨는 년령이 42 세…평시 고 대수(顧大嫂)라는 별호로 불려 왔고 곤전(민비—필자)의 근시로 뽑혀 있는 분인데 벌써 10 년 전부터 오당(吾黨)에 밀사를 통보해 주는 자이다》(《갑신 일록》 12월 1일조)라고 하였다. 이는 정치적 세력으로서의 개화파의 활동이 늦어도 1874~1875년 경에는 전개되고 있었던 것을 말한다. 개화파들은 1870 년대 초부터 자기 활동을 전개하였으며 1882년 이전 시기에 일련의 국정 개혁을 수행하는 데 공헌하였다.

갑신 정변도 자주적 립장에서 전개되였다. 1882년 이후 만청 세력과 결탁한 수구파 일당은 진보적인 운동을 가혹하게 탄압하였다. 개화파는 부르죠아 상층 개혁을 수행하기 위하여 청나라와 대립적 관계에 있던 일본을 리용하려고 하였다. 여기에는 강력한 자주적 립장이 전제로 된다.

김 옥균은 정변을 앞둔 9월 29일(양력 11월 16일)에 류 대치를 방문하고 《가령 일본 정부의 원조가 없다 하더라도 우리들의 의사로 볼 때 우리 나라의 사태가 절박하기 마치 배수 무량과 같은지라 일본 정부의 거동은 기다릴 수 없을 터이다》(《갑신 일록》 11월 16일조)라고 말하였다.

김 옥균과 함께 1872년 경부터 활동한 홍 영식은 갑신 정변 직전에 《우리 나라는 이제 만일 개혁이 없이 수년을 경과하면 그 때에 가서는 변혁된다 하여도 다시는 조선인이 자기 나라를 다스리게 되는 것은 어렵게 될 것 같은 것이 념려가 되여 견딜 수 없다》(《비서 류찬 조선 교섭 자료》 제 3 권, 291~292 페지)고 자주적인 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이것은 갑신 정변의 지도자들이 자주적인 립장에 서 있었으며 그것은 바로 그들이 민족적 위기를 타개하고 나라의 사회적 개혁을 하려고 한 확고한 립장과 관련되는 것이였다.

갑오 개혁도 마찬가지 사정이였다. 1894년 갑오 농민 전쟁은 봉건 통치배들에게 심대한 타격으로 되였다. 낡은 것을 고집하여 오던 봉건 통치 집단도 종전 대로의 통치 방법으로는 도저히 해 나갈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개혁에 대하여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다.

좌의정 조 병세는 5월 8일 현직 및 전직 대신들의 모임에서 《오늘 인민들의 사정은 가긍하다. 초가 4 간을 가진 자가 1 년에 100여 량의 세금을 내야 하며 땅 5~6 두락을 가진 자는 4 석여의 세를 내야 하니 입에 풀칠도 할 수 없이 곤궁이 막심하다. 인민들이 만일 편안히 살 수 있고 즐겨 자기 직업에 종사할 수 있다면 어찌 아우성치는 소란을 일으키겠는가?

만약 대 경장, 큰 조치를 강구하지 않는다면 아무 실효도 없을 것이다》(《고종 실록》 제 31 권 갑오년 4월 4일조)라고 하였다.

이보다 앞서 개화파들은 갑신 정변 실패 후에도 개혁을 지향하는 운동을 계속하고 있었다. 개화파에 속하여 김 옥균의 지도 하에 있었던 유 길준이 1886년 가을부터 1889년 봄에 걸쳐 《서유 견문》을 집필하여 출판한 것도 그 일례에 속한다. 자본주의 여러 나라들의 사회 제도와 기술 문명을 소개한 《서유 견문》은 당시 인민들을 각성시킨 바 컸다.

이와 같이 부르조아 개혁의 주체적인 준비가 진행되여 오던 시기에 일제의 침략으로 정세는 더욱 복잡하여지기 시작하였다. 이 때 김 홍집은 《자수 자강(自修自强)》(《고종 실록》 제 31 권, 갑오년 5월 25일조)을 강력히 주장하였다.

일본 침략자들의 문헌까지도 김 홍집, 유 길준 등이 《조정이 크게 경동 중에 있는 기회를 리용하여 평소 개혁을 희망하던 것을 완수하려고 하였다》(《일본 외교 문서》, 제 27 권 2 분책)고 쓰고 있다.

갑오 개혁의 담당자인 김 홍집, 어 윤중도 침략자들 호상간의 모순 관계를 리용하여 개혁을 단행하려고 하였다. 그러나 《한국사》는 갑오 개혁을 담당할 만한 《국내 정치인》이 없었던 것으로 말하고 있으며(제 6 분책, 178 페지 참조) 심지어 이 개혁이 순전히 일제 침략자들의 손에서 진행된 것으로 묘사하고 있다. 즉 일본 침략자 《오도리 게이스께는 국왕과 대원군을 괴고 혹은 그들에게(정부 요인들—필자) 위협 강요하여 척족 정권에 대체할 수 있는 새 정부를 수립하게 되였다》(제 6 분책, 211 페지)라고 하였다.

갑오 개혁에서 주동적 역할을 한 김 홍집과 같은 인물은 비록 그에게 착오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기본적으로는 긍정적 평가를 주어야 한다. 그러나 《한국사》는 그를 《얼빠진 괴뢰》(제 6 분책, 640 페지)로 규정하였다. 그 대신 약빠르게 미국으로 도망쳐 결국은 미제의 주구로 된 서 재필은 《위대한 공헌》(제 6 분책, 829 페지)을 한 사람으로, 《독립 운동의 진실한 선구자》(제 6 분책, 864 페지)로 묘사하였다. 무엇 때문인가? 전자는 미국과 상관 없었던 인물이요 후자는 나중에 《미국인》으로 되여 버린 인물이라는 데 편자의 주되는 《론거》가 있는 것이다.

의병 투쟁은 우리 시대에 가까운 반제 반봉건 무장 투쟁이며 따라서 자료도 풍부하며 세상에 잘 알려져 있다. 동시에 조선 사람이라면 누구나 의병 선렬들에 대하여 존중하여 마지 않는다.

강화도 조약 이후 일본 침략자들을 반대하여 싸워 온 조선 인민은 1895년부터 반일 의병 투쟁을 줄기차게 전개하였다. 민족의 위기가 보다 심각하게 된 1905년 이후 반일 의병 투쟁은 널리 전국을 포괄하게 되였다. 당시의 중요 의병대만 지적하더라도 함경도 지방에서는 노방 포수 및 홍 범도 의병대, 평안도 지방에서는 류 린석 및 채 응언 의병대, 황해도 지방에서는 김 수민 및 리 진룡 의병대, 강원도 지방에서는 민 긍호 및 김 덕제 의병대, 경기도에서는 허 위 및 왕 종회 의병대, 경상도 지방에서는 신 돌석 및 당사리(머슴'군), 변 학기 의병대, 충청도 지방에서는 리 강년 의병대, 전라도 지방에서는 전 해산 의병대가 활동하였다.

의병대에는 농민을 위주로 해산 당한 정규 군대의 군인들과 새로 장성하고 있던 로동자, 어부, 지식인 및 녀성들까지 참가하였다. 의병대들에서는 아비지가 전사하면 아들이, 남편이 전사하면 안해가, 형이 전사하면 아우가, 스승이 전사하면 제자가 뒤를 이어 용감히 싸웠다.

여기서 우리는 조선 인민의 고결한 애국 진통을 다시 한 번 보게 된다.

이 투쟁에 대하여 《한국사》는 어떻게 쓰고 있는가? 1895년 의병 투쟁은 《별강의 정책과 왕조의 붕괴》라는 편에서 《의병의 봉기와 아관파천》(제 6 분책, 725 페지)이라는 한 개 분제목으로 처리하였으며 1905년 이후의 의병 투쟁은

《로일 전쟁과 왕조의 붕괴》라고 표제한 장에서 《근대 해산과 의병의 항쟁》(제 6 분책, 957 페자)이라는 분제목으로 취급하였다. 그러면서 《한국사》는 의병 투쟁을 마치 과거 일제 학자들이 취급하듯 하고 있다.

외래 침략자들이 조선을 침략하기 위하여 활동한 잡다한 자료를 장황하게 늘어 놓으면서도 의병 투쟁 부문에서는 의병들의 활동 과정은 물론 의병장들이 인민들을 투쟁에 궐기시키기 위하여 호소한 격문 하나 취급하지 않고 있다. 인민들을 반일 의병 투쟁에 궐기시키기 위하여 발표한 격문의 내용은 애국주의 사상으로 일관되여 있다.

1895년부터 1915년까지 반일 투쟁을 전개한 의병장 류 린석은 애국 력량을 준비하며 단합시키기 위하여 인민들에게, 선비들에게, 관리들에게 계층 별로 나누어 격문을 반포하였다. 그는 격문에서 《우리 8 도의 충의스러운 인민들은 모두 국가로부터 배양을 받은 처지에 있다. 환난을 피하는 것은 죽기보다도 어려우며 멸망을 기다리는 것보다는 싸우는 것이 더 현명하다. 사세가 위급한 막바지에 닥쳤으니 용기가 백배로 더 솟아 나야 한다… 여러 분들은 각자 무기를 잡고 끓는 물과 단 불에 뛰여드는 용감성을 발휘해서 나라의 부흥을 기약하고 태평이 다시 밝아 옴을 보게 하라!…》(《소의 신편》 중에서)고 호소하여 대중을 반일 투쟁에로 불러 일으켰다.

이러한 사실을 《한국사》는 자료 부족에 빙자할 수 있겠는가? 의병장 류 린석의 《의암집》이나 《소의 신편》은 어데서나 손쉽게 얻을 수 있는 자료들이다.

더우기 간과할 수 없는 것은 의병 투쟁의 내용 서술에서 그 의의를 말살하려고 한 시도이다.

1905년부터 1910년까지의 의병 투쟁 과정은 1913년 일제 《조선 주둔군 사령부》에서 발간한 《폭도 토벌지》에 실린 《일람표》 한 장으로 바뀌 치우고 말았다. 이는 의병 투쟁을 빼여 놓을 수 없으므로 마지 못해 취급은 하였으나 편자의 진의도는 그 의의를 거세하자는 데 있었다. 《거국적인 동란과 비극을 초래하고 말았다》(제 6 분책, 745 페지)고 한 것이 《한국사》 편자의 평가이다.

그러나 어떠한 술책으로써도 의병들의 공헌을 훼손시킬 수는 없다. 일제가 1909년 7월에 《조선 합병》에 대한 결정을 채택하고도 1910년까지 근 1 년 간 그 결정을 실현하지 못한 것은 의병 투쟁을 두려워하였기 때문이 아닌가! 의병들의 력사적 공헌은 이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다. 그들이 이룩한 애국 전통은 후대 인민들을 계속 투쟁에로 불러 일으켰다.

《한국사》가 규정하고 있는 《최근세》에 이르러서도 이처럼 우리 력사에는 자랑찬 사실들이 허다하였다. 부르죠아 개혁 운동과 함께 의병 투쟁, 애국 문화 운동 등은 오늘 우리들의 자부심을 북돋아 주는 사변들이다. 동시에 이것들은 우리 사회가 이 시기에도 한 자리에 머물러 있은 것이 아니라 인류 사회 발전의 일반적 합법칙성에 따라 전진하고 있었으며 우리 인민이 미 일 등의 외래 침략자들과 국내 반동들을 반대하여 자신에게 부과된 력사적 사명을 즐기차게 수행하였다는 것을 말해 준다. 이 과정은 미 제국주의자들이야말로 일제와 함께 조선 인민의 세기적인 원쑤라는 것을 보여 주고 있다.

《한국사》 5~6 분책에서 주되는 문제는 바로 이 점이여야 할 것이였다. 그러나 편자는 완전히 시비를 전도하여 모든 것을 제국주의 침략자의 립장에서 보려고 애썼으며 조선 인민의 철천지 원쑤 미제의 립장에 섰다.

* *

《한국사》 전 7 개 분책은 원시 공동체 사회로부터 1910년에 이르는 유구한 우리 나라 력사의 거의 전체 행정을 취

급하였다. 여기서는 우리 나라의 력사적 사실들이 체계적으로 외곡 당하고 있으며 우리 인민이 계통적으로 모욕 당하고 있다. 《한국사》에 주어져 있는 조선 사람의 력사적 영상은 희미하며 무력한 민족으로 되고 있다. 과거 일제가 한 이러한 날조는 오늘 미제에게 더 필요한 것으로 되였다. 《한국사》 편자들은 이를 답습함으로써 미제에 의한 국토 량단과 남조선에 대한 그 자들의 식민지 정책을 《력사적으로》 담보하려고 꾀하였다. 그들은 이 책을 출판하는 데 베풀어 준 미국 독점 재벌의 재정적 《원조》와 나아가서 미제 상전의 모든 《혜택》에 대하여 조선 민족으로서의 량심을 뽑아 바치는 것으로 보답하고 있다.

총체적으로 《한국사》 편자들의 립장은 대국주의에 영합하는 철저한 사대주의이며 또한 이와 표리 관계에 있는 의인론이다.

원시 사회를 서술할 때에 《한국사》는 《북방 대륙과 씨비리의 문화》를 조작하였고 고대, 중세에서 한, 위, 진, 남북조와 수, 당, 그리고 료, 금, 명, 청 등 중국의 력대 왕조들을 모셔다 앉혔으며 근세 이후에는 미, 일, 청, 로 등 나라들 그 중에도 특히 미국에 우리 나라 력사의 큰 자리를 바치고 있다.

이리 하여 우리 나라에는 《북방 대륙이나 씨비리 문화》의 전파가 없었더라면 원시 문화조차 없었을 것으로 되였다.

조선 사람의 조상으로 된 종족들은 원시 시대에 도저히 독자적인 문화를 가질 수 없었으며 오직 외부 문화의 영향을 받아서야만 그 어떤 문화를 이룩할 수 있었다고 그들은 생각한다.

《북방 대륙 또는 씨비리 문화》란 원낙 일제 학자들이 제멋 대로 조작한 것이였다.

《한국사》 편자들은 일제의 조작을 고쳐 볼 엄두조차 내지 못 하였다.

해방 후 우리 고고학자들에 의하여 진행된 발굴 결과에 의하면 우리의 원시 시대 종족들은 원시 시대 이래 독자적인 문화를 이룩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하여 독창적이며 우수한 청동기 문화를 가지게 되였다. 력사적 사실은 이 청동기 문화가 중국의 청동기 문화와는 구별되는 독자적인 것이며 여기서 고조선의 문화가 생겨 났음을 보여주고 있다. 우리 청동기 문화의 중국 것과 구별되는 이런 독자성을 알게 된 일제 어용 학자들은 《북방 대륙 또는 씨비리 문화》라는 것을 안출하였다. 그렇게 하는 것이 조선 고대 문명의 독자성을 부인하고 그것을 결국 한의 식민지로 된 이후 그 영향으로 탄생한 것이라고 《증명》하는 데 편리하였기 때문이다.

원시 시대에는 《씨비리 문화》의 변방이며 고대에 들어 와서는 한나라의 변방 문화일 뿐만 아니라 그 식민지 문화가 바로 고대 조선 문화라고 하던 일제의 목소리를 오늘은 미제가 남조선 학자들을 시켜서 되뇌이게 하고 있다.

중세기 우리의 왕조들은 중국 왕조에 대하여 《사대》의 봉건 의례로서 외교 관계를 맺었으나 자기의 자주권을 양보한 일이 없었으며 저편의 침략에 대하여는 언제나 항전의 확고한 태도로써 대하였다.

고구려—수, 당, 신라—수, 당의 관계가 그러하였고 고려—료, 금의 관계가 그러하였다. 후대에 와서도 달리는 되지 않았다. 사대의 봉건 형식으로 진행되던 당시의 국제 생활에서 우리 나라의 독자성은 오히려 엄격한 것이 있었다.

중세기의 우리 문화는 우리의 큰 자랑이다.

고구려, 백제, 신라 3국의 조형 예술의 훌륭한 전통은 고려, 리조로 면면히 계승되였을 뿐만 아니라 그 찬연한 빛을 이웃 나라들에 비치였다. 이 시기 우리의 과학, 기술, 문화의 발전은 오늘 사회주의 건설에 궐기한 우리 인민에게 민족적 자부심을 안겨 주는 무궁한

원칙의 하나로 되고 있다.

2천 년이란 장구한 우리 나라의 중세기에 우리의 주변은 복잡하였다.

만, 몽 및 중국 관내의 대륙 정세만 복잡하였던 것이 아니라 바다 건너의 일본 법도 내 정세도 때로는 상당히 우리 나라를 시끄럽게 하였다. 우리 력사에는 대륙으로부터 또는 바다로부터 온 수십 수백만의 잔인한 침략군을 격퇴한 때도 있었으며 크지 못한 반침입 전쟁은 거의 그칠 사이 없이 있었다.

이러한 침략자들과의 투쟁 속에서 우리 인민은 거연히 서서 자기의 독립과 주권을 수호해 왔으며 자기의 훌륭한 문화를 이룩해 놓았다.

뿐만 아니라 우리 인민은 중세기 농민 폭동의 수다한 영웅적 서사시들을 자랑한다.

중세기 우리 인민이 이와 같이 풍부한 애국 전통과 문화 전통을 이룩한 것은 우리 인민이 살아 온 력사적 행정의 복잡성과 간고성으로 설명되지만 동시에 우리 인민의 고결한 정신 상태가 언제나 크게 작용하였음을 잊지 말아야 한다.

그러나 《한국사》는 중세기 우리 인민의 계급 투쟁에 대하여서도 왜곡히 시비를 전도하고 있다.

이상과 같은 사대주의, 외인론의 립장은 《한국사》 5~6 분책에 이르러 더욱 로골적으로 드러나고 있다. 즉 조선 인민은 발전을 모르는 락후하고 정체한 사회에서 자본주의 렬강의 희생물로 될 수 밖에 없었던 운명에 놓여 있었다는 것이고 이러한 때에 미제가 조선 인민의 《은인》으로 등장하였다는 것이다.

그러나 력사적 진실은 이와는 정반대였다. 유구한 력사를 통하여 줄기차게 이룩되었던 우리 인민의 애국 전통이 있었음으로 하여 근세에 이르러 우리 인민은 그와 같이 어려운 조건에서도 붉사조와 같은 영웅적인 투쟁을 전개할 수 있었던 것이다. 을지 문덕과 강감찬, 리 순신과 같은 훌륭한 애국자를 조상으로 가진 우리 민족이 아니였더들 그와 같이 간고한 투쟁을 이겨 낼 수는 없었으리라고 우리는 크게 자랑한다.

우리의 자랑찬 근세사가 《한국사》 5~6 분책에서는 외래 침략자들의 각무장으로 되고 말았으며 거기서 미제의 《개화자적 사명》이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

방대하다기보다 잡다한 사실들의 라렬과 자료들의 퇴적이라고 할 《한국사》 7 개 분책이 무엇을 말하고 무엇을 노리고 있는가 하는 것은 더 설명할 것도 없이 명백하다.

일본 독점 자본주의의 재생과 침략적 대외 팽창

박 원 소

1

제 2 차 세계 대전 후 일본 군국주의 재생의 경제적 기초는 바로 다름 아닌 일본 독점 자본의 재생과 강화이다.

전후 일본 독점 자본주의의 재생 과정은 주로 두 방면에서 표현되였다. 즉 그 하나는 일본 경제가 급속히 회복되여 새로운 발전 단계에 들어 선 것이며 다른 하나는 자본과 생산의 집적과 집중이 고도에 달하고 제국주의적 구독점 재벌들의 지배적 지위가 다시금 수립된 그것이다.

대전 직후에 전전(1934~1936년)의 3 분의 1로 떨어졌던 일본의 공업 생산은 1951년에 전전 수준을 릉가하고 1957년에는 그의 2.5 배로, 1964년에는 5 배 이상으로 장성하였다. 공업의 핵심인 강철 생산은 전전의 9 배로 증가되였다.

일본의 공업 생산 장성 속도는 자본주의 세계에서 첫자리를 차지하게 되였다.

경제의 이러한 급속한 장성으로 일본이 자본주의 세계의 공업 총생산고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이미 1962년에 4.8%로서 전전(1937년)의 지위를 회복하고 미국, 서독, 영국에 이어 제 4 위를 차지하였다. 일부 주요 제품 즉 강철, 동, 전기 기계, 합성 섬유, 가성 소다의 생산에서는 서독, 영국을 릉가하여 자본주의 세계 제 2 위로, 선박 건조에서는 제 1 위로 올라 섰다.

일본 독점 자본주의는 1955년까지에 독점의 기초를 재건하고 그 후 본격적인 발전의 길을 걷기 시작하였다.

독점 자본주의의 주요한 특징의 하나는 자본과 생산의 집적 및 집중의 급속한 과정이다.

이것은 일본 독점 자본의 부활을 표시하는 가장 명백한 표징의 하나로 되고 있다.

일본에서 대기업에로의 자본의 집적은 1957~1958년에 발생한 일본의 전후 제 3 차 공황 이후 시기에 매우 급속히 촉진되였다. 자본금 50억 원 이상을 가진 제조업의 대기업 79 개에 대하여 볼 때 1960년 상반년부터 1963년 상반년까지의 기간에 불입 자본은 1.89 배로, 총자산은 1.93 배로 팽창하였다. 그 중 자본금이 100억 원 이상인 41 개의 《거대》 기업은 불입 자본이 1.92 배로, 총자산이 1.97 배로 늘었다. 다시 말하여 3 년 간에 일본의 독점적 대기업들은 자본을 2 배로 늘인 셈이다.

한줌도 못 되는 대독점체들의 이러한 급속한 자본 축적이 그들의 수중에로의 자본과 생산의 집중을 동반하였다는 것은 하나의 필연적인 현상이다.

1962년에 금융, 보험을 제외한 전체 산업의 기업체 수가 약 45만 개였는데 그 중 자본금 10억 원 이상을 가진 대기업의 수는 0.14%(638 개)에 불과하였다. 그러나 이 극소수의 대기업은 전체 기업체들의 자산 총액의 49.2%, 고정 자산 총액의 60.08%, 불입 자본 총액의 65.86%를 차지하였다. 이 반면에 자본금이 500만 원 미만인 군소 기업들은 그 수에 있어서는 92.36%를 차지하였으나 자산액은 17.4%를 가진 대

불과하였다.

대기업에로의 생산의 집중 정도를 보면 157 개의 주요 업종 중에서 《1 류급》 10대 회사가 절반 이상을 틀어 쥔 업종은 137 개로서 전체 업종 수의 86.6% 에 달하였으며 그 중 3대 회사가 절반 이상을 독점한 업종 수는 85 개 즉 54.2 %나 되였다.

대독점체들에 의한 자본과 생산의 이러한 집중 과정이 독점 세력 호상간의 치렬한 경쟁의 과정이였다는 것은 두말할 것도 없다. 《독점은 자유 경쟁에서 발생 성장하면서도 자유 경쟁을 ●제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여 자유 경쟁의 우에서 또는 자유 경쟁과 병행하여 존재》(레닌 전집 제 22 권, 346 페지)하는 것이다.

일본 독점체들의 소위 《기업 합병》이 최근 년간 급격히 증대된 것은 이러한 과정을 잘 보여 주고 있다.

년 도	1960	1961	1962	1963
《기업 합병》 건수	440	591	715	997

독점체들의 새로운 재편성을 보여 주는 이러한 《기업 합병》에서 돌출하게 눈에 띄는 사실은 지난날 일본을 그처럼 포악한 침략과 전쟁에로 내몰았던 《죽음의 상인들》인 제국주의적 구재벌들이 지배적인 지위를 회복하였을 뿐만 아니라 자기의 지반을 더욱 강화한 그것이다.

《거대》 재벌들이 금융 부문을 더욱더 틀어 쥐고 있는 사실이 또한 각별한 주의를 끌고 있다. 실례로 《미쯔이》, 《미쯔비시》, 《스미또모》의 3대 《구재벌》과 《후지》, 《다이이찌》, 《상와》의 3대 은행 재벌은 전국 도시 은행들의 예금과 대출의 62%(1964년 3월 말)를 차지하였으며 제조업, 광업, 상업, 해운의 4대 부문에서 자본금 100억 원 이상을 가진 《거대》 기업의 83.7%를 지배(1963년 9월 현재)하고 있다.

이와 같이 금융 자본의 《제액 고소》가 제국주의적 구재벌의 수중에 장악되고 있는 것은 일본 독점 자본의 새로운 발전에서 하나의 의미심장한 현상이 아닐 수 없다.

독점 자본주의는 점차 소수 독점이 국가 기구를 자기에게 종속시키고 국가의 정치, 군사, 경제, 외교의 모든 기능을 좌지우지하는 단계인 국가 독점 자본주의로 필연적으로 나아간다. 대독점가들은 더욱더 빈번히 국가 기구의 요직을 직접 담당하게 된다. 전후의 력대 일본 정부들이 례외 없이 재벌 대표들로 구성되였으며 현 일본 수상 사또가 《미쯔비시》 재벌과 련결된 전 수상 기시 노부스께의 동생이며 자기 자신 《모리》 콘체른과 혈연적 관계를 가진 자산가라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현대 부르죠아 국가는 《그 형태는 여하간에 본질 상으로는 하나의 자본주의적인 기계이며, 자본가들의 국가이며, 관념적 총자본가이다》(예프. 엥겔스, 《반듀링론》, 369 페지).

이리 하여 일본 독점 자본은 정부와 국회, 군대와 경찰을 한 손에 틀어 쥐고 대미 추종의 로선 하에서 안으로는 파쑈 통치 체제를 복구 강화하면서 근로 인민에 대한 탄압과 수탈의 《나사못을 조이며》 밖으로는 제국주의적 침략과 팽창을 더욱더 촉진하는 데로 나아가고 있다.

제 사실이 보여 주는 바와 같이 오늘 일본 독점 자본주의는 제 2 차 대전 전 시기에 비하여 판이할 정도로 재생되고 재편성되고 강화되였다.

이것은 전후 일본 정세를 주시해 온 아세아와 전 세계 인민들의 예리한 정치적 경각성을 불러 일으키지 않을 수 없는 사태 발전이다.

일본 독점 자본주의가 이처럼 급속히 재생 강화된 데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작

용하였다.

첫째로, 일본 독점 자본의 부활은 미제국주의의 세계 제패 전략의 산물이다.

대전의 종결과 함께 일본을 단독으로 점령한 미제는 일본의 군사-전략적 위치와 군사력 뿐만 아니라 구일본 제국주의의 침략 및 전쟁 정책의 강력한 뒤받침이 되였던 일본의 경제적 잠세력을 저들의 세계 전략에 최대로 리용하는 것을 대일 정책의 기본으로 삼았다. 바로 미제가 주요하게 착안한 것은 350만 톤의 선철, 685만 톤의 강괴, 600만 톤의 세멘트, 5천 630만 톤의 석탄 등등의 경제력(1940년 현재)에 의거하여 전체 아세아 대륙을 지배하려고 날뛰던 제국주의적 일본 독점 자본의 《전통》이였다.

이러한 타산 밑에 미제는 일본을 점령한 첫날부터 까히라 선언, 포츠담 협정, 극동 위원회 결의 등 국제 협약들을 란폭하게 유린하고 제국주의적 일본 독점 자본을 체계적으로 소생, 육성시키는 정책을 실시하였는바 1945년 이래 미국이 《경제 원조》와 《차관》, 《특수》 등의 명목으로 일본 독점 자본가들에게 쏟아 준 《황금 소나기》는 100억 딸라 이상에 달하였다.

1954년 8월에 미제는 일본과 《호상 방위 원조 조약》을 체결함으로써 월가의 침략 정책에 일본 경제를 더욱 효과적으로 리용할 수 있는 법적 전제를 마련하였으며 1960년 1월에는 미 일 신《안보 조약》을 조작하여 일본을 재무장시켜 저들의 핵 전략 체계에 끌어 넣고 일본 령토를 미제의 핵 전쟁 기지로 전변시키며 일본 독점 자본의 대외적 팽창의 길을 더욱 넓게 열어 놓았다.

미제의 일본 군국주의 재생 로선은 일본 독점 자본의 리해 관계에도 완전히 부합되였다.

제 2 차 대전에서 참패를 당한 일본 군국주의는 미제를 적극적으로 추종함으로써 재생된 경제, 군사력에 의거하여 일본 인민을 노예화할 뿐만 아니라 아세아 침략의 옛야망을 실현하려고 발광해 나서고 있다.

이것은 미제의 전후 대일 정책과 일본 지배층의 반동적, 반인민적 정책이 일치점을 발견하였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바로 여기에 미 일 제국주의 간에 맺어진 《종속적 동맹》 관계의 본질적 측면이 있다.

둘째로, 일본 독점 자본과 일본 경제의 부흥과 강화는 군수 산업의 대대적인 확장과 미제의 병기창으로의 일본 경제의 전화에 의하여 이루어졌다.

군수 생산의 기초인 소위 《중화학 공업》의 대대적 확장과 제조업에서 차지하는 그의 비중의 급속한 증대는 이를 보여 주는 중요한 지표의 하나이다.

중화학 공업이 제조업에서 차지하는 비률 (%)

1937년	1955년	1964년	1970년(계획)
38.3	46	65	73

일본 지배층들이 《전략 산업》이라고 부르는 《중화학 공업》의 이러한 급속한 확대와 그것이 내포하는 군사-경제적 잠세력은 주목을 끌만 하다. 이것은 오늘 재생된 일본 군국주의의 물질-기술적 및 무력적 기초가 어디에 있는가 하는 것을 보여 주는 명백한 증거이다.

일본 독점 자본이 군수 공업 및 무기 생산에 의거하여 비대해졌다는 것은 지난 조선 전쟁과 오늘의 웰남 전쟁에서 일본 경제가 놀았으며 또 놀고 있는 역할에서 뚜렷이 나타났다.

조선 전쟁과 관련하여 개시된 미국의 《특수》는 군수 공업을 골간으로 하는 일본 경제에 일대 《호경기》를 가져다 주었는바 일본 독점 자본가들은 이것을 《제 2의 가미가세(神風)》라고 불렀다. 3 년 간의 전쟁 기간에 일본은 《특수》에 의하여 24억 7천만 딸라에 해당하는 무

기와 군수품을 만들어 미군에 공급하였으며 공업 생산을 70%나 높였다.

일본 군국주의자들은 미제가 웰남 인민을 학살하는 데 사용하는 나팜탄의 90% 이상과 지어는 세균 무기, 화학 무기까지 공급하고 있으며 직접 선원들을 파견하여 미국 군대와 무기를 날라 주고 있다. 미제의 웰남 침략 전쟁은 일본 경제의 《제 3의 가미가제》로 되고 있다.

살륙과 파괴, 침략과 전쟁을 위한 군수품 생산과 이를 위한 경제의 군사화—이것은 독점적 고률 리윤의 주요 원천이다. 제국주의적 일본 독점 자본가들은 그들이 이 고률 리윤을 위해서라면 물불을 가리지 않고 나설 충분한 용의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이미 오래 전에 자기의 행동으로 증명하였다. 맑스가 말한 바와 같이 최대한의 리윤만 보장된다면 자본가들은 단두대의 위험도 무릅쓰고 그 어떠한 범죄 행위도 감행하는 것이다.

세째로, 일본 독점 자본의 재생과 발전은 일본 근로자들에 대한 가혹한 착취와 이에 기초한 대대적인 설비 투자에 의하여 가능하였다.

독점 자본의 복구를 위한 대규모의 설비 투자는 조선 전쟁이 끝난 후 특히는 1955년부터 시작되였다. 1955년을 기준으로 할 때 1961년에 이르는 7 년간에 공업 생산은 2.5 배 남짓이 증가되였는데 설비 투자의 증가률은 4.5 배라는 높은 속도에 달하였다. 특히 우에서 언급한 《중화학 공업》에 대한 설비 투자는 이 기간에 8.5 배로 증가되였다.

독점 자본의 기초를 강화하기 위한 이러한 투자가 근로자들에 대한 가혹한 착취에 의해서만 가능하다는 것은 두말할 것도 없다. 일례로 1960년부터 1963년에 이르는 기간에 제조업 분야에 속하는 300 개의 대기업은 리윤을 9천 598억 원으로부터 1조 4천 677억 원으로 즉 153%로 높였는데 같은 기간에 로동자들의 실질 임금은 높아지기는커녕 오히려 낮아졌다.

한마디로 말하여 일본 독점 자본은 미제의 적극적인 고무와 일본 지배층의 매국 정책에 의하여, 자국 인민과 타국 인민에 대한 착취와 압박, 략탈과 살륙에 의하여 재생되였으며 강화되였다.

일본 독점 자본주의의 부활을 조건지은 제 요인에 대한 이러한 고찰은 오늘 미제의 비호 하에 재생된 일본 군국주의의 흉악한 본질을 더욱 생동하게 보여 주고 있다.

일본 군국주의가 예나 지금이나 다름없이 일본 인민의 원쑤이며 아세아 인민의 원쑤이며 전 세계 인민의 원쑤이라는 것은 론의할 여지가 없는바 그의 침략적 대외 팽창의 진상은 이를 더욱 뚜렷이 확증해 준다.

2

제국주의 즉 독점 자본주의는 기생적 또는 부패하여 가는 자본주의이며 사멸하여 가는 자본주의이다.

독점이 지배하는 제국주의 시기에 와서 자본주의의 기본적 모순 즉 생산의 사회적 성격과 점유의 사자본주의적 형태간의 모순은 극도로 첨예화된다. 제국주의 독점 부르죠아지는 이 고질적 모순의 해결을 일방으로는 자국 근로자들에 대한 가혹한 착취와 수탈에서 찾으며 타방으로는 다른 나라들 특히 상대적으로 락후한 나라들에 대한 침략과 팽창에서 찾는다.

오늘 일본 경제는 주요 산업 부문에서의 생산 과잉과 이로 인한 상품 체화의 루적, 기업 파산의 격증, 대외 판로의 난관, 주식 시장의 침체 등이 서로 엉키여 엄중한 곤난을 겪고 있다.

전후 한동안 일본 독점 자본주의는 고정 자본 투자의 확대를 통하여 공업 제품의 판로를 해결하였다. 즉 전쟁 시기 파손 마모된 설비들을 대대적으로 갱신하는 과정에 공업 제품들은 국내 공업 내부에서 호상 실현될 수 있었다. 그러나 최근 수년 간 설비 투자가 한계점에 이르렀으며 막대한 투자로 갱신된 고정 자본이 생산 서렬에 들어 섬으로써 생산 능력과 소비 시장 간에는 심각한 모순이 조성되게 되였다. 제 2 차 세계 대전 전인 1934년과 대비하여 1961년에 공업 생산은 450%로 증가되였으나 반면에 국민 총소비량은 201%, 수출(즉 대외적 소비)량은 144%라는 지지한 장성을 보여 주었을 뿐이다. 이와 같이 1961년에 표면화되기 시작한 생산과 소비 간의 모순은 1962~1963년에 이르면서 《호경기》를 자랑하던 자동차, 합성 섬유, 전기 기재, 특수강 등 부문들에까지 파급되어 상품 체화량이 1960년을 100으로 할 때 1964년 6월에 이미 《생산자 재고》는 194.1로, 《판매자 재고》는 169.8로 올라 갔다. 기업의 파산을 보면 1천만 원 이상의 채무로 파산한 기업의 수가 1963년에 1,730건이였던 것이 1964년에는 전후 최고 기록인 4,300건에 달하였다. 1965년 초에는 자본금 30억 원의 《일본 특수강》 회사가 파산에 직면하여 정부에 재정 원조를 요청하게까지 되였었다.

원래 일본 독점 자본주의는 독자적인 원료 원천, 상품 판로, 투자권이 거의 없는 치명적인 약점을 가지고 있었다. 게다가 제 2 차 대전에서의 패전으로 수출의 40%, 수입의 30%를 차지하던 광대한 식민지를 상실하였다. 이러한 사정은 일본으로 하여금 주요 원료 공급에서 해외 시장에 더욱더 의존하지 않을 수 없게 하였는바 이 대외적 의존은 1963년 현재로 다음과 같은 높은 비률을 보여 주었다.

원료별	철광	동광	주석	원유	석탄	면	콩
대외 시장 의존도(%)	95.8	70.2	[illegible]	98.5	82.9	81.6	83.5

협소한 해외 시장과 방대한 원료 수입은 일본의 대외 무역 적자가 계속 늘어나는 주요한 원인으로 되고 있다. 수입 초과액이 1956~1960년 간에 29억 딸라, 1961~1963년 간에는 36억 딸라에 이르렀다. 이러한 사정으로 말미암아 일본은 공업 생산에서는 자본주의 세계에서 제 4 위를 차지하면서도 금 및 외화 보유고에서는 1965년 말 현재로 제 10 위로서 벨지끄보다 못하며 프랑스의 34.5%, 서독의 25.7% 밖에 안 되였다.

이상의 제 사실은 오늘 일본 독점 자본주의가 직면한 심각한 경제적 난관을 표시하는 일부 사실에 지나지 않는다. 그러나 이 몇 가지 사실들 자체가 벌써 폭발적인 위험을 배태한 심각한 모순의 징조들이라는 것은 명백하다.

최근 시기 세인의 날카로운 주목의 대상으로 되고 있는 일본 군국주의의 발광적인 대외 팽창은 바로 이러한 파멸적인 위험을 모면하려는 필사적인 노력의 표현이다.

김 일성 동지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력사적 경험은 제국주의자들의 처지가 악화되면 될수록 그리고 그들이 궁지에서 빠져 나올 희망이 없어지면 질수록 그들의 발악과 모험주의는 더 커진다는 것을 보여 주고 있다》(김 일성 선집 제 2 권, 562 페지).

현시기 일본 독점 자본의 대외 팽창의 주요 대상은 남조선과 동남 아세아이다.

미제의 사촉 하에 일본 정부와 박 정희 괴뢰 도당 간에 체결된 《한일 조약》과 이를 계기로 본격화된 일본의 남조선 재침은 전형적 실례이다. 《미제는

〈한일 조약〉을 통하여 남조선 괴뢰 도당과 일본 군국주의 세력을 결탁시켜 남조선과 아세아에서 무너져 가는 저들의 식민지 통치 체계를 유지하며 침략적 동북 아세아 군사 동맹을 결성하여 재생된 일본 군국주의자들을 아세아 침략의 돌격대로 내몰려 하고 있다》(조선 민주주의 인민 공화국 정부 성명, 1965년 12월 21일).

미제가 일본 군국주의의 남조선 재침에 부여한 이러한 의의는 현 미 국무 장관 러스크가 1961년 6월에 당시의 일본 수상 이께다에게 한 다음과 같은 말에서 특징적으로 표현되여 있다. 즉 그는《한국 문제는 미국의 아세아 정책의 중심 문제다. 남부 웰남이 매우 위험한 상태에 있는 이 때에 한국에서 좌절한다는 것은 미국의 위신에도 관계된다…일본은 하루 속히 한국과 국교를 정상화하고 한국의 정치적 안정에 협력해 주기 바란다》고 말하였는데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는 너무나 명백하다.

일본 군국주의는 미제의 이러한 흉악한 기도에 편승하여 남조선을 재차 식민지화하고 이를 저들의 해외 침략의 교두보로 전변시키려는 길에 공공연히 들어 섰는바 이미《미쯔비시 상사》,《미쯔이 물산》,《도꾜 시바우라 뎅끼》등 수십 개의 일본 독점체들이 남조선 경제의 기간적 부문들에 뿌리를 박고 지반을 확대하기에 혈안이 되여 있다.

현재 일본 독점체들은 무역 외에 직접 투자, 차관 및 기술《협조》등 각종 형태로 남조선에 대거 침투하고 있는데 그들은 이미 5억 딸라에 달하는 각종 투자 계획과 판매 계약을 체결하였고 앞으로 그 규모를 20억 딸라로까지 확대할 방침을 세우고 있다.

남조선에 앞을 다투어 무리로 들어 오고 있는 상술한 일본 독점 자본가의 대다수는 과거에 조선의 대외 무역을 독점하고 지하 자원과 농산물을 마음대로 략탈해 간 자들이다. 그들은 남조선에 깊이 손을 뻗침으로써 지난날의 리권을 회복하며 나아가서는 남조선 경제를 저들에게 완전히 예속시킬 것을 타산하고 있다.

동남 아세아가 일본 독점 자본의 주요 파녁으로 된 것 역시 우연치 않다.

우선 그것은 이 지역이 웰남 정세에서 보는 바와 같이 미제의 침략 정책이 현시기 가장 심각한 위기에 직면하고 있는 지역이며 따라서 미제가 이 지역에서 일본과 같은 유력한《동맹자》의 지원을 절실히 요구하고 있다는 사정과 관련된다.

또한 동남 아세아는 일본이 사활적으로 요구하는 원료 즉 철광, 고무, 주석, 쌀, 원유 등의 주요 산지이며 식민주의자들의 오랜 략탈로 인한 경제적 후진 상태로 하여 자본과 상품의 흡수력을 상대적으로 많이 가지고 있는 지역이다.

일찌기 1952년 당시 일본 수상이였던 요시다가《동남 아세아의 개발은 일본의 생사존망에 관계되는 문제》이며 일본은《아세아의 지도자》로 되여야 한다는 음흉한 구호를 내세운 후 일본 독점 자본의 동남아 진출은 급속히 추진되여 왔다. 현 수상 사또는 1964년 11월 집권 후의 첫 시정 연설에서 이 로선을 재확인하고 일본이《아세아 제 국가의 정치적 안정과 경제적 번영에 기여해야 할 책임은 실로 중대하다…이 나라들에 대한 경제 기술적 협력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떠벌렸으며 1965년 1월 미국을 방문하고 돌아 온 후부터는《아세아 외교》를 강화할 필요성을 더욱 전면에 내세웠다.

동남 아세아에 대한 일본의 진출은 체화 상품과 사자본 수출의 길을 개척하기 위한 소위《배상 지불》, 이 지역 나라들의 외화난을 리용하여 뚫고 들어

가는 《선불 수출》과 일본 원차관, 보다 더 교묘한 신식민주의적 침투 수법인 《증여》와 《무상》 경제 기술 《원조》 등 각이한 형태를 취하고 있다. 금액 상의 규모를 보면 다음과 같다.

《배상금》 총계……………………………11억 5천만 딸라
국가 자본에 의한 투자와 《차관》…24억 8천만 딸라 (1964년까지)
민간 자본 수출…………………………3억 400만 딸라 (1960~1962년)

이 밖에 이 지역에 직접 진출한 일본 기업의 수는 1963년 말에 118 개에 달하였다.

최근 일본 독점 자본가들은 존슨의 소위 《동남 아세아 개발 계획》에 2억 딸라를 지출하는 등으로 적극 협조해 나서고 있으며 일본, 대만, 남조선으로 《공동 시장》을 형성하며 일련의 동남 아세아 나라들을 포괄하는 《원 뿔럭》을 만들 것까지 제창해 나서고 있다.

일본 군국주의자들은 이렇듯 동남 아세아에 중점을 두면서 중근동, 아프리카, 라틴 아메리카에까지 손을 뻗치고 있다. 금년 2월 사또의 특사인 일본 자유 민주당 부총재 가와시마가 주로 석유 자원이 풍부한 중근동 나라들을 력방한 사실, 라틴 아메리카에 대한 일본의 직접 투자액이 1961~1963년 간에 9천여만 딸라로부터 1억 5천만 딸라로 증가된 사실 그리고 1963년 말 현재로 10 개의 일본 기업체들이 아프리카에 침투한 사실 등은 그 몇 가지 표현이다.

일본 독점 자본의 이러한 적극적인 경제적 팽창이 보다 원대한 정치-군사적 목적을 동시에 노리고 있다는 것은 비밀이 아니다.

일본 군국주의자들은 장차 《일본 리권을 보호한다》는 구실 하에 일본 군대를 남조선에 직접 파견할 것을 예견하고 있으며 심지어 그들은 작년 봄 일본 국회에서 폭로된 《세 개 화살 작전》 계획과 그 후에 드러난 《날아 가는 룡 작전 계획》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일본 군대가 미군과 공동으로 조선, 중국 등 사회주의 국가들을 공격할 것을 예견하는 전쟁 계획을 작성하는 데까지 이르고 있다.

이러한 사실들은 일본 독점 자본의 경제적 대외 팽창이 타국 인민의 착취와 략탈이라는 당연한 목적 외에 궁극적으로는 군사적 침략과 정치적 예속화의 길을 개척하기 위한 수단으로 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 준다.

현재 일본 독점 자본의 대외 팽창은 일련의 두드러진 특징을 나타내고 있다.

그것은 우선 대외 팽창과 침투에서의 교활성과 기만성이다.

다 아는 바와 같이 제 2 차 세계 대전 후 자본주의의 전반적 위기가 가일층 심각화되고 아세아와 세계 인민들의 반제, 민족적 독립, 사회주의를 위한 투쟁이 거대한 규모로 발전하였으며 사회주의 진영과 여러 신생 독립 국가들이 출현하고 제국주의의 지배 령역이 극도로 협소해졌을 뿐만 아니라 제국주의 렬강 간, 독점 자본 호상간의 쟁투가 더욱 첨예화되였다. 다른 한편 일본 군국주의의 팽창 대상지들에서도 정세가 전전과는 판이하게 변하였는바 이 지역의 독립 국가들 속에서는 자주적 발전의 길로 나아가려는 추세와 인민들의 정치적 각성이 전례 없이 강화되였다. 이러한 정황 하에서 일본 독점 자본은 대외 팽창에서 극도로 교활하고 음흉한 수법에 매달리게 된 것이다.

그들은 발전된 공업 국가로서의 일본의 《선의》, 《친선》, 《협조》를 표방하고 있으며 지어 자기들을 《반침략 력량의 일원》으로까지 가장하여 나서고 있다.

일본 독점 자본가들의 이러한 기만적 술책이 무엇을 의미하는가에 대해서는 길게 언급할 필요도 없다. 그들의 이른바 《친선》과 《협조》의 리면에는 한때 아세아 인민들을 마음 대로 략탈하고 침략하던 일본 군국주의자들의 가장 강도적이고 야수적인 침략성이 그 대로 은폐되여 있다.

일본 독점 자본의 대외 팽창의 또하나의 특징은 그것이 전쟁 전과는 달리 미 제국주의의 침략 및 전쟁 정책의 테두리 안에서 미제와의 종속적 동맹 하에 감행되고 있는 사실이다.

침략과 대외적 팽창에서 미 일 독점 자본은 서로 결탁하고 있는바 미제는 아세아 인민을 노예화하는 데 일본의 경제 군사적 잠세력을 리용하려 하고 있으며 일본 독점 자본은 미제의 침략과 전쟁 정책에 편승하여 자기의 옛 침략적 야망을 실현하려 하고 있다. 즉 오늘의 일제의 팽창은 미제의 침략 정책에 복무하면서 동시에 자신의 독자적 침략 목적을 실현하려는 2중성을 가지고 있다. 세계 제국주의의 두목인 미제의 《돌격대》로서의 일본 군국주의, 세계 최대의 착취자이며 략탈자인 미국 독점 자본의 하수인으로서의 일본 독점 자본—이러한 특유한 지위에 오늘의 일본 군국주의와 그의 대외 팽창의 주요한 특성이 있으며 그의 엄중한 위험성이 있다.

* *

일본 군국주의의 재생과 그의 대외 팽창—이것은 오늘 아세아와 전 세계 인민들이 직시하여야 할 하나의 엄중한 사태 발전이다.

한때 일본 인민은 물론 조선, 중국, 웰남을 비롯한 극동과 아세아 각국 인민들에게 몸서리치는 참화를 들씌운 일본 군국주의 세력이 미제의 비호 하에 되살아 나 《대동아 공영권》의 옛꿈을 실현하며 력사의 비극을 재연하려고 날뛰고 있다.

극동의 일각에는 새로운 침략과 전쟁의 위험한 온상이 배양되고 있으며 이는 세계의 이 지역 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평화와 안전에 중대한 위협을 조성하고 있다.

미제가 저들의 세계 제패 전략의 주공을 아세아에 돌리고 웰남을 중심으로 하는 아세아 전역에서 침략과 전쟁 정책을 발악적으로 강화하고 있는 오늘의 조건 하에서 일본 군국주의가 미제의 아세아 침략을 적극 방조하면서 그 대'가로 자기의 흉악한 팽창을 실현하려고 날뛰고 있는 이 사실은 사태의 엄중성을 더욱 증대시키고 있다.

그러므로 일본 군국주의와 일본 독점 자본의 대외 팽창 책동을 반대하는 투쟁은 현시기 미제를 반대하는 투쟁과 함께 세계 평화 애호 인민들의 절대로 과소평가할 수 없는 공동의 절실한 과업으로 되고 있다.

미제를 등에 업고 침략의 길에 나서고 있는 일본 군국주의자들은 다시 한번 파멸적인 오산을 하고 있다.

오늘의 아세아는 과거의 아세아가 아니다. 한때 일본 침략자들이 아세아 인민들을 노예화할 수 있었던 시기는 영원한 과거로 되였다.

아세아에는 불패의 사회주의 력량과 민족 해방 력량이 날로 장성하고 있으며 반혁명 세력을 압도하고 있다

침략과 전쟁에서 당한 패배의 력사를 망각하고 미제와 결탁하여 감행하고 있는 일본 군국주의자들의 침략 책동은 그들의 멸망을 앞당길 뿐이다.

혁명 투사의 고상한 성격 창조를 위하여

강 능 수

우리 문학 예술은 1964년 11월 7일 작가 예술인들에게 주신 김 일성 동지의 강령적인 교시를 실천하는 길에서 큰 전진을 하였다. 혁명적 작품, 특히 혁명적 대작을 창작하기 위한 작가 예술인들의 꾸준한 노력에 의하여 1930년대 항일 무장 투쟁을 취급한 작품으로서 장편 소설 《아들딸》, 《숲은 설레인다》, 영화 《한 지대장의 이야기》, 《폭풍 시절》, 《청년 전위》, 《한 가정》, 《신념》, 조국 해방 전쟁을 취급한 작품으로서 장편 소설 《시대의 탄생》, 중편 소설 《포화 속에서》, 영화 《그들은 이렇게 싸웠다》 등 일련의 작품들이 창작되였다.

이 작품들은 사상 예술적 수준에 있어서는 각이하나 혁명 투사의 이름에 어울리는 형상들을 창조함으로써 근로자들 속에서 광범한 공감을 불러 일으키고 있다. 이러한 성과는 혁명적 작품의 창작에서 뿐만 아니라 우리 문학 예술의 전반적 발전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 작가 예술인들은 이에 만족할 수 없다. 우리 문학 예술 앞에는 남북의 인민을 혁명적 사상과 혁명적 세계관으로 무장시키며 그들에게 투쟁 의욕을 북돋아 주어야 할 거대한 시대적 과업이 놓여 있다. 이에 비추어 볼 때 우리 문학 예술은 바야흐로 혁명적 작품을 본격적으로 창작하는 길에 들어 섰을 뿐이며 또 창작된 모든 작품들이 다 원만한 것은 아니다.

우리 작가 예술인들은 문학 예술 앞에 제기된 높은 시대적 요구에 보답하기 위하여 무엇보다도 혁명 투사의 형상을 더욱 훌륭하게 창조하여야 할 것이다.

형상은 문학 예술이 생활을 반영하는 고유한 형식인바 그 속에는 생활의 진실이 담겨져 있으며 동시에 아름다움이 구현되여 있다. 그러므로 문학 예술은 미적 감흥이 없이 그 어떤 생활의 진실도 이야기할 수 없으며 반대로 생활의 진실을 떠나서는 그 어떤 예술적 감동에 대해서도 생각할 수 없다.

형상의 이러한 특성은 형상의 핵인 인간의 성격을 창조하는 데서 집중적으로 표현된다. 혁명적 작품을 창작함에 있어서 혁명 투사의 성격 창조 문제가 중심적으로 제기되는 것도 그 때문이다. 모든 문학 예술 분야가 다 그러하지만 특히 그 형식이나 내용 전개가 가장 대중적이며 따라서 대중 교양에 기여하는 바도 큰 소설과 영화 부문에서는 이 문제의 해결이 더욱 절실하다.

⁂ ⁂

혁명적인 사상, 시대의 위대한 진리는 거대한 성격을 통하여 표현된다. 혁명 투사의 성격을 거대한 성격으로 창조할 데 대한 이 요구는 무엇보다도 생활 자체의 요구로서 제기되는 것이다.

혁명 투사들은 당대 사회의 선진 사상을 체득하고 인민의 리상을 실현하기 위하여 투쟁하였다. 실로 그들은 낡은 시대를 쳐부시는 위대한 투쟁에서 새 시대를 대표하였으며 인민을 대표하였다. 이것은 혁명 투사들의 사상적 신념, 그 정신과 열정이 그렇듯 굳세고 드높고 강렬하였음을 말하는 것이며 그들의 성격이 거대하였음을 말하는 것이다. 투사의 형상을 진실하게 창조하려고 하는 문학 예술 작품은 그의 이러한 특징을 반영하지 않을 수 없다.

성격의 거대성에 관한 문제는 혁명적 작품이 가져야 할 예술적 힘과도 관련되여 있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예술적 감동과 견인력은 주인공의 성격과 대여

놓고 생각할 수 없다. 우리가 긍정적 주인공을 생활의 모범이라고 하는 것은 그가 사람들을 매혹시키는 힘을 가지고 있으며 무엇인가 일깨워 주기 때문이다. 이것은 사실주의 문학 예술의 긍정적 주인공이 가지는 공통적인 특징이다. 그러나 이러한 예술적 힘은 주인공의 성격의 크기에 따라 작품마다 서로 다르다.

창조된 성격이 왜소하고 따라서 예술적 감동과 견인력이 크지 못 하다면 그것은 투사의 형상을 통하여 우리 인민을 혁명 사상으로 교양하려는 혁명적 작품의 사명을 응당한 높이에서 수행할 수 없는 것이다.

진실한 형상은 주인공의 운명에 대해서만이 아니라 그가 사는 시대에 대하여 이야기한다. 그것은 바로 주인공의 성격에 그 시대의 특징, 그 사회의 본질적 내용이 반영되여 있기 때문이다. 혁명 투사의 거대한 성격이란 두말할 것도 없이 그 시대의 선진적인 흐름, 새것의 사상과 리상이 반영되여 있으며 이러한 시대적 내용이 풍부히 반영되고 있는 성격이다.

그러므로 투사의 성격을 창조하기 위하여서는 사회적 및 시대적 투쟁의 첨단에 주인공을 세워 놓아야 하며 동시에 그 투쟁을 능동적으로 진행하도록 그에게 새것의 우수한 특징을 부여하여야 한다.

이것은 한편으로는 투사가 진행하는 투쟁에 사회적 및 시대적인 문제성을 부여하며 다른 편으로는 그에게 시대의 대표자로서의 특징을 부여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주인공의 성격에 시대의 대표자로서의 특징이 결여된다면 그는 사회적 및 시대적인 문제가 얽힌 사건에 능동적으로 참가할 수 없을 것이며 반대로 사회적 및 시대적 문제가 얽힌 사건에 주인공이 참가하지 못 한다면 그의 거대한 성격의 특징은 표현될 수 없을 것이다.

1930 년대 항일 투사는 인민의 리상과 사상, 인민의 우수한 모든 특징을 소유한 시대와 인민의 대표자였다. 그렇기 때문에 투사의 전형은 혁명의 전사일 뿐만 아니라 사상가, 선각자이며 동시에 지성적이며 가장 인간다운 감정을 가진 인간으로서의 특징을 체현하고 있다. 이것은 그가 로동 계급 출신이거나 농민 출신이거나 또는 인테리 출신이거나 관계 없이 1930 년대 항일 투사의 전형이라고 하면 공통적으로 지녀야 할 일반적 특징이다.

영화 《한 지대장의 이야기》의 주인공 허 철만의 형상이 가지는 혁신적 의의도 여기에 있다. 허 철만의 형상에 이르러 우리 문학 예술은 1930 년대 혁명 투사의 성격에서 사상가, 선각자로서의 특징을 본격적으로 발굴하기 시작하였으며 사회적 및 시대적 투쟁의 첨단에 주인공을 위치하게 하는 요인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성과적으로 천명할 수 있었다.

영화 《한 지대장의 이야기》는 혁명 투사 허 철만의 간고한 투쟁을 비교적 긴 력사적 시기에 걸쳐 펼쳐 보이고 있다. 그러면서도 주인공의 형상은 단순히 한 투사의 투쟁기로 되고 있는 것이 아니라 1920 년대 말 《조선은 어디로?》라는 시대의 근본적 문제에 대답을 주는 거대한 성격으로 되고 있다. 이것은 전적으로 허 철만의 형상이 시대의 근본 문제의 해결에 참가할 수 있는 자격 즉 혁명의 전사로서 뿐만 아니라 사상가, 선각자로서의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것과 관련되여 있다. 그가 감옥에서 나와서 동북땅을 찾아 가는 것부터 조선의 혁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도를 찾으려는 거대한 사회적 및 시대적 문제를 포함하고 있었다.

혁명 투사의 성격에 대한 이러한 해명은 그의 성격을 거대하게 하는 열쇠이 무엇인가 하는 데 대한 정당한 리해를 준다.

일반적으로 사실주의 문학 예술에서 성격의 거대성은 그의 열정에 의거하고 있다. 장편 소설 《땅》의 곽 바위나 희곡 《해바라기》의 김 순실의 성격이 거

대한 것도 그들의 강렬한 열정에 의거하고 있는 것이다. 곽 바위라고 하면 조선 농민들의 세기적 숙망이던 땅을 분여 받고 땅의 주인이 된 농민의 기쁨과 생활의 신념으로 불타는 열정의 덩어리를 생각하며 김 순실이라고 하면 자기의 사상에 대한 신념으로 불타는 공산주의자의 열정의 덩어리를 생각하게 된다.

혁명 투사들의 열정은 공산주의 사상에 대한 신념에서 흘러 나오며 바로 그것이 그들을 불사조, 영웅으로 되게 한다. 이러한 사실은 혁명 투사의 거대한 성격, 영웅적인 성격이 그 어떤 《초인간적인 행동》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의 특출한 정신에 있다는 것을 말해 주고 있다.

〈우리의 영웅들은 어제'날의 로동자, 농민, 사무원, 학생들이며 그들의 자제들이다. 그들의 풍부한 감정과 인간성, 그들이 가지고 있는 고상한 사상과 신념, 그들의 꾸밈 없는 소박한 행동 그 대로를 묘사한다면 오늘날의 우리 공화국 영웅들이 될 것이다〉(김 일성, 〈우리 혁명에서의 문학 예술의 임무〉 4 페지).

김 일성 동지의 이 교시는 다만 인민군대의 영웅성을 천명함에 있어서만이 아니라 모든 혁명 투사들의 거대한 성격, 영웅성을 천명함에 있어서 강령적인 지침으로 된다.

혁명 투사들은 그 고상한 사상과 신념, 그 특출한 정신으로 하여 가장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굴하지 않고 싸워 이겼으며 인간의 상상을 초월한 역경도 극복할 수 있었다. 그러므로 창작가가 그의 특출한 정신을 천명할 대신에 주인공을 눈보라, 추위, 굶주림, 전투 등의 정황 속에 세워 놓고 그것을 극복하는 과정만을 그린다고 하면 그의 비상한 행동을 그릴 수는 있어도 그의 거대한 성격을 형상할 수는 없을 것이다. 이렇게 되면 주인공은 예술적 힘을 잃게 될 것이며 혁명 사상을 배워 주는 모범의 의의를 가지지 못할 것이다.

혁명 투사의 고상한 형상을 창조함에 있어서 또한 제기되는 문제는 투사가 체험하는 극성에 대한 것이다.

문학 예술 작품에서 극성은 작품에 설정된 갈등에 의하여 빚어지며 주인공이 그 모순을 타개하는 데서 겪는 극적인 체험이다. 그것은 주인공의 성격 발전과 관련되여 있으며 내부적 체험과 관련되여 있다.

문학 예술은 생활의 진실을 이야기함에 있어서 알려진 일반적 사상을 선언하는 것이 아니라 창작가가 생활에서 탐구한 사상을 천명한다. 형상을 통하여 사상적 일반화를 달성한다는 것은 곧 그것을 통하여 창작가가 생활에서 탐구한 사상을 천명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따라서 주인공의 성격 발전은 바로 사상적 일반화, 탐구된 사상의 천명 과정이다. 그것도 탐구된 사상의 직선적인 표현이 아니라 체험을 통한 표현이다. 그렇기 때문에 투사의 형상 창조에서 극성 문제는 우리 문학 예술이 혁명 사상을 어떻게 천명할 것인가 하는 데 대한 근본 문제의 하나로 된다.

이 문제의 해결은 무엇보다도 투사를 어떠한 사람으로 보는가 하는, 묘사 대상에 대한 창작가의 기본 태도로부터 출발된다. 창작가가 투사를 인간의 감정을 초월한 존재로 생각할 때 거기에는 그 어떤 극성도 있을 수 없다. 오직 혁명 투사를 시대의 선각자, 대표자로 보며 지성이 높고 인간성이 풍부한 인간으로 볼 때에야만 간고한 투쟁에서 그가 체험할 극성을 대담하게 내놓을 수 있는 것이다.

혁명 투사의 성격 창조에서의 극성 문제는 혁명적 작품과 어떤 투사의 투쟁기를 구별하는 징표이기도 하다. 주인공의 운명에서 극성이 결여되였다고 하는 것은 생활에서 그가 심각한 극적인 체험 즉 성격 발전을 겪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는바 일반적으로 성격 발전이 없는 주인공의 생활은 창작가가 의식했거나 의식하지 못 했거나 간에 결과적으로는 단순한 생활 소개로 되고 마는 것이다.

혁명 투사가 체험하는 극성은 큰 심장을 지닌 사람만이 체험할 수 있는 극성이다. 만일 그가 항일 투사라고 하

며 그의 운명에서의 극성은 발톱까지 무장한 일본 제국주의를 반대하여 싸우지 않으면 안 되였던 객관적 조건에 의하여, 그리고 조국의 해방과 공산주의에 대한 고상한 리상을 품고 조선 인민이 겪는 모든 불행과 고통을 자기의 것으로 체험하는 주관적 조건에 의하여 산생된다. 그러므로 혁명 투사가 체험하는 극성은 혁명적인 극성이며 그가 자기의 리상을 실현하기 위하여 능동적으로 활동하는 데서 산생되는 것이다. 원쑤들의 탄압에 굴복하고 투쟁을 포기한 조건에서는 투사가 체험하는 극성이란 생각할 수 없다.

혁명 투사가 겪는 극성의 이러한 사회적이며 능동적인 성격은 그 극성의 본질에 대하여 정확한 리해를 가지게 한다. 즉 그것은 혁명에 대한 주인공의 의식과 각오가 우여곡절을 통하여 부단히 심화되는 과정이며 변동되는 정세와 환경에 따라 부단히 새로운 투쟁 방법을 탐구하고 자신을 피나도록 채찍질하는 과정이다. 그러므로 자기 앞에 조국과 인민을 위한 높은 리상을 내세울 수 없는 사람들은 혁명 투사가 겪는 그러한 심각한 체험을 할 수 없다.

영화 《폭풍 시절》의 주인공 철수가 겪는 극적인 체험은 객관적으로는 그와 일제와의 불상용적 모순에 의하여, 주관적으로는 비록 령어의 몸이 되였으나 잠시도 투쟁을 멈출 수 없는 공산주의에 대한 그의 열정에 의하여 조성되고 있다. 영화는 유격 대오에 서서 활동하던 시기에 대한 일련의 회상과 감옥에 면회하러 온 어머니와의 상봉 등을 통하여 주인공이 어떻게 자기의 고민을 극복하며 자신을 격려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다양한 각도에서 표현하고 있다.

투사인 주인공에게 대담하게 극성을 부여하지 못하며 그로 말미암은 주인공의 성격의 허약성을 허다한 사건과 전투 장면의 라렬로 부축하려는 현상을 일부 보게 된다. 주인공의 성격 발전과 관련이 없는 사건들의 라렬로는 극성의 심화가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은 더 말할 것도 없다.

이와 함께 투사인 주인공의 극성에 대한 부정확한 리해는 그것을 혁명 투사가 온갖 시련과 난관을 이겨 내면서 자기의 고상한 리상을 실현하려는 데서 생기는 일관된 것으로 보지 않고 우연한 사건의 영향, 말하자면 부모 처자의 불행, 동무의 죽음 등에서 받는 일시적인 현상으로써 보는 데서도 표현되고 있다. 물론 이러한 영향은 혁명 투사에게 심각한 체험을 준다. 그러나 혁명 투사가 리상을 실현하는 간고한 로정에서 겪는 심각한 체험을 그것으로 대신할 수는 없다. 이것은 혁명 투사가 겪는 극성이 다름아닌 시대의 선각자로서의 체험—생활에서 새것이 탄생하면서 겪는 심각한 체험이며 그 속에 시대의 움직임이 반영되고 있다는 것을 망각한 결과이다.

이와 같이 투사의 운명에서 극성을 탐구하는 문제는 가장 인간다운 인간—혁명 투사를 진실하게 그리는 문제이며 하나의 운명 속에 새로운 시대의 탄생을 형상적으로 반영하며 생활의 진리를 폭 넓게 천명하는 데 있어서 기본 고리로 되고 있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전형화는 개별적인 것을 통한 일반화이다. 만인의 귀감이 될 혁명 투사의 거대한 성격을 창조함에 있어서 폭 넓은 예술적 일반화에 대한 요구는 성격의 개성화에 대한 요구를 배제하지 않는다.

혁명 투사의 개성적이며 다양한 성격을 창조할 데 대한 요구는 단순히 그들의 다양한 형상을 보고 싶다는 주관적 욕망이 아니다. 복잡하고 다양한 생활 자체가 그에 상응한 다양한 형상을 요구한다.

그 어떤 인간도 그가 사는 환경에서 떨어질 수 없으며 인간의 성격은 바로 그 환경, 즉 구체적으로 그의 생활 경로와 사회적 활동에 의하여 형성된다. 혁명 투사에 대하여 말한다면 그들은 공통된 리상과 목적을 위하여 투쟁하였지만 저마다 생활 경로가 다르며 사상적 준비

정도가 다르며 또한 투쟁 무대도 달랐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혁명 의식으로 각성되고 혁명 대열에 들어 서는 길이 각이하며 투사로서의 활동과 체험도 각이할 것은 명백하다.

다양한 주인공의 형상을 창조함에 있어서 장애로 되는 것은 혁명 투사들의 생활 범위, 활동 무대를 좁은 범위에 국한시키고 있는 것이다. 창작가가 독특한 안목과 발견이 없이 주인공을 흔히 이야기되는 제한된 생활 범위에만 세워 둔다면 서로 비슷한 사건의 반복은 불가피하게 주인공에게 류사한 체험과 행동을 주지 않을 수 없다. 이것은 문학 예술에서 형상의 단조성을 낳는 요인이다.

그러므로 형상의 단조성을 극복하기 위하여서는 먼저 생활 령역을 확대하여야 한다. 즉 주인공들의 다양한 활동 무대를 탐구하여야 하며 다양한 사회적 활동을 하는 인간의 독특한 성격을 탐구하여야 한다.

항일 무장 투쟁을 취급한 작품이라면 창작가들은 제한된 생활 범위에만 국한할 것이 아니라 도시와 농촌에서의 지하 투쟁, 대부대 활동과 소부대 활동, 그리고 동북에서의 작전 뿐만 아니라 국내에서의 투쟁 등을 반영하여야 할 것이다. 이와 마찬가지로 조국 해방 전쟁을 취급한 작품에서는 전선에서의 인민 군대의 전투 뿐만 아니라 후방 인민들의 전선 원호, 적후에서의 빨찌산 및 지하 투쟁 등 생활의 령역을 확대하여야 한다.

다양한 형상을 창조하기 위하여서는 생활 령역을 확대하는 것과 동시에 다양한 생활 경로를 가진 각이한 계층과 계급 출신의 인물들을 탐구하여야 한다. 로동 계급 출신의 투사라 하더라도 그들은 직종과 독특한 생활 경로로 인하여 서로 구별되는 것이다. 이러한 사정은 농민이나 인테리 출신의 혁명 투사들 그림에 있어서도 크게 차이가 없다. 특히 인테리를 등장시킴에 있어서는 혁명성이 부족하다는 기성 관념에만 매달리지 말고 혁명의 초창기와 혁명 과정에서 노는 그들의 역할을 정당하게 반영하여야 할 것이다.

형상의 단조성은 특히 주인공의 정신 생활의 단조성에서 초래된다. 그러므로 생활 령역의 확대는 주인공의 정신 생활에서도 마찬가지로 요구된다. 아무리 다양한 생활과 각이한 인물들을 작품에 등장시켰다고 하더라도 그들의 정신 생활의 범위가 좁을 때에는 그 성격과 생활의 화폭이 단조로와지지 않을 수 없다.

혁명 투사는 견결한 사상과 완강한 의지의 소유자인 동시에 가장 지성적이며 감정적인 인간이다. 그들은 시대와 인민의 대표자답게 현실에서 살면서 전반적인 국내 혁명과 세계 혁명에 대하여 생각하며 조국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가정, 마을, 산천 등을 어느 누구보다도 열렬하게 사랑할 줄 알며 자기의 동지와 부모 처자들을 그 누구보다도 귀중히 여길 줄 아는 사람들이다.

이 모든 것은 우리의 창작가들에게 무엇보다 먼저 생활에 충실하며 작품에 주어진 생활을 깊이 파고 들어 갈 것을 요구한다.

한 떨기의 진달래꽃으로 봄을 상징하듯이 문학 예술은 묘사된 특징적인 생활의 측면을 통하여 시대의 전모를 현상시킨다. 그러므로 창작가는 묘사되는 생활에 파고 들어 그 생활이 가지는 심오한 의미와 특징적인 색채를 발굴하여야 한다. 창작가가 혁명 투사의 투쟁을 보여 준다고 하여 그 모든 과정을 라렬하는 데만 몰두하고 특징적인 생활의 측면을 파고 들지 않는다면 거기에서 생동한 성격의 창조를 기대할 수는 없다.

혁명 투사의 형상 창조는 그 어떤 혁명가의 투쟁 경로에 대한 단순한 기록과는 엄격히 구별된다. 그것은 살아서 움직이는 하나의 성격의 창조와 그 성격 속에 시대의 전형적 특징을 부여하는 과정이다. 투사의 생애와 투쟁 업적을 서술한 전기는 그 자체로서 교양적

의의를 가지는바 거기에서 사실성과 투사의 업적에 대한 충실한 서술은 믿음을 주는 확고한 담보로 된다. 그러나 예술 작품에서 요구되는 것은 전기적 사실성이 아니라 진실성이며 투사의 업적에 대한 충실성이 아니라 성격 발전의 론리에 대한 충실성이다. 예술 작품에서 비록 전기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어떠한 원형의 인물의 생활과 력사적 사실에 구애되는 것은 혁명 투사—인간을 보여 줌에 손상을 주며 전형성을 획득할 수 없게 한다.

전형적 성격의 창조는 창작가에게 한편으로는 독창적인 발견을 요구하며 다른 편으로는 높은 예술적인 개괄력을 요구한다.

발견은 항상 생활에서 새것으로 표현된다. 문학 예술에서의 새것은 그 자체 속에 형상의 혁신성을 가지고 있으며 창작가의 주장이 포함되여 있다. 창작가가 생활에서 새것을 발견하지 못 하고 그의 주장이 뚜렷하지 못할 때 창조된 형상은 매력이 없을 것이며 모범으로서의 역할을 다하지 못할 것이다.

한편 예술적 개괄력은 고도의 창작적 긴장성과 꾸준한 탐구의 산물이다. 그것은 창작가의 높은 미학적 리상에 대한 문제이며 그 미학적 리상의 조명에 의하여 창작가가 생활에서 새롭고 의의 있는 것을 선택하고 그것을 하나의 형상 속에 집중적으로 구현하는 창조적 환상의 문제이다. 미학적 리상이 낮으면 창작가는 생활에서 태여 나는 새롭고 의의 있는 것을 발굴할 수 없으며 또한 환상을 나래치게 할 수 없다. 창작가의 환상은 문학 예술에서 일반화의 필수적인 수단인바 생활에서 태여 나는 새것, 의의 있는 것을 발굴하지 못한 곳에서 그 어떤 일반화를 위한 환상이 나래칠 수 없는 것이다.

혁명 투사의 거대한 성격을 훌륭하게 창조하기 위하여 창작가는 자신이 우선 투사, 사상가가 되여야 하며 동시에 시대의 참다운 예술가로 되여야 한다. 그리하여 창작가는 투사의 리상을 자기의 생활적인 리상으로 체득하며 또한 그 리상을 사회적인 리상으로 긍정할 뿐만 아니라 가장 아름답고 가장 숭고한 것으로 확인하여야 한다.

혁명 선렬들과 동시대인들이 열어 놓은 거창하고 극적이며 서사시적인 생활과 사건들을 유감 없이 반영하며 그 생활과 사건들이 가지는 심오한 내용과 색채를 풍부하게 발굴하며 거대한 정신을 지닌 혁명 투사들의 형상을 훌륭하고 다양하게 창조하는 것은 우리의 사회주의 사실주의 문학 예술의 가장 중요하고 항구적인 임무의 하나이다.

근로자 제 5 호 (루계 291호)

편집위원회

발행소 · 근 로 자 사 주 소 · 평양시 중구역 경상동

인쇄소 · 평양 종합 인쇄 공장

인 쇄 · 1966년 5월 10일 발 행 · 1966년 5월 14일

7—63138 값 50 전

전 세계 로동자들은 단결하라!

6 호

평양 근로자사 1966

전 세계 로동자들은 단결하라!

조선 로동당 중앙 위원회

기 관 지

第6호 (292)

차 례

사람들과의 사업을 심화시키자

우리 당은 혁명과 건설에서 사람과의 사업, 정치 사업의 선행을 모든 문제 해결의 기본 열'쇠로 보고 있으며; 이것을 자체 활동의 시종일관한 원칙으로 삼고 있다.

당 중앙 위원회 제 4 기 제 13 차 전원 회의는 사회주의 건설을 촉진하며 나라의 살림살이를 알뜰히 꾸려 인민 생활을 급속히 향상시키기 위하여 제기되는 모든 문제를 푸는 고리로서 바로 사람과의 사업, 정치 사업을 잘 할 것을 다시 한 번 강조하였다.

이것은 혁명 발전의 현 단계의 요구에 상응하게 사람과의 사업을 심화시킬데 대한 과업을 우리 일'군들과 전체 당원들 앞에 제기한 것이다.

다 아는 바와 같이 원래 사람과의 사업을 통해 모든 문제를 푸는 것은 공산주의자들의 고유한 사업 방법이다.

모든 사업에서 우선 사람을 보는 것— 여기에 바로 우리 공산주의자들의 전통적이며 혁명적인 사업 방법의 하나가 있다.

이것은 돈과 권력만을 아는 지주, 자본가 계급의 사업 방법과 근본적으로 대립된다. 지주, 자본가들에게 있어서는 모든 사업이 우선 돈과의 사업으로 된다. 그들의 눈앞에는 황금, 돈 밖에는 아무 것도 없다. 사람이란 단지 돈'벌이를 위한 수단에 불과하다.

그러나 공산주의자들에게 있어서는 문제가 달리 선다. 인간의 해방이 목적으로 되여 있고 또 인민 대중을 력사의 창조자로 보는 공산주의자들에게 있어서는 인간이 세상에서 가장 귀중한 재부로 된다. 공산주의자들이 혁명 투쟁을 시작하는 첫날부터 사람과의 사업에 근본적 의의를 부여하고 이것을 모든 사업에 앞세우게 되는 것은 결코 우연하지 않다.

맑스-레닌주의 당이 정권을 잡은 이후 특히 사회주의 제도를 전면적으로 확립한 이후 사람과의 사업은 이 사회 발전의 합법칙적 요구로서 더욱더 중요한 의의를 가지게 된다.

레닌이 지적한 바와 같이 사회주의는 인민 대중의 목적-의식적인 창조물이다. 이것은 대중이 사회 발전의 합법칙성, 우선 사회주의 사회 발전의 합법칙성과 건설의 제 원칙을 과학적으로 인식 체득하고 그것에 기초하여 사회의 전진 과정을 틀어 쥐고 나가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를 위하여 중요하게 제기되는 것은 바로 대중을 사회의 이러한 목적-의식적인 건설자로 육성해 내는 문제이다. 사회주의 하에서도 대중은 저절로 사회의 의식적인 건설자로 되는 것은 아니다. 새 제도는 사람들이 그렇게 될 수 있는 조건과 가능성을 줄 따름이며 그것을 필연적 요구로 제기할 따름이다.

이와 같은 조건과 가능성, 요구를 현실성으로 전환시켜 사람들을 실지로 혁명 투쟁에 이끌어 나가는 과업은 바로 혁명의 지휘 성원들, 공산주의자들에게 부과된다. 우리 당이 일'군들에게 사람과의 사업에 대하여 그렇게도 강조하고 있는 것은 바로 이 때문인 것이다.

더우기 오늘 적들과 날카롭게 대치하고 있는 조건에서 우리가 사람과의 사업을 잘 하는 것은 혁명 위업의 성과적 추진을 위하여 매우 중요한 의의를 가지는 문제로 된다.

사람들과의 사업을 잘 안 하면 그 틈에 적대 분자들이 뿌리 박을 수 있으며 또한 대중을 자연 발생성에 맡겨 두면 그들의 낡은 사상 잔재가 조장되거나 적대 사상의 영향으로 하여 그들이 혁명 운동에 옳게 나설 수 없는 것이다. 참으로 사람과의 사업은 우리 사회 발전의 합법칙적 요구로서 혁명 과업의 성과적 수행을 위하여 우리 일'군들에게 항상 일차적 주목을 요구한다.

실천적 경험은 사람과의 사업을 잘 한 모든 단위들에서는 틀림 없이 훌륭한 사업 성과들이 이룩되고 있는 반면에 일이 잘 풀려 나가지 못 하고 있는 곳에서는 례외 없이 사람과의 사업에 응당한 의의를 부여하지 못 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 주고 있다. 이것은 결국 사회주의 하에서 모든 문제를 풀어 나가는 기본 열'쇠는 사람과의 사업에 있다는 것을 증시하는 것이다.

혁명과 건설의 가일층의 발전은 사람과의 사업을 보다 중요한 문제로 심화시켜 나갈 것을 우리 앞에 제기하고 있다.

사회주의 하에서는 사회가 미래에로 전진하면 할수록 대중의 의식성이 더욱 더 커다란 역할을 놀게 된다. 물론 다른 편으로 물질-기술적 수단의 역할도 백방으로 높아지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인간 로동의 산물이기를 그만 둘 수는 없는 것이며 또 그 능력은 역시 사람들의 책임적인 보살핌과 높은 기능에 의해서만 원만히 발양될 수 있는 것이다. 오늘 우리 나라에서 기술 혁명이 전면적으로 추진되면서 사회주의 건설의 모든 분야에서 기술의 역할이 현저히 높아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의 의식성을 높이는 문제, 특히 능력과 기술 기능을 높이는 문제가 중요하게 제기되고 있는 것은 바로 이것을 말하여 준다. 따라서 우리 일'군들이 사람과의 사업을 심화하여 현실 발전의 요구에 따라 세우는 일은 사회주의 건설을 촉진하기 위한 위력한 담보로 된다.

중요한 것은 모든 당 기관들과 당 조직들이 언제나 사람과의 사업, 정치 사업을 자기들의 본신 임무로 삼고 모든 활동에서 이것을 앞세워 나가는 원칙을 확고히 견지하는 것이다. 당은 혁명의 참모부이며 정치적 령도 기관이다. 당 사업은 곧 정치 사업으로, 당 사업의 기본은 사람과의 사업으로 되지 않으면 안 된다.

당은 혁명과 건설을 자체의 힘만으로 수행하는 것이 아니다. 무엇보다도 당은 사람과의 사업을 통하여 혁명을 정치적으로 령도한다.

김 일성 동지는 일찌기 당 일'군들에게 다음과 같이 교시한 바 있다:《우리가 직접 용광로를 움직일 수는 없다. 우리는 용광로를 움직이는 사람과의 사업을 해야 한다》.

사람과의 사업이 당 사업의 기본으로, 당 조직들의 본신 사업으로 되게 하기 위하여서는 사람과의 사업을 일상적으로 틀어 쥐고 책임적으로 수행해 나가는 것이 요구된다.

이것은 당 조직들이 모든 사업을 우선 사람과의 사업으로부터 시작하여 진행하는 것을 생활화하며 관습화하여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동시에 이것은 사람과의 사업이 당면하게 제기된 혁명 과업을 해결하는 수단으로 되게 할 뿐 아니라 매개 사람들의 열성과 능력을 부단히 높이기 위한 전망적이고 항구적인 사업으로 되게 하여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사람들을 일시적으로 흥분시키거나 자극하는 것만으로써는 그들을 옳게 동원할 수 없으며 또 이것은 사람과의 사업을 본신 임무로서 책임적으로 수행하는 것과는 인연이 없다.

사람과의 사업을 본신 임무로 하는

데 있어서는 또한 혁명과 건설의 모든 단위, 모든 부문의 일'군들과 당원들이 다같이 당'적 방법으로, 정치를 앞세우는 사람과의 사업 방법으로 일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사회주의 하에서는 당 일'군들만이 아니라 행정-경제 일'군들도 당의 위임을 수행하는 정치 활동가인 것 만큼 행정식, 명령식 방법으로 일하는 것은 그 누구에게 있어서도 금물이다. 행정적인 명령, 지시나 기술-경제적 대책들도 그것이 대중에게 리해되고 접수되여 자각적인 임무로 전환되도록 하는 것이 요구되며; 그리 하여 대중이 의식적으로, 창발적으로 그 과업 수행에 동원될 때에만 그것은 소기의 은을 나타낼 수 있다.

중요한 것은 우선 당 일'군들이 행정-경제 기관들의 사업을 대행함이 없이 그 부문 일'군들을 대담하게 믿고 일을 맡기며 그들이 당의 의도 대로 사고하고 일하도록 열성과 능력을 계발하는 사업을 틀어 쥐고 나가는 것이다. 일부 행정-경제 일'군들이 일을 성차지 못 하게 하거나 행정식으로만 한다고 하여 그것을 가로맡아 나서면 그들의 창발성과 능력을 더욱 마비시키게 된다. 당 일'군들이 계속 행정 사업을 해 줄 수 없는 조건에서 이러한 사업 방법은 일시적, 부분적 성과는 거둘 수 있을지 모르되 결국에 있어서는 사업의 진전을 방해하게 될 따름이다. 당 일'군들 속에서는 이러한 편향과의 투쟁에 큰 주목이 돌려져야 한다.

사람과의 사업을 실속 있게 하기 위하여 행정-경제 일'군들 속에서 요구되는 것은 행정적인 지시나 기술-경제적인 사업 일면에만 머리를 쓰는 경향을 없애고 모든 활동에서 사람과의 사업을 첫 공정으로 하는 원칙에서 일하도록 부단히 교양하고 지도하는 것이다. 행정적 명령, 지시나 기술에만 매여 달리는 사업 방법은 일을 쉽게 할 수는 있는 방법이지만 사업 성과를 근본적으로 올릴 수 있는 방법은 못 된다. 이것은 우리 제도 하에서는 허용될 수 없는 방법이다. 우리 일'군들은 반드시 이것을 극복하고 근로자들의 의식성을 계발하여 그들을 동원하는 데로 사업 방법을 전환함으로써만 모든 문제 해결에서 성과를 거둘 수 있다.

*　　*

우리 당은 모든 사업에서 사람과의 사업을 확고히 선행시킬 것을 일관하게 강조하면서 이 사업을 가장 효과적으로 구현할 수 있는 방도들도 명시하고 있다. 우리에게는 당의 전통적인 사업 방법인 청산리 방법과 그것을 사회주의 경제 관리에 구현한 대안의 사업 체계가 있다.

이 체계와 이 방법의 기본 요구는 상급 기관이 하급 기관을 도와 주고 웃사람이 아래'사람을 도와 주며 정치 사업을 앞세워 군중을 발동시킴으로써 혁명 과업을 원만히 수행하도록 하는 데 있다. 이러한 의미에서 청산리 방법, 대안의 사업 체계는 사람과의 사업, 정치 사업을 잘 하여 모든 문제를 푸는 방법이며 체계라고 말할 수 있다.

청산리 방법과 대안 체계의 요구 대로 사람과의 사업, 정치 사업을 잘 하여 전 당과 전체 인민을 움직이도록 하기 위해서 제기되는 문제는 우선 우로부터 아래에 이르기까지 모든 당 조직들이 각기 담당하게 될 사람과의 사업 대상을 확정하며 매개 일'군들이 자기가 담당한 대상자와 정상적으로 련계를 가지고 정치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정연한 체계를 세우는 것이다. 이것은 당 조직 뿐 아니라 행정-경제 기관들까지

도 례외 없이 포괄함으로써 모든 일'군들이 다 사람과의 사업의 담당자로서 자기가 사업할 대상을 확정하고 분공을 받는 동시에 그들 자신도 사람과의 사업의 대상으로 되게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렇게 될 때에만 사람과의 사업은 폭 넓게 그리고 깊이 있게 될 수 있다.

이러한 요구를 가장 효과적으로 실현하기 위하여서는 사람과의 사업에서 《하나가 열을, 열이 백을》 움직이는 원칙을 관철하여야 한다.

이것은 우리 당 사업, 사람과의 사업에서 가장 중요한 원칙의 하나이며 또 사람과의 사업을 가장 효과 있게 하게 하는 구체적인 사업 체계로, 방법으로 된다.

김 일성 동지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사람과의 사업을 잘 한다는 것은 한 사람이 열 사람을 움직이고 열 사람이 백 사람을 움직이고 백 사람이 천 사람을 움직이며 이렇게 하여 전 당과 전체 인민을 혁명 과업의 수행에 동원한다는 것을 말한다》.

그러면 《하나가 열을, 열이 백을》 움직이는 사업 체계의 본질적 요구는 무엇인가?

그것은 우선 웃사람이 아래'사람을 도와 주고 간부들이 당원들과 사업하며 모든 당원들이 군중들과 사업하며 이렇게 하여 사회의 모든 성원들을 빠짐 없이 교양하여 움직이게 하라는 것이다. 이것은 당을 하나의 산 유기체로 전환시켜 움직이는 당, 전진하는 당, 혁명과 건설에 대중을 옳게 조직 동원하는 당으로 되게 하며; 혁명 수행에서 모든 단위와 모든 일'군들이 자립적으로, 능동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능력을 배양하여 주며; 사회의 모든 성원들을 혁명 대오에 묶어 세워 실천 활동에서 혁명가로서의 높은 자각성과 헌신성을 발휘하게 하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이것은 사람과의 사업, 당 사업에서 중요한 문제로 되는 지도에서 상하가 합심하고 중앙 집권적 지도와 대중의 민주주의를 유기적으로 결합하는 문제를 옳게 해결하게 하며 전 사회의 정치-도덕적 통일을 강화하게 하는 길이다.

이로부터 제기되는 중요한 문제의 하나는 사람과의 사업을 모든 지도 일'군들과 당원들에게 분공하여 어디까지나 간부들과의 사업에 중심을 두고 우로부터 아래로 내려 가면서 축차적 방법으로 풀어 나가도록 하는 것이다. 그리하여 우로부터 아래로 사람과의 사업 대상을 확대하면서 전 당, 전 인민을 빠짐 없이 사람과의 사업 대상으로 포괄하게 한다.

우가 아래를 혁명적으로 도와 주며 전 당과 전체 인민을 움직이는 사람과의 사업을 결코 자연 발생적으로나 몇 사람의 힘에 의거해서만은 해결할 수 없다. 이 사업은 오직 목적-의식적이며 조직적이며 대중적인 방법으로 모든 간부들, 모든 당원들을 동원함으로써만 가능하다.

사람과의 사업을 잘 한다는 것은 결국 아는 사람이 모르는 사람을 깨우쳐 주며 한 급 높은 수준의 간부들이 한 급 낮은 수준의 간부들을, 우선은 직접 책임지고 있는 아래 일'군들을 자기 수준에 끌어 올리는 등 아래'사람을 배워 주는 사업 체계를 세우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우에 있는 간부들일수록 자체의 사상-리론 수준과 실무 수준을 높이기 위하여 적극 노력하는 문제가 필수적인 요구로 된다. 자신이 모르면서 사람과의 사업에 대하여 말하는 것은 빈말에 불과하며; 이런 조건에서는 사람과의 사업에서 성과를 기대할 수 없다. 당이 제 13 차 전원 회의에서 사

람과의 사업 문제를 강조하면서 동시에 학풍 문제, 특히 간부들 속에서의 학풍 문제를 강조한 것은 리유 없는 일이 아니다.

우선 우에 있는 일'군들이 당 정책과 전공 부문의 지식을 전면적으로, 폭 넓게 리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아래 일'군들을 정치-실무적으로 옳게 준비시키려면 웃단위의 일'군들 자체가 정치 실무적으로 튼튼히 무장되는 것이 절실한 문제로 된다. 일'군들은 자기들이 맡은 전공 부문에 대한 높은 정책적 안목과 지식을 소유하고 있어야 하며, 그 문제에 대한 리론적, 실무적 조예가 있어야 하며, 그 사업을 조직 집행할 수 있는 지도 리론이 있어야 하며, 나아가서는 그 문제에 대한 세계적인 지식이 있어야 한다.

동시에 일'군들은 다방면적인 상식과 문화적 소양을 높여야 한다. 사람과의 사업은 그 어떤 원칙, 한 부문에 대한 지식만으로는 결코 원만히 해결될 수 없다. 인간 생활에서 알아야 할 폭 넓은 일반 문화 지식과 사회 생활, 도덕, 인간 심리 등에 대한 상식이 있어야 하며 생활 정서가 있어야 한다. 그래야만 아래'사람들을 그들의 사상 의식 수준과 더불어 생활 심리 전반에 이르기까지 폭 넓게 리해할 수 있으며 또 그러한 넓이로써 아래'사람을 옳게 교양할 수 있다.

사람과의 사업을 잘 하기 위한 방법적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은 또한 이 사업을 천편일률식으로가 아니라 개별적인 대상의 실정에 맞게 구체적으로, 창조적으로 전개하는 것이다.

사람과의 사업에서 일반 교양과 개별 교양이 분리되고 특히 개별 교양이 소홀히 되여 일반적인 호소나 강조에만 그친다면 필연코 이 사업에서 형식주의를 면할 수 없다. 사람과의 사업, 정치 사업은 일반적이며 집체적인 교양과 함께 개별 교양을 여기에 배합해 나가야 하며 특히 매 사람을 일일이 료해하고 교양하며 조직 동원하는 개별적인 방법을 위주로 할 때 참말로 실속 있게 될 수 있다.

사람과의 사업을 대상의 구체적 실정에 맞게 개별적인 방법으로 심화시키기 위해서는 이 사업에 대한 창조적인 태도가 요구된다. 사람들은 모두가 사상 의식 수준과 사업 수준에 있어서 일정한 차이들을 가지고 있다. 나서 자란 생활 경위가 다르고 사업 경위가 다르기 때문에 사람마다 개성을 가지는 것은 필연적인 현상이며 따라서 사람마다 각이한 정신적 량식을 요구하게 된다는 것도 당연한 일이다.

사람과의 사업에서 미리 마련된 일률적인 처방이란 있을 수 없다. 지도 일'군들의 과업은 구체적인 료해와 파악에 기초하여 매 사람들의 준비 정도와 특성에 적응한 처방을 적용하도록 노력하는 데 있다. 지도 일'군들은 아래 일'군들을 한 사람 한 사람씩 만나 진지하게 이야기를 나누면서 그들에게 혁명 의식을 주입시키며 사업 방법을 구체적으로 가르쳐 줄 줄 알아야 한다.

사람과의 사업, 정치 사업은 사람들의 의식을 계발하고 사업 수준을 높여주고 옳게 조직 동원하는 사업이니 만큼 무엇보다도 가장 책임적인 사업이다. 기대공이 하나의 부속품을 깎는 것도, 방적공이 한 오리의 실을 뽑는 것도 책임적인 사업이지만 더우기 일'군들이 그러한 기대공, 방적공들—바로 기대를 움직이고 생산을 진행하는 사람들과 사업하는 것은 더욱더 책임적인 사업으로 되지 않을 수 없다. 일'군들을 육성하거나 락후 분자를 선진 분자로 개조하는 것은 그 어떤 물질적인 것을 생산하

는데 비할바 없이 높은 책임성이 요구된다. 사람과의 사업을 잘하여 훌륭한 지휘관을 육성하며 대중을 힘차게 움직이게 된다면 그 위력은 태산도 허물수 있고 대하도 막을 수 있다. 반면에 만일 사람과의 사업을 잘못하여 사람들이 당과 인민의 기대 대로 옳게 활동하지 못 한다면 그것으로 하여 받게 되는 손실은 헤아릴 수 없이 클 수 있다.

사람과의 사업은 매우 복잡하고 어려운 사업이다. 실지로 사람들의 의식과 능력을 높여 그들을 혁명 과업 수행에 자각적으로 불러 일으킨다는 것은 행정식, 명령식으로 사업하는 데 비하여 몇 배 몇 십 배 더 힘들고 어려우며' 또 그것이 즉시로 효과를 나타내는 것도 아니다.

모든 경우에 반드시 사람과의 사업을 선행하는 원칙에서 제기된 문제들을 풀겠다는 높은 책임감이 없고 또 정치 사업의 진미를 모르면 흔히 행정 일'군들은 행정식, 명령식으로, 당 일'군들은 행정을 대행하는 식으로, 기술 일'군들은 기술 만능주의 경향으로 일하게 된다. 이렇게 되는 경우 아래 일'군들과 생산자 대중의 자각성, 창발성을 불러 일으킬 수 없다는 것은 자명한 일이다.

사람과의 사업을 책임적으로 심중하게 하려면 일'군들이 아래'사람들을 진정으로 혁명 동지로서 믿고 아끼고 사랑하는 관점과 립장을 가지는 것이 요구된다. 사람들을, 우선 아래'사람들을 아끼고 사랑하는 것이 없이는 그들을 혁명적으로 도와 줄 수 없으며 실속 있게 배워 줄 수도 없다. 그러므로 일'군들이 사람들을 진정 사랑하는 정신으로 철저히 무장되여야 한다.

이와 같이 하여 사람과의 사업, 정치 사업을 옳게 풀어 나가려면 매개 단위의 당 위원회들이 사람과의 사업 전반에서 풀어야 할 고리들을 통일적으로 틀어 쥐고 이것을 목적-지향성 있게 체계적으로 풀어 나갈 때만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다.

모든 부문, 모든 단위의 당 위원회들이 우선 책임적인 지도 일'군들 속에서부터 정치 실무 수준을 높이기 위한 투쟁을 선행시키면서 사람과의 사업, 정치 사업을 책임적으로 실속 있게 하여 모든 사람들을 다 움직이게 해야만 우리의 일들은 더 잘 되여 나갈 것이다.

혁명가의 사상 수양, 혁명가적 사업 기풍

백 학 림

우리 당은 해방 전에 조국의 자유와 해방을 위하여 투쟁한 공산주의자들, 해방 후 민주주의 독립 국가 건설을 위한 투쟁과 미제를 반대하는 성전에서 영웅적으로 싸운 사람들, 사회주의 혁명과 사회주의 건설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투쟁하여 온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혁명가라는 고귀한 칭호로 부르고 있다.

혁명가란 혁명의 리익과 당의 리익을 제일 생명으로 알고 자기 계급과 자기 인민을 위하여 모든 것을 아낌 없이 바쳐 투쟁하는 사람들이다. 혁명가는 온갖 사회적 악폐를 청산하고 모든 사람이 다 같이 행복하게 사는 공산주의 사회를 실현하기 위하여 의식적으로, 자각적으로 투쟁하는 사람들이며 인민의 선두에 서서 인민을 깨우쳐 주고 인민을 이끌어 투쟁에로 불러 일으킬 줄 아는 선각자들이다.

그렇기 때문에 혁명가의 칭호를 지닌다는 것은 무한한 영예로 되며, 이러한 영예를 전취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지난날 공산주의자들이 지하에서, 유격 대오에서 간고한 투쟁을 진행할 때 혁명가의 대오는 그리 크지 못 하였다. 그러나 그 때에도 그들은 조국 광복을 실현하여야 하며 또 할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투쟁하였다. 오늘 우리의 혁명가 대오는 수백만으로 장성하였다. 이 강대한 대오는 강철 같은 당—혁명 선렬들의 풍부한 투쟁 경험으로 무장한 당을 가지고 있다.

혁명의 길에 아무리 어렵고 아무리 복잡한 과업들이 놓여 있다 하더라도 이러한 당과 혁명가의 대부대를 가지고 있는 조건에서 우리가 못해 낼 일이 어데 있겠는가.

* *

김 일성 동지가 말씀한 바와 같이 우리가 혁명을 하는 것은 그 누구의 지시에 의한 것도 아니며 누구에게 잘 보이기 위한 것도 아니다. 혁명은 자기 계급, 자기 인민을 위하여 하는 것이다.

이것은 혁명가로 되려면 반드시 높은 당성, 계급성, 인민성을 소유하고 혁명 투쟁에 자각적으로 나서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말한다.

여기로부터 혁명가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높은 당성, 계급성, 인민성을 가지기 위하여 자체의 사상 수양을 부단히 강화하는 것이다.

혁명하는 사람에게 있어서 사상 수양은 언제, 어디서, 어떤 사업을 하든지 항시적으로 제기된다. 혁명가가 지녀야 할 당성, 계급성, 인민성에는 그 어떤 한도가 있을 수 없으며 또 이미 완성된 공산주의자란 있을 수 없는 것이다. 혁명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사상 수양은 일생을 두고 부단히 제기된다. 만일 혁명가들이 사상 수양을 게을리 할 때에는 그들에게서도 낡은 사상 잔재가 되살아날 수 있다.

지난날 항일 빨찌산들이 일제와의 어려운 싸움에서 항상 이길 수 있은 위력의 원천은 그들이 바로 당성, 계급성, 인민성으로 튼튼하게 무장되여 있었다는 데 있다. 그것으로 하여 그들은 보통으로는 상상할 수도 없었던 영웅주의

와 결단성을 나타낼 수 있었던 것이다.

물론 항일 투사들이 투쟁의 첫날부터 다 혁명 사상으로 튼튼히 무장되여 있은 것은 아니다. 그 누구도 혁명의 길에 들어 설 때 이미 준비된 공산주의자로 될 수는 없는 것이다. 그들이 불굴의 혁명 정신을 소유하게 된 것은 자체의 사상 수양을 위하여 부단히 노력하였기 때문이다. 또한 그들은 혁명 투쟁에서 일정한 경험을 축적한 다음에 있어서도 사상 수양을 결코 게을리 하지 않았다. 김 일성 동지께서 말씀한 바와 같이 꽃은 계속 피여야 아름답다. 그가 비록 로혁명가라 할지라도 혁명가의 영예를 계속 빛내이기 위해서는 사상 수양을 부단히 강화하지 않으면 안 된다.

오늘 우리의 형편을 보면 일제와 싸울 때부터 계속 혁명에 참가하여 온 사람도 있고 해방 후 미제를 반대하는 싸움과 민주 개혁에 참가한 사람도 있으며 또 적들과 직접 맞서 보지 못하고 사회주의 건설 행정에서 혁명가로 자라난 사람도 있다. 이러한 사람들이 모두 지난 투쟁 행정들에서 일정하게 단련된 것은 사실이지만 그러나 수양은 계속되여야 한다. 특히 어떤 단위에서나 책임적 위치에서 일하는 동지들일수록 사상 수양을 더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것은 이들이 당과 혁명 앞에서 더 무겁고 더 어려운 분공을 받고 있으며 그들의 사상과 활동 즉 그들의 수양 정도가 수많은 사람들에게 보다 큰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사정에서 그러하다.

수양에서 학습은 중요한 자리를 차지한다.

《혁명에 리성적으로, 의식적으로, 성과적으로 참가하기 위해서는 배워야 한다》고 레닌은 지적하였다(전집 제 26 권, 414 페지).

혁명가들은 자연과 사회를 변혁하여 인류의 전진 운동을 추동할 임무를 담당하고 있다. 이러한 사명을 수행하자면 우선 맑스-레닌주의 리론과 우리 당 정책으로 무장하고 그것을 무기로 삼아야만 그 어떤 투쟁에서도 승리할 수 있다. 우리들이 아무리 주관적으로 혁명에 충실하려고 하여도 투쟁의 무기를 소유하지 못 하면 혁명에 의식적으로, 성과적으로 참가할 수 없다. 때문에 우리는 학습이 혁명 실천의 불가분리적인 구성 부분이라는 것을 항상 생각할 필요가 있다.

혁명하는 사람에게 있어서 학습은 단순히 리론만을 위한 것이거나 지식만을 위한 것으로 될 수 없다. 리론과 지식은 인민의 행복한 생활을 위한 투쟁에 바쳐져야 하며 혁명 활동의 튼튼한 밑천으로 되여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학습을 잘 하자면 이 사업도 역시 인민의 운명을 책임진 혁명가로서 그 책임을 다하기 위한 무기를 얻기 위하여 한다는 립장에 확고히 서야 한다. 그럴 때에만 학습도 실속 있게 진행될 수 있으며 리론과 지식은 산 것으로 될 수 있다.

항일 무장 투쟁 시기 김 일성 동지는 고달픈 전투의 휴식 시간에도, 행군 도상에도 대원들의 맑스-레닌주의 수준 제고에 일상적인 배려를 돌려 주었으며 우리가 해야 할 일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군 하였다. 당시에 빨찌산들은 적과 싸움만 하는 군대가 아니였다. 그들은 혁명의 종국적 승리를 위하여 대중을 조직 동원할 줄 아는 혁명 투사라는 높은 책임감으로 하여 학습을 그 어느 하루도 중단하지 않았다.

오늘 우리 당은 어떻게 하면 나라의 사회주의 건설을 촉진하고 우리 인민들이 보다 행복하고 유족한 생활을 할 수 있게 하겠는가에 대하여 생각하고 있다. 당의 이러한 의도를 실현하자면 우리 일'군들 모두가 또한 당의 의도 대로 사고하고 자기가 맡은 일을 더 잘 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우리가 일을 잘하자면 어떠한 부문에서 일하는 사람이건 다 자기 수준을 부단히 높이고 자기 사업에 정통해야 한다. 그래야만 나라의 경제 문화 건설을 촉진하고 인민 생활을 향상시키는 데 기여할 수 있다.

과거 낡은 사회에서 사람들의 공부는 개인의 립신출세를 위해서였다면 오늘 우리의 학습은 조국과 인민의 운명을

개척하는 데 철저히 복무하기 위한 것이다. 우리는 우리 조국과 인민의 운명을 책임지고 있다. 우리가 학습을 잘 하는가 못 하는가 하는 것은 조국의 륭성 발전, 인민의 생활 향상과 직접 관련되여 있다. 우리가 학습과 자체 수양을 잘 하면 그 만큼 혁명에 성과 있게 기여하게 되며 인민들의 생활 향상에 이바지할 수 있다.

우리 일'군들은 당과 인민 앞에 지닌 자기의 책임을 깊이 간직하고 자기 수준을 높이기 위하여 꾸준히 학습하여야 한다. 우리에게는 조금도 자만할 근거가 없다. 비록 과거에 대학을 나왔다고 하더라도 계속 공부하지 않으면 발전하는 현실을 따라 갈 수 없고 자기 앞에 맡겨진 일을 감당해 낼 수 없다. 누구를 막론하고 모르는 것을 아는체 하지 말고 어깨를 낮추고 허심하게 배우는 것이 학습에 대한 혁명가들의 진정한 태도이다.

사상 수양에서 또한 중요한 것은 조직 생활에 충실하게 참가하는 것이다.

조직 생활에 참가하여 자신의 행동을 집단의 통제에 맡기는 것은 혁명가의 사상 수양에서 중요한 문제로 된다. 김 일성 동지는 《당원들이 당의 통제에서 벗어 나는 것은 어린아이가 어머니의 품에서 벗어 나는 것과 같이 위험하다…당 조직 생활에 정상적으로 참가하면 자신이 아직 감촉하지 못한 결함을 다른 동무들이 지적해 줄 수 있으며 또 자기가 직접 비판 받지 않는다 할지라도 다른 동무들에 대한 비판에서 자극을 받아 자신을 반성할 수 있다》고 말씀하였다.

혁명하는 사람들은 자기 조직을 가장 귀중히 여기고 자기 조직에 충실하는 과정을 통하여 보다 훌륭한 공산주의자로 단련된다. 혁명가들은 오직 자기 조직에 튼튼히 의거하여 조직 생활을 충실히 하며 조직의 혁명 규률에 자각적으로 복종하며 조직의 위임을 성실히 수행하는 과정을 통하여서만 혁명가로 단련될 수 있다.

항일 빨찌산들은 혁명 조직을 자기의 생명보다 더 귀중히 여기였다. 그들은 조직을 통하여 자신을 부단히 단련하고 수양함으로써 혁명가로서의 자기의 임무를 충실히 수행하였다. 혁명가들은 원쑤들에게 체포되여 형용 못할 고문을 당하면서도 혁명 조직의 비밀을 끝까지 지켰으며 자기 계급과 혁명 조직을 떠난 자신을 생각해 본 일이 없었다.

사상 수양에서 위력한 무기인 비판과 자기 비판도 조직 생활을 통하여서만 성과적으로 진행될 수 있다. 우리의 준비 정도가 발전하는 현실에 따라 가지 못 하거나 혁명적 수양이 부족할 때 사업과 생활에서 결함이 발로될 수 있다. 사업에서 나타나는 결함들을 제때에 비판하고 제때에 고치는 것이 중요하다.

항상 당과 혁명의 리익, 인민 대중의 리익으로부터 출발하여 자기의 사상과 생활을 돌이켜 보며 당의 로선과 정책, 김 일성 동지의 교시를 지침으로 하여 자신의 사업에서 발로되는 일체 부족점을 제때에 시정 극복해 넘어 가야 한다.

조직이 주는 과업을 무조건 완수하는 것을 습성화하는 것이 사상적 단련과 수양의 과정으로 된다.

사람들의 사상 수양의 정도는 실천 활동에서 표현된다. 공산주의자의 수양은 옛날 통치배들이 하던 소위 《수양》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것이다. 우리 혁명가들의 수양은 혁명적 수양이다. 그러므로 그것은 혁명적 실천을 떠나서 진행될 수 없다. 우리가 수양하는 목적이 혁명적 실천을 위한 것이며 대중의 혁명적 실천을 더 잘 지도하기 위한 것이다.

우리는 허심한 태도로 맑스-레닌주의와 당 정책을 깊이 학습하며, 혁명가의 고유한 품성을 배워서 그것을 자기의 사업과 생활에 옮긴다. 이 과정에서 우리는 자기 사상 속에 있는 낡은 사상 잔재를 극복하면서 공산주의적 사상 의식과 품성을 소유해 간다.

우리는 혁명 실천에 참가함으로써 군중들의 의견과 비판을 받게 되며 사업과 생활에서 제기되는 실천적 문제들을 구체적으로 연구하여 경험과 교훈을 새

밀히 종화한 기초 우에서 자기 사업의 방침을 수립하는 것이다. 실천 과정에서 맑스-레닌주의와 당 정책에 대한 자신의 료해의 정확성과 집행 방법의 정확성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이렇게 될 때만 우리는 자기 사업에 대한 확신성을 가지고 그것을 주동적으로, 창발적으로 전개해 나갈 수 있다.

✽ ✽

우리가 사상 수양을 하는 것은 결국 혁명을 위하여 일을 더 많이, 더 잘 하자는 데 목적이 있다. 혁명을 위하여 더 잘, 더 많이 일하자면 혁명적인 사업 기풍을 가져야 한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분공된 혁명 과업을 완전히 책임지고 무조건 수행하며 궁리를 잘 하여 큰 성과를 낳게 하는 것이다.

혁명가들 앞에 주어지는 분공은 각이하다. 그 분공이 큰 것, 작은 것, 보다 더 중요하고 덜 중요한 것은 있을 수 있으나 그것을 실현하지 않아도 무방한 것이란 있을 수 없다. 백 가지 천 가지 분공이 다 잘 되여야 혁명 위업 전반이 옳게 추진될 수 있다. 우리가 어떤 일을 맡든지 그것을 책임적으로 훌륭히 수행하자면 항상 주객관적 조건을 구체적으로 분석하고 그 과업의 내용에 맞게 온갖 대책을 세우고 모든 가능성을 동원하고 불리한 조건을 극복하며 유리한 조건을 최대 리용하는 식으로 파고 들어 일하고 깐지게 일하는 것이 요구된다.

바로 이렇게 하는 사업 기풍을 김 일성 동지는 우리에게 가르쳐 주었고 모범을 보여 주었다. 항일 무장 투쟁 시기 김 일성 동지는 어느 한 전투를 지휘하는 경우에도 항상 적정에 대한 정확한 정찰을 앞세웠다: 대상하는 적들의 진지, 전투 장비, 사기 뿐 아니라 지어 그 부대가 어디서 언제 조직되였고 전투 경험은 얼마나 되며 성원들의 구성은 어떠한가 하는 데까지도 놓치지 않았다. 이렇게 파악한 토대 우에서 그들을 타승할 수 있는 면밀한 전투 작전 계획을 세우고 지휘하였다. 그렇게 하였기 때문에 전투에서 매번 승리할 수 있었다.

오늘 사회주의 건설에서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들이 제기되고 있다. 이것을 우리는 하나씩 풀어 나가야 한다. 그러자면 당 정책과 당의 지시를 무조건 접수하고 그것을 끝까지 관철하며 자기 맡은 과업을 책임적으로 수행하는 기풍을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 우리는 당이 하라는 일이라면 그것이 궂은 일이건 마른 일이건 할 것 없이 그 수행이 가지는 의의를 옳게 파악하고 어떤 일이 있더라도 끝까지 해내려는 생각부터 앞세워야 한다. 이것은 혁명가들의 생활에서 가장 귀중한 것이며 당 정책의 정확한 관철을 위하여 우리들이 반드시 견지하여야 할 품성으로 된다.

누구나 자기가 하는 일의 목적과 의의를 깊이 자각할 때 일을 더 착실하게 하려는 혁명적 열성이 나오게 된다.

어떤 곳에서 무슨 일을 하든지 그것이 혁명을 위한 것이고 인민의 행복을 위한 사업이라면 실속 있게 수행하기 위하여 꾸준히 노력하여야 한다.

오늘 당은 나라의 살림살이를 알뜰히 꾸릴 데 대하여 강조하고 있다. 이 문제는 우리 일'군들이 혁명가적 사업 기풍으로서 사업을 잘 하는가 못 하는가에 따라서 그 성과가 좌우된다.

항일 빨찌산들은 조국의 한 줌의 흙을 자기 배낭에 넣고 다니였다. 이것은 물론 조국이 그리워서 그런 것이였지만 결코 그것만은 아니였다. 당시에는 비록 조국의 한 줌의 흙을 간직하고 있었지만 장차 조국을 해방하고 조국 땅에 사회주의, 공산주의 사회를 건설할 것이라는 굳은 신념에서 그렇게 했다. 그런데 지금은 이미 조국의 절반 땅에서 착취 없고 압박 없는 사회주의 락원을 이룩해 놓았다. 그렇기 때문에 조국 강산

의 일목일초를 다 사랑하고 모든 자원이 다 우리 인민을 위하여 잘 복무하게 하는 것은 오늘 우리 혁명가들의 혁명가적 기풍이 발양되여야 할 분야이다.

혁명가들의 사업과 생활에서 귀중한 것은 나라의 살림살이에 대하여 일상적인 관심을 돌리고 나라와 인민의 재산을 아끼고 사랑하는 주인다운 태도를 가지는 것이다. 나라의 살림살이를 알뜰히 꾸리며 우리 인민의 재부를 애호관리하는 것은 나라를 더 부강하게 하고 인민의 생활을 향상시키는 중요한 담보로 된다. 그러므로 우리는 한 알의 쌀, 한 그람의 쇠, 한 메터의 천, 한 푼의 돈이라도 아껴 쓰며 한 대의 기계라도 더 증산하여 나라의 재부를 증대시키기 위하여 적극 힘써야 한다.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또한 그가 어떤 단위에서, 어떤 위치에서 일하든지 간에 모두가 혁명가다운 사업 기풍을 가지고 사업에서 형식주의와 주관주의를 극복하는 것이다.

오늘 우리의 사업에서 형식주의는 당 정책을 겉서 대하고 사업을 깊이 연구하지 않고 구체적으로 짜고 들지 않으며 조직하지 않는 데로부터 부차적인 문제에 매달리게 되거나 사업에서 중심이 없이 사업을 벌려만 놓는 데서 중요하게 표현된다. 당이 강조하는 대로 우리는 사업을 벌려 놓지 말고 하나씩 먹고 넘어 가는 《섬멸전》을 전개함으로써 혁명과 건설에서 걸리고 있는 문제들을 풀어 나가야 할 것이다.

혁명가들은 항상 나라의 살림살이 전반에 대하여 걱정하며 책임지는 립장에서서 일해야 하며 자기가 맡은 사업에서 뿐 아니라 다른 모든 부문과 단위들에서도 당 정책이 관철되도록 일상적인 관심을 돌리고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하여야 한다.

만일 맡겨진 과업이나 수행하고 자기가 할 일을 다했다고 만족해 하거나 다른 부문의 사업이 잘못 되여도 가슴 아파하지 않는다면 그 당원은 진정한 전위 투사라고 말할 수 없을 것이다. 혁명 앞에 지닌 자기의 고상한 임무를 깊이 자각하고 있을 때에만 당 정책을 대할 때에는 항상 사회주의 건설 전반에 대하여 생각하고 걱정하며 자기가 할 일을 스스로 찾아서 할 수 있는 것이다.

나라와 인민의 립장에 확고히 서서 당이 내세운 일이라면 네 일, 내 일 가리지 않고 일을 찾아서 하며 남의 아픔과 애로를 자기의 아픔과 애로로 생각하고 성심성의 도와 주는 이러한 혁명적 립장과 태도야말로 진정한 공산주의적 립장이며 당과 혁명을 위하여 참되게 복무하려는 숭고한 혁명 정신의 표현이다.

우리가 혁명가라는 고상한 영예를 깊이 간직하고 자기의 혁명 과업을 끝까지 수행하기 위하여 발벗고 나서서 머리를 쓰고 이악하게 달라붙는다면 그 만큼 우리의 사업에서는 더 큰 전변이 이룩될 것이다.

사회주의 건설의 심화 발전과 인민 정권

오 태 봉

맑스-레닌주의가 가르치는 바와 같이 정권에 관한 문제는 혁명에서 기본 문제이다. 사회주의 혁명과 사회주의 건설에서의 성과 여부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가 하는 데 전'적으로 달려 있다. 그러므로 혁명에서 주권을 잡은 로동 계급과 그 당은 자기의 력사적 사명을 완수할 때까지 사회주의 혁명과 사회주의 건설의 전 기간에 걸쳐서 정권을 계속 강화하고 그의 기능과 역할을 더욱 높여야 한다. 혁명과 건설의 강력한 무기인 정권을 계속 강화하지 않고서는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을 성과적으로 진척시킬 수 없으며 내외의 계급적 원쑤들의 침해로부터 혁명의 전취물을 튼튼히 보위할 수 없다.

오늘 우리 나라에서 사회주의 건설이 심화 발전되여 감에 따라 인민 정권을 더욱 강화하고 그의 기능과 역할을 높여야 할 과업이 절박하게 제기되고 있다.

우리 나라에서 사회주의 건설이 심화 발전됨에 따라 인민 경제의 규모와 범위가 더욱 확대되고 그 기술적 장비가 강화되고 있으며 생산적 및 소비적 련계가 더한층 복잡하여지고 인민 경제의 전문화와 협동화가 전국적 범위에서 실시되고 있다. 이러한 조건에서 인민 경제의 모든 부문들과 매개 고리들은 더욱 구체적이고 전문화된 지도 관리를 요구하는 동시에 중앙 집권적인 통일적 지도와 규률에 의하여 시계 바늘과 같이 딱딱 맞물며 돌아 갈 것을 요구하고 있다. 전문적인 기업적 지도가 보장되지 않고서는 현대적인 과학 기술에 기초한 대규모적인 생산을 지도 관리할 수 없으며 통일적이며 종합적인 지도가 보장되지 않고서는 인민 경제의 계획성과 균형을 보장할 수 없다. 인민 경제의 모든 부문이 서로 밀접하게 련관되여 있는 조건에서 어느 한 고리에서라도 규률과 질서를 위반하게 되면 그것은 다른 모든 부문들에 련쇄 반응을 일으켜서 결국은 전반적인 인민 경제 발전에 지장을 줄 수 있다.

인민 정권의 통일적이며 종합적인 지도를 강화하고 사회주의적인 규률과 질서를 강화함으로써만 경제를 부단히 발전시킬 수 있으며 사회주의 건설을 더욱 촉진시킬 수 있다. 도, 시, 군 인민 위원회로부터 농업, 공업, 건설 등 경제 관리 기관들이 분리된 조건에서 지방 정권 기관들이 주권 행사를 잘 하는 문제가 더욱 중요하게 제기된다.

다 아는 바와 같이 지방 정권 기관들에서 경제 관리 기관이 분리되였다고 하여 주권 행사의 기능이 분리된 것은 아니다. 주권을 행사할 권리와 의무는 오직 인민 정권만이 지니고 있다. 인민들에 의하여 직접 선거되고 인민의 리익과 의사를 대표하는 인민 정권만이 정치적 주권을 대표하는 권력 기구이며 전체 인민을 포괄하고 있는 대중적인 조직체로서 정치, 경제, 문화, 군사 등

모든 분야에서 우리 당의 로선과 정책을 국가적 의무력을 가지는 법으로서 구체화하여 이를 례외 없이 모든 주민들 속에 관철시킬 수 있다.

인민 정권의 주권 행사를 통해서만 모든 국가 경제 기관들의 활동을 당의 로선과 정책을 관철하기 위한 유일한 목적에 복종시키면서 대중의 창발성과 민주주의를 고도로 발양시킬 수 있으며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 도상에서 제기되는 사회 경제 문화 건설의 모든 문제들을 로동 계급의 계급적 립장과 력사적 사명에 부합되게 정확히 해결할 수 있다.

특히 오늘 우리는 첨예한 계급 투쟁의 조건에서 사회주의를 건설하고 있다. 착취 계급들은 전복된 후에도 옛 제도를 회복하기 위한 망상을 버리지 않고 계속 악랄하게 책동하고 있으며 미 제국주의자들은 우리 조국 남녘 땅을 강점하고 우리 나라 사회주의 건설을 방해하기 위하여 북반부에 대한 파괴 암해 행동을 계속하고 있으며 부르죠아 사상을 집요하게 침습시키고 있다. 이러한 조건에서 독재의 무기인 인민 정권의 기능과 역할을 제고함이 없이는 적들의 파괴 암해 책동을 분쇄하고 내외의 원쑤들의 침해로부터 인민들의 창조적 로동과 행복한 생활을 믿음직하게 보위할 수 없으며 기술, 문화, 사상의 모든 령역에서 낡은 사회의 유물을 철저히 청산할 수 없다.

과거로부터 수천년 동안 내려 온 낡은 사회의 관습과 습성, 전통, 편견 등은 사회주의 제도가 확립된 후에도 오랜 동안 집요하게 남아 있게 되며 이것은 로동 계급의 국가적 지도가 약화될 때에는 되살아 날 수도 있고 더욱 조장될 수도 있다. 《…이것들이, 이 전통과 관습들이 수백만 근로 대중을 틀어 쥐고 이것들이 가끔 프로레타리아트의 허다한 층들을 휩싸 넣으며 이것들이 가끔 프로레타리아트 독재의 존립 자체에 대한 가장 커다란 위험을 조성한다》 (쓰딸린 저작집 제 6 권, 340 페지).

사람들의 머리 속에 남아 있는 낡은 사상 잔재와 인습을 반대하는 투쟁은 가장 어렵고 복잡하고 장기성을 요하는 것으로서 이것은 인내성 있는 교양과 함께 인민 정권의 국가적 지도를 결합함으로써만 뿌리 채 뽑아 버릴 수 있으며 전 사회를 혁명화, 로동 계급화하고 사람들을 사회주의적인 규률과 새 생활 양식에 습관화되게 할 수 있다. 이처럼 인민 정권을 강화하고 그가 정치적 주권 기관으로서 주권 행사를 잘 하도록 하는 것은 심화 발전하는 우리 나라 사회주의 건설의 객관적 요구이며 우리 앞에 제기된 가장 중요한 과업으로 되는 것이다.

* *

인민 정권의 주권 행사에서 주되는 과업의 하나는 경제 조직자적 및 문화 교양자적 기능을 일층 높이는 것이다. 경제 조직자적 및 문화 교양자적 기능을 더욱 높이여 나라의 살림살이를 알뜰히 꾸리며 인민들의 생활을 책임지고 잘 보살피는 것은 인민 정권의 제 일차적 과업이며 본래의 사명이다.

원래 우리 공산주의자들이 주권을 잡고 혁명을 하는 것은 이 세상에 착취와 억압이 없고 모든 사람들이 유족하고 문명하고 행복하게 잘 살 수 있게 하자는 데 그 목적이 있으며 우리 당 활동의 최고 원칙도 바로 여기에 있다.

오늘 모든 생산 수단이 사회주의적 소유로 되고 모든 근로자들이 사회주의적 근로자로 된 조건에서 살림살이와 인민 생활에 대하여 인민 정권 기관이 책임지지 않는다면 그 누구도 책임질

사람이 없다. 과거에는 인민 정권이 주민들의 생활에 대하여 전'적으로 책임지지 않아도 그들 자신이 직접 책임졌다.

그러나 오늘에 와서 경제가 국가의 유일한 계획에 따라 발전하며 나라의 모든 생산 설비들과 원료, 자재, 자금, 로력이 다 계획에 의하여 움직이며 생산, 분배, 류통, 소비 등이 다 국가의 계획에 따라 진행되고 있는 조건에서 인민 정권 기관이 일을 잘 하지 않으면 그 무엇 하나 저절로 생산되지 않는다. 쌀이나 부식물 같은 것은 물론 지어 문창호지 하나까지도 인민 정권이 관심을 돌리지 않으면 저절로 생산될 수 없다. 우리 인민은 자기의 운명을 전'적으로 인민 정권에 의탁하고 있다. 인민 정권 기관이 살림살이를 잘 하는가 못 하는가에 따라 인민들의 생활이 좌우된다.

그러므로 인민 정권 기관 일'군들은 주민들이 먹고 입고 쓰고 사는 문제로부터 시작하여 그들을 공부시키고 그들에게 가정과 직업을 주고 그들 속에서 질병과 사건 사고를 방지하는 등 그들의 모든 생활에 대하여 깊은 관심을 돌려야 한다. 인민 생활에 무관심하며 인민들의 애로와 요구를 해결하기 위하여 애쓰지 않는 일'군들은 인민의 충복으로 될 수 없으며 따라서 인민의 두터운 신임에 보답할 수도 없다.

우리는 지금까지 피땀을 흘려 많은 재부를 창조해 놓았으며 우리 인민이 잘 살 수 있는 튼튼한 밑천을 마련해 놓았다. 인민 정권 기관들이 살림살이를 잘 조직하고 이미 창조한 재부와 우리 나라의 풍부한 자연 부원을 아끼고 잘 리용만 한다면 우리 인민은 오늘보다 훨씬 더 잘 살 수 있다.

그런데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지방 정권 기관들이 해당 지역 내 살림살이 전반을 틀어 쥐고 계획 사업과 조직 사업을 잘 하는 것이다.

도, 시, 군 인민 위원회들은 해당 지역의 主주로서 우선 지방 공업, 농촌 경리, 지방 건설, 국토 관리 등 지방 경제 부문의 계획화 사업을 통일적으로 장악하고 종합적으로 발전시켜야 하며 상업, 수매, 량정 등 공급 사업을 개선하여 매개 집 주인이 자기 집안 살림을 살뜰히 꾸리듯이 인민 생활의 세부분에 이르기까지 이 구석 저 구석을 책임적으로 돌봐야 한다.

또한 인민 정권 기관들은 국토와 자연 부원을 잘 보호 관리하며 도시와 농촌의 주택, 공공 건물, 상하수도, 난방 시설을 비롯한 각종 시설물에 대한 보수 관리 사업을 정상적으로 진행하고 도시와 부락을 문화 위생적으로 꾸리며 이미 창조한 재부와 자연 부원을 극력 아끼고 절약하는 등 해당 지역 내 살림살이 전반을 알뜰히 꾸림으로써 인민 생활을 부단히 향상시키며 우리 나라에서 공산주의 락원을 건설할 밑천을 튼튼히 마련하여야 한다.

만일 지방 정권 기관들이 해당 지역의 살림살이 전반에 걸쳐 전망 및 당면 과업을 종합적으로 틀어 쥐고 나가지 못 하고 어느 한 개 부문에 치우치거나 사업을 깜빠니야식으로 처리한다면 그리고 과학적이며 현실적인 타산이 없이 우에서 주는 통제 수'자나 맞추고 계산상 균형이나 보장하면서 허공에 뜬 계획을 세운다면 해당 지역 내 경제 문화의 전반적 발전과 인민 생활의 체계적인 향상에 지장을 주게 될 것이다.

인민 정권 기관의 주권 행사에서 중요한 과업의 또하나는 그의 감독 통제적 기능을 강화하는 것이다.

감독 통제—이것은 인민 정권 기관이 인민의 주권을 직접 행사하는 기능으로서 다른 모든 기관들의 사업이 당의 정

책과 인민의 의사에 부합되게 집행되도록 하며 경제 문화 정책에서 로동 계급의 유일한 국가적 의사를 실현하는 프로레타리아 독재의 중요한 수단이다.

사회주의 하에서 인민 정권의 감독 통제는 당과 인민 대중의 리익을 위한 것으로서 인민 대중의 적극적인 지지와 참가 하에 적용되며 극소수의 불건전한 요소들과의 투쟁을 위한 민주주의적이며 인민적인 것이며 그 자체가 일'군들의 사업에서 관료주의, 형식주의를 반대하는 방도로도 된다.

인민 정권의 감독 통제적 기능을 강화하는 것은 인민 대중의 민주주의를 적극 발양시키며 기관, 기업소들에서 인민 경제 계획과 그들에게 부과된 혁명 임무를 성과적으로 수행하게 하며 국가 사회 재산을 잘 관리하고 사회 질서를 유지함에 있어서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오늘 지방 인민 위원회로부터 농업, 공업, 건설 등 경제 관리 기관들이 분리되여 자주적으로 사업하고 있는 조건에서 이 기관들의 계획 작성 사업으로부터 생산 조직, 기술 발전, 자재 보장, 로동력의 배치와 재정 활동 전반에 대한 감독 통제를 옳게 하여야 한다.

인민 정권 기관들은 감독 통제를 실시함에 있어서 회의를 통하여 하는 방법, 문서와 구두 보고에 의한 방법, 지도 검열의 방법, 허가 승인의 방법 등 여러 가지 수단과 형식을 적용할 수 있다. 이러한 방법을 통하여 인민 정권 기관들은 해당 경제 관리 기관들이 국가 법령을 철저히 집행하도록 하며 국가 규률을 정확히 준수하도록 감독 통제하며 국가 법령을 정확히 준수하지 않는데 대해서는 인민의 리익을 침해하는 것으로서 엄격한 법적 제재와 규률을 적용하여야 한다.

인민 정권 기관의 감독 통제는 경제 기관이나 근로자들에 대한 설복과 교양의 배합을 요구한다.

아직도 사람들의 머리 속에 남은 사상 잔재가 남아 있는 조건에서 통제와 결합되지 않는 교양만으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우리는 오늘 복잡한 정세 하에서 사회주의를 건설하고 있다. 인민 정권 기관들은 감독 통제의 기능을 강화함과 동시에 내외의 계급적 원쑤들의 침해로부터 혁명의 전취물을 굳건히 수호하기 위하여 독재의 기능을 일층 높여야 한다. 이것은 인민 정권의 본질로부터 흘러 나오는 중요한 임무의 하나이다.

《앞으로 공산주의가 건설된 후에는 별문제이지만 아직은 주권 기관의 독재 기능을 조금도 약화시킬 수 없으며 또 결코 약화시켜서는 안 된다》(김 일성).

인민 정권 기관들은 우리 당의 계급 로선에 철저히 립각하여 독재 대상을 정확히 구분하고 우리 편에 끌 수 있는 모든 사람들을 대담하게 포섭하며 전체 근로 대중의 단결을 더욱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인민 정권 기관들은 반혁명 분자들과의 투쟁을 당의 방침 대로 전 군중적 운동으로 전개하기 위하여 인민 대중에게 반혁명 분자들과의 투쟁에 대한 우리 당의 방침, 적들의 준동 형태와 교활한 수법, 반혁명 분자들을 적발 분쇄하기 위한 구체적 방법 등을 알려 주며 전방과 후방, 도시와 농촌, 공장, 사무 기관, 인민반 등 모든 곳에서 제도와 질서를 강화하고 항상 혁명적 경각성을 높이도록 함으로써 한 놈의 간첩, 파괴 암해 분자도 발붙일 틈을 주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인민 정권 기관들은 미제의 침략 책동이 로골화되고 있는 조건에서 전체 인민을 무장시키고 전국을 요새화하며 근로자들 속에서 온갖 안일성과 권태증

을 반대하고 항상 긴장되고 동원된 태세를 견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　　*

인민 정권 기관들이 당의 로선과 정책의 집행자로서, 프로레타리아 독재의 강력한 무기로서 주권 행사를 잘 하기 위하여서는 우선 간부 대렬을 튼튼히 꾸리고 그들의 정치 실무 수준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

현시기 인민 정권 기관의 간부 대렬을 꾸리는 데서 중요한 것은 실천 투쟁에서 단련되고 일정한 년령도 있고 사업 경험이 많은 로숙한 일'군들로서 그 대렬의 질적 구성을 강화하는 것이다. 이와 동시에 일'군들을 한 자리에 오래 동안 고착시키고 그들의 정치 실무 수준을 부단히 높여 줌으로써 급속히 변화 발전하는 현실적 요구에 상응하게 그들의 지도 수준을 따라 세워야 한다.

인민 정권 기관은 단순한 행정 실무 기관인 것이 아니라 정치적 주권 기관이며 정무원들은 단순한 사무원인 것이 아니라 정치 활동가들이다. 그들이 정치 활동가로서 계급 투쟁과 사회주의 건설을 옳게 지도하기 위해서는 당 정책으로 무장하고 높은 과학 기술을 소유하여야 한다. 특히 사회주의 건설이 심화 발전됨에 따라서 인민 정권의 사업 범위가 확대되고 그 내용이 복잡해진 조건에서 정치 실무적으로 준비되지 않고서는 복잡한 문제들을 정치적으로 옳게 판단 처리할 수 없으며 인민 정권 기관 앞에 제기되는 방대한 과업들을 당이 요구하는 수준에서 정확히 집행할 수 없다.

일'군들에게 사업 방법을 가르쳐 주고 그들의 정치 실무 수준을 높이는 데서 방식 상학을 실속 있게 정상적으로 조직 진행하는 것이 중요하다. 방식 상학을 통하여 일'군들에게 당 정책 집행에서 당면하게 걸린 문제들을 푸는 방법과 사업을 조직하는 방법, 한 개 단위를 지도하고 거기에서 얻은 경험을 일반화하는 방법, 보고서, 결정서, 사업 계획서 작성 방법 등을 체계적으로 가르쳐 줄 수 있다.

인민 정권 기관이 주권 행사를 잘 하기 위하여 일'군들의 사업 방법과 사업 작풍을 바로잡는 것이 또한 중요하다. 당의 로선과 정책이 명확하고 그를 관철하기 위하여 궐기한 대중들의 열성이 높아도 인민 정권 기관 지도 일'군들의 사업 방법과 작풍이 바르지 못하면 사업에서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없다.

지도 일'군들이 아래에 내려 가 실속 있게 도와 주는 것이 아니라 책상머리에 앉아서 잡다한 통계에만 매달리고 잡다한 지시문만 내려 보내거나 새 과업이 나오면 구체적인 조직 사업은 하지 않고 회의나 한 번 하고 독촉이나 하는 등 행정식 사업 방법으로써는 대중의 창발성과 적극성을 높일 수 없으며 사업에서 성과를 거둘 수 없다.

물론 사업에서 회의와 지시문과 통계는 필요한 것이다. 그러나 인민 정권 기관들의 사업과 활동의 목적은 그 어떠한 문서나 통계, 회의 등 그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혁명 과업 수행에 대중을 조직 동원하는 데 있다. 지시문이나 회의의 내용들이 대중 속에 침투되고 조직 사업이 진행되여 실천에 옮겨지지 못 한다면 그것은 아무 소용도 없다. 인민 정권 기관들은 번잡한 회의와 잡다한 지시문과 통계를 대담하게 축소하고 청산리 방법 대로 밑에 내려가 정치 사업을 하고 사람과의 사업을 하며 당 정책 관철에 인민 대중을 조직 동원하여야 한다.

인민 정권 기관들의 사업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동시에 일'군들의 당성, 계급성, 인민성을 제고하고 그들의 사업 작풍을 바로잡는 문제가 중요하다. 인민 정권 기관 일'군들은 인민에게 호령하고 명령하며 욕설하는 관료인 것이 아니라 인민을 위하여 일하는 충복이다.

인민 정권 기관 일'군들이 인민의 충복으로 되기 위해서는 사리와 공명을 탐내지 말고 진심으로 혁명의 리익을 위하여 모든 것을 다 바쳐 일하여야 하며 자기 사업에 대하여 끝까지 책임지는 혁명가적 기풍을 소유하여야 한다. 나라의 일, 인민의 일에 대하여 책임적으로 대하지 않으며 부족점을 아프게 생각하지 않고 사업을 피동적으로 대강대강 처리하는 일'군은 정무원으로서의 사명을 옳게 수행할 수 없다.

일'군들의 사업 작풍을 바로잡는 데서 특히 중요한 것은 언제나 겸손하고 소박하며 세도를 쓰거나 《틀》을 차리지 말며 까다롭지 말고 군중을 어머니다운 심정으로 항상 너그럽게 대하며 힘들고 어려운 일에서 앞장 서는 것이다.

인민 정권 기관들이 주권 행사를 잘 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당의 령도에 충실하는 것이 중요하다.

프로레타리아 독재 체계에서 혁명의 참모부인 당의 령도에 충실함이 없이는 인민 정권 기관들이 주권 행사를 잘 할 수 없다. 당의 령도에 충실함으로써만 어떠한 어려운 환경에서도 정확한 방향과 방도를 가지고 사업할 수 있으며 로동 계급의 립장을 철저히 지키고 인민을 위하여 충실히 복무할 수 있으며 옳은 사업 체계와 사업 방법을 확립할 수 있다.

당의 령도에 충실한다는 것은 모든 활동을 당의 로선과 정책에 철저히 의거하여 진행하며 그것을 끝까지 옹호 관철하며 해당 당 조직들의 지도와 통제를 적극적으로, 의식적으로 받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그것은 모든 사업을 당에 의존하고 시키는 일이나 하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당의 로선과 정책을 자주적으로 집행하며 모든 사업을 완전히 당 앞에 책임지는 립장에 서야 한다.

인민 정권 기관들은 당의 로선과 정책에 철저히 의거하여 모든 사업을 자주적으로, 책임적으로 진행할 때 혁명과 건설에서 제기되는 모든 과업들을 성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

기계 공업의 발전과 중소 규모 공장

문 헌 모, 김 성 태

최근 우리 나라 인민 경제 모든 부문들에서는 대규모 기계 공장에 배합하여 중소 규모 기계 공장을 새로 꾸리는 사업들이 대대적으로 벌어지고 있다. 중공업 부문의 기계 공장들에서는 물론 경공업 부문 기계 공장들에서도, 철도 운수 부문의 공장들에서도 그리고 이 여의 인민 경제 부문들에서도 모두 자기 부문의 구체적인 실정에 상응하게 중소 기계 공장을 꾸리고 그 관리 운영을 합리화하는 투쟁이 힘차게 전개되고 있다.

오늘 중소 규모 기계 공장을 꾸리는 사업이 우리 나라 경제 생활에서 그렇게도 긴절한 과제로 나서고 있는 것은 무엇 때문인가. 그것은 인민 경제의 심화 발전과 관련하여 기계 설비들 특히는 부속품의 수요가 비상히 제고되였기 때문이며 현 계단에 있어서 생산을 정상화하는 문제가 바로 이 고리를 푸는 데 크게 의존되여 있기 때문이다.

대규모 기계 공장에 배합하여 중소 기계 공장을 광범히 꾸릴 데 대한 우리 당 방침의 본질과 우월성을 잘 아는 것은 현실에 그것을 정확히 구현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의의를 갖는다.

1

사회주의 하에서 기업 관리 운영의 단위와 그 규모를 옳게 설정하고 분업과 협업의 우월성을 발휘시키는 것은 사회적 로동 생산 능률의 제고를 촉진하는 위력한 요인으로서 사회주의 경제 관리의 본질로부터 제기되는 필수적 요구이다. 금번 우리 당이 제시한 방침은 합리적인 기업 관리의 단위와 규모를 설정하여 사회주의 생산 관계의 우월성을 더욱 발양시킴으로써 생산의 계속적인 앙양을 확고히 보장하기 위한 전략적인 투쟁의 중요 일환이다.

이 방침의 본질은 기계 생산 령역에서 생산 조직의 형태를 합리화하여 사회주의 분업과 협업을 심화시키며 생산 관계의 우월성을 전면적으로 발양시키는 데 있다. 바꾸어 말하면 지금까지 대규모 공장의 《부차적》인 직장으로 있은 생산 부문과 부분적으로는 전에 갖추어 있지 못하던 생산 부문을 중소 규모 공장의 형태로 실현하여 사회적 분업 및 기업소 내의 분업을 강화하고 기계 공업의 구조를 완비하며 그 물질 기술적 토대의 위력을 남김 없이 발휘시키는 데 있다. 이것은 형식 상으로는 기업 관리 운영의 단위와 규모에 관한 문제이며 내용 상으로는 생산의 전문화를 심화시키는 문제이다.

오늘 우리 나라 경제 생활에서 중소 규모 공장을 새로 꾸리는 것이 긴절한 과제로 제기된 것은 기계 공업 자체의 발전과 다른 모든 경제 부문의 발전에 그 근거를 두고 있다. 그것은 우선 인민 경제 모든 부문에서 기계 완제품 특히는 기계 부속품의 수요가 비상히 장성된 사실에 기인하며 우리 나라 기계 공업의 력사가 짧고 마련되여 있는 물질 기술적 토대가 일련의 특성을 가지고 있는 사정에 기초하고 있다.

잘 아는 바와 같이 전후 거의 빈터 우에 창설된 우리 기계 공업은 력사 상 전례 없는 높은 속도로 장성하였으며 현대적인 기술로 장비된 위력한 경제 부문으로 되였다. 기계 공업이 얼마나 빨리 발전하였으며 그것이 지금 경제 건설에서 어떤 역할을 놀고 있는가 하

는 것은 다음의 통계표가 잘 말하여 준다:

	1946년	1949년	1956년	1960년	1964년
기계 제작 및 금속 가공 공업의 장성	100	535	21 배	99 배	203 배
공업 생산에서 이것이 차지하는 비중(%)	5.1	8.1	17.3	21.3	25.8

지금 우리의 기계 공업은 현대적인 공작 기계들로 무장한 수백 개의 기계 공장들을 가지고 있으며 그에 기초하여 나라의 공업화와 기술 혁명의 과업을 훌륭히 보장하고 있다. 1964년에 기계 설비의 국내 자급률이 94.3%에 달하였다는 사실은 그 무엇보다도 이것을 명백히 증명해 주고 있다.

그러나 우리 기계 공업은 자체가 빨리 걸어 온 사정과 관련하여 구조 상에서 해결을 요하는 일련의 문제들을 남기고 있다. 례하면 지금 기계 공업 전반에서 볼 때 작업 기계 공업에 비하여 전기 기계 공업이, 전기 기계 공업에서도 전기 기계 생산에 비하여 전기 기구 및 절연물 생산이 각각 뒤떨어지고 있으며 작업 기계 공업 내부에서도 가공 부문에 비하여 소재 부문이, 기본 생산 부문에 비하여 보조 생산 부문이 뒤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기계와 부속품에 대한 수요가 비상히 증대되기 그 전까지는 인민 경제의 복구, 개건과 신설 및 확장에서 아무러한 저애로 되지 않았다.

기계 설비의 무진장한 시장인 기술 혁명이 본격적으로 전개되고 사회주의 경제 건설이 심화 발전됨에 따라 재생산 과정에서 기계 공업에 대한 요구는 비상히 제고되였다.

전면적 기술 개건의 시기인 7 개년 계획 수행에 들어 서면서부터 기계와 부속품에 대한 수요는 1) 규모(수요량과 품종) 상에서와 2) 수요 구조 상에서 그리고 3) 질적 요구 수준에서 현저히 제고되여 왔다.

기술 혁명의 전면적인 촉진은 우선 기계 완제품의 수요량을 장성시켰으며 특히는 기계 설비들의 보유 규모를 증대시킴으로써 기계 부속품의 수요량을 급속히 장성시켰다. 7 개년 계획의 첫 해인 1961년에 비하여 1965년에 기계 완제품은 2.4 배, 각종 부속품은 2.8 배로 장성하였다.

기계 완제품 및 부속품 수요의 획기적인 장성은 동일 제품들의 단순한 량적인 증가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그것은 동종 제품들의 량적인 장성과 함께 품종 확대가 급속히 이루어진 데도 기인하는 것이다. 7 개년 계획 기간에 들어 와서만하더라도 기계 설비의 품종 수는 현저히 장성하였다.

사회주의 공업화와 기술 혁명의 발전은 기계 설비의 수요 규모를 확대시켰을 뿐만 아니라 기계 설비의 수요 구조도 크게 변경시켰다. 례하면 뜨락또르와 자동차 생산에서 지금까지 《천리마 28》형과 《승리 58》형이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으나 최근 몇 해 사이에 《풍년호》 뜨락또르와 《61》형 및 《64》형 자동차의 생산이 급속히 증가되여 총생산에서 그것이 차지하는 비중이 크게 제고되였다. 경공업 부문 기계 생산에서도 사정은 마찬가지인바 《만경대》형 라지오와 《비둘기》형 재봉기 생산의 비중은 저하되고 신품종들인 《백두산》형 라지오와 《쌍마》형 재봉기의 비중이 높아졌다.

기계 설비의 수요 규모 및 그 구조의 발전과 함께 질적 요구 수준도 전에 비할 바 없이 높아졌다. 경제 건설이 심화 발전되고 기계 설비의 대외 수출이 강화된 조건에서 이것은 법칙적인 현상으로 된다.

이상과 같이 7 개년 계획 수행에 들어 서면서부터 사회주의 공업화와 기술 혁명이 전면적으로 촉진되고 인민 경제가 계속 발전함에 따라 기계 완제품 특히는 부속품의 수요는 급격히 장성하였으며 그 증가 속도는 가속화되여 왔다.

우리 나라 기계 설비와 그 부속품의 수요 장성에서는 기술 혁명 수행의 제

조건, 그 과정의 특성과 관련하여 지금 명백한 경향성이 나타나고 있다. 그것은 수요의 온갖 측면들이 다 급속히 장성하는 가운데서도 특히 품종 수의 장성이 빠르며 또 부속품의 장성이 완제품의 장성을 릉가하고 있는 그것이다.

경제 건설의 심화 발전으로 말미암아 증대된 기계와 부속품의 수요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그 어떤 방법에 의하여, 례하면 공장을 새로 건설하거나 또는 생산 조직의 형태를 합리화하는 방법에 의하여 기계 공업의 생산 능력을 제고하는 것이 긴절한 요구로 되였다.

지난 시기 즉 7 개년 계획 그 이전에는 이러한 문제가 제기되지 않았으며 또 제기될 수도 없었다. 기계 완제품 특히는 부속품의 수요량이 크지 않았으며 품종 수가 그리 많지 않았던 지난 시기에는 주로 대규모 공장을 건설하고 거기에 기술 공정이 동일한 제품을 집중하여 생산의 전 과정을 담당하도록 하는 생산 형태에 의거하였었다. 당시의 조건에서 이러한 조직 형태는 생활이 증명한 바와 같이 사회 생산력을 리용하는 데 있어서나 제기되는 수요를 보장하는 데 있어서 합리적인 것이였다.

그러나 제반 조건들이 크게 변동된 오늘 대규모 공장에 계속 생산을 집중하는 것은 생산 조직에서 복잡성을 가중하여 개별적 단위들에 대한 지도를 심화시킬 수 없게 하며 기업 관리에서 사업의 전반을 장악하지 못 하고 그 일면에 빠질 수 있게 한다. 또한 오늘에 와서 그것은 생산에서 설비와 로동자 및 로동 대상의 교체를 증가시켜 생산 도구와 로동력 리용의 비효과성을 제고하고 사회적 로동 생산 능률의 저하를 가져 오게 한다.

요컨대 오늘 종래의 조직 형태를 지속시키는 것은 현존 생산력을 전면적으로 리용하는 데 지애를 조성함으로써 기계 완제품 뿐만 아니라 그 의의가 날로 증대되고 있는 부속품 및 협동 생산품의 수요를 원만히 보장할 수 없게 할 것이다.

오늘 방대한 기계 공업의 생산력이 충분히 리용되지 못 하고 그 적지 않은 부분이 예비로 남아 있는 조건에서 생산 조직의 형태를 개선하는 것만으로써도 우리는 추가적인 거대한 생산 능력을 얻을 수 있으며 기계와 부속품에 대한 증대된 수요를 능히 보장할 수 있다.

기계 공업 부문에서 생산 조직의 형태를 개편하며 분업과 협업을 강화하는 것은 지체 없이 해결되여야 할 절실한 과제로 되였다.

기계 공업에서 생산 조직의 형태를 합리화할 데 대한 문제는 또한 그 실현이 가능한 성숙된 문제이기도 하다. 사회주의 공업화와 기술 혁명이 추진되는 행정에서 관리 일'군들과 기술 일'군들의 대렬이 자라났고 기업 관리 운영의 경험이 축적되였다.

이로부터 우리 당은 기계 공업에서 현존 대규모 공장에 배합하여 중소 규모 공장을 조직하고 협동 생산의 강화를 위한 위성 공장 체계를 확립하는 획기적인 조치를 취하였다.

이것은 현 계단에 있어서 경제적으로 볼 때 충분한 근거를 가진 정당한 조치이다.

그러나 이 조치를 단순히 경제적 요인으로써만 설명하는 것은 완전성을 기하지 못한 것이다. 금번의 새 조치가 취해진 그 기저에는 이와 함께 경제외적인 요인, 우리 나라를 둘러 싼 군사 정치 정세가 놓여 있다.

이와 같이 기계 공업에서 생산 조직의 형태를 개편하며 분업을 강화하는 것은 우리 나라 사회 경제 발전의 합법칙적 요구이며 현 계단에 있어서 반드시 풀고 넘어 가야 할 중요 문제의 하나이다.

우리 당 령도의 현명성은 사회주의 건설 전반의 진행 과정이 관리 단위와 규모에 관한 문제를 제기하였을 때 그것을 제때에 포착하고 그에 영향을 미치는 온갖 요인들을 신중히 고려한 기초 우에 해결 방도를 전면적으로 제시한 데 있다.

현존 대규모 공장에 배합하여 중소

규모 공장을 꾸릴 데 대한 당의 금번의 조치는 기계 공업의 생산 능력을 증대시킬 목적에서 강구된 일련의 조치 중에서 특별한 자리를 차지한다. 즉 그것은 기계 공업의 물질 기술적 토대를 강화하는 데서 적극적이며, 항구적이며, 전면적인 특성을 가진다.

대규모 공장에 배합하여 중소 규모 공장을 꾸리는 것은 기계 설비 수요의 장성과 물질 기술적 토대의 리용 간에 생긴 모순을 해결하기 위한 소극적인 조치가 아니다. 그것은 사회주의 건설 과정에서 합법칙적 요구로 제기된 문제를 적시에 포착하고 그것을 해결하기 위하여 취해진 적극적이며, 능동적인 대책이다.

또한 현시기 중소 규모 공장을 꾸리는 것은 그 어떤 일시적인 필요성에서 제기된 잠정적인 조치가 아니다.

그것은 현존 생산력의 힘을 최대로 발휘시키려는 대책으로서 제기된 것이며 나라의 공업화가 촉진되고 그에 기초하여 기술 혁명이 전면적으로 추진되는 행정에서 제기된 문제이다. 기업 간, 기업 내 분업과 협업의 강화를 내용으로 하는 이 문제는 나라의 생산력이 발전하면 할수록 더 중요한 과제로 될 것이며 비록 형태는 다를 수 있지만 사회주의 경제 건설의 전 행정에서 거듭 제기될 수 있는 중요한 문제이다.

또한 현존 대규모 공장에 배합하여 중소 규모 공장을 꾸리는 것은 국부적인 문제 해결의 과업으로부터 제기된 것이 아니라 사회주의 경제 건설의 전부면과 관련되는 전략적 방침의 중요 일환으로 제기된 것이다.

이것은 경제 발전의 요구에 상응하게 기계 완제품과 특히는 부속품의 생산을 보장함으로써 기술 혁명을 촉진하고 생산을 정상화하여 나라의 살림살이를 알뜰히 꾸리려는 데서 출발한 것이다.

2

생산 체계 개편의 임무는 소여 생산력과 생산 관계의 통일을 보장하여 생산에서 현존 생산력의 힘을 최대로 발휘시키는 데 있다. 그러므로 생산 체계의 우월성은 일'군들의 지도를 생산의 요구에 얼마나 접근시키는가, 또 생산에서 대중의 창발성을 얼마 만큼 발휘시키는가, 그 모든 결과에 생산의 제 요소인 로동력, 설비, 자재들이 생산 전반에서 얼마나 효과적으로 리용되는가 하는 데서 발현된다.

현존 대규모 공장에 배합하여 중소 규모 공장을 꾸릴 데 대한 당의 방침이 실천에 옮겨진 후 모체 공장인 대규모 공장의 생활과 새로 꾸려진 일련의 중소 규모 공장들의 경험은 당이 취한 조치가 생산의 효과성을 높이고 경제 발전을 촉진하는 데서 추동적 역할을 놀고 있다는 것을 확증해 주고 있다. 평양 뜨락또르 부속품 공장은 자동차 및 뜨락또르의 부속품인 발브를 전문 가공하는 중규모 공장으로서 자체의 경험을 통하여 금번 조치의 거대한 생활력을 명백히 보여 주고 있다.

이 공장에서는 새로 조직된 후 생산이 다음과 같이 장성하였다:

(1962년을 기준으로 하여)

	1963년	1964년	1965년	1966년(계획)
생산량	10.2배	13.6배	21.2배	23.5배
생산액	2.0배	3.4배	4.6배	4.8배

표가 보여 주는 바와 같이 생산이 체계적으로 그리고 급속히 장성하였다. 그런데 이것은 설비 수가 약간 증가한 가운데서, 종업원 수는 오히려 적어진 조건에서 이루어졌다. 1962년 종업원 수를 100으로 할 때 1963년은 84, 1964년은 86, 1965년 역시 86, 1966년(계획)은 84였으며 설비 대수는 1962년을 100으로 할 때 112, 110, 105, 105(계획)였다.

이 기계 공장에서는 자재 소비 기준과 원가도 현저히 저하되였다. 《천리마 28》형 뜨락또르 부속품인 발브의 소재 중량은 1962년을 100으로 할 때 67, 62,

60, 42(계획)로 매해 저하되였으며 그 원가는 100(1962년), 78, 61, 54, 47 (계획)로 해마다 낮아졌다.

기양 뜨락또르 공장에서 분리되여 새로 꾸려진 기양 스리브 공장도 자체의 우월성을 과시하고 있다. 1964년(모체 공장의 한 직장으로 있을 때)의 생산액을 100으로 할 때 1965년(독립 공장으로 분리된 후)은 152.7로, 1966년(계획)은 179로 장성하였으며 스리브와 메달 생산량은 같은 기간에 100, 254.6, 300(계획)과 100, 132.6, 170.2(계획)로 각각 장성하였다.

중소 규모 공장들에서는 생산이 전문화되면서 로동 생산성만이 아니라 그 질도 훨씬 높아졌다. 례하면 기양 스리브 공장에서 만든 스리브와 메달의 수명은 1 년 전에 비하여 평균 2 배로 늘어 났다.

특별한 의의를 가지는 것은 이 모든 성과들이 추가적인 건설이나 거의 새로운 투자 없이 얻어졌다는 점이다. 우리 당은 중소 규모 공장을 꾸리는 데 있어서 필요한 기계 설비들은 모체 공장에서 이관 받으며 생산 면적은 예비를 동원하는 데 의거하는 방침을 취하였다.

현실은 우리 당 방침의 실현이 로동의 새로운 거대한 사회적 생산력을 낳는다는 것을 보여 주고 있다.

이와 같이 현존 대규모 공장에 배합하여 중소 규모 공장들을 꾸릴 데 대한 우리 당 방침은 이미 실천에서 우월성과 생활력이 검증되였다.

기계 공업에 확립된 새로운 생산 체계의 우월성은 자체의 본질적 특성에 원천을 두고 있다.

그 원천은 이 체계가 기계 공업에서 생산력과 생산 관계의 통일을 실현하여 생산의 전문화를 강화하고 생산에 대한 지도를 심화시키며 생산자 대중의 자각성과 창발성을 발양시키는 데 있다.

현존 대규모 공장에 배합하여 중소 규모 공장을 꾸리는 것은 무엇보다도 먼저 기업 간, 기업 내 분업과 협업을 강화하여 생산 조직에서 전문화 수준을 높이고 사회적 로동 생산 능률의 제고를 보장해 준다.

사회주의 생산 조직에서 제기되는 기본 요구의 하나는 높은 기술과 발전된 분업에 기초하여 생산의 전문화를 심화시키는 것이다. 생산의 전문화는 사회 생산력의 결정적 요소들인 설비와 로동력의 리용을 개선하고 생산에서의 그 효과성을 높임으로써 사회적 로동 생산 능률의 제고를 담보해 준다. 특히 나라의 공업화와 기술 혁명이 촉진되여 인민 경제가 현대적 기술로 장비되고 경리 규모가 비상히 확대된 조건에서 이것은 생산 촉진을 위하여 더욱더 큰 역할을 놀게 되였다.

금번 우리 당이 취한 조치의 실현은 기계 공업 부문에 조성된 현실적 조건에서 이 문제를 전면적으로 해결케 하였다.

그것은 한편에 있어서는 중소 규모 공장의 형태로 새로운 생산 단위를 설정하여 수요가 크고 공정이 복잡한 한 개 내지 수개의 부분품 및 부속품 생산을 전'적으로 담당하게 함으로써 부분품 별, 기술 공정 별 전문화를 획기적으로 강화하였으며 다른 한편에 있어서는 대규모 공장에 집중되여 있던 일부 생산을 분리하여 중소 공장에 넘겨 줌으로써 모체 공장에서의 대상 별 전문화를 심화시켰다.

중소 규모 공장들의 광범한 설치를 통한 생산의 전문화가 생산의 촉진을 위하여 얼마마한 위력을 나타내는가 하는 것은 다음의 통계표가 잘 보여 주고 있다:

뜨락또르 부속품인 밸브의 개당 가공 시간 대비표

	1962년	1963년	1964년	1965년	*1966년
평양 뜨락또르 부속품 공장	100	73	64	58	35
기양 뜨락또르 공장	—	—	85	—	74

(평양 뜨락또르 부속품 공장의 1962년도 개당 가공 시간을 100으로 할 때)
*는 계획임.

표는 비전문화 공장에 비하여 전문화 공장에서 로동 생산성이 비상히 높으며 또 그 장성 역시 대단히 빠르다는 것을 뚜렷이 보여 준다.

이것은 몇 가지 요인에 기초하고 있는데 전문화된 공장에서는 첫째로, 만능 설비 대신에 생산성이 높은 단능 설비를 사용하게 되며 둘째로, 로동자들의 기능과 숙련이 빨리 높아지며 세째로, 로동 과정에서 능률적인 지구와 공구를 리용하게 되며 결과에 생산의 종합적 기계화와 자동화를 실현하게 되기 때문이다.

경험은 이 모든 것이 명백한 진리라는 것을 보여 주고 있다.

전문화된 공장에서는 만능 기대 수가 점차 감소되여 가고 생산성이 높은 단능 기대들의 비중이 높아지고 있으며 그에 따라서 기대 별 부하률이 더욱더 제고되고 있다. 례하면 기양 스리브 공장에서 1964년에 단능 기대의 비률이 20%였다면 1966년에는 45%로 장성할 것이며 기대 부하률은 같은 기간에 약 30%나 높아질 것이다. 또한 전문화된 공장에서는 로동자들이 일에 상대적으로 빨리 익숙해지며 극히 짧은 기간 내에 생산의 일익을 담당하는 기능공으로 자라 난다. 뿐만 아니라 여기에서는 설비 자체의 특성으로 하여 미숙련공 특히는 녀성 로력을 생산에 광범히 인입할 수 있는 조건이 마련된다. 또한 전문화 공장인 중소 공장에서는 특수한 설비와 특수한 기술 공정으로써 계속 생산을 반복하는 데로부터 능률적인 공구, 지구를 사용하게 되고 공정 전반에서 종합적 기계화와 자동화를 도입하게 된다.

상술한 모든 요인의 작용으로 하여 생산이 전문화된 중소 규모 공장들에서는 설비 리용률과 로동 생산 능률이 체계적으로 장성하였다.

례하면 평양 뜨락또르 부속품 공장에서 설비 리용률은 1962~1966년 기간에 72%, 81%, 83%, 88%, 90%(계획)로 계속 장성하였으며 종업원 1인당 생산액은 1962년을 100으로 할 때 1963년에는 2.3배, 1964년에는 3.9배, 1965년에는 5.4배, 1966년에는 6.1배(계획)로 체계적으로 증가하였다.

중소 규모 공장들을 광범히 꾸릴 데 대한 우리 당 방침의 실현은 대규모 공장의 생산 조직을 합리화하고 그 효과성을 높이는 데 있어서도 매우 유리하다.

지금 대규모 기계 공장들에서 다루는 제품의 품종 수는 수십 종에 달하며 그 내부에는 수 많은 생산 단위들이 망라되여 있다. 이것은 관리 수준이 높지 못한 일부 기업소 일'군들로 하여금 생산의 정상화가 왜 보장되지 못하며 결함의 원인은 어데 있으며 필요한 대책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알기 어렵게 만들고 있다.

우리 당 방침의 실현은 대규모 공장에 집중되여 있던 일련의 부분품 및 부속품 생산을 중소 공장들에 넘기게 함으로써 대규모 공장의 생산 구조를 합리화하고 기계 제품의 품종을 개량하며 기업소 력량을 기본 완제품 생산에 집중하게 한다. 또한 그것은 기업 관리의 복잡성을 덜어 계획화는 물론 생산 조직, 로동 조직을 개선케 하며 선진적인 기술 공정을 도입하게 한다.

기계 공업에 확립된 새로운 생산 체계의 우월성은 또한 그것이 기업 관리 운영의 전반에서 일'군들의 지도를 심화시키는 데 원천을 두고 있다.

명백한 바와 같이 공장에서 다루는 제품의 품종 수가 적고 생산 공정이 단순하면 할수록 공장을 관리하는 데서나 정치 사업을 앞세우는 데서 유리하다.

그것은 지도 일'군들이 중간 다리를 거치지 않고 생산자들에게 직접 당 정책을 알려 줄 수 있으며 생산 실정과 공정의 흐름은 물론 개별적 로동자들의 정치 도덕적 상태까지 료해하고 기업 관리에서 제기된 고리들을 하나하나씩 집중적으로 풀고 넘어 갈 수 있기 때문이다.

금번에 새로 꾸려진 중소 공장들은 그 이름 자체가 말하여 주는 바와 같이 제품의 품종 수가 적고 생산 공정도 단

순하다.

이것은 일'군들이 기업소 사업 전반을 돌보면서도 생산 과정에 지도를 접근시키고 걸린 고리들을 제때에 풀어 기업 관리의 효과성을 높이고 생산을 촉진할 수 있게 한다.

기양 스리브 공장에서 얻어진 성과는 모체 공장에 속해 있을 때와는 달리 생산 발전과 질 제고를 위한 전망 계획을 세우고 그 해결을 위하여 기업소의 온갖 력량을 동원한 데 전'적으로 기인한다.

한때 높은 비률을 차지하고 있었고 기업소 생산 전반에 막대한 지장을 가져다 주었던 스리브 주조품의 오작을 퇴치하기 위하여 이 공장에서는 구체적으로 검토된 실행 계획을 세우고 여기에 공장 내 모든 기술 력량이 달라붙게 함으로써 끝내 이 문제를 해결하였다.

기계 공업에서 중소 규모 공장들의 광범한 조직은 또한 관리에서나 생산에서 일'군들의 자각적 열성과 집단적 창발성을 고도로 발양시키게 한다.

중소 공장들이 모체 공장에서 《부차적》인 직장으로 있은 지난 시기에는 기업소 일'군들 속에서 자체로 능히 할 수 있는 일도 다 우에서 해 주려니 생각하는 경향이 적지 않게 있었다.

당의 방침에 따라 대규모 공장의 개별적 직장들이 《독립》된 공장으로 꾸려진 후에는 일'군들 특히는 지도 일'군들이 생산 체계에서 자기가 차지한 위치와 역할을 똑똑히 알게 된 데로부터 관리에서나·생산에서 자각성과 창발성이 고도로 발양되게 되였다.

일'군들 속에서 자각성과 창발성의 앙양, 이것이 중소 규모 공장들에서 거대한 성과를 달성케 하는 또하나의 요인으로 된다.

현존 대규모 공장에 배합하여 중소 규모 공장을 꾸릴 데 대한 우리 당 방침은 위성 공장 체계를 확립함으로써 전문화와 협동화를 강화하여 그 수요가 날로 증대되고 있는 부속품과 협동 생산품을 원만히 생산 보장하려는 데만 사명이 있는 것은 아니다.

그것은 우리 기계 공업이 빨리 발전하는 과정에서 미처 구비하지 못한 생산 부문을 갖추며 그 내부 구조를 완비하여 기계 공업의 위력을 강화하려는 데도 중요 목적이 있는 것이다.

우리 당은 중소 기계 공장들을 광범히 꾸릴 데 대한 방침을 제시하면서 생산량이 많고 공정이 복잡한 생산 부문을 대규모 공장에서 분리하여 《독립》 공장으로 꾸리는 동시에 기계 공업의 구조에서 미비한 부문 또는 결여된 부문을 적극 보강하며 보충할 것을 또한 요구하였다.

당의 이러한 방침에 따라 중소 규모 기계 공장들을 꾸리는 행정에서는 이 문제에 대하여 심중한 주의가 돌려지고 있으며 그 사업에서 큰 성과가 달성되고 있다.

인민 경제 각 부문에서 중소 공장들을 광범히 꾸릴 데 대한 당의 방침이 전면적으로 실현될 때 기계 공업의 내부 구조는 보다 완비되고 물질 기술적 토대의 위력은 강화될 것이다.

또한 그 때에 가서는 우리 기계 공업이 기계 설비 생산의 담당자로서 자기의 역할을 더 잘 수행하게 될 것이며 경제 발전의 촉진을 위한 가장 중요한 원천인 생산의 정상화를 확고히 보장할 것이다.

3

현존 대규모 공장에 배합하여 중소 규모 공장을 꾸리는 것은 우리 나라 기계 공업이 새로운 발전 단계에 들어서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것은 이 조치의 실현이 오로지 기계 공업을 집중화하던 생산 조직 형태로부터 분산화가 결합된 조직 형태로 넘어 가는 하나의 전환점으로 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것은 두말할 것도 없이 그 사업에 대하여 지도를 강화함이 없이, 자연 발생적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말하는 것은 아니다. 우리 경제 체계 하

에서 모든 일이 그러한 바와 마찬가지로 이 사업에서도 제기된 문제의 성격에 맞게 지도를 강화하지 않고서는 그 우월성이 최대로 발휘될 수 없으며 나아가서는 자기의 근본 사명마저 실현할 수 없게 된다.

우리 당은 이 사업이 가지는 특성으로부터 출발하여 인민 경제의 모든 부문에서 중소 공장을 꾸리는 투쟁을 전 인민적 운동으로 전개하며 점차 현대적인 설비로 공장을 꾸리는 원칙에서 일을 시작하며 확고한 목표를 세워'한 부분, 한 문제씩 철저히 해결하면서 사업을 틀어 쥐고 나갈 것을 특별히 강조하고 있다.

중소 규모 기계 공장을 꾸리는 데서 제기되는 기본 문제는 필요한 기계 설비들과 시설들을 탐구 동원하며 생산 품종을 선택하며 적절한 생산 규모를 설정하고 지역적 배치를 옳게 하는 등 일련의 조직 기술적 문제들을 해결하는 것이다.

중소 기계 공장을 꾸리기 위한 가장 중요한 조건으로 되는 것은 필요한 기계 설비들과 생산적 시설들을 확보하는 문제이다. 이 문제 해결을 위한 우리 당의 방침은 기업소들의 역할을 높이며 기존 건물들과 기타 주어진 조건들을 최대한으로 리용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중앙 공업 원료에 의존하고 있거나 같은 종류의 제품을 만들고 있는 지방 산업 공장들을 대담하게 통합하며 기관, 기업소들에서 건물의 리용을 적극 합리화하여 필요한 생산 면적을 얻어 내며 유휴 기계 설비들을 동원하거나 또는 낡은 설비들을 개조하여 새 공장을 꾸리는 데 요구되는 기계 설비들도 확보해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최근 일부 단위들에서 나타나고 있는 것처럼 앞으로를 생각하여 당장 쓰지 않는 건물과 설비를 붙들고 내놓으려고 하지 않거나 자기에게는 덜 필요한 기술자도 보내지 않으려고 하는 것과 같은 경향을 철저히 없애야 한다.

제품의 품종은 공장의 생산적 성격을 규정하며 기계 설비들의 구성을 확정한다. 그러므로 전문화 수준을 높이자면 기계 공장들의 생산 품종을 될수록 적게 하는 것이 요구된다.

오늘 우리 당은 수요 규모가 적고 기술 공정이 동일한 품종들을 집중하여 그것을 한 생산 단위가 맡도록 하면서 수요 규모가 상대적으로 큰 제품들에 대하여서는 최대로 수개의 품종씩 분할하여 다른 생산 단위들이 담당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므로 중소 기계 공장들을 꾸림에 있어서는 수요 규모가 큰 품종들, 례하면 자동차, 뜨락또르 등의 륜전 기재들과 경공업 기계 설비들의 부속품, 각종 규격품들에서 1 개 내지 2~3 개를 선택하여 그 생산을 전'적으로 담당하도록 조직하여야 한다.

중소 규모 공장들의 규모를 확정하며 그것을 옳게 배치하는 문제는 선택된 품종의 수요량과 주어진 설비 및 시설들의 능력 그리고 협동적 련계의 특성과 관련된다. 중소 규모 공장들의 생산 규모는 선진 기술을 효과적으로 적용하고 생산의 전문화를 전면적으로 실현하며 인민 경제의 수요를 원만히 보장할 수 있는 범위에서 설정하여야 하며 지역적 배치는 협동 생산 기업소들과의 련계를 고려하며 사회적 로동 생산 능률을 높일 수 있는 방향에서 그리고 현재 뿐만 아니라 장래의 발전 전망을 타산한 기초 우에서 진행하여야 한다.

중소 규모 공장을 꾸리는 데 있어서 제기되는 가장 선차적인 문제는 모체 공장 또는 지원 기업소들이 끝까지 책임지는 립장에 서서 도우며 성, 국들이 이와 관련한 지도 사업을 빈틈 없이 진행하는 것이다.

중소 공장을 꾸리는 데서 성, 국들의 지도 사업은 매우 중요한 의의를 갖는다. 그것은 비록 규모는 작다고 하더라도 어쨌든 하나의 공장을 차리는 것이기 때문이며 더우기 유휴 설비와 시설들을 리용하는 방법으로 그것을 꾸려야 하기 때문이다.

중소 공장을 꾸리기 위한 성, 국들의 지도에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일'

군들이 이 사업을 조직하는 데 있어서 처음에는 힘이 자라는 대로 간단히 공장을 꾸려 제품을 만들다가 역량이 커감에 따라 점차 현대적인 기술로 장비하고 생산 규모를 확대하도록 하는 것이다. 해당한 성, 국들에서는 처음부터 설비와 시설 등 필요한 모든 것을 다 갖추어 놓고 일을 시작하려는 경향, 내용이 없는 큰 공장만을 꾸리려는 경향과 견결히 투쟁하며 나라 살림살이를 알뜰히 꾸리려는 주인다운 립장에 서서 이 사업을 추진해 나가야 한다. 이와 함께 성, 국들에서는 중소 공장을 꾸리는 데서 요구되는 온갖 경제적 조건들을 세밀히 타산한 기초 우에서 그것을 힘 있게 밀고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모체 공장의 물질 기술적 지원은 중소 공장을 꾸리고 키우기 위한 필수불가결의 조건이다. 경험이 보여 주는 바와 같이 모체 공장이 지원을 어떻게 주는가에 따라 중소 공장을 성과적으로 꾸리는가 못 꾸리는가 하는 것이 결정적으로 의존되고 있다. 모체 공장 또는 지원 기업소들에서는 기계 설비와 생산 시설들을 보장해 주면 자기 책임을 다한 것으로 생각하고 손을 뗀 것이 아니라 공장이 제발로 걸어 나갈 때까지 생산의 모든 측면에서 책임적으로 도와 주는 것이 중요하다.

중소 규모 기계 공장을 꾸리는 사업을 성과적으로 추진시키기 위하여서는 당 조직들 특히 지방 당 조직들에서 이 사업을 틀어 쥐고 조직 정치 사업을 더욱더 강화하여야 한다. 당 조직들이 모든 생산자 대중 속에서 정치 사업을 강화하여 이 사업이 나라 살림살이를 꾸리는 데서 가지는 의의를 똑똑히 알려 준다면 모두가 그 관철을 위하여 한사람 같이 떨쳐 나서리라는 것은 명백하다.

중소 규모 기계 공장을 꾸리는 이 사업은 특히 관련되는 모든 부문, 모든 일'군들이 국가적인 립장에 서서 서로 돕고 이끄는 미풍을 높이 발양할 때 성과적으로 추진될 수 있다.

지방 당 조직들에서는 국가적인 립장에 설 대신에 기업소 또는 지방 본위주의에 흐르는 경향, 이 사업을 남의 일처럼 여기는 주인답지 못한 태도, 그리고 신중성을 기한다는 구실 밑에 질질 끌면서 결정적으로 달라붙지 않는 현상, 처음부터 틀과 허식을 차리려는 경향 등 일체 부정적인 현상들과 투쟁을 강화하여 모든 일'군들 속에서 호상 협조하고 호상 방조하며 사업에서 련대적 책임을 느끼며 당 정책 관철을 위하여 이악하게 달라붙는 혁명적 기풍을 발양시켜야 한다.

그리 하여 모든 일'군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중소 공장을 꾸리는 데 나서며 우리 내부에 묻혀 있는 예비의 동원을 위하여 온갖 창의 창발성을 발휘하도록 하여야 한다.

지금 당 정책이 정확히 수립되여 있고 실행 방도가 명백히 제시되여 있는 조건에서 우리 일'군들이 단합되여 그 관철에 달라붙는다면 지난 시기 중소 화학 공장과 중소 탄광을 꾸리는 투쟁에서 승리한 것처럼 중소 기계 공장을 꾸리는 투쟁에서도 빛나는 승리를 달성하리라는 것은 의심할 바 없다.

경제 기관들과 기업소 일'군들은 승리의 신심을 가지고 모두가 중소 기계 공장을 꾸리는 데 적극 참가하여 1~2 년 내에 기계 공업의 구조를 완비하고 그 물질 기술적 토대의 위력을 제고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대안 체계 하에서의 지배인

김 규 원

대안의 사업 체계는 지배인들이 당 위원회의 집체적 지도에 철저히 의거하여 '당'적 방법으로 일할 것을 요구하며 공장, 기업소 행정 경제 사업 전반을 통일적으로 장악하고 기업 관리를 과학적으로 진행할 것을 요구한다. 지배인이 이 요구를 관철하지 않고서는 대안의 사업 체계의 위력을 발휘시킬 수 없다.

나는 성흥 광산 지배인으로 사업하면서 이 체계의 위력을 발휘시키자면 지배인이 어떻게 일하여야 할 것인가에 대하여 몇 가지 느낀 바를 아래에 적어 보려고 한다.

당 위원회에 의거하여

지배인이 당 위원회의 집체적 지도에 의거한다는 것은 실제적인 사업을 놓고 볼 때 다음과 같은 두 측면으로 대별할 수 있을 것이다. 그 하나는 기업소 경제 활동 전반에서 제기되는 문제들과 관리 운영의 개선 대책안들을 당 위원회에 적극적으로 제기함으로써 당 위원회의 역할을 제고하도록 응당한 기여를 하는 것이요, 다른 하나는 집체적 협의에 의하여 채택된 당 위원회의 결정이 철저히 관철되도록 행정 경제 사업을 책임적으로 조직 집행하는 것이다.

다 아는 것처럼 기업소 관리 운영과 관련된 제반 문제들에 대해서 제일 잘 알고 있는 사람은 공장, 기업소의 지배인이다. 그렇기 때문에 지배인은 공장, 기업소의 관리 운영에서 제기되는 중요한 문제들에 대한 당 위원회의 집체적 토의, 결정에 크게 기여할 수 있으며 또 하여야 할 것이다.

지배인은 이렇게 함으로써 무엇보다도 중요하게는 당 위원회의 적극적인 방조를 받는 것이다. 지배인은 당 위원회의 집체적 협의에 의거함으로써 자기 사업에서 나타날 수 있는 독단, 주관주의, 관료주의 및 소홍명 등을 미연에 방지하고 기업을 과학적이며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정확한 방도를 찾아 낼 수 있는 것이다. 특히 지배인이 당 위원회 집행 위원회 위원이며 부위원장인 우리 광산의 조건에서 이렇게 사업하는 것은 당 위원회의 결정이 과학성을 띠게 함에 있어서나 그것을 철저히 집행하는 데서 중요한 의의가 있었다.

자신이 체험한 바에 의하면 지배인이 이렇게 일하는 데서 제일 중요한 문제는 당 위원장, 기사장과 일상적인 협의를 진행함으로써 그들과 사상 의지적으로 단합할 뿐 아니라 사업의 진행정에서 당 위원장, 기사장, 지배인이 완전한 통일적 보조를 맞추는 것이다.

나는 당 위원회 앞에 기업 관리 운영의 개선 대책을 제기할 때 우선 당 위원장, 기사장과 합의한 기초 우에서 그것을 회의에 공개하는 방법으로 일하였다.

당 위원장, 기사장 및 지배인 간의 협의는 기업을 관리 운영하며 당 위원회의 결정을 집행하는 전 과정에서도

일상적으로 진행하여야 한다.

그러나 구체적인 사업에서 볼 때 모든 문제들이 반드시 3자의 협의 후에만 집행되는 것은 아니다. 지배인은 지휘관으로서, 당 위원장은 정치 부장으로서 그리고 기사장은 참모장으로서의 임무를 수행하며 사업에서 일정한 독자성을 가지게 된다. 각자들이 당 위원회의 지도에 의거하여 자기 사업을 독자적으로 능숙하게 해 나갈 때야만 일'군들의 배합 작전도 보다 효과적으로 진행될 수 있을 것이다.

지도 일'군들의 사업 상 위치와 임무가 다름에 따라 당 위원회의 결정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제기되는 한 문제에 대해서도 서로 다른 의견을 가질 수 있다. 사실 상 기업을 관리 운영하며 생산을 지도하는 과정에는 즉석에서 독자적으로 결론을 주어야 할 일들이 적지 않게 제기되며 여기에서는 특히 착오도 있을 수 있는 것이다.

그러면 이러한 착오를 발견하였을 때 일'군들은 이떻게 시정하는가? 이 문제는 적으면서도 큰 문제이다. 왜냐 하면 이런 문제를 어떻게 처리하는가에 따라 지도 일'군들의 합심, 군중에게서의 신망, 나아가서는 당 위원회 결정의 성과적 실현 여부가 크게 좌우되기 때문이다.

례하면 우리 광산 당 위원장 동무는 지배인이 생산 현장에서 내린 결론이 잘 된 것이 아님을 발견하는 경우에도 특수한 사정이 있기 전에는 결코 군중 앞에서 지배인과 다른 결론을 내리기에 서두르지 않는다. 지배인이 한 지시를 시정할 때에도 지시와 결론을 내린 그 자신이 잘못된 점들을 직접 고치도록 한다.

자신은 여기에서 본보기를 배워 기사장 및 부지배인들과 이런 방법으로 사업한다. 지도 일'군들이 바로 이러한 원칙에서 사업하니 매개 일'군들의 자립성이 더 높아지고 호상 더 튼튼히 단합하게 되였으며 대중 앞에서의 신망도 높아지게 되였다.

당 위원회의 결정 집행에서 **기사장 및 부지배인들과 모든 행정 기술 간부들의 행동 통일을 보장하도록 옳은 분공과 총화 사업을 정상적으로 진행하는 것은 지배인의 사업에서 중요한 자리를 차지한다.**

우리 광산에서 기사장, 부지배인을 비롯한 행정 기술 간부들을 당 위원회의 결정 관철에로 통일적으로 조직 지도하는 사업은 우선 주간 사업 계획에 대한 협의회를 통해서 실현한다. 지배인은 광산 당 위원회의 결정에 근거하고 당 위원장의 사업 계획을 참작하여 자신의 주간 사업 계획을 세밀히 작성하여 부기사장 이상 행정 기술 지도 일'군들에게 알려 준다. 그 다음에는 그들로부터 각자들의 사업 계획을 청취하며 이에 기초하여 시간 및 사업 내용을 조절하면서 분공을 조직한다. 구체적으로 작성된 주간 사업 계획과 결부하여 지배인은 매일 기사장으로부터는 생산 및 기술 관리에 대한 보고, 업무 부지배인으로부터는 자재 보장 정형에 대한 보고, 후방 부지배인으로부터는 후방 공급 사업에 대한 보고를 받으며 결심을 채택하여 필요한 결론들을 준다. 행정 기술 간부들과의 이러한 련계를 통하여 광산의 기업 관리 전반을 틀어쥘 수 있었으며 당 위원회의 결정을 관철하는 데 그들을 통일적으로 인도할 수 있었다.

당 위원회의 결정을 관철시킴에 있어서 그리고 행정 조직 지도 사업을 진행

함에 있어서 참모 체계를 어떻게 운영하는가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여기에서 자신이 체험한 중요한 문제는 참모 체계와 참모 성원들의 당 조직 생활 체계를 완전히 일치시키는 것이 참모 사업에 대한 해당 초급당 위원회의 구체적이며 통일적인 지도를 보장하는 데서 큰 의의를 가진다는 것이다.

광산 당 위원회는 기사장을 참모장으로 하는 생산 기술 지도 체계에 당 조직 생활 체계를 일치시켰다.

참모 성원들의 당 생활 체계가 참모 체계와 일치하게 되니 좋은 점이 많았다. 기술 생산 지도 사업이 초급당 위원회의 집체적 협의에 튼튼히 의거하여 진행됨으로써 생산자 대중의 창발적 의견들은 생산 과정에서 제때에 실현될 수 있게 되였으며 생산에 대한 지도에서 통일성이 보장되고 특히는 걸린 문제들이 신속히 풀려 나갈 수 있었다. 례하면 210 메터 갱 9 탁 구역에 대한 생산 준비 문제가 걸렸을 때 갱 참모조는 가능한 대책들을 자력으로 취하는 한편 자신들의 힘만으로써는 해결할 수 없었던 운반 계통의 능력 제고 문제를 즉시 광산 참모부 초급당 위원회에 제기하였다. 초급당 위원회의 지도 밑에 광산 참모부는 이동 참모 회의를 소집하고 실태를 료해한 데 기초하여 걸린 고리를 풀어 줌으로써 1월 분 국가 생산 계획을 초과 수행할 수 있었던 것이다.

나는 당 위원회에 의거하여 사업하는 것이 공장, 기업소의 지휘관으로서의 지배인의 역할을 결코 약화시키지 않을뿐 아니라 오히려 제고케 하는 담보로 되며 기업을 보다 훌륭히 운영할 수 있게 하는 기본 조건으로 된다는 확신을 가지게 되였다.

당'적 방법으로

대안 체계 하에서의 지배인의 사업이 응당 군중 로선에 기초한 방법, 당'적 방법으로 되여야 한다는 것은 누구나가 다 잘 알고 있는 문제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여야 하는가 하는 데 대하여서는 자신도 잘 모르고 있었다. 모든 행정 조직 사업에 앞서 정치 사업을 해야 하겠는데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그리고 지배인이 하는 정치 사업이 당 위원장이나 기타 정치 일'군들이 하는 정치 사업과 어떻게 다른가 하는 등 당'적 방법으로 일함에 있어서 걸리는 문제는 한두 가지가 아니였다.

자신이 잘 모르고 있던 이러한 문제들을 해명함에 있어서 수상 동지의 로작들과 교시들이 첫째 가는 교사로 되였음은 물론이다. 수상 동지의 로작들과 교시들을 깊이 연구하고 한 가지씩 문제를 풀어 나가는 실제적인 사업 과정에서 얼마간의 경험이 축적되였다.

지배인이 당'적 방법으로 사업하는 데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것은 **행정 기술 지휘 성원들 속에서 정치 사업을 강화하여 모든 행정 기술 일'군들로 하여금 자기 사업에서 정치 사업을 선행하게 하는 것이다.**

지도 일'군들은 누구나가 다 자기들 앞에 맡겨진 경제 과업 수행에 선행하여 정치 사업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 사실 당 위원장이나 지배인을 비롯한 국한된 성원들의 정치 사업만으로써는 그것이 구체화되기도 어렵고 또 당의 의도가 대중 속 깊이 침투해 들어 가기도 힘들다.

정치 사업이 경제 과업 수행과 밀접히 결부되여 구체적으로 진행되지 않고서는 대중의 높은 자각적 열성과 창조적 적극성을 기대할 수 없다는 것은 주지하는 바이다. 모든 일'군들을 정치 사업에 인입하는 사업은 바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해 보자는 목적에서 시도되였던 것이다. 지배인은 물론 후방 부지배인은 후방 부지배인으로서, 행정 부지배인은 행정 부지배인으로서 그리고 기사장은 기사장으로서 자기들의 임무가 있으니 만큼 각자의 정치 사업이 기본 방향에서는 동일하나 그 내용과 형식에서는 일정한 차이를 가진, 경제 과업 수행과 밀접히 결부된 구체적인 것으로 되지 않을 수 없었다. 지도 일'군들은 각자 자기들의 경제 과업 수행에 앞서 그에 적응하는 구체적인 정치 사업을 진행함으로써 그것이 경제 과업 수행의 튼튼한 안받침으로 되게 하였다. 이것은 매개 생산자들이 지금 자기가 하는 일이 당과 인민에게 어떠한 리익을 주는가를 똑똑히 알고 의식적으로 활동할 수 있게 한 가장 중요한 요인이였다.

지배인은 매 시기 제기되는 당의 경제 정책들을 광산의 전반적 실정과 결부하여 연구하고 제강을 작성하여 우선 행정 기술 간부들에게 강의를 하였으며 지도 일'군들의 실무 수준을 높이기 위한 지배인 조상학이 끝난 다음에도 해설 담화 제강을 주었다.

모든 행정 경제 일'군들이 정치 사업을 선행하게 하는 데서 중요한 문제는 시범적인 실천 활동을 이에 결부하는 것이였다. 행정 일'군들로 하여금 정치 사업을 선행하게 하는 사업은 처음에는 결코 순조롭게 진행되지 않았다. 광산에서 이런 사업을 시도한 초기에는 적지 않은 일'군들이 일이 바쁘다는 구실밑에 생산 현장에 침투하는 것을 게을리하였으며 정치 사업을 선행하여 대중의 자각적 열성과 창조적 적극성을 발동시키는데보다는 사업을 행정 실무적 방법으로 처리하는 데 더 많이 쏠리군 하였다.

정치 사업 선행에서 전변을 일으키는 계기로 된 것은 모든 지도 일'군들이 생산 로동에 참가할 데 대한 김 일성 동지의 교시였다. 지도 일'군들이 일정한 계획 밑에 막장에 내려가 로동자들과 침식과 로동을 같이 하면서부터 이 사업은 상당한 궤도에서 정상화되였으며 일정한 성과를 달성하게 되였다.

모든 일'군들이 자기의 경제 과업 수행에 정치 사업을 선행한 결과 달성한 중요한 성과들은 례하면 일부 동무들은 1주일이 걸려야 한다던 3만 볼트의 도로 횡단 송전선을 옮기는 작업을 로동자들이 단 2일 간에 해 제낀 사실이라든가 45일이 걸려야 한다던 배렬방 압축기 이설 작업을 단 15일 간에 수행한 사실 등을 들 수 있지만 여기에 특히 채취률을 높이는 데서 달성한 성과를 첨가하자. 사실 채취률을 높여야 할 필요성과 당의 의도를 깊이 깨달음이 없었다면 로동자들은 수입이 적어지고 잔품도 많이 드는 대용 잔주를 세우고 갱바닥을 비'자루로 쓸어 가면서 채취률을 98.5%까지 높일 수는 없었을 것이다. 그것은 당의 뜻을 심장으로 받들어 끝까지 실현하려는 우리 로동 계급만이 할 수 있는 일일 것이다.

지배인이 당'적 방법으로 일하는 데서 또한 중요한 문제는 **로동자들의 건강 및 생활에 대하여 깊은 관심을 돌리는 것**이다.

지도 일'군들이 로동자들의 건강과

생활에 대한 당의 배려를 실현시킬 때 그들에 대한 정치 사업이 실제로 위력을 발휘할 수 있으며 생산도 장성할 수 있다. 특히 광산, 탄광 부문에서는 더욱 그러하다.

우리 광산에서 업간 휴식 작업 방법의 도입은 이것을 잘 말해 주는 하나의 실례이다.

물론 업간 휴식 작업 방법을 도입하는 초기에는 많은 애로들이 있었다. 우선 로동자, 기술자들에게 있어서는 그것이 전에 없었던 새로운 작업 방법이였으므로 생활에 익지 않았다. 다음으로 이것을 도입하는 데는 일정한 조건들이 구비되여야만 하였다. 요컨대 인식 단계를 거쳐야 하였으며 기술 경제적 보장 사업이 이에 결부되여야 하였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우선 수상 동지의 교시에 담겨 있는 사람들에 대한 배려를 자신이 느낀 그 대로 로동자들에게 이야기해 주었고 구체적인 조직 사업을 진행하였다.

로동자들의 건강, 생활 및 문화 휴식에 대한 당과 수령의 심려를 절절히 느낀 우리 광부들은 이 사업에 적극적으로 동원되였고 그들의 창발성은 훌륭한 열매를 맺게 하였다.

지금 우리 광산에서는 업간 휴식 작업 방법이 아니고서는 국가 생산 계획 과제를 수행할 수 없다는 사상이 지배적인 것으로 되였다. 갱내에는 식당, 침실, 구락부, 공원, 양계장, 버섯 재배장, 연못 등이 훌륭히 꾸려졌다.

업간 휴식 작업 방법을 완전히 도입하고 갱을 문화적인 생산 및 휴식터로 꾸린 것은 생산을 체계적으로 장성시키며 갱내 로력 비중을 71.5%로까지 높이는 데서 아주 중요한 의의가 있었다.

이와 함께 우리 광산에서는 지난해 은률 광산 현지 지도에서 하신 수상 동지의 교시를 높이 받들고 종업원들의 가정 부인들을 기본으로 하는 광산 농목장을 조직함으로써 김장, 봄남새, 조미료 등에 대한 수요의 대부분을 자체로 충족시킬 수 있게 하였을 뿐 아니라 종업원 세대 당 수입도 현저히 높일 수 있게 하였다. 특히 축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하여 광산에서는 농장 경지 면적의 일부를 사료전으로 정하고 종전부터 운영해 오던 종합 목장을 약 300 마리의 어미돼지만을 기르는 전문 목장으로 개편하였으며 여기에서 낳는 새끼 돼지를 로동자 가정들에서 기르도록 하였다. 육류 공급을 증대하는 데서 갱내 목장이 한몫을 단단히 하고 있다는 것은 더 말할 것도 없다.

이 밖에도 로동자 합숙, 식당, 탁아소, 유치원 기타 문화 후생 시설망에 대한 지도 사업을 개선하였는데 후방 공급 사업의 모든 성과는 로동자들로 하여금 물질 문화 생활에서 조금도 불편을 느끼지 않고 생산에 정력을 집중할 수 있게 한 중요한 요인으로 되였다.

또한 지배인의 활동에서 **모범 단위를 창조하고 그것을 일반화하는 사업 방법을 활용하는 것이 자기의 모든 사업을 당적 방법으로 전환시키는 중요한 담보이다.** 갱이 십여 개에 달하며 중대, 소대가 수백을 헤아리는 대규모 광산을 관리 운영함에 있어서 지배인이 모든 단위들의 사업 수준을 단번에 높여 줄 수는 없다. 한 단위에서 모범을 창조하고 그것을 일반화함으로써만 기업소 전반의 관리 운영을 개선해 나갈 수 있었다. 지도 대상은 광산의 전반적 생산 보장에서 결린 고리에 정하는 것이 좋았다.

지난 2월 하순 청년 굴진 갱과 부강

갱에서 폐석 운반 문제가 걸렸을 때 지배인은 당 위원회의 분공에 따라 행정 기술 간부 약간 명으로 그루빠를 조직하여 운반 갱에 내려 가는 즉시로 갱 초급당 위원장, 행정 일'군 및 혁신자들과 진지하게 협의하여 문제 해결의 방도를 찾았다. 또한 토의 과정에서 제기된 합리화안들을 광차 수리 직장, 운반 보수 직장 로동자들(제기된 안을 직접 실현시킬)과 구체적으로 토의하면서 한 가지씩 해결해 나갔다. 운반 능력은 일 평균 850 톤 수준으로 제고되였으며 굴진도 계속 선행될 수 있었다.

모범 단위를 창조하고 그것을 일반화하는 사업은 제기된 문제를 성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게 하였을 뿐 아니라 행정 기술 지도 일'군들로 하여금 사업 방법을 배울 수 있게 하였다. 이런 의미에서 볼 때 모범 단위를 창조하고 그것을 일반화하는 과정은 곧 지도 일'군들에 대한 시범 상학 과정이였다. 지금 우리 광산에서는 모든 지도 일'군들이 이러한 방법으로 사업하게 되였다.

우에서 말한 엽간 휴식 작업 방법의 도입도 210 메터 갱에 먼저 시범을 창조하고 일반화하는 방법으로 해결하였으며 오늘 설비 관리에서 대중적 운동으로 전개되고 있는 《모범 기대 운동》에서 일정한 성과를 달성하게 된 것도 바로 이러한 사업 방법의 결실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지배인의 사업은 실제적인 결과에 의하여 평가된다

김 일성 동지는 지배인들의 사업에 대한 평가 기준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지배인들의 사업은 그가 국가 재산을 어떻게 관리하며 국가 계획을 어떻게 실행하며 국가와 인민에게 얼마나 리익을 주었는가에 따라서 평가되여야 한다》(김 일성 선집 제 4 권, 103 폐지).

이것은 다만 다른 사람이 한 지배인의 사업을 평가하는 데서 뿐 아니라 더 나아가서는 매개 지배인들이 자신의 사업을 검토하는 데서도 기준으로 될 것이다. 그러므로 지배인이 자기 사업을 검토하며 금후 사업에서 해결하여야 할 중요 문제들을 포착하기 위해서는 응당 살림살이 정형을 반영하는 제반 통계적 자료들을 종합적으로 분석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하여야 할 것이다.

이렇게 하는 것은 기업 관리를 과학적 타산에 기초하여 진행할 데 대한 대안 체계의 요구를 실현하는 것으로 된다.

그러나 자신은 과거에 생산 계획 수행 일면만을 중시하고 광산의 재산이 어떻게 관리되고 있는가, 생산 결과가 국가와 인민에게 얼마나 리익을 주었는가 하는 등 살림살이 전반에 대해서는 크게 관심을 돌리지 못 하였다.

나라 살림살이를 알뜰히 해 나갈 데 대한 당의 방침을 깊이 연구하며 기업을 관리 운영하는 과정에서 자신은 《절약하여 증산하자》라는 구호의 진의도를 체득하게 되였으며 적은 지출로써 더 큰 경제적 효과를 내도록 하는 데 중요한 관심을 두게 되였다. 그리 하여 나는 월 및 분기 총화 때는 물론 일상적으로도 국가 생산 계획 수행 정형과 함께 원가 및 수익성을 비롯한 기업 관리 운영의 전반적 정형에 대한 분석에 기초하여 사업을 전개하는 원칙에서 일하였다.

이러한 노력은 초보적인 성과를 달성하게 하였는바 생산 계획 과제가 매달 초과 수행되고 생산이 정상화되였을 뿐

아니라 원가가 체계적으로 저하되고 수익성도 점차 제고되였다.

우선 국가 재산을 애호 절약하는 데서 일정한 성과가 달성되였다. 지주 볼트를 사용하여 년간을 통해 1,560 립방메터의 갱목을 절약하였다든가 분리식 정머리를 도입함으로써 중공강에 대한 년 총수요량의 약 50%를 절약할 수 있게 되였다는 등의 사실들은 허다하다.

이러한 절약 투쟁은 결국 제품 원가의 체계적인 저하와 수익성의 제고에서 종합적으로 반영되였다.

금년도에 들어 와 국가 생산 계획 과제는 1월에는 105.5%, 2월에는 108.2%, 3월에는 105.1%로 각각 초과 수행되였으며 1.4 분기 계획도 106.3%로 초과 수행되였다. 생산의 절대액은 1월에 비하여 2월에는 3.3%, 3월에는 4.3% 장성하였다.

생산의 체계적인 장성은 원가 저하와 동반되였다.

금년 2월 말 현재까지의 원가 저하 정형을 보면 아래와 같다!

	제 1 제품	제 2 제품	제 3 제품
계획대 실적	83	83.8	100

즉 제 1 제품은 계획된 원가보다 17%, 제 2 제품은 16.2% 낮아졌으며 제 3 제품은 계획 대로 되였다.

리윤의 절대액은 1965년에 1964년에 비하여 142.7%로 장성하였으며 단위당 수익성은 제 1 제품에서는 140.8%, 제 2 제품에서는 197.6%로 높아졌다.

이상과 같이 우리 광산에서는 생산을 체계적으로 장성시키고 국가 계획 과제를 초과 수행하였으며 국가와 인민에게 더 많은 리익을 주게 되였다.

그러나 나는 경영 활동에 대한 분석 과정에서 원가 항목에서 기업소 일반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1964년보다 1965년에 증가하였고 또 이런 경향성이 1966년에도 나타나고 있는 현상을 찾아 보게 되였다. 이 외에도 자재, 로력, 자금 등을 랑비하는 현상이 아직 적지 않게 있다.

특히 로력 기준을 선진적 작업 방법과 새로운 기술 수단의 도입에 따르는 로동 생산 능률의 제고에 적응시키지 못 하고 있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였다.

이러한 결함들의 원인이 밝혀지고 점차 시정되여 가고 있다.

나는 앞으로 사회주의 기업 관리 운영의 원칙, 사회주의 경제 법칙들을 광산의 실정과 결부하여 꾸준히 연구하며 당 위원회의 집체적 지도에 의거함으로써 기업을 과학적으로 운영할 데 대한 대안 체계의 요구를 더 잘 실현하기 위하여 노력할 것이다.

공장, 기업소 내부 균형 문제

림 경 식

우리 당은 인민 경제 모든 부문들 간의 균형을 계속 확고히 유지하는 동시에 매개 공장, 기업소 내에서도 설비들 간에서와 생산 공정 간에 정확한 균형을 보장하며 생산 및 기술 관리, 물자 공급, 로력 조직 등을 합리적으로 맞물릴 데 대하여 중요하게 강조하고 있다.

이것은 인민 경제 매개 부문, 매개 단위들의 규모가 비상히 커진 오늘의 조건에서 사회주의적 계획 경제의 우월성을 전면적으로 발휘시키며 생산의 정상화와 그 높은 발전 속도를 견지하기 위한 중요한 방침이다.

다 아는 바와 같이 사회주의는 모든 부문이 계획적으로, 균형적으로 발전할 것을 요구하는바 사회주의의 이러한 요구는 전 사회적 규모에서 축적과 소비 간, 생산 수단 생산과 소비재 생산 간, 공업과 농업 간, 가공 공업과 채취 공업 간의 균형을 비롯한 크고 중요한 균형이 잘 보장될 뿐 아니라 모든 생산 단위들에서 생산과 관리의 구체적인 측면들 간의 정확한 균형이 이루어질 때 성과적으로 실현된다.

특히 모든 공장, 기업소들의 기업 관리 활동에서 생산의 세 요소들을 잘 맞물리며 매개 생산 요소들 내부에서도 확고한 균형을 유지하는 것은 전 사회적 규모에서의 균형을 보장하는 담보로 된다. 우리의 공장, 기업소들은 통일적 계획에 의하여 움직이는 사회주의 경제의 유기적 구성 부분들이며 매개 공장, 기업소들의 생산 기업 활동은 전 사회적 범위에서의 경제의 계획적, 균형적 발전을 직접 실현하는 행정이다. 매개 생산 단위들이 거미줄처럼 복잡하게 련결된 우리의 조건에서 개별적 공장, 기업소에서 일시적으로나마 또는 부분적으로나마 불균형이 조성되여 생산이 정상화되지 못한다면 그 기업소와 직접 련결된 개별적 기업소는 물론 전 사회적 범위에서 인민 경제의 계획적, 균형적 발전이 저애를 받게 된다.

오늘 생산의 내부 예비를 동원하는 문제도 중요하게는 직접 생산을 진행하는 단위들에서의 모든 활동이 정상적으로, 균형적으로 보장될 때에만 훌륭히 해결될 수 있다. 생산 발전을 위한 예비를 탐구 동원하는 방도와 대책들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지만 그것들은 궁극에 가서는 로동 수단, 로동 대상, 로동력의 보다 합리적인 리용을 위한 것이다. 이러한 생산 요소들을 직접 결합시키고 리용하는 단위인 공장, 기업소들의 활동이 잘 진행되여야 그 웃단위들에서의 조직 사업, 관리 지도 사업이 큰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다.

이와 같이 매개 공장, 기업소들이 생산의 제반 요소들을 과학적으로 타산하여 잘 맞물리며 기업 관리 활동의 모든 측면에서 통일적인 보조를 맞추도록 하는 것은 나라의 모든 살림살이를 알뜰히 꾸리는 데서 실로 중요한 문제로 된다.

공장, 기업소에서 생산 요소들 간의 정확한 균형을 유지하는 사업은 기업소들에서 작성되는 여러 계획 항목들과 지표들 간의 련계를 잘 보장하며 기업 관리 활동의 여러 측면들을 유기적으로 결합시키는 과정을 통하여 실현된다. 즉 계획을 세울 때 매개 계획 항목들을 과학적으로 작성할 뿐 아니라 생산 계획을 중심으로 기술 발전 계획, 물자 공급 계획, 로동 계획, 재정 계획 등과 각종 계획 지표들의 통일적 련계를 보장하며 일상적인 생산 조직과 기업 관리 활동에서 생산 및 기술 관리, 자재 관리, 로력 관리 및 후방 관리, 재정

관리 등을 잘 맞물리는 것이 중요하게 나선다.

이것은 기업 관리 활동에서 균형 문제가 잘 해결되자면 공장, 기업소들에서 계획을 작성하는 사업부터 그것을 집행해 나가는 전 행정이 구체적인 타산과 과학적인 근거 하에 진행되여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며 계획 일'군들 뿐 아니라 재정 일'군들을 비롯한 모든 관리 일'군들과 나아가서는 전체 생산자 대중이 이 문제에 깊은 관심을 돌려야 한다는 것을 말하여 준다.

우리 당이 강조하고 있는 바와 같이 오늘 모든 관리 지도 일'군들과 생산자 대중이 나라의 참다운 살림'군답게 생산과 관리의 구석구석에 이르기까지 빈틈은 없는가, 더 절약할 수 있는 방도는 무엇인가를 구체적으로 따지고 대책을 세워 나가는 기풍을 수립할 때라야만 전체 인민 경제의 균형적 발전을 보장할 수 있는 것이다.

또한 이것은 기업소의 계획 작성과 경영 활동을 지도 통제하는 웃단위의 일'군들이 호상 밀접한 련계를 가지고 통일적인 보조를 맞출 것을 요구한다. 만일 기업소의 생산 계획의 작성 및 생산 관리를 직접 지도하는 일'군들과 물자를 공급하고 그 소비를 통제하는 일'군들, 로동 행정 사업을 지도 통제하는 일'군들, 재정 계획의 수립과 그 집행을 직접 통제하는 부문의 일'군들이 통일적인 보조를 맞추지 못 한다면 기업소의 모든 계획 지표들은 현실성을 띨 수 없게 될 것이며 또한 생산 경영 활동은 정상성을 상실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모든 지도 통제 기관 일'군들이 일상적으로 기업소의 사업에 파고 들어 기업소의 전반적 사업을 구체적으로 료해 장악한 기초 우에서 자기의 사업을 진행하며 구체적인 대책을 하나 취하는 경우에도 그것을 다른 측면과의 통일적인 련관 속에서 실현하는 기풍을 확립해야 할 것이다.

그러면 공장, 기업소들에서 계획 항목들과 기업 관리 활동의 여러 측면들 간의 통일적 련계를 보장하기 위하여 오늘 모든 일'군들이 튼튼히 틀어 잡아야 할 고리는 무엇인가?

물론 기업소의 생산 기술적 특성과 구체적인 관리 운영 상태에 따라 기업소 내부 균형을 보장함에 있어서 당면하게 해결하여야 할 문제들이 서로 달리 제기될 수 있다. 어떤 기업소에서는 설비의 기종 간의 균형을 보장하는 것이 급선무로 나설 수 있고 또 다른 기업소에서는 로력 배치의 부문 간 균형을 보장하는 것이 더 절실한 문제로 제기될 수도 있다. 두말할 것 없이 매개 기업소들은 이러한 절실한 것부터 해결하는 데 일차적 관심을 돌려야 할 것이다. 이와 동시에 모든 공장, 기업소들에서 현시기 일반적으로 특별히 중요한 주목을 돌려야 할 문제가 있다.

그것은 무엇보다도 각종 기준 지표들을 과학적으로 설정하며 그것을 부단히 개선할 데 대한 당의 방침을 철저히 관철하는 것이다.

우리 당은 기계 설비의 리용 기준, 제품 단위당 자재 소비 기준, 자재 및 예비 부속품의 보유 기준, 로동 기준량 등을 현실에 맞게 정확하게 설정하며 그것들을 부단히 개선할 데 대하여 아주 중요하게 강조하고 있다. 설비들의 현존 능력을 최대한 발휘시킬 뿐 아니라 그것을 부단히 개조하여 낡은 공칭 능력을 타파하고 새로운 기준을 창조하며, 가까운 년간 내에 자재 소비 기준을 전반적으로 30~50% 낮추며, 1개월분의 자재 예비와 3개월분의 예비 부속품을 확보하며, 로동 기준량을 계통적으로 높이는 등 당이 제기한 이 모든 요구들은 기술 혁신이 촉진되고 기업 관리가 더욱더 째여지는 우리 나라의 현 실정을 과학적으로 타산한 기초 우에서 제기된 것이다.

당의 이러한 요구를 철저히 관철시키는 것은 매개 공장, 기업소들의 현존 생산 제 요인들의 보다 합리적인 리용을 보장하는 동시에 그것들 간의 적극적인 균형을 설정함으로써 생산의 높은 발전 속도를 확고히 보장하기 위한 튼튼

한 담보로 된다.

사실 상 기계 설비의 리용 기준, 물자 소비 기준 및 자재, 부속품의 보유 기준, 로동 기준량 등은 설비와 자재 간, 생산 수단과 로력 간의 호상 관계를 규정하며 생산의 모든 요인들을 과학적으로 맞물리기 위한 기초로 된다.

례컨대 로동 기준량은 생산 과제의 수행에 필요한 로동자 수와 로동 생산 능률 지표를 계획적으로 예견하고 생산 계획과 로동 계획 간, 생산 기술 관리와 로력 관리 간의 유기적 련계를 보장하기 위한 기본 고리로 된다. 로동 기준량을 면밀히 타산하여 과학적으로 설정하지 못 하는 경우에는 생산 계획은 미달하였으나 로임은 초과 지출하는 결과를 가져 올 수 있으며 또한 생산액은 장성하였으나 로동 생산 능률은 떨어지는 것과 같은 부정적 결과를 가져 올 수 있는 것이다. 이것은 불필요한 로력 예비를 조성하며 로력은 랑비하고 국가에 재정적 손실을 주는 현상을 초래하게 한다. 따라서 공장, 기업소들에서는 기술 기준화의 방법으로 매개 일'군들의 로동 기준량을 과학적으로 작성하고 그의 부문 간 균형을 확고히 보장할 뿐 아니라 기업소적으로 현존 로력을 가지고 부과된 생산 과제를 완수 및 초과 완수하며 종업원 1 인당 생산액을 부단히 높일 수 있도록 로동 기준량 제정 사업을 다른 모든 측면과의 통일 속에서 진행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물자의 소비 기준과 자재 및 예비 부속품의 보유 기준에 대하여서도 같은 말을 할 수 있다. 그것은 설비의 정상적 가동에 필요한 자재와 예비 부속품들의 규모를 정확히 예견하고 계획적으로 보장할 수 있게 하며 그 부단한 개선은 온갖 물자의 절약을 가져 올 뿐 아니라 단위 설비 당 생산성을 제고하며 생산 계획의 정확한 작성과 그 체계적인 실현을 확고히 담보하여 준다. 물자 소비 기준을 과학적으로 제정하지 못 하거나 자재 및 부속품의 보유 기준을 잘 설정하지 못"하면 막대한 물자의 사장 및 랑비를 초래하고 류동 자금의 회전을 지연시키거나 혹은 설비의 리용률을 떨어지게 만든다.

우리의 현실은 이러한 기준 지표들의 정확한 설정과 그 체계적인 개선을 위한 투쟁이 생산 및 기업 관리의 정상화를 보장하는 데서 얼마나 큰 의의를 가지는가를 잘 보여 준다. 지금 공장, 기업소의 생산과 관리에서 일부 나타나고 있는 부족점들은 모두 이와 같은 기준 지표를 현실 발전의 요구에 맞게 설정하고 그것을 엄격히 준수하며 나아가서는 그 개선을 위한 투쟁에 화력을 집중하지 못한 데 기인하는 것들이다.

경험은 자재 보유 기준을 과학적으로 설정하고 불필요한 자재를 필요한 부문에 돌리는 것만으로도 얼마나 많은 예비를 동원할 수 있는가를 보여 주고 있으며 자재를 정상적으로 대주고 예비 부속품을 품종 별, 재질 별로 3 개월분 이상 선행시키는 것으로도 설비의 리용률을 훨씬 높일 수 있다는 것을 증시하여 준다.

이로부터 명백한 바와 같이 매개 공장, 기업소에서 계획을 작성하며 그것을 집행하는 전 과정에서 각종 기준 지표들을 과학적으로 설정하고 그것을 부단히 개선하는 것은 생산 요소들 간의 균형을 잘 맞추어 생산의 정상화와 내부 예비의 탐구 동원을 확고히 담보하기 위한 필수적 고리로 된다.

현시기 공장, 기업소들에서 각종 기준 지표들을 현실에 맞게 과학적으로 설정하고 그것을 부단히 개선하는 것이 기업 관리에서 균형을 더욱 합리적으로, 적극적으로 보장하는 중요한 고리라고 하면 이 고리는 무엇보다도 기술 혁신을 촉진하며, 기업 관리의 모든 활동에서 경제적 효과성을 높이기 위한 투쟁을 통하여 해결된다.

기계 설비의 리용 기준, 물자 소비 기준, 로동 기준량 등 중요 기준 지표들을 과학적으로 설정하고 부단히 개선하려면 공장, 기업소의 현존 기술 상태

를 정확히 분석하고 기술 발전 대책을 적극적으로 취해 나가야 한다. 또한 이것은 기업 활동의 모든 측면들을 호상 련관 속에서 구체적으로 따지고 매개 활동의 경제적 효과성을 타산하는 사업을 떠나서는 해결할 수 없다.

이러한 사정은 기술 발전 계획을 잘 세우고 그 집행을 강하게 밀고 나가며 경영 활동에 대한 일상적인 분석과 계산 체계를 세우고 원가, 수익성 등의 질적 지표를 개선하는 데 심중한 관심을 돌릴 것을 요구한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 당이 중요하게 강조하는 바와 같이 모든 공장, 기업소들에서 기술 발전 계획을 생산 계획과 밀접히 결부하여 과학적으로 작성하고 그것을 생산 계획과 같이 매일, 매월, 매 분기 별로 엄격히 집행해 나가는 강한 규률을 세우며 기업 활동을 가치적 측면에서 종합적으로 반영하는 기업소의 재정 계획의 수행 정형과 원가, 수익성 등 질적 지표의 실행 과정을 일상적으로 분석하고 그 개선 대책을 체계적으로 세워 나가는 것이 절실하게 제기된다.

특히 기술 혁신은 기업소에서의 생산 공정 간의 능력 상 불균형을 퇴치하며 설비들의 기종 간 균형을 잘 맞추기 위한 기본 방도로 된다. 따라서 기술 발전 계획을 잘 세우고 그 집행에서 규률을 확립하는 것은 물자 소비 기준, 로동 기준량을 체계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튼튼한 조건을 마련할 뿐 아니라 생산의 정상화와 그 부단한 발전을 직접 추동한다. 생산 계획 일면만을 중요시하면서 기술 발전 계획에 대하여 소홀히 대하는 것은 결국 생산의 장성을 로력자 수의 증대에 의해서 보장하려는 현상이며 자재의 실수률이나 그 소비 기준의 개선에 대해서는 관심을 돌리지 않고 덮어 놓고 우에서 자재를 많이 받아서 생산해 보려는 안일한 사업 태도이다. 오늘 그 어느 공장, 기업소를 막론하고 기술 혁신이 생산의 부단한 발전과 내부 예비 동원의 기본 고리로 되고 있는 조건에서 기술 발전 계획의 정확한 작성과 그 엄격한 실행을 떠나서 생산 계획의 작성 및 그 수행을 생각할 수 없으며 또한 물자 공급과 그 리용의 개선, 로동 행정 사업의 강화, 재정 관리의 개선에 대하여 말할 수 없다. 따라서 모든 공장, 기업소들에서는 기술 발전 계획의 작성을 생산 계획을 비롯한 다른 모든 계획 항목들과 지표들의 작성에 확고히 선행시키며 기술 발전 계획의 엄격한 수행에 기초하여 기업 활동의 전반적 사업의 개선을 위한 결정적 고리를 찾아야 하는 것이다. 특히 기술 발전 계획을 기업소의 구체적 실정에서 가장 약한 고리를 이루고 있는 부문을 우선적으로 퇴치하는 방향에서 세우고 그것을 정확히 집행해 나감으로써 기술 혁신의 경제적 효과성을 더욱 높이는 것이 필요하다.

이와 같이 기술 발전 계획의 작성과 실행은 기업소의 경영 활동에서 제기되는 모든 측면들과 고리들의 정상적이며 균형적인 발전을 적극적으로 보장하는 가장 중요한 고리로 된다.

우리는 이상에서 공장, 기업소들의 경영 활동의 여러 측면들 간의 균형을 맞추는 데서 일반적으로 제기되는 몇 가지 문제만을 언급하였다.

이 모든 것은 기업 관리의 매개 고리를 담당한 일'군들의 높은 책임성과 자기 사업에 대한 완전한 파악을 전제로 하는 것들이다. 매개 단위, 매개 고리의 일'군들이 당이 제기하고 있는 문제를 자기 사업 분야에서 정확히 구현할 줄 알며 생산 관리 활동의 전반적 측면과의 통일 속에서 자기가 할 바를 옳게 찾아 낼 줄 알며 일단 세운 대책은 어떤 일이 있더라도 끝까지 해내고야 마는 기풍을 소유하여야만 이 모든 문제들은 순조롭게 풀려 나갈 것이다.

근로자들의 건강과 지도 일'군

최 창 석

최근 당은 인민들의 건강 보호 사업을 나라의 변천된 현실에 상응하게 개선 강화하기 위한 과업을 제시하면서 이 사업에서 당 조직과 정권 기관들을 비롯하여 인민 경제 모든 부문 지도 일'군들의 역할을 일층 높일 것을 강조하였다.

인민의 건강을 증진시키는 사업은 나라의 살림살이를 알뜰히 하며 도시와 농촌에서 사회주의 건설을 더욱 촉진시키기 위한 근로자들의 로력 투쟁을 보장하는 중요한 담보이며 그들의 열성을 고무하는 데 큰 의의를 가진다.

사람이 가장 귀중한 보배로 인정되고 있는 우리 사회 제도 하에서는 사람에 대한 배려가 모든 활동의 최고의 원칙으로 되고 있다. 사람에 대한 당과 국가의 이러한 배려는 우리 인민의 건강 상태의 부단한 개선에서 집중적으로 표현되고 있다.

지난 기간 우리 당은 혁명을 령도하여 경제와 문화를 발전시킴으로써 근로자들을 착취와 빈궁에서 영원히 해방하고 그들의 물질 문화 생활을 향상시켰으며 인민의 건강 보호 증진을 위한 광활한 길을 열어 놓았다. 당은 사회주의 건설의 성과에 튼튼히 의거하여 예방 의학의 원칙을 철저히 관철하고 인민들에게 전반적 무상 치료제의 혜택을 베풀어 주는 등 인민적인 시책을 실시함으로써 보건 사업에서 커다란 성과를 달성하였다. 해방 후 짧은 기간 내에 사망률을 절반 이하로 격감시키고 평균 수명을 20여 년이나 연장시킨 사실은 우리 당 보건 정책의 빛나는 결실이다.

인민의 건강 상태는 사회주의 건설의 모든 성과들을 집중적으로 반영할 뿐 아니라 그들의 건강 자체가 또한 사회주의 건설에 큰 영향을 준다.

물질적 부를 창조하는 것은 근로 대중이며 근로자들은 나라의 생산력의 기본을 이루고 있다. 근로자들이 건강하지 못하여 자주 앓고 체력이 강하지 못하면 생산 활동에서 높은 열성과 능률을 내지 못할 것은 두말할 것도 없다.

김 일성 동지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인민들의 체력 향상은 소홀히 할 수 없는 일이다. 군대가 자기 역할을 수행하기 위하여서도 군인들의 체력부터 건강해야 한다…국가 건설에서도 마찬가지이다. 사람들이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는 좋은 사회 제도와 발달된 기술이 있어도 그 제도와 기술을 운영해 나가는 사람이 변변치 못 해서야 어떻게 잘 살 수 있겠는가?》(김 일성 선집 제 5 권, 498 페지).

당이 근로자들의 건강 보호를 위하여 돌리는 모든 배려는 그들에게 항상 활기 있고 락천적인 생활을 보장해 주고 있을 뿐만 아니라 혁명과 건설을 위하여 자기의 모든 지혜와 열성을 다 바쳐 일할 수 있도록 고무하고 있다.

우리의 현실과는 대조적으로 자본주의 나라들에서는 근로자들의 건강과 경제 생활 사이에 심각한 모순이 발로되고 있다. 일부 부르죠아 사회 위생학자들은 근로자들의 질병이 사회적 빈곤을 초래하고 사회적 빈곤이 다시 사람들을 질병에로 이끌어 간다고 하는 이론바 질병과 빈곤의 《악순환론》을 류포시킴으로써 계급 사회에서 질병 발생의 중요 원인인 사회 경제적 근원—근로자들에 대한 압박과 착취를 은페하며 한편 《후진》 국가들의 경제적 락후성의 원인을 식민주의의 략탈 때문이 아니라 그 나라

근로자들의 건강 상태가 나쁘기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어떠한 궤변도 근로자들에 대한 가혹한 착취와 그에 따르는 빈궁이 그들의 건강에 파멸적인 후과를 주며 근로자들의 건강 상태의 악화가 사회의 생산력 발전에 커다란 장애를 조성하는 자본주의 사회 제도의 모순을 은폐할 수 없다.

사회주의 제도 하에서 이러한 모순은 더는 존재하지 않는다. 여기에서는 기술이 진보하고 생산이 부단히 장성하면 할수록 근로자들의 물질 문화적 복리는 더욱더 향상되며 근로자들이 건강하게 잘 살면 살수록 그들의 창발성이 높아지고 경제와 문화의 발전은 더욱 촉진된다.

결국 인민들의 생명과 건강에 대한 배려는 우리 사회주의 제도의 본성에서 흘러 나오는 필연적인 요구이다. 이것은 근로 대중을 우리 당 주위에 굳게 결속시키는 중요한 정치 사업, 사람과의 사업으로 된다.

* *

당은 인민 보건 사업을 발전시킴에 있어서 항상 당적 지도를 강화하고 여기에 수백만 근로 대중의 창발성을 결합시킴으로써 이 사업을 인민들 자신의 사업으로, 전 사회적, 전 군중적 사업으로 조직 전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아 왔다. 우리 제도 하에서 보건 사업은 인민을 위한 혁명 사업이며 따라서 어느 개인이나 몇몇 보건 일'군들에게만 국한할 수 없는 전 국가적, 전 사회적 사업인 것이다.

당은 이 사업에서 매개 단위의 지휘 성원들인 지도 일'군들의 역할에 극히 중요한 의의를 부여하고 있다. 지도 일'군들이 근로자들의 건강 증진에 배려를 돌리는 것은 혁명 동지들에 대한 지휘 성원들의 응당한 도리인 동시에 혁명과 건설에로 대중을 힘 있게 불러 일으키는 정치 사업이며 또한 보건 사업에 광범한 인민을 인입하는 결정적 고리로 된다.

건강 문제에 대한 지도 일'군들의 꾸준한 관심은 일찌기 항일 무장 투쟁 시기에 이루어진 전통적인 사업 기풍이다. 김 일성 동지는 항일 무장 투쟁 시기에 유격대원들이 아무리 간고한 환경 속에서도 몸을 깨끗이 거두고 물을 끓여 마시며 외모를 단정히 하는 등 절도 있고 규률 있는 생활을 하도록 지도할 것을 모든 지휘관들에게 강하게 요구하였으며 또한 전사들의 휴식과 학습을 충분히 보장하고 건강을 세심히 보살펴 주는 것이 전투 승리의 중요 조건이라고 항상 가르치시였다. 김 일성 동지 자신이 가렬한 전투와 행군의 나날에도 대원들이 먹고 쉬는 문제에 세심한 관심을 돌렸으며 한두 사람의 환자들에 대해서도 잊지 않고 따뜻이 보살펴 주는 너그러운 덕성의 모범을 보여 주시였다.

해방 후 당은 나라의 모든 부문의 간부들과 지도 일'군들이 이러한 관점과 작풍을 소유하도록 교양하여 왔다. 특히 당은 인민 정권 기관들의 사업에서 보건 사업에 대한 조직 지도자적 역할을 떼여 낼 수 없는 중요한 기능으로 규정하고 이 기능을 부단히 강화하도록 깊은 관심을 돌려 왔다.

최근 년간 지방 공업과 농업에 대한 지도 관리 체계가 개편된 결과에 지방 정권 기관 일'군들이 보건 사업을 포함한 주민들의 복리 증진과 관련된 행정 조직 사업에 더욱 파고 들 수 있는 유리한 조건이 마련되였다.

오늘 정권 기관을 비롯하여 인민 경제 각 부문 지도 일'군들 앞에는 인민의 건강 보호 증진을 위하여 더욱 높은 책임성을 발휘하여야 할 객관적 요구가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요구는 한마디로 말하여 우리 나라의 변천된 객관적 현실로부터 출발한 것이다.

그것은 우선 사회주의 건설이 심화되고 인민 생활 수준이 향상됨에 따라서 보건에 대한 인민들의 요구가 더욱 높

아지고 있다는 사정과 관련된다.

우리의 사회가 진보하고 경제가 발전되였으니 사람도 그 만큼 문명하게 살아야 한다. 문명한 생활이라는 의미에는 사람들이 건강하고 오래 산다는 것이 중요한 내용을 이루고 있다.

건강이란 사람의 육체적 및 정신적 기능이 건전하고 어떠한 병'적 현상도 없는 상태를 말한다. 사회주의는 력사상 처음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정신적 및 육체적으로 건전하게 균형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온갖 가능성을 가져다 주지만 그러나 일정한 시기까지는 낡은 사회가 근로자들의 건강에 끼친 나쁜 영향이 남아 있게 된다.

우리는 36 년 간의 일제 식민지 통치와 미제가 도발한 3 년여에 걸치는 전쟁이 인민의 건강 상태에 끼친 엄중한 후과를 짧은 기간 내에 극복하고 인민 보건 사업에서 커다란 변혁을 이룩하였지만 아직도 그것은 일정한 정도로 남아 있다. 한편 사회 경제 생활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뒤떨어지고 있는 낡은 의식—낡은 생활 양식과 낡은 생활 관습이 우리 인민의 건강에 일정한 영향을 주고 있다.

이러한 부정적 영향들은 의식적인 투쟁이 없이는 쉽사리 청산되지 않는다.

부강하고 문명한 사회주의를 건설하고 있는 우리 인민의 생활 처지에서는 그들의 건강 상태에 남겨진 낡은 사회의 흔적이 더는 참을 수 없는 것으로 되였다.

인민들의 이 절실한 요구에 대답하여 그들의 건강 증진에 더욱 세심한 관심을 돌리는 것은 인민 생활을 책임진 지도 일'군들의 중요한 임무로 된다.

다음으로 인민들의 생활과 로동에서 일어 난 심각한 변화가 보건 사업에서 새로운 요구를 제기하고 있다.

사회주의 건설은 자연과 사회를 변혁하는 심각한 투쟁인 동시에 그 행정에서 사람들이 일하고 생활하는 방식을 부단히 변화시켜 나가는 과정이기도 하다. 도시와 농촌에서 사회주의가 승리하고 경제 문화 건설이 높은 수준에 도달한 지금 우리 인민의 로동과 생활에서는 참으로 커다란 변화가 일어 났다.

사회주의 공업화가 성과적으로 실현됨에 따라서 우리 로동 계급의 대오는 류례 없이 성장하였으며 각종 현대적 공업 부문에서 일하는 그들의 로동 환경과 조건도 달라졌다. 우리 나라에서 로동자들의 건강에 부정적으로 작용하는 사회 경제적 요인은 청산되였지만 공업의 급속한 장성 특히 새로운 공업의 창설과 발전은 자연과 투쟁하는 로동자들의 건강 보호 사업에 새로운 문제들을 제기하고 있다.

농업 부문에서도 농민들은 협동화된 농촌 경리에서 집단적으로 일하고 생활하는 농업 근로자로 개변되였다. 도시와 농촌의 수 많은 녀성들이 당당한 사회주의 건설자로 등장하게 되였으며 이에 따라 우리 나라 어린이들도 탁아소와 유치원에서 집단적으로 생활하며 자라게 되였다. 말하자면 어린이로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전체 인민이 다 조직적으로 생활하며 일하고 있다.

과거에는 매 가정이 세대주의 책임 하에서 살림살이를 해 나갔지만 이제는 인민 경제 각 부문과 단위의 지도 일'군들이 집단의 살림살이를 책임지고 꾸며 나가는 새로운 환경으로 바뀌였다. 이런 환경에서는 세대주가 가정 생활을 꾸리고 가족들의 건강을 책임지듯이 매개 단위의 지도 일'군들이 그야말로 부모의 심정으로 자기가 책임진 집단의 근로자들과 그 자녀들의 건강을 보살필 임무가 있다.

특히 나라의 살림살이를 알뜰히 하고 사회주의 건설의 속도와 규모를 부단히 높이고 확대시켜야 할 현실적 요구에 비추어 보더라도 정권 기관, 경제 기관 지도 일'군들 앞에 나서는 이 임무는 매우 절실한 문제이다.

경험은 근로자들의 질병과 그로 인한 로력 상실이 경제 계획 수행에 큰 지장

을 줄 수 있다는 것을 보여 주고 있다.
따라서 나라의 살림살이를 책임지고 꾸려 나가는 지도 일'군들이라면 마땅히 인민의 보건에 깊은 배려를 돌려야 한다.

조성된 혁명 정세가 또한 지도 일'군들에게 인민의 체력 증진에 관심을 집중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미제와 박 정희 도당의 반인민적 정책 특히 《한일 협정》 체결 이후 일본 군국주의자들의 남조선 재침 음모가 더욱 로골화되고 괴뢰 도당의 남부 웰남 파병 책동이 강화됨에 따라 남조선에서 인민들과 미제 및 그 주구들과의 모순은 날아 바뀔수록 심각해지고 있으며 인민들의 반미, 반괴뢰 투쟁은 새로운 국면을 보여 주고 있다.

미제와 박 정희 도당의 반인민적 정책에 의하여 보건 상태를 포함한 남반부 인민들의 생활 처지가 날로 처참해지고 있는 현시기 공화국 북반부에서 보건 사업을 높은 궤도에 올려 세우며 인민들에게 행복하고 문명한 생활을 마련하여 주며 당과 인민의 강철 같은 통일을 이룩하는 것은 남반부 인민들의 반미 구국 투쟁에 대한 커다란 고무로 된다.

현 정세는 어느 때보다 긴장되고 동원된 태세로 일하며 전체 인민이 무장하여 공화국 북반부를 철벽의 요새로 꾸릴 것을 요구하고 있다. 나라의 방위력 강화에서 인민들의 체력은 매우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모두가 몸을 튼튼히 하고 단련하여야만 건설과 혼련에서 큰 성과를 거둘 수 있으며 혁명의 전취물을 원쑤들의 침해로부터 믿음직하게 수호할 수 있는 것이다.

* *

당은 각 부문 지도 일'군들에게 근로자들의 건강 보호에 대한 관심을 높일 것을 강조하면서 현시기 이 사업에서 중요하게 틀어 쥐고 나가야 할 과업을 명확하게 제시하였다.

사람들은 각이한, 복잡한 환경과 조건에서 생활하며 로동하고 있는 것 만큼 근로자들의 건강을 철저히 보장하는 것은 결코 단순한 사업이 아니다. 그러므로 인민들의 구체적인 생활과 로동 형편에 대한 객관적인 분석에 기초하여 그들의 건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모든 측면들을 전면적으로 틀어 쥐고 풀어 나가는 사업 방법이 요구된다.

우리 당은 모든 질병의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는 데 주되는 력량을 돌리면서 일단 발생한 질병들을 제때에 치료하고 퇴치하는 방침을 철저히 견지함으로써 인민들의 건강을 훌륭히 보호하여 왔다.

우리 당의 예방 의학적 방침 가운데서도 위생 사업은 극히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당은 오늘 이 위생 사업을 전 인민적 운동으로 강력히 추진시킬 것을 강조하고 있다.

위생 사업이란 먹고 입고 쓰고 사는 일로부터 로동과 휴식, 신체 단련에 이르기까지 일체 생활 과정에서 건강에 해를 끼치는 조건과 환경을 제거하는 반면에 그에 긍정적으로 작용하는 요인들을 적극 조장시켜 사람들을 튼튼한 몸으로 오래 살게 하는 온갖 대책의 총체를 말한다.

그러므로 인민들이 살고 일하고 배우고 있는 곳이라면 그 어느 곳에서나 해당 부문 지도 일'군들은 위생 사업에 대하여 관심을 돌려야 하며 그것을 개선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위생 사업 지도는 결코 환경이나 정돈하고 청소나 하게 하는 정도로 그치는 간단한 일이 아니다. 그것은 사람들의 생활 형편 전체에 대한 극진한 배려이다. 례컨대 공장, 기업소 지도 일'군이라면 합숙과 식당 조건으로부터 목욕과 세탁, 작업 과정의 음료수와 영양제 공급, 휴식, 신체 단련, 로동 안전 등 로

든 문제를 종합적으로 료해하고 옳게 조직함으로써 로동자들이 규률 있고 절도 있게 일하며 충분히 휴식하도록 하여야만 자기 임무를 다하였다고 말할 수 있다. 공장, 기업소 지도 일'군들이 로동자들의 로동과 생활에 대하여 이와 같이 동지적 배려를 돌리는 곳에서는 비록 지하 막장에서 일하더라도 그들의 건강 상태가 매우 훌륭하며 항상 활기에 넘쳐 생산에서 혁신을 일으키고 있다는 것을 경험은 보여 주고 있다.

이것은 농촌 경리 부문에도 전'적으로 해당된다. 농업 로동은 공업에 비하여 로동 조건에서 일련의 특수성이 있으며 농촌의 문화 생활은 도시보다 상대적으로 뒤떨어지고 있다. 이러한 특징을 고려하여 로동 위생 대책을 강구하여야만 농업 근로자들 속에서 로력적 열성을 부단히 높이며 농촌 기술 혁명, 문화 혁명 수행에도 이바지할 수 있다.

농촌 경리 지도 일'군들은 특히 농촌 녀성들의 로동 위생에 대하여 각별한 주의를 돌려야 한다. 녀성들은 생리적 특성과 가정적 부담에서 오는 애로가 있는 만큼 그들에 대한 로동 보호 사업을 잘 하고 휴식 조건 등을 잘 마련해 주어야 한다. 더우기 임신부와 산모, 젖먹이 어린이를 가진 녀성들의 건강을 철저히 보호하는 것은 농촌 부문 지도 일'군들의 고상한 임무로 된다.

많은 어린이들이 탁아소와 유치원에서 자라나고 있는 우리 나라 조건에서 그들을, 특히 아직 몸의 저항력이 약한 탁아소 어린이들을 위생적으로 보호하는 것은 아동 위생의 기본 문제이다. 탁아소 사업을 잘 하는 것은 우리 나라 전체 어린이를 건강하게 기르는 것을 의미한다. 당이 제일 좋은 건물을 탁아소에 돌려 주고 난방과 양육 시설을 원만히 갖추어 주며 어린이들에게 영양가 높은 식사를 공급할 대책을 강구하도록 시종일관 강조하고 있는 리유가 여기에 있다.

우리 당의 보건 정책은 위생 문제를 생활이나 로동 환경을 위생적으로 개조하는 데만 국한하고 사람들의 몸의 내'적 측면, 저항성에 대해서는 홀시하거나 무시하는 경향과는 인연이 없다. 그것은 위생에 대한 극히 일면적인 견해이다.

다 아는 바와 같이 사람들은 외부 환경에 의하여 지배를 받기만 하는 피동적인 존재가 아니다. 사람은 생활 과정에서 외부 환경의 영향을 받으면서 동시에 그에 능동적으로 작용한다. 사람들의 몸을 단련하고 저항력을 높인다면 외부로부터 들어 오는 해로운 영향을 능히 막아 낼 수 있는 것이다.

우리 당은 위생에 대한 일면적인 인식을 반대하고 외부 환경의 위생적 개조와 함께 사람들의 몸을 적극적으로 단련할 것을 제시하고 있다. 아침 체조, 업간 체조, 달리기, 랭수 마찰 등 각종 체조와 신체 단련을 전 인민적 운동으로 강력히 조직 전개하며 이 사업에서 이신작칙하는 것은 모든 지도 일'군들의 중요한 임무로 된다.

인민들의 건강과 생명을 원만히 보호하자면 위생 사업과 함께 방역 사업을 강화해야 한다.

방역 사업에서는 우선 근로자들이 방역 규률을 준수하도록 지도하고 통제하는 동시에 위생 방역 기관들의 역할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야만 전염병을 철저히 예방하고 퇴치할 수 있다.

사람들이 일하고 생활하는 과정에는 뜻하지 않는 질병이 발생할 수 있다. 이런 경우에는 보건 기관 일'군들의 력량을 효과적으로 조직 동원하여 환자들을 철저히 치료하여 주어야 한다.

인민들에 대한 당과 국가의 배려를 실현함에 있어서 보건 기관들은 매우 중요한 역할을 놀고 있다.

보건 기관들은 질병을 예방하고 치료하며 귀중한 인명을 구원하기 위한 심각한 투쟁이 일상적으로 진행되는 전투 초소이다. 인민의 건강과 생명은 보건

기관들이 일을 잘 하고 못 하는가에 크게 의존되고 있다.

보건 기관과 보건 일'군들의 사업에 구체적으로 침투하여 그들의 사업을 잘 지도하고 방조하는 것은 지도 일'군들 특히 지방 당 조직과 정권 기관 지도 일'군들의 경우에 매우 중요한 일로 된다.

보건 기관들의 활동에서 선차적으로 제기되는 것은 혁명적 사업 규률, 일'군들의 세련된 기술, 인민들에 대한 높은 봉사성이다. 그런데 이러한 조건들은 보건 기관 자체의 심각한 투쟁, 꾸준한 노력과 함께 해당 지방 당, 정권 기관들에서의 일상적인 지도가 안받침되여야만 이루어질 수 있다.

결국 지도 일'군들이 보건 일'군들과의 사업을 잘 하는 것은 일'군들이 환자들과의 사업을 잘 하도록 도움을 주며 나아가서는 인민들에 대한 정치 사업을 잘 하는 것을 의미한다. 일례로 병원 지도 일'군들과 과장을 비롯한 핵심 기술 일'군들의 주택을 병원 가까이에 배정하여 주는 것만으로도 구급 치료 시간을 단축하고 치료 규률을 확립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지도 일'군들은 보건 기관들에서 진행되는 치료 예방 사업 실정을 구체적으로 료해 장악하며 해당 지역 내에서 발생한 질병의 치료 대책이 당, 정권 기관들의 관심 하에 강구되게끔 해야 한다. 동시에 보건 기관에 그 지방에서 좋은 건물을 보장해 주며 그 물질적 조건들을 잘 꾸며 주고 일'군들이 전문 기술 수준을 부단히 높이도록 하며 병원, 진료소, 위생 방역소, 탁아소 등 각 보건 기관들 중에서 모범을 창조하고 그것을 지방적으로 일반화하도록 함으로써 인민들의 건강 증진을 위한 보건 기관들의 전투적 기능을 일층 높이게끔 해야 한다.

* *

오늘 우리 나라에는 당의 정확한 정책과 령도에 의하여 인민들의 생명과 건강을 믿음직하게 보호할 수 있는 모든 필요한 조건들이 마련되여 있다.

도시와 산업 지구, 농촌들에는 각종 보건 기관망들이 포치되여 있으며 여기에서 10여만의 일'군들이 인민을 위하여 복무하고 있다. 현대 의학과 함께 동의학을 발전시킬 데 대한 당의 방침에 의하여 우리 나라 의학은 급속히 발전하고 있으며 부단히 새로운 치료 예방 수단들이 도입되고 있다.

문제는 보건 일'군들과 함께 각 부문 지도 일'군들이 근로자들의 건강 보호에 대하여 얼마나 큰 관심을 돌리는가에 달려 있다.

당의 방침을 받들어 지도 일'군들이 보건 사업에 응당한 관심을 돌리고 이 사업을 틀어 쥐고 나갈 때 우리 인민의 건강 상태에서는 새로운 전변이 이룩될 것이다.

조선 전쟁에서의 미제의 참패는 그들의 내리막길의 시초

김 순 일

자본주의 발전의 길에 늦게 들어 선 미 제국주의는 전쟁과 혁명의 세례로부터 멀리 떨어진 안전한 지리적 위치를 리용하여 약소 국가들에 대한 략탈과 수천만 근로 대중의 고혈로 급속히 살지고 비대해졌다. 실로 제 1 차 세계 대전과 제 2 차 세계 대전은 문'자 그대로 미국 전쟁 상인들에게 황금의 《소나기》를 퍼부어 주었다.

수천만 근로 대중의 희생의 대'가로 미 제국주의의 지위는 제 2 차 세계 대전을 앞뒤로 급격히 높아졌으며 20 년대의 미국의 《번영》을 가져 왔다.

레닌은 일찌기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미국 억만장자들은 두말할 것 없이 대단히 부유하였으며 제일 안전한 지리적 위치에 처하여 있었다. 그들은 누구보다도 많이 리득을 보았다. 그들은 모든 나라를, 심지어 가장 부유한 나라들까지 자기의 조공국으로 만들었다. 그들은 수천억 딸라를 략탈해 내였다. 그 한 딸라 한 딸라에…1천만 명의 전사자와 2천만 명의 불구자가 흘린 피 바다에서 흘러 내린 피의 흔적이 있다》 (레닌 전집 제 28 권, 58～59 페지).

아메리카 인디안들에 대한 야만적인 멸족전, 하와이섬과 메히꼬, 필리핀, 아르헨띠나와 중국 기타 많은 나라 인민들에 대한 침략적 살륙전을 비롯하여 20 세기 초까지만 하여도 미제가 저지른 전쟁은 무려 114 회나 된다. 제 1 차 세계 대전과 제 2 차 세계 대전을 거쳐 오늘에 이르기까지의 미 제국주의의 력사는 수천만의 피압박 피착취 대중의 피로써 물들여진 침략의 력사이다.

미 제국주의는 세계 제패를 위한 침략적 야망을 실현하기 위하여 폭력 수단에 의거함과 함께 소위 《자선 외교》, 《신축성 있는 외교》에 매여 달리면서 음흉하고 교활한 수법을 다썼다. 그들은 종교를 앞세우고 《자선》, 《해방》, 《원조》 등 허위적인 간판을 들고 그 연막을 리용하여 약소 국가들에 대한 침략을 대대적으로 감행하기 시작하였다.

제 2 차 세계 대전 시에만도 전쟁 말엽에 련합군에 참가한 미제는 교전 쌍방의 거동만 살피다가 파쑈 독일과 이딸리아, 일본 등이 거의 멸망에 직면한 무렵에야 전쟁에 뛰여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들을 반파쑈 투쟁의 《선구자》, 《평화의 사신》으로 자처하면서 전승국으로 등장하였다.

제 2 차 세계 대전 이후 식민지 민족 해방 운동의 장성에 겁먹은 미제는 파산되는 식민지 통치의 위기를 구원하기 위하여 여러 나라에서 괴뢰 정권을 조작하고 형식 상 독립을 《선사》하였으며 《평화군》의 파견과 《원조》.등 기만 정책을 실시하였다.

제 2 차 세계 대전 당시 미제가 형식 상 반파쑈 련합 전선에 가담하여 지구상의 첫 사회주의 국가 쏘련과 함께 구라파에서 파쑈 독일과 이딸리아, 아세아에서 일본을 격멸하는 련합 전선에 참가했다는 사실과 제 2 차 세계 대전 이후 미제가 실시한 온갖 기만 정책들은 아직도 각성되지 못한 수백만 사람들 속에 미제는 강대하며 선하다는 환상을 가지게 하였다. 이리 하여 미제는 인기가 올라 가고 기만극에 매혹당한 일부 사람들은 미 제국주의를 우러러 보게 되였으며 지어 공산주의자로 자처하던 일부 나라 사람들까지도 제국주의의 침략적 본성이 변하였다고 하면서 미제를 《원조자》, 《해방자》로 인정하는 데

까지 이르렀다.

그러나 준엄한 력사의 흐름 속에서 인민은 점차 각성하게 되였으며 제국주의는 결코 본성을 감출 수 없었다.

이것은 특히 제 2 차 세계 대전 이후 우리 나라에서 일어 난 제반 사태가 그 명백한 실증으로 된다.

동방의 《황금의 땅》을 탐내여 100여년 간이나 침략의 야망을 품어 온 미제는 일제가 패망하자 곧 《해방자》의 탈을 쓰고 남조선에 기여 들었다. 남조선을 강점한 첫날부터 미제는 조선 인민의 의사와 민주주의적 자유를 유린하고 조선 인민들로부터 버림 받은 력사의 쓰레기들을 긁어 모아 괴뢰 정권을 조작하였으며 북반부에 대한 침략 전쟁 준비를 발광적으로 진행하였다.

우리 인민은 미제가 우리 땅에 기여 들던 첫날부터 감행한 그 모든 민족적 멸시와 침략적 책동으로 하여 그들이 결코 해방자나 원조자가 아니라 바로 침략자로서 기여 들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였다. 해방 직후 남반부의 방방곡곡에서 일어 난 남조선 인민들의 반미 구국 투쟁은 이것을 똑똑히 보여 준다.

우리 당은 해방 직후 우리 나라에 조성된 정세를 과학적으로 분석한 데 기초하여 미 제국주의를 우리 혁명의 첫째 가는 투쟁 대상으로 규정하고 전체 인민들을 반미 구국 투쟁에로 불러 일으켰으며 미 제국주의자들의 침략 정책에 대처하여 북조선에 강력한 혁명 기지를 창설할 데 대한 로선을 제시하였다.

이 로선은 해방 후 복잡한 정세 하에서 모든 가능성을 최대한으로 리용하여 혁명을 주체적 립장에서 발전시키며 미제 침략자들을 철저히 반대하기 위한 로선이였으며 혁명 발전을 촉진시키기 위한 전공적인 대책이였다.

우리 당은 이 로선을 관철함으로써 짧은 기간에 북조선에 강력한 혁명의 보루를 축성하여 놓을 수 있었다.

이것은 우리 인민이 조국 해방 전쟁에서 승리를 달성할 수 있게 한 결정적인 담보로 되였다.

북조선에서의 민주 건설과 남반부 인민들의 혁명적 진출에 황겁한 미제는 조선에 대한 저들의 침략적 야망을 기어코 실현하기 위하여 조국 통일에 대한 우리 당의 원칙적 립장과 평화적 통일을 위한 조선 인민의 념원을 무시하고 1950년 6월 25일 침략 전쟁을 도발하였다.

조국 해방 전쟁은 제국주의 침략 세력과 국내 반동 세력을 반대하는 가장 심각한 계급 투쟁이였으며 우리 당과 인민에게 있어서 준엄한 시련이였다. 우리 당은 이 어려운 시기에 조국의 운명을 량 어깨에 걸머지고 전 당과 인민을 원쑤 격멸을 위한 성스러운 투쟁에 조직 동원하였다.

우리 인민과 인민군 군인들은 당의 현명한 령도를 받들고 전쟁의 전 행정에 걸쳐 당과 수령에 대한 무한한 충실성, 백절불굴의 혁명 정신과 대중적 영웅주의를 발휘하였다. 그들은 다시는 지난날의 쓰라린 생활을 되풀이하지 않기 위하여, 자유와 행복을 가져다 준 인민 민주주의 제도를 수호하기 위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된 공장과 농토를 빼앗기지 않기 위하여 무비의 용감성과 영웅주의를 발휘하여 침략자들에게 섬멸적 타격을 주었다.

당과 김 일성 동지의 현명한 령도, 우리 인민과 인민군 군인들의 당과 조국에 대한 무한한 충실성, 자체 힘으로 혁명을 끝까지 수행하려는 자력 갱생의 혁명 정신 그리고 사회주의 나라 인민들과 세계 평화 애호 인민들의 지지 성원—이 모든 것은 미 제국주의자들에게 참패를 주고 조국 해방 전쟁의 력사적 승리를 달성케 한 요인들이였다.

* *

력사의 제반 사실이 실증해 주는 바와 같이 조선 전쟁은 미제의 침략사 상

에서 처음으로 되는 패전으로서 그들의 내리막길의 시초를 열어 놓았으며 미 제국주의의 력사적 운명에서 하나의 전환점으로 되였다.

김 일성 동지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조선 전쟁에서 미 제국주의자들은 미국 력사상 처음으로 참혹한 군사적 패배를 당하였으며 이것은 미 제국주의가 내리막길에 들어서는 시초를 의미하는 것이였다》(김 일성, 《조선 로동당 창건 20 주년에 제하여》).

미 제국주의자들은 조선 전쟁을 도발하면서 《기술적 우세》로 우리 인민을 쉽게 정복하리라고 타산하였다. 그들은 최신 기술로 무장한 200여만 명의 대병력과 200억 딸라 이상의 군사비를 지출하는 등 그 침략사상 최대의 인적 및 물적 자원을 동원하였다. 그러나 펜타곤의 이 《계획》은 잘못 타산한 것이였다. 미 제국주의자들은 3 년 간의 조선 전쟁에서 39만여 명의 미군을 포함하여 109만 3,000여 명의 유생 력량을 살상 포로 당하였고 1만 2,000여 대의 비행기, 250여 척의 함선을 비롯한 막대한 전투 기술 기재를 손실 당하였으며 태평양 전쟁에서 소모한 량의 11 배에 달하는 7천 300여만 톤의 군수 물자를 손실 당하고 전쟁을 도발한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말았다.

전쟁 행정은 부르죠아 군사 예술의 제한성과 미군의 전략 전술에서의 본질적 약점을 폭로하였다. 미 제국주의자들은 조선 전쟁을 진행함에 있어서 《전격전》, 《속전 속결》에 큰 기대를 걸었다. 이것은 자기들의 력량에 대한 과신, 혁명적 인민과 무장력에 대한 과소평가, 장기전을 타산하지 못 하고 세워진 모험적인 전략이였다.

미 제국주의자들의 《속전 속결》의 전략은 우리 당의 현명한 군사 전략적 지도와 조선 인민과 인민 군대의 불요불굴의 투쟁에 의하여 전쟁 초기부터 산산이 부서지고 말았다.

미 제국주의자들은 《기술적 우세》를 표방하면서 기술을 적용하는 방법으로 조선 인민을 굴복시키려고 타산하였으며 우세한 항공력에 의거한 《공중 전쟁》에 결정적 의의를 부여하였다. 이로부터 미제는 1952년도만 하여도 전체 군사비 지출의 40%를 공군력에 할당하였으며 매일 조선 전선에 700~1,000여 대의 비행기를 동원하여 전선과 후방에 대한 초토화 작전을 진행하였다. 전쟁 개시 후 2 년 동안에만 하여도 20만여 개의 대중 폭탄을 투하하였고 2억만 발의 탄환과 40만여 발의 로케트 포탄을 쏘아 댔다.

지어는 화학 무기, 세균 무기 등 대량 살륙 무기까지 동원하였으며 원자탄을 가지고 위협도 하였다.

그러나 원자 무기를 포함한 그 어떤 대량 살륙 무기도 미제를 패망에서 구원할 수는 없었다. 우리의 전국의 요새화와 전 인민적 혁명 전쟁에 의하여 그들의 전투 행동은 걸음마다 봉쇄되였다.

조선 전쟁은 기술만 가지고는 전쟁에서 승리할 수 없으며 전쟁의 승패를 좌우하는 결정적 요인은 기술만이 아니라 인민 대중의 단결된 힘이라는 것을 똑똑히 보여 주었다.

전쟁 행정에서는 미군의 군사 예술의 제한성 뿐 아니라 미군 고전 장군들의 군사적 지도에서의 약점과 제한성도 뚜렷이 보여 주었다.

조선 전쟁에서의 미제의 군사적 패배는 부르죠아 군사 예술이 이미 낡았을 뿐 아니라 그러한 방법으로는 혁명적 인민들의 전 인민적 전쟁을 타승할 수 없으며 미 제국주의자들이 이전과 같이 략탈 전쟁을 마음 대로 진행하기에는 벌써 무능력하다는 것을 보여 주었다. 전쟁사 상 최대의 《공훈》을 세웠다는 정예 사단들과 《로련한 장군》들도 청소한 우리의 인민 군대에 의하여 소멸되고 말았다. 미군의 《강대성》에 관한 신화는 여지 없이 깨뜨려졌으며 그들의

부패성과 취약성이 전면적으로 드러났다.

미제는 조선 전쟁에서 군사적으로 뿐 아니라 정치적으로 심대한 패배를 당하였다. 그들은 무력 침공을 감행하면서 공화국 북반부에 수립된 인민 민주주의 제도가 단번에 붕괴되리라고 타산하였다. 그러나 전쟁의 전 행정은 인민 민주주의 제도의 우월성과 거대한 생활력을 실증하였다. 당과 정부의 정확한 지도 밑에 정치, 경제, 군사 등 모든 부문이 전시 체제로 신속히 개편되였으며 전쟁 승리를 위한 조직적 동원 체계가 확고히 수립되고 전선과 후방이 한덩어리로 단합되였다.

또한 그들은 조선에서 전쟁을 도발하면서 유엔의 간판을 리용하여 전쟁의 책임을 우리에게 전가시키며 우리 인민을 세계 인민들로부터 고립시키려고 타산하였다. 그러나 그들의 의도와는 달리 전 세계 평화 애호 인민들은 미제의 전쟁 도발 행위에 격분하였고 정의의 목소리를 합쳐 침략적 야망을 폭로 규탄하였다. 프로레타리아 국제주의에 충실한 각국의 로동 계급은 《조선 전쟁에서 미제는 피묻은 손을 떼라!》, 《조선 전쟁에서 미제는 일체 살인 무기를 걷어 가지고 당장 물러 가라!》 등 정의의 목소리를 높이는 한편 조선 전선에의 군수 물자 수송을 반대하며 태업하는 등으로써 미제에게 타격을 주었다.

미제는 추종 국가는 물론 다른 나라까지 침략 전쟁에 끌어 넣어 그들에게 무거운 부담과 희생을 들씌우며 그들을 전반적 전쟁의 와중에 끌어 넣으려고 획책함으로써 제국주의 진영 내부에서까지도 고립되였다. 이 모든 사실은 미제의 심각한 정치적 참패를 의미하며 미제를 반대하는 조선 인민의 투쟁을 더욱 유리하게 만들어 주었다.

미제는 조선 전쟁에서 정치, 군사적 참패를 당했을 뿐 아니라 도덕적으로도 결정적 참패를 당하였다.

조선 인민을 쉽게 굴복시킬 수 없게 된 미 제국주의자들은 학교, 병원, 주택을 비롯하여 평화적 시설들을 무차별적으로 폭격하였으며 지어는 국제 법규와 인간의 초보적인 도덕마저 저버리고 비인간적인 전쟁 방법을 적용하였다. 조선 전쟁은 미제에 의하여 세균 무기가 대규모적으로 사용되고 수백만 갈론의 나팜탄이 사용된 최초의 전쟁이였다. 특히 일시적 강점 지역에서 원쑤들이 감행한 학살 만행은 로마에 불을 지른 네로도, 인류의 귀중한 문화 재부를 태워 버린 진시왕도, 구라파를 감옥과 교수대로 덮은 히틀러 파쑈스트 교형리들도 릉가한 야수적 만행이였다. 조선 전쟁에서 감행한 미제의 야수적 만행은 미국식 《문명》과 미국식 《인도주의》의 정체를 적나라하게 폭로하였으며 미제를 인간 백정으로, 20 세기의 두 발 가진 짐승으로 락인 찍었다.

미제의 조선 전쟁에서의 군사적 참패는 그들의 정치, 경제를 그 근저로부터 뒤흔들어 놓았다. 허장성세하던 미제, 200년래 《강대성》을 뽐내 오던 미제는 조선 땅에서 등뼈가 부러졌으며 그들에 대한 신화는 박살 나고 말았다.

조선 전쟁은 전 세계 인민들에게 미제는 《불패》의 강자가 아니며 《해방자》나 《평화의 사신》은 더우기 아니며 오직 침략과 전쟁의 주되는 세력이며 인류의 가장 흉악한 원쑤이라는 것을 똑똑히 보여 주었다.

조선 전쟁에서의 미제의 참패는 제국주의 반동 세력에 대한 혁명적 인민들의 승리이며 제국주의 침략 세력에 대한 혁명적 무장력의 승리이다. 이것은 맑스-레닌주의 당의 령도 밑에 자기들의 운명을 튼튼히 틀어 쥐고 자유와 독립과 진보를 위하여 궐기한 인민은 어떠한 제국주의 침략 세력에 의해서도 정복되지 않으며 제국주의자들이 마음대로 타국을 침략하던 시기는 영원히 지나 갔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보여 주었다.

조선 전쟁은 약소 민족이 《강대국》을 이긴 최초의 전쟁이며 청소한 우리의 인민 군대가 기술적으로 우세한 적과 싸워 이긴 전쟁으로서 식민지 예속 국가 인민들에게 준 영향이 크다. 피압박 인민들 속에서 미국의 《강대성》과 미국의 군사 기술에 대한 공포증이 결정적으로 타파되였으며 단결하여 투쟁하면 승리할 수 있다는 신심이 제고되였다.

조선 전쟁은 식민지 예속 국가 인민들의 반제 민족 해방 투쟁에 커다란 영향을 주었다. 민족 해방 투쟁의 예봉은 점차 식민주의의 아성이며 침략과 전쟁의 주되는 세력인 미 제국주의자들에게 돌려지게 되였으며 투쟁 형태에서도 적극적인 무장 투쟁 형태로 광범히 반전하기 시작하였다. 조선에서 전쟁이 치렬하게 전개되고 있던 1953년에 꾸바의 혁명가들이 무장 투쟁의 기치를 들었고 1954년에는 알제리 애국자들이 무장 투쟁을 개시한 것을 비롯하여 30여 개의 나라들이 조선 전쟁 후에 독립을 쟁취하였다.

미 제국주의자들은 조선 전쟁에서 입은 심대한 상처를 아물리지 못한 채 세계의 혁명적 인민들에 의하여 련속적으로 새로운 타격을 받고 있으며 더욱 더 멸망의 구렁텅이에 빠져 들어 가고 있다.

미제는 세계 도처에서 썩어 가는 식민지 생명선을 유지해 보려고 갖은 술책을 다하고 있다. 그러나 각성된 인민들을 더는 속일 수 없을 것이다.

정전 이후 남조선에서 더욱 각성된 애국적 인민들은 미제의 손때 묻은 가장 충실한 주구 리 승만 괴뢰 도당을 타도했다. 곤경에 빠진 미제국주의자들은 장 면, 박 정희 등을 갈아 댔으나 오히려 그것은 저들의 정체를 더욱더 드러내 놓았으며 반미 감정을 불러 일으켰을 뿐이다.

오늘 미제는 일본 군국주의를 재무장시켜 아세아 돌격대로 내몰려 하고 있으며 박 정희와 결탁시키고 있다. 이것은 아세아에서 썩어 가는 식민지 생명선을 유지하기 위해 발악하는 자들의 최후 수단에 불과하다.

라오스, 꽁고(레), 베네수엘라, 도미니카를 비롯하여 아세아, 아프리카, 라틴 아메리카의 모든 지역에서 무장 투쟁의 불'길이 세차게 타오르고 있으며 특히 남부 웰남 인민들은 자기들의 영웅적 투쟁으로 미제와 그 주구들을 곤경에 몰아 넣고 있다.

남부 웰남에서 선전 포고 없이 전쟁을 벌려 놓고 승산이 없는 싸움을 하고 있는 미제는 동맹국들 내에서까지 더욱 더 미움을 받고 있다. 조선 전쟁 때에만도 미제는 15 개의 추종 국가들로부터 인적 및 물적 자원을 동원시킬 수 있었으나 오늘 웰남 전쟁에서는 박 정희 따위의 인간 쓰레기 도당들로부터만 겨우 《지지》와 《지원》을 긁어 모으고 있을 뿐 자기 동맹국들로부터도 지지를 받지 못하고 있는 형편이다.

이러한 사실은 력사의 흐름을 따라 각성되고 있는 인민들의 반미 기세를 보여 주는 것이며 적지 않은 나라들 특히 신생 독립 국가들에서의 자주 정신과 미제에 대한 반발의 산 표현임을 보여 준다.

조선에서 패전한 뒤를 이어 미국에서 발생한 새로운 경제적 위기, 대재벌을 비롯한 독점체들과 로동 계급 간의 대립의 첨예화, 웰남 전쟁을 확대하려는 미제의 책동과 관련한 자국 내의 인민들과 세계 인민들의 항의 규탄, 세계 도처에서의 식민주의 정책의 파산, 동맹국 내에서의 렬강 간의 모순의 격화 등은 미 제국주의의 종국적 파산을 재촉하고 있다.

이와 같이 조선 전쟁에서의 미제의 정치, 군사, 도덕적 참패는 그들의 력사적 운명의 말로를 알리는 조종으로 되였으며 그들의 내리막길의 시초로 되였다.

이것은 력사 발전의 필연적인 결과이며 제국주의자들의 분별 없는 행동은 그들의 멸망을 앞당길 뿐이라는 것을 증명하여 준다.

* *

미 제국주의는 조선 전쟁에서의 참패를 계기로 《인기》를 잃은 채 세계 도처에서 타격을 받고 있으며 그들의 침략 책동은 걸음마다 분쇄되고 있다.

그러나 제국주의는 멸망에 가까와질수록 자기들의 여명을 유지하기 위하여 더욱 발악하는 것이 그 본성이다. 헤여날 수 없는 궁지에 빠진 미제는 오늘 정전 협정을 란폭하게 유린하고 남조선에 계속 신형 무기를 반입하고 있으며 새로운 사단들을 증설하고 있는 등으로 새 전쟁 도발 음모를 강화하고 있다. 일본 군국주의를 재무장시키는 한편 아세아의 괴뢰들을 저들의 음모 실현에 끌어 들임으로써 아세아에서 긴장 상태를 더욱 격화시키고 있다.

이 모든 사실은 우리에게 결코 수수방관을 허용하지 않는다. 우리는 계속 높은 경각성을 가지고 적들의 동태를 예리하게 주시하여야 하며 모든 전선에서 당의 정책을 철저히 관철하여야 한다.

우리 전체 인민군 군인들은 북반부에서 사회주의 제도를 굳건히 수호하며 남반부에서 미 제국주의자들을 몰아 내고 하루 속히 남녘 땅 형제들을 해방하기 위하여 전투 정치 훈련을 부단히 강화하여야 한다. 특히 중요한 것은 전쟁에 대처할 수 있는 정치 사상적 준비를 철저히 하는 것이다. 김 일성 동지가 지적한 바와 같이 아무리 훌륭한 무기를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전투 의식이 약하고 승리에 대한 신심이 없게 되면 그 무기와 기술은 아무런 힘도 발휘할 수 없다. 우리들 속에서 일체 안일성과 해이성, 권태증을 반대하고 항상 적에 대한 경각성을 높이며 정상적인 동원 태세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우리들은 사상적으로 준비될 뿐 아니라 현대전에 대처할 수 있는 군사 지식을 습득하는 것이 필요하다.

레닌이 지적한 바와 같이 군사 지식—이것은 프로레타리아트를 위해서 필요한 과학이다. 프로레타리아트는 참으로 자기를 위해서 군사 지식을 습득할 수 있을 것이며 이러한 습득은 프로레타리아트의 리익이 무조건적으로 요구하는 것이다.

우리는 제국주의를 타승하고 착취와 빈궁과 전쟁을 종결시키기 위해서 제국주의가 지구 상에 존재하는 한 군사 지식을 배워야 하며 무장을 절대로 놓을 수 없다.

우리는 당과 인민의 혁명적 무장력으로서 자체의 대렬을 백방으로 강화하며 전 인민적 무장과 전국의 요새화를 위한 당의 국방 정책 관철을 위하여 더욱 노력할 것이다.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미제의 침략적인 《전략》을 걸음마다 분쇄하고 나라의 완전 해방과 사회주의, 공산주의의 종국적 승리를 철저히 담보할 것이다.

남조선에 대한 미제의 예속화 정책과 통치의 특성

김 광 진

지난 20여 년 간 남조선에서의 정세 발전은 미 제국주의자들이 세상에서 가장 교활하고 악랄한 식민지 통치자라는 것을 똑똑히 보여 주고 있다. 그들은 남조선에 대한 식민지 통치를 공공연한 군사적 강점으로부터 시작했다. 미제는 남조선에서 침략적 야욕을 달성하기 위하여 괴뢰 정권을 앞잡이로 내세우고 현 세계에서 보기 드문 교활한 수단과 방법으로 식민지 통치를 감행하고 있다.

남조선에 대한 미제의 식민지 예속화 정책과 통치는 제국주의적 본성으로 하여 일제의 그것과 본질 상 구별되지 않는다. 그렇지만 미 제국주의 자체 발전의 특수성과 그가 노리고 있는 침략의 중심 예봉, 그리고 변천된 력사적 제 조건 등과 관련하여 남조선에 대한 미제의 식민지 예속화 정책의 구체적 측면은 과거 일제나 기타 식민지들에서의 제국주의자들의 침략에 비하여 일련의 특성을 지니고 있다.

남조선에 대한 미제의 식민지 통치의 특성을 정확히 해명하는 것은 미제의 신식민주의 본질을 밝혀 내는 데 도움을 준다.

우선 남조선에 대한 미제의 식민지 예속화 정책과 통치의 중요한 특성은 **남조선을 미국의 침략적 군사 기지로, 값싼 대포'밥 공급지로 전환시키는 데 식민지 침략의 중심적이며 주되는 목적을 두고 있는 점에서 찾아 볼 수 있다.**

과거 일제는 조선을 대륙 침략의 발판으로 리용하면서도 그 침략의 중심 예봉을 자원 략탈에 두었다고 볼 수 있다. 제국주의자들이 식민지를 군사 기지로 리용하는 것은 일반적인 현상이지만 오늘 남조선에서 미 제국주의자들이 감행하고 있는 군사 기지화 정책은 과거 일제에 비해서는 물론 다른 곳에서도 그 류례를 찾아 볼 수 없을 정도로 거대한 규모에서 진행되고 있다.

미국은 조선에 침략의 마수를 뻗치기 시작한 지난 세기 60 년대부터 조선을 장차 극동 침략을 위한 군사 침략적 거점으로 만들려고 획책하여 왔다. 이 야망이 제 2 차 세계 대전 후 더욱 강화되였다. 그것은 전후 일본이 미군의 점령 지대로 또 극동 침략을 위한 전선 후방 기지로 전락됨에 따라 대륙 침략을 위한 군사적 교두보로서의 조선의 전략상 지위가 더욱 중요성을 띠게 된 사정과 관련되여 있다.

남조선을 자기의 군사적 거점으로 만들려는 미제의 침략 계획은 남조선만을 식민지로 강점하려는 것이 아니라 보다 중요하게는 남조선을 전초 기지로 하여 전 조선을 강점하고 나아가서는 극동을 침략하며 세계 제패를 달성하려는 데 있다.

이러한 군사 침략 계획을 실현하기 위하여 미제는 남조선의 중요 항만들과 10여만 정보의 농토를 군사 기지로 전환시켰으며 큰 작전용 비행장만 하여도 30여 개를 건설해 놓았다. 또한 그들은 현재 남조선에 근 6만 명의 미군을 주둔시키고 있으며 남조선 청장년들을 강제 징모하여 무려 60여만 명의 《국군》을 편성해 놓고 있다. 현재 남조선은 인구 1 인 당 병력 수에 있어서 파키스탄의 9.2 배, 버마의 7.3 배, 필리핀의 7.3 배, 타이의 4.9 배에 해당한다.

남조선의 이와 같은 방대한 군사력은 민족 보위와는 아무런 인연도 없다.

그것은 전적으로 미 제국주의자들의 침략 정책에 복무하는 고용 군대이며 신식민주의 통치 체계를 유지하는 무력 장치로 되고 있다.

초대 《주한 미 군사 고문단장》 윌리암 엘 로버트는 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미군 장병 500 명을 현명하게 또한 중점적으로 사용하면 제군의 대신에 총을 쏘아 주는 10만 명의 병사를 훈련할 수 있다. 주한 미 군사 고문단은 그의 산 증거이다…미국의 납세자는 한국에…투하한 자본을 지키는 충견으로서 역할하는 군대, 최소 비용, 최대 효과의 견본인 군대를 가지고 있다》(《뉴욕 헤랄드 트리분》 1950년 6월 5일).

방대한 괴뢰군의 보유는 남조선 인민들에게 있어서 견디기 어려운 부담으로 되나 미 제국주의자들에게 있어서는 그들의 침략적 군사 예산 지출을 대폭 절약할 수 있게 한다. 사실 상 미 제국주의자들은 남조선 괴뢰군을 자기들의 값싼 대포'밥으로 리용함으로써 유지비가 많이 드는 동일한 수효의 미군을 남조선에 배치하는 경우보다 순 병력 유지비의 지출에서만 하여도 현재 매년 약 45억 딸라를 《절약》하고 있다.

이와 반면에 괴뢰 정부는 남조선 청장년들을 미국의 값싼 고용병으로 제공하고 그것을 유지하기 위하여 인민들에게서 짜낸 재정 세입을 거의 전'적으로 군사비에 충당하고 있다.

미 제국주의자들이 남조선을 군사적으로 예속시키는 데 있어서 특징적인 것은 방대한 수효의 괴뢰군을 육성해 놓고도 미군을 대량 투입하여 직접적 군사적 강점을 지속하고 있는 사실이다.

미 제국주의자들이 자기의 침략 군대를 투입하여 직접적 군사적 강점을 지속하고 있는 것은 그들이 아세아 침략의 군사 기지로서 남조선을 중요시하고 있는 데 기인되나 또한 다음과 같은 사정과도 중요하게 관련되여 있다. 그것은:

ㄱ) 혁명 력량의 장성으로 항상 불안속에 있는 남조선 반동 세력에게 정신적 고무를 주어 그들이 동요하지 않고 미국의 침략 정책에 복종하도록 부추기려는 데 있으며

ㄴ) 장성하는 혁명 력량의 영향을 받아 남조선 괴뢰군 자체가 혁명화되여 총'부리를 미제와 괴뢰 통치 집단에 돌리거나 또는 인민 대중의 반미 반《정부》 폭동이 발생하였을 때 괴뢰군이 이에 합류하거나 이를 수수방관하는 경우에 그것을 직접 미군 무력으로 탄압하려는 데 있으며

ㄷ) 만약 식민지 통치가 붕괴될 위급한 사태가 조성되여 다시 미군을 대량적으로 끌어 들이게 되는 경우에 전투 수단이 발전된 조건에서 공간적 및 시간적 제약성은 크게 문제시되지 않으나 침략 행위를 국제적으로 《합법화》하려면 일정한 시간이 요구되고 또한 그것이 경우에 따라서는 난관에 봉착할 수도 있다고 그들이 타산하고 있는 데 있다.

이상과 같은 타산으로부터 미 제국주의자들은 전체 조선 인민들의 반대는 물론 국제 무대에서까지 강력한 규탄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동 방위》라는 명목 하에 20 여년 간이나 남조선에 대한 군사적 강점을 지속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이 군사적 침략 로선을 결코 포기하려 하지 않고 있다.

다음으로 남조선에 대한 미제의 식민지 예속화 정책과 통치의 중요한 특성은 《총독》이나 《고등 판무관》을 파견하여 직접적인 통치를 실시하는 식민지 통치 방식이 아니라 자기의 앞잡이들을 내세워 괴뢰 정권을 조작하고 간접적인 통치를 실시하는 신식민지 통치 방식에 의거하고 있는 데서 찾아 볼 수 있다.

남조선에 대한 미제의 식민지 간접 통치는 침략적 목적을 은폐하기 위한 수단이다. 따라서 간접 통치는 식민지 군사 기지화라는 침략적 목적을 성취하기 위하여 생겨 났으며 그것에 적극적으로 복무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제 2 차 세계 대전 이전 시기에 있어서는 직접적인 통치가 식민지 통치에서 지배적인 방식이였으나 대전 후에는 간접 통치가 지배적인 방식으로 되여 가고 있다.

그것은 대전 후 사회주의가 세계적 체제로 전환되였고 그 영향 하에 민족 해방 운동이 전례 없이 고조됨으로써 제국주의 식민지 체계가 전면적 붕괴기에

직면하여 종전의 낡은 방식대로 식민지 통치를 유지해 나갈 수 없을 정도로 력사적 조건이 변천된 데 기인하고 있다.

이러한 변천된 력사적 환경에서 낡은 식민지 통치 방식을 강요할 수 없는 데로부터 미 제국주의자들은 제국주의적 침략의 일반적 추세에 따라 대전 후 팽창 정책을 수행함에 있어서 간접적인 식민지 통치 방식을 리용하게 되였으며 남조선에 대해서도 역시 간접적인 식민지 통치 방식을 적용하지 않을 수 없었다.

남조선에 간접적인 식민지 통치를 강요함에 있어서 미 제국주의자들은 제 2차 세계 대전 후 력사적 조건이 변천되고 있다는 일반적인 사정과 함께 우리 나라 북반부에 인민 주권이 수립되고 그에 고무되여 나라의 통일 독립과 식민지적 예속을 반대하는 남조선 인민들의 혁명적 진출이 강화되고 있는 우리 나라에서의 정세 발전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리하여 미 제국주의자들은 간접적인 식민지 통치 방식에 의거함으로써 남조선 인민들 속에 《독립》에 대한 환상을 조성하고 인민 대중의 반제 민족 해방 투쟁을 무마하여 식민지 통치의 정체를 엄폐하려 하고 있으며 한편으로는 괴뢰 정부를 통하여 자기들의 침략 정책을 실시함으로써 그것이 빚어 낸 모든 후과의 책임을 괴뢰 정부에 넘겨 씌우고 있다.

미 제국주의자들은 남조선에 설치된 《미 대사관》, 《미 국제 개발처》, 《미군 사령부》, 《미 공보원》, 《미 중앙 정보국 지부》 등 현지 지배 기구를 통하여 남조선의 정치, 경제, 군사, 문화 등 모든 부문의 명맥을 틀어 쥐고 있으며 《원조》를 미끼로 하여 괴뢰 정부에 각종 《조약》들과 《협정》들을 강요하고 거기에 예속적 조항을 삽입시키는 방도로 식민지 지배권을 합법화하고 있다.

이러한 데로부터 남조선 괴뢰 정부는 미국의 괴뢰들 중 가장 철저한 허수아비로 되고 있으면서도 《자주성》이라는 신식민주의 보자기를 쓰고 괴뢰의 추악한 정체를 외관 상 감싸고 있다.

또한 남조선에 대한 미제의 식민지 예속화 정책과 통치의 중요한 특성은 남조선을 자본 투하지나 원료 원천지로서보다는 《원조》를 기본 수단으로 한 과잉 상품 판매 시장으로 전환시키고 있는 데서 찾아 볼 수 있다.

미 제국주의자들은 자기의 선행자처럼 자본 수출을 본격화하지 않고 《원조》를 통한 과잉 상품의 판로 확대에 경제적 침략의 중심을 돌리고 있다. 그것은 그들이 남조선 인민들에 대한 《동정자》로, 《벗》으로 가장하면서 보다 교활하게 경제적 지배를 달성하며 정치 군사적 목적을 쉽게 실현시키려는 것이다.

그들은 1945년부터 1964년까지의 기간 남조선에 84억 딸라의 직접적 군사 《원조》와 36억 딸라의 《경제 원조》를 제공하였다. 미국의 《원조》는 남조선에서 신식민주의를 실현하며 그의 침략적 본질을 엄폐하는 물질적 기초로 되고 있다.

직접적 군사 《원조》는 남조선 괴뢰군을 장비하기 위한 미국제 전투 수단 및 기타 군수품 구입비의 일부를 보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경제 원조》는 미국 과잉 상품을 반입하여 남조선 시장을 독점하고 괴뢰군의 유지비를 유리하게 조달하며 남조선의 군사 경제적 잠재력을 동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미 제국주의자들은 《경제 원조》 물자를 투입하는 방도로 남조선에 소요되는 주요 기계 설비의 거의 전부와 원자재 공급의 70~80%를 독점하고 남조선 시장을 완전히 지배하고 있으며 그 물자 판매 대금을 전입시키는 방법으로 남조선 재정 예산의 30~40%와 금융 자금의 30%를 장악하고 이것을 미끼로 하여 남조선의 내부 재원을 군사적 목적에 동원하고 있다.

그러면서 그들은 《경제 원조》 물자 판매 대금 자체도 극히 일부만을 물질적 가치물을 생산하는 부문에 투하하고 그 압도적 부분을 남조선에서의 재생산

파는 아무러한 관련도 없는 군사비로 지출하고 있다. 공식적 자료에 기초하여 계산하더라도 1962년까지 남조선에 제공된 《경제 원조》 총액의 80.6%가 주로 괴뢰 정부의 재정 체계를 통하여 군사적 목적에 리용되였으며 불과 19.4%가 괴뢰 정부의 재정 체계와 금융 기관을 통하여 군수품의 현지 조달과 미국 과잉 상품의 판로 확대와 관련된 경제적 목적에 리용되였다. 그러나 그것마저도 적지 않은 몫이 이러저러하게 비생산적 목적에 류용되였다.

미 제국주의자들이 《원조》를 경제적 목적을 위하여서가 아니라 주로 군사적 목적을 실현하는 데 리용하고 있는 것은 남조선에 대한 식민지 통치의 중심 예봉을 군사 기지화 정책에 돌리고 있는 사정과 관련된다.

자본 투하를 기피하는 다른 또하나의 리유는 남조선에 대한 미제의 식민지 통치가 항상 심각한 정치적 위기에 직면하고 있는 사정과 관련되고 있다. 미 제국주의자들은 언제 어느 때 조선이 통일되고 저들이 쫓겨 날지 모르는 형편에서 그들은 대규모적인 투자를 적극 꺼려 하는 것이다.

이러한 정치적 불안정성으로 하여 미 제국주의자들은 남조선에 사독점 자본의 진출조차 적극적으로 억제하여 왔으며 《원조》를 통한 경제적 침략도 그 중심을 과잉 상품의 판로를 확대하는 데 거의 집중시키고 있다.

특히 최근 시기 주목되는 것은 미제 자신은 이처럼 자본 투하를 꺼려 하면서도 공업이 발전된 제국주의 국가 일본이나 서독의 자본 침투를 은근히 장려하면서 자신의 《원조》를 축감하려는 사실이다. 그것은 그들이 세계적으로 비난과 저주를 받고 있는 남조선에 대한 식민지 통치의 위기를 완화시키면서 일부 부담을 다른 제국주의자들에게 넘겨 씌우자는 것이며 나아가서 남조선에서의 혁명적 진출이 강화되고 남북 조선의 통일 문제 해결이 성숙된 단계에 돌입했을 때 이를 탄압하는 무력 간섭의 적극적인 동반자를 얻자는 것이다. 이것은 《집단적 식민주의 정책》의 새 수법이라고 말할 수 있다.

미 제국주의자들이 국가 재정 자금에 의한 《원조》 정책을 실시하면서 경제적 침략의 중심을 판매 시장 확장에 돌리고 있는 것은 또한 과잉 생산 공황으로부터 출로를 찾으려는 미국 독점 자본의 탐욕적 지향과도 관련되여 있다.

미 제국주의자들은 과잉 상품을 처분할 시장이 세계적으로 줄어 들고 있는 실정에서 자본의 투자보다 상품을 팔아먹는 것이 절실한 요구로 제기되고 있다. 경제학자들의 계산에 의하면 미제가 아세아, 아프리카, 라텐 아메리카 나라들에서 얻는 총리윤 중 직접적 투자에서 얻는 리윤보다 무역에서 얻는 리윤이 3 배 이상에 달한다고 한다.

특히 남조선에 대한 일제 《원조》는 과잉 상품 투입으로 이루어지며 그것이 60만 《국군》을 대포'밥으로 제공 받는 조건과 실제상 교환되고 있다. 사실상 남조선에 대한 미제의 식민지적 착취에서는 경제적 방도를 통한 리윤 획득보다도 정치 군사적 방도(경제외'적 착취)를 통한 략탈이 기본으로 되고 있다. 초보적인 계산에 의하더라도 1945~1962년간에 미 제국주의자들이 남조선에서 략탈한 총액은 108억 딸라에 달하고 있다. 그 중 정치 군사적 방도를 통한 수탈액의 비중은 무려 85%를 차지하고 있으며 경제적 방도를 통한 수탈액은 15%에 불과하다. 이 정치 군사적 수탈은 미군의 직접적 강점과 방대한 괴뢰군의 유지로써 이루어지며 그것은 강요된 예속 조약 및 협정에 의하여 보장되고 있다.

과거나 현재를 막론하고 이러한 식민지 략탈의 특성은 미제의 통치 정책의 가혹성과 악랄성을 집중적으로 보여 주고 있다.

끝으로 남조선에 대한 미제의 식민지 예속화 정책과 그 통치의 중요한 특성은 남조선 인민들에게 《반공》 사상을 집요하게 선전 부식하면서 남조선을 극동의 《반공》 선전 기지로 삼고 있는 데서

찾아 볼 수 있다.

《반공》은 미제의 군사적 침략에 직접 복무하는 사상적 수단이다. 따라서 《반공》은 제국주의자들이 대내적으로는 인민들의 혁명적 진출을 억압하며 대외적으로는 타국을 침략하며 식민지 민족 해방 운동을 탄압하는 데 복무하고 있다.

미 제국주의자들이 오늘 남조선에서 감행하고 있는 《반공》 선전은 지난 시기 일본 제국주의자들의 그것과 구별되는 일련의 특성을 가지고 있는바 그것은 우선 내용과 수법이 더 교활하고 악랄한 데 있다.

과거 일본 제국주의자들은 공산주의가 《천황제》를 반대한다는 것으로써 《반공》 선전의 기본 내용으로 삼고 맑스주의 조류의 보급을 억제하였다면 오늘 미 제국주의자들은 공산주의의 《침략성》을 운운하면서 로동 운동의 변절자, 타락 분자, 기회주의자들의 공산주의에 대한 악의에 찬 저서와 진술까지 동원하여 《반공》 선전에 리용함으로써 공산주의 사상을 모독하며 사회주의 나라들을 중상하고 있다. 또한 그들은 자유, 민주주의, 인도주의의 계급적 본질을 엄폐하고 자본주의를 《자유 세계》로 허위 가장하면서 공산주의를 이와 량립될 수 없는 《전체주의》로 외곡 선전하는 것을 《반공》 선전의 기본 내용으로 삼고 있다.

《반공》 선전의 수법에서 볼 때 과거 일본 제국주의자들은 공산주의 사상의 전파를 두려워한 나머지 저들이 만들어낸 《반공·리론》을 대중 속에 선전하는 것조차 극히 소극적으로 진행하고 탄압하는 데 매여 달리고 있었다. 그러나 미 제국주의자들은 맑스-레닌주의 학설을 외곡 중상하는 일련의 사이비 리론을 조작하여 공산주의에 대한 《리론적 극복》과 《비판》을 위한 공개적인 선전을 광범히 전개하고 있다. 이것은 제 2 차 세계 대전 후 인민 대중 속에 맑스-레닌주의 학설의 영향력이 비상히 강화된 사정과 관련되여 있다.

미제의 《반공》 선전의 다른 특성은 일제보다 더 악랄하고 횡포한 방법으로 공산주의 사상의 전파와 공산주의자들의 활동을 발광적으로 탄압하면서 《반공》 선전을 진행하고 있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미 제국주의자들은 전대미문의 파쑈화 정책을 확대 강화하고 있는바 오늘 남조선은 군사력의 보유에서 뿐만 아니라 경찰력의 보유에서도 일제 식민지 통치 시기의 그것을 훨썬 릉가하고 있다. 괴뢰 정부의 경찰력은 1964년 말 현재 일제 식민지 통치 시기 전 조선에 있던 경찰력의 1.8 배에 해당하는 약 3만 5,000 명에 달하고 있다.

미 제국주의자들은 이러한 방대한 경찰력과 첩보망을 배경으로 하여 괴뢰 정부로 하여금 《반공》을 《국시》로 선포케 하고 맑스-레닌주의적 정당, 단체들의 비법화는 물론, 지어는 중간 정당과 일부 우익 정당들의 활동까지도 금지하고 있으며 남조선 인민들에게서 언론, 출판, 결사, 집회, 시위 등 초보적 민주주의적 권리와 자유마저 박탈하고 그들에게 극악한 파쑈적 탄압을 가하고 있다.

미 제국주의자들이 이처럼 악랄한 방법으로 《반공》 선전을 감행하면서 남조선을 《반공》 선전 기지로 전환시킨 것은 남조선에 조성된 정세와 그리고 전후 미국의 극동 정책과 관련되고 있다.

우선 그들이 남조선에 조성된 정세와 관련하여 《반공》 선전에서 노리는 목적은 남조선에서 식민지 통치의 정치적 지주로 되고 있는 연약한 반동 세력을 부추기며 반면에 반미 기세가 높은 인민들의 수족을 얽어 매고 이목을 가리기 위한 것이다.

다른 측면으로는 미 제국주의자들이 남조선을 《반공》의 모범으로 내세우고 극동에서 미국의 《반공》 선전 기지로 삼으며 노리고 있는 점이다. 그들은 남조선에 《반공 쎈터》를 조직하고 《반공》 선전을 강화하여 자기의 손때 묻은 남조선 괴뢰들에게 《반공》을 선창시킴으로써 인기 없는 극동 괴뢰들을 《반공》 합창에서 리탈시키지 않도록 자극을 주

자는 것이다.

이와 같이 과거 일제의 《반공》 사상 주입이 있었던 데다가 8.15 후 미제의 《반공》 선전이 체계적으로 강화된 사정은 소부르죠아 계층이 절대 다수를 차지하며 대중의 문화 수준이 매우 낮은 남조선 사회에 적지 않은 후과를 끼치고 있다.

오늘 남조선에 조성된 심각한 사회 정치적 혼란과 경제적 파국, 참담한 민생고는 이상과 같은 특성을 가진 미제의 식민지 예속화 정책과 그 통치의 직접적인 산물인 것이다.

결론적으로 종합하면 미제의 식민지 예속화 정책과 통치에서 나타난 개별적 특성들은 그 침략적 목적 달성에서 각기 특수한 위치에 놓여 있을 뿐만 아니라 개별적 특성과 특성들이 상호 작용하며 제약하는 것을 보게 된다.

여러 가지 형태로 표현된 제 특성들은 남조선에 대한 미제의 침략 정책 수행에서 각이한 역할을 놀고 있는바 어떤 특성들은 침략 정책 수행에 본질적 영향을 미치면서 사태 발전을 좌우하지만 기타 특성들은 그렇지 못 하다.

이미 우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미제는 남조선에 대한 식민지 침략의 주되는 목적을 군사 기지화 정책을 실현하는 데 두었다. 이것이 미제의 식민지 예속화 정책에서 기본적이며 중심적인 환절을 이루는 특성으로 된다.

그렇기 때문에 이여의 특성들도 농후한 군사적 성격을 띠고 있으며 그것들은 례외 없이 군사 기지화 정책에 종속되여 자기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것이다.

괴뢰 정권을 통한 간접 통치는 미국의 고용병인 60여만의 《국군》을 《민족군》으로 위장하는 방패물이며, 《원조》의 제공은 경제를 미국의 군사적 부속물로 만들며 군비 확장을 강요하고 군사비의 전가를 합리화하는 물질적 수단이며, 《반공》 선전은 전쟁 준비 책동과 침략 행위를 엄폐하고 인민들의 민족적 및 계급적 각성을 무마하는 수단이다.

미제는 이처럼 방대한 무력과 남조선 군사 기지를 리용하여 전 조선을 삼켜보려고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고 있으면서도 각방으로 자신의 흉악한 본질을 가리고 있다. 그러므로 미제의 남조선 침략에서 각이하게 발현된 제 특성들은 본질에 있어서 군사 기지화 정책을 방조하기 위하여 파생된 보조적 수단으로서 이것들은 남조선에 대한 미제의 침략적 본질을 가리는 신식민주의 정책의 기본을 이루고 있다.

오늘 남조선에서 미제 침략군의 강점과 그의 군사 기지화 정책은 남조선 혁명의 복잡성과 간고성과 장기성을 규제하는 기본 요인으로 되고 있다.

그러므로 남조선에서 혁명을 수행하며 조국 통일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먼저 미제 침략군의 강점과 그의 군사 기지화 정책을 종식시키기 위한 반미 구국 투쟁에 나라의 전체 혁명 력량을 조직 동원하여야 한다.

현대 자본주의와 경기 순환

현 호 범

부르죠아 변호론자들과 개량주의자들은 전후 자본주의 경제의 《번영》과 《공고성》에 대하여 극구 찬미하면서 이러저러한 자본주의 《변화론》을 떠들고 있다. 그들은 마치 현대 자본주의는 자기의 경제 구조를 《변화》시킴으로써 과거와는 다른 경기 순환 행정을 걷게 되였으며 재생산의 위기도 현저히 줄어 들었다는듯이 주장하고 있다.

이것은 가일층 심화되여 가고 있는 전반적 위기 하에서의 자본주의 경제적 과정의 본질을 은폐하려는 부르죠아 변호론자들의 궤변이다.

전후 자본주의 나라들에서의 경기 순환 운동은 현대 자본주의 경제의 《공고성》이 아니라 도리여 그 심각한 모순적 과정들을 보여 주고 있다.

《세계 자본주의 경제는 극히 불안정한 상태에 있으며 새로운 더욱 심각한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김 일성 선집 제 5 권, 223 페지).

1

제 2 차 세계 대전 후에 주요 자본주의 나라들의 경제는 일정한 호경기를 겪게 되였으며 《경제적 번영》의 국면을 가져 오게 되였다.

이 《번영》의 본질 및 그것과 경기 순환 간의 련관을 밝히기 위해서는 우선 이 호경기가 무엇에 기초하고 있는가에 대하여 살펴야 한다.

전후 자본주의 경제의 《번영》을 보장해 한 기본적인 전제 조건은 자본주의 나라들에서의 국가 독점 자본주의의 강화이다.

모든 제국주의 교전국들을 격렬한 열전으로 내 몬 제 2 차 세계 대전은 독점에 의한 국가의 종속을 강화하고 국가 독점 자본주의를 비상히 장성시켰다. 국가 독점 자본주의는 전후 시기에 와서 새로운 력사적 조건에 적응하게 더욱 강화되였으며 독점들은 그것을 위기에 직면한 자본주의 체제를 유지하며 최고 리윤의 취득을 담보하는 기본 도구로 리용하였다.

국가 독점 자본주의의 강화에 기초하여 독점들은 《랭전》을 고취하면서 군비 경쟁과 경제 군사화의 조건을 마련하였으며 고정 자본의 대량적 갱신을 위한 거액의 자금 공급을 국가적으로 담보하게 하였다. 투자에 대한 특별 감세 조치 및 높은 감가 상각률의 설정 그리고 거액에 달하는 국가 자금의 융자와 공급 등이 바로 그것이였다.

오직 국가 독점 자본주의적 기구에 의해서만 로동 계급과 근로 대중에 대한 대규모적인 착취와 략탈이 보장될 수 있었다. 독점들은 인플레 하에서 동결 상태에 빠졌던 전시의 낮은 임금 수준을 전후에도 방대한 실업 인구에 기초하여 그 대로 유지하였으며 기술 진보에 의거하여 로동 계급에 대한 착취를 강화하는 각종 《기량》을 발전시킴으로써 거액의 리윤을 짜 냈다. 따라서 이것들은 거대한 규모로 전개되는 기본 투자의 로대로 되였다.

발광적으로 전개되는 기본 투자와 생산 능력의 급속한 확대는 불가피적으로 그에 적응한 시장 문제의 해결을 요구하였다. 특히 전후 독점 자본의 세력 범위가 현저히 축소된 조건에서 주요 자본주의 나라들의 시장 문제는 첨예하게 제기되였다.

그들은 시장 문제 해결을 위한 기본적인 출로를 군비 경쟁과 경제의 군사화에서 찾았다. 따라서 경제의 군사화는 모든 주요 자본주의 나라들을 포괄하게 되였는바 그 선두에는 두말할 것도 없이 미 제국주의자들이 서 있었다. 이것은 뒤흔들리는 세계 자본주의 체계를 부지하면서 세계 제패의 야망을 실현해 보려는 미제의 기본 전략에도 부합되는 것이였다.

전후 자본주의 나라들의 경제의 군사화의 특징은 그것이 부단한 군비 경쟁과 밀접히 결부되여 진행된 데 있다.

군사 기술은 평화 시기에는 보통 어난번 전쟁 시기의 수준에 머물러 있으며 새 전쟁의 도발을 계기로 하여 크게 발전하군 한다. 그러나 전후에는 세계적인 큰 전쟁 시기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군사 기술은 전시에 못지 않게 급속히 발전하였고 군비 경쟁도 또한 부단히 강화되였다.

이것은 일방으로는 제국주의자들 특히 미 제국주의자들의 항시적인 새 전쟁 도발 정책과 타방으로는 경제의 군사화에 대한 독점들의 높은 요구와 관련된다. 대규모적인 전쟁으로 인한 무기의 물리적 소모가 크게 일어날 수 없는 조건에서 군수 물자의 대량적인 생산 및 판매를 보장하기 위해서 독점들은 군사 기술을 급속히 발전시켜 살륙 무기를 부단히 《도덕적》으로 마멸케 함으로써 군사 장비를 간단 없이 교체하는 것이 필요하였다. 이처럼 독점들은 치열한 군비 경쟁과 경제의 군사화에 의하여 대량적인 무기 생산과 판매를 실현함으로써 경기를 인위적으로 자극하고 공업 생산을 다소 높일 수 있었던 것이다.

전후에 광범히 전개된 고정 자본의 대량적 갱신도 자본주의 나라들의 공업 생산 장성을 크게 자극하였다.

일반적으로는 전시, 특수적으로는 전쟁 전 시기에 갱신되지 못했던 고정 자본이 전후에 대량적으로 갱신되였다. 설비 갱신은 우선 기계 제작 공업에 제기되였으며 방대한 기계 설비에 대한 수요는 이와 련결된 금속, 광업, 연료-동력, 전재 등 일련의 중공업 부문들과 일부 경공업 부문의 발전을 자극하였다. 이로 말미암아 제국주의 나라들의 산업 구조에는 본질적인 변화가 일어났으며 공업 생산에서 중공업의 비중이 결정적으로 제고되였다.

기술 진보와 급속한 설비 갱신은 종전에 없었던 일련의 새로운 공업 부문들인 전자 공학, 합성 재료 및 원자력의 리용 등과 같은 부문들을 새로 창설케 하여 설비 투자를 일층 자극하게 되였다.

설비 갱신은 공업 부문 뿐만 아니라 기타 부문들에도 파급되였는바 전후 미국을 비롯한 농산물 수출국들에서 실시된 농촌 경리의 기계화, 전기화 및 화학화와 주요 자본주의 나라들의 상업, 계산-사무 분야에서의 각종 자동 판매기, 자동 계산기 등의 출현이 바로 그것이였다.

제 2 차 세계 대전의 극심한 피해를 회복하기 위한 요구도 또한 전후 자본주의 공업 생산을 자극한 중요한 요인의 하나로 된다.

전쟁 자체가 구라파와 아세아의 넓은 지역을 포괄하였고 다년 간에 형성된 물자 가치물이 전쟁으로 일시에 탕진된 조건에서 전후 시기의 생산이 전전 수준을 회복하였을 때에도 생산 시설과 주민들의 생활은 전전 수준을 따라 갈 수 없었다. 이것은 추가적인 설비와 자재의 공급을 요구하였으며 주택과 내구성 소비 물자에 대한 수요를 의연히 크게 제기함으로써 생산을 일정하게 자극하였다.

이와 같은 사정들에 의하여 전후 자본주의의 경제적 《번영》이 이룩되였는바 이 《번영》의 본질은 두말할 것도 없이 그것이 형성되는 과정 자체에 의하여 명백히 나타나고 있다.

부르죠아 변호론자들과 기회주의자들이 떠들고 있는 전후 자본주의 《경제 번영》이란 사실 상 군사 경제의 확대이며 중공업의 일면적인 발전인 것이다. 경제의 군사화와 설비의 급격한 갱신은

자본주의 경제에 심한 기형성의 흔적을 남겨 놓고 있다.

전후 자본주의 공업 생산은 약 3 배로 장성하였지만 그것은 주로 중공업의 일면적 장성에 기초한 것이며 소비재 생산 특히 근로 대중의 소비 물자는 거의나 장성하지 못하였다. 다음 표에 나타난 미국 공업의 몇 개 중요 물자의 생산 동태는 이 관계를 잘 보여 주고 있다.

부 문	1947년 수준에 비한 1955년 상반년의 증감
항공기	+417
알루미니움	+172
플라스마스 제품	+133
자동차	+ 99
전기 기계	+ 90
강철	+ 51
가구류	+ 17
피혁류	− 17
모직물	− 30

생산의 급속한 장성과 거대한 규모에 달하는 리윤 증대에 비한 근로 대중의 비참한 상태 간의 배리는 그 어느 때보다 강화되였다.

그러므로 전후 자본주의 공업 생산의 장성과 《경제 번영》은 본질 상 군사화의 궤도 우에서 빈궁의 축적을 수반하는 부의 축적을 반영하는 것으로써 근로 대중과는 하등의 인연도 없는 것이다. 이와 같은 부르죠아적 《번영》은 그 자체가 생산과 소비 간의 대립을 강화하면서 제국주의 경제의 심각한 모순을 첨예화시키고 있다. 전후 자본주의 경제에 활기를 붙어 넣던 요인 중 전쟁 피해의 복구와 관련된 자극은 이미 오래 전에 작용을 끝마쳤고 경제의 군사화와 설비 갱신의 두 요인만이 제한되여 작용하게 된 조건에서 자본주의 재생산은 더욱 불안정한 지반 우에서 모순적 과정을 강화하고 있다.

2

자본주의 《경제 번영》론에 대한 부르죠아 변호론자들의 온갖 찬사에도 불구하고 전후 자본주의 경제의 경기 순환 과정은 심각한 모순과 파동 속에서 전개되고 있다.

《자본주의적 생산은 2 보 전진하고 1 보(때때로 완전히 2 보) 퇴각하는 비약에 의해서 밖에는 발전할 수 없다》(레닌 전집 제 5 권 1 분책, 128 페지)고 한 레닌의 명제는 현대 자본주의 하에서도 그 대로 타당하며 다만 그 발현에서 일련의 특성들을 보이고 있을 뿐이다.

전후 자본주의 경기 순환 과정에는 자본주의 전반적 위기의 가일층 심화와 관련되는 일련의 새로운 특징들이 나타나고 있다.

전후 자본주의 경기 순환 행정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과잉 생산 공황이 경제의 군사화의 토대 우에서 부단히 전개되고 있는 것이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자본주의 나라들에서 경제의 군사화는 공황의 일시적인 저지책이다. 제 2 차 세계 대전 전에 있은 공황들은 주로 이와 같은 방법으로 모면되였거나 앞으로 밀리여 나갔던 것이다.

전후 시기에 와서 경제의 군사화는 자본주의 생산 장성의 기본적 요인으로 전화된 것 만큼 그것은 공황 방지의 일시적 대책으로서가 아니라 제국주의 경제의 항구적 요인, 일반적 조건으로 전화되였다.

일반적으로 전쟁이 끝나면 고도로 군사화되였던 제국주의 경제는 평화적 궤도 우에서 재편성되며 전시에 파괴되였던 금 본위제는 회복되고 경제는 다시 정상적인 재생산의 토대 우에 올라 서게 된다.

그러나 제 2 차 세계 대전 후에 사태는 달라지게 되였다. 미국은 전후에도 군사비를 전쟁 전 수준의 10 배 이상으로 유지하였고 그 후 생산 감퇴에 직면하게 되자 군사비를 더욱 증가시켰으며 조선 전쟁의 도발과 함께 그것을 일약 4 배 이상으로 증가시켰다. 조선 전쟁이 끝난 후에도 미제는 군사비를 거의 축감하지 않았으며 1962~1963 회계 년도에

이르러서는 조선 전쟁 시기의 최고 수준을 릉가하였으며 그 후 계속 증가시키고 있다.

이리 하여 제국주의 경제는 군사화의 궤도 우에서 조금도 물러 섬이 없이 군사화를 부단히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갔다. 군사화가 제국주의 경제의 항구적 요인으로 전화된 조건에서 독점들은 군사화의 심도와 규모를 한 계단 한 계단 높이는 방법으로 공황과 침체로부터 일시 빠져 나가군 하였다.

경제의 군사화가 《중독화》된 이제 와서는 그 도'수를 높이는 방법 외에는 다른 출로가 없게 되였다. 독점들은 과잉 생산에 대처하여 군사화의 규모를 적절히 확대해 나가기만 한다면 비록 재생산의 모순은 앞으로 계속 밀고 나가더라도 공황의 폭발은 면닫아 방지해 낼 수 있다고 타산하였다. 이로부터 최대 독점들은 한편으로는 국가 독점 자본주의를 강화하여 독점 자본의 국가적 《작용력》을 확대하면서 다른 편으로는 경제의 군사화를 계속 강화하는 길로 나아갔다.

그러나 그들의 온갖 타산에도 불구하고 공황은 저지되지 않았으며 더욱 빈번하게 반복되였다. 1948~1949년 공황, 1953~1954년 공황, 1957~1958년 공황, 1960~1961년 공황이 이것을 잘 말해 준다.

이와 같이 치열한 군비 경쟁과 군사화 속에서 경제 공황이 부단히 반복되고 있는 점에 전후 경기 순환 발전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 있으며 그리고 바로 여기에 현대 자본주의 경제의 취약성이 가장 집중적으로 표현되고 있다.

전후 자본주의 경기 순환 행정의 두 번째 특징은 재생산의 심각한 모순성을 반영하여 주기가 현저히 단축된 것이다.

자본주의적 재생산의 주기적 행정에서 언제나 중심적이며 결정적인 국면으로 되는 것은 공황이며 기타 국면들은 과잉 생산 공황 발전의 준비 난계로 된다. 따라서 공황에서 시작하여 공황으로 끝나는 재생산 주기의 길이 문제는 자본주의 경기 순환에서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전후 시기에 재생산 주기의 길이는 과거의 어느 시기보다도 단축되였는바 1961년까지의 16 년 간에 미국에서는 4 차례의 공황이 일어 났다. 재생산 주기의 길이는 독점 이전 자본주의 하에서 8~12 년이였고 자본주의 전반적 위기 제 1 단계 하에서는 5~6 년이였다면 제 2 차 세계 대전 후 시기에 와서는 4 년으로 단축되였으며 공황과 공황 간의 길이도 날을 따라 짧아져 가는 경향을 나타내고 있다.

재생산 주기를 이처럼 단축시킨 요인은 두말할 것도 없이 자본주의 모순의 첨예화이며 생산과 소비 간의 적대적 모순의 격화이다.

전후 생산과 소비 간의 모순을 더욱 첨예화시킨 것은 경제의 군사화이다. 재생산 행정에 미치는 영향으로 보아 경제의 군사화는 2중적 작용을 논다. 그것은 일방으로 일정한 기간, 일정한 조건 하에서 경기를 자극하며 공황을 일시 저지시키거나 그로부터 벗어 날 수 있는 길을 열어 주는 동시에 타방으로 경제의 기형화를 증대시키며 통화 팽창을 강화할 뿐만 아니라 대중에게 군사화의 과중한 부담을 들씌워 그들의 지불 능력 있는 수요를 축감함으로써 공황의 도래를 더욱 빈번하게 한다.

경제의 군사화와 함께 전후 맹렬히 전개된 고정 자본의 갱신도 같은 방향에서 작용하고 있다. 최고 리윤을 취득하면서 경쟁자들을 타승하기 위한 독점체들 간의 경쟁은 생산비를 낮추기 위한 설비 갱신전을 촉발시켰다. 독점체들은 높은 감가 상각률을 설정하여 설비 투자를 대대적으로 전개하였다. 일본 제조업에서의 감가 상각률은 1936년 하반기에 5.7%였다면 1963년 하반기에는 13.6%로 증가되였으며 자동차 공업에서는 그것이 26.9%에까지 달하였다.

이것은 생산 건물, 구축물을 제외한 현대적 기계 설비의 수명을 사실 상 5~6 년이라는 짧은 기간으로 설정하고 있다는 것을 말해 준다.

현대 자본주의 경제의 주요한 특징으

로 되고 있는 설비 갱신에 기초한 중공업의 일면적 장성은 생산 능력의 확대와 대중의 구매력 간의 모순을 직접적으로 자극하기보다는 주로 자본가 호상간의 관계를 반영하는 것으로 된다. 이것은 그 만큼 공황의 직접적 원인을 자극하지 않으면서 자본주의 생산의 장성을 보장할 수 있었으며 따라서 독점들은 현대 자본주의 경제를 이 방향으로 나가게 하고 있다.

그러나 사회적 재생산을 통일적 련관속에서 볼 때 생산 수단 생산은 소비재 생산과 오래 동안 분리되여 진행될 수 없다. 급속히 전개되는 설비 갱신은 우선 중공업 부문의 생산 능력의 확대를 초래하며 그것은 이윽고 소비재 생산 부문의 능력 확대도 초래하게 되는 만큼 생산과 소비 간의 모순을 격화시키지 않을 수 없으며 결국 공황의 도래를 빈번케 하게 된다.

경제의 군사화와 고정 자본의 대량적 갱신은 실제 상 공황의 방지책으로 리용되고 있는바 독점들은 공황이 일어나면 군사화의 도'수를 높이고 설비 갱신을 더욱 강화하여 경기 회복을 자극한다. 이러한 형편에서 경제의 군사화와 설비 갱신은 공황의 충분한 전개를 억제한다. 공황이 충분히 전개되지 못한다는 것은 생산 감퇴가 지불 능력 있는 수요의 수준에까지 이르지 못하고 인위적인 경기 자극책에 의하여 생산이 다시 자극 받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리 하여 시간이 얼마 가지 않아 또다시 공황이 일어 나게 되므로 그 주기는 더욱 단축되는 것이다.

바로 이러한 원인에 의하여 경제 공황은 더욱 빈번해지고 더한층 발작적인 것으로 되여 현대 자본주의 경제를 커다란 불안과 심각한 모순 속에 몰아넣게 되는 것이다.

전후 경기 순환 발전의 세 번째 특징은 전시에 파괴되였던 세계 자본주의 재생산 주기의 동시성이 점차적으로 회복되여 가고 있는 것이다.

자본주의 세계 시장이 형성되고 나라들 간의 경제적 련계가 밀접해 감에 따라 개별적 나라들을 휩쓸던 산업 공황은 다른 나라들에도 파급되여 점차 세계적 공황으로 발전하게 된다. 지난 세기 중엽 이래 공황은 항상 여러 나라들을 포괄하는 세계적 성격을 띠여 자본주의 각국의 경기 순환 행정을 동시적으로 발전하게 하였다.

제 2 차 세계 대전을 계기로 전통적으로 지배해 오던 경기 순환 행정의 동시성은 파괴되였다. 전후의 첫 두 차례의 공황은 미국에서만 일어 났으며 다른 자본주의 나라들에 크게 파급되지 않았다.

전후 경기 순환 발전의 이와 같은 비동시성은 무엇보다도 제 2 차 세계 대전이 여러 나라들에 미친 각이한 영향과 관련된다.

전쟁은 경기 순환 행정의 작용의 견지에서 볼 때 자본주의 나라 경제에 각이한 결과들을 가져 왔다. 미국은 군사적 궤도 우에서 경제를 고도로 팽창시킨 채 전쟁으로부터 빠져 나온 것 만큼 전쟁 기간이 경기 순환 행정의 호경기 국면에 해당하였다. 독일과 일본은 전시에 경제가 심히 파괴되였을 뿐만 아니라 전패국으로 심한 혼란 상태에 빠지게 된 결과에 경기 순환 행정으로 볼 때는 공황 국면에 해당하였다고 말할 수 있으며 영국과 프랑스는 비록 경제의 파괴와 생산 감퇴는 심각하였으나 전승국의 지위에 처해 있었기 때문에 큰 혼란 상태에는 빠져 있지 않았다.

호경기 국면에서 전쟁으로부터 벗어져 나온 미국에서는 곧 공황 국면이 기다리고 있었고 격렬한 공황 국면에서 전쟁으로부터 벗어져 나온 독일과 일본에서는 상당한 혼란을 수반하는 불경기를 거쳐야 활기 증진, 호경기를 경과할 수 있었으며 영국과 프랑스에서는 약간한 불경기 끝에 곧 활기 증진, 호경기가 기다리고 있었다.

전후 경기 순환 행정의 비동시성은 또한 여러 제국주의 나라들에서의 경제의 군사화와 결부되는 대규모적 기본 투자의 시기 상 차이와도 관련된다.

경제의 군사화는 여러 나라들에서 각

이한 규모와 수준에서 진행되였다. 그런데 군사화를 강화하는 조치는 자본주의 나라들에서 서로 다른 시기에 실시되는 것 만큼 경기가 인공적으로 자극되는 시기는 나라마다 다를 수 있다. 례컨대 핵 무기의 창설을 위한 기본 투자의 대규모적 실시는 미국에서는 이미 20년이라는 력사를 가지고 있으며 프랑스는 최근 년간에 이러한 투자를 강행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서부 독일과 일본에서는 신형 무기의 생산을 위한 대규모적 기본 투자가 최근 시기에 집중적으로 실시되고 있다.

경기 순환 행정의 동시성을 파괴한 이와 같은 요인들은 오래 동안 작용할 수 없었으며 전후 일정한 기간이 경과함에 따라 자기의 작용력을 점점 약화시키게 되였으며 따라서 1956년 경부터는 경기 순환의 동시성이 점차 회복되여 갔다.

미국에서 시작된 1957~1958년 경제 공황은 카나다와 서구라파 및 일본에 파급되여 일정하게 세계적 공황의 면모를 갖추게 되였다. 전후 제 4 차 공황이였던 1960~1961년 공황도 미국에서 시작하여 여러 자본주의 나라들에 파급되여 세계적 공황의 성격을 띠게 하였다.

그러나 공황은 아직도 여러 자본주의 나라들을 일시에 침습하지 않았으며 생산의 감퇴률에 있어서도 나라마다 심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것은 경기 순환의 동시성을 파괴하던 첫째 요인은 이미 오래 전에 소멸되였으나 둘째 요인은 오늘 그 작용력이 약화되였다 하더라도 아직 계속 작용하고 있는 사정에 기인된다. 물론 이 요인도 작용력을 약화함으로써 앞으로 경기 순환 행정의 동시성 경향은 더욱 강화되게 될 것이다.

경기 순환 발전의 동시성의 점차적 회복은 한 나라가 다른 나라를 희생으로 하여 공황으로부터 빠져 나갈 수 있는 길을 차단하게 된다. 그리 하여 특히 최대 독점들이 오늘날 《반공황》 조치의 중요 방책의 하나로서 널리 리용하고 있는 대외 수출의 증대를 더한층 불가능하게 만들고 있다. 미 제국주의자들의 《바이 아메리칸》 정책 역시 경기 순환 행정의 동시성의 회복에 따라 더욱 더 실현 불가능한 것으로 되고 있다.

전후 자본주의 재생산 행정의 중요한 특징의 하나로 되고 있는 경기 순환 발전의 동시성의 점차적 회복은 오늘 전체로서의 세계 자본주의 경제 체계의 모순을 더한층 첨예화시키는 방향으로 작용하고 있다.

자본주의 경제는 전후 자기의 경기 순환 행정에서 대략 이와 같은 특징들을 띠면서 극히 불안정한 재생산의 지반 우에 서게 되였다.

부르죠아 변호론자들은 전후의 공황이 《경미한 생산 감퇴》를 보이고 있다는 것으로 하여 퍽 만족하고 있으나 그것은 사물에 대한 피상적 고찰이 빚어낸 변명이다. 전후의 공황들은 얼핏 보면 모두 10% 내외의 생산 감퇴(최고 14%)를 가져 온듯 하나 그것은 사실상 급속한 군비 경쟁 하에서 즉 막대한 물자 가치들이 군부에 항구적으로 밀려 들어 가는 조건 하에서 전개되였으며 공황이 폭발되자마자 국가 독점 자본주의적 기구가 발동되여 군사 주문을 더한층 증대하고 비생산 건설을 위주로 하는 기본 투자와 대외 수출을 강화하는 등 필사적인 조치들에 의하여 강구된 것이다.

바로 이와 같은 인위적인 《반공황》 조치의 결과에 폭발된 공황은 충분히 전개되지 못 하여 또다시 폭발하군 하고 있으니 전후 자본주의 경제 공황의 심각성은 바로 이러한 점에서도 찾아야 할 것이다.

3

자본주의 경제는 1961년 1.4 분기에 끝난 전후 제 4 차 공황으로부터 5 년간의 상대적 《안정기》를 경과하고 있는데 이것은 전후에 있어 보지 못한 긴 주기로 된다.

그러나 이것이 부르죠아 변호론자들이 말하는 전후 자본주의 경제의 그 어

면 《변화》로 되며 독점들에게 다소간의 《안도감》을 줄 수 있는 조건으로 되는가. 자본주의 재생산의 지반 우에는 최근 년간에 그 어떤 《변화》가 생겨 났는가.

제반 사실이 보여 주는 바와 같이 외견 상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전후 자본주의 경제는 모순에 찬 행로를 걸어 왔으며 그 모순은 날을 따라 강화되고 있다.

세계 자본주의 경제의 재생산 행정에서 미국은 매우 큰 지위를 차지하고 있다. 제국주의 아성으로서의 미국은 자본주의 세계 공업 생산의 근 절반을 차지하고 있으며 생산 시설의 기술 장비에 있어서도 가장 높은 나라로 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자본 및 상품 수출과 기타의 형태로 세계 각국에 침투하여 여러 자본주의 나라들과 밀접한 경제적 련계를 맺고 있다.

경기 순환 행정의 동시성의 점차적 회복에 따라 미국에서의 경기 운동은 다른 자본주의 나라들에 심대한 영향을 미치지 않을 수 없다.

미국에서의 경제 공황의 전제 조건은 이미 여러 해 전부터 성숙되여 왔다. 미제는 도래할 공황을 방지하여 앞으로 밀고 나가기 위하여 갖은 수단을 다 쓰고 있다. 그들은 우선 군비 경쟁을 강화하며 군사비를 대대적으로 증가시켜 련방 예산 지출을 확대하는 데로 나아가고 있다. 미국의 군사비는 1960~1961 회계 년도의 475억 딸라로부터 1966~1967 회계 년도에는 그것이 605억 딸라로 증가되였으며 우주 개발비, 재향 군인비 명목으로만도 100억 딸라 이상의 막대한 금액이 지출되고 있다. 여기에 대외 《원조비》 및 기타 해외 침략을 위한 비용까지 포함시킨다면 총 예산 지출 규모는 실로 수년 전의 900억 딸라 선으로부터 1,128억 딸라라는 엄청난 수'자에 이르고 있다.

군사비와 련방 예산의 이와 같은 급격한 팽창은 경기에 대한 국가적 자극을 강화함으로써 공황을 일적하게 멈춰 세워 앞으로 밀고 나갈 수 있으나 이것이 결코 《공고한》 방지책으로는 될 수 없다.

미 제국주의자들은 보다 적극적인 방법, 현존하는 물자 가치물의 대량적인 소비를 수반하는 조치 없이는 증대되는 과잉 생산을 더는 완화시킬 수 없게 되였다.

미제가 세계 도처에서 부단히 전쟁 소동을 일으키고 있으며 특히 윁남 침략을 확대하여 남부 윁남 전쟁을 《특수 전쟁》으로부터 《국부 전쟁》으로 확대하고 있는 목적의 하나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다. 그들은 윁남 전쟁을 통하여 아세아에서 뒤흔들리는 《반공》 체제를 수습하여 세계 제패 계획을 실현하려 할 뿐만 아니라 이를 통하여 자국의 과잉 생산을 완화하며 경기를 자극하여 공황을 일시 모면해 보려 망상하고 있다.

물론 미국 독점 자본은 윁남 전쟁을 통하여 재생산 위기를 다소 모면하는 《효과》는 얻었으나 반면에 국내외적인 모순을 야기시켜 그들로 하여금 새로운 엄중한 난관에 봉착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였다.

미제의 침략 전쟁은 막대한 물자 가치물을 탕진케 하여 근로 대중의 조세 부담과 통화 팽창 및 국가 채무를 격증시킴으로써 근로 대중의 지불 능력 있는 수요를 더한층 감소시키고 있으며 이것은 심대한 인명 손실과 결부되여 국내에서의 사회적 및 계급적 모순을 더욱 첨예화시키고 있다.

오늘 미국에서 윁남 침략 전쟁을 반대하는 인민 대중의 투쟁이 날로 확대되고 있는 것도 바로 이러한 사태의 반영인 것이다.

미제의 윁남 전쟁은 국내에서 뿐만 아니라 대외적으로도 커다란 《역효과》를 가져 와 그들로 하여금 세계 평화 애호 인민들로부터 뿐만 아니라 자기 《동맹국》들로부터도 더욱 고립되게 하고 있다.

미국 독점체들은 또한 설비 갱신을 발광적으로 진행함으로써 대외 시장에 대한 지배력을 확대하여 공황을 앞으로 밀고 나가려 하고 있다. 그러나 자본

주의 발전의 불균등성으로 인한 서구라파 나라들의 경제의 급속한 장성과 자본주의 시장의 제한성으로 인하여 그것은 독점들 간의 모순과 암투를 격화시킬 수 밖에 없다.

제국주의 독점 지배층들의 그 어떤 《방지책》도 병들어 썩고 있는 자본주의 경제를 위기로부터 구원해 낼 수 없다.

군비 경쟁과 치열한 소모전으로 재생산의 모순을 일시 가리여 오던 미국 경제에 이러한 소모의 도'수가 다소라도 완화되기만 하면 다시금 파국적 위기가 도래하게 되리라는 것은 의심할 바 없다. 이것은 조선 전쟁이 끝나자 곧 경제 공황이 폭발되였던 력사적 경험으로 보아도 명백하다. 미국 경제에서의 파동은 같은 방향으로 모순을 부단히 축적하여 온 기타 자본주의 나라 경제에까지 미치여 그 작용 범위를 더욱 확대하리라는 것도 의심할 바 없다.

미제를 두목으로 하는 제국주의 나라들의 침략과 전쟁 정책은 그들의 주관적 욕망과는 반대로 세계적 규모에서의 모순을 첨예화시킴으로써 결국 제국주의 진영의 가일층 쇠퇴와 몰락 과정을 촉진시키고 있다. 바로 이 점이 미제의 전쟁 정책의 현 국면이 내포하고 있는 최대의 약점이며 미제로 하여금 진퇴량난의 막다른 골목에 빠지게 하고 있는 모순점이기도 하다.

근 로 자 제 6 호 (루계 292 호)

편집위원회

발행소 • 근 로 자 사 주 소 • 평양시 중구역 경상동
인쇄소 • 평양 종합 인쇄 공장
인 쇄 • 1966년 6월 5일 발 행 • 1966년 6월 10일

ㄱ—63163 값 50 전